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 : IEA ICCS 2016 -총괄보고서-

- ▶ 책임연구원 : 장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성은모(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최홍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문연구위원)
진성희(인하대학교·연구교수)
김균희(인하대학교·연구원)
- ▶ 연구보조원 : 이용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발 간 사 ■ ■ ■

21세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사회를 지식정보화 사회라 일컬음에 따라 과거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과는 차원이 다른 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성공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려는 역량이 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로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미래사회에서 핵심인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청소년의 역량과 이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에 대한 관심도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삶에서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 등 생활전반에 걸쳐 필요한 역량은 과연 무엇인지 규명하고 이를 육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청소년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라는 청소년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며, 제 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핵심과제로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를 내세워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강화, 청소년 인성교육 강화 등을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시대적 변화와 정부의 제 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청소년의 역량을 국제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역량을 국제적 수준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라는 정책연구 과제를 발굴하여 2014년부터 2017년도 까지 진행되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CCS 2016’의 2차 년도 연구과제로서 2014년 1차 년도에 개발된 청소년 역량을 경험·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청소년 역량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ICCS 2016 본 조사를 위한 예비조사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해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 할 정책 및 제도적 부분을 점검하고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2016~2017년 IEA ICCS 2016 국제비교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5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노 혁 드림

국 문 초 록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사회의 변화 속에서 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기능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산업사회와는 차별화된 개인의 역량이 요구된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미래에 핵심인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청소년의 역량과 이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점차 깊어지고 있으며, OECD, UNESCO 등의 국제기관에서는 역량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청소년의 핵심역량 증진에 관심을 갖고 교육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그 일환으로 5개년 계획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 연구 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는 이 계획의 제 2차 년도로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역량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과 협동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 및 국제 비교 연구를 위한 ICCS 2016 예비조사 총괄 및 5개의 청소년 역량지수 중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에 대한 연구를, 협동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은 사회참여역량에 대한 연구를 각각 분담하였다. 청소년 역량지수의 실태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의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선정하고 초·중·고등학생 9,500여명 대학생 1,000여명을 표집하여 실시하였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도구는 청소년 역량지수를 구성하는 5개 역량 역량군(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 참여역량)을 중심으로 16개의 하위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24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 전체 평균은 4점 만점에 2.92점으로, 이를 100% 기준으로 본다면 약 73% 수준이었다. 청소년 역량군별로 살펴보면, 생활관리역량과 대인관계역량 평균이 각각 3.01점(75%)으로 높았고, 진로개발역량은 2.93점(73.25%), 생애 학습역량이 2.92점(73%)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참여역량은 2.75점(68.75%)으로 가장 낮았다. 즉, 생활관리역량과 대인관계역량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참여 역량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발달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초등학생들의 청소년 역량지수가 3.02점(76%)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 2.93점(73%), 고등학생 2.89점(72%)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이 2.84점(71%)으로 가장 낮았다. 즉, 역량수준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해서 초등학생의 역량 수준이 가장 높고, 대학생의 역량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성별에 따른 청소년 역량발달의 역전현상이 발견되었다. 즉, 초등학생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역량이 높았지만, 중학교 시기에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고등학교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의 역량이 급격하게 감소해서 오히려 남자 청소년보다 더 낮아졌다. 더욱 특이한 것은 여자 청소년들은 대학교 시기에도 역량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같은 시기에 남자 청소년은 역량이 증가하여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역량의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졌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역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역별 청소년 역량지수는 부산이 2.9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충남과 세종이 각각 2.96점, 서울, 인천, 대전이 2.95점 순으로 나타났고, 전북이 2.87점, 강원과 경북이 2.8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역량을 증진 및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법적 제도 개선방안, 청소년 역량 교육 프로그램 개발방향, 청소년 역량 전문가 전문성 강화 방향, 청소년 역량 시설 확충 및 예산 확보방안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에 있어 여자 청소년의 역량을 유지 및 강화시키는 방안과 후기 청소년 즉, 대학생들의 역량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강조하여 제안하였다.

핵심어: 청소년역량,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 역량, 여성 청소년, 후기 청소년

연구 요약

1. 연구의 배경

- 미래사회의 주요 특성 중의 하나는 불확실성이며, 불확실성은 급변하는 사회현상과 기술의 발전에 기인하며 국가는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미래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에 ‘경쟁력 있는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정부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2013년 본격 추진하면서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미래핵심인재 양성이라는 목표아래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증진을 통해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음
- 세계 각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의 역량 개발을 위한 이론적 연구와 정책 실행에 나서고 있음.
 - OECD의 DeCeCo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UNESCO는 2015년부터 Learning Matrix 프로젝트를 통하여 역량 중심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국가교육 과정의 틀을 역량중심 학습체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시대적 요구와 우리나라 사회의 맥락적 특성에 부합하는 청소년의 역량이 무엇인지 그 개념과 구성요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려는 연구와 정책이 수행되었으나 한계도 지적되었음
 - 수행기관이나 연구의 목적에 따라 학교교육과정 및 제도 개선 등의 미시적 영역에 초점이 맞추어지거나 국가간 비교와 국가정책의 방향 설정과 같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역량을 정의함으로써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한계가 발견됨
 - 특정 시기나 영역에 한정된 역량이 아니라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이행되는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역량과 청소년 개인을 둘러싼 전생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역량 개념들이 요구됨
- 이에 정부는 국가적 수준에서 미래사회 변화의 특성을 주도하기 위하여 미래사회의 주인으로써 성장하는데 요구되는 청소년 역량과 청소년의 특정 시기에 한정된 역량이 아니라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이행되는 전과정에서 요구되는 역량과 청소년 개인을 둘러싼 전생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청소년 역량의 구성체제를 제안하였음

- 청소년 역량의 구성요인을 생애학습역량(사고력, 지적도구활용), 생활관리역량(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화대처, 정서조절), 진로개발역량(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 대인관계역량(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그리고 사회참여역량(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세계 시민성) 등 5개의 역량군과 16개의 하위역량 지수를 제안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정부의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연속적이면서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5개년(2014-2017) 연구계획을 수립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라는 정책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2014년도 1차 년도 연구과제에서 개발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역량을 진단하고, 국제비교를 위한 IEA ICCS 2016 예비조사를 수행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
- IEA ICCS 2016 예비조사 수행을 통해 ICCS 2016 조사도구와 절차를 검증함으로써 2016년도에 실시할 ICCS 2016 본 조사 실시를 준비함
- 1차 연구과제에서 개발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를 사용, 청소년 역량 진단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한국청소년들의 역량 현황을 진단하고 역량 영역별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상응하는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청소년의 역량 수준 진단과 역량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인
 -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판단할 근거자료 제시
 - 청소년 활동 정책을 역량개발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제공
 - 최종적으로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해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 할 정책 및 제도적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3. 연구내용

1) 2015년 청소년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본조사 실시 및 자료분석

- 청소년 역량 측정을 통해 국내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청소년 역량 실태 본 조사를 실시, 청소년 역량에 대한 다층적인 자료를 산출
- 청소년 역량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대한 측정된 자료에 대한 정규성, 신뢰도, 측정 구인의 적합도에 대한 검증 실시
-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부모의 특성, 가정 특성영역을 중심으로 차이 분석
-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과의 상호작용 분석 및 청소년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기 위한 심층 분석을 실시

2) 2016 국제비교를 위한 청소년 국제시민성 및 시민의식조사연구(IEA ICCS 2016)의 예비 조사 실시

- IEA ICCS는 세계각국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의식과 사회적 역량을 객관적으로 비교·측정하여 각국의 시민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역량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온 사회시민역량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국제비교조사임
- ICCS는 조사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조사(Main Survey)를 시행하기 1년 전에 예비조사(Field Trial)를 먼저 시행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음
 - 각 참가국의 조사담당 기관과 조사담당자들로 하여금 문항의 번역과 검토
 - 설문 조사지 편집과 조사 표본별 배부, 조사결과 수집과 데이터 입력의 전 과정을 미리 수행함으로써 본 조사 실시에서 발생하게 될 시행착오와 오류를 최소화
- 예비조사와 함께 본조사도구의 번역과 검토 절차를 수행하여 2016년 3월에 실시 예정인 본조사의 준비 작업을 수행
 - 예비조사를 통해 본 조사에 사용할 조사 문항의 국가별 원문 번역이 정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된 문항들을 본 조사 실시 전에 수정·보완할 기회를 얻음

3)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위한 청소년 역량 정책의 방향 제시

- 한국 청소년의 역량 수준을 분석, 국가 청소년 정책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영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추진 우선순위를 제시
- 아동·청소년의 역량 함양을 위해 국가/사회가 지향해야 할 정책의 비전과 실천과제 제시
-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역량기반 청소년 활동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개발,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인적자원 및 인프라 개선 방안 등의 구체적 정책전략의 방안을 제안

4) 연구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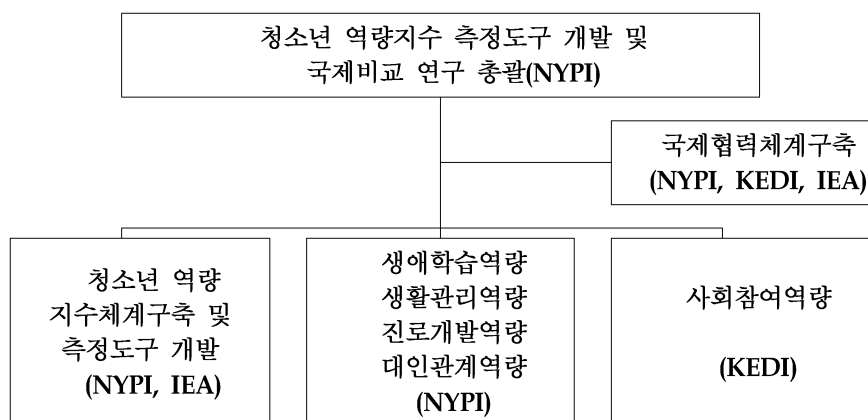
- 본 연구는 제 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기반으로 2013년도에 시행되었던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연구」(성은모 외, 2013)의 후속연구이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5개년 계획으로 구성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의 2차년도 연구 과제임
- 연도별 연구목적과 내용·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1단계 (2014년)	목적	· 청소년 역량 표준 설정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내용	· 국내 및 해외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청소년 역량 개념화 및 지표체계 구축 · 청소년 역량지표 구성체계의 타당화 · 청소년 역량 측정도구 1차 프로토타입 개발 · IEA ICCS 2016 조사 연구기관과의 국제협력체계 구축
	방법	·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FGI조사, 전문가협의회 · 집단검사, 출장면담조사 · 청소년 역량 측정도구 개발 타당성 조사, 통계분석
2단계 (2015~2016년)	목적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PISA, PIAAC, ICCS)를 통한 청소년 역량의 현황분석 ·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진방안을 위한 실천적 전략 제시 ·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내용	· 측정지표체계에 대한 평가와 수정 · 전국규모 조사를 통해 청소년 역량 진단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PISA, PIAAC, ICCS) ·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 제시 · 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역량중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안 제시

	방법	·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FGI조사, 전문가협의회 · 집단검사, 출장면담조사 · 전국 규모 청소년 역량 진단조사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분석(PISA, PIAAC, ICCS)
3단계 (2017~2018년)	목적	· 청소년 역량의 국제수준 비교 분석 ·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효과성 분석 ·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청소년 역량성과 분석
	내용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PISA, PIAAC, ICCS)를 통한 청소년 역량의 현황분석 ·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청소년 역량성과 분석
	방법	·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FGI조사, 전문가협의회 · 집단검사, 출장면담조사 · 전국 규모 생애핵심역량 진단조사, 통계분석

○ 본 연구는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협동연구과제이며,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음

- 연구수행에 있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 및 국제 비교 연구를 총괄하며, 5개의 청소년 역량지수 중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관련 측정도구 개발을 담당하고, 협동기관으로써 한국교육개발원이 사회참여 역량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함



4. 조사 개요

1)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조사 실시

- 조사 지역: 전국 17개 시·도
- 조사 대상
 - 대상 학생은 10,000명을 목표표본으로 설정한 뒤 2014년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하여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층화집락표집 방식으로 추출
 - 학교 수 기준: 총 420개 학교(초등학교 135개, 중학교 108, 고등학교 120개, 대학교 57개)
 - 계열 기준(대학교): 총 7개 계열(인문/사회/교육/공학/자연/의학/예체능)
 - 학급 수 기준(초/중/고등학교): 표본 선정 학교에서 1개 학년 1개 학급 무작위 추출
-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내용 영역 및 문항수: 총 242문항

역량군	하위역량	세부역량	문항수
생애학습역량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6
		감성적 사고력	3
	지적도구활용	언어능력	5
		수학 능력	5
		과학능력	7
		정보통신활용능력	4
	학습 적응성	변화수용력	2
		지적호기심	2
		학습주도성	3
	합계		37
생활관리역량	건강관리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6
		신체관리	2
		위생관리	3
	과제관리	목표 및 계획수립	8
		수행 및 평가	4
	상황대처	중독행동	7
		폭력행동	3
		중독인식	3
		폭력회피	3
	정서조절	감정인식	2
		분노행동	2
		감정절제	2
		조절실패	3
	합계		48

역량군	하위역량	세부역량	문항수
진로개발역량	진로설계	자기탐색	4
		직업탐색	4
		직로준비	4
		진업가치관	3
	여가활용	여가태도	6
		여가유능감	4
		여가몰입	4
		여가만족	2
		(경험)	1
	개척정신	차별화태도	5
		도전정신	3
합계			40
대인관계역량	관계형성	자기 개방성	4
		친화성	4
		의사소통	6
		공감 및 배려	4
	리더십	의사결정	4
		집단활동관리	4
		추진력	6
	협동	집단촉진	6
		팔로워십	3
		갈등문제 해결	5
		합계	
사회참여역량	개인 시민성	권리·책임의식	4
		민주적 절차 및 의식	2
		정치 관심 및 정치적 자아 효능감	8
	공동체 시민성	공적실천	14
		사회적 신뢰	9
		적극적 의견개진	5
		교실 개방성	5
	세계 시민성	성 인지	3
		이민자에 대한 태도	5
		국가 및 역사의식	4
		국제관계이해	4
합계			63
배경정보	생년, 지역, 가족구성, 부모(보호자) 학력, 취업여부, 생활만족도, 학업성취도 수준, 경제적수준		8
합계			242

2) ICCS 2016 예비조사 실시

○ 조사 대상

- IEA ICCS 사무국에서 한국의 교육통계연보 자료를 기초로 산출한 전국 25개 표본학교 2학년 재학생(평균연령 13.5세) 약 1,000명
- 해당학교 및 해당학년 담당교사(담임 및 교과교사) 약 200명
- 해당학교 책임자(교장 혹은 교감) 25명

○ 조사 기간: 2015년 10월 초 ~ 11월 말 (8주)

○ 조사 내용

- 학생설문지
: 가정환경, 학교밖 활동참여, 학교내 활동참여, 학교내 생활현황, 시민사회원칙에 대한 지식과 판단력, 권리와 책임의식, 기관과 사회에 대한 태도, 사회 및 정치참여에 대한 태도, 종교 현황 등 200여 문항
- 교사설문지
: 지역사회환경, 교내환경, 학생활동참여현황, 시민교육현황, 학교규모 및 자원현황 등 50여 문항
- 학교담당자 설문지
: 지역사회환경, 교내환경, 학생활동참여현황, 시민교육현황, 학교규모 및 자원현황 등 50여 문항

○ 조사 결과

- 25개 목표표본 중 16개 학교, 20개 학급이 참여, 학생 652명, 교사 229명, 교장/교감 16명이 응답하여 64%의 응답을 달성
- 본 조사 실시 단계에서 응답을 향상 방법 및 조사 실시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검토 중
- 조사 결과는 IEA 고유양식으로 입력, IEA 데이터분석센터에 전송예정

5. 연구결과

1) 청소년 역량지수의 측정문항 분석 및 정규성 분석결과

- 수집된 청소년 역량지수 자료의 양호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측정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전체 상관관계(item-correlation), 신뢰도 계수(alpha if item deleted), 그리고 정규성(normality) 분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였음

2)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계의 타당화 분석결과

-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간 상관계수 $r=.158\sim.548$,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상정한 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 간 상관계수는 중독인식과 감정절제, 폭력회피와 감정절제 간의 관계를 제외하고 모든 관계가 $r=.024\sim.776$ 으로 $p<.05$ 이상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역시 타당성이 확인되었음
-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간 상관계수 $r=-.028\sim.703$,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당성을 확인하였음
- 진로개발역량지수 중 진로설계 및 여가활용의 표준화 계수는 .699~.853 범위에 있으며,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개척정신의 하위역량에 대해서는 표준화 계수가 산출되지 않았음
-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 간 상관계수 $r=.388\sim.787$,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참여역량지수 하위역량의 표준화 계수는 .51~.99 범위에 있으며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3) 청소년 역량지수의 측정 결과

- 거의 모든 역량 영역에서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역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특히 일부영역을 제외하고는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더 감소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 청소년 역량지수전체의 기술통계 및 차이분석

청소년 시기	전체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
전체	2.92	2.92	3.01	2.93	3.01	2.75
초등(초기 청소년)	3.02	2.99	3.17	3.01	3.06	2.86
중등(중기 청소년)	2.93	2.91	3.04	2.93	3.02	2.77
고등(후기 청소년)	2.89	2.87	2.97	2.90	2.97	2.72
대학(후기 청소년)	2.84	2.91	2.84	2.83	2.96	2.66

-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 전체 평균은 4점 만점에 2.92로 나타났으며, 이를 100% 기준으로 본다면 7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생활관리역량과 대인관계역량 평균이 각각 3.01로 나타나 75%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 진로개발역량이 2.93점 73.25%, 생애학습역량이 2.92점 73%, 사회참여역량이 2.75점 68.7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청소년 역량지수의 발달단계별 차이

- 청소년 역량지수를 청소년의 발달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초등학생들의 청소년 역량지수가 3.02점 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 2.93점 73%, 고등학생 2.89점 72%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이 2.84 7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즉, 초등학생의 역량 수준이 가장 높고, 대학생의 역량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됨.

○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역량지수의 변화

- 청소년 시기에서 성별에 따른 청소년 역량 발달 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생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학교 시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하다가, 고등학교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의 역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오히려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게 나타남
- 대학교 시기까지 여자 청소년의 역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남자 청소년은 대학교 시기에 역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대학생 시기에는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역량이 급격하게 벌어지는 현상이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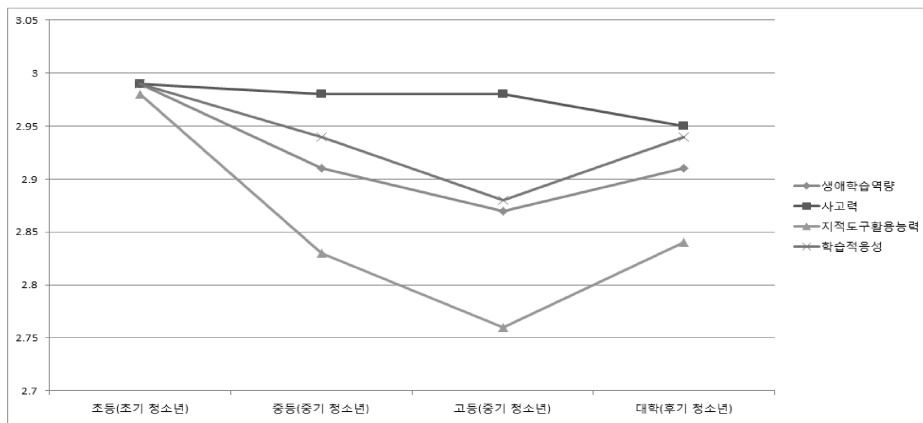
4)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의 측정결과

○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의 기술통계 및 차이분석

-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전체 평균은 2.93(SD=.46)으로 나타났고 사고력 평균은 2.98(SD=.39), 지적도구활용능력 평균은 2.84(SD=.45), 학습적응성 평균은 2.93(SD=.46)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생애학습역량지수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통신활용능력, 지적호기심, 비판적 사고력이 높은 반면,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차이분석 결과, 생애학습역량은 성별($t=3.165, p<.01$), 학교급($F=57.394, p<.01$), 학업성취도($F=539.96, p<.01$), 부의 학력($F=93.834, p<.01$), 모의 학력($F=94.127, p<.01$), 가족구성($t=7.718, p<.01$), 경제적수준($F=193.073, p<.01$), 거주지역($F=6.395, 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의 시기별 변화



- 생애학습역량 평균은 1.98($SD=.41$), 중기 청소년 1(중학생)의 평균은 2.91($SD=.37$),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의 평균은 2.87($SD=.34$), 후기 청소년(대학생)의 평균은 2.91($SD=.28$)로 나타남
- 초기 청소년(초등학생)의 생애학습역량이 가장 높고,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의 생애학습역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생애학습역량지수의 변화

- 생애학습역량지수의 경우, 초기 청소년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높지만, 중기 청소년 1(중학생) 이후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게 나타남.
- 성별에 따른 변화의 폭이 여자 청소년에게서 더 급격하게 나타남
- 사고력 역량지수는 초기 청소년(초등학생)과 중기 청소년 1(중학생) 시기까지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높지만,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과 후기 청소년(대학생) 시기에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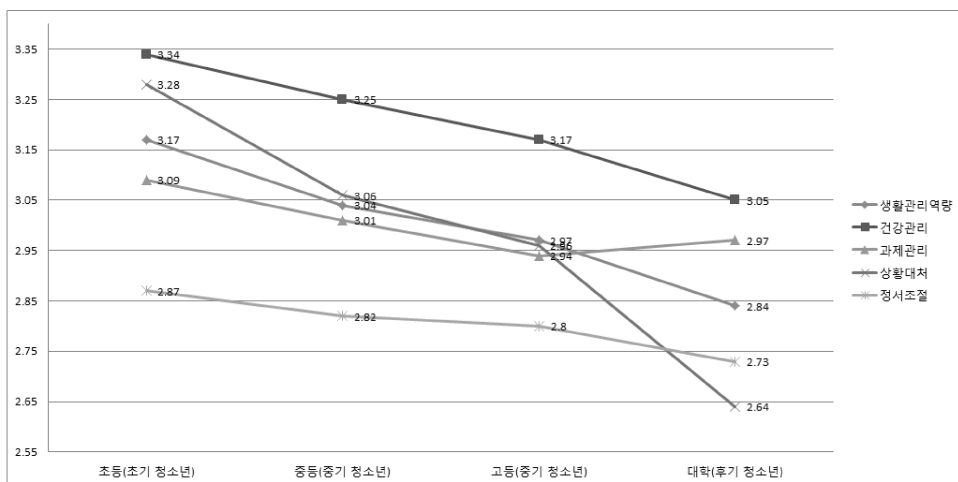
- 지적도구활용능력의 변화 추이를 보면, 성별에 따라 남녀 청소년 모두 초기-중기 청소년 까지 감소하는 추세는 보이고 후기 청소년이 되면 다시금 상승하는 변화 추세를 보임.
- 학습적응성의 경우,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시기에는 남자와 여자 청소년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중기 청소년 1(중학생) 이후 남녀 차이가 나타나고, 후기 청소년(대학생) 시기에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아져 그 차이의 변화가 크게 나타남

5)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의 측정결과

○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의 기술통계 및 차이분석

- 생활관리역량지수 전체 평균은 3.03(SD=.38)로 나타났으며 건강관리는 3.22(SD=.46), 과제관리 3.00(SD=.53), 상황대처 3.04(SD=.60), 정서조절 2.82(SD=.44)로 각각 분석되어 전체 역량 구성요인 중 건강관리역량이 가장 높게 분석됨
-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생활관리역량은 대체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위생관리, 폭력행동,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등이 높게 나타났고 조절실패, 감정절제, 중독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생활관리역량은 성별($t=-7.809, p<.01$), 학교급($F=263.057, p<.01$), 학업성취도($F=385.485, p<.01$), 부의 학력($F=29.663, p<.01$), 모의 학력($F=39.369, p<.01$), 가족구성($t=7.447, p<.01$), 경제적 수준($F=169.961, p<.01$), 거주지역($F=6.851, 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의 시기별 변화



- 생활관리역량은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3.17(SD=.39), 중기 청소년 1(중학생) 3.04(SD=.37),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 2.97(SD=.35), 후기 청소년(대학생) 2.84(SD=.32)로 분석 됨
- 초기 청소년 집단이 가장 높았고 후기 청소년으로 갈수록 그 수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생활관리역량지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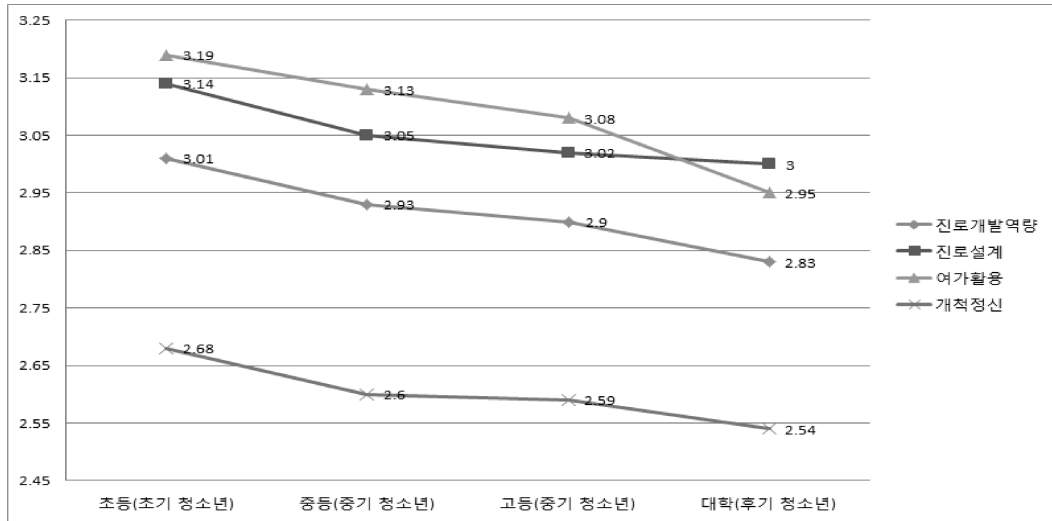
- 생활관리역량지수에서 남자 청소년 보다는 여자청소년의 역량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두 집단 간 보이는 차이는 초기청소년에서 후기청소년으로 갈수록 감소해 나감
- 건강관리역량지수의 경우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모든 시기에 걸쳐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높은 위생관리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과제관리역량지수의 경우, 여자 청소년의 역량수준이 초기에는 남자 청소년보다 높았지만 후기청소년에는 역전되어 남자청소년의 역량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상황대처역량지수의 경우, 초기 청소년부터 후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여자 청소년의 상황대처 역량 수준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정서조절역량지수는 중기 청소년 1까지는 여자 청소년의 역량수준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이후부터 후기까지 남자 청소년의 역량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6)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의 측정결과

○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의 기술통계 및 차이분석

-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전체 평균은 2.93(SD=.38)으로 나타났고 진로설계 평균은 3.06(SD=.52), 여가활용능력 평균은 3.11(SD=.50), 개척정신 평균은 2.61(SD=.41)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지수는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역량으로 보면, 여가활용, 진로설계, 개척정신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차이분석 결과, 진로개발역량은 성별($t=3.120$, $p<.01$), 학교급($F=72.847$, $p<.01$), 학업성취도($F=385.485$, $p<.01$), 부의 학력($F=29.663$, $p<.01$), 모의 학력($F=39.369$, $p<.01$), 가족구성($t=7.447$, $p<.01$), 경제적 수준($F=169.961$, $p<.01$), 거주지역($F=6.851$, $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의 시기별 변화



- 초기 청소년(초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평균은 3.01($SD=.42$), 중기 청소년 1(중학생)의 평균은 2.93($SD=.39$),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의 평균은 2.90($SD=.36$), 후기 청소년(대학생)의 평균은 2.83($SD=.28$)로 나타남
- 초기 청소년(초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이 가장 높고, 후기 청소년 2(대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진로개발역량지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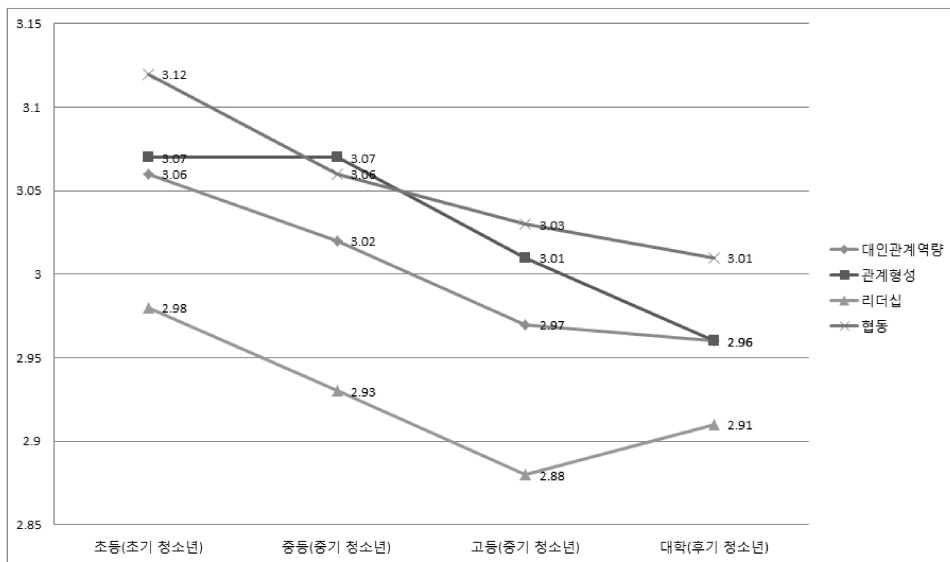
- 초기 청소년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높지만, 중기 청소년 1(중학생) 이후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게 나타남.
- 진로설계의 경우,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중기 청소년 1(중학생),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 시기까지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높지만, 후기 청소년(대학생) 시기에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게 나타남.
- 여가활용능력의 경우, 전반적으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여가활용능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시기에는 여가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지만, 중기 청소년 1(중학생) 이후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아졌고 시기가 지남에 따라 그 차이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7)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의 측정결과

○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의 기술통계 및 차이분석

- 대인관계역량의 전체 평균은 3.01(SD=.46)으로 나타났고 관계형성 평균은 3.04(SD=.50), 리더십 평균은 2.92(SD=.54), 협동 평균은 3.06(SD=.50)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대인관계역량지수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며,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 간에는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협동 역량이 가장 높고, 리더십 역량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음
- 차이분석결과, 진로개발역량은 성별($t=6.516, p<.01$), 학교급($F=21.755, p<.01$), 학업성취도($F=212.437, p<.01$), 부의 학력($F=42.856, p<.01$), 모의 학력($F=52.405, p<.01$), 가족구성($t=5.771, p<.01$), 경제적 수준($F=153.162, p<.01$), 거주지역($F=5.414, 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의 발달단계별 차이



- 초기 청소년(초등학생)의 대인관계역량 평균은 3.06(SD=.54), 중기 청소년 1(중학생)의 평균은 3.02(SD=.47),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의 평균은 2.97(SD=.42), 후기 청소년(대학생)의 평균은 2.96(SD=.32)로 나타남
- 초기 청소년(초등학생)의 대인관계역량이 가장 높고, 후기 청소년(대학생)의 대인관계역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역량지수의 변화

- 대인관계역량의 경우, 초기 및 중기 청소년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높지만, 후기 청소년 시기에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게 나타남.
- 관계형성역량지수는 초기 및 중기 청소년기에는 여자가 남자 청소년에 비해 관계형성 점수가 높았으나, 후기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관계형성 점수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리더십의 경우 초기 청소년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에 비해 높았는데, 중기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그 격차가 감소했으며, 후기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을 추월하는 경향을 보임
- 초기 및 중기 청소년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높았지만, 후기 청소년기에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을 추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8)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지수의 측정결과

○ 청소년사회참여역량 지수의 기술통계 및 차이분석

-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지수의 전체 평균은 2.76으로 나타났고 개인 시민성 평균은 2.77, 공동체 시민성 평균은 2.71, 세계 시민성 평균은 2.85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대인관계역량지수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며, 세계시민성이 가장 높고, 공동체 시민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사회참여역량지수의 변화

- 사회참여역량의 경우, 초기(초등학생)청소년의 경우 남자 청소년의 수준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높았다가 중기1(중학생)과 중기2(고등학생)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역량수준이 더 높은 수준을 보임. 후기 청소년에서는 다시 역전되어 남자 청소년의 역량이 더 높은 추세를 보임
- 개인 시민성의 경우, 초기(초등학생)청소년 시기와 후기(대학생) 청소년시기에 남자 청소년의 역량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중기1(중학생)과 중기2(고등학생) 시기에는 반대의 경향을 보임
- 공동체 시민성은 개인 시민성과 유사하게 초기(초등학생)청소년과 후기(대학생)시기에만 남자 청소년의 역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세계 시민성의 경우, 초기(초등학생) 청소년 시기부터 중기2(고등학생) 청소년 시기까지는 여자 청소년의 역량이 높게 나타났지만 후기(대학생) 청소년시기에는 남자 청소년의 역량이 더 높게 나타남

6. 논의 및 정책적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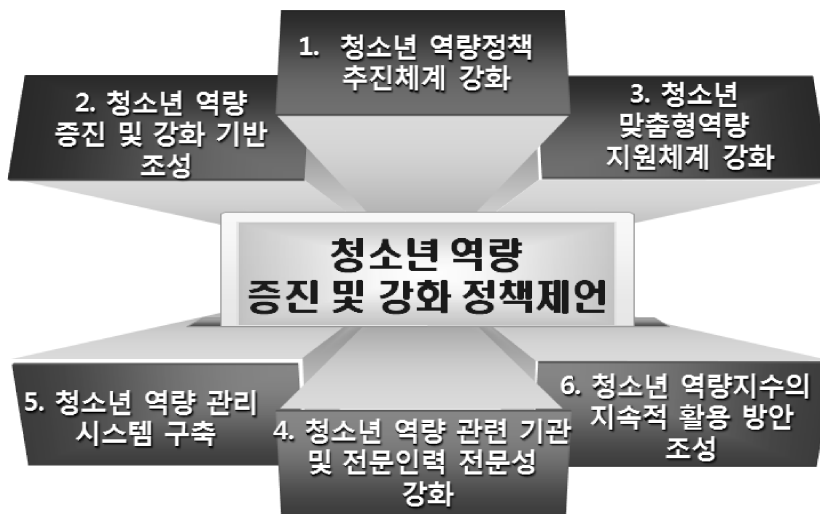
1) 논의

- 본 연구에서 가장 현저한 결과는 나이가 많은 집단일수록 청소년역량이 더 낮은 경향이었음
 - 이는 역량지표 자체의 발달적인 속성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역량지표의 연령별 타당화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위 가설은 특정 역량영역 및 남자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집단보다 대학생 집단에서 역량이 높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이 결과는 현재 한국 청소년들의 역량 발달이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이는 한국 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청소년 세대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가 의도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임
 - 본 결과를 토대로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청소년 역량 발달에 부정적인 요소들을 발견하고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작업의 시급성을 지적할 수 있음
 - 특히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자 청소년들은 저연령 집단일수록, 남자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고연령 집단에서 역량이 더 높았으며 연령에 따른 역량의 저하 현상은 여자청소년들에게서 더 심각하게 나타났음. 이는 여자청소년들이 특히 역량 발달에 있어서 부정적인 환경에 처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성을 재확인했음
 - 본 연구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 계획에 의거 수행되는 연속과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과제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
 - 1차 년도에서도 개발된 문항의 신뢰도와 정규성 검토, 그리고 역량지수 구성체제의 적합도등을 확인한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재확인되었음
-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전체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하였음
 - 우리나라 청소년 전체를 모집단으로 선정한 후 표본 집단을 추출하여 이루어진 조사결과이기 때문에 청소년 역량지수 점수에 대한 대표성과 일반성을 확보하였음
 - 물론,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점수가 절대적인 준거가 될 수는 없지만, 다른 청소년들의 역량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상대적 준거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

-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특성에 따른 현황과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였음
 - 특히, 청소년의 발달시기에 따른 역량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현재 한국청소년들의 역량 실태에 대한 다면적인 이해가 가능해짐
 - 청소년 시기별로는 세부 역량의 유형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가장 높고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낮아지는 결과가 발견되었음
 - 역량은 학업성취도와 관계가 높아서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역량 수준도 높았으며 학업수준이 낮은 청소년은 역량수준 또한 낮은 것으로 확인됨
 - 부모의 학력,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역량도 높았음
 - 지역에 있어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역량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다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측정한 청소년역량이 청소년들의 생활환경을 반영하는 발달적 결과물임을 시사함
-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역량 관리, 증진 혹은 강화 프로그램이나 정책들이 맞춤형으로 지원될 필요성이 제기됨
 - 여성 청소년과 후기 청소년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양상이 발견됨
 - 후기 청소년기에 있는 여성 청소년이면서 양부모가 아닌 가족구성에 학업성취도·가정경제·부모학력이 수준이 낮고 지방에 거주하는 청소년일수록 역량이 낮을 것으로 추정됨
 - 청소년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생태계적 관점에서 가정-학교-지역-사회-국가가 보다 유기적으로 청소년 역량 강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 연구를 수행하면서,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청소년 정책관련 공무원들이 청소년 역량 증진 및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음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을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매뉴얼의 개발 및 배포 필요
 - 청소년 활동 혹은 청소년 체험활동과 청소년 역량의 차별성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청소년의 역량을 증진 및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역량기반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 전문인력(청소년 지도사, 관리자, 청소년 정책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선행되어야 함
 - 청소년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

2)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역량을 증진 및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의 방향은 선행문헌분석 내용,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 결과 분석 내용, 이에 대한 청소년 정책관련 전문가(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청소년 정책관련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음
- 청소년 역량 증진 및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는 크게 6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



- 청소년 역량 증진 및 강화를 위한 6대 정책과제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였음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1. 청소년 역량정책 추진 체계 강화	1. 청소년역량의 개념과 청소년 활동과의 관계 정립 2. 청소년 역량 관련 법·제도의 개정 추진 3. 청소년 역량기반 중심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방안 (1)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 정책사업의 성과지표로 활용 (2) 역량기반 중심의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방향성 제안
2. 청소년 역량 증진 및 강화 기반 조성	1. 청소년 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 2. 청소년역량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 3. 청소년역량을 위한 인증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여가부 주관 역량기반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공모제 실시 5. 청소년 체험활동의 효과 및 사업평가를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 6. 청소년 역량증진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3. 청소년 맞춤형 역량 지원체계 강화	1. 청소년 역량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지원 체계 강화 2. 여성 청소년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청소년 역량 강화 지원 체계 마련 3. 후기 청소년(대학교 진학 및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역량 지원 체계 마련
4. 청소년 역량 관련 기관 및 전문인력 전문성 강화	1. 청소년 역량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예산 확대 2. 청소년역량 관련 기관 전문성 강화 3. 청소년 역량 중심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전환 4. 청소년 지도사 전문성 강화 5. 현장 실무자 경험 및 정보공유의 장 마련
5. 청소년 역량 관리 및 연계시스템 구축	1. 국립 청소년 역량 통합관리센터 설립 제안 2. 권역별 학교/기관/행정기관의 공동실무협의회 운영 3. 청소년 역량증진을 위한 청소년 시설과 학교와 긴밀한 관리 및 연계시스템 구축 4. 초기청소년에서 후기청소년까지 청소년역량의 지속적인 관리
6. 청소년 역량지수의 지속적 활용 방안 조성	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자료에 대한 패널 data화 2. 청소년 역량지수의 주기적 조사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간소화와 활용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6
3. 연구추진체계	8
II. 이론적 배경	13
1. 청소년의 역량 개념 및 정의	15
2.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제 및 측정문항 구성	16
3. 청소년 역량지수 국제비교를 위한 ICCS 2016의 개요	18
III. 연구방법	23
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분석과 ICCS 2016 예비조사 개요	25
2.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조사	31
3. ICCS 2016 예비조사	47
IV. 연구결과	53
1. 청소년 역량지수의 측정문항 분석 및 정규성 분석	55
2.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의 타당화 분석	65
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결과의 기술통계 및 차이 분석	95
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	168
5. ICCS 2016 예비조사 결과	302

V. 논의 및 정책제언	305
1. 논의	307
2. 정책제언	313
참 고 문 헌	329
부 록	349
[부록 1] 2015 청소년 역량 관련 선행문헌 분석	351
[부록 2] 초·중·고등학생 표본설계	392
[부록 3] 대학생 표본설계	406
[부록 4] 2015 청소년 역량 측정 조사 설문지	412
[부록 5] 2015 청소년 역량 관련 정책제언	464

표 목 차

〈표 II-1〉 ICCS 조사의 약력	19
〈표 II-2〉 청소년대상 국제조사들과 ICCS의 특성비교	20
〈표 II-3〉 ICCS에서 상정한 민주시민역량 결정요인과 요인별 조사 방법	22
〈표 III-1〉 청소년 역량관련 선행문헌분석 내용	28
〈표 III-2〉 청소년 각계 전문가의 의견 및 자문 수렴 내용	29
〈표 III-3〉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조사 개요	29
〈표 III-4〉 ICCS 2016 예비조사 개요	30
〈표 III-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초·중·고등학생 모집단크기 및 표본집단 크기	32
〈표 III-6〉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표본크기 할당: 학교 수(363개)	33
〈표 III-7〉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생수	34
〈표 III-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대학생 모집단크기	35
〈표 III-9〉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대학생 표본집단 크기	36
〈표 III-10〉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도구의 구성내용	38
〈표 III-11〉 사전조사 응답자 수	40
〈표 III-12〉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조사절차 및 일정	40
〈표 III-13〉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 사례수(초·중·고등학생)	42
〈표 III-14〉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 사례수(대학생)	43
〈표 III-15〉 2009년과 2016년 ICCS의 민주시민역량 개념구성 비교	48
〈표 III-16〉 ICCS에서 상정한 민주시민역량 결정요인과 요인별 조사 방법	49
〈표 III-17〉 ICCS 2016 예비조사 일정 및 절차	50
〈표 IV-1〉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측정문항 분석 및 정규성 분석 결과	55
〈표 IV-2〉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측정문항 분석 및 정규성 분석 결과	58
〈표 IV-3〉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측정문항 분석 및 정규성 분석 결과	60

〈표 IV-4〉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측정문항 분석 및 정규성 분석 결과	62
〈표 IV-5〉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간 상관관계 분석	66
〈표 IV-6〉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모형 분석	66
〈표 IV-7〉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구성체계 측정문항의 측정모형 분석	68
〈표 IV-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간 상관관계 분석	72
〈표 IV-9〉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모형 분석	73
〈표 IV-10〉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 구성체계 측정문항의 측정모형 분석	74
〈표 IV-11〉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간 상관관계 분석	79
〈표 IV-12〉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모형 분석	80
〈표 IV-13〉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구성체계 측정문항의 측정모형 분석	81
〈표 IV-14〉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 간 상관관계 분석	85
〈표 IV-15〉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측정모형 분석	86
〈표 IV-16〉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구성체계 측정문항의 측정모형 분석	87
〈표 IV-17〉 개인 시민성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91
〈표 IV-18〉 개인시민성 타당화 측정모형의 적합도	92
〈표 IV-19〉 공동체 시민성 타당화 측정모형 분석	93
〈표 IV-20〉 공동체 시민성 타당화 측정모형의 적합도	93
〈표 IV-21〉 세계 시민성 타당화 측정모형 분석	94
〈표 IV-22〉 세계 시민성 타당화 측정모형의 적합도	94
〈표 IV-23〉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종합분석 결과	95
〈표 IV-24〉 2015 청소년 역량지수의 지역별 분석	98
〈표 IV-25〉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100
〈표 IV-26〉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차이분석	101
〈표 IV-27〉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사고력 역량 차이분석	107

〈표 IV-28〉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 역량 차이분석	110
〈표 IV-29〉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 역량 차이분석	114
〈표 IV-30〉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118
〈표 IV-31〉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차이분석	119
〈표 IV-32〉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건강관리역량의 차이분석	123
〈표 IV-33〉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과제관리역량의 차이분석	126
〈표 IV-34〉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상황대처역량의 차이분석	129
〈표 IV-35〉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정서조절역량의 차이분석	132
〈표 IV-36〉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136
〈표 IV-37〉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차이분석	137
〈표 IV-38〉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진로설계역량 차이분석	141
〈표 IV-39〉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여가활용역량 차이분석	145
〈표 IV-40〉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개척정신역량 차이분석	149
〈표 IV-41〉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152
〈표 IV-42〉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차이분석	153
〈표 IV-43〉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관계형성 역량 차이분석	156
〈표 IV-44〉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리더십 역량 차이분석	159
〈표 IV-45〉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협동 역량 차이분석	162
〈표 IV-46〉 청소년 시기에 따른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기술통계분석 결과	165
〈표 IV-47〉 지역별 사회참여역량 평균 차이	166
〈표 IV-48〉 지역별 개인시민성 평균 차이	166

〈표 IV-49〉 지역별 공동체 시민성 평균차이	167
〈표 IV-50〉 지역별 세계시민성 평균 차이	167
〈표 IV-51〉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기초통계분석 결과	169
〈표 IV-52〉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	169
〈표 IV-53〉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사고력의 기초통계분석 결과	171
〈표 IV-54〉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사고력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	173
〈표 IV-55〉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지적도구활용능력 상호작용 분석 결과	175
〈표 IV-56〉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지적도구활용능력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	178
〈표 IV-57〉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학습적응성 상호작용 분석 결과	181
〈표 IV-58〉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학습적응성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	184
〈표 IV-59〉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	187
〈표 IV-60〉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사고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188
〈표 IV-61〉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비판적 사고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190
〈표 IV-62〉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감성적 사고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191

〈표 IV-63〉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192
〈표 IV-64〉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193
〈표 IV-65〉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수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194
〈표 IV-66〉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과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195
〈표 IV-67〉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정보통신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196
〈표 IV-6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198
〈표 IV-69〉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변화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199
〈표 IV-70〉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지적호기심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200
〈표 IV-71〉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주도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201
〈표 IV-72〉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기초통계분석 결과 ..	202
〈표 IV-73〉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 ..	203
〈표 IV-74〉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건강관리 상호작용 분석 결과 ..	204
〈표 IV-75〉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건강관리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	207
〈표 IV-76〉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과제관리의 기초통계분석 결과	208

〈표 IV-77〉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과제관리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	210
〈표 IV-78〉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상황대처능력의 기초통계 분석 결과	211
〈표 IV-79〉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상황대처능력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	213
〈표 IV-80〉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정서조절능력 기초통계 분석 결과	215
〈표 IV-81〉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정서조절능력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	217
〈표 IV-82〉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이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에 미치는 효과	219
〈표 IV-83〉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이 청소년 건강관리에 미치는 효과	220
〈표 IV-84〉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이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에 미치는 효과	221
〈표 IV-85〉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이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에 미치는 효과	222
〈표 IV-86〉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이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에 미치는 효과	223
〈표 IV-87〉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이 청소년 과제관리에 미치는 효과	224
〈표 IV-88〉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이 청소년 과제관리에 미치는 효과	225
〈표 IV-89〉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이 청소년 과제관리에 미치는 효과	226
〈표 IV-90〉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이 청소년 상황대처능력에 미치는 효과	227
〈표 IV-91〉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이 청소년 상황대처능력에 미치는 효과	228
〈표 IV-92〉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이 청소년 상황대처능력에 미치는 효과	229
〈표 IV-93〉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이 청소년 상황대처능력에 미치는 효과	230
〈표 IV-94〉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이 청소년 상황대처능력에 미치는 효과	231
〈표 IV-95〉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이 청소년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효과	232
〈표 IV-96〉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이 청소년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효과	233
〈표 IV-97〉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이 청소년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효과	234

〈표 IV-98〉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이 청소년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효과	234
〈표 IV-99〉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이 청소년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효과	235
〈표 IV-100〉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기초통계분석 결과	237
〈표 IV-101〉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	237
〈표 IV-102〉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진로설계의 기초통계분석 결과	239
〈표 IV-103〉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진로설계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	241
〈표 IV-104〉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여가활용능력 상호작용 분석 결과	244
〈표 IV-105〉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여가활용능력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	247
〈표 IV-106〉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개척정신 상호작용 분석 결과	250
〈표 IV-107〉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개척정신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	252
〈표 IV-10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	254
〈표 IV-109〉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255
〈표 IV-110〉 청소년 진로설계역량의 자기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256
〈표 IV-111〉 청소년 진로설계역량의 직업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257

〈표 IV-112〉 청소년 진로설계역량의 직업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258
〈표 IV-113〉 청소년 진로설계역량의 진로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260
〈표 IV-114〉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261
〈표 IV-115〉 청소년 여가활용역량의 여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262
〈표 IV-116〉 청소년 여가활용역량의 여가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263
〈표 IV-117〉 청소년 여가활용역량의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264
〈표 IV-118〉 청소년 여가활용역량의 여가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265
〈표 IV-119〉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개척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266
〈표 IV-120〉 청소년 개척정신역량의 차별화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267
〈표 IV-121〉 청소년 개척정신역량의 도전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268
〈표 IV-122〉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기초통계분석 결과	270
〈표 IV-123〉 성별과 청소년 시기에 따른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	271
〈표 IV-124〉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리더십의 기초통계분석 결과	272

〈표 IV-125〉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관계형성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	275
〈표 IV-126〉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리더십의 기초통계분석 결과	276
〈표 IV-127〉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리더십 상호작용 분석 결과	279
〈표 IV-128〉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협동의 기초통계분석 결과	280
〈표 IV-129〉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협동 상호작용 분석 결과	283
〈표 IV-130〉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	284
〈표 IV-131〉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285
〈표 IV-132〉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자기개방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286
〈표 IV-133〉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친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287
〈표 IV-134〉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288
〈표 IV-135〉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공감 및 배려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289
〈표 IV-136〉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290
〈표 IV-137〉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291

〈표 IV-13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집단활동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292
〈표 IV-139〉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추진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293
〈표 IV-140〉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협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294
〈표 IV-141〉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집단촉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295
〈표 IV-142〉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팔로워십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296
〈표 IV-143〉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갈등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297
〈표 IV-144〉 ICCS 2016 예비조사 응답현황: 지역별	302
〈표 IV-145〉 CCS 2016 예비조사 응답현황: 학교단위별	303
〈표 V-1〉 청소년 역량 증진 및 강화를 위한 6대 정책과제와 세부추진과제	314
〈표 V-2〉 청소년 역량에 대한 법적 재해석	315
〈표 V-3〉 2015년 중앙행정기관의 사업과제 및 예산	317
〈표 V-4〉 청소년역량지수 체계별 사업과제 수 및 예산	318
〈표 V-5〉 청소년역량지수 체계별 내용구분 및 정책지원 대상	318
〈표 V-6〉 청소년 역량을 증진을 위한 단기적 과제 방향성 제안	319
〈표 V-7〉 청소년 역량별 체험활동 기관 및 참여 청소년 현황	320
〈표 V-8〉 청소년 역량별 수련활동 인증영역 분석	324
〈표 V-9〉 청소년역량지수 조사 관련 조항 개정안	326

〈표 [부록1]-1〉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제(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2014, pp.198-199 재인용)	354
〈표 [부록1]-2〉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에 따른 측정문항 구성	363
〈표 [부록1]-3〉 PISA 2000-2012 결과	366
〈표 [부록1]-4〉 2009-2014년 중·고등학생 하루 6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368
〈표 [부록1]-5〉 식습관행태 추이(2005~2014)	369
〈표 [부록1]-6〉 청소년(중·고등학생) 유해매체 이용 경험률(복수응답)	370
〈표 [부록1]-7〉 인터넷 이용습관 전수진단 결과(2012-2013)	370
〈표 [부록1]-8〉 청소년의 생활시간(2014)	373
〈표 [부록1]-9〉 한국 청소년과 타국가 청소년의 관계형성역량 비교	374
〈표 [부록1]-10〉 한국 청소년과 타국가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비교	376
〈표 [부록1]-11〉 국내·외 연구자별 대학생 핵심역량의 개념적 특성	378
〈표 [부록1]-12〉 연구자별 대학생 핵심역량 구성요인(이애화, 최명숙, 2014)	379
〈표 [부록1]-13〉 2014년도 ACE 선정 대학교의 핵심역량 구성요인(이애화, 최명숙, 2014)	380
〈표 [부록1]-14〉 학년별 대학생 핵심역량 수준 (진미석 외, 2011)	382
〈표 [부록1]-15〉 학년별 핵심역량점수 차이검증 결과 (이장인, 김주후, 2012) ..	383
〈표 [부록1]-16〉 학년별 핵심역량 수준 차이 분석 (백평구, 2013)	383
〈표 [부록2]-1〉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생수, 학교수	393
〈표 [부록2]-2〉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수	393
〈표 [부록2]-3〉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수	394
〈표 [부록2]-4〉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성별 학생수	394
〈표 [부록2]-5〉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남학생수	395
〈표 [부록2]-6〉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여학생수	395
〈표 [부록2]-7〉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396
〈표 [부록2]-8〉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396

〈표 [부록2]-9〉 학교급×학년별 모집단크기, 목표 표본크기	398
〈표 [부록2]-10〉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생수	399
〈표 [부록2]-11〉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교수	399
〈표 [부록2]-12〉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교수	400
〈표 [부록2]-13〉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생수	400
〈표 [부록3]-1〉 권역×계열별 학생수	406
〈표 [부록3]-2〉 권역×학제별 학생수, 학교수	407
〈표 [부록3]-3〉 계열별 모집단크기, 목표 표본크기	408
〈표 [부록3]-4〉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권역×계열 학생수	409
〈표 [부록3]-5〉 계열별 모집단크기, 목표 표본크기	409
〈표 [부록3]-6〉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권역×계열 학생수	410
〈표 [부록5]-1〉 청소년 역량에 대한 법적 재해석	466
〈표 [부록5]-2〉 2015년 중앙행정기관의 사업과제 및 예산 (단위: 백만 원)	469
〈표 [부록5]-3〉 청소년역량지수 체계별 사업과제 수 및 예산 (단위: 백만 원)	470
〈표 [부록5]-4〉 청소년역량지수 체계별 내용구분 및 정책지원 대상	470
〈표 [부록5]-5〉 각 부처별 생애학습역량 관련 정책사업내용	472
〈표 [부록5]-6〉 각 부처별 생활관리역량 관련 정책사업내용	473
〈표 [부록5]-7〉 각 부처별 진로개발역량 관련 정책사업내용	475
〈표 [부록5]-8〉 각 부처별 대인관계역량 관련 정책사업내용	477
〈표 [부록5]-9〉 각 부처별 사회참여역량 관련 정책사업내용	479
〈표 [부록5]-10〉 청소년 역량을 증진을 위한 단기적 과제 방향성 제언	481
〈표 [부록5]-11〉 청소년 역량별 체험활동 기관 및 참여 청소년 현황	485
〈표 [부록5]-12〉 활동 영역별 인증수련활동 현황	496
〈표 [부록5]-13〉 청소년 역량별 수련활동 인증영역 분석	497
〈표 [부록5]-14〉 청소년역량지수 조사 관련 조항 개정안	506

그림 목 차

【그림 Ⅰ-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의 5개년(2014-2018) 연구추진계획	9
【그림 Ⅰ-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를 위한 협동연구과제 추진체계	11
【그림 Ⅲ-1】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 절차	26
【그림 Ⅲ-2】 ICCS 2016 예비조사 절차	26
【그림 Ⅳ-1】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구성체계의 측정모형 및 적합도 지수 ..	67
【그림 Ⅳ-2】 사고력 측정모형 및 적합도 지수	69
【그림 Ⅳ-3】 지적도구활용능력 측정모형 및 적합도 지수	70
【그림 Ⅳ-4】 학습적응성 측정모형 및 적합도 지수	70
【그림 Ⅳ-5】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 구성체계의 측정모형 및 적합도 지수 ..	73
【그림 Ⅳ-6】 건강관리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76
【그림 Ⅳ-7】 과제관리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76
【그림 Ⅳ-8】 상황대처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77
【그림 Ⅳ-9】 정서조절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77
【그림 Ⅳ-10】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구성체계의 측정모형 및 적합도 지수	80
【그림 Ⅳ-11】 진로설계 측정모형 및 적합도 지수	83
【그림 Ⅳ-12】 여가활용능력 측정모형 및 적합도 지수	83
【그림 Ⅳ-13】 개척정신 측정모형 및 적합도 지수	84
【그림 Ⅳ-14】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구성체계의 측정모형 및 적합도 지수	86
【그림 Ⅳ-15】 관계형성 측정모형 및 적합도 지수	89
【그림 Ⅳ-16】 리더십 측정모형 및 적합도 지수	89

【그림 IV-17】	협동 측정모형 및 적합도 지수	90
【그림 IV-18】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종합결과	96
【그림 IV-19】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성장시기별 변화추이	97
【그림 IV-20】	청소년 시기별 성별에 따른 청소년 역량지수의 변화	98
【그림 IV-21】	2015 청소년 역량지수의 지역별 차이	99
【그림 IV-22】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평균 점수 비교	101
【그림 IV-23】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평균 점수 비교	136
【그림 IV-24】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평균 점수 비교	152
【그림 IV-25】	청소년 시기 따른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의 변화 추이	165
【그림 IV-26】	지역별 사회참여역량 평균 차이	166
【그림 IV-27】	지역별 개인시민성 평균 차이	166
【그림 IV-28】	지역별 공동체시민성 평균 차이	167
【그림 IV-29】	지역별 세계시민성 평균 차이	167
【그림 IV-30】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상호작용	170
【그림 IV-31】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사고력의 상호작용	172
【그림 IV-32】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지적도구활용능력의 상호작용	177
【그림 IV-33】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지적도구활용능력의 상호작용(계속)	178
【그림 IV-34】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학습적응성의 상호작용	183
【그림 IV-35】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학습적응성의 상호작용(계속)	184
【그림 IV-36】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상호작용	203
【그림 IV-37】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건강관리의 상호작용	206
【그림 IV-38】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과제관리의 상호작용	209

【그림 IV-39】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상황대처의 상호작용	213
【그림 IV-40】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정서조절의 상호작용	217
【그림 IV-41】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상호작용	238
【그림 IV-42】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진로설계의 상호작용	241
【그림 IV-43】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여가활용능력의 상호작용	246
【그림 IV-44】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개척정신의 상호작용	251
【그림 IV-45】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상호작용	271
【그림 IV-46】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관계형성의 상호작용	274
【그림 IV-47】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리더십의 상호작용	278
【그림 IV-48】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협동의 상호작용	282
【그림 IV-49】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의 상호작용	298
【그림 IV-50】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개인 시민성의 상호작용	299
【그림 IV-51】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공동체 시민성의 상호작용	300
【그림 IV-52】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세계 시민성의 상호작용	301
 【그림 V-1】 청소년 역량 증진 및 강화를 위한 6대 정책제언의 구성체계	313
 【그림 [부록1]-1】 청소년 역량 개념 이해를 위한 기본관점 모형(성은모 외, 2015, p.126)	352
【그림 [부록1]-2】 OECD국가 15~19세 청소년 자살율	371
【그림 [부록1]-3】 만 13~19세 청소년의 고민 및 학생의 기대하는 교육 목적	372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추진체계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래사회의 주요 특성 중의 하나는 불확실성이며, 불확실성은 급변하는 사회현상과 기술의 발전에 기인한다. 따라서 국가는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미래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면, ‘경쟁력 있는 인재’의 대상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각자의 관점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인재’가 다를 수 있지만, 무궁무진한 발전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일컫는 ‘청소년’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미래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과 발달하여 경쟁력 있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소년 정책’을 국가차원에서 중차대한 정책과제로 다룰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경쟁력 있는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2013년 본격 추진하면서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미래핵심인재 양성이라는 목표아래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증진을 통해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 정부만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OECD의 DeCeCo 프로젝트(OECD, 2005)를 비롯하여 UNESCO는 2015년부터 Learning Matrix 프로젝트를 통하여 역량 중심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국가교육과정의 틀을 역량중심 학습체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성은모 외, 2015).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과 학습체제로 전환하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생활전반에 걸쳐

* 이 장은 장근영 연구위원과 성은모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 집필하였음.

한 개인의 성공은 특정 교과목의 수행수준보다 훨씬 넓은 개념의 ‘역량(Competency)’에 의해 좌우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Rychen & Salganik, 2003). 이 역량은 시대적 요구와 특정 사회의 맥락적 특성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각 사회의 맥락적 특성에 부합하는 역량을 도출하고 그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시대적 요구와 우리나라 사회의 맥락적 특성에 부합하는 청소년의 역량이 무엇인지 그 개념과 구성요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려는 연구와 정책이 수행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08~2010년 청소년의 생애핵심역량의 구성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고(김기현 외, 2010),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13년부터 학생역량지수의 구성요인과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며(김창환 외, 2013), 교육부에서도 2013년부터 인성역량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청소년 역량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2008~2010년 청소년의 생애핵심역량 연구는 국가적 수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청소년 역량을 다루었고, 학생역량과 인성역량의 경우에는 학교교육과정 및 제도개선이라는 학교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는 것이다(성은모 외 2014; 성은모 외 2014; 성은모 외, 2015).

그렇다면,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제한점을 극복하고 시대적 요구와 우리사회의 맥락적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 역량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시된다. 이에 대해 성은모와 동료들(2014, 2015)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국가적 수준에서 미래사회 변화의 특성을 주도하기 위하여 미래사회의 주인으로써 성장하는데 요구되는 청소년 역량의 구성요인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규명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청소년 역량은 특정 시기에 한정된 역량이 아니라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이행되는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역량과 청소년 개인을 둘러싼 전생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역량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그들은 청소년 역량을 ‘청소년이 현재와 미래(성인기)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핵심행동특성으로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에서 경험하고 충족시켜야 할 능력(지식, 기술, 태도)라 정의하였고, 청소년 역량의 구성요인을 생애학습역량(사고력, 지적도구활용), 생활관리역량(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화대처, 정서조절), 진로개발역량(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 대인관계역량(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그리고 사회참여역량(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세계 시민성) 등 5개의 역량군과 16개의 하위역량 지수를 제안하였다(성은모 외 2014; 성은모 외 2015). 특히,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연구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 청소년들의 역량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수준 파악이 가능하게 하는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에 주안점을 두었다. 하지만 해당

연구에서 미래사회의 특성과 우리나라 사회의 맥락적 특성에 부합하는 청소년 역량의 개념과 이에 따른 역량의 구성요인을 제시하였지만, 청소년 역량의 수준을 실제적으로 측정하여 비교분석할 수 있는 청소년 역량 측정 결과가 없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보다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현 역량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그 역량 수준에 따라 역량이 높은 영역의 정책은 유지하고, 역량 수준이 낮은 영역의 정책은 보다 집중함으로써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이 강화되어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역량을 측정하고, 이를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이에 따른 맞춤형 청소년 역량 강화 정책이 추진될 필요성이 제시된다.

이와 같은 청소년 역량 연구의 필요성과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 의거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연속적이면서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5개년(2014~2017) 연구계획을 수립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라는 정책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 1차년인 2014년도 과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연구(성은모 외, 2014)’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을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와 IEA ICCS(Inter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이하 IEA ICCS) 2016와 같이 국제수준에서 청소년의 역량을 비교분석 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 정책연구의 2차 년도 연구이자 2014년도 1차 년도 연구의 후속연구이다. 2015년도 2차 연구과제는 1차 연구과제에서 개발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역량을 진단하고, 국제비교를 위한 IEA ICCS 2016 예비조사를 수행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 청소년의 역량 수준을 진단해 봄으로써 청소년 역량을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역량 측정에 있어 타당하고 신뢰로운 도구임이 경험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청소년 역량의 변화추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국가청소년 역량지수(Korean Youth Competency Index: KYCI)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 정책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과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역량 진단을 통해 도출된 객관적 자료는 어느 영역의 역량이 높고, 낮은지를 다양한 변인(청소년 시기별, 성별, 지역별, 경제적 수준 별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맞춤형

청소년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활동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역량중심의 청소년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을 균형 있게 성장 및 발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따라서 청소년 역량은 목적이며, 청소년 활동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일 수 있다. 따라서 활동중심의 청소년 활동정책을 역량중심의 청소년 역량정책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청소년 활동에 대한 영역별 역량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따른 청소년 역량기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청소년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관련 인적자원의 역량강화와 인프라의 고도화의 수준과 범위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인적자원 예컨대 청소년 지도사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제도 및 교육방법 등의 변화가 요구되며,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물리적 환경으로써 인프라의 확충과 질적 개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수준과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를 종합하여 청소년 역량 증진 및 강화를 위해 우리 사회가 지원하고 개선해야하는 제도 및 정책 부분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제도 및 정책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내용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EA 2016 ICCS’ 연구과제는 5개년에 걸쳐 수행되는 연구과제로서 본 연구는 2차 년도 연구과제에 해당된다. 2차 년도 연구과제는 1차 년도 연구과제에서 개발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국내 청소년의 역량을 실제적으로 측정하는 본조사와 IEA 2016 ICCS 국제비교를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한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15년 청소년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본조사 실시 및 자료분석

2015년도 2년차 연구과제에서는 2014년 1차 년도 연구과제에서 개발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전국 규모로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현황과 실태 분석을 위한 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청소년 역량 측정을 통해 국내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청소년 역량 실태 본 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 역량에 대한 다층적인 자료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청소년 역량 진단을 위해 모집단을 전국 단위로 산정하고, 청소년 역량에 대한 다층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청소년 시기별(9세~24세) 개념 범주에 속하는 청소년에 있어 초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중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 후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집단을 선정하고 층화집락추출법에 따라 표본 집단을 추출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 역량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측정된 자료에 대한 정규성, 신뢰도, 그리고 측정 구인의 적합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성별, 청소년 시기별: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중기 청소년 1(중학생),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 후기 청소년(대학생), 학업성취수준별), 부모의 특성(부, 모의 학력 수준), 가정 특성(가족구성, 경제적 수준, 거주 지역) 영역을 중심으로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청소년 역량에 대한 심도 있는 해석을 위하여 청소년 시기(초기, 중기, 후기 청소년)에 따라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성별, 학업성취도 수준, 부모학력수준, 가족구성, 경제적 수준, 그리고 거주 지역)과의 상호작용 분석과 청소년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을 규명하기 위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역량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2) 2016 국제비교를 위한 청소년 국제시민성 및 시민의식조사연구(IEA ICCS 2016)의 예비조사 실시

본 연구의 다른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국제교육협의회(IEA)에서 주관하는 2016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 조사연구(ICCS 2016)에 참여하여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역량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비교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차 년도(2014년) 부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 한국대표 기관으로서 ICCS 2016 조사위원회와 IEA ICCS 2016의 조사문항 개발에 참여하여 조사문항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IEA에서 확정된 조사문항을 한국 상황에 맞게 번역하고 학교 표본을 선정하여 IEA 본부에 등록하는 등의 조사준비를 실시하였다. 2015년 2차 년도에는 2016 ICCS 국제 본 조사를 위하여 1차 년도에서 확정된 IEA ICCS

2016 조사문항을 사용해서 예비조사(Field Trial)를 실시하였다. IEA ICCS 2016 예비조사는 표본선정 및 분권(booklet)으로 나뉘어 있는 조사문항의 이해와 본 조사의 절차를 그대로 시행해 봄으로써 조사 절차를 숙지하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준비하여 2016년 상반기에 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본조사에 사용할 조사 문항의 국가별 원문 번역이 정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된 문항들을 본조사 실시 전에 수정·보완할 기회를 얻기 위함이다. 그 외에도 각 참가국의 조사담당 기관과 조사담당자들로 하여금 문항의 번역과 검토, 조사지 편집과 조사표본별 배부, 조사결과 수집과 데이터 입력의 전 과정을 미리 수행함으로써 본조사 실시시의 시행착오와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3)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위한 청소년 역량 정책의 방향 제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소년 역량 진단 결과를 기초로 한국 청소년의 역량 수준을 분석하고 국가 청소년 정책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영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추진 우선순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역량 함양을 위해 국가/사회가 지향해야 할 정책의 비전과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기존의 학업중심의 교육정책에서 통합적이고 실천적인 역량중심의 교육정책으로의 전환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역량기반 청소년 활동 교육과정 및 교재/프로그램개발,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인적자원 및 인프라 개선 방안 등의 구체적 정책전략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연구추진체계

본 연구는 제 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여성가족부, 2012)를 기반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5개년 계획(2013~2018)으로 구성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의 2차 년도 연구과제이다. 이 연구과제는 총 5개년 계획에 의거 수행되는 연구과제로써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고, 국가 수준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ICCS와 관련된 국제비교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역량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의 5개년 연구추진계획의 개요를 제시하면 【그림 I-1】 과 같다.

1단계 (2014년)	<table> <tr> <td>목적</td><td>· 청소년 역량 표준 설정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td></tr> <tr> <td>내용</td><td>· 국내 및 해외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청소년 역량 개념화 및 지표체계 구축 · 청소년 역량지표 구성체계의 타당화 · 청소년 역량 측정도구 1차 프로토타입 개발 · IEA ICCS 2016 조사 연구기관과의 국제협력체계 구축</td></tr> <tr> <td>방법</td><td>·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FGI조사, 전문가협의회 · 집단검사, 출장면담조사 · 청소년 역량 측정도구 개발 타당성 조사, 통계분석</td></tr> </table>	목적	· 청소년 역량 표준 설정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내용	· 국내 및 해외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청소년 역량 개념화 및 지표체계 구축 · 청소년 역량지표 구성체계의 타당화 · 청소년 역량 측정도구 1차 프로토타입 개발 · IEA ICCS 2016 조사 연구기관과의 국제협력체계 구축	방법	·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FGI조사, 전문가협의회 · 집단검사, 출장면담조사 · 청소년 역량 측정도구 개발 타당성 조사, 통계분석
목적	· 청소년 역량 표준 설정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내용	· 국내 및 해외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청소년 역량 개념화 및 지표체계 구축 · 청소년 역량지표 구성체계의 타당화 · 청소년 역량 측정도구 1차 프로토타입 개발 · IEA ICCS 2016 조사 연구기관과의 국제협력체계 구축						
방법	·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FGI조사, 전문가협의회 · 집단검사, 출장면담조사 · 청소년 역량 측정도구 개발 타당성 조사, 통계분석						
2단계 (2015~2016년)	<table> <tr> <td>목적</td><td>·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PISA, PIAAC, ICCS)를 통한 청소년 역량의 현황분석 ·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추진방안을 위한 실천적 전략 제시 ·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td></tr> <tr> <td>내용</td><td>· 측정지표체계에 대한 평가와 수정 · 전국규모 조사를 통해 청소년 역량 진단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PISA, PIAAC, ICCS) ·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 제시 · 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역량중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안 제시</td></tr> <tr> <td>방법</td><td>·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FGI조사, 전문가협의회 · 집단검사, 출장면담조사 · 전국 규모 청소년 역량 진단조사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분석(PISA, PIAAC, ICCS)</td></tr> </table>	목적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PISA, PIAAC, ICCS)를 통한 청소년 역량의 현황분석 ·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추진방안을 위한 실천적 전략 제시 ·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내용	· 측정지표체계에 대한 평가와 수정 · 전국규모 조사를 통해 청소년 역량 진단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PISA, PIAAC, ICCS) ·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 제시 · 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역량중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안 제시	방법	·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FGI조사, 전문가협의회 · 집단검사, 출장면담조사 · 전국 규모 청소년 역량 진단조사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분석(PISA, PIAAC, ICCS)
목적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PISA, PIAAC, ICCS)를 통한 청소년 역량의 현황분석 ·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추진방안을 위한 실천적 전략 제시 ·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내용	· 측정지표체계에 대한 평가와 수정 · 전국규모 조사를 통해 청소년 역량 진단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PISA, PIAAC, ICCS) ·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 제시 · 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역량중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안 제시						
방법	·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FGI조사, 전문가협의회 · 집단검사, 출장면담조사 · 전국 규모 청소년 역량 진단조사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분석(PISA, PIAAC, ICCS)						
3단계 (2017~2018년)	<table> <tr> <td>목적</td><td>· 청소년 역량의 국제수준 비교 분석 ·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효과성 분석 ·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청소년 역량성과 분석</td></tr> <tr> <td>내용</td><td>·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PISA, PIAAC, ICCS)를 통한 청소년 역량의 현황분석 ·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청소년 역량성과 분석</td></tr> <tr> <td>방법</td><td>·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FGI조사, 전문가협의회 · 집단검사, 출장면담조사 · 전국 규모 생애핵심역량 진단조사, 통계분석</td></tr> </table>	목적	· 청소년 역량의 국제수준 비교 분석 ·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효과성 분석 ·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청소년 역량성과 분석	내용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PISA, PIAAC, ICCS)를 통한 청소년 역량의 현황분석 ·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청소년 역량성과 분석	방법	·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FGI조사, 전문가협의회 · 집단검사, 출장면담조사 · 전국 규모 생애핵심역량 진단조사, 통계분석
목적	· 청소년 역량의 국제수준 비교 분석 ·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효과성 분석 ·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청소년 역량성과 분석						
내용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PISA, PIAAC, ICCS)를 통한 청소년 역량의 현황분석 ·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청소년 역량성과 분석						
방법	·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FGI조사, 전문가협의회 · 집단검사, 출장면담조사 · 전국 규모 생애핵심역량 진단조사, 통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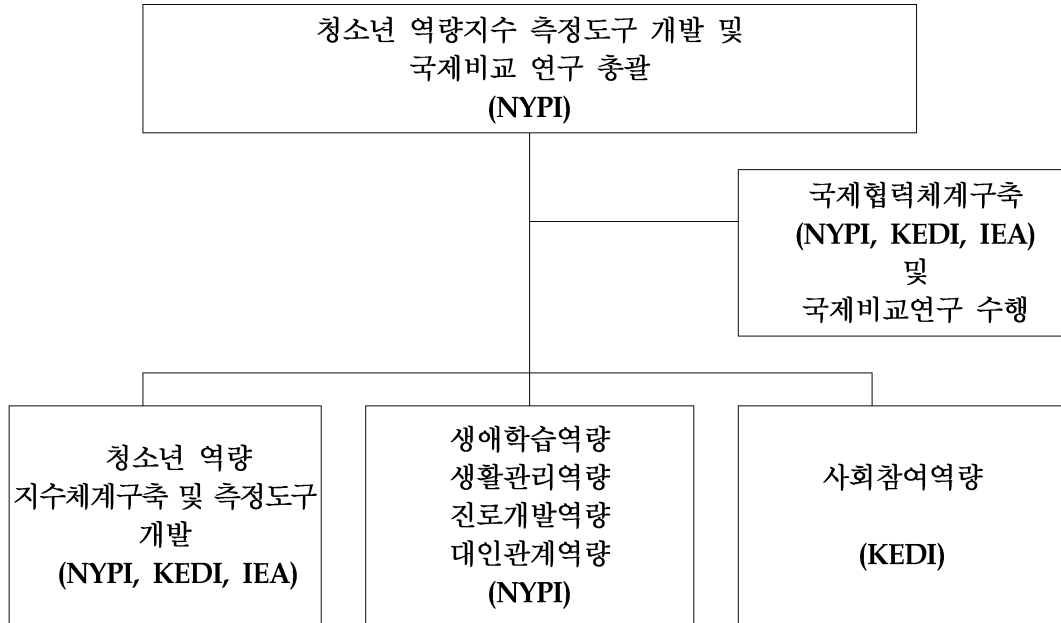
【그림 I-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의 5개년(2014~2018) 연구추진계획
(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2014, p.10에서 재인용)

1차 년도 연구과제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이 주요목적이며, 2~3차 년도 연구과제는 1차 년도에서 개발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를 기반으로 전국 규모의 청소년 역량의 수준을 진단하고 동시에 국제 수준에서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 연구(2016 ICCS)에 참여하여 청소년 역량을 비교 분석하며, 3~5차 년도 연구과제에서는 청소년 역량을 연차별로 측정하여 이들의 시계열 변화의 정도를 분석하여 향후 청소년 역량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추진 체계 속에서 본 연구는 2차 년도 연구과제로써 1차 년도에 개발된 청소년 역량 측정도구를 기반으로 국가 수준에서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2016 ICCS 본 조사를 위한 준비과정으로써 ICCS 예비조사를 실시함으로써 2016년 본조사의 진행상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청소년 역량진단 조사와 국제 청소년 역량 예비조사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역량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 제언과, 2016 ICCS 본 조사를 위한 준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안을 제시하는 연구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또한 본 연구과제는 협동연구과제이다. 따라서 청소년 역량에 있어 국제 시민의식 및 시민성 국제비교 연구 수행이 가능한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2009년 부터 ICCS와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국제 시민의식 및 시민성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를 수행하여온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공동으로 협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협동연구로 진행되는 연구과제의 특성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이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 및 국제 비교 연구의 총괄을 담당하고, 한국교육개발원과는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비교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하였다.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청소년 역량지수 5가지 역량군(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 참여역량)에 있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자료 분석을 주관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은 사회참여역량에 대한 조사와 자료 분석을 담당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과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국제비교를 위한 2016 ICCS 예비조사를 실행하였다. 이를 위한 협동연구과제 추진체계를 제시하면 【그림 I-2】와 같다.



【그림 1-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를 위한 협동연구과제 추진체계

제 II 장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역량 개념 및 정의
2.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제 및
측정문항 구성
3. 청소년 역량지수 국제비교를 위한
ICCS 2016의 개요

제 II 장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역량 개념 및 정의

청소년은 행복한 성인으로 성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개인적, 사회적 자산으로써 잠재력을 소유하고 있는 개발 가능한 사회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5; 진성희, 성은모 최창욱, 2015). 청소년이 행복한 성인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 시기 즉, 청소년초기, 중기, 후기의 발달 단계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자아개념, 동기, 내면적 특질 등이 있는데, 이를 역량(competency)으로 이해될 수 있다(성은모 외, 2015).

이러한 역량의 관점에서 청소년 역량을 개념화해 보면, 청소년 시기의 전반적인 삶의 현장에서 성공적인 수행을 이끌게 하는 개인의 내재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성은모와 동료들(2013, pp.51-53; 2014; 2015, pp.125-126.)은 청소년 역량을 개념화하는데 있어 세 가지 기본방향과 관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는데, 첫째,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적 특성을 포괄하여야 하고, 둘째,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확장에 따라 요구되는 특성을 포함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아동기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전체적인 생애발달과정을 포함하여 현재와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특성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성은모와 동료들(2013, p.53; 2015, p.121)은 청소년 역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다음의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 이 장은 장근영 연구위원, 성은모 부연구위원, 최홍일 전문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진성희 교수(인하대학교), 김균희(인하대학교)가 공동으로 집필하였으며, 청소년 역량지수의 개념 및 특성,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요인 및 측정문항의 구성을 중심으로 요약 및 정리하여 진술하고, 보다 자세한 이론적 배경에 대한 내용은 [부록]의 '2015 청소년 역량관련 선행문헌 분석 내용(청소년 역량 수준에 대한 선행문헌 분석, 청소년 역량정책에 대한 선행문헌 분석.)'에 자세히 제시되었음.

청소년 역량이란 청소년이 현재와 미래(성인기)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핵심행동특성으로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에서 경험하고 충족시켜야 할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의미한다.(성은모 외, 2013, p.53; 성은모 외, 2015, p. 126.)”

2.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제 및 측정문항 구성³⁾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제는 성은모와 동료들(2013; 2104; 2015)이 수행되었던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연구(성은모 외 2013)’, 2014년 1차 년도 연구과제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 ICCS 2016(성은모 외, 2014)’,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학술논문지로 게재한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성은모 외, 2015)’에서 도출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이들의 연구를 종합하여보면,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제는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그리고 사회참여역량으로 대분류되며, 생애학습역량은 사고력, 지적도구활용, 학습적응성 등으로, 생활관리역량은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등으로, 진로개발역량은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 등으로, 대인관계역량은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등으로, 사회참여역량은 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세계 시민성 등으로 중분류되어 도출되었으며, 하분류로 16개의 세부역량이 도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성은모와 동료들(2013; 2104; 2015)이 제시한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에 따른 측정문항의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생애학습역량은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역량을 의미하며, 하위구성요소로는 사고력, 지적도구활용, 학습적응성이 포함되었다. 사고력(9문항)은 비판적 사고력(6문항)과 감성적 사고력(3문항)의 두 가지 요인으로, 지적도구활용(21문항)은 언어능력(5문항), 수학능력(5문항), 과학능력(7문항), 정보통신활용능력(4문항)의 네 가지 요인으로, 학습적응성(7문항)은 변화수용력(2문항), 지적호기심(2문항), 학습주도성(3문항)의 세 가지 요인으로 총 3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생활관리역량은 은 자신이 삶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여 자신과

3) 이 부분은 성은모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제는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4, pp.55-61, pp.101), 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2014, pp.201-206),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5, p.135)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내용체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연구수행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재구성하여 종합 정리하였음.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며, 하위구성요소로는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이 포함되었다. 건강관리(11문항)는 위생관리(3문항), 신체관리(2문항), 안전 및 스트레스관리(6문항)의 세 가지 요인으로, 과제관리(12문항)는 목표 및 계획수립(9문항)과 수행 및 평가(4문항)의 두 가지 요인으로, 상황대처(16문항)는 중독인식(3문항), 중독행동(7문항), 폭력행동(3문항), 폭력회피(3문항)의 네 가지 요인으로, 마지막으로 정서조절(9문항)은 분노행동(2문항), 감정절제(2문항), 조절실패(3문항), 감정인식(2문항)의 네 가지 요인으로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진로개발역량은 일생에 걸쳐 한 개인의 생애 역할, 경험, 관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독특성을 개발하고 인생의 경험의 폭을 넓혀가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역량(진성희, 성은모, 최창욱, 2015)을 의미하고, 하위구성요소로는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이 포함되었다. 진로설계(15문항)는 자기탐색(4문항), 직업탐색(4문항), 직업가치관(3문항), 진로준비(4문항)의 네 가지 요인으로, 여가활용(17문항)은 여가태도(6문항), 여가유능감(4문항), 여가만족(3문항), 여가몰입(4문항)의 네 가지 요인으로, 개척정신(8문항)은 차별화태도(5문항)와 도전정신(3문항)의 두 가지 요인으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대인관계역량은 개인 또는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타인들과 개방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주도적으로 협력하여 의사소통하는 역량을 의미하며, 하위구성요소로는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이 포함되었다. 관계형성(18문항)은 자기개방성(4문항), 친화성(4문항), 의사소통(6문항), 공감 및 배려(4문항)의 네 가지 요인으로, 리더십(14문항)은 의사결정(4문항), 집단활동관리(4문항), 추진력(6문항)의 세 가지 요인으로, 협동(14문항)은 집단추진(6문항), 팔로워십(3문항), 갈등문제해결(5문항)의 세 가지 요인으로 총 4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참여역량은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적 선을 위하여 타인과 협력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역량을 의미하며(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3, pp.55-61, pp.101;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5, p.135), 하위구성요소로는 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세계 시민성이 포함되었다. 개인 시민성(14문항)은 권리·책임의식(4문항), 민주적 절차 및 의식(2문항), 정치적 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8문항)의 세 가지 요인으로, 공동체 시민성(33문항)은 공적실천(14문항), 사회적 신뢰(9문항), 적극적 의견개진(5문항), 교실개방성(5문항)의 네 가지 요인으로, 세계 시민성(16문항)은 성 인지(3문항), 이민자에 대한 태도(5문항), 국가 및 역사 의식(4문항), 국제 관계 이해(4문항)의 네 가지 요인으로 총 6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통계 특성에 다른 배경정보 내용은 생년, 지역, 가족구성,

부모(보호자) 학력, 취업여부, 생활만족도, 학업성취도 수준, 경제적 수준 등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설문문항은 최종 24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표 III-10> 참조), 각 세부 설문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4>에 제시했다.

3. 청소년 역량지수 국제비교를 위한 ICCS 2016의 개요

1)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 비교조사(ICC) 소개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 비교조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이하 ICCS 2009) 는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이하 IEA)에서 조직한 청소년대상 국제 비교조사 중의 하나이다. IEA는 1958년에 UNESCO의 주도로 설립된 단체로서 전 세계 각국에서 수행하는 교육정책 수립과 추진 체계 분야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68개국의 정부 및 비정부연구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IEA의 연구조직은 주로 교육에 대한 투자와 성과를 비교·분석하는 학술, 교육, 사회학, 심리학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ICCS 이외에 IEA가 지금까지 수행해 왔거나 앞으로도 수행할 국제비교연구 조사로는 TIMMS(국제 수학/과학교육 추세비교조사), PIRLS(읽기/문해력 성취도 국제비교조사), TEDS-M(수학 교사교육 및 개발비교조사), 1990년대 수행했던 정보통신교육 비교조사(ITES)를 발전시킨 국제 컴퓨터 정보문해력 비교조사(ICILS 2013) 등이 있다(IEA, 2015).

이들 조사 중에서 ICCS는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향후 성인이 되어 영위하게 될 2020년의 미래 사회에서 유능하고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측정하는 조사이다. 구체적으로 ICCS에서는 각국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지적·기술적 훈련과 정서 및 태도적 준비로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기초로 각국의 시민교육을 보다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조사의 역사는 1971년에 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교육 연구 프로젝트 (Amadeo, Torney-Purta, Lehmann, Husfeldt, & Nikolova, 2002에서 재인용)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첫 번째 연구에서는 9개국의 3개 연령그룹 청소년들 3만 여명을 대상으로 시민의식과 시민교육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이 선행 연구를 기초로 1999년에 시민교육연구(CivEd)라는 명칭으로 첫 번째 국제조사를 실시했다. 부분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캐나다와 네덜란드, 이스라엘을 포함해 총 31개국이 이 조사에 참여했다. 이때부터 조사대상 연령은 다른 국제교육평가 조사 연령인 만 14세(13.5세)와 동일하게 조정되었으며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교에 대한 조사 역시 함께 실시되었다. 2009년에는 조사의 명칭이 ICCS로 변경되었으며 한국을 포함한 총 38개 국가와 도시가 참여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ICCS 2016은 제 3회 조사에 해당한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 총 28개국이 예비조사(Field Trial)에 참여했으며 올해(남반구 국가)와 2016년(북반구 국가)에 본조사(Main Survey)를 실시할 예정이다.

표 II-1 ICCS 조사의 약력

수행연도	명칭	참가국	조사대상
1971	9개국 시민교육 비교연구	네덜란드, 뉴질랜드, 독일, 미국, 스웨덴,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핀란드 (9개국)	학생
1999	CivED (Civic Education Study)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미국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슬로베니아, 슬로브 공화국, 에스토니아, 영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체코,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호주, 홍콩, 28개국 ⁴⁾	학생(8학년), 교사, 학교장
2009	ICCS 2009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2009)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라트비아, 러시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프로스, 파라과이, 폴란드, 핀란드, 과테말라,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대만,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태국, 홍콩, 뉴질랜드 38개국	학생(8학년), 교사, 학교장
2016	ICCS 2016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2016)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라트비아, 러시아,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핀란드, 아르헨티나,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페루, 대만, 대한민국, 홍콩 28개국 예정	학생(8학년), 교사, 학교장

* 출처: IEA Cived <http://www.iea.nl/cived.html>, IEA ICCS 2016 <http://iccs.iea.nl/>

2) ICCS 2016의 의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CCS 는 학업능력과 성취도를 중심으로 측정하는 PISA, TIMMS, PIRLS와 함께 민주시민교육수준에 대해서는 가장 오랫동안 충분히 개발된 측정 도구와 축적된 참여국 데이터를 보유한 세계 최대의 국제비교조사라고 할 수 있다. ICCS는 특히 EU 및 OECD 가입국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 포함한 민주시민교육성취도에 대한 가장 엄정한 국제비교 조사로서 한국을 포함한 조사대상국의 청소년 정책과 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비교·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조사 결과의 분석을 통해 한국 청소년들의 시민교육 성취도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의·행동영역의 발달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다.

표 II-2 청소년대상 국제조사들과 ICCS의 특성비교

	PISA	TIMMS	PIRLS	ICCS
명칭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Progress in International Reading Literacy Study 2011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주관기관	OECD	IEA	IEA	IEA
조사대상	중등2학년	초4, 중2학년	초등4학년	중등2학년
주요 조사내용	언어·수학·과학 성취도, 문제 해결능력, 학업 태도(흥미/관심/자신감) 및 가정, 학교 배경요인	학생들의 수학·과학과목 학업성취도 및 가정, 학교, 사회적 배경요인	학생들의 읽기, 문해력, ICT 정보이해력 및 가정, 학교, 사회적 배경요인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성취도, 시민의식, 신뢰·참여수준, 공동체의식 및 가정, 학교, 사회적 배경요인
참여국	31개국	42개국	35개국	38개국
조사주기	3년	4년	5년	5년

다문화화·계층갈등·사회적 신뢰부족 등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세대의 시민의식함양은 매우 시의성 높은 교육정책 목표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시의성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09년 조사부터 아시아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4) 캐나다와 네덜란드는 일부조사에만 참가, 이스라엘은 데이터 일부만 제출하여 분석에서 제외

참여하여 개념구성 및 조사문항 선정에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이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파트너로 참여하여 조사결과의 국내외 분석과 발표 작업을 협동연구형태로 진행하였다. 2016년 3차 조사에도 홍콩 대만과 함께 참여하여 2009년 조사결과와의 시계열적 비교 및 청소년들의 민주시민교육정책의 성과를 다층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ICCS의 2009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은 민주시민의 인지적 영역 즉,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과 추론 및 판단능력 영역에서는 핀란드와 스웨덴 다음으로 세 번째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에 대한 신뢰, 정치적 참여의 경험, 성인이 되어 적극적으로 시민행동을 할 의사 등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 한국 청소년들은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다(ACER, 2010; 장근영, 박수익, 장지영, 2011에서 재인용). 이러한 결과는 한국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역량 발달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3) ICCS 2016의 조사 영역

ICCS에서는 각 국가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을 단순히 학교교육의 결과물로 상정하지 않는다. 유리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 2004)가 제시했던 ‘생태학적 인간발달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은 우선 미시적인 개별 청소년들의 가정환경과 청소년들이 직접 접하는 교실과 학교전체의 문화와 교육내용에게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학교 역시 그 학교를 둘러싼 지역사회 공동체의 영향을 받으며, 더 크게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포괄하는 국가 단위의 교육정책과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ICCS 조사는 단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또한 교실 환경을 형성하는데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담임 교사 및 사회교과 교사들과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장이라는 3개 영역에 대해서 모두 실시된다. 뿐만 아니라 ICCS 조사에 참여한 각국의 연구진들을 대상으로 국가단위 맥락 조사(National Context Survey)를 실시하여 각국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과 같은 환경맥락을 측정한다.

그리고 각 위계별 환경요인들이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에 효과를 미치는 과정을 선행요소(Antecedents)와 과정(Processes) 및 결과(Outcomes)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적절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Schulz 등, 2015, p.38).

표 II-3 ICCS에서 상정한 민주시민역량 결정요인과 요인별 조사 방법

환경의 수준	선행요소단계	과정단계	결과단계
국가 및 지역사회 공동체	NCS 및 기타조사: 국가별 민주화 역사, 교육과정의 구조 등	NCS 및 기타조사: 실제 교육내용 정치적 발전수준	학생검사 및 학생설문: 검사결과점수 학생들의 주관적 인식
학교 및 교실환경	교장설문 및 교사설문: 학교의 특성, 학교에서 보유한 자원	교장 및 교사설문: 커리큘럼, 교내정책 및 실행현황	
학생 개인	학생설문: 성별, 연령	학생설문: 인지적 학습활동, 참여 실천 학습활동	
학생들의 가정환경	학생설문: 부모 SES, 인종/문화적 배경, 언어, 출생국 등	학생설문: 가족내 의사소통 또래집단 활동 등	

*출처: Schulz, Fraillon, Losito, Agrusti (2015). IEA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2016: Assessment Framework Draft (p.38)

제 III 장

연구방법

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분석과
ICCS 2016 예비조사 개요
2.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조사
3. ICCS 2016 예비조사

제 III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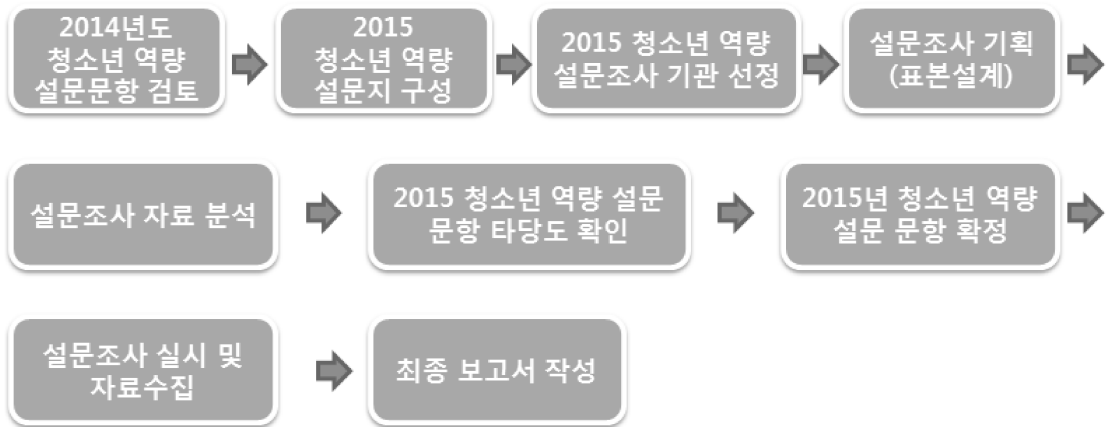
연구방법*

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분석과 ICCS 2016 예비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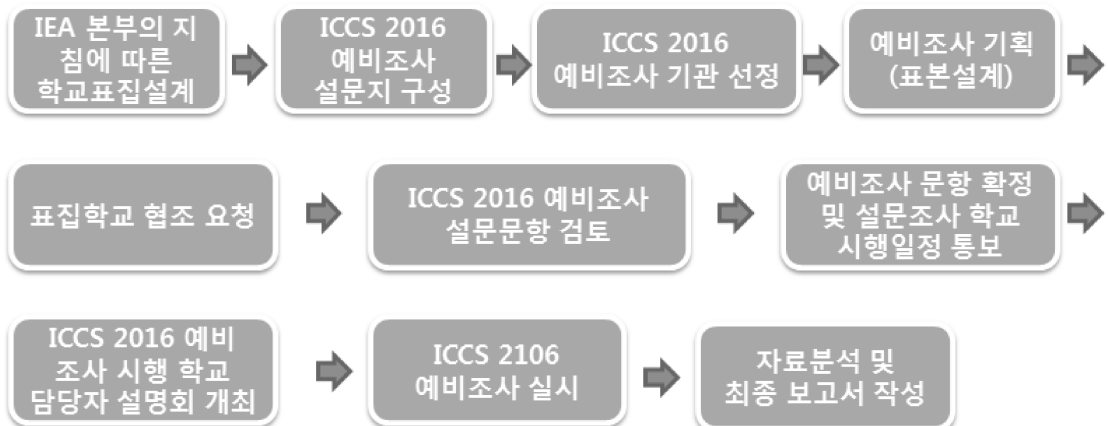
본 연구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의거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립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CCS 2016’의 5개년(2014~2018)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2014년 1차 년도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 연구과제의 후속연구인 본 연구는 2차 년도 연구과제로써 1차 년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수준에서 전국 규모 청소년 모집단으로 선정후 표본집단을 추출하여 청소년 역량에 대한 실제적인 조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아울러, 2016년도 ICCS 본 조사를 대비하여 본 조사의 절차를 그대로 시행해 봄으로써 그 절차를 숙지하고,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상황을 사전에 점검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2015년도에 실시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 ICCS2016’ 연구에 있어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조사’와 ‘ICCS 2016 예비조사’의 연구진행 절차는 [그림 III-1]과 [그림 III-2]와 같다.

* 이 장은 장근영 연구위원과 성은모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그림 Ⅲ-1】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 절차



【그림 Ⅲ-2】 ICCS 2016 예비조사 절차

[그림 Ⅲ-1]의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자료조사 절차에 따르면, 2014년 1차년도 과제에서 개발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를 기반으로 설문문항을 재검토하고 이에 따른 설문지 초안을 구성하였다. 이후 국가수준에서 전국 규모의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기관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기관과 함께 전국 청소년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표본설계 및 설문조사 기획을 수립한 후, 설문조사 문항에 대한 타당도과정을 거쳐 최종 설문문항을 확정하여, 청소년 10,516명(초등학생=2,700, 중학생=3,123명, 고등학생=3,684명, 대학생=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의 구성체계는 생애학습역량(37문항), 생활관리역량(48문항), 진로

개발역량(40문항), 대인관계역량(46문항), 사회참여역량(63문항) 등과 같이 5개의 역량군을 중심으로 242문항이 구성되었다.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I는 협동연구과제이기 때문에 한국교육개발원과 협력하여 조사와 자료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자료분석을 하였으며, 사회참여역량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김태준 (2015)에 의하여 분석되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에 대한 연구결과 내용은 김태준 (2015)의 보고서를 요약 정리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고서에 자세하게 제시되었다.

한편, ICCS 2016 조사를 위해 IEA에서는 각 국가별로 ICCS의 본조사(Main Survey)를 시행하기 1년 전에 예비조사(Field Trial)를 먼저 시행한다.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본조사에 사용할 조사 문항의 국가별 원문 번역이 정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된 문항들을 본조사 실시 전에 수정·보완할 기회를 얻기 위함이다. 그 외에도 각 참가국의 조사담당 기관과 조사담당자들로 하여금 문항의 번역과 검토, 조사지 편집과 조사표본별 배부, 조사결과 수집과 데이터 입력의 전 과정을 미리 수행함으로써 본조사 실시시의 시행착오와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예비조사는 IEA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를 표집하고, 표집학교의 설문응시자(학생, 교사, 교장)의 협조를 요청한 뒤 예비조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ICCS 2016 예비조사를 위해 IEA ICCS 사무국에서 한국의 교육통계연보 자료를 기초로 산출한 전국 25개 표본학교 2학년 재학생(평균연령 13.5세) 약 1천명 및 해당학교 해당학년 담당교사(담임 및 교과교사) 약 200명, 그리고 해당학교 책임자(교장 혹은 교감) 2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와 설문자료 분석이 이루어졌다.

1) 청소년 역량관련 선행문헌분석

첫째, 청소년 역량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요인에 대한 선행문헌을 다시 한 번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청소년 역량의 정의를 개념화하였고,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내용 타당도 및 설문조사를 위한 내용 수정의 방향을 다시하번 검토하였다.

둘째,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와 측정문항의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보다 명확한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의 특징을 확인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의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수집된 조사자료의 분석과 해석을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셋째, 청소년 역량 수준에 대한 선행문헌을 분석하였다. 이는 본 조사가 실시되는 2015년도 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써 일반적으로 다루어졌던 청소년 즉,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생의 역량수준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아울러 후기 청소년 즉,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역량 수준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연구 분석이 이루어졌다.

넷째, 청소년 역량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선행문헌을 분석하였다. 기존 청소년 역량관련 수행되었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진 혹은 제언되었던 정책 현황들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청소년 역량과 유사한 청소년 활동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 역량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향후 청소년 역량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론적 틀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역량지수 국제비교를 위한 ICCS 2016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는 국제비교조사의 의의와 목적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에 대한 조사절차와 국제비교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ICCS 2016의 소개, 조사목적, 조사내용 및 영역 등을 분석하였다.

표 III-1 청소년 역량관련 선행문헌분석 내용

분석내용
1. 청소년 역량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요인에 대한 선행문헌
2.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와 측정문항의 특징에 대한 분석
3. 청소년 역량 수준에 대한 선행문헌: 초중고대학생의 역량 수준에 대한 국내외 문헌 분석
4. 청소년 역량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선행문헌: 기존 청소년 역량 및 청소년 활동 정책 분석
5. 청소년 역량지수 국제비교를 위한 ICCS 2016의 개요

2) 청소년 각계 전문가 의견 및 자문 수렴

청소년 각계 전문가 의견 및 자문 수렴은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된 내용과 본 연구에서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과 자문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 및 적용된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제와 측정문항에 대한 타당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를 통해 도출된 객관적 자료의 분석 방안, 청소년 역량지수 체제 및 측정문항의 청소년 교육 현장 적용 방안, 그리고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 기반으로

청소년 역량을 보완, 유지,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청소년 관련 학계, 현장 전문가, 청소년 역량 정책 추진 관련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표 III-2 청소년 각계 전문가의 의견 및 자문 수렴 내용

자문영역(내용)	자문진
1.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계와 측정방향에 대한 타당도 검증	○ 청소년 학계 전문가 : 6인 ○ 청소년 현장 전문가 : 8인 ○ 청소년 정책분야 공무원: 2인
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를 통해 도출된 객관적 자료의 분석 방안	
3. 청소년 역량지수 체계 및 특정문항의 청소년 교육 현장 적용 방안	
4.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 기반으로 청소년 역량을 보완, 유지,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활용 방안	

3) 국내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본 조사 개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본 조사는 2015년 4월 현재 우리나라 17개 시·도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대상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9,000명, 대학생은 1,000명 등 총 10,000명을 목표표본으로 설정한 뒤 2014년 교육통계연부를 표집틀로 하여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층화집락표집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한 후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III-3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용
모집단	초등학교 4, 5, 6학년 재학생, 중학교 1, 2, 3학년 재학생, 고등학교 1, 2, 3학년 재학생, 대학교 재학생
표집틀	2014년도 교육통계연보
표본수	초·중·고등학생 9,000명(각 3,000명), 대학생 1,000명 등 총 10,000명
표집방법	변형비례배분
조사시기	5월~7월 실시
조사내용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대상 청소년 역량지수 조사

4) ICCS 2016 예비조사 개요

IEA에서는 각 국가별로 ICCS의 본조사(Main Survey)를 시행하기 1년 전에 예비조사(Field Trial)를 먼저 시행한다.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본조사에 사용할 조사 문항의 국가별 원문 번역이 정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된 문항들을 본조사 실시 전에 수정·보완할 기회를 얻기 위함이다. 그 외에도 각 참가국의 조사담당 기관과 조사담당자들로 하여금 문항의 번역과 검토, 조사지 편집과 조사표본별 배부, 조사결과 수집과 데이터 입력의 전 과정을 미리 수행함으로써 본조사 실시시의 시행착오와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에 한국에서도 2016년의 ICCS 2016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인 올해 2학기 중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I-4 ICCS 2016 예비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용
모집단	중학교 2학년 재학생(평균연령 13.5세)
표집틀	2014년도 교육통계연보
표본수	IEA ICCS 사무국에서 한국의 교육통계연보 자료를 기초로 산출한 전국 25개 표본학교 2학년 재학생(평균연령 13.5세) 약 1,000명, 해당학교 해당학년 담당교사(담임 및 교과교사) 약 200명, 해당학교 책임자(교장 혹은 교감) 25명 총 1,225명
조사시기	10월~11월 실시
조사내용	중학교 2학년 대상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

2.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조사

1) 연구대상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본 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2015 아동·청소년 통합조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2015 아동·청소년 통합조사'는 동일한 전국 규모의 청소년을 모집단으로 하여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는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개별과제가 독립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할 경우 샘플집단의 중복으로 인하여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중복적인 조사수행에 대한 국가예산을 절감을 비롯 독립적으로 조사를 수행할 때 보다 더 많은 표본샘플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 아동·청소년 통합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우리나라 청소년을 모집단으로 하여 10,000명 이상의 표본수를 확보함으로써 통계결과의 대표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은 2015년 4월 기준 우리나라 17개 시·도의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그리고 대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표본집단을 추출하기 위해서 초·중·고등학생은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층화집락표집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9,516명이었으며, 대학생은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층화집락표집방식으로 표본이 추출되어 1,000명이 추출되어 총 10,516명이 본 연구 조사에 참여하였다.

(1) 초·중·고등학생 표본설계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 연구에 참여한 초·중·고등학생의 전체 목표 표본크기는 조사의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되었는데,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43개 각 층에 최소 한 개 이상의 학교를 할당되어야 하며, 각 학년별로 층별 모집단크기에 비례하도록 학교수를 할당하되 전체 학교수가 약 360개 정도이고 표집 목표 학생수가 9,500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비율의 추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신뢰수준은 95% $\pm$ 1.0%이고, 층화집락추출의 상황 하에서의 실제 표본오차는 이보다 조금 더 크게 되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충분히 허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초·중·고등학생 표본집단의 크기를 추출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써 지역, 학교급, 그리고 학년별로 학교수와 학생수의 분포 및 추출방법은 <부록 2>에 제시하였다.

표 III-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초·중·고등학생 모집단크기 및 표본집단 크기

학교급		학년	모집단크기			표본집단크기 (변형비례배분)	
초등학교	초등학교	4	450,532	1,378,934 (28.1%)		2,700 (28.4%)	
		5	468,240				
		6	460,162				
중학교	중학교	1	525,006	1,705,146 (34.7%)		3,132 (32.9%)	
		2	593,902				
		3	586,238				
고등학교	일반고	1	423,344	1,295,108 (26.4%)	1,881,437 (35.8%)	2,400 (25.2%)	3,684 (38.7%)
		2	435,027				
		3	436,737				
	자율고	1	48,078	143,783 (2.9%)		480 (5.0%)	
		2	48,049				
		3	47,656				
	특성화고	1	112,504	336,239 (6.8%)		648 (6.8%)	
		2	112,854				
		3	110,881				
	특수 목적고	1	17,535	51,794 (1.1%)		156 (1.6%)	
		2	17,752				
		3	16,507				
합계				4,911,004 (100.0%)		9,516 (100.0%)	

* 출처: 이 표는 2015년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의 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작성하였으며, 통합 조사에 참여한 과제에서 공통으로 수록하였음.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해 추출된 모집단 및 표본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모집단 전체 대상 청소년 수는 4,911,004명이며, 초등학생이 1,378,934(28.1%)명,

중학생이 1,705,146(34.7%)명, 고등학생이 1,826,924(37.2%)명이었다. 이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변형비례배분으로 추출한 전체 표본크기는 9,516명이며, 초등학생이 2,700(28.4%)명, 중학생이 3,132(32.9%)명, 고등학생이 3,684(38.7%)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역별 학교급별 할당된 학교 표집 크기를 살펴보면 <표 Ⅲ-6>와 같다.

표 Ⅲ-6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표본크기 할당: 학교 수(363개)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21(7)	18(6)	12(4)	3(1)	6(2)	6(2)
경기	33(11)	27(9)	18(6)	3(1)	3(1)	
인천	9(3)	6(2)	3(1)			
강원	3(1)	3(1)	3(1)	3(1)	3(1)	
충북	3(1)	3(1)	3(1)			
충남	6(2)	6(2)	3(1)			
대전	6(2)	3(1)	3(1)			
경북	6(2)	6(2)	3(1)	3(1)	9(3)	
경남	9(3)	9(3)	6(2)			
부산	9(3)	6(2)	3(1)			
대구	6(2)	6(2)	3(1)			
울산	3(1)	3(1)	3(1)	3(1)	3(1)	
전북	6(2)	3(1)	3(1)			
전남	6(2)	3(1)	3(1)			
광주	6(2)	3(1)	3(1)			
제주	3(1)	3(1)	3(1)			
합계	135(45)	108(36)	75(25)	15(5)	24(8)	6(2)

* () 안의 수치는 학년별 학교수임. 총계: 363(121)개

* 출처: 이 표는 2015년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의 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작성하였으며, 통합조사에 참여한 과제에서 공통으로 수록하였음.

<표 Ⅲ-6>에 의하면, 모집단에 따른 목표표본 표집설계에 따라 16개 시·도의 표본학급을 추출한 결과, 초등학교 135개 학교, 중학교 108개 학교, 고등학교 120개 학교 등 총363개 학교가

표집 할당되었다. 목표표본 표집에 따른 학교할당은 층화집락추출법(지역*교급*학교유형)을 적용하였다. 각 층화기준 광역 내 교급별 학급당 평균학생 수를 기준으로 적정 추출학교 수를 결정하였고, 규모기준 정렬 학교리스트에서 학교 계통 추출(systematic sampling)하였으며, 고교의 경우 학교유형구분(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을 추가 고려하였다. 학급선정에 있어서는 표본 선정 학교에서 1개 학년 1개 학급 추출하며, 학급은 해당 학년에서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학교 및 학급 추출에 따른 표집학생의 표본수를 제시하면 <표 Ⅲ-7>와 같다.

표 Ⅲ-7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420	522	384	96	162	156
경기	660	783	576	96	81	
인천	180	174	96			
강원	60	87	96	96	81	
충북	60	87	96			
충남	120	174	96			
대전	120	87	96			
경북	120	174	96	96	243	
경남	180	261	192			
부산	180	174	96			
대구	120	174	96			
울산	60	87	96			
전북	120	87	96	96	81	
전남	120	87	96			
광주	120	87	96			
제주	60	87	96			
합계	2,700	3,132	2,400	480	648	156

* 총계: 9,516명

* 출처: 이 표는 2015년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의 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작성하였으며, 통합조사에 참여한 과제에서 공통으로 수록하였음.

<표 III-7>에 의하면, 초등학생은 2,700명, 중학생은 3,132명, 고등학생은 3,684명으로 일반고 2,400명, 자율고 480명, 특성화고 648명, 특수목적고 156명 등 총 9,516명이 표집 되었다.

(2) 대학생 표본설계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의 경우 대학 유형별(4년제대학, 전문대학), 학년별, 계열별 특성을 고려하여 17개 도시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단순비례배분방식으로 1,000명을 목표표본으로 표집 되었다. 이는 변형비례배분 방식으로 표집할 경우, 표본샘플 수가 급증하게 되고 이에 다른 비용 부담이 상당하게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권역과 학교유형, 계열을 중심으로 단순비례배분하여 1,000명을 표집목표로 정하여 표집 된 것이다.

대학생의 모집단 크기는 2,947,495명이었으며, 4년대 대학생이 2,206,694(201개 대학)명이고 전문대 대학생이 740,801(139개 대학)명이었다. 계열별로는 인문계열 294,684명, 사회계열 808,463명, 교육계열 134,943명, 공학계열 809,222명, 자연계열 317,561명, 의학계열 230,661명, 그리고 예체능계열 351,961명 이었다. 지역별 계열별 대학생 모집단 크기에 대한 내용은 <표 III-8>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표본설계 내용은 <부록 3>에 제시되었다.

표 III-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대학생 모집단크기

권역별	계	모집단 계열별 재적 학생수							모집단 학제별 재적 학생수		모집단 학제별 학교수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학	예체능	대학	전문대학	대학	전문대학
계	2,947,495	294,684	808,463	134,943	809,222	317,561	230,661	351,961	2,206,694	740,801	201	139
1. 서울	575,724	91,186	169,984	22,135	146,273	64,053	16,738	65,355	514,706	61,018	39	9
2. 부산/울산/경남	437,827	41,904	116,906	18,521	137,836	47,705	34,504	40,451	330,891	106,936	26	21
3. 대구/경북	352,186	27,099	93,343	17,482	97,374	39,172	40,960	36,756	243,777	108,409	22	23
4. 대전/세종/충청	525,824	49,599	147,347	26,042	137,371	56,457	42,463	66,545	436,350	89,474	38	16
5. 광주/호남	331,434	25,826	82,418	21,207	81,833	36,494	47,606	36,050	248,281	83,153	32	24
6. 경기/인천	555,757	45,075	147,823	20,873	173,494	49,052	27,359	92,081	301,476	254,281	33	35
7. 강원	138,504	11,006	41,208	6,748	30,765	19,758	17,365	11,654	113,533	24,971	9	9
8. 제주	30,239	2,989	9,434	1,935	4,276	4,870	3,666	3,069	17,680	12,559	2	2

* 출처: 이 표는 2015년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의 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작성하였음.

대학생의 모집단을 기반으로 목표표본 표집설계에 따라 8개 시·도의 표본대학을 추출한 결과, 4년제 대학 42개 학교, 전문대학 15개 학교 등 총 57개 학교가 할당 되었으며, 대학에서 학생의 표집은 20명을 대상으로 목표표집 하였다. 이때 대학교의 특정 계열에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7계의 계열별로 구분하여 대학생을 표집하도록 설계하였다. 지역별 계열별 대학생 표본집단 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III-9>와 같다.

표 III-9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대학생 표본집단 크기

권역별	계	표본집단 계열별 재적 학생수							표본집단 학제별 재적 학생수		표본집단 학제별 학교수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학	예체능	대학	전문대학	대학	전문대학
계	1,000	123	207	87	206	132	111	134	746	254	42	15
1. 서울	163	26	36	13	33	22	11	22	146	17	8	1
2. 부산/울산/경남	143	18	29	12	32	19	16	17	108	35	6	2
3. 대구/경북	129	14	26	11	27	17	17	17	89	40	5	2
4. 대전/세종/충청	158	19	33	14	32	20	18	22	131	27	7	2
5. 광주/호남	129	14	25	13	25	17	19	16	97	32	5	2
6. 경기/인천	158	18	33	12	36	19	14	26	86	72	5	4
7. 강원	80	9	17	7	15	12	11	9	66	14	4	1
8. 제주	40	5	8	5	6	6	5	5	23	17	2	1

* 출처: 이 표는 2015년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의 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작성하였음.

2) 연구도구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조사내용은 2013년도에 개발된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계(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3; 2015)를 기반으로, 2014년 1차 년도에 개발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2014)를 활용하였다. 청소년 역량지수 설문문항의 구성체계는 생애학습역량(37문항), 생활관리역량(48문항), 진로개발역량(40문항), 대인관계역량(46문항), 사회참여역량(63문항) 등과 같이 5개의 역량군을 중심으로 234문항이 구성되었으며, 청소년의 배경변인 8문항이 포함되어 총 24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역량군을 중심으로 설문문항의 구성체계 및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학습역량은 사고력, 지적도구활용, 학습적응성 등으로 구성되었다. 사고력(9문항)은

비판적 사고력(6문항)과 감성적 사고력(3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지적도구활용(21문항)은 언어능력(5문항), 수학능력(5문항), 과학능력(7문항), 정보통신활용능력(4문항)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습적응성(7문항)은 변화수용력(2문항), 지적호기심(2문항), 학습주도성(3문항) 등으로 총 37문항이 구성되었다. 각 영역별 측정문항간 신뢰도 계수는 사고력 Cronbach's $\alpha=.760$, 지적도구활용 능력 Cronbach's $\alpha=.908$, 그리고 학습적응성 Cronbach's $\alpha=.728$ 로 나타나 보편적 문항신뢰도가 확보되었다.

둘째, 생활관리역량은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등으로 구성되었다. 건강관리(11문항)는 위생관리(3문항), 신체관리(2문항), 안전 및 스트레스관리(6문항) 등으로 구성되었고, 과제관리(12문항)는 목표 및 계획수립(9문항)과 수행 및 평가(4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상황대처(16문항)는 중독인식(3문항), 중독행동(7문항), 폭력행동(3문항), 폭력회피(3문항) 등으로 구성되었고, 정서조절(9문항)은 분노행동(2문항), 감정절제(2문항), 조절실패(3문항), 감정인식(2문항) 등으로 총 48문항이 구성되었다. 각 영역별 측정문항간 신뢰도 계수는 건강관리 Cronbach's $\alpha=.847$, 과제관리 Cronbach's $\alpha=.927$, 상황대처 Cronbach's $\alpha=.928$, 정서조절 Cronbach's $\alpha=.664$ 로 나타나 보편적 문항신뢰도가 확보되었다.

셋째, 진로개발역량은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 등으로 구성되었다. 진로설계(15문항)는 자기탐색(4문항), 직업탐색(4문항), 직업가치관(3문항), 진로준비(4문항)로 구성되었고, 여가활용(17문항)은 여가태도(6문항), 여가유능감(4문항), 여가만족(3문항), 여가몰입(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개척정신(8문항)은 차별화태도(5문항)와 도전정신(3문항) 등으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영역별 측정문항간 신뢰도 계수는 진로설계 Cronbach's $\alpha=.907$, 여가활용 Cronbach's $\alpha=.920$, 개척정신 Cronbach's $\alpha=.622$ 로 나타나 보편적 문항신뢰도가 확보되었다.

넷째, 대인관계역량은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등으로 구성되었다. 관계형성(18문항)은 자기개방성(4문항), 친화성(4문항), 의사소통(6문항), 공감 및 배려(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리더십(14문항)은 의사결정(4문항), 집단활동관리(4문항), 추진력(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협동(14문항)은 집단추진(6문항), 팔로워십(3문항), 갈등문제해결(5문항) 등으로 총 46문항이 구성되었다. 각 영역별 측정문항간 신뢰도 계수는 관계형성 Cronbach's $\alpha=.923$, 리더십 Cronbach's $\alpha=.943$, 협동 Cronbach's $\alpha=.935$ 로 나타나 보편적 문항신뢰도가 확보되었다.

다섯째, 사회참여역량¹⁾은 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세계 시민성 등으로 구성되었다. 개인

1) 사회참여역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동연구과제 보고서 김태준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I: IEA ICCS 2015-청소년 사회참여역량 분석 보고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음.

시민성(14문항)은 권리·책임의식(4문항), 민주적 절차 및 의식(2문항), 정치적 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8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공동체 시민성(33문항)은 공적실천(14문항), 사회적 신뢰(9문항), 적극적 의견개진(5문항), 교실개방성(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세계 시민성(16문항)은 성 인지(3문항), 이민자에 대한 태도(5문항), 국가 및 역사 의식(4문항), 국제 관계 이해(4문항) 등으로 총 63문항이 구성되었다. 각 영역별 측정문항간 신뢰도 계수는 개인 시민성 Cronbach's $\alpha=.794$, 공동체 시민성 Cronbach's $\alpha=.908$, 세계 시민성 Cronbach's $\alpha=.759$ 로 나타나 보편적 문항신뢰도가 확보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통계 특성에 다른 배경정보 내용은 생년, 지역, 가족구성, 부모(보호자) 학력, 취업여부, 생활만족도, 학업성취도 수준, 경제적수준 등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설문문항은 최종 24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영역별 문항수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III-10>와 같으며, 각 세부 설문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4>에 제시되었다.

표 III-10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도구의 구성내용

역량군	하위역량	세부역량	문항수
생애학습역량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6
		감성적 사고력	3
	지적도구활용	언어능력	5
		수학 능력	5
		과학능력	7
		정보통신활용능력	4
	학습 적응성	변화수용력	2
		지적호기심	2
		학습주도성	3
합계			37
생활관리역량	건강관리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6
		신체관리	2
		위생관리	3
	과제관리	목표 및 계획수립	8
		수행 및 평가	4
	상황대처	중독행동	7
		폭력행동	3
		중독인식	3
		폭력회피	3
	정서조절	감정인식	2
		분노행동	2
		감정절제	2
		조절실패	3
합계			48

역량군	하위역량	세부역량	문항수
진로개발역량	진로설계	자기탐색	4
		직업탐색	4
		직로준비	4
		진업가치관	3
	여가활용	여가태도	6
		여가유능감	4
		여가몰입	4
		여가만족	2
		(경험)	1
	개척정신	차별화태도	5
도전정신		3	
합계			40
대인관계역량	관계형성	자기 개방성	4
		친화성	4
		의사소통	6
		공감 및 배려	4
	리더십	의사결정	4
		집단활동관리	4
		추진력	6
	협동	집단촉진	6
		팔로워십	3
		갈등문제 해결	5
합계			46
사회참여역량	개인 시민성	권리·책임의식	4
		민주적 절차 및 의식	2
		정치 관심 및 정치적 자아 효능감	8
	공동체 시민성	공적실천	14
		사회적 신뢰	9
		적극적 의견개진	5
		교실 개방성	5
	세계 시민성	성 인지	3
		이민자에 대한 태도	5
		국가 및 역사의식	4
		국제관계이해	4
합계			63
배경정보	생년, 지역, 가족구성, 부모(보호자) 학력, 취업여부, 생활만족도, 학업성취도 수준, 경제적수준		8
합계			242

3) 조사절차 및 일정

2015년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조사는 2015년 5월~7월까지 세달 간 전문 설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사전조사와 본조사가 진행되었다.

사전조사는 조사표 초안에 대해 응답자의 응답 편의성과 내용 이해도 등을 파악하여 성공적인 본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2015년 5월 6일 실시되었다. 사전조사는 해당 학교급 별로 초등학생 4명, 중학생 4명, 고등학생 4명, 대학생 4명 등 총 16명(남학생 7명, 여학생 9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전조사 후 자세한 응답자의 의견 파악을 위해 그룹별 2~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 내용은 대상별로 설문문항의 이해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사전조사 응답자의 수를 제시하면 <표 III-11>와 같다.

표 III-11 사전조사 응답자 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합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남	1	1	—	1	—	1	1	—	—	1	1	—	7
여	1	—	1	—	1	1	1	1	1	—	—	2	9
합계	2	1	1	1	1	2	2	1	1	1	1	2	16

사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된 설문 조사지를 바탕으로 2015년 5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 두 달간 본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절차 및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III-12>에 제시되었다.

표 III-12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조사절차 및 일정

단 계		내 용	기 간
조사기획	표본설계	- 교육부 모집단 자료를 제공받은 후 표본설계 실시 - 표본추출 리스트를 연구원에 제출	4월 29일 ~ 5월 11일
	설문 확정	- 조사표 초안 검토 - 사전조사 실시 - 자문진과 연구진 검토를 거쳐 확정	4월 23일 ~ 5월 1일

단 계		내 용	기 간
실사	조사원모집 /교육	• 수도권 조사원 및 지방실사 조사원 모집 • 5개 권역으로 나눠 조사원 집체 교육 실시	집체교육 5월 11~15일
	조사도구 준비	• 설문지 제작 • 조사원지침서/조사안내자료/공문 • 응답자 답례품 준비 등	5월 11일 ~ 5월 15일
	현장 실사	• 학교방문조사 실시 • 특이사항 있을 시 즉각보고 • 연구진의 현장 모니터링 실시	5월 16일~ 7월 말
자료처리/ 보고	에디팅	• 조사완료 설문지 에디팅	8월 예정
	코딩	• 연구원의 지침에 따른 코딩	8월 예정
	편칭	• 전용 편칭 프로그램에 설문지 입력 • 연구원의 자료입력 검증 실시	8월 예정
	데이터 클리닝	• 연구원 가이드에 따라 데이터 클리닝 실시	8월 예정
	가중치 작업	• 가중치 산출	8월 예정
	기초테이블	• 기초테이블 산출 및 차이검증 실시	9월 예정
	결과 보고	• 실사 완료 후 중간보고 실시 • 최종 데이터 제출 후 최종 보고 실시	9~10월 예정

4) 자료조사 결과

본 연구조사 결과 수집된 초·중·고등학생의 샘플은 10,564명이었으며,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검증 및 데이터 클리닝을 실시하였다. 우선, 조사표와 데이터를 대조하여 입력상의 오류, 과도하게 무응답이 많은 경우, 동일한 번호로 대부분 문항에 응답한 데이터를 검증하였다. 1차적으로 검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리적 오류사항에 대한 데이터 클리닝을 거쳤다. 이와 같이 데이터 검증과 데이터 클리닝을 통해 47명의 데이터를 제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초·중·고등학생 10,517명의 자료가 통계적 검증자료로 활용되었다.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표본의 특성을 제시하면 <표 III-13>과 같다.

표 III-13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 사례수(초·중·고등학생)

구분		사례수	%
전체		(10,517)	100.0
성별	남자	(5,738)	55.8
	여자	(4,546)	44.2
학교급	초등학교	(2,914)	28.3
	중학교	(3,404)	33.1
	고등학교	(3,966)	38.6
학업성취수준	60점 이하	(2,123)	20.6
	61~65점	(780)	7.6
	66~70점	(855)	8.3
	71~75점	(914)	8.9
	76~80점	(1,054)	10.2
	81~85점	(1,125)	10.9
	86~90점	(1,246)	12.1
	91~95점	(1,186)	11.5
	96~100점	(869)	8.5
	모름/무응답	(132)	1.3
부모의 학력	부모 대졸이상	(3,020)	29.4
	한분만 대졸이상	(1,855)	18.0
	부모 고졸이하	(1,946)	18.9
	기타	(3,463)	33.7
지역	서울	(1,675)	16.3
	경기	(2,142)	20.8
	인천	(578)	5.6
	강원	(291)	2.8
	충북	(273)	2.7
	충남	(480)	4.7
	대전	(447)	4.3
	경북	(518)	5.0
	경남	(780)	7.6
	부산	(703)	6.8
	대구	(561)	5.5
	울산	(251)	2.4
	전북	(401)	3.9
	전남	(477)	4.6
	광주	(430)	4.2
	제주	(277)	2.7
	양 부모 가정	(9,280)	90.2
	한 부모 가정	(789)	7.7
가족구성 (새아버지, 새어머니 포함)	조손 가정	(109)	1.1
	기타	(86)	.8
	모름/무응답	(20)	.2

구분		사례수	%
경제적 수준	① 매우 못 산다	(170)	1.7
	②	(570)	5.5
	③	(1,202)	11.7
	④ 보통 수준	(4,363)	42.4
	⑤	(2,349)	22.8
	⑥	(1,161)	11.3
	⑦ 매우 잘 산다	(411)	4.0
	모름/무응답	(58)	.6

또한 본 연구조사 결과 수집된 대학생의 샘플은 1,132명이었으며, 초·중·고등학생과 동일하게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검증 및 데이터 클리닝을 실시하였다. 데이터 검증과 데이터 클리닝을 통해 26명의 데이터를 제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대학생 1,106명의 자료가 통계적 검증자료로 활용되었다.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표본의 특성을 제시하면 <표 III-14>과 같다.

표 III-14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 사례수(대학생)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00)	100.0
성별	남자	(532)	53.2
	여자	(468)	46.8
연령	20세 이하	(293)	29.3
	21세	(195)	19.5
	22세	(110)	11.0
	23세	(106)	10.6
	24세	(114)	11.4
	25세	(84)	8.4
	26세 이상	(98)	9.8
	모름/무응답	(1)	.1
학교지역	서울	(195)	19.5
	경기	(130)	13.0
	인천	(59)	5.9
	강원	(47)	4.7
	충북	(43)	4.3
	충남	(76)	7.6
	대전	(59)	5.9
	경북	(49)	4.9
	경남	(38)	3.8
	부산	(92)	9.2

구분		사례수(명)	비율(%)
	대 구	(71)	7.1
	울 산	(19)	1.9
	전 북	(31)	3.1
	전 남	(17)	1.7
	광 주	(65)	6.5
	제 주	(10)	1.0
학교유형	전문대학(2년제)	(107)	10.7
	대학교(3년제)	(153)	15.3
	대학교(4년제)	(740)	74.0
학년	1학년	(338)	33.8
	2학년	(311)	31.1
	3학년	(195)	19.5
	4학년	(156)	15.6
계열	인문계열	(100)	10.0
	사회계열	(274)	27.4
	교육계열	(46)	4.6
	공학계열	(275)	27.5
	자연계열	(108)	10.8
	의학계열	(78)	7.8
	예체능계열	(119)	11.9
성적	4.0점 이상	(149)	14.9
	3.5~4.0 미만	(376)	37.6
	3.0~3.5 미만	(201)	20.1
	3.0점 이하	(55)	5.5
	모름/무응답	(219)	21.9
부모의 학력	부모 모두 대졸이상	(439)	43.9
	한 분만 대졸이상	(214)	21.4
	부모 모두 고졸이하	(259)	25.9
	기타	(88)	8.8
가족구성 (새아버지, 새어머니 포함)	양부모가정	(918)	91.8
	한부모가정	(65)	6.5
	조손가정	(4)	.4
	기타	(12)	1.2
	모름/무응답	(2)	.2
경제적 수준	① 매우 못산다	(14)	1.4
	②	(39)	3.9
	③	(116)	11.6
	④ 보통수준	(467)	46.7
	⑤	(274)	27.4
	⑥	(71)	7.1
	⑦ 매우 잘산다	(14)	1.4
	모름/무응답	(5)	.5

5) 자료분석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 결과,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결측치가 발생한 자료들을 제거한 전국 17개 시도의 초·중·고등학교 10,517명과 대학생 1,106명 등 총 11,623명의 자료가 자료 분석에 활용되었다.

2015 청소년 역량지수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집된 된 자료에 대한 문항분석 및 정규성 분석, 측정된 설문문항의 구성체계에 대한 적합도 검증,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변인 특성에 따른 청소년 역량의 기초통계분석과 차이검증, 그리고 청소년 역량 차이에 따른 심층분석이 이루어졌다.

먼저, 2015 청소년 역량지수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집된 된 자료의 양호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문항분석 및 정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분석은 측정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문항과 전체문항 간의 상관계수분석(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문항 제거 시 신뢰도계수(alpha if item deleted) 분석이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는 절대값 .30 이상(Field, 2009)을, 신뢰도 계수는 .70이상(Brace, Kemp, Snelgar, 2013)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측정문항에 대한 정규성(normality)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위하여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정규성에 있어 왜도는 절대값 2 이하 첨도는 절대값 7이하일 경우 정규성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Curran, etal, 1996).

둘째, 측정된 청소년 역량지수 설문문항의 구성체계에 대한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는 2014년 1차 년도에 개발된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계에 대한 구인타당도를 반복 측정함으로써 요인구조의 적합도를 다시 한 번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청소년 역량군에 따른 하위역량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하위역량 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높으면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여 분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Belsley, Kuh, & Welsch, 1980)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후 구인타당도 분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 있어 각 역량군을 구성하는 하위역량의 구조에 대한 측정모형을 최대우도 추정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합도 지수 χ^2 , CFI(comparative fit index, >.90), NFI(normed fit index, >.90), IFI(incremental fit index, >.90), RMSEA(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10) 등의 적합도 지수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김동일, 2010; 배병렬, 2005; 성은모, 김균희, 2013; Bentler & Bonett, 1980; Sung, & Mayer, 2012).

셋째,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변인 특성에 따른 청소년 역량의 기초통계분석과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2015년도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결과는 1차 본 조사 결과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소년의 전반적인 현황과 실태를 중심으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의 역량수준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2차적으로는 청소년 역량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으로 청소년 역량지수가 청소년의 시기별 어떻게 발달하고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청소년 역량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은 청소년의 개인특성 변인, 부모특성 변인, 그리고 가구특성변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청소년의 개인특성 변인은 성별, 학교급²⁾, 학업성취도 변인이며, 청소년의 부모특성 변인으로는 부(아버지)와 모(어머니)의 학력 변인이었으며, 청소년의 가구특성 변인으로는 가족구성, 경제적 수준, 그리고 거주지역 변인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그리고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역량 차이에 따른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발달시기에 따른 역량의 변화와 이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에 따른 차이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와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는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역량 발달에 어떠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청소년 역량군과 하위역량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였으며, 이때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하여 1단계 투입 독립변인을 청소년의 개인특성(성별 더미(남=1, 여=0), 학교급(청소년 시기)(초등학교(초기청소년)=1, 중학교(중기청소년)=2, 고등학교(중기청소년)=3, 대학생(후기청소년)=4), 학업성취도 수준(상=1, 중=2, 하=3))으로 하였으며, 2단계 투입 독립변인을 부모특성(부모의 학력(고졸이하=1, 전문대졸=2, 대졸이상=3)), 그리고 3단계 투입변인을 가구특성(가족구성 더미(양부모=1, 한부모/조손/기타가정=0), 경제적 수준(상=1, 중=2, 하=3), 거주지역 더미(도시크기)(대도시=1, 중소도시=0))으로 하였다.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한 도구로는 SPSS 20.0, AMOS 20.0이 활용되었다.

2) 청소년의 학교급에 따른 역량 특성은 청소년 시기별 역량 특성으로 간주될 수 있다. 초기 청소년 시기는 초등학생에 해당되며, 중기 청소년 시기는 중고등학생, 후기 청소년 시기(청년기)는 대학생 시기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별 역량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학교급에 따른 역량 특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3. ICCS 2016 예비조사

1) 연구대상(표본설계)

ICCS 2016 조사는 설문에 응하는 학생-해당학생 담당교사-해당학교 책임자 등이 모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ICCS 2016 예비조사에서도 설문에 응하는 학생-해당학생 담당교사-해당학교 책임자를 참여대상으로 하였다. 본 예비조사에 참여한 연구대상은 IEA ICCS 사무국에서 한국의 교육통계연보 자료를 기초로 산출한 전국 25개 표본학교 중학교 2학년 재학생(평균연령 13.5세) 약 1,000명이 예비조사에 참여하였다. 아울러 학생뿐만 아니라 해당학교의 해당학년 담당교사(담임 및 교과교사) 약 200명, 그리고 해당학교 책임자(교장 혹은 교감) 25명이 함께 참여하였다.

2) 연구도구

2016년 ICCS 는 기본적으로 2009년에 실시했던 ICCS 조사의 구조를 이어간다. 조사 성격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2009년 ICCS 를 통해 축적한 각국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역량의 측정결과를 2016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고 이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새로이 부각된 청소년환경의 변화 요소들을 반영하고, 2009년 조사 결과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민주시민역량 개념의 구조와 하위 개념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기도 했다.

ICCS에서 상정한 민주시민역량은 3개 영역 혹은 2개 축으로 나눌 수 있다. 한 축은 민주시민으로서 알거나 내면화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의 영역을 정의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시민사회와 체계에 대한 내용, 시민사회의 원리에 대한 내용,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것에 대한 내용, 시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정체성에 대한 내용으로 나뉘어진다. 두 번째 축은 두 영역으로 다시 구분되는데 첫 번째 영역은 인지적인 영역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인지적 지식들과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추론/분석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ICCS에서 발표한 국가별 시민의식점수는 이 인지 영역 측정결과만을 반영한 것이다. 두 번째 영역은 인지영역과 구별되는 태도-행동 영역으로 여기에는 민주적인 가치관과 신념, 민주적인 태도, 민주적인 동기, 그리고 실제 민주적인

시민으로서의 참여 행동현황이 포함된다(ACER, 2010).

학생들에 대한 조사문항은 크게 검사지(Student Test: StT)와 설문지(Student Questionnaire; StQ)로 구분된다. 검사지는 민주시민역량 중에서 인지 차원의 지식과 추론능력을 측정하는 능력평가 문항들로 민주시민지식 점수로 합산된다. 반면에 설문지는 민주시민역량 중에서 정의/행동 적 역량과 실제 민주시민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현황을 질문하는 일반적인 설문이다. 이들 조사 문항은 2009년에 비해 변화한 것이 거의 없다. 예외적으로 학생생활 환경에 대한 문항 중에서 특히 학교폭력에 대한 질문이 이전보다 세분화되었다는 점은 지적할 수 있다. 반면에 문항들을 구성하는 개념구조는 비교적 크게 변경되었다.

표 III-15 2009년과 2016년 ICCS의 민주시민역량 개념구성 비교

	차원		내용영역 학교관련 시민 참여							
			시민사회와 체계		시민사회의 원리		시민 참여		시민적 정체성	
	인지 차원	지식	시민의 역할 시민의 권리 시민의 책임 시민의 기회와 능력	평등 자유 사회 통합		의사결정 영향력 행사 공동체 참여		시민의 자아상 시민 유대감		
추론 과 분석										
2009	정의/행동 차원		태도	가치/신념		행동 의도		실제 행동		
			자신, 타인, 기관, 정책에 대한 태도	민주주의의 가치/신념 시민적 가치/신념		투표참여의사 의견표현의사 정치적향의		학생활동참여 지역공동체 활동참여 교내 시민활동 참여		
2016	차원		상동		상동		상동		상동	
			핵심	측면	핵심	측면	핵심	측면	핵심	측면
	인지 차원	지식	시민들 정부기관 시민기관	평등 자유 공동체의식 법질서		의사결정 영향력 행사 공동체 참여		시민의 자아상 시민 유대감		
		추론 과 분석								
	정의/ 행동 차원	태도	정부기관 및 체계에 대한 태도	민주시민사회의 원리에 대한 태도		시민참여에 대한 태도		공동체와 개인들에 대한 태도 등		
행동 의도		정치적 주제에 대한 항의와 표현을 위한 시민참여 의도 성인으로서의 미래 시민참여 의도 학생으로서 학교에 대한 시민참여 의도 등								

2016년과 2009년 조사지 구조의 가장 큰 차이는 정의/행동 영역에서 2009년과는 달리 더 이상 태도와 가치/신념을 구분하지 않으며, 행동의도와 실제 행동도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2009년 조사 결과 실제 응답자인 청소년들이 이들 영역을 구분해서 응답하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에 기초한 변화이다. 그 결과, 2016년 척도의 구성에서 정의/행동영역의 구조는 2009년 보다 더 간결해졌다. 반면에 인지차원에서는 각 내용영역별로 핵심개념(key concept)와 측면(aspects)을 구분하는 차원이 추가되었다. 즉 민주시민역량의 정의/행동 차원들을 구성하는 하위 개념은 보다 간결하게 통합된 반면, 인지 차원의 하위개념들은 보다 세분화되었다.

ICCS에서는 각 국가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을 단순히 학교교육의 결과물로 상정하지 않는다. 유리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 2004)가 제시했던 ‘생태학적 인간발달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은 우선 미시적인 개별 청소년들의 가정환경과 청소년들이 직접 접하는 교실과 학교전체의 문화와 교육내용에게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학교 역시 그 학교를 둘러싼 지역사회 공동체의 영향을 받으며, 더 크게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포괄하는 국가 단위의 교육정책과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ICCS 조사는 단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또한 교실 환경을 형성하는데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담임 교사 및 사회교과 교사들과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장이라는 3개 영역에 대해서 모두 실시된다. 뿐만 아니라 ICCS 조사에 참여한 각국의 연구진들을 대상으로 국가단위 맥락 조사(National Context Survey)를 실시하여 각국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과 같은 환경맥락을 측정한다.

그리고 각 위계별 환경요인들이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에 효과를 미치는 과정을 선행요소(Antecedents)와 과정(Processes) 및 결과(Outcomes)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적절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Schulz 등, 2015, p.38).

표 III-16 ICCS에서 상정한 민주시민역량 결정요인과 요인별 조사 방법

환경의 수준	선행요소단계	과정단계	결과단계
국가 및 지역사회 공동체	NCS 및 기타조사: 국가별 민주화 역사, 교육과정의 구조 등	NCS 및 기타조사: 실제 교육내용 정치적 발전수준	학생검사 및 학생설문: 검사결과점수 학생들의 주관적 인식
학교 및 교실환경	교장설문 및 교사설문: 학교의 특성, 학교에서 보유한 자원	교장 및 교사설문: 커리큘럼, 교내정책 및 실행현황	

환경의 수준	선행요소단계	과정단계	결과단계
학생 개인	학생설문: 성별, 연령	학생설문: 인지적 학습활동, 참여 실천 학습활동	
학생들의 가정환경	학생설문: 부모 SES, 인종/문화적 배경, 언어, 출생국 등	학생설문: 가족내 의사소통 또래집단 활동 등	

*출처: Schulz, Frailon, Losito, Agrusti (2015), IEA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2016: Assessment Framework Draft (p.38)

3) 조사일정

ICCS 2016 예비조사는 2015년 10월 초부터 11월 말(8주)까지 진행되었으며, 전체 조사일정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III-17 ICCS 2016 예비조사 일정 및 절차

단계	주요업무	주관기관	일시
1 단계	학교표집 IEA 본부 지침에 따라 각 지역별로 '도시화 정도', '계열', '학교급'에 따른 학교 표집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IEA 본부	2015년 6월 완료
2 단계	학교 정보수집 표집학교 협조 요청	교육과학 기술부 및 사도 교육청	9월 1주~3주
	* 1차 표집학교의 거부시 2차 표집학교로 대체 ○ 지필검사 시험 담당 교사 지정 ○ 검사 시행 가능일 선정 ○ 학교별로 재학 중인 만 13.5세 학생의 전체 명단 서식을 작성 후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전자메일 송부(붙임 2) 참조)	HR Partner 표집학교	9월 3주~10월 2주
3 단계	시행일 확정 설문조사 시행일 대상 학교에 통보 * 필요시 학교 설문 진행자, 지필검사 시험 담당 교사 설명회 개최	HR Partner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9월 3주 ~종료

단계		주요업무	주관기관	일시
4 단계	시행	본조사 학교별 시행	HR Partner 표집학교	10월~ 11월
5 단계	채점 및 결과처리	채점 및 결과 처리 ○ 채점 ○ 자료입력 ○ 자료 클리닝 및 결과분석 ○ 결과발표	HR Partner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한국교육 개발원	12월

제 IV 장



연구결과

1. 청소년 역량지수의 측정문항 분석
및 정규성 분석
2.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계의
타당화 분석
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결과의
기술통계 및 차이 분석
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
5. ICCS 2016 예비조사 결과

제 IV 장 연구결과*

1. 청소년 역량지수의 측정문항 분석 및 정규성 분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청소년 역량 증진 및 강화 정책 마련을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에 수집된 청소년 역량지수 자료의 양호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측정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전체 상관관계(item-correlation), 신뢰도 계수(alpha if item deleted), 그리고 정규성(normality) 분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였다.

1)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문항 분석 및 정규성 분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를 구성하는 사고력 9문항(비판적 사고력 6문항, 감성적 사고력 9문항), 지적도구활용능력 21문항(언어능력 5문항, 수학능력 5문항, 과학능력 7문항, 정보통신활용능력 4문항), 학습적응성 7문항(변화수용력 2문항, 지적호기심 2문항, 학습주도성 3문항) 등 총 37문항의 분석과 정규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에 제시되었다.

표 IV-1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측정문항 분석 및 정규성 분석 결과

역량	하위역량	번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계수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_01	2.98	.590	-.325	.939	.638**	.705
		문_02	2.93	.591	-.249	.607	.675**	.698

* 이 장의 집필에 있어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은 성은모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은 최홍일 전문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은 진성희 교수(인하대학교),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은 김균희 연구원(인하대학교)이 각각 집필하였고,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은 협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인 김태준 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이 집필한 보고서 '김태준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I: ICCS 2016-청소년 사회참여역량 분석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요약·정리하였으며, 4절(4. ICCS 2016 예비조사결과)과 5절(5. 청소년 역량 수준의 국제비교 분석)은 장근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역량	하위역량	번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계수
		문_03	3.02	.706	-.337	-.074	.643**	.705
		문_04	3.26	.654	-.516	.150	.571**	.719
		문_05	2.97	.639	-.213	.147	.667**	.699
		문_06	2.96	.669	-.206	-.080	.661**	.701
	감성적 사고력	문_07	2.62	.794	.006	-.501	.428**	.760
		문_08	3.22	.667	-.485	.051	.548**	.724
		문_09	2.86	.719	-.192	-.240	.400**	.756
	전체		2.98	.670	-.280	0.111	-	.760
지적도구활 용능력	언어능력	문_10	2.91	.654	-.161	-.040	.535**	.900
		문_11	2.81	.695	-.028	-.384	.550**	.900
		문_12	2.83	.733	-.090	-.440	.570**	.899
		문_13	2.42	.833	.219	-.502	.462**	.903
		문_14	2.65	.827	-.122	-.536	.495**	.902
	수학능력	문_15	2.87	.793	-.281	-.409	.630**	.898
		문_16	3.04	.707	-.445	.180	.657**	.897
		문_17	2.87	.766	-.209	-.425	.676**	.897
		문_18	2.36	.940	.247	-.815	.594**	.899
		문_19	2.61	.960	-.139	-.929	.613**	.899
	과학능력	문_20	2.75	.821	-.062	-.672	.596**	.898
		문_21	2.66	.785	.001	-.505	.669**	.896
		문_22	2.61	.783	.099	-.513	.676**	.896
		문_23	2.57	.904	.081	-.830	.616**	.897
		문_24	2.82	.871	-.347	-.556	.629**	.896
		문_25	2.65	.806	.016	-.569	.687**	.895
		문_26	2.56	.843	.112	-.640	.656**	.896
	정보통신활 용능력	문_27	3.43	.611	-.741	.489	.481**	.902
		문_28	3.35	.693	-.850	.467	.526**	.902
		문_29	2.98	.860	-.400	-.658	.491**	.903
		문_30	3.21	.846	-.897	.153	.324**	.908
	전체		2.81	.797	-0.190	-0.387	-	.908
학습 적응성	변화 수용력	문_31	2.96	.646	-.213	.106	.630**	.726
		문_32	2.58	.771	.122	-.462	.536**	.760
	지적 호기심	문_33	3.22	.685	-.524	.000	.639**	.725
		문_34	3.15	.684	-.437	.024	.644**	.724
	학습 주도성	문_35	2.69	.786	.114	-.660	.705**	.711
		문_36	2.89	.758	-.297	-.246	.688**	.715
		문_37	3.02	.683	-.431	.379	.630**	.728
	전체		2.93	.716	-0.238	-0.122	-	.728

*,p<0.05, **,p<0.01

<표 IV-1>에 의하면, 사고력 역량지수 측정문항 9개의 양호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은 2.98(SD=.670)이었으며, 평균의 범위는 2.86(SD=.719)~3.26(SD=.654)로 나타났다. 문항-전체 상관관계 계수 $r=.400\sim.67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문항 제거 시 신뢰도계수 Cronbach $\alpha=.698\sim.760$ 이고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760$ 으로 나타났다. 정규분포에 있어 왜도는 $-.516\sim.006$ 이고, 첨도는 $-.510\sim.939$ 로 나타났다.

지적도구활용능력 역량지수 측정문항 21개의 양호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은 2.81(SD=.797)이었으며, 평균의 범위는 2.36(SD=.940)~3.43(SD=.611)로 나타났다. 문항-전체 상관관계 계수 $r=.324\sim.687$,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문항 제거 시 신뢰도계수 Cronbach $\alpha=.895\sim.908$ 이고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908$ 로 나타났다. 정규분포에 있어 왜도는 $-.897\sim.219$ 이고, 첨도는 $-.929\sim.489$ 로 나타났다.

학습주도성 역량지수 측정문항 7개의 양호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은 2.93(SD=.716)이었으며, 평균의 범위는 2.69(SD=.786)~3.22(SD=.685)로 나타났다. 문항-전체 상관관계 계수 $r=.711\sim.760$,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문항 제거 시 신뢰도계수 Cronbach $\alpha=.711\sim.760$ 이고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760$ 으로 나타났다. 정규분포에 있어 왜도는 $-.524\sim.122$ 이고, 첨도는 $-.660\sim.379$ 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상관관계 계수 절대값이 .30 이상으로 나타나 중간 수준의 효과 크기가 있으며, 이는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문항 전체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도 .70 이상으로 나타나 문항의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전체 문항의 정규분포에 있어서도 왜도가 절대값 2 이상, 첨도도 절대값 7이상으로 나타나 자료의 정규성이 확보되었다. 즉, 본 연구에서 수행한 2015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도와 정규성이 확보됨으로서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결과가 보다 양호한 자료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2)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 측정문항 분석 및 정규성 분석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는 건강관리 11문항(위생관리 3문항, 신체관리 2문항, 안전 및 스트레스관리 6문항)과 과제관리 12문항(목표 및 계획수립 8문항, 수행 및 평가 4문항), 상황대처 16문항(중독인식 3문항, 중독행동 7문항, 폭력행동 3문항, 폭력회피 3문항) 그리고 정서조절 9문항(분노행동 2문항, 감정절제 2문항, 조절실패 2문항, 감정인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상의 총 48문항에 대하여 기초분석 및 정규성 검증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2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측정문항 분석 및 정규성 분석 결과

역량	하위역량	번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계수
건강관리 .854	위생관리	문_1	3.31	.682	-.645	-.024	.568**	.847
		문_2	3.54	.609	-1.115	.846	.570**	.846
		문_3	3.23	.724	-.529	-.429	.579**	.847
	신체관리	문_4	3.04	.808	-.347	-.735	.703**	.836
		문_5	2.96	.892	-.312	-.923	.609**	.848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문_6	3.03	.768	-.337	-.512	.669**	.839
		문_7	3.24	.731	-.661	-.014	.671**	.838
		문_8	3.26	.679	-.610	.202	.675**	.838
		문_9	3.29	.659	-.567	.054	.709**	.835
		문_10	3.25	.692	-.697	.477	.648**	.840
		문_11	3.31	.727	-.857	.416	.635**	.842
과제관리 .929	목표 및 계획 수립	문_12	2.99	.723	-.285	-.271	.757**	.923
		문_13	2.97	.720	-.387	.062	.660**	.927
		문_14	3.06	.692	-.439	.243	.734**	.923
		문_15	3.08	.695	-.436	.155	.767**	.922
		문_16	3.04	.713	-.353	-.129	.787**	.921
		문_17	2.93	.755	-.211	-.485	.793**	.921
		문_18	3.05	.679	-.411	.299	.727**	.924
		문_19	3.09	.680	-.445	.322	.762**	.922
	수행 및 평가	문_20	2.97	.719	-.344	-.044	.751**	.923
		문_21	3.02	.690	-.356	.104	.757**	.922
		문_22	2.94	.718	-.272	-.178	.756**	.923
		문_23	2.91	.732	-.287	-.172	.733**	.924
상황대처 .927	중독인식	문_24	2.83	1.007	-.258	-1.132	.737**	.921
		문_25	2.73	.987	-.024	-1.190	.754**	.921
		문_26	2.75	.991	-.081	-1.181	.733**	.921
	중독행동	문_27	2.83	.984	-.198	-1.156	.769**	.920
		문_28	3.13	.870	-.673	-.415	.806**	.919
		문_29	3.02	.923	-.471	-.841	.819**	.918
		문_30	2.85	.965	-.229	-1.091	.791**	.919
		문_31	2.89	.963	-.287	-1.055	.748**	.921
		문_32	3.25	.840	-.892	-.002	.742**	.921
		문_33	2.96	.947	-.358	-1.040	.802**	.919
	폭력행동	문_34	3.37	.712	-.944	.521	.533**	.926
		문_35	3.37	.751	-.990	.379	.585**	.925
		문_36	3.24	.814	-.888	.176	.544**	.926
	폭력회피	문_37	3.17	.764	-.576	-.281	.572**	.925
		문_38	3.10	.842	-.614	-.369	.527**	.927
		문_39	3.20	.820	-.753	-.171	.502**	.928

역량	하위역량	번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간 상관계수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계수
정서조절 .657	분노행동	문_40	2.80	.880	-.163	-.828	.628**	.603
		문_41	3.22	.790	-.821	.186	.617**	.605
	감정절제	문_42	2.70	.910	.176	2.484	.476**	.644
		문_43	2.72	.845	.080	2.350	.505**	.633
	조절실패	문_44	2.49	.901	.071	-.771	.503**	.642
		문_45	2.54	.907	-.022	-.793	.582**	.619
	감정인식	문_46	2.93	.857	-.470	-.404	.657**	.593
		문_47	3.07	.825	-.266	3.434	.372**	.664
		문_48	2.97	.831	-.101	3.256	.388**	.661

*.p<0.05, **.p<0.01

건강관리의 경우, 전체 평균은 3.22(SD=.464)였으며, 각 문항들이 보이는 평균의 범위는 2.96(SD=.892)~3.54(SD=.609)로 분석되었다. 문항-전체 간 상관계수는 $r=.568\sim.709$ 로 모두 $p<.0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제거 시 신뢰도는 Cronbach $\alpha=.835\sim.848$ 이며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alpha=.854$ 로 분석되었다. 문항 별 정규성은 왜도가 $-.115\sim-.312$, 첨도가 $-.923\sim.846$ 으로 나타나 정규성이 검증되었다.

과제관리는 총 12문항으로, 전체평균 3.00(SD=.531)으로 나타났으며 문항별로 평균 범위는 2.91(SD=.732)~3.09(SD=.680)로 분석되었다. 문항-전체 간 상관계수는 $r=.660\sim.793$ 으로 $p<.0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문항 제거 시 신뢰도의 경우 Cronbach $\alpha=.921\sim.927$ 이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alpha=.929$ 로 분석되었다. 정규성은 왜도 $-.445\sim-.211$, 첨도 $-.485\sim.322$ 로 나타났다.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진 상황대처는 전체 평균 3.04(SD=.615)로 문항 별 평균값의 범위는 2.73(SD=.987)~3.37(SD=.712)로 나타났다. 문항-전체 간 상관계수는 $r=.502\sim.819$ 로 $p<.0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문항 제거 시 신뢰도를 살펴보면, Cronbach $\alpha=.918\sim.928$ 이며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alpha=.927$ 로 분석되었다. 정규성은 왜도 $-.944\sim-.025$, 첨도 $-1.190\sim.521$ 로 나타나 정규성이 검증되었다.

정서조절의 경우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문항 평균은 2.82(SD=.436)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에 따른 평균 범위를 살펴보면, 2.49(SD=.901)~3.22(SD=.790)로 분석되었으며 문항-전체 간 상관계수는 $r=.372\sim.628$ 로 $p<.0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제거 시 신뢰도는 Cronbach $\alpha=.593\sim.664$ 이며 전체 신뢰도는 .657로 분석되었다. 정규성은 분석결과 왜도 $-.821\sim.176$ 으로 나타났으며 첨도는 $-.828\sim3.434$ 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측정문항 분석 및 정규성 분석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를 구성하는 진로설계 15문항(자기탐색 4문항, 직업탐색 4문항, 직업가치관 3문항, 진로준비 4문항), 여가활용 16문항(여가태도 6문항, 여가유능감 4문항, 여가만족 2문항, 여가몰입 4문항), 개척정신 8문항(차별화태도 5문항, 도전정신 3문항) 등 총 39문항의 분석과 정규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3>에 제시되었다.

표 IV-3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측정문항 분석 및 정규성 분석 결과

역량	하위역량	번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계수
진로설계	자기탐색	문_01	3.17	.706	-.502	-.027	.615**	.900
		문_02	3.18	.709	-.508	-.085	.629**	.900
		문_03	3.12	.748	-.497	-.214	.567**	.902
		문_04	3.26	.747	-.773	.182	.615**	.900
	직업탐색	문_05	2.75	.884	-.060	-.884	.597**	.901
		문_06	3.05	.816	-.507	-.378	.640**	.899
		문_07	3.10	.796	-.570	-.237	.695**	.897
		문_08	2.82	.836	-.188	-.661	.602**	.901
	직업 가치관	문_09	2.80	.856	-.186	-.707	.503**	.904
		문_10	3.37	.690	-.923	.675	.539**	.903
		문_11	3.26	.716	-.739	.332	.560**	.902
	진로준비	문_12	3.13	.803	-.659	-.093	.512**	.904
		문_13	2.97	.812	-.325	-.588	.649**	.899
		문_14	2.97	.827	-.321	-.684	.658**	.898
		문_15	2.96	.750	-.288	-.345	.576**	.901
전체			3.06	.514	-.158	-.005	-	.907
여가활용	여가태도	문_16	3.33	.621	-.516	.145	.641**	.915
		문_17	3.44	.604	-.742	.490	.641**	.915
		문_18	3.49	.583	-.790	.408	.636**	.915
		문_19	3.45	.618	-.812	.454	.655**	.915
		문_20	3.03	.813	-.324	-.786	.616**	.916
		문_21	3.23	.733	-.637	-.080	.615**	.916
	여가 유능감	문_22	2.63	.866	.130	-.805	.553**	.918
		문_23	2.81	.875	-.147	-.844	.606**	.916
		문_24	2.83	.807	-.095	-.730	.656**	.914
		문_25	2.69	.835	-.010	-.685	.533**	.918
	여가만족	문_26	3.22	.703	-.602	.152	.711**	.913
		문_27	3.14	.732	-.472	-.264	.699**	.913
	여가몰입	문_28	3.10	.738	-.437	-.258	.703**	.913
		문_29	3.28	.684	-.672	.309	.707**	.913
		문_30	3.27	.696	-.662	.135	.696**	.913
		문_31	2.86	.904	-.264	-.848	.437**	.922
전체			3.11	.502	-.129	-.055	-	.920

역량	하위역량	번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계수
개척정신	차별화 태도	문_32	2.70	.774	.083	-.600	.435**	.556
		문_33	2.78	.755	-.045	-.512	.425**	.559
		문_34	2.74	.745	.016	-.514	.362**	.577
		문_35	2.39	.770	.387	-.196	.200**	.622
		문_36	2.84	.719	-.211	-.175	.291**	.597
	도전정신	문_37	2.61	.822	-.090	-.525	.295**	.596
		문_38	2.57	.816	-.072	-.507	.301**	.595
		문_39	2.27	.838	.258	-.487	.250**	.610
	전체		2.61	.409	.359	.023	-	.622

*, $p<0.05$, **, $p<0.01$

<표 IV-3>에 의하면, 진로설계 역량지수 측정문항 15개의 양호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은 3.06($SD=.514$)이었으며, 평균의 범위는 2.75($SD=.884$)~3.26($SD=.716$)로 나타났다. 문항-전체 상관관계 계수 $r=.503\sim.69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문항 제거 시 신뢰도계수 Cronbach $\alpha=.897\sim.904$ 이고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907$ 으로 나타났다. 정규분포에 있어 왜도는 -.923~-.060이고, 첨도는 -.884~.675로 나타났다.

여가활용능력 역량지수 측정문항 16개의 양호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은 3.11($SD=.502$)이었으며, 평균의 범위는 2.69($SD=.835$)~3.49($SD=.583$)로 나타났다. 문항-전체 상관관계 계수 $r=.437\sim.711$,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문항 제거 시 신뢰도계수 Cronbach $\alpha=.913\sim.922$ 이고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920$ 으로 나타났다. 정규분포에 있어 왜도는 -.812~.130이고, 첨도는 -.805~.490으로 나타났다.

개척정신 역량지수 측정문항 8개의 양호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은 2.61($SD=.409$)이었으며, 평균의 범위는 2.39($SD=.770$)~2.78($SD=.755$)로 나타났다. 문항-전체 상관관계 계수 $r=.200\sim.43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문항 제거 시 신뢰도계수 Cronbach $\alpha=.556\sim.622$ 이고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622$ 으로 나타났다. 정규분포에 있어 왜도는 -.211~.387이고, 첨도는 -.600~-.175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상관관계 계수 절대값이 .20 이상으로 나타나 중간 수준의 효과 크기가 있으며, 이는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문항 전체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개척정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70 이상으로 나타났고 개척정신은 .50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문항의 신뢰도가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전체 문항의 정규분포에 있어서도 왜도가 절대값 2 이상, 첨도도 절대값 7이상으로 나타나 자료의 정규성이 확보되었다.

4)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측정문항 분석 및 정규성 분석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를 구성하는 관계형성 18문항(자기개방성 4문항, 친화성 4문항, 의사소통 6문항, 공감 및 배려 4문항), 리더십 14문항(의사결정 4문항, 집단활동관리 4문항, 추진력 6문항), 협동 14문항(집단추진 6문항, 팔로워십 3문항, 갈등문제해결 5문항) 등 총 46문항의 분석과 정규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4>에 제시되었다.

표 IV-4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측정문항 분석 및 정규성 분석 결과

역량	하위역량	번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계수
관계형성	자기 개방성	문14_1	3.22	0.74	-0.76	0.35	.596**	.918
		문14_2	3.00	0.83	-0.47	-0.44	.567**	.919
		문14_3	3.20	0.74	-0.65	0.10	.597**	.918
		문14_4	2.91	0.85	-0.32	-0.64	.596**	.918
	친화성	문14_5	2.82	0.87	-0.27	-0.66	.584**	.919
		문14_6	2.79	0.85	-0.15	-0.72	.640**	.917
		문14_7	2.97	0.79	-0.42	-0.28	.674**	.916
		문14_8	3.06	0.77	-0.47	-0.28	.662**	.916
	의사소통	문14_9	3.10	0.75	-0.51	-0.09	.610**	.918
		문14_10	3.16	0.69	-0.52	0.20	.609**	.918
		문14_11	3.18	0.69	-0.52	0.20	.635**	.917
		문14_12	2.98	0.74	-0.27	-0.36	.610**	.918
		문14_13	2.80	0.81	-0.06	-0.74	.554**	.919
		문14_14	3.01	0.72	-0.36	-0.06	.644**	.917
	공감 및 배려	문14_15	3.19	0.66	-0.50	0.44	.617**	.918
		문14_16	3.13	0.69	-0.45	0.07	.590**	.918
		문14_17	3.10	0.71	-0.45	0.05	.569**	.919
		문14_18	3.18	0.64	-0.43	0.40	.556**	.919
	전체		3.04	0.50	-0.02	0.22		.923
리더십	의사결정	문15_1	3.08	0.65	-0.42	0.53	.715**	.938
		문15_2	2.99	0.68	-0.31	0.05	.720**	.938
		문15_3	3.02	0.70	-0.37	0.07	.684**	.939
		문15_4	3.11	0.66	-0.47	0.51	.684**	.939
	집단활동 관리	문15_5	2.69	0.82	0.00	-0.67	.667**	.940
		문15_6	2.91	0.71	-0.25	-0.14	.736**	.938
		문15_7	2.92	0.69	-0.28	0.00	.761**	.937
		문15_8	2.83	0.77	-0.16	-0.48	.751**	.937
	추진력	문15_9	2.91	0.71	-0.27	-0.12	.767**	.937
		문15_10	2.78	0.75	-0.08	-0.44	.680**	.939
		문15_11	2.85	0.75	-0.17	-0.39	.664**	.940
		문15_12	2.83	0.73	-0.16	-0.33	.709**	.938
		문15_13	2.99	0.68	-0.38	0.29	.725**	.938
		문15_14	3.03	0.69	-0.43	0.29	.721**	.938
	전체		2.92	0.54	-0.15	0.66		.943

역량	하위역량	번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계수
협동	집단촉진	문16_1	3.04	0.69	-0.31	-0.12	.680 **	.930
		문16_2	3.16	0.63	-0.44	0.66	.675 **	.930
		문16_3	3.09	0.68	-0.38	0.12	.715 **	.929
		문16_4	2.99	0.70	-0.27	-0.17	.720 **	.929
		문16_5	2.91	0.74	-0.20	-0.37	.687 **	.930
		문16_6	2.94	0.71	-0.28	-0.14	.695 **	.929
	팔로워십	문16_7	3.25	0.64	-0.51	0.47	.656 **	.931
		문16_8	3.10	0.71	-0.44	-0.01	.671 **	.930
		문16_9	3.13	0.68	-0.38	-0.05	.709 **	.929
	갈등문제 해결	문16_10	3.11	0.67	-0.45	0.40	.723 **	.929
		문16_11	3.07	0.68	-0.40	0.23	.748 **	.928
		문16_12	3.01	0.72	-0.38	-0.03	.669 **	.930
		문16_13	3.09	0.66	-0.44	0.53	.670 **	.930
		문16_14	3.01	0.68	-0.37	0.23	.578 **	.933
	전체		3.06	0.50	-0.20	0.75		.935

*.p<0.05, **.p<0.01

관계형성 측정문항 18개의 양호도를 살펴본 결과(<표 IV-4> 참고), 관계형성 평균은 3.04(SD=.50)이었으며, 평균의 범위는 2.79(SD=.85)~3.19(SD=.66)로 나타났다. 문항-전체 상관관계 계수 $r=.554\sim.674$,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문항 제거 시 신뢰도계수 Cronbach $\alpha=.916\sim.919$ 이고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923$ 으로 나타났다. 정규분포에 있어 왜도는 -.76~-.06이고, 첨도는 -.74~.40로 나타났다.

리더십 측정문항 14개의 양호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은 2.92(SD=.54)이었으며, 평균의 범위는 2.83(SD=.77)~3.08(SD=.65)로 나타났다. 문항-전체 상관관계 계수 $r=.667\sim.767$,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문항 제거 시 신뢰도계수 Cronbach $\alpha=.937\sim.940$ 이고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943$ 으로 나타났다. 정규분포에 있어 왜도는 -.47~.00이고, 첨도는 -.67~.29로 나타났다.

협동 측정문항 14개의 양호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은 3.06(SD=.50)이었으며, 평균의 범위는 2.91(SD=.74)~3.25(SD=.64)로 나타났다. 문항-전체 상관관계 계수 $r=.578\sim.748$,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문항 제거 시 신뢰도계수 Cronbach $\alpha=.928\sim.933$ 이고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935$ 으로 나타났다. 정규분포에 있어 왜도는 -.51~-.20이고, 첨도는 -.37~.66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상관관계 계수 절대값이 .55 이상에서 .75 이하 나타나 중간 수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문항 전체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도 .90 이상으로 나타나 문항의 신뢰도가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정규성 분포에 있어서도 왜도가 절대값 2, 첨도가 절대값 7을 초과하는 문항이 없어 정규성이 확보되었다. 즉, 본 연구에서 수행한 2015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도와 정규성이 확보됨으로,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측정결과가 양호한 자료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5)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지수 측정문항 분석 및 정규성 분석²⁾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은 개인 시민성 14문항(권리·책임의식 4문항, 민주적 절차 및 의식 2문항, 정치적 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 8문항), 공동체 시민성 33문항(공적실천 14문항, 사회적 신뢰 9문항, 적극적 의견개진 5문항, 교실개방성 5문항), 세계 시민성 16문항(성 인지 3문항, 이민자에 대한 태도 5문항, 국가 및 역사 의식 4문항, 국제 관계 이해 4문항) 등 총 63문항이 구성되었다.

2) 이 부분은 협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인 김태준 박사(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가 책임 집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협동 연구 보고서 김태준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개발 및 국제비교연구 II: IOCS 2016-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분석 보고서'를 참고바라며, 본 장은 김태준 (2015)의 보고서 내용 중 결과부분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음.

2.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계의 타당화 분석

2014년 1차 년도 연구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 ICCS 2016’에서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과 이를 구성하는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구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이 수행되었다. 이에 2015년 2차 년도 본 연구에서는 앞서 검증한 측정문항 및 정규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1차 년도에 도출된 측정문항의 구성체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다시한번 실시함으로써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에 대한 구인타당도를 재반복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1)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구성체계의 타당화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구성체계의 구인타당도 재검증을 위하여,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을 구성하는 역량 즉, 사고력(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지적도구활용능력(언어능력, 수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학습적응성(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 등의 전체적인 구인타당도를 우선적으로 검증하였고, 이후 각 역량과 하위역량을 구성하는 측정문항에 대한 구인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1)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구성체계의 전체적인 구인타당도 분석결과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구성체계의 전체적인 구인타당도 분석을 위해 우선적으로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5>에 제시되었다. <표 IV-5>에 의하면,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간 상관관계수 $r=.158\sim.548$,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간 상관관계 분석

하위역량	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언어 능력	수학 능력	과학 능력	정보통신 활용능력	변화 수용력	지적 호기심	학습 주도성
비판적 사고력	1								
감성적 사고력	.343**	1							
언어능력	.548**	.289**	1						
수학능력	.418**	.158**	.373**	1					
과학능력	.391**	.164**	.428**	.555**	1				
정보통신활용능력	.387**	.226**	.308**	.253**	.190**	1			
변화수용력	.354**	.228**	.326**	.270**	.298**	.293**	1		
지적호기심	.400**	.262**	.382**	.349**	.372**	.305**	.399**	1	
학습주도성	.514**	.253**	.457**	.367**	.388**	.307**	.407**	.484**	1

*,p<0.05, **,p<0.01

다음으로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구성체계의 전체적인 구인타당도 분석을 위해 최대우도 추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모형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6>에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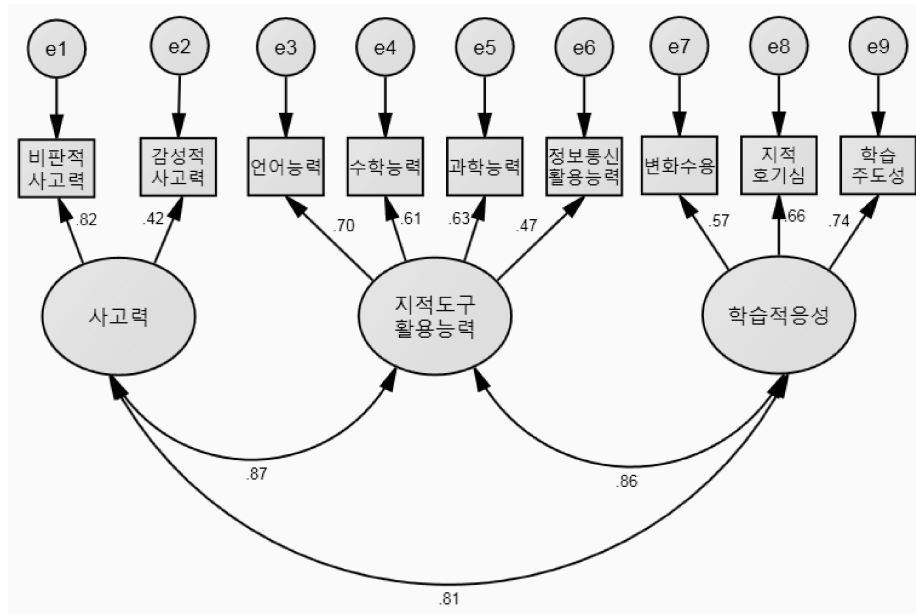
표 IV-6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모형 분석

역량	하위역량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1.000	.818**
	감성적 사고력	.553	.418**
지적도구활용능력	언어능력	1.000	.697**
	수학능력	1.079	.615**
	과학능력	1.132	.628**
	정보통신활용능력	.703	.468**
학습적응성	변화수용력	1.000	.566**
	지적호기심	1.173	.657**
	학습주도성	1.343	.744**

*,p<0.05, **,p<0.01

<표 IV-6>에 의하면,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의 표준화 계수는 .418~.818 범위에 있으며,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합도 지수 χ^2 , CFI, NFI, IFI, RMSEA 값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IV-1】에 제시되었다.



$$\chi^2(df)=1963.657(24), p<.05, CFI=0.931, NFI=0.930, IFI=0.931, RMSEA=0.085$$

【그림 IV-1】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구성체계의 측정모형 및 적합도 지수

【그림 IV-1】에 의하면,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전체 구인에 대한 $\chi^2(df)=1963.657(24)$ 이고,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해당 측정모형이 기각되었다. 하지만 χ^2 값은 표집 사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사례수가 많아지면 실제 측정모형이 자료를 잘 설명한다 할지라도 측정모형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배병렬, 2005; 성은모, 김균희, 2013; Bentler & Bonett, 1980; Sung, & Mayer, 2012). 따라서 χ^2 값의 유의수준에 따라 이분법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다양한 다른 지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상대적으로 비교검토 하여야 한다(김동일 외, 2010; Chemers, Hu, & Garcia, 2001). 이에 본 연구에서는 χ^2 검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CFI(comparative fit index, $>.90$), NFI(normed fit index, $>.90$), IFI(incremental fit index, $>.90$), RMSEA(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10$) 등의 적합도 지수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CFI=0.931($>.90$), NFI=0.930($>.90$), IFI=0.931($>.90$), RMSEA=0.085($<.10$ 이하)로 나타나 해당 지수들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구인 즉, 사고력(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지적도구활용능력(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학습적응성(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의 구인타당도가 매우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구성체계 측정문항의 구인타당도 분석결과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구성체계를 구성하는 측정문항의 구인타당도 분석을 위해 최대우도 추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모형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7>에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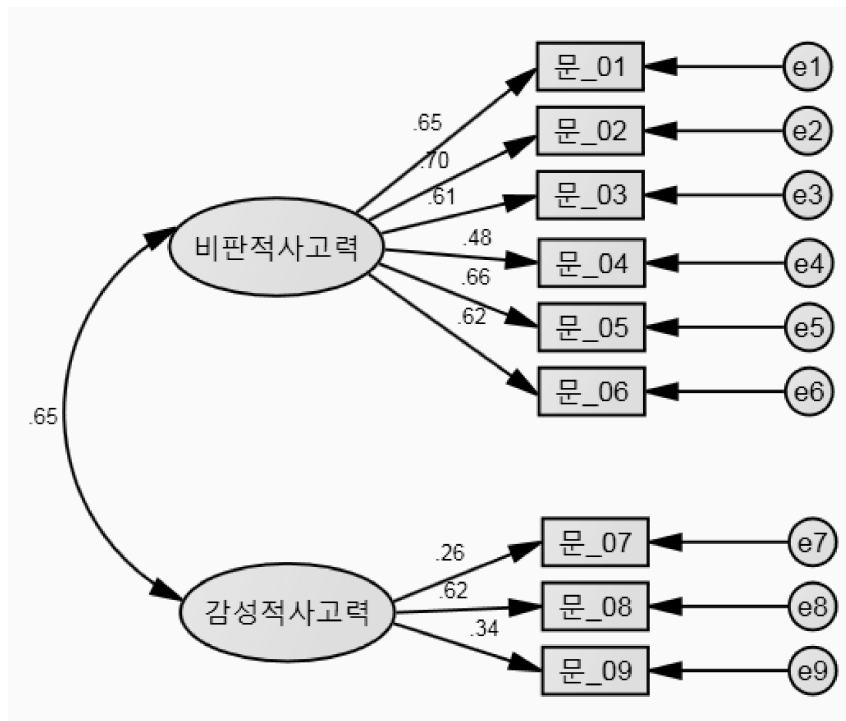
표 IV-7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구성체계 측정문항의 측정모형 분석

역량	하위역량	문항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_01	1.000	.650**
		문_02	1.081	.701**
		문_03	1.129	.613**
		문_04	.827	.484**
		문_05	1.108	.664**
		문_06	1.075	.616**
	감성적 사고력	문_07	1.000	.261**
		문_08	1.984	.617**
		문_09	1.163	.336**
지적도구활용능력	언어능력	문_10	1.000	.449**
		문_11	1.242	.525**
		문_12	1.354	.543**
		문_13	2.265	.800**
		문_14	2.294	.815**
	수학능력	문_15	1.000	.760**
		문_16	.750	.640**
		문_17	.836	.658**
		문_18	1.254	.804**
		문_19	1.320	.828**
	과학능력	문_20	1.000	.701**
		문_21	1.026	.753**
		문_22	1.038	.762**
		문_23	1.255	.799**
		문_24	1.214	.802**
		문_25	1.149	.822**
		문_26	1.155	.790**
	정보통신활용능력	문_27	1.000	.729**
		문_28	1.265	.813**
		문_29	1.142	.591**
		문_30	.985	.518**
학습적응성	변화수용력	문_31	1.000	.654**
		문_32	.786	.431**
	지적호기심	문_33	1.000	.638**
		문_34	1.013	.648**
	학습주도성	문_35	1.000	.690**
		문_36	.979	.701**
		문_37	.704	.559**

*.p<0.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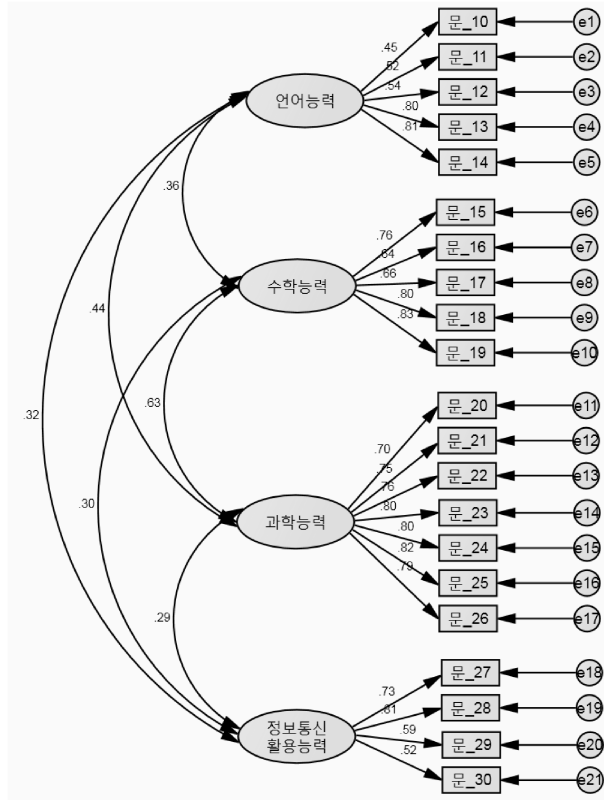
<표 IV-3>에 의하면 사고력의 표준화 계수는 .261~.701, 지적도구활용능력의 표준화 계수는 .449~.828, 학습적응성의 표준화 계수는 .431~.701 범위에 있으며, $p<.05$ 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청 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합도 지수 χ^2 , CFI, NFI, IFI, RMSEA 값을 확인하였으며, 사고력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그림 IV-2】 에, 지적도구활용능력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그림 IV-3】 에, 그리고 학습적응성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그림 IV-4】 에 각각 제시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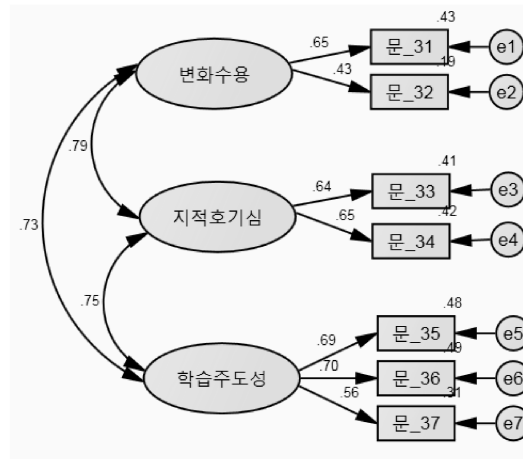
$\chi^2(df) = 1484.070(26)$, $p<.05$, CFI=0.927, NFI=0.926, IFI=0.927, RMSEA=0.071

【그림 IV-2】 사고력 측정모형 및 적합도 지수



$\chi^2(df) = 23747.576(183)$, $p < .05$, CFI=0.810, NFI=0.809, IFI=0.810, RMSEA=0.107

【그림 IV-3】 지적도구활용능력 측정모형 및 적합도 지수



$\chi^2(df) = 416.082(11)$, $p < .05$, CFI=0.973, NFI=0.973, IFI=0.973, RMSEA=0.057

【그림 IV-4】 학습적응성 측정모형 및 적합도 지수

【그림 IV-2】에 따른 사고력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chi^2(df)=1484.076(26)$ 이고,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해당 측정모형이 기각되었다. 사고력의 χ^2 값 역시 표집 사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기각될 수 있기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CFI, NFI, IFI, RMSEA 등의 적합도 지수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CFI=0.927, NFI=0.926, IFI=0.927, RMSEA=0.071로 나타나 해당 지수들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의 사고력을 구성하는 비판적사고력과 감성적 사고력 측정문항의 구인타당도가 매우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그림 IV-3】에 제시된 지적도구활용능력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chi^2(df)=23747.576(183)$ 이고,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해당 측정모형이 기각되었다. 이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 본 결과, CFI=0.810, NFI=0.809, IFI=0.810, RMSEA=0.107로 나타나 지적도구활용능력 지수의 적합도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적도구활용능력요인이 독립적으로 측정되기 보다는 사고력과 학습적응성 등의 요인들과 함께 고려되어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적합도 지수는 다소 낮지만 해당 측정문항의 설명력과 신뢰도가 높고,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전체적인 구성체계의 적합도 지수가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적도구활용능력 측정문항은 어느 정도 양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IV-4】에 제시된 학습적응성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chi^2(df)=416.082(11)$ 이고,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해당 측정모형이 기각되었다. 이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 본 결과, CFI=0.973, NFI=0.973, IFI=0.973, RMSEA=0.057로 나타나 해당 지수들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의 사고력을 구성하는 비판적사고력과 감성적 사고력 측정문항의 구인타당도가 매우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종합하여보면, 2014년 1차 년도에 개발한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측정문항을 바탕으로 2015년 2차 년도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를 측정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를 구성하는 구성체계 즉, 사고력(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지적도구활용능력(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학습적응성(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의 구인타당도와 이를 구성하고 하는 측정문항이 매우 적합한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2)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 구성체계의 타당화

(1)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구성체계의 전체적인 구인타당도 분석결과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 구성체계의 구인타당도 분석을 위해 전체와 구성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8>과 같다. <표 IV-8>에 따르면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 간 상관계수는 중독인식과 감정절제, 폭력회피와 감정절제 간의 관계를 제외하고 모든 관계가 $r=.024\sim.776$ 으로 $p<.05$ 이상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간 상관관계 분석

하위역량	위생 관리	신체 관리	안전 스트레스 관리	목표 및 계획 수립	수행 및 평가	중독 인식	중독 행동	폭력 행동	폭력 회피	분노 행동	감정 절제	조절 실패	감정 인식
위생관리	1												
신체관리	.404**	1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508**	.535**	1										
목표 및 계획수립	.382**	.347**	.503**	1									
수행 및 평가	.336**	.332**	.448**	.751**	1								
중독인식	.151**	.138**	.149**	.129**	.126**	1							
중독행동	.203**	.174**	.215**	.174**	.169**	.776**	1						
폭력행동	.220**	.024*	.188**	.141**	.118**	.363**	.427**	1					
폭력회피	.236**	.172**	.266**	.174**	.163**	.339**	.415**	.562**	1				
분노행동	.170**	.088**	.183**	.172**	.152**	.309**	.370**	.496**	.377**	1			
감정절제	.119**	.087**	.169**	.178**	.173**	.002	.032**	.048**	.010	.106**	1		
조절실패	.066**	.108**	.096**	.065**	.072**	.240**	.297**	.236**	.272**	.440**	.045**	1	
감정인식	.205**	.099**	.266**	.247**	.215**	.098**	.170**	.267**	.222**	.279**	.415**	.122**	1

*, $p<0.05$,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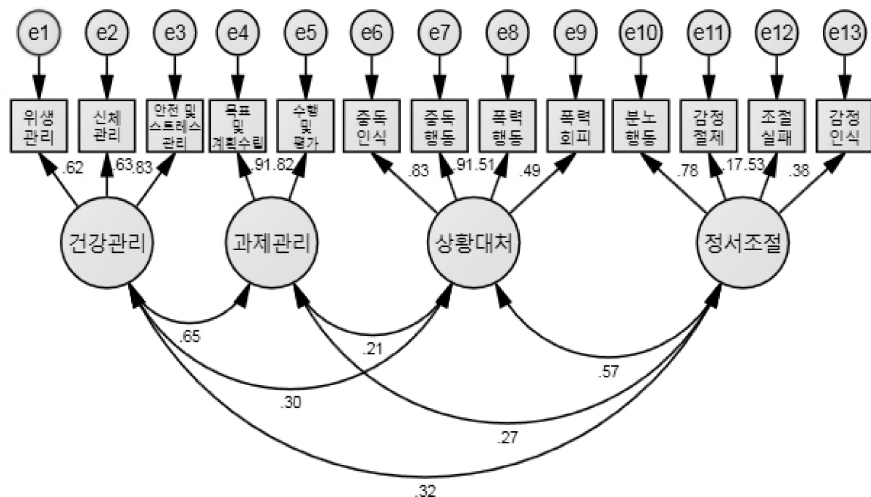
다음으로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구성체계의 전체적인 구인타당도 분석을 위해 최대우도 추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모형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9>에 제시되었다.

표 IV-9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모형 분석

역량	하위역량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건강관리	위생관리	.689	.624**
	신체관리	1.000	.633**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904	.833**
과제관리	목표 및 계획수립	1.000	.913**
	수행 및 평가	.990	.823**
상황대처	중독인식	1.000	.825**
	중독행동	.978	.911**
	폭력행동	.458	.511**
	폭력회피	.458	.492**
정서조절	분노행동	1.000	.779**
	감정절제	.220	.168**
	조절실패	.753	.532**
	감정인식	.392	.377**

*, $p<0.05$, **, $p<0.01$

위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의 표준화 계수는 .168에서 .913의 범위를 보였으며 모두 $p<.0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본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적합도지수인 χ^2 , CFI, NFI, IFI, RMSEA의 수치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IV- 5】에 제시하였다.



$\chi^2(df=8446.632(59), p<.001, CFI=0.836, NFI=0.835, IFI=0.836, RMSEA=0.112$

【그림 IV-5】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 구성체계의 측정모형 및 적합도 지수

생활관리역량지수의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χ^2 값 8446.632(59)로 $p < .0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적합성이 기각되었으며 그 외에도 CFI .836, IFI .835, IFI .836으로 모두 .9이하의 수치를 보였다. RMSEA 수치 역시 .112로 허용수치인 .10 이상의 값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 구성체계 측정문항의 구인타당도 분석결과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를 구성하는 하위영역 측정문항의 구인타당도 분석을 위해 최대우도 추정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모형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0>에 제시되었다.

표 IV-10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 구성체계 측정문항의 측정모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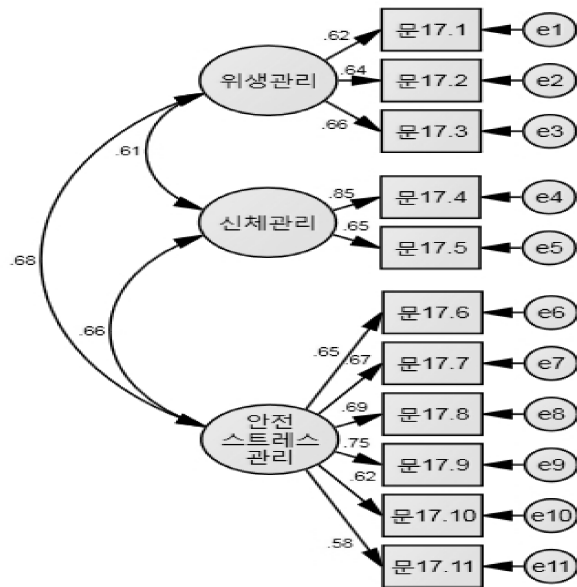
역량	하위역량	문항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건강관리	위생관리	문_1	.886	.621 **
		문_2	.816	.642 **
		문_3	1.000	.661
	신체관리	문_4	1.000	.853
		문_5	.837	.647 **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문_6	.997	.645 **
		문_7	.989	.672 **
		문_8	.946	.693 **
		문_9	1.000	.754
		문_10	.867	.623 **
		문_11	.847	.580 **
과제관리	목표 및 계획 수립	문_12	.889	.741 **
		문_13	.734	.615 **
		문_14	.811	.707 **
		문_15	.880	.763 **
		문_16	.947	.800 **
		문_17	1.000	.798
		문_18	.796	.706 **
		문_19	.837	.742 **
	수행 및 평가	문_20	.879	.725 **
		문_21	.955	.821 **
		문_22	1.000	.825
		문_23	.940	.761 **

역량	하위역량	문항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상황대처	중독인식	문_24	.916	.783 **
		문_25	1.000	.871
		문_26	.942	.818 **
	중독행동	문_27	.961	.789 **
		문_28	.892	.828 **
		문_29	.998	.874 **
		문_30	1.000	.837
		문_31	.927	.778 **
		문_32	.754	.726 **
		문_33	.983	.839 **
	폭력행동	문_34	.900	.812 **
		문_35	1.000	.855
		문_36	.855	.675 **
	폭력회피	문_37	.890	.746 **
		문_38	1.000	.761
		문_39	.905	.707 **
정서조절	분노행동	문_40	1.000	.824
		문_41	.743	.682 **
	감정절제	문_42	.971	.675 **
		문_43	1.000	.742
	조절실패	문_44	.857	.731 **
		문_45	1.000	.847
	감정인식	문_46	-.144	-.114 **
		문_47	.939	.805 **
		문_48	1.000	.853

*, $p<0.05$,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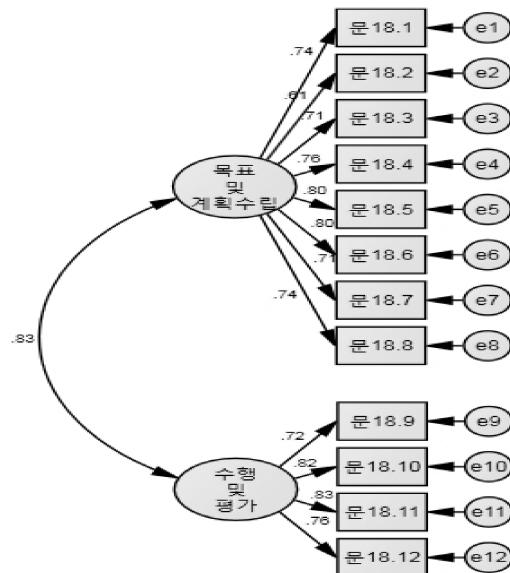
<표 IV-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 구성요인에 따른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건강관리의 표준화 계수는 .580~.724, 과제관리의 표준화 계수는 .615~.825, 상황대처의 표준화 계수는 .675~.874, 정서조절의 표준화 계수는 -.114~.853의 범위에 있으며, $p<.0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나타난 생활관리역량지수 구성요인의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합도 지수 χ^2 , CFI, NFI, IFI, RMSEA 값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관리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그림 IV-6】에, 과제관리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그림 IV-7】에, 그리고 상황대처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그림 IV-8】에 마지막으로 정서조절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그림 IV-9】에 각각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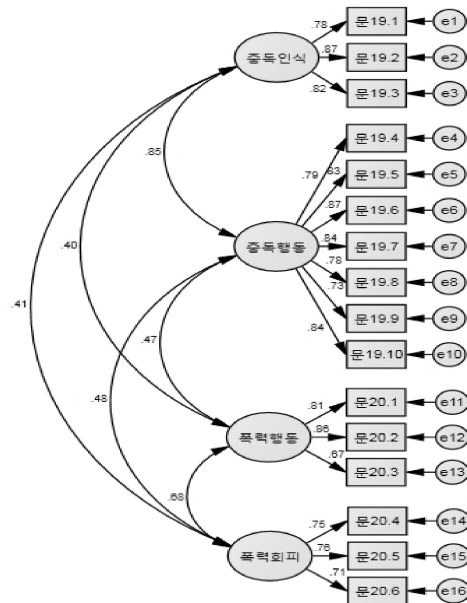
$\chi^2(df) = 2476.791(41)$, $p < .001$, CFI=0.938, NFI=0.937, IFI=0.938, RMSEA=0.073

【그림 IV-6】 건강관리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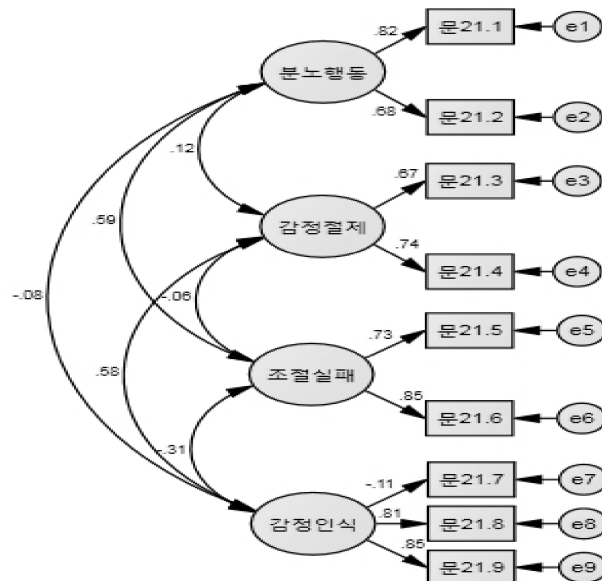
$\chi^2(df) = 4812.519(53)$, $p < .001$, CFI=0.940, NFI=0.939, IFI=0.940, RMSEA=0.089

【그림 IV-7】 과제관리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chi^2(df) = 3941.684(98)$, $p < .001$, CFI=0.967, NFI=0.966, IFI=0.967, RMSEA=0.059

【그림 IV-8】 상황대처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chi^2(df) = 6470.820(21)$, $p < .001$, CFI=0.802, NFI=0.801, IFI=0.802, RMSEA=0.165

【그림 IV-9】 정서조절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먼저, 건강관리 측정모형의 적합성 검증 결과, $\chi^2(df)=2476.791(41)$ 이며 $p<.0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지만 CFI=0.938, NFI=0.937, IFI=0.938 그리고 RMSEA=0.073로 나타나 건강관리 측정모형의 적합성이 모든 지표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의 건강관리를 구성하는 신체관리, 위생관리,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측정문항의 구인타당도는 매우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목표 및 계획수립과 수행 및 평가로 구성된 과제관리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그림 IV-7】를 통해 살펴보면, $\chi^2(df)=4812.519(53)$ 으로 $p<.0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하여 적합성 판정이 기각되었지만, CFI=0.940, NFI=0.939, IFI=0.940, RMSEA=0.089로 나타나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수용가능한 수치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청소년 과제관리 역량지수를 구성하는 목표 및 계획수립과 수행 및 평가 요인의 구인타당도는 매우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독인식, 중독행동, 폭력행동, 폭력회피 네 개의 구성요인으로 이루어진 상황대처역량지수의 적합도는 $\chi^2(df)=3941.684(98)$ 로 $p<.001$ 의 수준에서 기각되었다. 그러나 사례수를 감안하여 그 외 CFI, NFI, IFI, RMSEA 등의 적합지수들을 살펴본 결과 CFI=0.967, NFI=0.966, IFI=0.967, RMSEA=0.059로 모두 수용 가능한 수치를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상황대처역량지수를 구성하는 중독인식, 중독행동, 폭력행동, 폭력회피 측정문항의 구인타당도는 매우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서조절역량지수의 적합도는 $\chi^2(df)=6470.820(21)$, $p<.001$ 로 기각되었으나 CFI, NFI, IFI, RMSEA 적합성 지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CFI=0.802, NFI=0.801, IFI=0.802, RMSEA=0.165로 적합도 수용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수용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서조절역량지수를 구성하는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 감정인식 측정문항의 구인타당도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분석된 결과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2014년도에 개발한 1차년도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측정문항에 비추어 2차년도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를 측정한 자료는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를 구성하는 구성체계인 건강관리(신체관리, 위생관리,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과제관리(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 상황대처(분노인식, 분노행동, 폭력행동, 폭력회피), 정서조절(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 감정인식)의 구인타당도와 측정문항이 대체로 적합한 것으로 다시 한 번 검증되었다.

3)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구성체계의 타당화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구성체계의 구인타당도 재검증을 위하여,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을 구성하는 역량 즉, 진로설계(자기탐색, 직업탐색, 직업가치관, 진로준비), 여가활용(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유가만족, 여가몰입), 개척정신(차별화태도, 도전정신) 등의 전체적인 구인타당도를 우선적으로 검증하였고, 이후 각 역량과 하위역량을 구성하는 측정문항에 대한 구인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1)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구성체계의 전체적인 구인타당도 분석결과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구성체계의 전체적인 구인타당도 분석을 위해 우선적으로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1>에 제시되었다. <표 IV-11>에 의하면,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간 상관관계수 $r = -.028 \sim .703$,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간 상관관계 분석

하위역량	자기 탐색	직업 탐색	직업 가치관	진로 준비	여가 태도	여가 유능감	여가 만족	여가 몰입	차별화 태도	도전 정신
자기탐색	1									
직업탐색	.603**	1								
직업가치관	.554**	.532**	1							
진로준비	.603**	.663**	.552**	1						
여가태도	.480**	.401**	.447**	.409**	1					
여가유능감	.374**	.381**	.318**	.383**	.473**	1				
여가만족	.448**	.396**	.415**	.421**	.651**	.578**	1			
여가몰입	.395**	.362**	.382**	.372**	.641**	.531**	.703**	1		
차별화태도	.383**	.379**	.324**	.386**	.335**	.384**	.341**	.356**	1	
도전정신	.109**	.057**	.129**	.066**	.058**	.062**	.095**	.022*	-.028**	1

*, $p < 0.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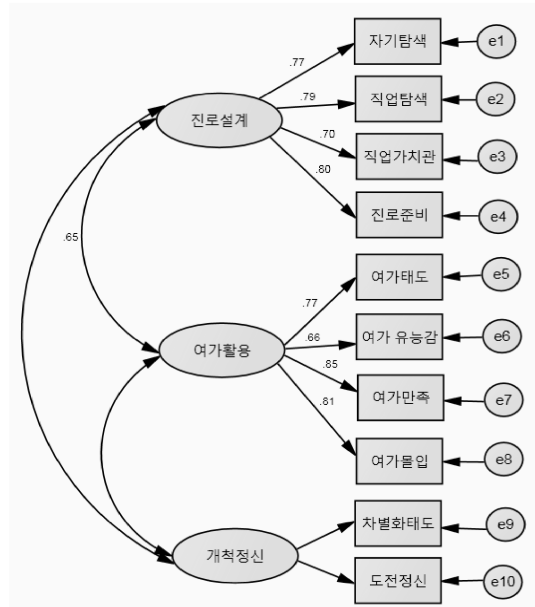
다음으로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구성체계의 전체적인 구인타당도 분석을 위해 최대우도 추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모형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2>에 제시되었다.

표 IV-12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모형 분석

역량	하위역량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진로설계	자기탐색	1.000	.774**
	직업탐색	1.172	.788**
	직업가치관	.926	.699**
	진로준비	1.099	.801**
여가활용	여가태도	1.000	.772**
	여가유능감	1.139	.664**
	여가만족	1.352	.853**
	여가몰입	1.206	.814**
개척정신	차별화태도	1.000	—
	도전정신	.277	—

*, $p<0.05$, **, $p<0.01$

<표 IV-12>에 의하면,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중 진로설계 및 여가활용의 표준화 계수는 .699~.853 범위에 있으며,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척정신의 하위역량에 대해서는 표준화 계수가 산출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결과는 【그림 IV- 10】 과 같다.



$\chi^2(df)=1393.32(32)$, $p<.05$, CFI=0.972, NFI=0.971, IFI=0.972, RMSEA=0.061

【그림 IV-10】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구성체계의 측정모형 및 적합도 지수

【그림 IV-10】에 의하면,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전체 구인에 대한 $\chi^2(df)=1393.32(32)$ 이고,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해당 측정모형이 기각되었다. 하지만 χ^2 값은 표집 사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사례수가 많아지면 실제 측정모형이 자료를 잘 설명한다 할지라도 측정모형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배병렬, 2005; 성은모, 김균희, 2013; Bentler & Bonett, 1980; Sung, & Mayer, 2012). 따라서 χ^2 값의 유의수준에 따라 이분법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다양한 다른 지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상대적으로 비교검토 하여야 한다 (김동일 외. 2010; Chemers, Hu, & Garcia, 2001). 이에 본 연구에서는 χ^2 검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CFI(comparative fit index, $>.90$), NFI(normed fit index, $>.90$), IFI(incremental fit index, $>.90$), RMSEA(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10$) 등의 적합도 지수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CFI=0.972($>.90$), NFI=0.971($>.90$), IFI=0.972($>.90$), RMSEA=0.061($<.10$ 이하)로 나타나 해당 지수들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구인 즉, 진로설계와 여가활동의 구인타당도가 매우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개척정신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겠다.

(2)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구성체제 측정문항의 구인타당도 분석결과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구성체제를 구성하는 측정문항의 구인타당도 분석을 위해 최대우도 추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모형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3>에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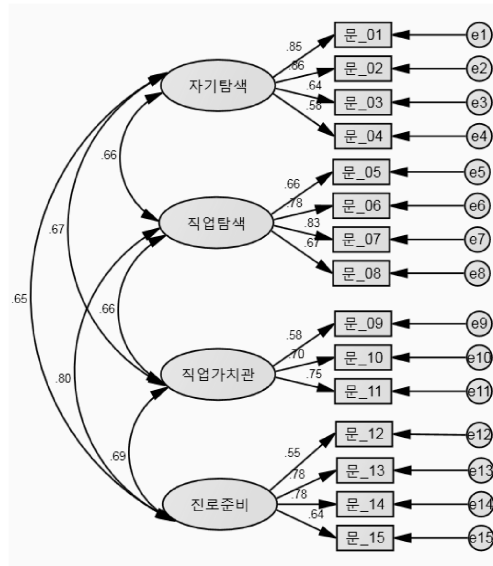
표 IV-13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구성체제 측정문항의 측정모형 분석

역량	하위역량	문항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진로설계	자기탐색	문_01	1.000	.846
		문_02	1.025	.862
		문_03	0.802	.636
		문_04	0.726	.576
	직업탐색	문_05	1.000	.661
		문_06	1.090	.780
		문_07	1.127	.826
		문_08	0.962	.672

역량	하위역량	문항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직업 가치관	문_09	1.000	.578
		문_10	0.982	.701
		문_11	1.078	.745
	진로준비	문_12	0.767	.549
		문_13	1.000	.775
		문_14	1.029	.782
		문_15	0.767	.645
여가활용	여가태도	문_16	1.000	.764
		문_17	1.066	.841
		문_18	1.047	.852
		문_19	1.094	.842
		문_20	1.031	.603
		문_21	1.011	.657
	여가 유능감	문_22	1.000	.721
		문_23	1.105	.791
		문_24	1.004	.779
		문_25	0.990	.745
	여가만족	문_26	1.000	.791
		문_27	1.034	.784
	여가몰입	문_28	0.952	.753
		문_29	0.773	.855
		문_30	1.000	.835
		문_31	1.005	.499
		문_32	1.000	.714
개척정신	차별화 태도	문_33	1.012	.739
		문_34	0.770	.571
		문_35	0.622	.443
		문_36	0.578	.446
		문_37	1.000	.723
	도전정신	문_38	1.242	.902
		문_39	0.823	.5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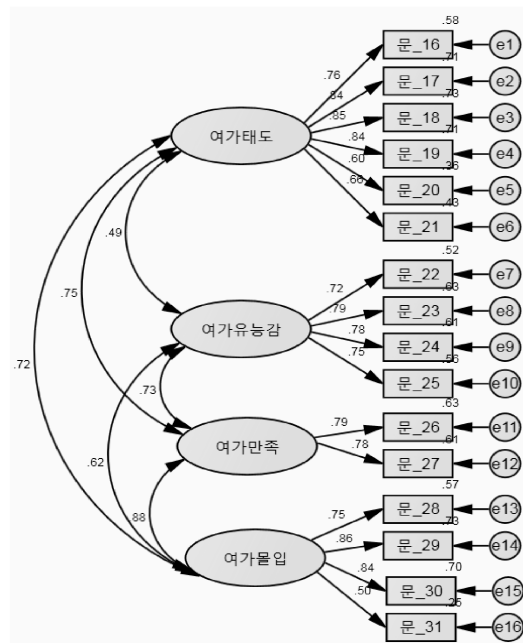
<표 IV-13>에 의하면 진로설계의 표준화 계수는 .546~.862, 여가활용능력의 표준화 계수는 .499~.855, 개척정신의 표준화 계수는 .443~.902 범위에 있으며, $p<.05$ 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청 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합도 지수 χ^2 , CFI, NFI, IFI, RMSEA 값을 확인하였으며, 진로설계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그림 IV- 11】 에, 여가활용능력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그림 IV- 12】 에, 그리고 개척정신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그림 IV- 13】 에 각각 제시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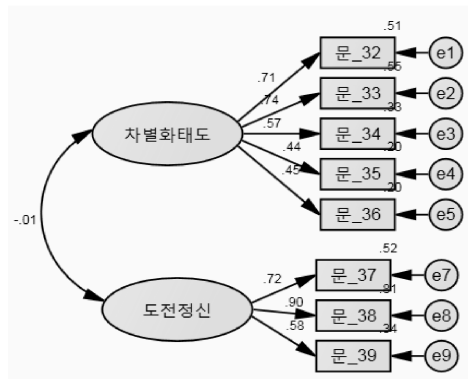
$\chi^2(df) = 5242.735(84)$, $p < .05$, CFI=0.931, NFI=0.930, IFI=0.931, RMSEA=0.074

【그림 IV-II】 진로설계 측정모형 및 적합도 지수



$\chi^2(df) = 6856.083(98)$, $p < .05$, CFI=0.936, NFI=0.935, IFI=0.936, RMSEA=0.078

【그림 IV-12】 여가활용능력 측정모형 및 적합도 지수



$\chi^2(df) = 840.673(19)$, $p < .05$, CFI=0.961, NFI=0.960, IFI=0.961, RMSEA=0.062

【그림 IV-13】 개척정신 측정모형 및 적합도 지수

【그림 IV-11】에 따른 진로설계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chi^2(df)=5242.735(84)$ 이고,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해당 측정모형이 기각되었다. 진로설계의 χ^2 값 역시 표집 사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기각될 수 있기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CFI, NFI, IFI, RMSEA 등의 적합도 지수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CFI=0.931, NFI=0.930, IFI=0.931, RMSEA=0.074로 나타나 해당 지수들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청소년 진로개발 역량지수의 진로설계를 구성하는 자기탐색, 직업탐색, 직업가치관, 진로준비 측정문항의 구인타당도가 매우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그림 IV-12】에 제시된 여가활용능력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chi^2(df)=6856.083(98)$ 이고,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해당 측정모형이 기각되었다. 이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 본 결과, CFI=0.936, NFI=0.935, IFI=0.936, RMSEA=0.078로 나타나 해당 지수들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여가활용을 구성하는 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여가만족, 여가몰입 측정문항의 구인타당도가 매우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림 IV-13】에 제시된 개척정신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chi^2(df)=840.673(19)$ 이고,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해당 측정모형이 기각되었다. 이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 본 결과, CFI=0.961, NFI=0.960, IFI=0.961, RMSEA=0.062로 나타나 해당 지수들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청소년 개척정신을 구성하는 차별화태도와 도전정신 측정문항의 구인타당도가 매우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구성체계의 타당화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구성체계의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을 구성하는 역량 즉, 관계형성(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간 및 배려), 리더십(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협동(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 등의 전체적인 구인타당도를 우선적으로 검증하였고, 이후 각 역량과 하위역량을 구성하는 측정문항에 대한 구인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1)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구성체계의 전체적인 구인타당도 분석결과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구성체계의 전체적인 구인타당도 분석을 위해 우선적으로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4>에 제시되었다. <표 IV-14>에 의하면,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 간 상관계수 $r=.388\sim.787$,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 간 상관관계 분석

하위역량	자기 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간 및 배려	의사결정	집단 활동관리	추진력	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 문제해결
자기개방성	1									
친화성	.556**	1								
의사소통	.580**	.661**	1							
공간 및 배려	.511**	.512**	.683**	1						
의사결정	.424**	.483**	.585**	.539**	1					
집단활동관리	.419**	.554**	.578**	.466**	.696**	1				
추진력	.423**	.529**	.601**	.538**	.718**	.787**	1			
집단촉진	.482**	.564**	.636**	.590**	.652**	.673**	.719**	1		
팔로워십	.388**	.438**	.544**	.534**	.583**	.565**	.633**	.702**	1	
갈등문제해결	.487**	.517**	.617**	.585**	.639**	.628**	.687**	.773**	.714**	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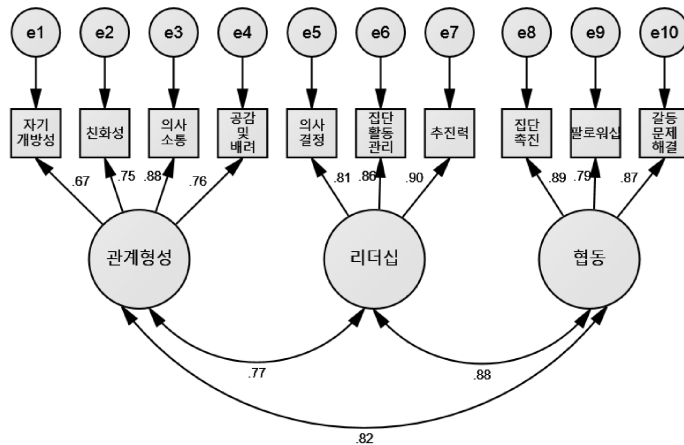
다음으로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구성체계의 전체적인 구인타당도 분석을 위해 최대우도 추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모형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5>에 제시되었다.

표 IV-15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측정모형 분석

역량	하위역량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관계형성	자기개방성	1.00	0.67 **
	친화성	1.17	0.75 **
	의사소통	1.10	0.88 **
	공감 및 배려	0.95	0.77 **
리더십	의사결정	1.00	0.81 **
	집단활동관리	1.16	0.86 **
	추진력	1.11	0.90 **
협동	집단촉진	1.00	0.89 **
	팔로워십	0.93	0.79 **
	갈등문제해결	0.96	0.87 **

** $p<.001$.

<표 IV-15>에 의하면,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의 표준화 계수는 .67~.90 범위에 있으며,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합도 지수 χ^2 , CFI, NFI, IFI, RMSEA 값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IV-14】에 제시되었다.



$\chi^2(df=1,706.725(32), p<.001, CFI=0.979, NFI=0.979, IFI=0.979, RMSEA=0.068$

【그림 IV-14】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구성체계의 측정모형 및 적합도 지수

【그림 IV-14】에 의하면,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전체 구인에 대한 $\chi^2(df)=1,706.725(32)$ 이고,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해당 측정모형이 기각되었다. 하지만 χ^2 값은 표집 사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사례수가 많아지면 실제 측정모형이 자료를 잘 설명한다 해도 측정모형을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배병렬, 2005; 성은모, 김균희, 2013; Bentler & Bonett, 1980; Sung, & Mayer, 2012). 따라서 다양한 다른 지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χ^2 검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CFI, NFI, IFI, RMSEA 등의 적합도 지수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CFI=0.979(>.90), NFI=0.979(>.90), IFI=0.979(>.90), RMSEA=0.068(<.10 이하)로 나타나 해당 지수들이 적합도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구인 즉, 관계형성(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간 및 배려), 리더십(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협동(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의 구인타당도가 매우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구성체계 측정문항의 구인타당도 분석결과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구성체계를 구성하는 측정문항의 구인타당도 분석을 위해 최대우도 추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모형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6>에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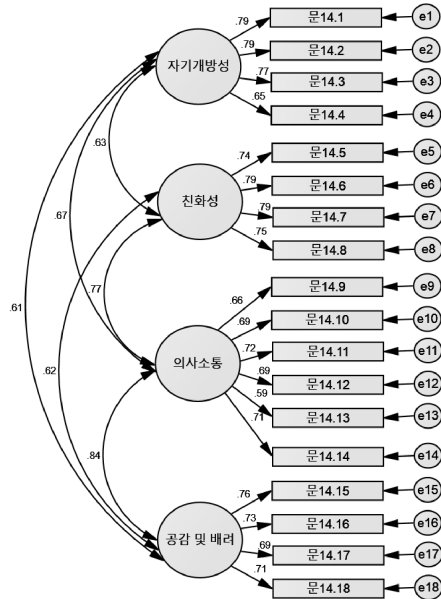
표 IV-16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구성체계 측정문항의 측정모형 분석

역량	하위역량	문항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관계형성	자기개방성	문14_1	1.00	0.79 **
		문14_2	1.12	0.79 **
		문14_3	0.97	0.77 **
		문14_4	0.94	0.65 **
	친화성	문14_5	1.00	0.74 **
		문14_6	1.04	0.79 **
		문14_7	0.98	0.80 **
		문14_8	0.91	0.75 **
	의사소통	문14_9	1.00	0.66 **
		문14_10	0.98	0.69 **
		문14_11	1.00	0.72 **
		문14_12	1.02	0.69 **
		문14_13	0.97	0.59 **
		문14_14	1.03	0.71 **
	공감 및 배려	문14_15	1.00	0.76 **
		문14_16	1.01	0.73 **
		문14_17	0.97	0.69 **
		문14_18	0.91	0.71 **

역량	하위역량	문항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리더십	의사결정	문15_1	1.00	0.83 **
		문15_2	1.06	0.84 **
		문15_3	1.02	0.79 **
		문15_4	0.95	0.77 **
	집단활동 관리	문15_5	1.00	0.72 **
		문15_6	0.98	0.81 **
		문15_7	0.98	0.83 **
		문15_8	1.07	0.82 **
	추진력	문15_9	1.00	0.81 **
		문15_10	0.95	0.73 **
		문15_11	0.92	0.71 **
		문15_12	0.97	0.76 **
		문15_13	0.92	0.78 **
		문15_14	0.92	0.76 **
협동	집단촉진	문16_1	1.00	0.73 **
		문16_2	0.88	0.71 **
		문16_3	1.04	0.77 **
		문16_4	1.08	0.78 **
		문16_5	1.09	0.75 **
		문16_6	1.06	0.75 **
	팔로워십	문16_7	1.00	0.74 **
		문16_8	1.18	0.78 **
		문16_9	1.18	0.81 **
	갈등문제 해결	문16_10	1.00	0.80 **
		문16_11	1.05	0.82 **
		문16_12	0.97	0.71 **
		문16_13	0.88	0.71 **
		문16_14	0.78	0.6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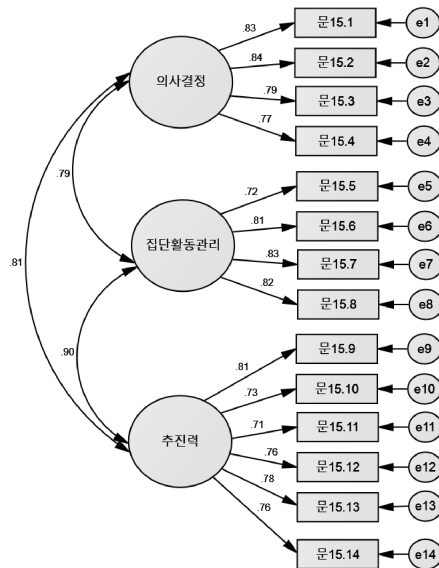
** $p < .001$.

<표 IV-16>에 의하면 관계형성의 표준화 계수는 .59~.80, 리더십의 표준화 계수는 .71~.84, 리더십의 표준화 계수는 .61~.82 범위에 있으며, $p <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합도 지수 χ^2 , CFI, NFI, IFI, RMSEA 값을 확인하였으며, 관계형성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그림 IV-15】에, 리더십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그림 IV-16】에, 그리고 협동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그림 IV-17】에 각각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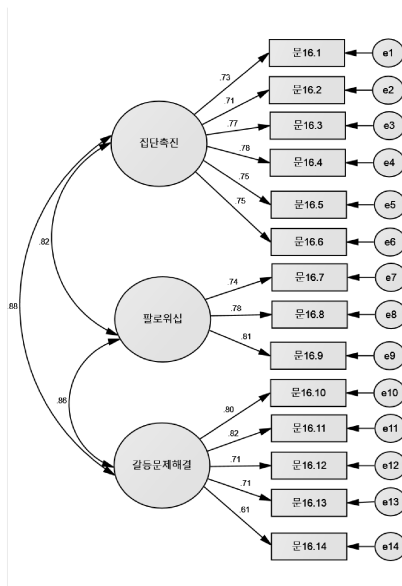
$\chi^2(df) = 5,248.904(129)$, $p < .001$, CFI=0.946, NFI=0.945, IFI=0.946, RMSEA=0.059

【그림 IV-15】 관계형성 측정모형 및 적합도 지수



$\chi^2(df) = 3,077.385(74)$, $p < .001$, CFI=0.971, NFI=0.970, IFI=0.971, RMSEA=0.060

【그림 IV-16】 리더십 측정모형 및 적합도 지수



$\chi^2(df) = 3,933.801(11)$, $p < .001$, CFI=0.957, NFI=0.956, IFI=0.957, RMSEA=0.068

【그림 IV-17】 협동 측정모형 및 적합도 지수

【그림 IV-15】에 따른 관계형성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chi^2(df)=5,248.904(129)$ 이고,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해당 측정모형이 기각되었다. 관계형성의 χ^2 값 역시 표집 사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기각될 수 있기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CFI, NFI, IFI, RMSEA 등의 적합도 지수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CFI=0.946, NFI=0.945, IFI=0.946, RMSEA=0.059로 나타나 해당 지수들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청소년 대인관계 역량지수의 관계형성을 구성하는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측정문항의 구인타당도가 매우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그림 IV-16】에 제시된 리더십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chi^2(df)=3,077.385(74)$ 이고,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해당 측정모형이 기각되었다. 이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CFI=0.971, NFI=0.970, IFI=0.971, RMSEA=0.060으로 나타나 해당 지수들이 적합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의 리더십을 구성하는 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측정문항의 구인타당도가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IV-17】에 제시된 협동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chi^2(df)=3,933.801(11)$

이고,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해당 측정모형이 기각되었다. 이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 본 결과, CFI=0.957, NFI=0.956, IFI=0.957, RMSEA=0.068로 나타나 해당 지수들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의 리더십을 구성하는 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 측정문항의 구인타당도가 매우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컨대, 2014년 1차 년도에 개발한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측정문항을 사용하여 2015년 2차 년도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를 측정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를 구성하는 구성체계 즉, 관계형성(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간 및 배려), 리더십(의사결정, 집단활동 관리, 추진력), 협동(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의 구인타당도와 이를 구성하고 하는 측정문항이 매우 적합한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5)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지수 구성체계의 타당화³⁾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측정 도구 중 개인 시민성은 정치적 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8문항), 권리·책임의식(4문항), 그리고 민주적 절차 및 의식(2문항)의 세 가지 하위 구성 요인으로 이루어졌다. 보다 구체적인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IV-17>과 <표 IV-18>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17 개인 시민성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AVE	개념 신뢰도
권리·책임 의식	22.1. 법이 불공정하다면 사람들은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1.000	0.832 **	0.718	0.911
	22.2. 사람들은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1.053	0.861 **		
	22.3.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1.010	0.868 **		
	22.4. 모든 사람들은 정치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0.970	0.828 **		

3) 이 부분은 협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인 김태준 박사(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가 책임 집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협동 연구 보고서 김태준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개발 및 국제비교연구 II: ICCS 2016-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분석 보고서’를 참고바라며, 본 장은 김태준 (2015)의 보고서 내용 중 결과부분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음.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AVE	개념 신뢰도
민주적 절차 및 의식	22.5.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한두 사람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1.000	0.701 **	0.557	0.715
	22.6. 어떻게 해서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면 되었지 민주주의를 꼭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1.111	0.789 **		
정치사회적 관심	23.1. 우리나라에서의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 정도	1.000	0.886 **	0.578	0.797
	23.2.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 정도	0.911	0.824 **		
	23.3.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 정도	0.577	0.519 **		
정치적 자아효능감	24.1. 나는 또래 친구들에 비해 정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1.000	0.821 **	0.620	0.890
	24.2. 정치적 이슈 및 문제를 토론할 때, 나는 항상 토론에 참여 한다.	0.999	0.812 **		
	24.3. 나는 남들이 귀기울일만한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	1.059	0.855 **		
	24.4. 나는 정치에 참여할 것이다.	0.832	0.622 **		
	24.5. 나는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이슈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	1.021	0.805 **		

표 IV-18 개인시민성 타당화 측정모형의 적합도

$\chi^2(df)$	TLI	NFI	CFI	RMSEA
2475.894(71)**	0.959	0.971	0.972	0.055

공동체 시민성의 하위 구성 요인은 공적 실천(14문항), 사회적 신뢰(9문항), 적극적 의견
개진(5문항), 그리고 교실개방성(5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보다 구체적인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IV-19>와 <표 IV-20>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19 공동체 시민성 타당화 측정모형 분석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AVE	개념 신뢰도
투표참여	27.1. 투표참여 의지	1	0.745 **	0.586	0.739
	27.2. 투표하기 전 후보자에 대한 정보 수집 의지	1.282	0.785 **		
시민활동의 중요성	28.1. 불공정한 법에 대항한 평화적 항의의 중요성	1	0.831 **	0.706	0.905
	28.2. 지역공동체에 유익한 활동의 중요성	1.054	0.872 **		
	28.3. 인권증진운동의 중요성	1.088	0.878 **		
	28.4. 환경보호운동의 중요성	0.95	0.775 **		
저항 의식	29.1.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리본이나 뱃지 달기 참여 의지	1	0.698 **	0.537	0.850
	29.2. 비폭력 집회 참여 의지	1.196	0.801 **		
	29.3. 진정서 서명 참여 의지	1.185	0.813 **		
	29.4. 상품 불매 운동 참여 의지	1.176	0.794 **		
	29.5. 벽에 항의 표어/스프레이/페인팅 참여 의지	0.802	0.514 **		
신뢰	34.1. 정부에 대한 신뢰 정도	1	0.849 **	0.691	0.897
	34.4. 정당에 대한 신뢰 정도	1.065	0.92 **		
	34.5. 국회에 대한 신뢰 정도	1.125	0.936 **		
	34.6. 미디어(TV, 언론사, 라디오)에 대한 신뢰 정도	0.617	0.567 **		
교실개방성	35.1. 학생들은 공개적으로 선생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1	0.519 **	0.550	0.856
	35.2. 학생들은 현재의 정치적 사건을 학급차원에서 토론한다.	1.521	0.722 **		
	35.3. 다른 학생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학급에서 자기의견을 표명한다.	1.397	0.711 **		
	35.4.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이슈를 토론하도록 권장한다.	1.834	0.873 **		
	35.5. 선생님들이 학급에서 이슈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준다.	1.716	0.833 **		

표 IV-20 공동체 시민성 타당화 측정모형의 적합도

$\chi^2(df)$	TLI	NFI	CFI	RMSEA
6,007.145(160)**	0.939	0.952	0.953	0.057

세계 시민성의 하위 구성 요인은 성 인지(2문항), 이민자에 대한 태도(5문항), 국가 및 역사 의식(4문항), 그리고 국제 관계 이해(4문항)의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 보다 구체적인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IV-21>과 <표 IV-22>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21 세계 시민성 타당화 측정모형 분석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AVE	개념 신뢰도
성 인지	36.1. 가족의 생계문제는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	1	0.999**	0.750	0.853
	36.2. 여성의 우선적 책무는 아이를 보육하는 데 있다.	1.002	0.708**		
이민자에 대한 태도	37.1. 외국에 있는 우리 민족 후손들(예: 고려인, 조선족 등)이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것에 대한 허용 정도	1	0.759**	0.776	0.912
	37.2. 우리 민족이 아닌 외국인이나 소수민족이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것에 대한 허용 정도	1.612	0.955**		
	37.3. 빈곤국가(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것에 대한 허용 정도	1.614	0.917		
국가 및 역사의식	41.1. 우리는 되도록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을 사야한다.	1	0.792**	0.594	0.853
	41.2. 안전 요원은 국가 안전을 위협할 용의자(예: 간첩 등)라고 여겨지는 사람의 편지나 전화, 이메일을 체크할 수 있다.	1.151	0.732**		
	41.3. 국가 안전에 엄청난 위협을 느낄 때, 정부는 언론 출판을 통제할 권력을 가져야 한다.	1.257	0.863**		
	41.4. 우리나라는 우리가 성취한 것들에 대해 다른 나라의 존경을 받을만하다.	1.318	0.684**		
국제관계 관심	42.1. 다른 나라들의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1	0.955**	0.828	0.906
	42.2. 국가 간 갈등에 대한 신문기사에 대한 관심 정도	0.958	0.863**		
글로벌 의사소통	43.1. 나는 외국인과 잘 지내는 데 큰 문제가 없다.	1	0.994**	0.904	0.949
	43.2. 나는 외국을 방문할 때 그 나라에 적합한 매너와 문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학습한다.	0.963	0.905**		

표 IV-22 세계 시민성 타당화 측정모형의 적합도

$\chi^2(df)$	TLI	NFI	CFI	RMSEA
679.776(55)**	0.990	0.992	0.993	0.032

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결과의 기술통계 및 차이 분석

2015년도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결과는 1차 본 조사 결과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소년의 전반적인 현황과 실태를 중심으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의 역량수준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2차적으로는 청소년 역량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으로 청소년 역량지수가 청소년의 시기별 어떻게 발달하고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청소년 역량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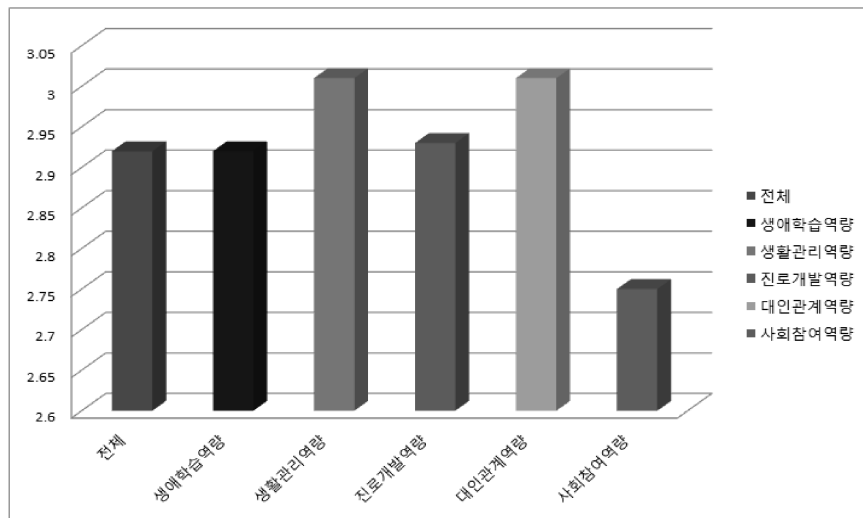
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결과 분석

우리나라 청소년의 전반적인 현황과 실태를 중심으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에 종합적인 분석결과를 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 시기별, 성별, 그리고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23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종합분석 결과

청소년 시기	전체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
전체	2.92	2.92	3.01	2.93	3.01	2.75
초등(초기 청소년)	3.02	2.99	3.17	3.01	3.06	2.86
중등(중기 청소년)	2.93	2.91	3.04	2.93	3.02	2.77
고등(중기 청소년)	2.89	2.87	2.97	2.90	2.97	2.72
대학(후기 청소년)	2.84	2.91	2.84	2.83	2.96	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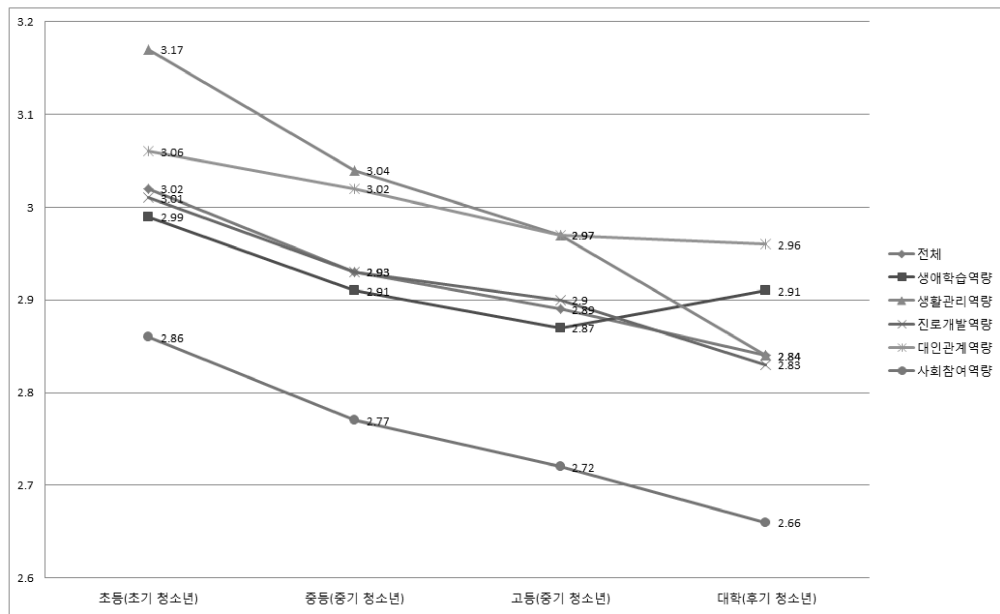
<표 IV-23>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 전체 평균은 4점 만점에 2.92로 나타났으며, 이를 100% 기준으로 본다면 7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역량군별로 살펴보면, 생활관리역량과 대인관계역량 평균이 각각 3.01로 나타나 75%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고, 진로개발역량이 2.93점 73.25%, 생애학습역량이 2.92점 73%로 나타났으며, 사회참여역량이 2.75점 68.7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생활관리역량과 대인관계역량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참여 역량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그림 IV-18】과 같다.



【그림 IV-18】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종합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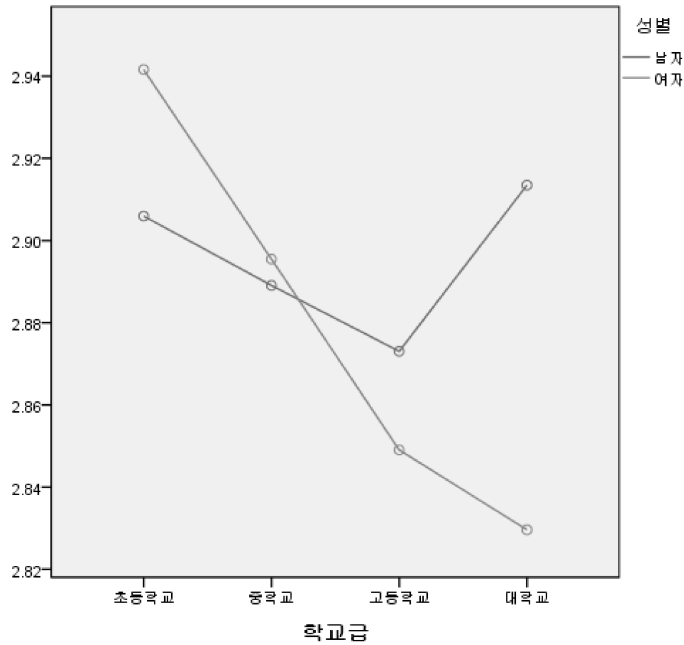
이와 같은 청소년 역량지수를 청소년의 발달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초등학생들의 청소년 역량지수가 3.02점 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 2.93점 73%, 고등학생 2.89점 72%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이 2.84 7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의 역량 수준이 가장 높고, 대학생의 역량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각 시기별로 살펴보면, 초·중·고등학생은 대체적으로 생활관리역량 및 대인관계역량이 높고 사회참여역량이 낮은 반면, 대학생은 대인관계역량과 생애학습역량이 높고 사회참여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생활관리역량과 진로개발역량이 초·중·고등학교 시기에는 높은 반면 오히려 대학생 시기에는 생활관리역량과 진로개발역량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종합하여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역량은 성장할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직관적으로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그림 IV-19】와 같다.



【그림 IV-19】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성장시기별 변화추이

다음으로, 청소년 시기에서 성별에 따른 청소년 역량 발달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IV-20】 과 같다. 초등학생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학교 시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하다가, 고등학교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의 역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오히려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게 나타났다. 더욱 특이한 것은 대학교 시기까지 여자 청소년의 역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남자 청소년은 대학교 시기에 역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대학생 시기에는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역량이 급격하게 벌어지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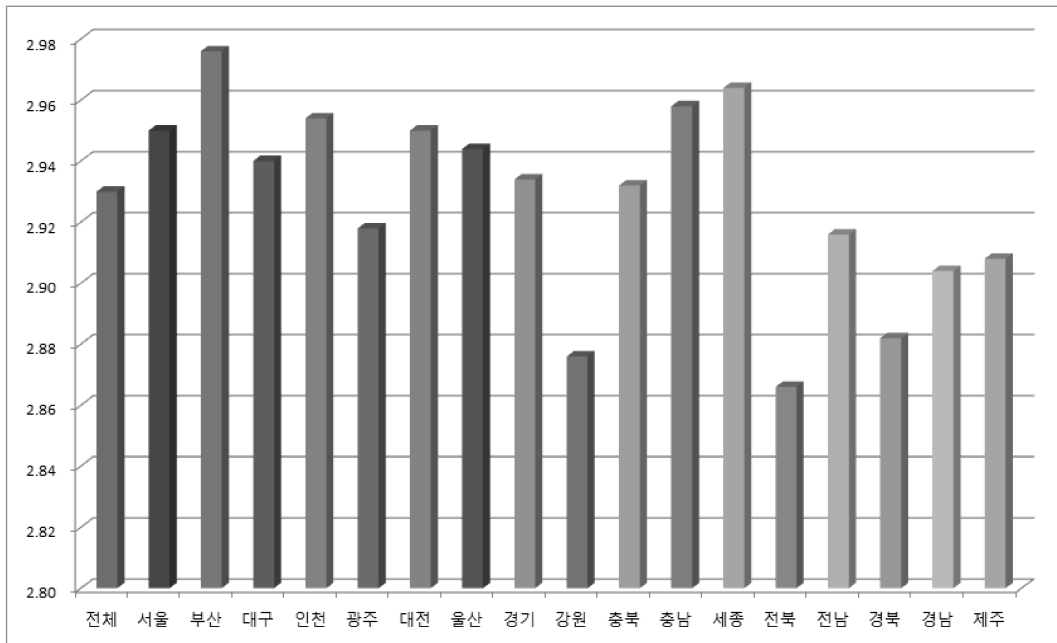


【그림 IV-20】 청소년 시기별 성별에 따른 청소년 역량지수의 변화

이와 같은 청소년 역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24>와 【그림 IV-21】에 의하면, 지역별 청소년 역량지수는 부산이 2.9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충남과 세종이 각각 2.96점, 서울, 인천, 대전이 2.95점 순으로 나타났고, 전북이 2.87점, 강원과 경북이 2.8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V-24 2015 청소년 역량지수의 지역별 분석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전체	2.95	2.98	2.94	2.95	2.92	2.95	2.94	2.93	2.88	2.93	2.96	2.96	2.87	2.92	2.88	2.90	2.91	2.93
생애학습	2.96	2.94	2.96	2.93	2.91	2.94	2.94	2.92	2.87	2.88	2.95	2.90	2.82	2.88	2.87	2.87	2.90	2.91
생활관리	3.03	3.12	3.08	3.05	2.98	3.06	3.02	3.03	2.97	3.04	3.05	3.15	2.97	3.07	3.00	3.01	2.98	3.04
진로개발	2.96	2.96	2.91	2.95	2.93	2.97	2.93	2.93	2.86	2.96	2.96	2.96	2.85	2.93	2.87	2.89	2.93	2.93
대인관계	3.04	3.06	3.01	3.06	2.99	3.02	3.04	3.01	2.95	3.02	3.04	3.10	2.92	2.98	2.92	2.96	2.97	3.01
사회참여	2.76	2.80	2.74	2.78	2.78	2.76	2.79	2.78	2.73	2.76	2.79	2.71	2.77	2.72	2.75	2.79	2.76	2.76



【그림 IV-21】 2015 청소년 역량지수의 지역별 차이

다음으로 청소년 역량지수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을 중심으로 청소년 역량지수의 기술통계 및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은 청소년의 개인특성 변인, 부모특성 변인, 그리고 가구특성변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청소년의 개인특성 변인은 성별, 학교급⁴⁾, 학업성취도 변인이며, 청소년의 부모특성 변인으로는 부(아버지)와 모(어머니)의 학력 변인이었으며, 청소년의 가구특성 변인으로는 가족 구성, 경제적 수준, 그리고 거주지역 변인 등으로 구성되었다.

2)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의 기술통계 및 차이 분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에 대한 수준 분석을 위하여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을 구성하는 역량과 하위역량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분석결과를 <표 IV-25>에 제시하였고,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간 비교분석을 용이하기 위하여 【그림 IV-22】와 같이

4) 청소년의 학교급에 따른 역량 특성은 청소년 시기별 역량 특성으로 간주될 수 있다. 초기 청소년 시기는 초등학생에 해당되며, 중기 청소년 시기는 중고등학생, 후기 청소년 시기(청년기)는 대학생 시기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별 역량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학교급에 따른 역량 특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래프로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표 IV-25>에 의하면,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전체 평균은 2.93(SD=.46)으로 나타났고 사고력 평균은 2.98(SD=.39), 지적도구활용능력 평균은 2.84(SD=.45), 학습적응성 평균은 2.93(SD=.46)으로 나타났다. 하위역량에서는 정보통신활용능력 평균이 3.25(SD=.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지적호기심이 3.19(SD=.57), 비판적 사고력 3.02(SD=.45) 순으로 나타났고, 과학능력이 2.67(SD=.68)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언어능력 2.73(SD=.55), 변화수용 2.77(SD=.57)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지수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활용능력, 지적호기심, 비판적 사고력이 높은 반면,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정보통신활용능력은 컴퓨터 및 인터넷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검색, 공유, 편집 등의 기초소양능력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학습하는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무엇인가를 배우고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호기심이 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추론능력이 우수하여 비판적 사고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의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언어, 수학, 과학적 지식은 우수하나 이에 대한 태도나 흥미가 낮기 때문에 전체적인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25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역량군	역량	하위역량	M	SD
생애학습역량	전체		2.93	0.46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3.02	0.45
		감성적사고력	2.91	0.49
		전체	2.98	0.39
	지적도구활용능력	언어능력	2.73	0.55
		수학능력	2.75	0.67
		과학능력	2.67	0.68
		정보통신활용능력	3.25	0.57
		전체	2.84	0.45
	학습적응성	변화수용	2.77	0.57
		지적호기심	3.19	0.57
		학습주도성	2.87	0.59
		전체	2.93	0.46



【그림 IV-22】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평균 점수 비교

이와 같은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가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 생애학습역량군에 대한 분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을 구성하는 역량별 분석, 그리고 각 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별 분석과 같이 위계적으로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을 분석하였다. 우선, 청소년 생애학습역량군에 대한 분석과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을 구성하는 역량별 분석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IV-26>과 같다.

표 IV-26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생애학습역량		역량					
						사고력		지적도구활용능력		학습적응성	
				M	(SD)	M	(SD)	M	(SD)	M	(SD)
전체			11,284	2.92	0.37	2.98	0.39	2.84	0.45	2.93	0.46
개인 특성	성별	남	5,892	2.93	0.38	2.98	0.40	2.86	0.46	2.95	0.47
		여	5,392	2.91	0.35	2.98	0.37	2.82	0.43	2.91	0.44
		F값		3.165**		-.999		4.492**		4.040**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a)	2,888	2.99	0.41	2.99	0.44	2.98	0.47	2.99	0.50
		중등(중기 청소년)(b)	3,571	2.91	0.37	2.98	0.38	2.83	0.45	2.94	0.46
		고등(중기 청소년)(c)	3,826	2.87	0.34	2.98	0.36	2.76	0.43	2.88	0.42
		대학(후기 청소년)(d)	1,000	2.91	0.28	2.95	0.34	2.84	0.36	2.94	0.41
		F값		57.394**		3.167*		148.065**		34.435**	
				a>b>d>c		a>d		a>d>b>c		a>d>b>c	

구분			사례수	생애학습역량		역량					
						사고력		지적도구활용능력		학습적응성	
				M	(SD)	M	(SD)	M	(SD)	M	(SD)
	학업 성취도 수준	상(a)	2,228	3.11	0.37	3.10	0.40	3.11	0.43	3.10	0.47
		중(b)	6,380	2.91	0.34	2.97	0.37	2.84	0.41	2.92	0.45
		하(c)	2,315	2.77	0.35	2.89	0.39	2.61	0.41	2.81	0.44
		F값		539.96**		182.58**		849.70**		255.41**	
				a)b>c		a)b>c		a)b>c		a)b>c	
부모 특성	부의 학력	고졸 이하(a)	2,883	2.88	0.34	2.96	0.36	2.78	0.42	2.90	0.44
		전문대 졸(b)	885	2.94	0.35	2.99	0.37	2.88	0.44	2.96	0.44
		대졸 이상(c)	3,886	3.00	0.35	3.04	0.37	2.95	0.44	3.00	0.45
		F값		93.834**		49.874**		122.864**		38.421**	
				c)b>a		c)b>a		c)b>a		c)b>a	
	모의 학력	고졸 이하(a)	3,681	2.89	0.34	2.97	0.37	2.79	0.42	2.91	0.43
		전문대 졸(b)	981	2.94	0.33	3.00	0.36	2.88	0.43	2.95	0.44
		대졸 이상(c)	3,228	3.01	0.36	3.05	0.37	2.96	0.44	3.01	0.45
		F값		94.127**		43.960**		128.324**		40.188**	
				c)b>a		c)b>a		c)b>a		c)b>a	
가구 특성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10,180	2.93	0.36	2.99	0.38	2.86	0.44	2.94	0.46
		한부모·조손가족/7타	1,032	2.83	0.38	2.93	0.41	2.72	0.45	2.86	0.47
		F값		7.718**		4.432**		9.648**		5.363**	
	경제적 수준	상(a)	4,283	3.00	0.37	3.04	0.39	2.96	0.45	3.01	0.46
		중(b)	4,848	2.88	0.35	2.94	0.38	2.79	0.43	2.89	0.44
		하(c)	2,009	2.85	0.35	2.95	0.37	2.73	0.43	2.86	0.45
		F값		193.073**		76.953**		266.590**		103.395**	
				a)b>c		a)b>c		a)b>c		a)b>c	
	17개 시도	서울(a)	1,955	2.96	0.37	3.02	0.40	2.88	0.46	2.97	0.46
		부산(b)	756	2.94	0.36	2.97	0.38	2.88	0.43	2.97	0.45
		대구(c)	586	2.96	0.34	2.99	0.37	2.91	0.41	2.97	0.44
		인천(d)	700	2.93	0.37	3.00	0.39	2.85	0.44	2.94	0.48
		광주(e)	395	2.91	0.33	2.95	0.34	2.84	0.43	2.94	0.43
		대전(f)	447	2.94	0.36	2.98	0.38	2.91	0.43	2.95	0.45
		울산(g)	264	2.94	0.36	3.00	0.38	2.85	0.46	2.96	0.44
		경기(h)	2,667	2.92	0.36	2.99	0.38	2.85	0.45	2.91	0.46
		강원(i)	304	2.87	0.37	2.93	0.38	2.79	0.46	2.89	0.45
		충북(j)	349	2.88	0.33	2.96	0.34	2.78	0.43	2.90	0.43
		충남(k)	458	2.95	0.39	3.01	0.41	2.87	0.45	2.97	0.49
		세종(l)	25	2.90	0.33	2.96	0.37	2.83	0.38	2.90	0.40
		전북(m)	346	2.82	0.37	2.90	0.40	2.74	0.45	2.84	0.46
		전남(n)	417	2.88	0.42	2.93	0.44	2.79	0.47	2.93	0.52
		경북(o)	494	2.87	0.34	2.95	0.36	2.80	0.40	2.86	0.44
		경남(p)	786	2.87	0.35	2.93	0.38	2.78	0.44	2.89	0.43
		제주(q)	233	2.90	0.42	2.98	0.42	2.80	0.50	2.92	0.49
		F값		6.395**		4.730**		6.567**		4.588**	
				a,b,c,d,e,f,g,h,k)m, o, p, i		a,k,g,d,k,h>i,m,n,p		f,c,a,b,k>m,n,o		b,a,k,c,g,i>m,p	

개인특성 변인에서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 평균은 2.93($SD=.38$)이고, 여자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 평균은 2.91($SD=.35$)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t=3.16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력에 있어서는 $t=-.999$,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지적도구활용능력에서는 $t=4.492$,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남자 청소년의 지적도구활용능력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습적응성에서도 $t=4.040$,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남자 청소년의 학습적응성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에 있어 남자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급(청소년 시기)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에 있어 초등학생(초기 청소년)의 평균은 2.99($SD=.41$), 중학생(중기 청소년)은 2.91($SD=.37$), 고등학생(중기 청소년)은 2.87($SD=.34$), 대학생(후기 청소년)은 2.92($SD=.28$)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F검증과 사후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F=57.394$,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생애학습역량이 가장 높고, 중학생과 대학생의 생애학습역량은 동일하며, 고등학생의 생애학습 역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고력에 있어서는 $F=3.167$,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초등학생의 사고력이 대학생의 사고력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적도구활용능력에 있어서는 $F=148.06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초등학생의 지적도구활용능력이 가장 높고, 중학생과 대학생은 동일하며, 고등학생의 지적도구 활용능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에 있어 초등학생(초기 청소년)의 평균은 2.99($SD=.41$), 중학생(중기 청소년)은 2.91($SD=.37$), 고등학생(중기 청소년)은 2.87($SD=.34$), 대학생(후기 청소년)은 2.92($SD=.28$)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F검증과 사후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F=57.394$,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생애학습역량이 가장 높고, 중학생과 대학생의 생애학습역량은 동일하며, 고등학생의 생애학습 역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고력에 있어서는 $F=3.167$,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초등학생의 사고력이 대학생의 사고력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습적응성에 있어서는 $F=34.43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초등학생의 학습적응성이 가장 높고, 중학생과 대학생은 동일하며, 고등학생의 학습적응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종합하여보면, 학교급(청소년 시기)에 있어 초등학생(초기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이 높고, 고등학교(중기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생애학습역량이 초등학생(초기 청소년) 시기에는 높았다가 고등학교(중기 청소년)까지 낮아지고, 다시 대학생(후기 청소년) 시기에 높아지는 형태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에 있어 학업성취도가 상 수준인 청소년의 평균은 3.11($SD=.37$), 중 수준 청소년의 평균은 2.91($SD=.34$), 그리고 하 수준 청소년의 평균은 2.77($SD=.35$)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F검증과 사후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F=539.96$,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에 의하면 학업성취도가 상 수준인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이 가장 높고, 중 수준인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은 하 수준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고력에 있어서 $F=182.58$,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적도구활용능력에서 $F=849.70$, $p<.01$, 학습적응성에서 수준에서 $F=255.41$,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사고력, 지적도구활용능력, 학습적응성에 있어 학업성취도가 상 수준인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이 가장 높고, 중 수준인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은 하 수준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부모특성 변인에서 부모의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에 있어 부(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부(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청소년의 평균은 3.00($SD=.35$), 전문대 졸업 청소년의 평균은 2.94($SD=.35$), 그리고 고졸 이하인 청소년의 평균은 2.88($SD=.34$)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F검증과 사후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F=93.834$,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부(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이상이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이 부(아버지)의 학력이 전문대 졸업과 고졸이하인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부(아버지)의 학력이 전문대 졸업 청소년이 고졸이하인 청소년 보다 생애학습역량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사고력($F=49.874$, $p<.01$), 지적도구활용능력($F=122.864$, $p<.01$), 그리고 학습적응성($F=38.421$, $p<.01$)도 동일하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분석결과, 부(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이상이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이 부(아버지)의 학력이 전문대 졸업과 고졸이하인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부(아버지)의 학력이 전문대 졸업 청소년이 고졸이하인 청소년 보다 생애학습역량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부(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생애학습역량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모(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모(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청소년의 평균은 3.01($SD=.36$), 전문대 졸업 청소년의 평균은 2.94($SD=.33$), 그리고 고졸 이하인 청소년의 평균은 2.89($SD=.34$)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F검증과 사후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F=94.127,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모(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이상이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이 모(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 졸과 고졸이하인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모(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 졸업 청소년이 고졸이하인 청소년 보다 생애학습역량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사고력($F=43.960, p<.01$), 지적도구활용능력($F=128.324, p<.01$), 그리고 학습적응성($F=40.188, p<.01$)도 동일하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분석결과, 모(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이상이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이 모(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 졸과 고졸이하인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모(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 졸업 청소년이 고졸이하인 청소년 보다 생애학습역량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모(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가구특성 변인에서 가족구성, 경제적 수준,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구성에 있어 따른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님이 계신 가정의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평균은 2.93($SD=.36$)이고, 한부모/조손가정/기타 가정의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평균은 2.83($SD=.38$)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t=7.718,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력에서는 $t=4.432, p<.01$, 지적도구활용능력에서는 $t=9.648, p<.01$, 학습적응성에서는 $t=5.363,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부모님이 모두 있는 가정의 청소년이 한부모/조손가정/기타 가정의 청소년보다 생애학습역량에 있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에 있어 가정경제가 상수준인 청소년의 평균은 3.00($SD=.37$), 중수준인 청소년 평균은 2.88($SD=.35$), 하수준인 청소년의 평균은 2.85($SD=.35$)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F검증과 사후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F=193.073,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가정경제가 상수준이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이 중·하 수준인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고, 중수준인 청소년이 하수준의 청소년 보다 생애학습역량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고력에 있어서는 $F=76.953,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가정경제가 상수준이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이 중·하 수준인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고, 중·하 수준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지적도구활용능력에 있어서는 $F=266.590, p<.01$,

학습적응성에 있어서는 $F=103.39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가정경제가 상수준인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이 중·하 수준인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고, 중수준인 청소년이 하수준의 청소년 보다 생애학습역량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청소년의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에 있어 서울지역 청소년 평균이 $2.96(SD=.37)$, 대구지역 청소년 평균이 $2.96(SD=.35)$ 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지역 청소년 평균이 $2.82(SD=.37)$ 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F검증과 사후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F=6.39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서울, 대구, 충남, 부산, 울산, 대전, 인천, 경기지역 청소년이 전북, 경남, 경북, 강원 지역 청소년 보다 생애학습역량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력에 있어서는 $F=4.730$,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서울, 충남, 울산, 인천, 대구, 경기지역 청소년이 전북, 전남, 강원, 경남 지역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도구활용능력에 있어서는 $F=6.567$,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충남지역 청소년이 전북, 경남, 충북지역 청소년이 생애학습역량이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적응성에 있어서는 $F=4.588$,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대구, 충남, 부산, 서울, 울산지역 청소년이 전북, 경북 지역 청소년 보다 생애학습역량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중소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다 생애학습역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에 있어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에 따른 차이분석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사고력의 하위역량인 비판적 사고력과 감성적 사고력을 살펴보면 <표 IV-27>과 같다.

표 IV-27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사고력 역량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사고력		하위역량			
						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M	(SD)	M	(SD)	M	(SD)
전체			11,284	2.98	0.39	3.02	0.45	2.91	0.49
청소년 특성	성별	남	5,892	2.98	0.40	3.03	0.46	2.87	0.51
		여	5,392	2.98	0.37	3.00	0.43	2.94	0.46
		F값		-.999		2.946**		-7.866**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a)	2,888	2.99	0.44	3.01	0.49	2.95	0.52
		중등(중기 청소년)(b)	3,571	2.98	0.38	3.02	0.46	2.90	0.47
		고등(중기 청소년)(c)	3,826	2.98	0.36	3.02	0.42	2.89	0.47
		대학(후기 청소년)(d)	1,000	2.95	0.34	3.00	0.37	2.84	0.49
		F값		3.167* a)d		.875		14.609** a)b=c)d	
	학업 성취도 수준	상(a)	2,228	3.10	0.40	3.18	0.46	2.94	0.51
		중(b)	6,380	2.97	0.37	3.01	0.43	2.90	0.48
		하(c)	2,315	2.89	0.39	2.89	0.44	2.90	0.47
		F값		182.58** a)b)c		267.06** a)b)c		5.65** a)b=c	
부모 특성	부의 학력	고졸 이하(a)	2,883	2.96	0.36	2.99	0.43	2.90	0.47
		전문대 졸(b)	885	2.99	0.37	3.02	0.42	2.93	0.47
		대졸 이상(c)	3,886	3.04	0.37	3.11	0.44	2.91	0.48
		F값		49.874** c)b)a		75.272** c)b)a		1.535	
	모의 학력	고졸 이하(a)	3,681	2.97	0.37	3.00	0.43	2.91	0.47
		전문대 졸(b)	981	3.00	0.36	3.05	0.41	2.90	0.47
		대졸 이상(c)	3,228	3.05	0.37	3.12	0.43	2.90	0.48
		F값		43.960** c)b)a		76.141** c)b)a		.221	
가구 특성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10,180	2.99	0.38	3.03	0.45	2.90	0.48
		한부모조식가정/기타	1,032	2.93	0.41	2.93	0.46	2.93	0.51
		F값		4.432**		6.735**		-1.843	
	경제적 수준	상(a)	4,283	3.04	0.39	3.09	0.45	2.92	0.50
		중(b)	4,848	2.94	0.38	2.97	0.44	2.89	0.48
		하(c)	2,009	2.95	0.37	2.97	0.44	2.90	0.48
		전체	11,140	2.98	0.38	3.02	0.45	2.90	0.48
		F값		76.953** a)b=c		101.818** a)b=c		5.679** a)b=c	
	17개 시도	서울(a)	1,955	3.02	0.40	3.07	0.46	2.92	0.50
		부산(b)	756	2.97	0.38	3.02	0.44	2.87	0.49
		대구(c)	586	2.99	0.37	3.05	0.44	2.88	0.48
		인천(d)	700	3.00	0.39	3.04	0.46	2.91	0.50
		광주(e)	395	2.95	0.34	2.98	0.39	2.89	0.46
		대전(f)	447	2.98	0.38	3.03	0.43	2.89	0.48
		울산(g)	264	3.00	0.38	3.04	0.42	2.93	0.47
		경기(h)	2,667	2.99	0.38	3.03	0.44	2.91	0.49
		강원(i)	304	2.93	0.38	2.97	0.43	2.85	0.48
		충북(j)	349	2.96	0.34	3.00	0.43	2.88	0.44
		충남(k)	458	3.01	0.41	3.03	0.49	2.98	0.49
		세종(l)	25	2.96	0.37	2.96	0.37	2.97	0.49
		전북(m)	346	2.90	0.40	2.92	0.46	2.84	0.48

구분			사례수	사고력		하위역량			
						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M	(SD)	M	(SD)	M	(SD)
		전남(n)	417	2.93	0.44	2.95	0.50	2.87	0.50
		경북(o)	494	2.95	0.36	2.97	0.41	2.90	0.48
		경남(p)	786	2.93	0.38	2.95	0.45	2.88	0.47
		제주(q)	233	2.98	0.42	3.00	0.48	2.94	0.50
		$F_{값}$		4.730**		5.193**		2.199**	
				a,k,g,d,k,h)i,m,n,p		a,c,g,d,k)p,m,n		k,l,q,g,a)i,m,n	

*, $p<0.05$, **, $p<0.01$

개인특성 변인에서 성별, 학교급(청소년 시기),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사고력 하위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에 따른 사고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비판적 사고력에 있어서 $t=2.946$,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남자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력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성적 사고력에 있어서 $t=7.866$,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여자 청소년의 감성적 사고력이 남자 청소년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비판적 사고력은 남자 청소년이 감성적 사고력은 여자 청소년이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급(청소년 시기)에 따른 사고력 하위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판적 사고력에 있어 $F=.875$,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청소년 시기)에 따른 차이가 없이 일정한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성적 사고력에 있어서 $F=14.690$,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초등학교의 감성적 사고력이 가장 높고, 중학생과 대학생은 동일하며, 고등학교의 감성적 사고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사고력 하위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비판적 사고력에 있어 $F=267.06$,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학업성취도가 상 수준인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력이 중·하 수준의 청소년 보다 높고, 중 수준인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력은 하 수준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성적 사고력에 있어서 $F=5.6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학업성취도가 상 수준인 청소년의 감성적 사고력이 중·하 수준의 청소년 보다 높았지만, 중·하 수준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력과 감성적 사고력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부모특성 변인에서 부모의 학력에 따른 사고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력에 있어 $F=75.272$,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부(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이 부(아버지)의 학력이 전문대 졸과 고졸이하인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부(아버지)의 학력이 전문대 졸인 청소년이 고졸이하인 청소년 보다 생애학습역량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감성적 사고력에 있어 $F=1.535$,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력에 있어 $F=76.141$,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모(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이 모(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 졸과 고졸이하인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모(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 졸인 청소년이 고졸이하인 청소년 보다 생애학습역량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감성적 사고력에 있어 $F=.221$,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부모의 학력은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력에 있어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게 하는 특성임이 확인되었다.

가구특성 변인에서 가족구성, 경제적 수준,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의 사고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구성에 있어 따른 청소년의 사고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비판적 사고력에 있어 $t=6.73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님이 있는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력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적 사고력에서 $t=7.866$,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한부모/조손가정/기타 가정의 청소년의 감성적 사고력이 부모가 있는 청소년 보다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비판적 사고력은 부모가 있는 청소년이 더 높으며, 감성적 사고력은 한부모/조손가정/기타 가정의 청소년이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판적 사고력에 있어 $F=101.818$,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가정경제가 상수준인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력 중·하 수준인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고, 중·하 수준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감성적 사고력에 있어서는 $F=5.679$,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가정경제가 상수준이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이 중·하 수준인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고, 중·하 수준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비판적 사고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의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판적 사고력에 있어 $F=5.193$,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서울, 대구, 충남, 울산, 인천지역 청소년이 전북, 전남, 경남, 강원 지역 청소년 보다 비판적 사고력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적 사고력에 있어서는 $F=2.199$,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충남, 제주, 세종, 울산, 서울지역 청소년이 강원, 전북, 전남 지역 청소년의 감성적 사고력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중소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다 생애학습역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지적도구활용능력의 하위역량인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그리고 정보통신활용능력을 살펴보면 <표 IV-28>과 같다.

표 IV-28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 역량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지적도구활용능력		하위역량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11,284	2.84	0.45	2.73	0.55	2.75	0.67	2.67	0.68	3.25	0.57
청소년 특성	성별	남	5,892	2.86	0.46	2.68	0.56	2.81	0.69	2.77	0.69	3.21	0.58
		여	5,392	2.82	0.43	2.77	0.53	2.68	0.64	2.57	0.67	3.29	0.56
		F값		4.492**		-8.340**		10.199**		15.680**		-7.752**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a)	2,888	2.98	0.47	2.84	0.58	2.98	0.67	2.96	0.64	3.16	0.65
		중등(중기 청소년(b)	3,571	2.83	0.45	2.67	0.54	2.74	0.66	2.63	0.67	3.29	0.56
		고등(중기 청소년(c)	3,826	2.76	0.43	2.66	0.53	2.60	0.65	2.52	0.68	3.27	0.54
		대학(후기 청소년(d)	1,000	2.84	0.36	2.80	0.45	2.67	0.60	2.61	0.65	3.28	0.48
		F값		148.065**		85.212**		190.356**		250.964**		31.637**	
				a=d)b=c		a=d)b=c		a)b)d)c		a)b=d)c		b=d=c)a	
	학업 성취도 수준	상(a)	2,228	3.11	0.43	2.93	0.56	3.16	0.63	3.01	0.68	3.35	0.58
		중(b)	6,380	2.84	0.41	2.71	0.53	2.75	0.62	2.66	0.66	3.25	0.57
		하(c)	2,315	2.61	0.41	2.55	0.52	2.37	0.62	2.41	0.65	3.14	0.56
		F값		849.70**		297.75**		926.83**		475.79**		76.50**	
				a)b)c		a)b)c		a)b)c		a)b)c		a)b)c	
부모 특성	부의 학력	고졸 이하(a)	2,883	2.78	0.42	2.69	0.52	2.64	0.64	2.57	0.67	3.25	0.55
		전문대 졸(b)	885	2.88	0.44	2.76	0.53	2.79	0.68	2.70	0.69	3.27	0.55
		대졸 이상(c)	3,886	2.95	0.44	2.81	0.55	2.87	0.66	2.77	0.70	3.34	0.54
		F값		122.864**		45.296**		110.448**		74.714**		25.232**	
					c)b)a		c)b)a		c)b)a		c)b)a		c)a=b
	모의 학력	고졸 이하(a)	3,681	2.79	0.42	2.68	0.52	2.67	0.65	2.58	0.67	2.56	0.66
		전문대 졸(b)	981	2.88	0.43	2.78	0.53	2.78	0.66	2.70	0.68	2.67	0.67
		대졸 이상(c)	3,228	2.96	0.44	2.83	0.56	2.89	0.66	2.79	0.70	2.77	0.69
		F값		128.324**		68.040**		98.346**		74.027**		82.095**	
				c)b)a		c)b)a		c)b)a		c)b)a		c)b=a	
가구 특성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10,180	2.86	0.44	2.73	0.55	2.77	0.66	2.69	0.69	3.25	0.57
		한부모·조손가정/7타	1,032	2.72	0.45	2.61	0.54	2.54	0.70	2.53	0.69	3.21	0.59
		F값		9.648**		6.757**		10.298**		7.253**		2.470*	
	경제적 수준	상(a)	4,283	2.96	0.45	2.82	0.56	2.91	0.67	2.82	0.70	3.31	0.57
		중(b)	4,848	2.79	0.43	2.68	0.53	2.69	0.64	2.62	0.65	3.20	0.57
		하(c)	2,009	2.73	0.43	2.62	0.53	2.56	0.66	2.52	0.69	3.23	0.57
		F값		266.590**		116.385**		241.843**		172.174**		46.295**	
				a)b)c		a)b)c		a)b)c		a)b)c		a)b=c	

구분			사례수	지적도구활용능력		하위역량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M	(SD)	M	(SD)	M	(SD)	M	(SD)	M	(SD)
17개 시도	서울(a)	1,955	2.88	0.46	2.74	0.56	2.82	0.68	2.70	0.72	3.28	0.58	
	부산(b)	756	2.88	0.43	2.78	0.54	2.75	0.65	2.68	0.69	3.31	0.54	
	대구(c)	586	2.91	0.41	2.76	0.50	2.83	0.63	2.71	0.67	3.35	0.52	
	인천(d)	700	2.85	0.44	2.71	0.57	2.77	0.67	2.68	0.70	3.27	0.57	
	광주(e)	395	2.84	0.43	2.74	0.52	2.76	0.67	2.63	0.66	3.25	0.56	
	대전(f)	447	2.91	0.43	2.75	0.54	2.86	0.61	2.83	0.66	3.21	0.57	
	울산(g)	264	2.85	0.46	2.76	0.57	2.78	0.65	2.62	0.71	3.27	0.59	
	경기(h)	2,667	2.85	0.45	2.73	0.54	2.75	0.70	2.67	0.69	3.25	0.58	
	강원(i)	304	2.79	0.46	2.62	0.56	2.71	0.69	2.69	0.69	3.19	0.56	
	충북(j)	349	2.78	0.43	2.69	0.53	2.59	0.65	2.58	0.71	3.29	0.56	
	충남(k)	458	2.87	0.45	2.76	0.55	2.79	0.66	2.70	0.68	3.25	0.60	
	세종(l)	25	2.83	0.38	2.70	0.47	2.69	0.63	2.65	0.50	3.30	0.50	
	전북(m)	346	2.74	0.45	2.65	0.52	2.65	0.66	2.59	0.69	3.09	0.59	
	전남(n)	417	2.79	0.47	2.64	0.56	2.68	0.64	2.71	0.62	3.17	0.60	
	경북(o)	494	2.80	0.40	2.67	0.53	2.70	0.59	2.66	0.65	3.19	0.55	
	경남(p)	786	2.78	0.44	2.67	0.52	2.65	0.66	2.64	0.67	3.17	0.57	
	제주(q)	233	2.80	0.50	2.73	0.59	2.67	0.69	2.62	0.72	3.18	0.61	
전체		잘못된 계산식	2.84	0.45	2.72	0.55	2.75	0.67	2.68	0.69	3.25	0.57	
F값			6.567** f,c,a,b)j,m,n,o		3.895** b,c,g,k,f) l,m,n,o,p		6.348** f,c,a)o,i)j,m, p		3.080** f)h,o,)m,j		6.400** c,b,l)q,p,m,n		

개인특성 변인에서 성별, 학교급(청소년 시기),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지적도구활용능력 하위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언어능력에 있어서 $t=8.340,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여자 청소년의 언어능력이 남자 청소년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학능력에 있어서 $t=10.199,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남자 청소년의 수학능력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학능력에 있어서 $t=15.680,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남자 청소년의 과학능력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보통신활용능력에 있어서 $t=7.752,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여자 청소년의 정보통신활용능력이 남자 청소년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지적도구활용능력에 있어 성별에 따라 언어능력과 정보통신활용능력은 여자 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유의미하게 높고, 수학능력과 과학능력은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급(청소년 시기)에 따른 지적도구활용능력 하위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언어능력에 있어 $F=85.212,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초등학생(초기 청소년)과 대학생(후기청소년)이 중학생(중기청소년)과 고등학생(중기청소년)

보다 언어능력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능력에 있어서 $F=190.356,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초등학생(초기 청소년)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학생(중기청소년), 대학생(후기청소년), 고등학생(중기청소년) 순으로 수학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능력에 있어 $F=250.964,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초등학생(초기 청소년)이 가장 높고, 대학생(후기청소년)과 중학생(중기청소년)은 동일하며, 고등학생(중기청소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 활용능력에 있어서 $F=31.637,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중학생(중기청소년), 고등학생(중기청소년), 그리고 대학생(후기청소년)은 동일하며, 이들과 초등학생(초기 청소년)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학교급(청소년 시기)에 따라서 초등학생(초기 청소년)은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에 있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정보통신활용능력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고등학생(중기 청소년)이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에 있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지적도구활용능력 하위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언어능력에 있어 $F=297.75, p<.01$, 수학능력에 있어 $F=926.83, p<.01$, 과학능력에 있어 $F=475.79, p<.01$, 정보통신활용능력에 있어 $F=767.50,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지적도구활용능력의 하위역량에 있어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상 수준인 청소년이 가장 높고, 중 수준 청소년이 하 수준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지적도구활용능력의 하위역량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부모특성 변인에서 부모의 학력에 따른 지적도구활용능력 하위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청소년의 언어능력에 있어 $F=45.296, p<.01$, 수학능력에 있어 $F=110.448, p<.01$, 과학능력에 있어 $F=74.714, p<.01$, 정보통신활용능력에 있어 $F=25.232,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언어능력, 수학능력, 그리고 과학능력에 있어서는 부(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이상이 청소년이 부(아버지)의 학력이 전문대 졸과 고졸이하인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부(아버지)의 학력이 전문대 졸인 청소년이 고졸이하인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보통신활용능력에 있어서는 부(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이상이 청소년이 부(아버지)의 학력이 전문대 졸과 고졸이하인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부(아버지)의 학력이 전문대 졸인 청소년과 고졸이하인 청소년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부(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지적도구활용능력의

하위역량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모(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청소년의 언어능력에 있어 $F=68.040, p<.01$, 수학능력에 있어 $F=98.346, p<.01$, 과학능력에 있어 $F=74.027, p<.01$, 정보통신활용능력에 있어 $F=82.09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언어능력, 수학능력, 그리고 과학능력에 있어서는 모(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이상이 청소년이 모(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 졸과 고졸이하인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모(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 졸인 청소년이 고졸이하인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보통신활용능력에 있어서는 모(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이상이 청소년이 모(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 졸과 고졸이하인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모(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 졸인 청소년과 고졸이하인 청소년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모(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지적도구활용능력의 하위역량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가구특성 변인에서 가족구성, 경제적 수준,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의 지적도구활용능력 하위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구성에 있어 따른 청소년의 차이를 살펴보면, 언어능력에 있어 $t=6.757, p<.01$, 수학능력에 있어 $t=10.298, p<.01$, 과학능력에 있어 $t=7.253, p<.01$, 정보통신활용능력에 있어 $t=2.470,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님이 있는 청소년의 지적도구활용 하위역량이 한부모/조손가정/기타 가정의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언어능력에 있어 $F=116.385, p<.01$, 수학능력에 있어 $F=241.843, p<.01$, 과학능력에 있어 $F=172.174, p<.01$, 정보통신활용능력에 있어 $F=46.29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가정경제가 상수준인 청소년의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이 중·하 수준인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고, 중 수준 청소년은 하 수준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정보통신활용능력에 있어서는 가정경제가 상수준인 청소년이 중·하 청소년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중·하 청소년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지적도구활용능력의 하위역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의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언어능력에 있어 $F=3.895, p<.01$, 수학능력에 있어 $F=6.348, p<.01$, 과학능력에 있어 $F=3.080, p<.01$, 정보통신활용능력에 있어 $F=6.400,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언어능력에 있어서는 부산, 대구, 울산, 충남, 대전 지역 청소년이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학능력에 있어서는 대전, 대구, 서울 지역 청소년이 강원, 경북 지역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고, 강원, 경북 지역 청소년은 충북, 전북, 경남 지역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게 나타났다. 과학능력에 있어서는 대전 지역 청소년이 가장 높고, 경북, 강원 지역 청소년, 그리고 충북, 전북 지역 청소년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활용능력에 있어서는 대구, 부산, 세종 지역 청소년이 제주, 경남, 전북, 전남 지역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적도구활용능력 하위역량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지역 청소년이 전남, 전북, 충북, 경남, 경북, 강원 지역 청소년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에서 학습적응성의 하위역량을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29>에 제시되었다.

표 IV-29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 역량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학습적응성		하위역량					
						변화수용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	
				M	(SD)	M	(SD)	M	(SD)	M	(SD)
전체			11,284	2.93	0.46	2.77	0.57	3.19	0.57	2.87	0.59
청소년 특성	성별	남	5,892	2.95	0.47	2.80	0.59	3.18	0.58	2.89	0.60
		여	5,392	2.91	0.44	2.74	0.55	3.19	0.57	2.84	0.57
		F값		4.040**		6.155**		-1.364		4.277**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a)	2,888	2.99	0.50	2.77	0.61	3.36	0.59	2.89	0.66
		중등(중기 청소년)(b)	3,571	2.94	0.46	2.80	0.56	3.18	0.57	2.86	0.59
		고등(중기 청소년)(c)	3,826	2.88	0.42	2.71	0.54	3.10	0.56	2.84	0.52
		대학(후기 청소년)(d)	1,000	2.94	0.41	2.88	0.55	3.04	0.52	2.92	0.54
		F값		34.435**		30.925**		145.362**		6.473**	
				a)d=b)c		d)b=a)c		a)b)c)d		d)a=b=c	
	학업 성취도 수준	상(a)	2,228	3.10	0.47	2.87	0.60	3.38	0.57	3.07	0.60
		중(b)	6,380	2.92	0.45	2.76	0.56	3.18	0.56	2.85	0.56
		하(c)	2,315	2.81	0.44	2.70	0.55	3.03	0.57	2.73	0.56
		F값		255.41**		54.21**		214.05**		219.66**	
				a)b)c		a)b)c		a)b)c		a)b)c	
부모 특성	부의 학력	고졸 이하(a)	2,883	2.90	0.44	2.75	0.55	3.15	0.56	2.84	0.55
		전문대 졸(b)	885	2.96	0.44	2.81	0.54	3.21	0.56	2.89	0.57
		대졸 이상(c)	3,886	3.00	0.45	2.82	0.58	3.23	0.56	2.96	0.57
		F값		38.421**		14.088**		15.782**		39.984**	
				c)b)a		c=b)a		c=b)a		c)b)a	
	모의 학력	고졸 이하(a)	3,681	2.91	0.43	2.76	0.55	3.16	0.56	2.85	0.55
		전문대 졸(b)	981	2.95	0.44	2.80	0.55	3.21	0.57	2.88	0.57
		대졸 이상(c)	3,228	3.01	0.45	2.82	0.58	3.24	0.56	2.97	0.57
		F값		40.188**		10.134**		18.407**		45.205**	
				c)b)a		c)a		c=b)a		c)b=a	

구분			사례수	학습적응성		하위역량					
						변화수용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	
				M	(SD)	M	(SD)	M	(SD)	M	(SD)
가구 특성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10,180	2.94	0.46	2.78	0.57	3.19	0.58	2.87	0.58
		한부모조손가정/기타	1,032	2.86	0.47	2.69	0.60	3.12	0.58	2.80	0.60
		F값		5.363**		4.533**		4.138**		4.133**	
	경제적 수준	상(a)	4,283	3.01	0.46	2.84	0.58	3.27	0.58	2.95	0.59
		중(b)	4,848	2.89	0.44	2.74	0.55	3.15	0.57	2.82	0.57
		하(c)	2,009	2.86	0.45	2.69	0.58	3.12	0.58	2.81	0.57
		F값		103.395**		61.139**		68.224**		66.459**	
				a>b>c		a>b>c		a>b=c		a>b=c	
	17개 시도	서울(a)	1,955	2.97	0.46	2.82	0.58	3.21	0.57	2.92	0.59
		부산(b)	756	2.97	0.45	2.83	0.55	3.21	0.56	2.91	0.59
		대구(c)	586	2.97	0.44	2.80	0.54	3.19	0.56	2.93	0.58
		인천(d)	700	2.94	0.48	2.76	0.58	3.22	0.59	2.88	0.61
		광주(e)	395	2.94	0.43	2.83	0.53	3.20	0.56	2.83	0.57
		대전(f)	447	2.95	0.45	2.73	0.55	3.23	0.56	2.90	0.57
		울산(g)	264	2.96	0.44	2.81	0.60	3.17	0.57	2.92	0.55
		경기(h)	2,667	2.91	0.46	2.74	0.58	3.18	0.58	2.85	0.57
		강원(i)	304	2.89	0.45	2.73	0.55	3.14	0.57	2.82	0.59
		충북(j)	349	2.90	0.43	2.78	0.60	3.18	0.59	2.80	0.53
		충남(k)	458	2.97	0.49	2.79	0.61	3.27	0.59	2.89	0.62
		세종(l)	25	2.90	0.40	2.76	0.36	3.09	0.45	2.87	0.56
		전북(m)	346	2.84	0.46	2.74	0.58	3.06	0.58	2.76	0.55
		전남(n)	417	2.93	0.52	2.82	0.62	3.17	0.61	2.84	0.63
		경북(o)	494	2.86	0.44	2.65	0.53	3.14	0.58	2.81	0.59
		경남(p)	786	2.89	0.43	2.72	0.53	3.16	0.57	2.83	0.55
		제주(q)	233	2.92	0.49	2.79	0.59	3.16	0.61	2.85	0.58
		F값		4.588**		4.393**		2.865**		4.029**	
				b,a,k,c,g,f>m,p		b,e,n,a>o		k,f,d>l,m		c,g,a,b>j,m,o	

개인특성 변인에서 성별, 학교급(청소년 시기),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학습적응성 하위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변화수용에 있어서 $t=6.15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남자 청소년의 변화수용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적호기심에 있어서 $t=1.364$,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학습주도성에 있어서 $t=4.277$,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남자 청소년의 학습주도성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학습적응성 하위역량에 있어 성별에 따라 변화수용과 학습주도성에 있어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급(청소년 시기)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변화수용에 있어 $F=30.92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대학생(초후 청소년)이 가장 높고, 초등학생(초기 청소년)과 중학생(중기 청소년)은 동일하고, 고등학생(중기 청소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호기심에 있어서 $F=145.362$,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초등학생(초기 청소년)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학생(중기 청소년), 고등학생(중기 청소년), 대학생(후기 청소년) 순으로 지적호기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주도성에 있어 $F=6.473$,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대학생(후기 청소년)이 가장 높고, 초등학생(초기 청소년), 중학생(중기 청소년), 고등학생(중기 청소년)은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습적응의 하위역량에 있어 변화수용과 학습주도성은 대학생(후기 청소년)이 가장 높은 반면 지적호기심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생(초기 청소년)은 지적호기심이 높지만, 고등학생(중기 청소년)이 학습적응성의 하위역량에 대한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학습적응성 하위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변화수용에 있어 $F=54.21$, $p<.01$, 지적호기심에 있어 $F=214.05$, $p<.01$, 학습주도성에 있어 $F=219.66$,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학습적응성의 하위역량에 있어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상 수준인 청소년이 가장 높고, 중 수준 청소년이 하 수준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으며, 하 수준 청소년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습적응성의 하위역량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부모특성 변인에서 부모의 학력에 따른 학습적응성 하위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청소년의 변화수용에 있어 $F=14.088$, $p<.01$, 지적호기심에 있어 $F=15.782$, $p<.01$, 학습주도성에 있어 $F=39.984$,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변화수용과 지적호기심에 있어서는 부(아버지)의 학력이 대졸 및 전문대졸 이상인 청소년이 부(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학습주도성에 있어서는 부(아버지)의 학력이 대졸, 전문대졸, 고졸인 청소년 순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부(아버지)의 학력이 대졸 및 전문대졸일 수록 학습적응성의 하위역량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모(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청소년의 변화수용에 있어 $F=10.134$, $p<.01$, 지적호기심에 있어 $F=18.407$, $p<.01$, 학습주도성에 있어 $F=45.20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변화수용에 있어 모(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이상이 청소년이 모(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지적호기심에 있어서는 모(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및 전문대졸인 청소년이 고졸이하인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학습주도성

에 있어서는 모(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청소년이 모(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 및 고졸이하인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모(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 졸업 청소년과 고졸이하인 청소년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모(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습적응성의 하위역량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가구특성 변인에서 가족구성, 경제적 수준,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의 지적도구활용능력 하위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구성에 있어 따른 청소년의 차이를 살펴보면, 변화수용에 있어 $t=4.533, p<.01$, 지적호기심에 있어 $t=4.138, p<.01$, 학습주도성에 있어 $t=4.133,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님이 있는 청소년의 학습적응성 하위역량이 한부모/조손가정/기타 가정의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학습적응성 하위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변화수용에 있어 $F=61.139, p<.01$, 지적호기심에 있어 $F=68.224, p<.01$, 학습주도성에 있어 $F=66.459,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변화수용에 있어 가정경제가 상수준인 청소년이 가장 높고, 중 수준인 청소년이 하수준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지적호기심과 학습주도성에 있어서는 상 수준인 청소년이 중·하 수준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즉,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학습적응성의 하위역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의 거주지역에 따른 학습적응성 하위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변화수용에 있어 $F=4.393, p<.01$, 지적호기심에 있어 $F=2.865, p<.01$, 학습주도성에 있어 $F=4.029,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변화수용에 있어서는 부산, 광주, 전남, 서울 지역 청소년이 경북 지역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지적호기심에 있어서는 충남, 대전, 인천 지역 청소년이 세종, 전북 지역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학습주도성에 있어서는 대구, 울산, 서울, 부산 지역 청소년이 충북, 전북, 경북 지역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습적응성 하위역량은 서울, 부산 지역 청소년이 전북, 경북 지역 청소년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의 기술통계 및 차이 분석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관리역량 전체, 구성역량, 하위역량에 대한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30>과 같다. 먼저, 생활관리역량지수 전체 평균은 3.03(SD=.38)로 나타났으며 건강관리는 3.22(SD=.46), 과제관리 3.00(SD=.53), 상황대처 3.04(SD=.60), 정서조절 2.82(SD=.44)로 각각 분석되어 전체 역량 구성요인 중 건강관리역량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하위역량별로 살펴보면, 위생관리가 3.36(SD=.52)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폭력행동이 3.33(SD=.65),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3.23(SD=.5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수준을 보면 조절실패 2.61(SD=.81), 감정절제 2.70(SD=.73), 중독인식 2.77(SD=.88)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위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생활관리역량은 대체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위생관리, 폭력행동,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등이 높게 나타났는데, 사회적으로 청소년기 건강행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사건과 사고들로 인해 안전과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배경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관심이 높아진 만큼 건강관리역량을 향상시켜주고, 안전사고나 폭력행동을 감소시켜주는 사회적 노력이 가져온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하위역량이 있는데, 조절실패, 감정절제, 중독인식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과거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입시 위주의 교육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그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환경이 없는 사회구조가 발생시킨 현상일 것이다. 더불어서 복잡한 사회 안에서 가정의 기능적, 구조적 결핍이 가져오는 무관심과 부정적 양육환경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표 IV-30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역량군	역량	하위역량	M	SD
생활관리역량	전체		3.03	0.38
	건강관리	위생관리	3.36	0.52
		신체관리	3.00	0.75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3.23	0.52
		전체	3.22	0.46
	과제관리	목표 및 계획수립	3.02	0.55
		수행 및 평가	2.96	0.60
		전체	3.00	0.53

역량군	역량	하위역량	M	SD
	상황대처	중독인식	2.77	0.88
		중독행동	2.99	0.78
		폭력행동	3.33	0.65
		폭력회피	3.16	0.68
		전체	3.04	0.60
	정서조절	분노행동	3.01	0.74
		감정절제	2.70	0.73
		조절실패	2.61	0.81
		감정인식	2.97	0.54
		전체	2.82	0.44

앞서 살펴본 생활관리역량지수가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차이검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전체에 대한 분석,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을 구성하는 역량별, 그리고 각 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별로 나누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전체에 대한 분석과 각 역량별 분석에 대한 결과는 <표 IV-31>과 같다.

표 IV-31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생활관리역량		세부지표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M	(SD)	M	(SD)	M	(SD)	M	(SD)	M	(SD)
청소년 특성	성별	남	6237	3.01	0.38	3.24	0.48	2.98	0.54	2.98	0.62	2.81	0.44
		여	5047	3.06	0.37	3.20	0.44	3.04	0.51	3.12	0.60	2.83	0.44
		전체	11,284	3.04	0.38	3.22	0.46	3.01	0.53	3.05	0.61	2.82	0.44
		F값		-7.809**		4.171**		-6.173**		-11.589**		-1.977*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a)	2914	3.17	0.39	3.34	0.48	3.09	0.59	3.28	0.59	2.87	0.45
		중등(중기 청소년)(b)	3404	3.04	0.37	3.25	0.46	3.01	0.55	3.06	0.61	2.82	0.44
		고등(후기 청소년)(c)	3966	2.97	0.35	3.17	0.45	2.94	0.49	2.96	0.58	2.80	0.44
		대학(후기 청소년)(d)	1000	2.84	0.32	3.05	0.39	2.97	0.38	2.64	0.55	2.73	0.35
		전체	11,284	3.01	0.36	3.20	0.45	3.00	0.50	2.99	0.58	2.81	0.42
		F값		263.057**		133.831**		43.459**		339.113**		29.989**	
				a)b)c)d		a)b)c)d		a)b a)c a)d b)c		a)b)c)d		a)b, c, d b)d c)d	
	학업 성취도 수준	상(a)	2199	3.20	0.39	3.37	0.45	3.22	0.53	3.21	0.64	2.94	0.47
		중(b)	6357	3.03	0.36	3.22	0.46	2.99	0.51	3.06	0.59	2.82	0.43
		하(c)	2382	2.90	0.35	3.13	0.47	2.84	0.53	2.88	0.61	2.71	0.40
		전체	10,938	3.04	0.37	3.24	0.46	3.02	0.52	3.05	0.61	2.82	0.43
		F값		385.485**		156.442**		301.139**		164.460**		156.828**	
				a)b)c		a)b)c		a)b)c		a)b)c		a)b)c	

구분			사례수	생활관리역량		세부지표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M	(SD)	M	(SD)	M	(SD)	M	(SD)
부모 특성	부의 학력	고졸 이하(a)	2881	2.99	0.36	3.20	0.45	2.96	0.50	2.99	0.60	2.79	0.43
		전문대 졸(b)	876	3.07	0.38	3.26	0.47	3.04	0.52	3.08	0.61	2.83	0.43
		대졸 이상(c)	3898	3.06	0.38	3.27	0.46	3.08	0.52	3.02	0.63	2.85	0.45
		전체	7,655	3.04	0.38	3.24	0.46	3.03	0.52	3.02	0.61	2.82	0.44
		F값		29,663**		19,883**		42,295**		7,514**		12,502**	
				a<b a<c		a<b a<c		a<b a<c		a<b		a<c	
	모의 학력	고졸 이하(a)	3648	3.00	0.36	3.20	0.45	2.98	0.51	2.98	0.59	2.80	0.43
		전문대 졸(b)	978	3.04	0.37	3.25	0.44	3.04	0.48	3.02	0.61	2.83	0.44
		대졸 이상(c)	3244	3.08	0.39	3.28	0.46	3.09	0.52	3.05	0.64	2.85	0.45
		전체	7870	3.04	0.37	3.24	0.46	3.03	0.51	3.01	0.61	2.83	0.44
		F값		39,369**		28,768**		45,221**		10,052**		12,503**	
				a<b a<c		a<b a<c		a<b<c		a<c		a<c	
가구 특성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10193	3.04	0.38	3.23	0.46	3.01	0.53	3.05	0.62	2.83	0.44
		한부모조손가정/7타	1014	2.96	0.35	3.15	0.47	2.90	0.54	2.97	0.59	2.76	0.42
		전체	11,211	3.00	0.37	3.19	0.47	2.96	0.54	3.01	0.61	2.80	0.43
		F값		7,447**		5,624**		6,323**		4,121**		4,759**	
	경제적 수준	상(a)	4276	3.11	0.39	3.32	0.46	3.11	0.53	3.10	0.63	2.86	0.45
		중(b)	4827	3.01	0.37	3.18	0.46	2.95	0.51	3.04	0.60	2.81	0.42
		하(c)	2118	2.94	0.35	3.14	0.46	2.91	0.54	2.93	0.59	2.75	0.44
		전체	11,221	3.03	0.38	3.22	0.46	3.00	0.53	3.04	0.61	2.82	0.44
		F값		169,961**		143,385**		150,879**		57,650**		49,093**	
				a>b>c		a>b>c		a>b>c		a>b>c		a>b>c	
	17개 시도	서울(a)	1843	3.03	0.38	3.24	0.47	3.03	0.55	2.99	0.64	2.81	0.44
		부산(b)	765	3.12	0.39	3.28	0.46	3.08	0.52	3.16	0.66	2.90	0.46
		대구(c)	677	3.08	0.37	3.26	0.43	3.02	0.52	3.13	0.58	2.86	0.42
		인천(d)	598	3.05	0.38	3.23	0.46	3.02	0.55	3.06	0.57	2.86	0.46
		광주(e)	523	2.98	0.36	3.20	0.45	2.98	0.50	2.95	0.61	2.78	0.41
		대전(f)	497	3.06	0.38	3.29	0.46	3.02	0.53	3.06	0.63	2.84	0.44
		울산(g)	271	3.02	0.34	3.21	0.46	3.05	0.50	2.96	0.61	2.83	0.42
		경기(h)	2287	3.03	0.37	3.22	0.47	2.99	0.53	3.06	0.59	2.81	0.45
		강원(i)	337	2.97	0.36	3.16	0.44	2.95	0.48	2.93	0.60	2.80	0.44
		충북(j)	308	3.04	0.37	3.30	0.47	2.99	0.53	3.02	0.59	2.81	0.42
		충남(k)	483	3.05	0.40	3.25	0.47	3.04	0.59	3.05	0.65	2.83	0.48
		세종(l)	25	3.15	0.34	3.30	0.38	3.01	0.47	3.37	0.57	2.76	0.42
		전북(m)	434	2.97	0.35	3.10	0.45	2.93	0.51	3.03	0.63	2.75	0.40
		전남(n)	458	3.07	0.37	3.24	0.48	3.01	0.52	3.11	0.62	2.84	0.43
		경북(o)	536	3.00	0.36	3.17	0.44	2.89	0.50	3.06	0.57	2.82	0.42
		경남(p)	830	3.01	0.38	3.19	0.47	2.98	0.52	3.04	0.63	2.78	0.40
		제주(q)	316	2.98	0.38	3.17	0.51	2.99	0.58	2.95	0.61	2.77	0.41
		전체	11188	3.03	0.38	3.22	0.46	3.00	0.53	3.04	0.62	2.82	0.44
		F값		6,851**		5,777**		3,989**		6,508**		4,199**	
				a<b b>e b>h b>i b>m b>o b>p b>q		a>m b>m c>m f>m j>m		a>o b>o		b>a b>e b>i		b>h b>m b>p	

*,p<0.05, **,p<0.01

먼저, 청소년 특성 중 성별에 따른 생활관리역량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생활관리역량 전체,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모두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남자 청소년의 생활관리역량 평균은 3.01(SD=.38), 여자 청소년 평균은 3.06(.38)로 $t=7.809(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어 전체적으로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의 생활관리역량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의 경우는 남자청소년 3.24(SD=.48), 여자청소년 3.20(SD=.44)로 남자 청소년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성별에 따른 차이는 $t=4.171(p<.0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제관리는 여자청소년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남자청소년 2.98(SD=.54), 여자청소년 3.04(SD=.51)로 $t=-6.173(p<.0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상황대처 역시 여자청소년이 높게 나타났는데, 남자 청소년은 평균 2.98(SD=.62)이고 여자청소년은 3.12(SD=.60)로 $t=-11.589$ 로 $p<.001$ 의 수준에서 유의마하였다. 정서조절의 경우도 남자청소년 2.81(SD=.44), 여자청소년 2.83(SD=.44)로 여자청소년이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t=-1.977$ 로 $p<.05$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생활관리역량 전체적으로 여자 청소년의 수준이 높았으며 남자청소년은 건강관리 부분에서만 우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학교급(청소년 시기)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다. 생활관리역량 전체는 $F=263.057$, $p<.001$ 로 유의미하였으며 사후분석 결과 초기청소년은 중기청소년 1보다 높고, 중기청소년 1은 중기청소년 2보다 높으며, 중기청소년 2는 후기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강관리의 경우 $F=133.831$, $p<.001$ 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으며 사후분석결과는 생활관리역량 전체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관리의 경우 $F=43.459$, $p<.001$ 로 분석되었으며 사후분석 결과, 초기청소년의 역량은 중기1, 중기2, 후기 청소년보다 높고 중기청소년 1은 중기 청소년 2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황대처역량은 $F=339.113$, $p<.001$ 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고 사후분석결과 초기청소년의 역량은 중기청소년 1보다, 중기청소년 1은 중기청소년 2보다, 중기청소년 2는 후기청소년보다 높은 수준의 역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의 경우는 $F=29.989$, $p<.001$ 로 분석되었고 사후검증결과 초기청소년은 중기1, 중기2, 후기 청소년보다 높았으며 중기청소년 1은 중기청소년 2보다 높았다. 또한 중기청소년 2는 후기청소년보다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업성취도에 있어서도 모든 역량이 유의미하게 성취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생활관리역량 전체의 경우, $F=385.485$, $p<.001$ 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으며, 상위권 학생은 중위권 학생보다 높았으며, 중위권 학생은 하위권 학생보다 높은 역량을 보였다. 건강관리의 경우 $F=156.442$, $p<.001$ 로 유의미하였으며, 과제관리는 $F=301.139$, $p<.001$, 상황대처

$F=164.460$, $p<.001$, 정서조절 $F=156.828$, $p<.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하였으며 사후분석 결과는 생활관리역량 전체와 같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모특성 중, 부의 학력을 살펴보면 생활관리역량 전체는 $F=29.663$, $p<.001$ 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사후검증 결과 고졸이하는 전문대 졸업과 대졸 이상의 학력에 비해 낮은 수준의 역량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강관리역량은 $F=19.883$, $p<.0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는 생활관리역량과 같이 고졸이하가 전문대 졸업 및 대졸 이상의 학력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제관리역량의 경우 $F=42.295$, $p<.001$ 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고 사후분석 결과 고졸 이하는 전문대 및 대졸 이상의 학력보다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황대처역량은 $F=7.514$, $p<.01$ 로 분석되었으며 사후분석 결과 고졸 이하는 전문대 졸업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서조절역량의 경우 $F=12.502$, $p<.001$ 로 유의미하였으며 사후분석결과에서는 고졸 이하가 대졸 이상의 학력에 비해 낮은 수준의 역량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모의 학력에 따른 생활관리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생활관리역량 전체는 $F=39.369$, $p<.001$ 로 유의미하였으며 사후분석 결과 고졸이하는 전문대 및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에 비해 낮게 측정되었다. 건강관리역량의 경우 $F=28.768$, $p<.001$ 로 분석되었으며 사후분석 결과는 생활관리역량 전체와 동일하였다. 모의 학력에 따른 과제관리역량의 차이는 $F=45.221$, $p<.001$ 로 유의미하였으며 사후분석 결과 고졸 이하는 전문대 졸업보다, 전문대 졸업은 대졸 이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역량은 $F=12.503$, $p<.001$ 으로 분석되었고 사후분석에서는 고졸 이하는 대졸 이상의 학력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가구특성 변인 중, 가족구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생활관리역량 $t=7.447$, $p<.001$, 건강관리 $t=5.624$, $p<.001$, 과제관리 $t=6.323$, $p<.001$, 상황대처 $t=4.121$, $p<.001$, 정서조절 $t=4.759$, $p<.001$ 의 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모든 역량에 있어서 양부모 가정 청소년들의 평균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생활관리역량 전체의 경우 $F=169.961$, $p<.001$, 건강관리 $F=143.385$, $p<.001$, 과제관리 $F=150.879$, $p<.001$, 상황대처 $F=57.650$, $p<.001$, 정서조절 $F=49.093$, $p<.001$ 으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후분석 결과, 모든 역량에 있어서 경제수준이 상인 청소년들의 역량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수준, 하수준의 순으로 역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거주지역에 따른 역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생활관리 역량의 경우 $F=6.851$, $p<.001$, 건강관리 $F=5.777$, $p<.001$, 과제관리 $F=3.989$, $p<.001$, 상황대처

F=6.508, $p<.001$, 정서조절 F=4.199, $p<.001$ 로 분석되어 모든 역량이 거주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사후분석 한 결과, 생활관리역량의 경우,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역량이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전북, 경북, 경남, 제주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의 경우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충북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역량이 전북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역량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과제관리에 있어서는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역량이 경북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조절의 경우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역량이 경기, 전북, 경남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32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건강관리역량의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건강관리		하위역량					
						위생관리		신체관리		안전 및 스트레스관리	
				M	(SD)	M	(SD)	M	(SD)	M	(SD)
청소년 특성	성별	남	6237	3.24	.48	3.32	.54	3.13	0.73	3.24	.53
		여	5047	3.20	.44	3.42	.50	2.84	0.75	3.22	.50
		전체	11,284	3.22	0.46	3.37	0.52	2.99	0.74	3.23	0.52
		F값		4.171**		-10.150**		21.038**		1.909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a)	2914	3.34	0.48	3.43	0.53	3.22	0.69	3.33	0.53
		중등(중기 청소년)(b)	3404	3.25	0.46	3.37	0.52	3.00	0.74	3.27	0.51
		고등(중기 청소년)(c)	3966	3.17	0.45	3.33	0.52	2.88	0.77	3.18	0.50
		대학(후기 청소년)(d)	1000	3.05	0.39	3.25	0.51	2.81	0.69	3.02	0.44
		전체	11,284	3.20	0.45	3.35	0.52	2.98	0.72	3.20	0.50
		F값		133.831**		39.313**		141.152**		110.415**	
				a)b)c)d		a)b)c)d		a(b, c, d b)c b)d		a)b)c)d	
	학업 성취도 수준	상(a)	2199	3.37	0.45	3.48	0.50	3.16	0.73	3.38	0.50
		중(b)	6357	3.22	0.46	3.36	0.52	2.99	0.74	3.22	0.51
		하(c)	2382	3.13	0.47	3.26	0.54	2.90	0.76	3.14	0.52
		전체	10,938	3.24	0.46	3.37	0.52	3.02	0.74	3.25	0.51
		F값		156.442**		100.642**		73.145**		129.690**	
				a)b)c		a)b)c		a)b)c		a)b)c	
부모 특성	부의 학력	고졸 이하(a)	2881	3.20	0.45	3.34	0.52	2.94	0.76	3.21	0.50
		전문대 졸(b)	876	3.26	0.47	3.39	0.51	3.06	0.76	3.26	0.51
		대졸 이상(c)	3898	3.27	0.46	3.40	0.52	3.02	0.75	3.28	0.51
		전체	7655	3.24	0.46	3.38	0.52	3.00	0.75	3.25	0.51
		F값		19.883**		11.931**		12.219**		15.963**	
				a<b a<c		a<b a<c		a<b a<c		a<b a<c	
	모의 학력	고졸 이하(a)	3648	3.20	0.45	3.35	0.52	2.93	0.76	3.21	0.50
		전문대 졸(b)	978	3.25	0.44	3.40	0.49	3.03	0.73	3.25	0.50
		대졸 이상(c)	3244	3.28	0.46	3.40	0.52	3.04	0.75	3.29	0.51
		전체	7870	3.24	0.46	3.38	0.51	2.99	0.75	3.25	0.50
		F값		28.768**		9.797**		20.535**		25.988**	
				a<b a<c		a<b a<c		a<b a<c		a<c b<c	

구분			사례수	건강관리		하위역량					
						위생관리		신체관리		안전 및 스트레스관리	
				M	(SD)	M	(SD)	M	(SD)	M	(SD)
가구 특성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10193	3.23	0.46	3.37	0.52	3.01	0.75	3.24	0.51
		한부모조손가족/기타	1014	3.15	0.47	3.28	0.53	2.90	0.78	3.16	0.53
		전체	11,207	3.19	0.47	3.33	0.53	2.96	0.77	3.20	0.52
		F값		5.624**		5.027**		4.272**		4.563**	
	경제적 수준	상(a)	4276	3.32	0.46	3.44	0.52	3.11	0.73	3.33	0.51
		중(b)	4827	3.18	0.46	3.33	0.52	2.95	0.74	3.18	0.51
		하(c)	2118	3.14	0.46	3.28	0.52	2.88	0.78	3.16	0.52
		전체	11221	3.22	0.46	3.36	0.52	3.00	0.75	3.23	0.51
		F값		143.385**		78.647**		81.183**		119.206**	
				a)b)c		a)b)c		a)b)c		a)b a)c	
	17개 시도	서울(a)	1843	3.24	0.47	3.34	0.52	3.02	0.76	3.27	0.52
		부산(b)	765	3.28	0.46	3.41	0.51	3.07	0.73	3.27	0.50
		대구(c)	677	3.26	0.43	3.44	0.51	3.04	0.74	3.24	0.48
		인천(d)	598	3.23	0.46	3.34	0.54	2.99	0.74	3.25	0.52
		광주(e)	523	3.20	0.45	3.35	0.52	2.97	0.75	3.20	0.51
		대전(f)	497	3.29	0.46	3.41	0.52	3.10	0.74	3.29	0.51
		울산(g)	271	3.21	0.46	3.30	0.54	3.03	0.71	3.23	0.50
		경기(h)	2287	3.22	0.47	3.37	0.52	2.99	0.76	3.22	0.52
		강원(i)	337	3.16	0.44	3.30	0.51	2.93	0.75	3.18	0.49
		충북(j)	308	3.30	0.47	3.47	0.50	3.05	0.77	3.31	0.52
		충남(k)	483	3.25	0.47	3.44	0.51	2.97	0.77	3.26	0.55
		세종(l)	25	3.30	0.38	3.44	0.45	3.06	0.60	3.31	0.43
		전북(m)	434	3.10	0.45	3.26	0.53	2.87	0.71	3.10	0.50
		전남(n)	458	3.24	0.48	3.38	0.51	3.03	0.71	3.23	0.53
		경북(o)	536	3.17	0.44	3.34	0.50	2.92	0.73	3.16	0.50
		경남(p)	830	3.19	0.47	3.31	0.55	2.97	0.74	3.21	0.50
		제주(q)	316	3.17	0.51	3.28	0.57	2.96	0.75	3.18	0.54
		전체	11188	3.22	0.46	3.36	0.52	3.00	0.75	3.23	0.51
		F값		5.777**		6.171**		2.955**		5.131**	
				a)m b)m c)m f)m j)m		c)m j)m k)m				a)m b)m c)m j)m	

*,p<0.05, **,p<0.01

생활관리역량 중, 건강관리역량 하위요인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3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위생관리 $t=-10.150$, $p<.001$, 신체관리 $t=21.038$, $p<.001$,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t=1.909$ $p>.05$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위생관리의 경우 남자 청소년들이 더 높은 역량을 보이며, 신체관리의 경우 여자청소년의 역량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급에 따른 건강관리의 차이를 살펴보면, 위생관리의 경우 $F=39.313$, $p<.001$, 신체관리 $F=141.152$, $p<.001$,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F=110.415$, $p<.001$ 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후분석 결과, 위생관리와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의 경우 초기청소년은 중기청소년 1보다, 중기청소년 1은 중기청소년 2보다, 중기청소년 3은 후기청소년보다 역량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체관리는 초기청소년이 중기1, 중기2, 후기 청소년보다 높고 중기청소년 1은 중기청소년 2와 후기청소년보다 역량의 수준이 높게 분석되었다.

학업성취도에 따른 건강관리 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위생관리는 $F=100.642$, $p<.001$, 신체관리 $F=73.145$, $p<.001$,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F=129.690$, $p<.001$ 으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모든 역량에 있어서 상 수준의 학업성취도인 청소년은 중 수준의 청소년보다, 중 수준의 청소년은 하 수준의 청소년보다 높은 역량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모특성 중, 부의 학력에 따른 건강관리역량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위생관리역량의 경우 $F=11.931$, $p<.001$, 신체관리 $F=12.219$, $p<.001$,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F=15.963$, $p<.001$ 으로 모든 역량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고졸 이하의 역량은 전문대졸업과 대졸 이상의 학력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위생관리, 신체관리, 안전 및 스트레스관리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학력에 따른 건강관리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위생관리는 $F=9.797$, $p<.001$, 신체관리 $F=20.535$, $p<.001$,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F=25.988$, $p<.001$ 로 분석되었으며 사후분석 결과 고졸이하의 학력은 전문대 졸업과 대졸 이상의 학력보다 역량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특성에 따른 건강관리역량의 차이 분석 중 가족구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위생관리의 경우 $t=5.027$, $p<.001$, 신체관리 $t=4.272$, $p<.001$,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t=4.563$, $p<.001$ 으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위생, 신체,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역량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관리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위생관리의 경우 $F=78.647$, $p<.001$, 신체관리 $F=81.183$, $p<.001$,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F=119.206$, $p<.001$ 으로 분석되어 모든 역량이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른 사후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위생관리와 신체관리의 경우 경제적으로 상 수준인 청소년은 중 수준의 청소년에 비해 역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 수준의 청소년은 하 수준의 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의 경우, 상 수준의 학생은 중 수준의 학생과 하 수준의

학생에 비해 역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거주지역에 따른 건강관리역량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이다. 위생관리와 신체관리,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모두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위생관리의 경우 $F=6.171$, $p<.001$, 신체관리 $F=2.955$, $p<.001$,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F=5.131$, $p<.001$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후분석 결과를 보면, 위생관리의 경우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역량은 대구, 충북, 충남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역량이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안전 및 스트레스관리에 있어서는 전북지역의 청소년들이 서울, 부산, 대구, 충북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낮은 역량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33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과제관리역량의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과제관리		하위역량			
						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	
				M	(SD)	M	(SD)	M	(SD)
청소년 특성	성별	남	6237	2.98	.54	2.99	.56	2.94	.61
		여	5047	3.04	.51	3.07	.53	2.98	.59
		전체	11,284	3.01	0.53	3.03	0.55	2.96	0.60
		F값		-6.173**		-7.135**		-3.321**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a)	2914	3.09	0.59	3.11	0.61	3.04	0.66
		중등(중기 청소년)(b)	3404	3.01	0.55	3.03	0.57	2.97	0.61
		고등(중기 청소년)(c)	3966	2.94	0.49	2.97	0.51	2.90	0.56
		대학(후기 청소년)(d)	1000	2.97	0.38	2.99	0.39	2.93	0.46
		전체	11,284	3.00	0.50	3.03	0.52	2.96	0.57
		F값		43.459**		40.810**		34.154**	
				a)b, c, d		a)b, c, d		a)b, c, d	
				b)c		b)c		b)c	
	학업 성취도 수준	상(a)	2199	3.22	0.53	3.23	0.54	3.18	0.60
		중(b)	6357	2.99	0.51	3.02	0.53	2.95	0.58
		하(c)	2382	2.84	0.53	2.86	0.54	2.80	0.60
		전체	10,938	3.02	0.52	3.04	0.54	2.98	0.59
		F값		301.139**		276.778**		245.140**	
				a)b)c		a)b)c		a)b)c	
부모 특성	부의 학력	고졸 이하(a)	2881	2.96	0.50	2.98	0.52	2.92	0.57
		전문대 졸(b)	876	3.04	0.52	3.06	0.54	2.99	0.59
		대졸 이상(c)	3898	3.08	0.52	3.10	0.53	3.04	0.59
		전체	7655	3.03	0.52	3.05	0.53	2.99	0.59
		F값		46.295**		42.393**		38.508**	
				a)b a)c		a)b a)c		a)b)c	
	모의 학력	고졸 이하(a)	3648	2.98	0.51	3.00	0.53	2.93	0.57
		전문대 졸(b)	978	3.04	0.48	3.07	0.49	2.98	0.57
		대졸 이상(c)	3244	3.09	0.52	3.11	0.54	3.06	0.59
		전체	7870	3.03	0.51	3.05	0.53	2.99	0.58
		F값		45.221**		38.964**		42.494**	
				a)b)c		a)b a)c		a)b)c	

구분			사례수	과제관리		하위역량			
						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	
				M	(SD)	M	(SD)	M	(SD)
가구 특성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10193	3.01	0.53	3.03	0.54	2.97	0.60
		한부모조손가정/기타	1014	2.90	0.54	2.92	0.55	2.86	0.61
		전체	11,207	2.96	0.54	2.98	0.55	2.92	0.61
		F값		6.323**		6.144**		5.471**	
	경제적 수준	상(a)	4276	3.11	0.53	3.13	0.54	3.08	0.60
		중(b)	4827	2.95	0.51	2.97	0.53	2.90	0.58
		하(c)	2118	2.91	0.54	2.93	0.55	2.85	0.61
		전체	11221	3.00	0.53	3.02	0.55	2.96	0.60
		F값		150.879**		130.244**		138.628**	
				a)b)c		a)b)c		a)b)c	
	17개 시도	서울(a)	1843	3.03	0.55	3.04	0.56	2.99	0.61
		부산(b)	765	3.08	0.52	3.10	0.53	3.04	0.57
		대구(c)	677	3.02	0.52	3.05	0.53	2.98	0.58
		인천(d)	598	3.02	0.55	3.04	0.58	2.98	0.62
		광주(e)	523	2.98	0.50	3.01	0.53	2.92	0.57
		대전(f)	497	3.02	0.53	3.03	0.55	3.01	0.58
		울산(g)	271	3.05	0.50	3.07	0.51	2.99	0.55
		경기(h)	2287	2.99	0.53	3.02	0.54	2.94	0.62
		강원(i)	337	2.95	0.48	2.97	0.50	2.91	0.56
		충북(j)	308	2.99	0.53	3.01	0.55	2.94	0.59
		충남(k)	483	3.04	0.59	3.06	0.59	2.99	0.68
		세종(l)	25	3.01	0.47	3.05	0.49	2.95	0.54
		전북(m)	434	2.93	0.51	2.95	0.53	2.90	0.57
		전남(n)	458	3.01	0.52	3.04	0.53	2.97	0.59
		경북(o)	536	2.89	0.50	2.91	0.52	2.85	0.58
		경남(p)	830	2.98	0.52	3.01	0.54	2.94	0.58
		제주(q)	316	2.99	0.58	3.01	0.58	2.94	0.65
		전체	11188	3.00	0.53	3.02	0.55	2.96	0.60
		F값		3.989**		3.611**		3.645**	
				a)o b)o		b)o		b)o	

*.p(0.05, **.p(0.01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요인인 과제관리역량이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나타내는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33>과 같다. 성별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목표 및 계획수립의 경우 $t=-7.135$, $p<.001$, 수행 및 평가는 $t=-3.321$, $p<.01$ 로 두 변인 모두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목표 및 계획수립과 수행 및 평가 역량에 있어서 남자청소년에 비해 여자청소년의 역량수준이 유의미한 차이로 더 높음을 의미한다.

학교급에 따른 목표 및 계획수립과 수행 및 평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목표 및 계획수립은 $F=40.810$, $p<.001$, 수행 및 평가는 $F=34.154$, $p<.0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목표 및 계획수립은 초기청소년이 중기1, 중기2, 후기청소년에 비해 역량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기청소년 1의 경우 중기청소년 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에 따른 역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목표 및 계획수립의 경우 $F=276.778$, $p<.001$, 수행 및 평가의 경우 $F=245.140$, $p<.001$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후분석 결과 학업성취도가 상 수준인 청소년은 중 수준인 청소년보다, 중 수준인 청소년은 하 수준인 청소년보다 목표 및 계획수립과 수행 및 평가에 대한 역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두 요인 모두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모 특성 중, 부의 학력에 따른 차이를 먼저 살펴보면, 목표 및 계획수립의 경우 $F=42.393$, $p<.001$, 수행 및 평가는 $F=38.508$, $p<.001$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른 사후분석 결과 목표 및 계획수립에서는 고졸 이하의 학력은 전문대졸업과 대졸이상의 학력에 비해 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행 및 평가의 경우 고졸 이하는 전문대졸업보다, 전문대졸업은 대졸 이상의 학력보다 낮은 역량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의 학력에 따른 차이는, 목표 및 계획 수립 $F=38.964$, $p<.001$, 수행 및 평가 $F=42.494$, $p<.0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후분석 결과 목표 및 계획수립의 경우 고졸 이하는 전문대졸업과 대졸 이상의 학력에 비해 역량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행 및 평가의 경우 고졸 이하는 전문대졸업보다, 전문대졸업은 대졸 이상의 학력보다 역량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가구 특성에 따른 차이에 중, 가족구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목표 및 계획수립 $t=6.144$, $p<.001$, 수행 및 평가 $t=5.471$, $p<.001$ 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양부모 가정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역량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의 경우, 목표 및 계획수립은 $F=130.244$, $p<.001$, 수행 및 평가는 $F=138.628$, $p<.001$ 로 두 변인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를 보면, 경제적으로 상 수준 청소년보다 중 수준 청소년이, 중 수준 청소년 보다 하 수준의 청소년이 역량 수준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두 변인 모두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주지역에 따른 역량의 차이 분석결과, 목표 및 계획수립은 $F=3.611$, $p<.001$, 수행 및 평가는 $F=3.645$, $p<.0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역량이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역량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목표 및 계획수립과 수행 및 평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4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상황대처역량의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상황대처		하위역량							
						중독인식		중독행동		폭력행동		폭력회피	
				M	(SD)	M	(SD)	M	(SD)	M	(SD)	M	(SD)
청소년 특성	성별	남	6237	2.98	.62	2.68	.89	2.97	.77	3.20	.67	3.12	.68
		여	5047	3.12	.60	2.88	.86	3.02	.78	3.49	.58	3.21	.67
		전체	11,284	3.05	0.61	2.78	0.88	3.00	0.78	3.35	0.63	3.17	0.68
		F값		-11.620**		-11.646**		-3.884**		-24.963**		-7.427**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a)	2914	3.28	0.59	3.15	0.85	3.28	0.74	3.42	0.61	3.29	0.66
		중등(중기 청소년)(b)	3404	3.06	0.61	2.80	0.87	2.99	0.79	3.37	0.64	3.17	0.68
		고등(중기 청소년)(c)	3966	2.96	0.58	2.60	0.82	2.89	0.75	3.30	0.64	3.14	0.66
		대학(후기 청소년)(d)	1000	2.64	0.55	2.23	0.74	2.57	0.69	3.02	0.73	2.85	0.69
		전체	11,284	2.99	0.58	2.70	0.82	2.93	0.74	3.28	0.66	3.11	0.67
		F값		339.113**		387.974**		271.559**		100.877**		109.193**	
				a)b)c)d		a)b)c)d		a)b)c)d		a)b)c)d		a)b, c, d b)d c)d	
	학업 성취도 수준	상(a)	2199	3.21	0.64	2.98	0.91	3.19	0.78	3.43	0.65	3.25	0.70
		중(b)	6357	3.06	0.59	2.78	0.86	3.00	0.76	3.35	0.63	3.17	0.66
		하(c)	2382	2.88	0.61	2.58	0.85	2.80	0.78	3.19	0.67	3.06	0.68
		전체	10,938	3.05	0.61	2.78	0.87	3.00	0.77	3.32	0.65	3.16	0.68
		F값		164.460**		122.023**		142.614**		86.595**		45.301**	
				a)b)c		a)b)c		a)b)c		a)b)c		a)b)c	
부모 특성	부의 학력	고졸 이하(a)	2881	2.99	0.60	2.68	0.85	2.93	0.77	3.29	0.65	3.13	0.66
		전문대 졸(b)	876	3.08	0.61	2.81	0.87	3.03	0.76	3.35	0.64	3.17	0.67
		대졸 이상(c)	3898	3.02	0.63	2.72	0.89	2.96	0.79	3.35	0.66	3.15	0.69
		전체	7655	3.02	0.61	2.72	0.87	2.96	0.78	3.33	0.65	3.15	0.68
		F값		7.514**		6.890**		6.561**		6.901**		1.230	
				a 		a (b b)c		a (b b)c		a c			
	모의 학력	고졸 이하(a)	3648	2.98	0.59	2.67	0.85	2.92	0.75	3.30	0.65	3.13	0.67
		전문대 졸(b)	978	3.02	0.61	2.72	0.87	2.96	0.78	3.32	0.66	3.15	0.65
		대졸 이상(c)	3244	3.05	0.64	2.75	0.90	2.99	0.81	3.36	0.66	3.16	0.70
		전체	7870	3.01	0.61	2.71	0.87	2.95	0.78	3.33	0.65	3.14	0.68
		F값		10.052**		7.080**		7.662**		8.981**		2.749	
				a c		a c		a c		a c			
가구 특성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10193	3.05	0.62	2.78	0.88	3.00	0.78	3.34	0.65	3.17	0.67
		한부모조손가정/기타	1014	2.97	0.59	2.66	0.85	2.93	0.76	3.25	0.66	3.10	0.68
		전체	11,207	3.01	0.61	2.72	0.87	2.97	0.77	3.30	0.66	3.14	0.68
		F값		4.121**		4.354**		2.693**		3.917**		2.858**	
	경제적 수준	상(a)	4276	3.10	0.63	2.85	0.90	3.06	0.80	3.35	0.66	3.21	0.68
		중(b)	4827	3.04	0.60	2.78	0.86	2.98	0.75	3.34	0.63	3.16	0.66
		하(c)	2118	2.93	0.59	2.59	0.86	2.86	0.77	3.27	0.66	3.07	0.68
		전체	11221	3.04	0.61	2.77	0.88	2.99	0.78	3.33	0.65	3.16	0.68
		F값		57.650**		62.147**		47.062**		10.528**		27.604**	
				a)b)c		a)b)c		a)b)c		a)c b)c		a)b)c	
	17개 시도	서울(a)	1843	2.99	0.64	2.71	0.90	2.92	0.81	3.32	0.69	3.13	0.70
		부산(b)	765	3.16	0.66	2.91	0.91	3.12	0.82	3.39	0.65	3.27	0.66
		대구(c)	677	3.13	0.58	2.77	0.88	3.13	0.72	3.39	0.59	3.21	0.64
		인천(d)	598	3.06	0.57	2.73	0.86	3.02	0.74	3.34	0.65	3.19	0.66
		광주(e)	523	2.95	0.61	2.64	0.88	2.89	0.80	3.27	0.67	3.07	0.66
		대전(f)	497	3.06	0.63	2.79	0.90	3.01	0.79	3.29	0.67	3.18	0.65
		울산(g)	271	2.96	0.61	2.66	0.91	2.91	0.76	3.25	0.70	3.10	0.69

구분			사례수	상황대처		하위역량							
						중독인식		중독행동		폭력행동		폭력회피	
				M	(SD)	M	(SD)	M	(SD)	M	(SD)	M	(SD)
		경기(h)	2287	3.06	0.59	2.78	0.86	2.99	0.76	3.37	0.61	3.18	0.65
		강원(i)	337	2.93	0.60	2.62	0.88	2.91	0.77	3.21	0.66	3.02	0.69
		충북(j)	308	3.02	0.59	2.72	0.86	2.95	0.74	3.35	0.63	3.16	0.70
		충남(k)	483	3.05	0.65	2.83	0.93	2.98	0.82	3.35	0.69	3.13	0.74
		세종(l)	25	3.37	0.57	3.36	0.86	3.46	0.75	3.37	0.68	3.17	0.66
		전북(m)	434	3.03	0.63	2.83	0.85	2.98	0.78	3.26	0.65	3.11	0.69
		전남(n)	458	3.11	0.62	2.88	0.89	3.07	0.78	3.34	0.62	3.21	0.70
		경북(o)	536	3.06	0.57	2.79	0.84	3.02	0.72	3.31	0.59	3.17	0.62
		경남(p)	830	3.04	0.63	2.81	0.85	3.00	0.78	3.28	0.67	3.14	0.70
		제주(q)	316	2.95	0.61	2.70	0.83	2.85	0.75	3.26	0.68	3.14	0.69
		전체	11188	3.04	0.62	2.77	0.88	2.99	0.78	3.33	0.65	3.16	0.68
		F값		6.508**		5.212**		6.446**		3.829**		3.955**	
				b)a b)e b)i		b)a b)e b)i		b)a b)e c)a c)e c)q				b)i	

*,p<0.05, **,p<0.01

생활관리역량의 하위변인인 상황대처역량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결과는 <표 IV-3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개인적 특성 중,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중독인식 $t=-11.646$, $p<.001$, 중독행동 $t=-3.884$, $p<.001$, 폭력행동 $t=-24.963$, $p<.001$, 폭력회피 $t=-7.427$, $p<.001$ 으로 모두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독인식, 중독행동, 폭력행동, 폭력회피역량에 있어서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의 역량 수준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학교급에 따른 역량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중독인식 $F=387.974$, $p<.001$, 중독행동 $F=271.559$, $p<.001$, 폭력행동 $F=100.877$, $p<.001$, 폭력회피 $F=109.193$, $p<.001$ 으로 네 변인 모두 학교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른 사후분석 결과, 중독인식, 중독행동, 폭력행동의 경우 초기청소년이 중기청소년 1보다, 중기청소년이 중기청소년 2보다, 중기청소년 2가 후기청소년보다 역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폭력회피의 경우는, 초기 청소년이 중기 1, 중기 2, 후기청소년에 비해 역량 수준이 높으며, 중기청소년 1과 중기청소년 2는 후기청소년에 비해 역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업성취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독인식 $F=122.023$, $p<.001$, 중독행동 $F=142.614$, $p<.001$, 폭력행동 $F=68.595$, $p<.001$, 폭력회피 $F=45.301$, $p<.001$ 로 나타나 모든 변인이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후분석 결과를 보면, 학업성취도가 상 수준인 청소년은 중 수준의 청소년보다, 중 수준의 청소년은 하 수준의 청소년에 비해 높은 수준의

역량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네 변인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특성 중, 부의 학력에 따른 역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중독인식 $F=6.890$, $p<.01$, 중독행동 $F=6.561$, $p<.01$, 폭력행동 $F=6.901$, $p<.01$ 로 폭력회피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후분석 결과, 중독인식과 중독행동의 경우 전문대 졸업은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폭력행동의 경우 고졸 이하는 대졸 이상 보다 역량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학력에 따른 역량의 차이는 중독인식 $F=7.080$, $p<.01$, 중독행동 $F=7.662$, $p<.001$, 폭력행동 $F=8.981$, $p<.001$ 으로 분석되어 부의 학력과 동일하게 폭력회피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세 요인 모두 고졸 이하의 학력은 대졸 이상의 학력에 비해 역량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특성 중 가족구성에 따른 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중독인식 $t=4.354$, $p<.001$, 중독행동 $t=2.693$, $p<.001$, 폭력행동 $t=3.917$, $p<.001$, 폭력회피 $t=2.858$, $p<.01$ 로 모든 변인이 가족구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역량 수준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역량의 차이는 중독인식 $F=62.147$, $p<.001$, 중독행동 $F=47.062$, $p<.001$, 폭력행동 $F=10.528$, $p<.001$, 폭력회피 $F=27.604$, $p<.001$ 으로 네 변인 모두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른 사후분석 결과를 보면, 경제적 수준이 상인 청소년은 중인 청소년에 비해, 중인 청소년은 하인 청소년에 비해 역량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네 변인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따른 역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중독인식 $F=5.212$, $p<.001$, 중독행동 $F=6.446$, $p<.001$, 폭력행동 $F=3.829$, $p<.001$, 폭력회피 $F=3.955$, $p<.001$ 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사후분석결과에 따르면 중독인식의 경우, 부산지역 거주 청소년은 서울, 광주, 강원 지역 거주 청소년에 비해 역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독행동은 부산 지역 청소년이 서울과 광주지역 청소년에 비해, 대구 지역 청소년이 서울, 광주, 제주 지역 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회피의 경우 부산지역 청소년들의 역량이 강원지역 청소년의 역량에 비해 높게 분석되었다.

표 IV-35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정서조절역량의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정서조절		하위역량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		감정인식	
				M	(SD)	M	(SD)	M	(SD)	M	(SD)	M	(SD)
청소년 특성	성별	남	6236	2.81	0.44	2.97	.73	2.71	0.76	2.57	0.82	2.93	0.55
		여	5047	2.83	0.44	3.06	.74	2.69	0.70	2.45	0.81	3.02	0.53
		전체	11,283	2.82	0.44	3.02	0.74	2.70	0.73	2.51	0.82	2.98	0.54
		F값		-1.977*		-6.529**		1.758		7.941**		-8.377**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a)	2914	2.87	0.45	3.18	0.73	2.66	0.82	2.62	0.86	2.97	0.60
		중등(중기 청소년)(b)	3404	2.82	0.44	2.99	0.74	2.72	0.73	2.50	0.82	2.98	0.54
		고등(중기 청소년)(c)	3966	2.80	0.44	2.94	0.72	2.72	0.68	2.44	0.79	3.00	0.51
		대학(후기 청소년)(d)	999	2.73	0.35	2.90	0.74	2.67	0.65	2.52	0.71	2.80	0.43
		전체	2,820.75	2.81	0.42	3.00	0.73	2.69	0.72	2.52	0.80	2.94	0.52
		F값		29.989**		74.336**		5.732**		27.839**		40.035**	
				a)b, c, d		a)b, c, d		a)b a)c		a)b, c, d		a)d b)d	
				b)d c)d		b)d		b)c		b)c		c)d	
	학업 성취도 수준	상(a)	2199	2.94	0.47	3.21	0.73	2.78	0.80	2.62	0.84	3.07	0.59
		중(b)	6356	2.82	0.43	3.02	0.72	2.69	0.72	2.52	0.81	2.98	0.54
		하(c)	2382	2.71	0.40	2.81	0.75	2.66	0.70	2.40	0.80	2.88	0.50
		전체	10,937	2.82	0.44	3.01	0.74	2.70	0.73	2.51	0.82	2.98	0.54
		F값		156.828**		173.117**		15.788**		42.611**		69.869**	
부모 특성	부의 학력	고졸 이하(a)	2881	2.79	0.43	2.97	0.73	2.69	0.70	2.46	0.79	2.97	0.52
		전문대 졸(b)	876	2.83	0.43	3.06	0.71	2.71	0.75	2.55	0.85	2.95	0.57
		대졸 이상(c)	3897	2.85	0.45	3.03	0.74	2.72	0.73	2.53	0.82	3.01	0.54
		전체	7654	2.82	0.44	3.01	0.73	2.71	0.72	2.51	0.81	2.99	0.54
		F값		12.502**		7.649**		2.413		7.431**		9.225**	
				a)c		a)b a)c		a)b, c		a)b a)c		a)c b)d	
	모의 학력	고졸 이하(a)	3648	2.80	0.43	2.97	0.73	2.69	0.71	2.47	0.80	2.98	0.52
		전문대 졸(b)	977	2.83	0.44	3.06	0.73	2.70	0.70	2.53	0.81	2.95	0.57
		대졸 이상(c)	3244	2.85	0.45	3.04	0.74	2.74	0.74	2.53	0.82	3.02	0.55
		전체	7869	2.83	0.44	3.01	0.74	2.71	0.72	2.50	0.81	2.99	0.54
		F값		12.503**		9.265**		5.502**		4.614**		8.266**	
				a)c		a)b a)c		a)c		a)c		a)c b)c	
가구 특성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10192	2.83	0.44	3.03	0.74	2.70	0.73	2.52	0.81	2.98	0.54
		한부모·조손가정/7타	1014	2.76	0.42	2.91	0.74	2.69	0.71	2.43	0.81	2.93	0.53
		전체	11,206	2.80	0.43	2.97	0.74	2.70	0.72	2.48	0.81	2.96	0.54
		F값		4.759**		4.973**		.296		3.537**		2.613**	
	경제적 수준	상(a)	4276	2.86	0.45	3.08	0.75	2.73	0.76	2.56	0.84	3.01	0.56
		중(b)	4826	2.81	0.42	3.01	0.72	2.69	0.71	2.53	0.78	2.95	0.53
		하(c)	2118	2.75	0.44	2.90	0.75	2.68	0.70	2.38	0.81	2.94	0.53
		전체	11220	2.82	0.44	3.01	0.74	2.70	0.73	2.51	0.81	2.97	0.54
		F값		49.093**		41.706**		4.127*		38.868**		18.344**	
				a)b)c		a)b)c		a)b		a)c b)c		a)b a)c	

구분			사례수	정서조절		하위역량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		감정인식	
				M	(SD)	M	(SD)	M	(SD)	M	(SD)	M	(SD)
17개 시도	서울(a)	1843	2.81	0.44	3.00	0.77	2.70	0.74	2.49	0.81	2.98	0.55	
	부산(b)	765	2.90	0.46	3.15	0.73	2.77	0.77	2.61	0.84	3.02	0.56	
	대구(c)	677	2.86	0.42	3.01	0.69	2.75	0.64	2.56	0.76	3.04	0.52	
	인천(d)	598	2.86	0.46	3.04	0.77	2.74	0.75	2.54	0.84	3.02	0.57	
	광주(e)	523	2.78	0.41	2.99	0.75	2.69	0.71	2.46	0.82	2.93	0.54	
	대전(f)	497	2.84	0.44	2.98	0.74	2.77	0.70	2.54	0.80	3.00	0.51	
	울산(g)	271	2.83	0.42	3.01	0.75	2.69	0.72	2.59	0.79	2.96	0.50	
	경기(h)	2286	2.81	0.45	3.01	0.73	2.67	0.75	2.48	0.83	2.98	0.55	
	강원(i)	337	2.80	0.44	2.98	0.72	2.76	0.69	2.43	0.78	2.95	0.52	
	충북(j)	308	2.81	0.42	2.95	0.76	2.70	0.72	2.51	0.77	2.97	0.53	
	충남(k)	483	2.83	0.48	2.99	0.82	2.70	0.77	2.54	0.86	2.99	0.57	
	세종(l)	25	2.76	0.42	2.92	0.79	2.60	0.69	2.64	0.77	2.83	0.55	
	전북(m)	434	2.75	0.40	2.97	0.73	2.63	0.69	2.46	0.79	2.88	0.52	
	전남(n)	458	2.84	0.43	3.06	0.72	2.70	0.79	2.62	0.83	2.92	0.57	
	경북(o)	536	2.82	0.42	3.05	0.68	2.69	0.71	2.51	0.77	2.97	0.52	
	경남(p)	830	2.78	0.40	2.99	0.71	2.65	0.71	2.49	0.82	2.92	0.53	
	제주(q)	316	2.77	0.41	2.97	0.70	2.65	0.70	2.52	0.79	2.90	0.50	
	전체	11187	2.82	0.44									
F값			4.199** b)h b)m b)p		2.355**		2.030**		2.452**		3.914**		

*,p<0.05, **,p<0.01

생활관리역량의 하위변인 중 정서조절역량에 대해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IV-35>와 같다. 먼저 청소년 개인적 특성 중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분노행동은 $t=-6.529$, $p<.001$, 조절실패는 $t=7.941$, $p<.001$, 감정인식은 $t=-8.377$, $p<.001$ 로 나타나 감정절제를 제외한 나머지 세 변인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과에 따르면, 분노행동과 감정인식의 경우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의 역량이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조절실패는 남자청소년이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급에 따른 역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분노행동 $F=74.336$, $p<.001$, 감정절제 $F=5.732$, $p<.01$, 조절실패 $F=27.839$, $p<.001$, 감정인식 $F=40.035$, $p<.001$ 로 네 변인 모두 학교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를 보면, 분노행동의 경우, 초기청소년은 중기 1, 중기 2, 후기 청소년에 비해 역량 수준이 높았으며, 중기 청소년 1은 중기청소년 2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감정절제의 경우, 초기청소년은 중기청소년 1과 2에 비하여 역량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조절실패의 경우는 초기청소년이 중기 1, 중기 2, 후기청소년에 비해 높은 역량을 보이고, 중기청소년 1은 중기청소년 2에 비해 높은 역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인식에 있어서는 초기 후기청소년보다 초기청소년, 중기청소년 1, 중기청소년 2의 역량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업성취도에 따른 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분노행동 $F=173.117$, $p<.001$, 감정절제 $F=15.788$, $p<.001$, 조절실패 $F=42.611$, $p<.001$, 감정인식 $F=69.869$, $p<.001$ 로 네 변인 모두 학업성취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후분석 결과를 보면, 감정절제를 제외한 나머지 세 요인에 있어서는 학업성취도가 상 수준인 청소년이 중 수준의 청소년보다, 중 수준의 청소년이 하 수준의 청소년보다 높은 역량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감정절제의 경우 상 수준인 청소년은, 중 수준과 하 수준의 청소년 보다 역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특성 중, 부의 학력에 따른 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분노행동 $F=7.649$, $p<.001$, 조절실패 $F=7.431$, $p<.001$, 감정인식 $F=9.225$, $p<.001$ 로 분석되어 감정절제를 제외한 나머지 세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를 보면, 분노행동과 조절실패의 경우 고졸 이하는 전문대졸업과 대졸 이상에 비해 역량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정인식의 경우 대졸 이상은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업 보다 역량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의 학력에 따른 역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분노행동 $F=9.265$, $p<.001$, 감정절제 $F=5.502$, $p<.01$, 조절실패 $F=4.614$, $p<.01$, 감정인식 $F=8.266$, $p<.001$ 으로 네 변인 모두 모의 학력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를 보면 분노행동은 고졸 이하는 전문대 졸업 및 대졸 이상의 학력에 비해 역량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감정절제와 조절실패는 고졸이하의 역량이 대졸 이상의 역량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정인식의 경우는 대졸 이상의 역량이 고졸 이하와 전문대 졸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 변인 중 가족구성에 따른 역량의 차이는 분노행동 $t=4.973$, $p<.001$, 조절실패 $t=3.537$, $p<.001$, 감정인식 $t=2.613$, $p<.01$ 으로 감정절제를 제외한 나머지 변인에서 가족구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들에 비해 분노행동, 조절실패, 감정인식이 역량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분노행동 $F=41.706$, $p<.001$, 감정절제 $F=4.127$, $p<.05$, 조절실패 $F=38.868$, $p<.001$, 감정인식 $F=18.344$, $p<.001$ 로 모든 변인에서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후분석 결과를 보면, 분노행동의 경우, 경제적 수준이 상인 청소년이 중인 청소년보다, 중인 청소년이 하인 청소년보다 역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절제의 경우는 경제적 수준이 상인 청소년이 중인 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절실패는 경제적 수준이 하인 청소년이 상과 중인 청소년에 비해 낮은 역량을

보였으며, 감정인식에서는 상 수준의 청소년이 중과 하 수준인 청소년에 비해 높은 역량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주지역에 따른 역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분노행동 $F=2.355$, $p<.01$, 감정절제 $F=2.030$, $p<.01$, 조절실패 $F=2.452$, $p<.01$, 감정인식 $F=3.914$, $p<.001$ 로 모두 거주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사후분석 결과 세부 지역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의 기술통계 및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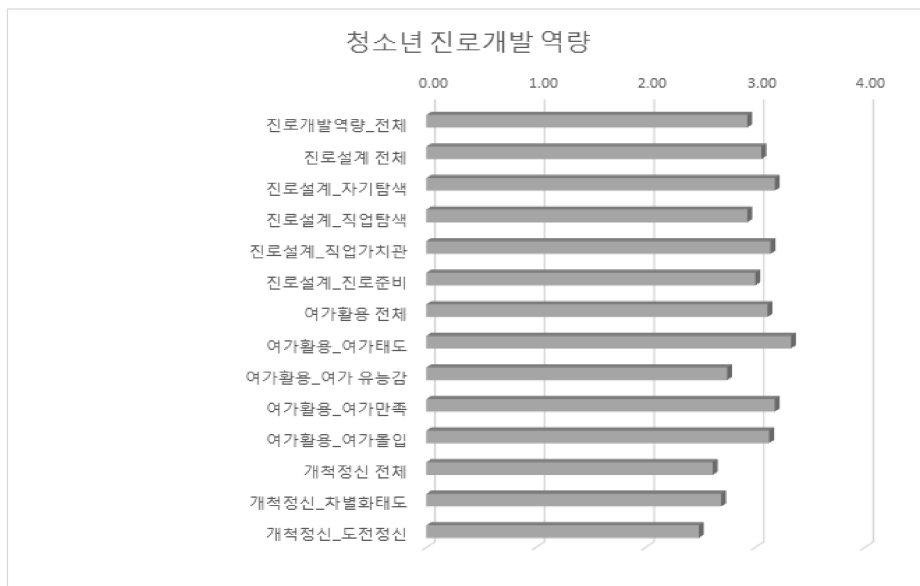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수준 분석을 위하여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을 구성하는 역량과 하위역량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분석결과를 <표 IV-36>에 제시하였고,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간 비교분석을 용이하기 위하여 【그림 IV-23】 과 같이 그래프로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표 IV-36>에 의하면,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전체 평균은 $2.93(SD=.38)$ 으로 나타났고 진로설계 평균은 $3.06(SD=.52)$, 여가활용능력 평균은 $3.11(SD=.50)$, 개척정신 평균은 $2.61(SD=.41)$ 로 나타났다. 하위역량에서는 여가태도 평균이 $3.33(SD=.53)$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자기탐색 $3.18(SD=.58)$, 여가만족 $3.18(SD=.64)$ 순으로 나타났고, 도전정신이 $2.49(SD=.68)$ 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차별화태도 $2.69(SD=.52)$, 여가유능감 $2.74(SD=.70)$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지수는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역량으로 보면, 여가활용, 진로설계, 개척정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척정신의 하위역량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진로설계에서는 직업탐색 역량이 여가활용에서는 여가유능감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개척해 나가는 진취성이 아직 부족한 것으로 해석되며, 더 나아가서 학교생활이 바쁘다 보니 자신의 여가를 즐길 기회가 부족하여 여가유능감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36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역량군	역량	하위역량	M	SD
진로개발역량	전체		2.93	0.38
	진로설계	자기탐색	3.18	0.58
		직업탐색	2.93	0.67
		직업가치관	3.14	0.60
		진로준비	3.00	0.62
		전체	3.06	0.52
	여가활용	여가태도	3.33	0.53
		여가유능감	2.74	0.70
		여가만족	3.18	0.64
		여가몰입	3.13	0.60
		전체	3.11	0.50
	개척정신	차별화태도	2.69	0.52
		도전정신	2.49	0.68
		전체	2.61	0.41



【그림 IV-23】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평균 점수 비교

이와 같은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가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 진로개발역량군에 대한 분석,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을 구성하는 역량별 분석, 그리고 각 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별

분석과 같이 위계적으로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을 분석하였다. 우선, 청소년 진로개발역량군에 대한 분석과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을 구성하는 역량별 분석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IV-37>과 같다.

표 IV-37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진로개발역량		하위 역량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	
				M	(SD)	M	(SD)	M	(SD)	M	(SD)
전체			11,283	2.93	0.38	3.06	0.52	3.11	0.50	2.61	0.41
개인 특성	성별	남	6236	2.94	0.39	3.03	0.53	3.16	0.51	2.63	0.40
		여	5047	2.92	0.38	3.09	0.50	3.06	0.49	2.60	0.41
		F값		3.120**		-6.350**		10.121**		4.364**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a)	2914	3.01	0.42	3.14	0.56	3.19	0.53	2.68	0.42
		중등(중기 청소년)(b)	3403	2.93	0.39	3.05	0.53	3.13	0.50	2.60	0.41
		고등(중기 청소년)(c)	3966	2.90	0.36	3.02	0.49	3.08	0.48	2.59	0.41
		대학(후기 청소년)(d)	1000	2.83	0.28	3.00	0.37	2.95	0.40	2.54	0.33
		F값		72.847**		34.386*		69.751**		47.384**	
				a)b)c)d		a)b)d, a)c		a)b)c)d		a)b=c)d	
	학업 성취도 수준	상(a)	2199	3.07	0.39	3.23	0.51	3.25	0.50	2.72	0.44
		중(b)	6356	2.92	0.37	3.05	0.50	3.10	0.49	2.61	0.40
		하(c)	2382	2.84	0.37	2.94	0.52	3.04	0.51	2.54	0.38
		F값		121.714**		102.174**		68.623**		66.532**	
				a)b)c		a)b)c		a)b)c		a)b)c	
부모 특성	부의 학력	고졸 이하(a)	2880	2.91	0.37	3.03	0.49	3.10	0.49	2.59	0.40
		전문대 졸(b)	876	2.96	0.38	3.12	0.49	3.13	0.50	2.64	0.41
		대졸 이상(c)	3898	2.99	0.37	3.14	0.50	3.16	0.49	2.65	0.42
		F값		38.400**		42.300**		14.507**		19.717**	
				c=b)a		c=b)a		c)a		c=b)a	
	모의 학력	고졸 이하(a)	3647	2.90	0.37	3.03	0.49	3.09	0.49	2.59	0.40
		전문대 졸(b)	978	2.95	0.37	3.11	0.48	3.12	0.50	2.62	0.40
		대졸 이상(c)	3244	3.00	0.37	3.16	0.50	3.17	0.49	2.67	0.42
		F값		55.611**		53.608**		21.986**		33.675**	
				c)b)a		c)b)a		c)b=a		c)b=a	
가구 특성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10,192	2.93	0.38	3.07	0.51	3.12	0.50	2.62	0.41
		한부모·조손·가정/기타	1,014	2.86	0.39	2.98	0.53	3.04	0.53	2.57	0.39
		F값		5.618**		4.872**		4.678**		3.856**	
	경제적 수준	상(a)	4276	3.01	0.38	3.17	0.50	3.21	0.50	2.67	0.41
		중(b)	4826	2.88	0.37	3.00	0.51	3.06	0.49	2.58	0.39
		하(c)	2118	2.86	0.38	2.97	0.52	3.05	0.51	2.58	0.41
		F값		123.424**		104.605**		85.013**		46.984**	
				a)b=c		a)b=c		a)b=c		a)b=c	
	17개 시도	서울(a)	1843	2.96	0.39	3.08	0.52	3.16	0.51	2.62	0.42
		부산(b)	765	2.96	0.37	3.10	0.51	3.13	0.49	2.64	0.40
		대구(c)	677	2.91	0.36	3.03	0.50	3.07	0.47	2.61	0.40
		인천(d)	598	2.95	0.39	3.08	0.51	3.14	0.51	2.61	0.44
		광주(e)	523	2.93	0.37	3.07	0.50	3.09	0.49	2.61	0.40
		대전(f)	497	2.97	0.38	3.10	0.52	3.16	0.49	2.64	0.39

구분			사례수	진로개발역량		하위 역량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	
				M	(SD)	M	(SD)	M	(SD)	M	(SD)
		울산(g)	271	2.93	0.36	3.08	0.48	3.09	0.51	2.61	0.39
		경기(h)	2286	2.93	0.39	3.06	0.52	3.13	0.50	2.61	0.43
		강원(i)	337	2.86	0.39	2.98	0.50	3.04	0.50	2.57	0.42
		충북(j)	308	2.96	0.37	3.05	0.53	3.17	0.47	2.65	0.41
		충남(k)	483	2.96	0.40	3.11	0.53	3.13	0.54	2.62	0.41
		세종(l)	25	2.96	0.26	3.12	0.35	3.18	0.40	2.57	0.32
		전북(m)	434	2.85	0.39	2.96	0.53	2.99	0.51	2.61	0.39
		전남(n)	458	2.93	0.38	3.08	0.52	3.10	0.51	2.62	0.37
		경북(o)	536	2.87	0.39	2.98	0.52	3.04	0.48	2.59	0.40
		경남(p)	830	2.89	0.37	3.03	0.49	3.06	0.51	2.59	0.38
		제주(q)	316	2.93	0.39	3.05	0.55	3.12	0.51	2.62	0.37
		합		4.456**		3.827**		5.450**		1.192	
				a, b, f, i, m, o d, h, j, k, n h, k, o, a, p		a, b, f, k, m, o d, h, n, m b, k, i		a, d, f, h, j, m, o b, k, m a, f, h, p a, c, i			

*, p<0.05, **, p<0.01

개인특성 변인에서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 평균은 2.94(SD=.39)이고, 여자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 평균은 2.92(SD=.38)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t=3.120$,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설계에 있어서는 $t=6.350$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여자 청소년의 진로설계능력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가활용능력에서는 $t=10.121$,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남자 청소년의 여가활용능력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척정신에서도 $t=4.364$,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남자 청소년의 개척정신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에 있어 남자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이 여자 청소년 보다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급(청소년 시기)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에 있어 초등학생(초기 청소년)의 평균은 3.01(SD=.42), 중학생(중기 청소년)은 2.93(SD=.39), 고등학생(중기 청소년)은 2.90(SD=.36), 대학생(후기 청소년)은 2.83(SD=.28)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F검증과 사후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F=72.847$,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에 의하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순으로 진로개발역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설계에 있어서는 $F=34.386$,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초등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가활용능력에 있어서는 $F=69.751$,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학년이 어릴수록 여가활용능력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개척정신 또한 $F=47.384$,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초등학생, 중학생과 고등학생, 대학생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에 있어 학업성취도가 상 수준인 청소년의 평균은 $3.07(SD=.39)$, 중 수준 청소년의 평균은 $2.92(SD=.37)$, 그리고 하 수준 청소년의 평균은 $2.84(SD=.37)$ 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F검증과 사후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F=121.714$,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에 의하면 학업성취도가 상 수준인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이 가장 높고, 중 수준인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은 하 수준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설계에 있어서 $F=102.174$,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가활용능력에서 $F=68.623$, $p<.01$, 개척정신은 $F=66.532$,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에 있어 학업성취도가 상 수준인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이 가장 높고, 중 수준인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은 하 수준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부모특성 변인에서 부모의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에 있어 부(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부(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청소년의 평균은 $2.99(SD=.37)$, 전문대 졸업 청소년의 평균은 $2.96(SD=.38)$, 그리고 고졸 이하인 청소년의 평균은 $2.91(SD=.37)$ 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F검증과 사후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F=38.400$,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부(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이상이거나 전문대졸이상인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이 부(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진로설계($F=42.300$, $p<.01$), 여가활용능력($F=14.507$, $p<.01$), 그리고 개척정신($F=19.717$, $p<.01$)도 동일하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진로설계와 개척정신의 경우, 부(아버지)의 학력이 대졸 또는 전문대 졸업 이상인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이 부(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리고 여가활용의 경우, 부(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인 청소년이 고졸이하인 청소년 보다 여가활용역량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모(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모(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청소년의 평균은 $3.00(SD=.37)$, 전문대 졸업 청소년의 평균은 $2.95(SD=.37)$, 그리고 고졸 이하인 청소년의 평균은 $2.90(SD=.37)$ 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F검증과 사후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F=55.611$,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모(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이 모(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 졸과 고졸이하인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모(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 졸인 청소년이 고졸이하인 청소년 보다 진로개발역량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진로설계($F=53.608$, $p<.01$), 여가활용능력($F=21.986$, $p<.01$), 그리고 개척정신($F=33.675$, $p<.01$)도 동일하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진로설계역량의 경우, 사후분석결과, 모(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이상, 전문대졸, 고졸이하 순으로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여가활용과 개척정신의 경우 모(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청소년이 전문대졸과 고졸이하인 청소년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구특성 변인에서 가족구성, 경제적 수준,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구성에 있어 따른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님이 모두 계신 가정의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평균은 $2.93(SD=.38)$ 이고, 한부모/조손가정/기타 가정의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평균은 $2.86(SD=.39)$ 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t=5.618$,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설계에서는 $t=4.872$, $p<.01$, 여가활용능력에서는 $t=4.678$, $p<.01$, 개척정신에서는 $t=3.8563$,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부모님이 모두 있는 가정의 청소년이 한부모/조손가정/기타 가정의 청소년보다 진로개발역량에 있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에 있어 가정경제가 상수준인 청소년의 평균은 $3.01(SD=.38)$, 중수준인 청소년 평균은 $2.88(SD=.37)$, 하수준인 청소년의 평균은 $2.86(SD=.38)$ 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F검증과 사후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F=123.424$,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가정경제가 상수준인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이 중·하 수준인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설계에 있어서는 $F=104.605$, $p<.01$ 수준에서, 여가활용에 있어서는 $F=85.013$, $p<.01$ 수준에서, 개척정신에 있어서는 $F=46.984$,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가정경제가 상수준인 청소년의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역량이 중·하 수준인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의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에 있어 서전지역 청소년 평균이 $2.97(SD=.38)$ 로 가장 높았고, 전북지역 청소년 평균이 $2.85(SD=.39)$ 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F검증과 사후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F=4.456$,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서울, 부산, 대전지역 청소년이 충북, 전북, 경북 지역 청소년 보다 진로개발역량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설계에 있어서는 $F=3.827$,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서울, 부산, 대전, 충남지역 청소년이 전북, 경북 지역 청소년의 진로설계역량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용능력에 있어서는 $F=5.450$,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서울, 인천, 대전, 경기, 충청지역 청소년이 전북, 경북지역 청소년의 여가활용역량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척정신에 있어서는 $F=1.192$,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에 있어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에 따른 차이분석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진로설계의 하위역량인 자기탐색, 직업탐색, 직업가치관, 진로준비역량이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IV-38>과 같다.

표 IV-38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진로설계역량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진로설계능력		하위역량					
						자기탐색	직업탐색	직업가치관	진로준비		
				<i>M(SD)</i>		<i>M(SD)</i>	<i>M(SD)</i>	<i>M(SD)</i>	<i>M(SD)</i>		
전체			11,284	3.06	0.52	3.18	0.58	2.93	0.67	3.14	0.60
청소년 특성	성별	남	6237	3.03	0.53	3.16	0.59	2.90	0.68	3.10	0.62
		여	5047	3.09	0.50	3.20	0.58	2.96	0.65	3.19	0.57
		<i>F</i> 값		-6.350**		-4.041**		-4.202**		-8.156**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a)	2914	3.14	0.56	3.27	0.62	2.98	0.73	3.23	0.62
		중등(중기 청소년)(b)	3404	3.05	0.53	3.19	0.59	2.90	0.70	3.16	0.60
		고등(중기 청소년)(c)	3965	3.02	0.49	3.14	0.56	2.91	0.64	3.09	0.59
		대학(후기 청소년)(d)	1000	3.00	0.37	3.04	0.45	2.96	0.51	3.02	0.50
		<i>F</i> 값		34.356**		52.666**		10.239**		48.720**	
				a)b, c, d		a)b)c)d		a) b, c		a)b)c)d	
	학업 성취도 수준	상(a)	2199	3.23	0.51	3.34	0.58	3.08	0.70	3.30	0.58
		중(b)	6357	3.05	0.50	3.17	0.57	2.91	0.66	3.13	0.58
		하(c)	2381	2.94	0.52	3.07	0.58	2.83	0.65	3.05	0.61
		<i>F</i> 값		102.097**		72.898**		41.592**		59.558**	
				a)b)c		a)b)c		a)b)c		a)b)c	
부모 특성	부의 학력	고졸 이하(a)	2880	3.03	0.49	3.15	0.56	2.91	0.65	3.13	0.58
		전문대 졸(b)	876	3.12	0.49	3.23	0.56	3.00	0.63	3.19	0.58
		대졸 이상(c)	3898	3.14	0.50	3.26	0.57	3.03	0.65	3.18	0.59
		<i>F</i> 값		42.293**		34.902**		30.439**		8.874**	
				b, c > a		b, c > a		b, c > a		b, c > a	
	모의 학력	고졸 이하(a)	3648	3.03	0.49	3.15	0.56	2.91	0.65	3.12	0.58
		전문대 졸(b)	978	3.11	0.48	3.21	0.55	2.99	0.64	3.18	0.57
		대졸 이상(c)	3243	3.16	0.50	3.28	0.57	3.04	0.65	3.20	0.59
		<i>F</i> 값		53.835**		48.163**		34.360**		14.116**	
				c)b)a		c)b)a		b, c > a		b, c > a	

구분			사례수	진로설계능력		하위역량							
						자기탐색		직업탐색		직업가치관		진로준비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가구 특성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10193	3.07	0.51	3.18	0.58	2.94	0.67	3.15	0.59	3.01	0.61
		한부모조손가정/기타	1014	2.98	0.53	3.13	0.59	2.85	0.67	3.09	0.62	2.89	0.67
		F값		4.872**		2.576**		4.032**		2.926**		6.323*	
	경제적 수준	상(a)	4276	3.17	0.50	3.28	0.57	3.04	0.67	3.23	0.59	3.13	0.60
		중(b)	4826	3.00	0.51	3.12	0.57	2.87	0.66	3.10	0.58	2.94	0.60
		하(c)	2118	2.97	0.52	3.11	0.60	2.84	0.67	3.06	0.62	2.89	0.64
		F값		104.601**		67.717**		67.965**		52.809**		100.228**	
				a)b, c		a)b, c		a)b, c		a)b)c		a)b)c	
	17개 시도	서울(a)	1843	3.08	0.52	3.22	0.59	2.95	0.68	3.16	0.61	3.02	0.62
		부산(b)	764	3.10	0.51	3.20	0.58	2.99	0.67	3.22	0.56	3.04	0.62
		대구(c)	677	3.03	0.50	3.17	0.58	2.90	0.66	3.09	0.58	2.98	0.60
		인천(d)	598	3.08	0.51	3.20	0.59	2.92	0.68	3.22	0.56	3.01	0.63
		광주(e)	523	3.07	0.50	3.19	0.57	2.96	0.68	3.17	0.56	2.98	0.60
		대전(f)	497	3.10	0.52	3.22	0.58	2.98	0.65	3.13	0.61	3.06	0.63
		울산(g)	271	3.08	0.48	3.18	0.55	2.98	0.61	3.14	0.59	3.04	0.58
		경기(h)	2287	3.06	0.52	3.18	0.59	2.92	0.68	3.14	0.60	3.01	0.62
		강원(i)	337	2.98	0.50	3.10	0.55	2.85	0.68	3.07	0.58	2.92	0.61
		충북(j)	308	3.05	0.53	3.18	0.58	2.91	0.66	3.13	0.61	2.98	0.63
		충남(k)	483	3.11	0.53	3.21	0.61	3.02	0.68	3.18	0.62	3.06	0.64
		세종(l)	25	3.12	0.35	3.23	0.43	3.06	0.50	3.03	0.42	3.13	0.44
		전북(m)	434	2.96	0.53	3.11	0.56	2.80	0.67	3.04	0.62	2.91	0.64
		전남(n)	458	3.08	0.52	3.18	0.57	2.97	0.63	3.13	0.60	3.04	0.62
		경북(o)	536	2.98	0.52	3.13	0.58	2.83	0.67	3.09	0.61	2.90	0.61
		경남(p)	830	3.03	0.49	3.13	0.56	2.91	0.62	3.13	0.56	2.98	0.61
		제주(q)	316	3.05	0.55	3.15	0.62	2.92	0.68	3.12	0.60	3.01	0.63
		F값		3.836**		2.386**		3.677**		3.694**		3.096**	
				a, b, k)m, o d, h) m b, k) i		a) i, m, p		a,b,f,k)m,o e,g,n)m k)i		a,b,d,e,k)m b,d)c,i,o		a,b,h,n)o c,k)m,o	

*,p<0.05, **,p<0.01

개인특성 변인에서 성별, 학교급(청소년 시기),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진로설계 하위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에 따른 진로설계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기탐색에 있어서 $t=4.041$, $p<.01$ 수준에서, 직업탐색은 $t=4.202$, $p<.01$ 수준에서, 직업가치관은 $t=8.156$, $p<.01$ 수준에서, 진로준비는 $t=5.517$,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여자 청소년의 진로설계능력이 남자 청소년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급(청소년 시기)에 따른 진로설계 하위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탐색에 있어 $F=52.666$,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 결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순으로 자기탐색능력이 높아,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기탐색능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업탐색에 있어서 $F=10.239$,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초등학생의 직업탐색능력 수준이 중학생과 고등학생보다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업가치관의 경우 $F=48.720$,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검사결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진로준비의 경우, $F=21.902$,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초등학생의 진로준비능력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보다 높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진로설계 하위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자기탐색에 있어 $F=72.898$,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학업성취도가 상 수준인 청소년의 자기탐색능력이 중·하 수준의 청소년 보다 높고, 중 수준인 청소년의 자기탐색능력이 하 수준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업탐색에 있어서 $F=41.592$, $p<.01$ 수준에서, 직업가치관은 $F=59.558$, $p<.01$ 수준에서, 진로준비는 $F=124.500$, $p<.01$ 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학업성취도가 상 수준인 청소년의 직업탐색, 직업가치관, 진로준비능력이 중·하 수준의 청소년 보다 높았고, 중수준인 청소년의 세 가지 하위역량에 대해서도 하수준의 청소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진로설계 하위역량에 대해서는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해당 역량의 수준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부모특성 변인에서 부모의 학력에 따른 진로설계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청소년의 자기탐색능력에 있어 $F=34.902$,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부(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이상이거나 전문대 졸업 청소년의 자기탐색역량이 부(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직업탐색에 있어 $F=30.439$, $p<.01$ 수준에서, 직업가치관은 $F=8.874$, $p<.01$ 수준에서, 진로준비는 $F=43.042$, $p<.01$ 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부(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이상이거나 전문대 졸업 청소년의 직업탐색, 직업가치관, 진로준비역량이 부(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모(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청소년의 자기탐색능력에 있어 $F=48.163$,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모(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청소년의 자기탐색능력이 모(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 졸업 고졸이하인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모(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 졸업 청소년이 고졸이하인 청소년 보다 자기탐색능력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직업탐색에 있어 $F=34.360$, $p<.01$ 수준에서, 직업가치관은 $F=14.116$,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모(어머니)의 학력이 대학이상이거나 전문대졸인 청소년의 직업탐색능력과 직업가치관이 모(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준비의 경우 $F=51.497$,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모(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청소년의 진로준비능력이 모(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 졸과 고졸이하인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모(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 졸인 청소년이 고졸이하인 청소년 보다 진로준비능력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가구특성 변인에서 가족구성, 경제적 수준,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설계능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구성에 있어 따른 청소년의 진로설계능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기탐색에 있어 $t=2.576$, $p<.01$ 수준에서, 직업탐색은 $t=4.032$, $p<.01$ 수준에서, 직업가치관은 $t=2.926$, $p<.01$ 수준에서, 진로준비는 $t=6.323$,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부모님이 모두 있는 청소년의 진로설계 하위역량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탐색에 있어 $F=67.717$, $p<.01$ 수준에서, 직업탐색은 $F=67.96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가정경제가 상수준인 청소년의 자기탐색과 직업탐색능력이 중·하 수준인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가치관의 경우 $F=52.809$, $p<.01$ 수준에서, 진로준비에 있어서는 $F=100.228$,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가정경제가 상수준인 청소년의 직업가치관과 진로준비역량이 중·하 수준인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고, 중 수준인 청소년의 직업가치관과 진로준비역량은 하 수준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의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탐색에 있어 $F=2.386$,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서울지역 청소년이 강원, 전북, 경남 지역 청소년 보다 자기탐색능력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탐색능력에 있어서는 $F=3.677$,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서울, 부산, 대전, 충남지역 청소년이 전북, 경북지역 청소년의 직업탐색능력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가치관에 있어 $F=3.694$,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충남지역 청소년이 전북지역 청소년 보다 직업가치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능력에 있어서는 $F=3.096$,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서울, 부산, 경기, 전남지역

청소년이 경북지역 청소년의 진로준비능력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가활용능력의 하위역량인 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여가만족, 그리고 여가몰입능력을 살펴보면 <표 IV-39>와 같다.

표 IV-39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여가활용역량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여가활용능력		하위역량					
						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여가만족	
						M(SD)		M(SD)		M(SD)	
전체			11,284	3.11	0.50	3.33	0.53	2.74	0.70	3.18	0.64
청소년 특성	성별	남	6237	3.16	0.51	3.34	0.53	2.83	0.71	3.21	0.65
		여	5047	3.06	0.49	3.32	0.52	2.64	0.67	3.14	0.64
		F값		10.121**		2.263*		14.172**		5.745**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a)	2914	3.19	0.53	3.39	0.55	2.87	0.72	3.34	0.67
		중등(중기 청소년)(b)	3404	3.13	0.50	3.36	0.53	2.73	0.71	3.20	0.64
		고등(중기 청소년)(c)	3965	3.08	0.48	3.31	0.51	2.67	0.69	3.10	0.63
		대학(후기 청소년)(d)	1000	2.95	0.40	3.12	0.47	2.72	0.57	2.96	0.55
		F값		69.941**		69.891**		46.493**		119.563**	
				a)b)c)d		a, b)c)d		a)b)c a)d		a)b)c)d	
	학업 성취도 수준	상(a)	2198	3.25	0.50	3.45	0.51	2.88	0.73	3.36	0.63
		중(b)	6356	3.10	0.49	3.33	0.51	2.72	0.69	3.17	0.63
		하(c)	2381	3.04	0.51	3.25	0.55	2.70	0.69	3.06	0.66
		F값		68.842**		60.913**		28.691**		74.905**	
부모 특성	부의 학력	고졸 이하(a)	2880	3.10	0.49	3.31	0.51	2.73	0.69	3.15	0.63
		전문대 졸(b)	875	3.13	0.50	3.35	0.53	2.77	0.69	3.23	0.64
		대졸 이상(c)	3897	3.16	0.49	3.37	0.51	2.79	0.70	3.22	0.62
		F값		14.596**		12.478**		6.845**		12.919**	
	모의 학력	고졸 이하(a)	3646	3.09	0.49	3.31	0.51	2.71	0.69	3.15	0.63
		전문대 졸(b)	978	3.12	0.50	3.34	0.53	2.76	0.69	3.20	0.64
		대졸 이상(c)	3243	3.17	0.49	3.38	0.51	2.81	0.70	3.24	0.62
		F값		21.935**		13.677**		18.831**		17.924**	
가구 특성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10193	3.12	0.50	3.33	0.52	2.75	0.70	3.19	0.64
		한부모·조손가정/7타	1014	3.04	0.53	3.27	0.56	2.66	0.71	3.09	0.69
		F값		4.678**		3.719**		4.236**		4.749**	
	경제적 수준	상(a)	4276	3.21	0.50	3.40	0.52	2.88	0.70	3.29	0.62
		중(b)	4825	3.06	0.49	3.28	0.52	2.68	0.67	3.12	0.64
		하(c)	2117	3.05	0.51	3.29	0.54	2.63	0.70	3.09	0.67
		F값		84.783**		43.999**		86.802**		73.638**	
				a)b, c		a)b, c		a)b, c		a)b, c	
	17개 시도	서울(a)	1843	3.16	0.51	3.36	0.52	2.80	0.72	3.23	0.66
		부산(b)	764	3.13	0.49	3.36	0.51	2.75	0.71	3.19	0.64
		대구(c)	677	3.07	0.47	3.33	0.49	2.66	0.66	3.12	0.65
		인천(d)	598	3.14	0.51	3.36	0.54	2.76	0.72	3.23	0.65
		광주(e)	523	3.09	0.49	3.32	0.51	2.76	0.66	3.13	0.64

구분			사례수	여가활용능력		하위역량							
						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여가만족		여가몰입	
				M(SD)		M(SD)		M(SD)		M(SD)		M(SD)	
지역	지역	대전(f)	497	3.16	0.49	3.38	0.51	2.81	0.68	3.20	0.63	3.18	0.61
		울산(g)	271	3.09	0.51	3.30	0.55	2.76	0.71	3.16	0.62	3.09	0.58
		경기(h)	2286	3.13	0.50	3.34	0.52	2.75	0.70	3.20	0.64	3.16	0.60
		강원(i)	337	3.04	0.50	3.24	0.54	2.67	0.70	3.10	0.62	3.09	0.60
		충북(j)	308	3.17	0.47	3.38	0.50	2.83	0.69	3.22	0.62	3.19	0.53
		충남(k)	483	3.13	0.54	3.37	0.55	2.71	0.75	3.23	0.67	3.15	0.64
		세종(l)	25	3.18	0.40	3.38	0.45	2.91	0.62	3.14	0.51	3.18	0.48
		전북(m)	434	2.99	0.51	3.20	0.54	2.66	0.67	3.08	0.64	2.99	0.63
		전남(n)	458	3.10	0.51	3.31	0.52	2.77	0.71	3.15	0.65	3.10	0.62
		경북(o)	535	3.04	0.48	3.27	0.53	2.64	0.64	3.12	0.63	3.05	0.59
		경남(p)	830	3.06	0.51	3.25	0.55	2.72	0.68	3.13	0.64	3.09	0.59
		제주(q)	316	3.12	0.51	3.32	0.53	2.77	0.69	3.17	0.62	3.14	0.61
		평균			5.443**		5.391**		3.463**		3.436**		4.934**
					a,d,f,h,j>m,o b,k>m f,h>p a>c,i,p		a,b,d,f,h,j,k> m,p a,b,f>i c,e>m, a>o		a,f>c,o j>o a>m		a>c,m,p d,h>m		a,b,d,f,h,j,k>m a>c,e,p,o h>o

개인특성 변인에서 성별, 학교급(청소년 시기),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여가활용능력 하위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가태도에 있어서 $t=2.263$,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남자 청소년의 여가태도가 여자 청소년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가유능감에 있어서 $t=14.172$,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남자 청소년의 수학능력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가만족에 있어서 $t=5.74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남자 청소년의 여가만족수준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가몰입에 있어서 $t=11.224$,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남자 청소년의 여가몰입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여가활용능력에 있어 남자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급(청소년 시기)에 따른 여가활용능력 하위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가태도에 있어 $F=69.891$,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초등학생(초기 청소년)과 중학생(중기청소년)이 고등학생(중기청소년)과 대학생(후기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생은 대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가유능감에 있어서 $F=46.493$,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초등학생(초기 청소년)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학생(중기청소년), 고등학생(중기 청소년) 순으로 여가유능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생(초기 청소년)이 대학생(후기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가만족에 있어 $F=119.563$,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초등학생(초기 청소년)이 가장 높고, 중학생(중기 청소년), 고등학생(중기 청소년), 대학생(후기 청소년) 순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가몰입에 있어서 $F=43.558$,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초등학생(초기 청소년)과 중학생(중기 청소년)이 고등학생(중기 청소년)과 대학생(후기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고등학생은 대학생보다 여가몰입에 있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학교급(청소년 시기)에 따라서 여가활용능력은 대체로 초등학생일수록 가장 높고 대학생일수록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여가활용능력 하위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여가태도에 있어 $F=60.913$, $p<.01$, 여가유능감에 있어 $F=46.493$, $p<.01$, 여가만족에 있어 $F=119.563$, $p<.01$, 여가몰입에 있어 $F=43.558$,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여가활용능력의 하위역량에 있어 여가유능감을 제외하고는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상 수준인 청소년이 가장 높고, 중 수준 청소년이 하 수준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가유능감의 경우 상수준인 청소년이 중 또는 하 수준의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특성 변인에서 부모의 학력에 따른 여가활용능력 하위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태도에 있어 $F=12.478$, $p<.01$, 여가유능감에 있어 $F=6.845$, $p<.01$, 여가만족에 있어 $F=12.919$, $p<.01$, 여가몰입에 있어 $F=10.909$,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여가태도와 여가유능감의 경우 부(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청소년이 부(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리고 여가만족의 경우에는 부(아버지)의 학력이 전문대졸이상인 청소년이 고졸이하인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여가몰입의 경우에는 부(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청소년이 부(아버지)의 학력이 전문대 졸과 고졸이하인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모(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태도에 있어 $F=13.677$, $p<.01$, 여가유능감에 있어 $F=18.831$, $p<.01$, 여가만족에 있어 $F=17.924$, $p<.01$, 여가몰입에 있어 $F=12.037$,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여가만족에 있어서는 모(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청소년이 모(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여가몰입의 경우 모(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청소년이 모(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 졸과 고졸이하인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가구특성 변인에서 가족구성, 경제적 수준,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활용능력 하위역량

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구성에 있어 따른 청소년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가태도에 있어 $t=3.719$, $p<.01$, 여가유능감에 있어 $t=4.236$, $p<.01$, 여가만족에 있어 $t=4.749$, $p<.01$, 여가몰입에 있어 $t=2.960$,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님이 있는 청소년의 여가활동 하위역량이 한부모/조손가정/기타 가정의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가태도에 있어 $F=43.999$, $p<.01$, 여가유능감에 있어 $F=86.802$, $p<.01$, 여가만족에 있어 $F=73.638$, $p<.01$, 여가몰입에 있어 $F=44.378$,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여가활동의 하위역량에 대해 가정경제가 상수준인 청소년이 중·하 수준인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가태도에 있어 $F=5.391$, $p<.01$, 여가유능감에 있어 $F=3.463$, $p<.01$, 여가만족에 있어 $F=3.436$, $p<.01$, 여가몰입에 있어 $F=4.934$,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여가태도에 있어서는 서울,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지역 청소년이 전북, 경북 지역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가유능감에 있어서는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지역 청소년이 전북, 경남 지역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여가만족에 있어서는 서울 지역 청소년이 대구, 전북, 경남 지역 청소년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여가몰입에 있어서는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지역 청소년이 전북 지역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에서 개척정신의 하위역량을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40>에 제시되었다.

표 IV-40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개척정신역량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개척정신		하위역량		
						차별화태도		도전정신
				M(SD)		M(SD)		M(SD)
전체			11,284	2.61	0.41	2.69	0.52	2.49 0.68
청소년 특성	성별	남	6236	2.63	0.40	2.73	0.53	2.47 0.70
		여	5047	2.60	0.41	2.65	0.50	2.51 0.67
	F값			4.364**		8.429**		-3.585**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a)	2911	2.68	0.42	2.72	0.55	2.63 0.73
		중등(중기 청소년)(b)	3402	2.60	0.41	2.70	0.53	2.45 0.68
		고등(중기 청소년)(c)	3965	2.59	0.41	2.67	0.49	2.47 0.66
		대학(후기 청소년)(d)	1000	2.54	0.33	2.69	0.47	2.29 0.53
	F값			47.095**		6.228**		75.725**
				a)b, c)d		a)c		a)b, c)d
	학업 성취도 수준	상(a)	2198	2.72	0.44	2.81	0.54	2.58 0.76
		중(b)	6353	2.61	0.40	2.68	0.50	2.48 0.67
		하(c)	2381	2.54	0.38	2.61	0.51	2.43 0.65
	F값			66.422**		46.811**		19.711**
부모 특성	부의 학력	고졸 이하(a)	2879	2.59	0.40	2.67	0.49	2.46 0.66
		전문대 졸(b)	876	2.64	0.41	2.70	0.51	2.53 0.67
		대졸 이상(c)	3897	2.65	0.42	2.76	0.52	2.47 0.70
		F값		19.661**		29.078**		3.703*
	모의 학력	고졸 이하(a)	3647	2.59	0.40	2.66	0.50	2.46 0.67
		전문대 졸(b)	978	2.62	0.40	2.70	0.51	2.49 0.66
		대졸 이상(c)	3242	2.67	0.42	2.78	0.52	2.49 0.70
		F값		33.856**		43.592**		1.350
가구 특성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10192	2.62	0.41	2.70	0.52	2.49 0.68
		한부모조식가정/타	1014	2.57	0.39	2.63	0.51	2.46 0.68
		F값		3.856**		3.612**		1.570
	경제적 수준	상(a)	4275	2.67	0.41	2.77	0.52	2.51 0.71
		중(b)	4822	2.58	0.39	2.64	0.50	2.47 0.66
		하(c)	2118	2.58	0.41	2.64	0.52	2.47 0.68
		F값		46.981**		53.059**		3.360**
	17개 시도	서울(a)	1843	2.62	0.42	2.72	0.53	2.46 0.70
		부산(b)	764	2.64	0.40	2.72	0.52	2.51 0.67
		대구(c)	677	2.61	0.40	2.68	0.48	2.51 0.62
		인천(d)	598	2.61	0.44	2.69	0.53	2.48 0.70
		광주(e)	523	2.61	0.40	2.69	0.51	2.49 0.67
		대전(f)	495	2.64	0.39	2.71	0.48	2.52 0.68
		울산(g)	271	2.61	0.39	2.73	0.53	2.40 0.66
		경기(h)	2285	2.61	0.43	2.69	0.53	2.48 0.69
		강원(i)	337	2.57	0.42	2.65	0.50	2.44 0.70
		충북(j)	308	2.65	0.41	2.71	0.51	2.55 0.69
		충남(k)	483	2.62	0.41	2.71	0.54	2.47 0.71
		세종(l)	25	2.57	0.32	2.72	0.56	2.32 0.60
		전북(m)	434	2.61	0.39	2.65	0.51	2.54 0.70
		전남(n)	458	2.62	0.37	2.70	0.52	2.50 0.69
		경북(o)	536	2.59	0.40	2.61	0.47	2.55 0.68
		경남(p)	829	2.59	0.38	2.66	0.50	2.46 0.68
		제주(q)	316	2.62	0.37	2.67	0.52	2.52 0.65
	F값			1.184		1.800*		1.484
						a, b)o		

*,p<0.05, **,p<0.01

개인특성 변인에서 성별, 학교급(청소년 시기),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개척정신 하위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차별화태도에 있어서 $t=8.429$,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남자 청소년의 차별화태도가 여자 청소년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도전정신에 있어서는 $t=-3.58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여자청소년의 도전정신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급(청소년 시기)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차별화태도에 있어 $F=6.228$,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초등학생(초기 청소년)이 대학생(후기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전정신에 있어서는 $F=75.72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초등학생(초기 청소년)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학생(중기 청소년)과 고등학생(중기청소년), 마지막으로 대학생(후기청소년) 순으로 도전정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개척정신 하위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차별화태도에 있어 $F=46.811$, $p<.01$, 도전정신에 있어 $F=19.711$,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상 수준인 청소년이 가장 높고, 중 수준 청소년이 하 수준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으며, 하 수준 청소년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개척정신의 하위역량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부모특성 변인에서 부모의 학력에 따른 개척정신 하위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청소년의 차별화태도에 있어 $F=29.078$,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부(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청소년이 부(아버지)의 학력인 전문대졸 그리고 고졸이하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전정신에 있어 $F=3.703$,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부(아버지)의 학력이 전문대졸인 청소년이 부(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이상이거나 고졸이하인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청소년의 차별화태도에 있어 $F=43.592$,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모(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청소년이 모(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졸이거나 고졸이하인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도전정신에 있어서는 $F=1.350$,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 변인에서 가족구성, 경제적 수준,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의 개척정신 하위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구성에 있어 따른 청소년의 차이를 살펴보면, 차별화태도에 있어 $t=3.612$,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부모님이 있는 청소년의 차별화태도수준이 한부모/조손가정/기타 가정의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도전정신에 있어서는 $t=1.570$,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개척정신 하위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차별화태도에 있어 $F=53.059$, $p<.01$, 도전정신에 있어 $F=3.360$,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가정경제가 상수준인 청소년이 가정경제가 중 수준과 하 수준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청소년의 거주지역에 따른 개척정신 하위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차별화태도에 있어 $F=1.800$,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 결과 서울과 부산지역 청소년이 경북지역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도전정신에 있어서는 $F=1.484$,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5)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의 기술통계 및 차이 분석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에 대한 수준 분석을 위하여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을 구성하는 역량과 하위역량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분석결과를 <표 IV-41>에 제시하였고,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간 비교분석을 용이하기 위하여 【그림 IV-24】 과 같이 그래프로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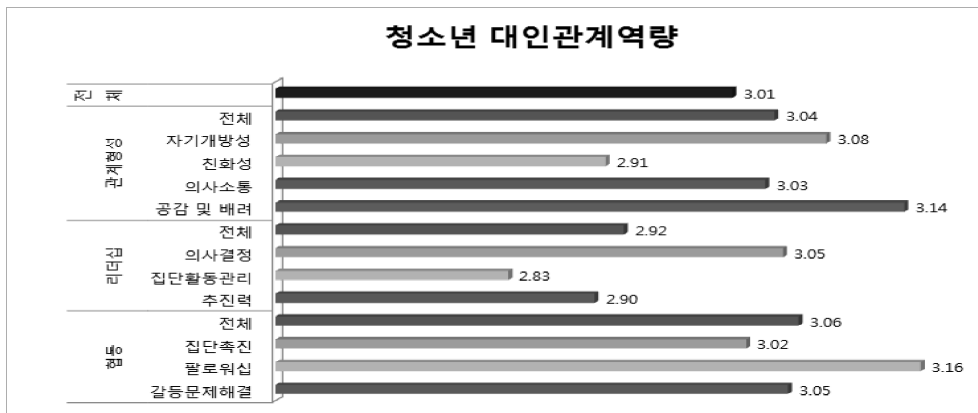
<표 IV-41>에 의하면,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전체 평균은 $3.01(SD=.46)$ 으로 나타났고 관계형성 평균은 $3.04(SD=.50)$, 리더십 평균은 $2.92(SD=.54)$, 협동 평균은 $3.06(SD=.50)$ 으로 나타나, 리더십 역량이 다른 역량에 비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 하위역량에서는 팔로워십 평균이 $3.16(SD=.58)$ 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공감 및 배려($M=3.14$, $SD=.54$), 자기개방성($M=3.08$, $SD=.6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집단활동관리 평균이 $2.83(SD=.64)$ 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친화성 $2.91(SD=.68)$, 집단축진 $3.02(SD=.55)$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대인관계역량지수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 간에는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협동 역량이 가장 높고, 리더십 역량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협동 역량 중 팔로워십 역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집단의 조화를 위해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고 구성원을

도우며 활동하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하고, 개인의 의견이 집단에서 결정된 의견과 다를지라고 이를 수용하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집단주의적 가치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인다. 한편, 리더십 역량 중에서도 집단활동관리 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집단 내에서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거나 활동목표를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환경과도 연결되어 생각해볼 수 있는데, 팀단위 활동 혹은 주도적 학습보다는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지다보니, 청소년들이 그룹활동에서 리더가 되어 활동을 해보는 경험의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여겨진다.

표 IV-41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역량군	역량	하위역량	M	SD
대인관계역량	전체		3.01	0.47
	관계형성	자기개방성	3.08	0.64
		친화성	2.91	0.68
		의사소통	3.03	0.54
		공감 및 배려	3.14	0.54
		전체	3.04	0.50
	리더십	의사결정	3.05	0.58
		집단활동관리	2.83	0.64
		추진력	2.90	0.58
		전체	2.92	0.54
	협동	집단촉진	3.02	0.55
		팔로워십	3.16	0.58
		갈등문제해결	3.05	0.54
		전체	3.06	0.50



【그림 IV-24】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평균 점수 비교

이와 같은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가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 대인관계역량군에 대한 분석,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을 구성하는 역량별 분석, 그리고 각 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별 분석과 같이 위계적으로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을 분석하였다.

(1)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차이분석

청소년 대인관계역량군에 대한 분석과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을 구성하는 역량별 분석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IV-42>와 같다.

표 IV-42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대인관계역량		세부지표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M(SD)$		$M(SD)$		$M(SD)$		$M(SD)$		
청소년 특성	성별	남	6,237	2.98	(0.48)	3.01	(0.51)	2.91	(0.56)	3.03	(0.52)	
		여	5,047	3.04	(0.44)	3.08	(0.47)	2.94	(0.52)	3.10	(0.48)	
		전체	11,284	3.01	(0.47)	3.04	(0.50)	2.92	(0.54)	3.06	(0.50)	
		$F_{값}$		-6.516**		-7.781**		-2.989**		-7.054**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a)	2,914	3.06	(0.54)	3.07	(0.57)	2.98	(0.63)	3.12	(0.57)	
		중등(중기 청소년)(b)	3,404	3.02	(0.47)	3.07	(0.50)	2.93	(0.55)	3.06	(0.52)	
		고등(중기 청소년)(c)	3,966	2.97	(0.42)	3.01	(0.46)	2.88	(0.49)	3.03	(0.47)	
		대학(후기 청소년)(d)	1,000	2.96	(0.32)	2.96	(0.36)	2.91	(0.39)	3.01	(0.36)	
		전체	11,284	3.01	(0.47)	3.04	(0.50)	2.92	(0.54)	3.06	(0.50)	
		$F_{값}$		21.755** a=b)c=d		20.094** a=b)c)d		17.680** a)b=c=d		24.033** a)b)d, a)c		
	학업 성취도 수준	상(a)	2,199	3.17	(0.47)	3.15	(0.50)	3.13	(0.55)	3.23	(0.50)	
		중(b)	6,357	3.00	(0.45)	3.03	(0.49)	2.91	(0.52)	3.05	(0.49)	
		하(c)	2,382	2.90	(0.46)	2.98	(0.49)	2.78	(0.53)	2.93	(0.51)	
		전체	10,938	3.01	(0.47)	3.04	(0.50)	2.93	(0.54)	3.06	(0.50)	
		$F_{값}$		212.437** a)b)c		77.365** a)b)c		258.165** a)b)c		208.647** a)b)c		
	부모 특성	부의 학력	고졸 이하(a)	2,881	2.99	(0.43)	3.03	(0.47)	2.89	(0.50)	3.04	(0.46)
			전문대 졸(b)	876	3.04	(0.46)	3.06	(0.49)	2.96	(0.55)	3.09	(0.49)
대졸 이상(c)			3,898	3.09	(0.45)	3.10	(0.48)	3.02	(0.52)	3.14	(0.48)	
전체			7,655	3.05	(0.44)	3.07	(0.48)	2.97	(0.52)	3.10	(0.48)	
$F_{값}$				42.856** c)b)a		20.883** c)a=b		52.279** c)b)a		33.285** c)b)a		
모의 학력			고졸 이하(a)	3,648	2.99	(0.43)	3.04	(0.47)	2.90	(0.51)	3.05	(0.47)
		전문대 졸(b)	978	3.03	(0.45)	3.05	(0.47)	2.95	(0.54)	3.08	(0.48)	
		대졸 이상(c)	3,244	3.10	(0.44)	3.11	(0.48)	3.04	(0.51)	3.15	(0.47)	
		전체	7,870	3.04	(0.44)	3.07	(0.47)	2.96	(0.52)	3.09	(0.48)	
		$F_{값}$		52.405** c)a=b		22.777** c)a=b		66.941** c)b)a		41.384** c)b)a		

구분			사례수	대인관계역량		세부지표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M(SD)		M(SD)		M(SD)		M(SD)	
가구 특성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10,193	3.02	(0.46)	3.05	(0.49)	2.93	(0.54)	3.07	(0.50)
		한부모조손가정/기타	1,014	2.93	(0.48)	2.99	(0.51)	2.81	(0.54)	2.98	(0.53)
		전체	11,207	3.01	(0.46)	3.04	(0.49)	2.92	(0.54)	3.06	(0.50)
		F값		5.771**		3.101**		6.998**		5.405**	
	경제적 수준	상(a)	4,276	3.10	(0.46)	3.12	(0.50)	3.04	(0.54)	3.15	(0.50)
		중(b)	4,827	2.96	(0.45)	3.00	(0.49)	2.86	(0.53)	3.01	(0.49)
		하(c)	2,118	2.93	(0.45)	2.98	(0.48)	2.82	(0.53)	2.99	(0.50)
		전체	11,221	3.01	(0.46)	3.04	(0.49)	2.92	(0.54)	3.06	(0.50)
		F값		153.162**		82.514**		178.800**		119.006**	
				a)b=c		a)b=c		a)b=c		a)b)c	
	17개 시도	서울(a)	1,843	3.04	(0.48)	3.07	(0.51)	2.97	(0.55)	3.09	(0.52)
		부산(b)	765	3.06	(0.46)	3.10	(0.48)	2.97	(0.54)	3.12	(0.51)
		대구(c)	677	3.01	(0.44)	3.04	(0.47)	2.93	(0.52)	3.08	(0.47)
		인천(d)	598	3.06	(0.47)	3.08	(0.50)	2.97	(0.55)	3.13	(0.50)
		광주(e)	523	2.99	(0.43)	3.02	(0.48)	2.91	(0.48)	3.05	(0.45)
		대전(f)	497	3.02	(0.45)	3.05	(0.50)	2.94	(0.54)	3.06	(0.48)
		울산(g)	271	3.04	(0.44)	3.04	(0.49)	2.98	(0.50)	3.11	(0.46)
		경기(h)	2,287	3.01	(0.48)	3.05	(0.50)	2.92	(0.55)	3.05	(0.52)
		강원(i)	337	2.95	(0.44)	2.99	(0.49)	2.86	(0.53)	3.00	(0.49)
		충북(j)	308	3.02	(0.45)	3.07	(0.48)	2.90	(0.53)	3.08	(0.49)
		충남(k)	483	3.04	(0.48)	3.07	(0.51)	2.95	(0.56)	3.10	(0.51)
		세종(l)	25	3.10	(0.35)	3.13	(0.37)	3.07	(0.40)	3.11	(0.44)
		전북(m)	434	2.92	(0.44)	2.95	(0.47)	2.83	(0.51)	2.99	(0.48)
		전남(n)	458	2.98	(0.47)	3.01	(0.50)	2.92	(0.56)	3.02	(0.49)
		경북(o)	536	2.92	(0.47)	2.97	(0.49)	2.82	(0.53)	2.97	(0.50)
		경남(p)	830	2.96	(0.44)	3.00	(0.47)	2.87	(0.55)	3.01	(0.49)
		제주(q)	316	2.97	(0.50)	3.01	(0.52)	2.88	(0.58)	3.02	(0.54)
		전체	11,188	3.01	(0.47)	3.04	(0.49)	2.92	(0.54)	3.06	(0.50)
		F값		5.414** ¹⁾		4.076** ¹⁾		4.942** ¹⁾		4.994** ¹⁾	

주1)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p < .001$.

개인특성 변인에서 성별, 학교급, 학업성취도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청소년의 대인관계역량 평균이 2.98(SD=.48)이고, 여자 청소년의 대인관계역량 평균이 3.04(SD=.35)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대인관계 역량 평균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t=-6.516, p<.001$). 한편,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역량에 있어서도 남자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평균 점수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학교급(청소년 시기)에 따른 대인관계역량 차이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생(초기 청소년)과 중학생(중기 청소년)이 고등학생(중기 청소년)과 대학생(후기 청소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21.755, p<.001$).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인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역량 모두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평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증가할수록 청소년이 지각하는 대인관계역량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중기 및 후기 청소년이 대인관계역량 자체가 낮다고 해석하기는 다소 조심스럽다. 오히려 중기 및 후기 청소년이 진로준비 및 학업으로 초기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또래 혹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시간과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학교급(청소년 시기)에 따른 대인관계역량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업성취도 수준, 즉 학업성취도 상, 중, 하에 따라 대인관계역량 및 하위지표인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평균 점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학업성취도 상인 집단의 대인관계역량 평균은 $3.17(SD=.47)$ 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학업성취도 중인 집단($M=3.00, SD=.45$), 학업성취도 하인 집단($M=2.90, SD=.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취수준에 따라 학생들이 또래와 상호작용하고, 원만하게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며, 의사결정하는 능력 등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단순히 학업성적이 좋은 학생이 대인관계역량이 좋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높은 성취동기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룹 내에서 집단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부모특성변인에 있어서는 부의 학력과 모의 학력에 따라서 대인관계역량 및 하위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부의 학력 및 모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대인관계역량 및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평균 점수가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 즉,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청소년의 대인관계역량이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가구특성에 따라서는 가족구성특성, 경제적 수준에 따라 대인관계역량 및 하위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편, 17개 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했으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한부모·조손/기타 가정은 양부모 가정에 비해 대인관계역량과 하위역량인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평균 점수가 모두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경제적 수준이 상인 집단이 중 또는 하인 집단에 비해 대인관계역량과 하위역량인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평균 점수가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족이 해체된 집단과 소득이 낮은 집단의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역량이 전반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2)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관계형성 역량 차이분석

다음으로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에 있어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에 따른 차이분석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관계형성의 하위역량(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43>와 같다.

표 IV-43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관계형성 역량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관계형성		하위역량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M(SD)		M(SD)	M(SD)	M(SD)	M(SD)	M(SD)
청소년 특성	성별	남	6,237	3.01 (0.51)		3.04 (0.66)	2.91 (0.68)	3.00 (0.55)	3.10 (0.55)	
		여	5,047	3.08 (0.47)		3.14 (0.62)	2.91 (0.69)	3.08 (0.52)	3.19 (0.52)	
		전체	11,284	3.04 (0.50)		3.08 (0.64)	2.91 (0.68)	3.03 (0.54)	3.14 (0.54)	
		F값		-7.781**		-8.412**	-.386	-8.364**	-9.120**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a)	2,914	3.07 (0.57)		3.04 (0.71)	3.02 (0.72)	3.06 (0.61)	3.14 (0.61)	
		중등(중기 청소년)(b)	3,404	3.07 (0.50)		3.13 (0.64)	2.91 (0.69)	3.07 (0.54)	3.18 (0.53)	
		고등(중기 청소년)(c)	3,966	3.01 (0.46)		3.08 (0.62)	2.83 (0.66)	3.00 (0.51)	3.14 (0.51)	
		대학(후기 청소년)(d)	1,000	2.96 (0.36)		3.02 (0.50)	2.86 (0.51)	2.96 (0.41)	3.02 (0.44)	
		전체	11,284	3.04 (0.50)		3.08 (0.64)	2.91 (0.68)	3.03 (0.54)	3.14 (0.54)	
		F값		20.094** a=b>c/d		14.809** b>a, b>d, c>d	46.984** a>b>c, a>d	17.230** a=b>c=d	25.730** b>c>d, a>d	
	학업 성취도 수준	상(a)	2,199	3.15 (0.50)		3.14 (0.68)	3.05 (0.71)	3.17 (0.54)	3.24 (0.54)	
		중(b)	6,357	3.03 (0.49)		3.07 (0.64)	2.89 (0.68)	3.02 (0.53)	3.15 (0.53)	
		하(c)	2,382	2.98 (0.49)		3.07 (0.63)	2.84 (0.66)	2.95 (0.54)	3.07 (0.55)	
		전체	10,938	3.04 (0.50)		3.09 (0.64)	2.91 (0.68)	3.04 (0.54)	3.15 (0.54)	
		F값		77.365** a>b>c		9.112** a>b=c	66.748** a>b>c	101.822** a>b>c	59.298** a>b>c	
부모 특성	부의 학력	고졸 이하(a)	2,881	3.03 (0.47)		3.10 (0.62)	2.87 (0.67)	3.02 (0.52)	3.13 (0.52)	
		전문대 졸(b)	876	3.06 (0.49)		3.09 (0.64)	2.94 (0.68)	3.06 (0.52)	3.17 (0.53)	
		대졸 이상(c)	3,898	3.10 (0.48)		3.13 (0.63)	2.97 (0.67)	3.10 (0.52)	3.20 (0.52)	
		전체	7,655	3.07 (0.48)		3.12 (0.63)	2.93 (0.68)	3.07 (0.52)	3.17 (0.52)	
		F값		20.883** c>a=b		3.333*1)	20.150** b=c>a	21.841** c>a=b	17.389** c>a	
	모의 학력	고졸 이하(a)	3,648	3.04 (0.47)		3.10 (0.62)	2.88 (0.67)	3.03 (0.52)	3.14 (0.52)	
		전문대 졸(b)	978	3.05 (0.47)		3.09 (0.62)	2.92 (0.65)	3.05 (0.51)	3.14 (0.52)	
		대졸 이상(c)	3,244	3.11 (0.48)		3.14 (0.63)	2.98 (0.69)	3.11 (0.52)	3.21 (0.51)	
		전체	7,870	3.07 (0.47)		3.11 (0.63)	2.93 (0.68)	3.07 (0.52)	3.17 (0.52)	
		F값		22.777** c>a=b		3.843*1)	20.165** c>a=b	25.081** c>a=b	17.066** c>a=b	

구분			사례수	관계형성	하위역량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M(SD)	M(SD)	M(SD)	M(SD)	M(SD)	
가구 특성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10,193	3.05 (0.49)	3.08 (0.64)	2.91 (0.68)	3.04 (0.54)	3.15 (0.54)	
		한부모조손가정/기타	1,014	2.99 (0.51)	3.04 (0.66)	2.87 (0.67)	2.98 (0.56)	3.09 (0.54)	
		전체	11,207	3.04 (0.49)	3.08 (0.64)	2.91 (0.68)	3.03 (0.54)	3.14 (0.54)	
		F값		3.101**	1.889	1.740	3.380**	3.270**	
	경제적 수준	상(a)	4,276	3.12 (0.50)	3.14 (0.65)	3.01 (0.68)	3.11 (0.54)	3.20 (0.54)	
		중(b)	4,827	3.00 (0.49)	3.06 (0.62)	2.86 (0.67)	2.99 (0.54)	3.11 (0.53)	
		하(c)	2,118	2.98 (0.48)	3.02 (0.67)	2.82 (0.68)	2.98 (0.53)	3.10 (0.54)	
		전체	11,221	3.04 (0.49)	3.08 (0.64)	2.91 (0.68)	3.03 (0.54)	3.14 (0.54)	
		F값		82.514** a>b=c	32.994** a>b=c	84.147** a>b=c	73.263** a>b=c	39.828** a>b=c	
	17개 시도	서울(a)	1,843	3.07 (0.51)	3.11 (0.66)	2.94 (0.69)	3.07 (0.56)	3.17 (0.55)	
		부산(b)	765	3.10 (0.48)	3.15 (0.63)	2.96 (0.68)	3.09 (0.51)	3.21 (0.51)	
		대구(c)	677	3.04 (0.47)	3.09 (0.63)	2.89 (0.64)	3.03 (0.52)	3.14 (0.51)	
		인천(d)	598	3.08 (0.50)	3.12 (0.66)	2.92 (0.71)	3.08 (0.53)	3.19 (0.54)	
		광주(e)	523	3.02 (0.48)	3.01 (0.65)	2.91 (0.65)	3.03 (0.52)	3.11 (0.53)	
		대전(f)	497	3.05 (0.50)	3.08 (0.67)	2.93 (0.69)	3.02 (0.54)	3.16 (0.51)	
		울산(g)	271	3.04 (0.49)	3.09 (0.60)	2.92 (0.68)	3.03 (0.52)	3.13 (0.54)	
		경기(h)	2,287	3.05 (0.50)	3.09 (0.64)	2.92 (0.70)	3.04 (0.55)	3.14 (0.56)	
		강원(i)	337	2.99 (0.49)	3.07 (0.65)	2.82 (0.70)	2.99 (0.54)	3.10 (0.51)	
		충북(j)	308	3.07 (0.48)	3.13 (0.63)	2.91 (0.64)	3.05 (0.53)	3.19 (0.51)	
		충남(k)	483	3.07 (0.51)	3.10 (0.65)	2.88 (0.70)	3.09 (0.58)	3.20 (0.57)	
		세종(l)	25	3.13 (0.37)	3.16 (0.47)	3.06 (0.52)	3.13 (0.39)	3.16 (0.48)	
		전북(m)	434	2.95 (0.47)	2.99 (0.63)	2.82 (0.64)	2.94 (0.53)	3.04 (0.57)	
		전남(n)	458	3.01 (0.50)	3.02 (0.65)	2.90 (0.68)	2.99 (0.53)	3.13 (0.53)	
		경북(o)	536	2.97 (0.49)	3.04 (0.62)	2.87 (0.65)	2.93 (0.53)	3.07 (0.53)	
		경남(p)	830	3.00 (0.47)	3.03 (0.61)	2.88 (0.65)	2.99 (0.51)	3.10 (0.51)	
		제주(q)	316	3.01 (0.52)	3.04 (0.65)	2.86 (0.68)	3.02 (0.58)	3.12 (0.57)	
		전체	11,188	3.04 (0.49)	3.08 (0.64)	2.91 (0.68)	3.03 (0.54)	3.14 (0.54)	
		F값		4.076** ¹⁾	2.937** ¹⁾	1.975 ¹⁾	4.423** ¹⁾	3.970** ¹⁾	

주1) 사후검증으로 Scheffe검증을 실시한 결과,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p<.001$. ** $p<.01$.

개인특성 변인에서 성별, 학교급, 학업성취도수준에 따라 관계형성의 하위역량인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점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인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기초로 자신을 개방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고 이를 통해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학교급(청소년 시기)에 따른 관계형성의 하위역량 차이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초

기 청소년), 중학생(중기 청소년)이 고등학생(중기 청소년)과 대학생(후기 청소년)에 비해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비해 타인과 상호작용을 원만히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학업성취수준에 따라서도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역량의 차이가 있었는데, 학업성취수준이 높은 상인 집단 중, 하인 집단에 비해서 타인과의 친화적 관계형성을 잘 하기 위해 자신을 개방하고,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의사소통하며, 타인을 수용 및 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초등학생 및 중학생이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비해, 학업성취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타인과의 친화적 관계형성을 하는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특성변인에 있어서는 부의 학력과 모의 학력에 따라서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역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방성을 F검증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집단별로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의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고졸 이하보다 친화성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대졸 이상인 집단이 전문대졸 이하인 집단보다 의사소통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대졸 이상인 집단이 고졸 이하인 집단보다 공감 및 배려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즉, 부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집단에서 특히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역량이 낮았다. 또한, 모의 학력에 따라서는 모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집단이 전문대졸 이하인 집단보다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역량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의 학력이 고졸 이하, 모의 학력이 전문대졸 이하로 부모의 학력이 낮은 집단의 청소년들이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역량이 낮았다.

가족특성에 따라서는 가족구성특성, 경제적 수준에 따라 관계형성의 하위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편, 17개 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기는 했으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한부모·조손/기타 가정은 양부모 가정에 비해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역량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경제적 수준이 상인 집단이 중 또는 하인 집단에 비해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역량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족이 해체된 집단의 경우 타인과의 의사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저조함을 알 수 있고,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들이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전반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3)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리더십 역량 차이분석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리더십의 하위역량(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44>와 같다.

표 IV-44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리더십 역량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리더십		하위역량						
						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i>M(SD)</i>		<i>M(SD)</i>		<i>M(SD)</i>		<i>M(SD)</i>		
청소년 특성	성별	남	6,237	2.91	(0.56)	3.02	(0.60)	2.82	(0.65)	2.90	(0.59)	
		여	5,047	2.94	(0.52)	3.08	(0.56)	2.85	(0.63)	2.90	(0.56)	
		전체	11,284	2.92	(0.54)	3.05	(0.58)	2.83	(0.64)	2.90	(0.58)	
		<i>F값</i>		-2.989**		-5.071**		-3.089**		-.829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a)	2,914	2.98	(0.63)	3.08	(0.67)	2.89	(0.72)	2.97	(0.66)	
		중등(중기 청소년)(b)	3,404	2.93	(0.55)	3.06	(0.59)	2.84	(0.64)	2.90	(0.59)	
		고등(중기 청소년)(c)	3,966	2.88	(0.49)	3.03	(0.53)	2.78	(0.59)	2.85	(0.53)	
		대학(후기 청소년)(d)	1,000	2.91	(0.39)	3.00	(0.42)	2.86	(0.52)	2.88	(0.43)	
		전체	11,284	2.92	(0.54)	3.05	(0.58)	2.83	(0.64)	2.90	(0.58)	
		<i>F값</i>		17.680** a>b=c=d		6.278** a=b>d		16.663** a=b>d>c		24.412** a>b=c=d		
	학업 성취도 수준	상(a)	2,199	3.13	(0.55)	3.24	(0.59)	3.06	(0.66)	3.11	(0.59)	
		중(b)	6,357	2.91	(0.52)	3.04	(0.56)	2.81	(0.62)	2.89	(0.56)	
		하(c)	2,382	2.78	(0.53)	2.91	(0.58)	2.68	(0.62)	2.76	(0.57)	
		전체	10,938	2.93	(0.54)	3.05	(0.58)	2.83	(0.64)	2.90	(0.58)	
		<i>F값</i>		258.165** a>b>c		199.277** a>b>c		212.968** a>b>c		221.624** a>b>c		
	부모 특성	부의 학력	고졸 이하(a)	2,881	2.89	(0.50)	3.03	(0.54)	2.80	(0.60)	2.87	(0.54)
			전문대 졸(b)	876	2.96	(0.55)	3.07	(0.58)	2.85	(0.67)	2.95	(0.57)
대졸 이상(c)			3,898	3.02	(0.52)	3.15	(0.55)	2.94	(0.62)	3.00	(0.55)	
전체			7,655	2.97	(0.52)	3.09	(0.56)	2.88	(0.62)	2.94	(0.56)	
<i>F값</i>				52.279** c>b>a		40.320** c>a=b		44.379** c>a=b		44.951** b=c>a		
모의 학력		고졸 이하(a)	3,648	2.90	(0.51)	3.03	(0.55)	2.80	(0.61)	2.87	(0.55)	
		전문대 졸(b)	978	2.95	(0.54)	3.06	(0.58)	2.87	(0.63)	2.92	(0.57)	
		대졸 이상(c)	3,244	3.04	(0.51)	3.17	(0.54)	2.96	(0.62)	3.01	(0.55)	
		전체	7,870	2.96	(0.52)	3.09	(0.55)	2.88	(0.62)	2.93	(0.56)	
		<i>F값</i>		66.941** c>b>a		53.128** c>a=b		54.820** c>b>a		56.504** c>b>a		

구분			사례수	리더십		하위역량					
						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i>M(SD)</i>		<i>M(SD)</i>		<i>M(SD)</i>		<i>M(SD)</i>	
가구 특성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10,193	2.93	(0.54)	3.06	(0.58)	2.84	(0.64)	2.91	(0.58)
		한부모·조손가정/기타	1,014	2.81	(0.54)	2.95	(0.59)	2.71	(0.64)	2.78	(0.58)
		전체	11,207	2.92	(0.54)	3.05	(0.58)	2.83	(0.64)	2.90	(0.58)
		<i>F</i> 값		6.998**		5.454**		6.470**		6.927**	
	경제적 수준	상(a)	4,276	3.04	(0.54)	3.15	(0.57)	2.97	(0.63)	3.02	(0.57)
		중(b)	4,827	2.86	(0.53)	2.99	(0.57)	2.76	(0.62)	2.84	(0.57)
		하(c)	2,118	2.82	(0.53)	2.98	(0.58)	2.72	(0.62)	2.79	(0.56)
		전체	11,221	2.92	(0.54)	3.05	(0.58)	2.83	(0.64)	2.90	(0.58)
		<i>F</i> 값		178.800**		111.146**		167.162**		161.609**	
	17개 시도	서울(a)	1,843	2.97	(0.55)	3.10	(0.59)	2.89	(0.65)	2.94	(0.59)
		부산(b)	765	2.97	(0.54)	3.09	(0.57)	2.87	(0.64)	2.96	(0.58)
		대구(c)	677	2.93	(0.52)	3.05	(0.55)	2.81	(0.61)	2.92	(0.55)
		인천(d)	598	2.97	(0.55)	3.10	(0.59)	2.88	(0.64)	2.94	(0.59)
		광주(e)	523	2.91	(0.48)	3.04	(0.52)	2.83	(0.58)	2.88	(0.52)
		대전(f)	497	2.94	(0.54)	3.09	(0.56)	2.84	(0.64)	2.91	(0.57)
		울산(g)	271	2.98	(0.50)	3.08	(0.55)	2.90	(0.60)	2.97	(0.53)
		경기(h)	2,287	2.92	(0.55)	3.05	(0.59)	2.84	(0.65)	2.89	(0.59)
		강원(i)	337	2.86	(0.53)	2.99	(0.54)	2.77	(0.64)	2.84	(0.56)
		충북(j)	308	2.90	(0.53)	3.02	(0.58)	2.82	(0.63)	2.88	(0.57)
		충남(k)	483	2.95	(0.56)	3.09	(0.63)	2.85	(0.64)	2.93	(0.59)
		세종(l)	25	3.07	(0.40)	3.09	(0.42)	3.02	(0.53)	3.09	(0.47)
		전북(m)	434	2.83	(0.51)	2.94	(0.56)	2.76	(0.60)	2.81	(0.55)
		전남(n)	458	2.92	(0.56)	3.03	(0.59)	2.83	(0.64)	2.90	(0.59)
		경북(o)	536	2.82	(0.53)	2.94	(0.58)	2.72	(0.62)	2.80	(0.55)
		경남(p)	830	2.87	(0.55)	2.98	(0.58)	2.76	(0.64)	2.87	(0.58)
		제주(q)	316	2.88	(0.58)	2.99	(0.61)	2.80	(0.66)	2.85	(0.60)
		전체	11,188	2.92	(0.54)	3.05	(0.58)	2.83	(0.64)	2.90	(0.58)
		<i>F</i> 값		4.942** ⁽¹⁾		5.183** ⁽¹⁾		3.901** ⁽¹⁾		4.110** ⁽¹⁾	

주1) 사후검정으로 Scheffe검증을 실시한 결과,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p < .001$.

개인특성 변인에서 성별, 학교급, 학업성취도수준에 따라 리더십의 하위역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의사결정, 집단활동 관리 역량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이 속한 그룹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역할을 분배하고 의견을 조정하는 등의 집단활동 관리 역량이 높고,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추진하는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학교급(청소년 시기)에 따른 리더십의 하위역량 차이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생(초기 청소년), 중학생(중기 청소년)은 대학생(후기 청소년)에 비해 의사결정 역량 점수가 유의하게 높고, 초·중·고등학생(초기 및 중기 청소년)은 대학생(후기 청소년)에 비해 집단활동관리 역량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초등학생(초기 청소년)이 중고등학생(중기 청소년) 및 대학생(후기

청소년)에 비해 추진력 역량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학교급이 낮은 집단이 자신이 그룹 활동을 할 때 효율적으로 의사결정하고, 구성원의 역할을 분배하고 의견조정하며,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추진한다고 인식하는 것을 보여 준다.

한편, 학업성취수준에 따라서도 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의 차이가 있었는데,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리더십의 하위역량인 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역량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성적이 높은 청소년들이 그룹 활동 시 의사결정하는 역량, 구성원의 역할을 분배하고 의견조정하는 역량,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추진하는 역량이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종합컨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학교급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학업성취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리더십 역량이 전반적으로 높음이 확인되었다.

부모특성변인에 있어서는 부의 학력과 모의 학력에 따라서 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는 전문대졸 이하보다 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역량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에는 고졸 이하보다 추진력 역량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즉, 부의 학력이 대졸 이상으로 높은 청소년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등 리더십 역량이 높았다. 마찬가지로 모의 학력에 따라서도 모의 학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등 리더십 역량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족특성에 따라서는 가족구성특성, 경제적 수준에 따라 리더십의 하위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편, 17개 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기는 했으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한부모·조손/기타 가정은 양부모 가정에 비해 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역량이 유의하게 낮았다. 한편,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경제적 수준이 상인 집단이 중 또는 하인 집단에 비해 의사결정 역량이 유의하게 높았고, 집단활동관리 및 추진력 역량은 경제적 수준이 상, 중, 하인 집단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족이 해체된 청소년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의 청소년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룹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4)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협동 역량 차이분석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협동의 하위역량(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45>와 같다.

표 IV-45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협동 역량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협동		하위역량			
						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	
				M(SD)		M(SD)	M(SD)	M(SD)	
청소년 특성	성별	남	6,237	3.03 (0.52)		3.00 (0.57)	3.12 (0.59)	3.02 (0.56)	
		여	5,047	3.10 (0.48)		3.04 (0.53)	3.20 (0.56)	3.10 (0.51)	
		전체	11,284	3.06 (0.50)		3.02 (0.55)	3.16 (0.58)	3.05 (0.54)	
		F값		-7.054**		-4.476**	-7.893**	-7.891**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a)	2,914	3.12 (0.57)		3.10 (0.62)	3.22 (0.63)	3.09 (0.62)	
		중등(중기 청소년)(b)	3,404	3.06 (0.52)		3.02 (0.57)	3.16 (0.58)	3.06 (0.55)	
		고등(중기 청소년)(c)	3,966	3.03 (0.47)		2.97 (0.51)	3.13 (0.55)	3.03 (0.50)	
		대학(후기 청소년)(d)	1,000	3.01 (0.36)		2.98 (0.41)	3.05 (0.49)	3.03 (0.40)	
		전체	11,284	3.06 (0.50)		3.02 (0.55)	3.16 (0.58)	3.05 (0.54)	
		F값		24.033** a>b>d, a>c		35.679** a>b=c=d	25.088** a>b=c>d	7.109** a>c>d	
	학업 성취도 수준	상(a)	2,199	3.23 (0.50)		3.19 (0.56)	3.36 (0.56)	3.20 (0.54)	
		중(b)	6,357	3.05 (0.49)		3.01 (0.54)	3.15 (0.56)	3.04 (0.53)	
		하(c)	2,382	2.93 (0.51)		2.90 (0.55)	2.99 (0.59)	2.94 (0.54)	
		전체	10,938	3.06 (0.50)		3.02 (0.55)	3.16 (0.58)	3.05 (0.54)	
		F값		208.647** a>b>c		164.322** a>b>c	235.941** a>b>c	146.487** a>b>c	
부모 특성	부의 학력	고졸 이하(a)	2,881	3.04 (0.46)		3.00 (0.52)	3.14 (0.55)	3.03 (0.50)	
		전문대 졸(b)	876	3.09 (0.49)		3.04 (0.54)	3.19 (0.56)	3.08 (0.52)	
		대졸 이상(c)	3,898	3.14 (0.48)		3.09 (0.54)	3.24 (0.56)	3.13 (0.52)	
		전체	7,655	3.10 (0.48)		3.05 (0.53)	3.20 (0.56)	3.09 (0.51)	
		F값		33.285** c>b>a		24.012** c>a=b	27.534** c>b>a	31.413** c>b>a	
	모의 학력	고졸 이하(a)	3,648	3.05 (0.47)		3.00 (0.53)	3.15 (0.56)	3.04 (0.51)	
		전문대 졸(b)	978	3.08 (0.48)		3.05 (0.52)	3.17 (0.56)	3.07 (0.51)	
		대졸 이상(c)	3,244	3.15 (0.47)		3.10 (0.53)	3.25 (0.56)	3.14 (0.51)	
		전체	7,870	3.09 (0.48)		3.05 (0.53)	3.19 (0.56)	3.09 (0.51)	
		F값		41.384** a>b>c		31.425** a>b>c	33.381** a>b=c	37.434** a>b=c	

구분			사례수	협동		하위역량			
						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	
				M(SD)		M(SD)	M(SD)	M(SD)	
가구 특성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10,193	3.07 (0.50)		3.03 (0.55)	3.16 (0.58)	3.06 (0.53)	
		한부모·조손가정/기타	1,014	2.98 (0.53)		2.94 (0.57)	3.07 (0.59)	2.97 (0.58)	
		전체	11,207	3.06 (0.50)		3.02 (0.55)	3.16 (0.58)	3.05 (0.54)	
		F값		5.405**		4.817**	4.949**	5.046**	
	경제적 수준	상(a)	4,276	3.15 (0.50)		3.12 (0.55)	3.25 (0.56)	3.14 (0.53)	
		중(b)	4,827	3.01 (0.49)		2.96 (0.54)	3.11 (0.57)	3.01 (0.53)	
		하(c)	2,118	2.99 (0.50)		2.95 (0.55)	3.08 (0.59)	2.98 (0.55)	
		전체	11,221	3.06 (0.50)		3.02 (0.55)	3.16 (0.58)	3.05 (0.54)	
		F값		119.006**		108.911**	90.794**	90.798**	
				a)b=c		a)b=c	a)b=c	a)b=c	
	17개 시도	서울(a)	1,843	3.09 (0.52)		3.05 (0.56)	3.19 (0.59)	3.08 (0.55)	
		부산(b)	765	3.12 (0.51)		3.08 (0.55)	3.20 (0.57)	3.13 (0.55)	
		대구(c)	677	3.08 (0.47)		3.04 (0.52)	3.16 (0.56)	3.08 (0.50)	
		인천(d)	598	3.13 (0.50)		3.10 (0.55)	3.21 (0.59)	3.11 (0.53)	
		광주(e)	523	3.05 (0.45)		3.01 (0.50)	3.14 (0.55)	3.04 (0.49)	
		대전(f)	497	3.06 (0.48)		3.02 (0.52)	3.17 (0.56)	3.05 (0.52)	
		울산(g)	271	3.11 (0.46)		3.05 (0.52)	3.21 (0.53)	3.13 (0.47)	
		경기(h)	2,287	3.05 (0.52)		3.00 (0.57)	3.16 (0.59)	3.04 (0.56)	
		강원(i)	337	3.00 (0.49)		2.96 (0.54)	3.09 (0.56)	3.00 (0.54)	
		충북(j)	308	3.08 (0.49)		3.03 (0.53)	3.18 (0.57)	3.09 (0.52)	
		충남(k)	483	3.10 (0.51)		3.06 (0.56)	3.18 (0.60)	3.10 (0.55)	
		세종(l)	25	3.11 (0.44)		3.06 (0.46)	3.12 (0.53)	3.15 (0.47)	
		전북(m)	434	2.99 (0.48)		2.95 (0.53)	3.07 (0.58)	2.98 (0.52)	
		전남(n)	458	3.02 (0.49)		2.98 (0.55)	3.12 (0.56)	3.01 (0.52)	
		경북(o)	536	2.97 (0.50)		2.92 (0.55)	3.10 (0.59)	2.96 (0.53)	
		경남(p)	830	3.01 (0.49)		2.98 (0.54)	3.09 (0.59)	2.99 (0.51)	
		제주(q)	316	3.02 (0.54)		3.00 (0.58)	3.11 (0.61)	3.00 (0.56)	
		전체	11,188	3.06 (0.50)		3.02 (0.55)	3.16 (0.58)	3.05 (0.54)	
		F값		4.994**i)		4.346**i)	3.408**i)	5.086**i)	

주1) 사후검증으로 Scheffe검증을 실시한 결과,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p<.001.

개인특성 변인에서 성별, 학교급, 학업성취도수준에 따라 협동의 하위역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 역량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성원을 격려하고 자신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집단에서 결정된 의견을 수용하는 경향이 강하며, 집단 구성원들과 지식 혹은 정보를 공유하는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학교급(청소년 시기)에 따른 협동의 하위역량 차이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생(초기 청소년)은 다른 집단에 비해 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 역량 점수가 모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간에는 집단축진 역량 점수가 차이가 없었으며,

중고등학생은 대학생보다 팔로워십 역량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고등학생은 대학생에 보다 갈등문제해결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즉, 학교급이 낮은 집단일수록 집단 내에서 구성원을 격려하고, 집단에서 결정된 의견을 수용하며, 집단 구성원들과 지식 혹은 정보를 공유한다고 인식했다.

한편, 학업성취수준에 따라서도 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의 차이가 있었는데, 학업성취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협동의 하위역량인 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 역량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학교급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학업성취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협동 역량이 전반적으로 높음이 확인되었다.

부모특성변인에 있어서는 부의 학력과 모의 학력에 따라서 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 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는 전문대졸 이하보다 집단축진 역량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부의 학력이 대졸 이상, 전문대졸, 고졸 이하의 순으로 팔로워십과 갈등문제해결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의 학력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집단 구성원들과 협력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의 학력에 따른 협동 하위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집단축진에 있어서는 대졸이상, 전문대졸, 고졸 이하의 순으로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팔로워십과 갈등문제해결에 있어서는 대졸이상이 전문대졸 이하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부모의 학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청소년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집단 구성원들과 협력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협동 역량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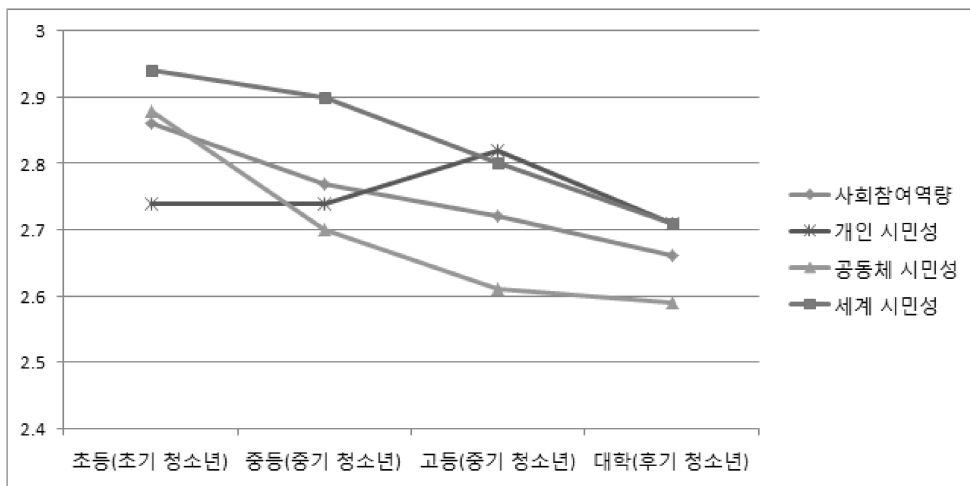
가구특성에 따라서는 가족구성특성, 경제적 수준에 따라 협동의 하위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편, 17개 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기는 했으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한부모·조손/기타 가정은 양부모 가정에 비해 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 역량이 유의하게 낮았다. 한편,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경제적 수준이 상인 집단이 중 또는 하인 집단에 비해 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 역량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과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집단 내에서 구성원을 격려하고, 집단에서 결정된 의견을 수용하며, 집단 구성원들과 지식 혹은 정보를 공유하는 경향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6)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지수의 기술통계 및 차이 분석⁵⁾

(1)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기술통계 및 차이분석

표 IV-46 청소년 시기에 따른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기술통계분석 결과

	사회참여역량	구성 요인		
		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세계 시민성
전체	2.76	2.77	2.71	2.85
초등(초기 청소년)	2.86	2.74	2.88	2.94
중등(중기 청소년)	2.77	2.74	2.70	2.90
고등(중기 청소년)	2.72	2.82	2.61	2.80
대학(후기 청소년)	2.66	2.71	2.59	2.71



【그림 IV-25】 청소년 시기 따른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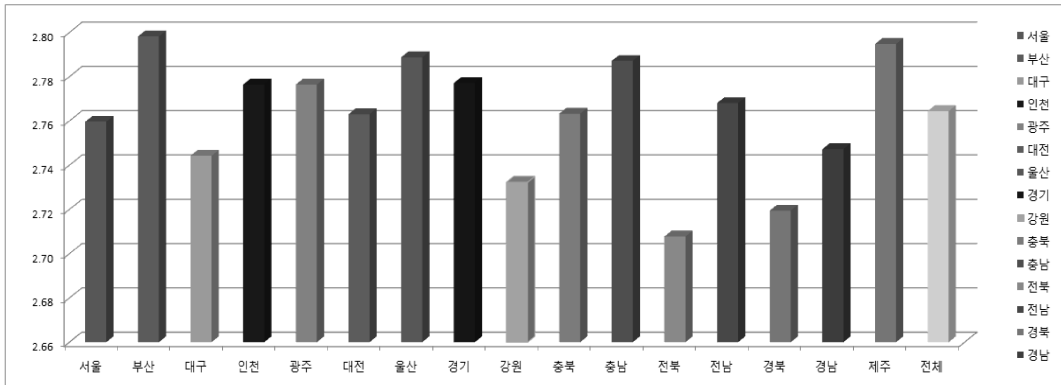
5) 이 부분은 협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인 김태준 박사(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가 책임 집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협동 연구 보고서 김태준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개발 및 국제비교연구 II: ICCS 2016-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분석 보고서’를 참고바라며, 본 장은 김태준 (2015)의 보고서 내용 중 결과부분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음.

(2)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의 지역별 기초통계분석

○ 사회참여역량 지역별 전체 평균 차이

표 IV-47 지역별 사회참여역량 평균 차이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평점	2.76	2.80	2.74	2.78	2.78	2.76	2.79	2.78	2.73	2.76	2.79	2.71	2.77	2.72	2.75	2.79	2.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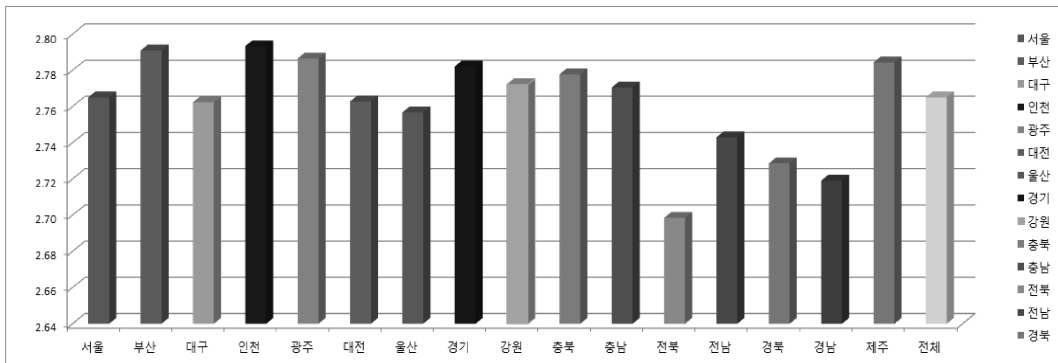


【그림 IV-26】 지역별 사회참여역량 평균 차이

○ 개인시민성 지역별 평균 차이

표 IV-48 지역별 개인시민성 평균 차이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평점	2.77	2.79	2.76	2.79	2.79	2.76	2.76	2.78	2.77	2.78	2.77	2.70	2.74	2.73	2.72	2.78	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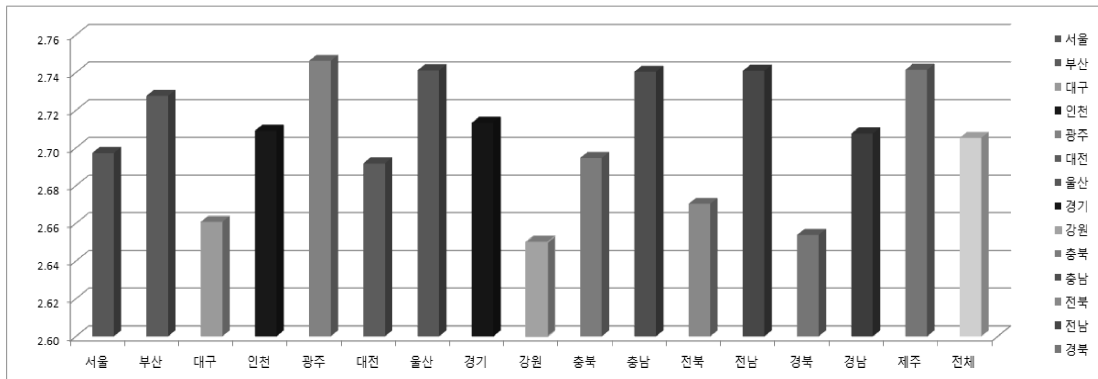


【그림 IV-27】 지역별 개인시민성 평균 차이

○ 공동체 시민성 지역별 평균 차이

표 IV-49 지역별 공동체 시민성 평균차이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평점	2.70	2.73	2.66	2.71	2.75	2.69	2.74	2.71	2.65	2.69	2.74	2.67	2.74	2.65	2.71	2.74	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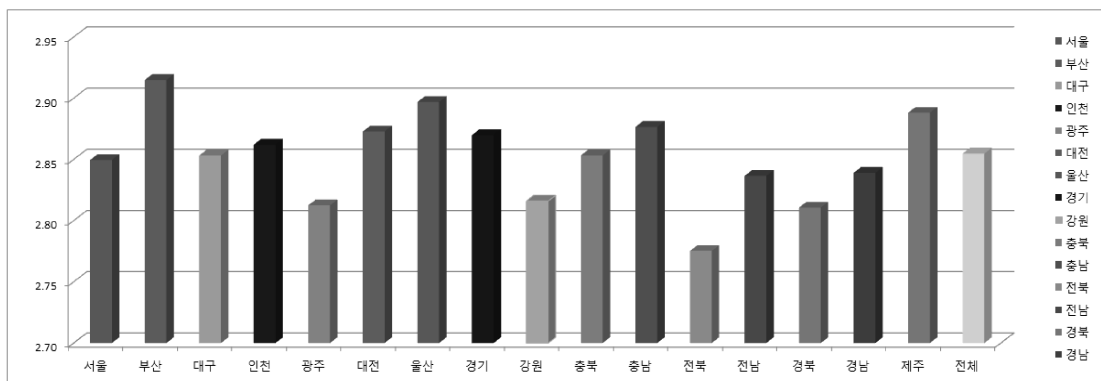


【그림 IV-28】 지역별 공동체 시민성 평균 차이

○ 세계 시민성 지역별 평균 차이

표 IV-50 지역별 세계시민성 평균 차이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평점	2.85	2.91	2.85	2.86	2.81	2.87	2.90	2.87	2.82	2.85	2.88	2.78	2.84	2.81	2.84	2.89	2.85



【그림 IV-29】 지역별 세계시민성 평균 차이

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은 청소년의 발달시기에 따른 역량의 변화와 이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청소년의 역량 발달에 어떠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1)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의 심층분석 결과

(1)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에 있어 청소년 시기와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과의 상호작용 차이 분석⁶⁾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은 특정 시기의 발달과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적으로 발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은 청소년을 둘러싼 내외적인 환경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하게 된다. 이에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의 발달에 있어 청소년 둘러싼 환경변인에 있어 어떠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이 상호작용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에 있어 청소년 시기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은 성별로 나타났으며, 본 절에서는 청소년 시기에 따른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①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생애학습역량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

청소년 시기에 따른 생애학습역량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상호작용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표 IV-51>에 제시하였다.

6) 청소년의 발달시기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변화를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에 따라 살펴보기 위하여 상호작용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의 발달시기에 있어 성별에 따른 변화만이 상호작용효과로서 그 변화추이가 나타났고, 다른 인구통계학적 변인, 즉 학업성취도 수준, 부모의 학력수준, 가족구성, 가정 경제적 수준, 그리고 거주지역 등의 변인에 있어서는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청소년의 발달시기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변화는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를 제시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효과의 변화가 청소년 역량발달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IV-51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기초통계분석 결과

청소년 시기	성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초기 청소년 (초등학생)	남자	1512	2.97	0.43
	여자	1402	3.00	0.39
	전체	2914	2.98	0.41
중기 청소년 1 (중학생)	남자	1685	2.92	0.39
	여자	1719	2.91	0.35
	전체	3404	2.91	0.37
중기 청소년 2 (고등학생)	남자	2541	2.89	0.36
	여자	1425	2.84	0.31
	전체	3966	2.87	0.34
후기 청소년 (대학생)	남자	499	2.95	0.28
	여자	501	2.87	0.26
	전체	1000	2.91	0.28
전체	남자	6237	2.93	0.38
	여자	5047	2.91	0.35
	전체	11284	2.92	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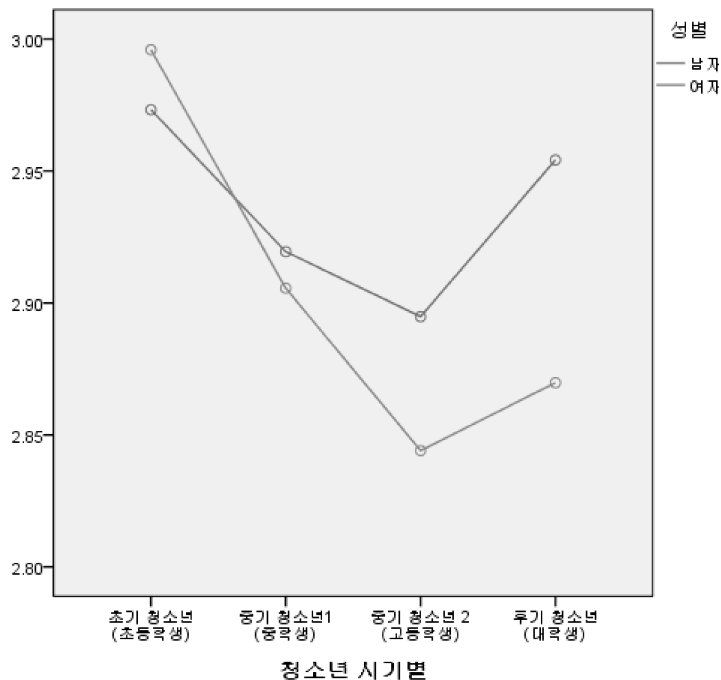
<표 IV-51>에 의하면, 초기 청소년(초등학생)의 생애학습역량 평균은 1.98(SD=.41), 중기 청소년 1(중학생)의 평균은 2.91(SD=.37),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의 평균은 2.87(SD=.34), 후기 청소년(대학생)의 평균은 2.91(SD=.28)로 나타나, 초기 청소년(초등학생)의 생애학습역량이 가장 높고,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의 생애학습역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초기 청소년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높지만, 중기 청소년 1(중학생) 이후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그림 IV-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변화의 폭이 여자 청소년에게서 더 급격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청소년 시기에 따라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성별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IV-52>와 같다.

표 IV-52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주효과	26.063a	7	3.723	28.323**
간섭	76,246.415	1	76,246.415	579,995.382**
청소년 시기	22.532	3	7.511	57.131**
성별	2,231	1	2,231	16.971**
청소년 시기*성별	3,413	3	1,138	8.653**
잔차	1,526.649	11613	.131	
전체	100,409.378	11621		

<표 IV-52>에 의하면, 청소년 시기별 생애학습역량의 차이는 $F=57.131$,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차이도 $F=16.971$,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생애학습역량의 차이가 각각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차이가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F=8.653$,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시기에 따라 성별의 차이가 가산되어 생애학습역량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 발달에 있어서는 성별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여자 청소년에 대한 생애학습역량 발달에 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림 IV-30】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상호작용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시기에 따른 생애학습역량을 구성하는 역량, 즉 사고력, 지적도구활용능력, 그리고 학습적응성에 대한 상호작용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②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사고력 상호작용 분석 결과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라 생애학습역량의 사고력(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상호작용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표 IV-53>에 제시하였다.

표 IV-53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사고력의 기초통계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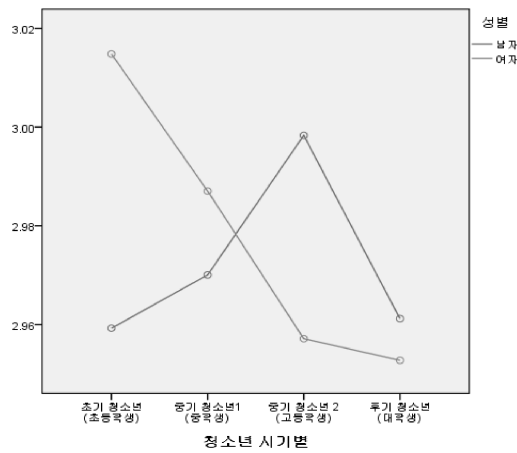
청소년 시기	성별	사례수	사고력					
			전체		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M	SD	M	SD	M	SD
초기 청소년 (초등학생)	남자	1512	2.96	0.45	2.98	0.51	2.91	0.54
	여자	1402	3.01	0.42	3.03	0.48	2.97	0.50
	전체	2914	2.99	0.44	3.01	0.49	2.94	0.52
중기 청소년 1 (중학생)	남자	1685	2.97	0.41	3.02	0.48	2.86	0.49
	여자	1719	2.99	0.36	3.01	0.43	2.93	0.44
	전체	3404	2.98	0.38	3.02	0.46	2.90	0.47
중기 청소년 2 (고등학생)	남자	2541	3.00	0.37	3.06	0.44	2.87	0.48
	여자	1425	2.96	0.34	2.98	0.40	2.92	0.45
	전체	3966	2.98	0.36	3.03	0.43	2.89	0.47
후기 청소년 (대학생)	남자	499	2.96	0.33	3.04	0.35	2.80	0.51
	여자	501	2.95	0.34	2.97	0.38	2.92	0.45
	전체	1000	2.96	0.33	3.00	0.37	2.86	0.48
전체	남자	6237	2.98	0.40	3.03	0.46	2.87	0.50
	여자	5047	2.98	0.37	3.00	0.43	2.94	0.46
	전체	11284	2.98	0.39	3.02	0.45	2.90	0.48

<표 IV-53>에 의하면, 사고력에 있어서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평균이 2.99(SD=.44)로 가장 높고, 후기 청소년(대학생) 평균이 2.96(SD=.33)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초기 청소년(초등학생)과 중기 청소년 1(중학생) 시기까지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높지만,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과 후기 청소년(대학생) 시기에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그림 IV-31】에서 사고력의 변화 추이를 보면, 성별에 따라 남자 청소년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변화 추세를 보이지만,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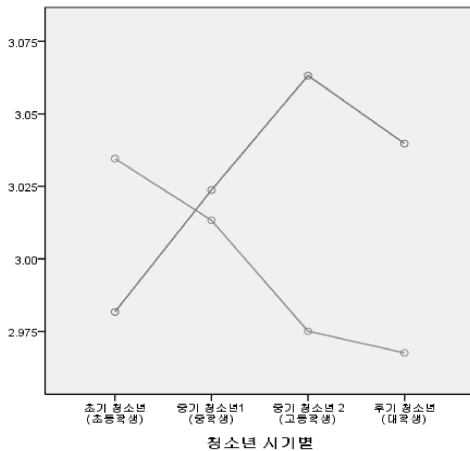
비판적 사고력에 있어서는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 평균이 3.03(SD=.43)으로 가장 높고, 대학생 평균이 3.00(SD=.3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높지만, 중기 청소년 1(중학생) 이후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31】에서 비판적 사고력의 변화 추이를 보면, 남자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상승하는 변화 추세를 보이지만, 여자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변화 추세를 보이고, 특히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 시기에는 비판적 사고력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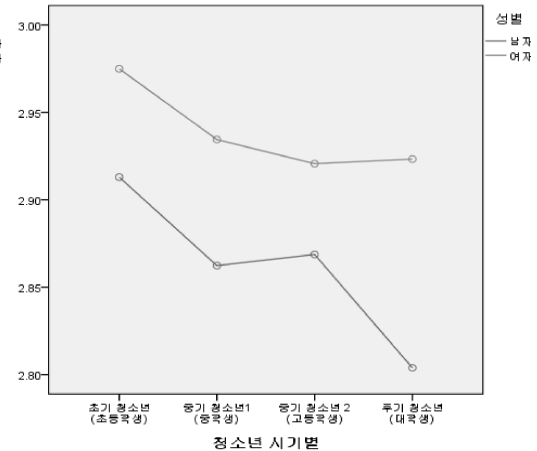
감성적 사고력에 있어서는 초기 청소년(초등학교) 평균이 2.94(SD=.52)로 가장 높고, 후기 청소년(대학생) 평균이 2.86(SD=.4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청소년 시기에 따라 감성적 사고력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감성적 사고력에 있어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현저하게 높으며, 오히려 후기 청소년(대학생) 시기에는 남녀의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고력(위)



비판적 사고력(좌)



감성적 사고력(우)

【그림 IV-31】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사고력의 상호작용

이와 같이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사고력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54>에 제시되었다.

표 IV-54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사고력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

구분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사고력	주효과	4.926	7	.704	4.758**
	간접	79173.817	1	79173.817	535329.991**
	청소년 시기	.726	3	.242	1.636
	성별	.073	1	.073	.496
	청소년 시기*성별	4.186	3	1.395	9.435**
	잔차	1717.826	11615	.148	
	전체	104903.663	11623		
비판적 사고력	주효과	12.352	7	1.765	8.841
	간접	81170.803	1	81170.803	406688.353
	청소년 시기	.389	3	.130	.649
	성별	1.943	1	1.943	9.733**
	청소년 시기*성별	9.228	3	3.076	15.412**
	잔차	2318.234	11615	.200	
	전체	108160.439	11623		
감성적 사고력	주효과	21.124	7	3.018	12.954**
	간접	75229.898	1	75229.898	322935.946**
	청소년 시기	6.882	3	2.294	9.847**
	성별	13.048	1	13.048	56.011**
	청소년 시기*성별	1.030	3	.343	1.474
	잔차	2705.552	11614	.233	
	전체	100675.833	11622		

<표 IV-54>에 의하면, 사고력에 있어서는 청소년 시기별 차이는 $F=1.636,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차이도 $F=.496,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사고력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를 보면, $F=9.43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시기에 따라 성별의 차이가 가산되어 사고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사고력 발달에 있어서 성별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여자 청소년에 대한 사고력 발달에 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비판적 사고력에 있어서는 청소년 시기별 차이는 $F=.649,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F=9.733,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시기별로는 비판적 사고력에 차이는 없지만 성별에 따른 비판적 사고력의 차이는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F=15.412$,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시기에 따라 성별의 차이가 가산되어 비판적 사고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력에 있어서 성별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청소년 시기별로 높게 나타나지만, 여자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여자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력에 대한 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감성적 사고력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 차이는 $F=9.847$,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차이도 $F=56.011$,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시기별과 성별에 따라 각각 독립적으로 감성적 사고력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를 보면, $F=1.474$,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시기에 따라 성별의 차이가 가산되어 감성적 사고력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에 있어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중기 청소년 1(중학생),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 후기 청소년(대학생) 순으로 차이가 나며,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감성적 사고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감성적 사고력에 있어서는 남자 청소년에 대한 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③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 상호작용 분석 결과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라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상호작용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표 IV-55>에 제시하였다.

표 IV-55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지적도구활용능력 상호작용 분석 결과

청소년 시기	성별	사례수	지적도구활용능력									
			전체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 활용능력	
			M	SD	M	SD	M	SD	M	SD	M	SD
초기 청소년 (초등학생)	남자	1512	2.98	0.48	2.74	0.58	3.03	0.68	3.05	0.65	3.11	0.67
	여자	1402	2.98	0.45	2.95	0.55	2.91	0.64	2.86	0.63	3.20	0.63
	전체	2914	2.98	0.47	2.84	0.58	2.98	0.67	2.96	0.65	3.15	0.65
중기 청소년 1 (중학생)	남자	1685	2.84	0.46	2.63	0.55	2.79	0.68	2.73	0.69	3.23	0.57
	여자	1719	2.81	0.42	2.71	0.53	2.69	0.63	2.53	0.63	3.35	0.54
	전체	3404	2.83	0.44	2.67	0.54	2.74	0.66	2.63	0.67	3.29	0.56
중기 청소년 2 (고등학생)	남자	2541	2.78	0.45	2.65	0.55	2.67	0.67	2.61	0.69	3.23	0.54
	여자	1425	2.73	0.40	2.67	0.52	2.53	0.61	2.42	0.66	3.31	0.53
	전체	3966	2.76	0.43	2.66	0.54	2.61	0.65	2.53	0.68	3.26	0.54
후기 청소년 (대학생)	남자	499	2.91	0.36	2.83	0.46	2.77	0.60	2.73	0.62	3.31	0.48
	여자	501	2.77	0.34	2.79	0.43	2.57	0.57	2.46	0.64	3.25	0.48
	전체	1000	2.84	0.36	2.81	0.44	2.67	0.59	2.60	0.65	3.28	0.48
전체	남자	6237	2.85	0.46	2.68	0.55	2.80	0.68	2.76	0.70	3.21	0.58
	여자	5047	2.82	0.43	2.77	0.53	2.69	0.64	2.58	0.67	3.29	0.56
	전체	11284	2.84	0.45	2.72	0.55	2.75	0.67	2.67	0.69	3.24	0.57

<표 IV-55>에 의하면, 지적도구활용능력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로는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평균이 2.98(SD=.47)로 가장 높고,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 평균이 2.76(SD=.43)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시기에는 남자와 여자 청소년이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중기 청소년 1(중학생) 이후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림 IV-32】에서 지적도구활용능력의 변화 추이를 보면, 성별에 따라 남녀 청소년 모두 초기-중기 청소년 까지 감소하는 추세는 보이고 후기 청소년이 되면 다시금 상승하는 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감소 추세는 여자 청소년의 변화가 남자 청소년 보다 크고, 후기 청소년 시기에는 현저하게 남자 청소년은 상승하고 여자 청소년은 소폭 상승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언어능력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로는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평균이 2.84(SD=.58)로 가장 높고,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 평균이 2.66(SD=.5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높지만,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 이후 후기 청소년(대학생)으로 넘어가면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언어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32】에서 언어능력의 변화 추이를 보면, 초기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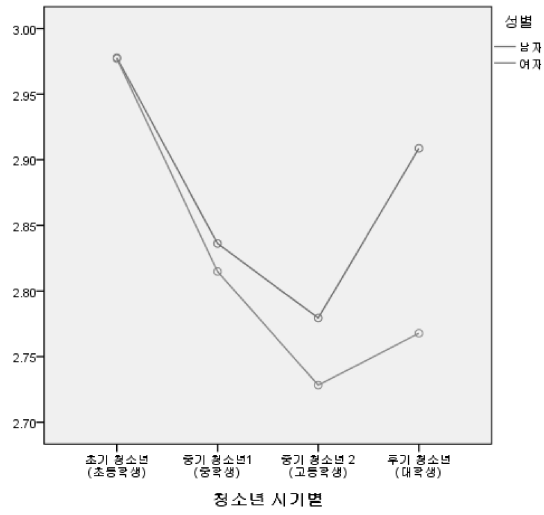
(초등학생)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언어능력이 현저하게 높지만, 중기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 그 간격이 좁아지고, 후기 청소년(대학생) 시기에는 남자 청소년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여자 청소년을 추월하는 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수학능력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로는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평균이 2.98(SD=.67)로 가장 높고,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 평균이 2.61(SD=.6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청소년 전체 시기에 걸쳐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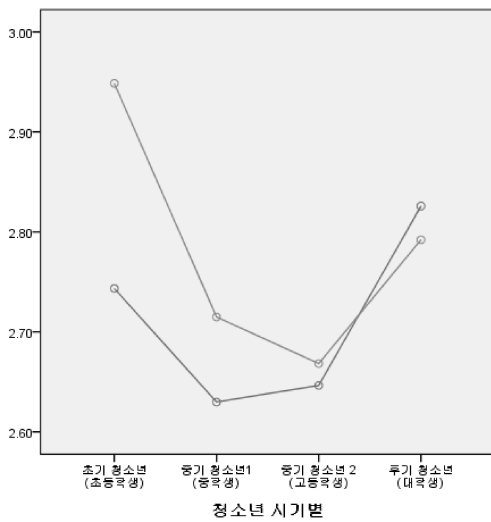
【그림 IV-32】에서 수학능력의 변화 추이를 보면,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시기부터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수학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 중기 청소년 시기까지 비슷한 변화의 폭으로 감소를 하지만 후기 청소년(대학생) 시기가 되면, 남녀 모두 상승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남자 청소년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면서 남녀간의 수학능력에 대한 차이는 보다 벌어지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과학능력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로는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평균이 2.96(SD=.65)로 가장 높고,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 평균이 2.53(SD=.6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수학능력과 동일하게 청소년 전체 시기에 걸쳐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3】에서 과학능력의 변화 추이를 보면,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시기부터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과학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 중기 청소년 시기까지 비슷한 변화의 폭으로 감소를 하지만 후기 청소년(대학생) 시기가 되면, 남녀 모두 상승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남자 청소년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면서 남녀간의 과학능력에 대한 차이는 보다 벌어지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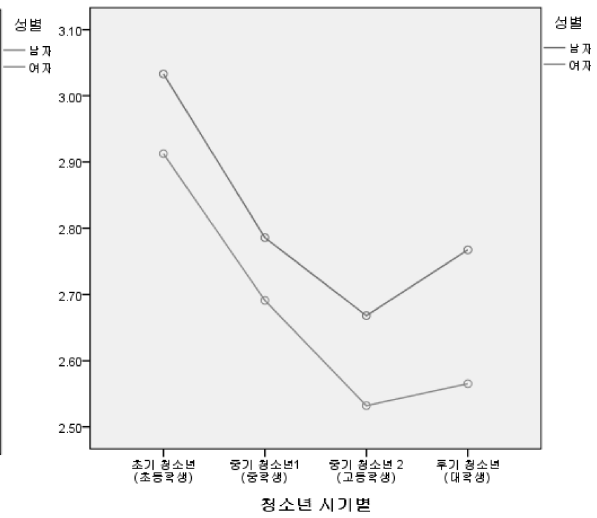
정보통신활용능력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로는 중기 청소년 1(중학생) 평균이 3.29(SD=.56)로 가장 높고,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평균이 3.15(SD=.6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높고, 중기 청소년 1(중학생) 시기에는 그 차이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되고, 후기 청소년(대학생)으로 넘어가면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정보통신활용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33】에서 정보통신활용능력의 변화 추이를 보면,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시기에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현저하게 높고, 중기 청소년 1(중학생) 시기에는 상승 변화가 남녀 모두 탁월하게 상승하는 변화를 보이고 특히, 여자 청소년의 정보통신활용능력 변화는 급속도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이후로는 현저하게 감소 추이를 보이면서 후기 청소년(대학생)이 되면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의 정보통신활용능력을 추월하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지적도구활용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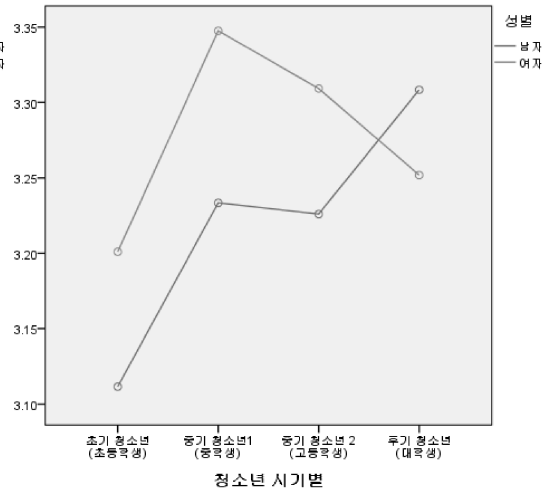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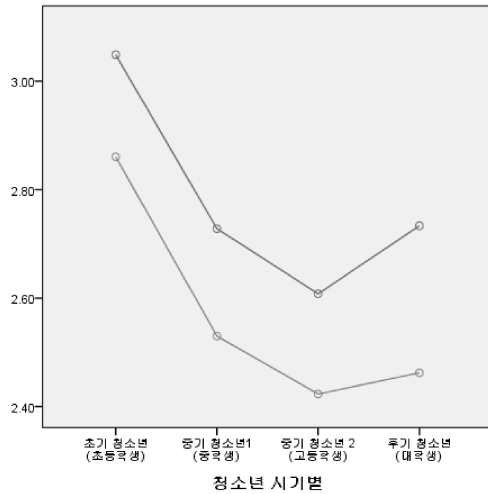


언어능력(좌)



수학능력(우)

【그림 IV-32】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지적도구활용능력의 상호작용



과학능력(좌) 정보통신활용능력(우)
【그림 IV-33】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지적도구활용능력의 상호작용(계속)

이와 같이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사고력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56>에 제시되었다.

표 IV-56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지적도구활용능력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

구분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지적도구활용능력	주효과	92.156	7	13.165	68.790**
	간섭	72593.583	1	72593.583	379311.328**
	청소년 시기	85.799	3	28.600	149.438**
	성별	6.414	1	6.414	33.512**
	청소년 시기*성별	4.351	3	1.450	7.578**
	잔차	2222.717	11614	.191	
	전체	96105.302	11622		
언어능력	주효과	114.906	7	16.415	56.974**
	간섭	67458.851	1	67458.851	234139.449**
	청소년 시기	78.335	3	26.112	90.630**
	성별	10.825	1	10.825	37.571**
	청소년 시기*성별	18.392	3	6.131	21.279**
	잔차	3346.156	11614	.288	
	전체	89569.397	11622		
수학능력	주효과	282.874	7	40.411	96.056**
	간섭	67373.222	1	67373.222	160147.278**
	청소년 시기	243.287	3	81.096	192.766**
	성별	42.806	1	42.806	101.751**
	청소년 시기*성별	2.554	3	.851	2.024
	잔차	4886.377	11615	.421	
	전체	92783.702	11623		

구분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과학능력	주효과	446,768	7	63.824	146.672**
	간섭	63975.680	1	63975.680	147020.904**
	청소년 시기	344,217	3	114,739	263.679**
	성별	99,224	1	99,224	228.024**
	청소년 시기*성별	1,731	3	.577	1.326
	잔차	5054,230	11615	.435	
	전체	88599,644	11623		
정보통신활용능력	주효과	58,185	7	8.312	25.850**
	간섭	94402,583	1	94402.583	293586.085**
	청소년 시기	33,332	3	11,111	34.553**
	성별	7,403	1	7,403	23.022**
	청소년 시기*성별	6,218	3	2,073	6.445**
	잔차	3734,802	11615	.322	
	전체	126153,389	11623		

*, $p<0.05$, **, $p<0.01$

<표 IV-56>에 의하면, 지적도구활용능력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 차이는 $F=149.438$,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차이도 $F=33.512$,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지적도구활용능력의 차이가 각각 독립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를 보면, $F=7.578$,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시기에 따라 성별의 차이가 가산되어 지적도구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지적도구활용능력 발달에 있어서 성별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여자 청소년이 후기 청소년(대학생) 시기에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추이를 보았을 때 후기 청소년 시기의 여자 청소년에 대한 지적도구활용능력 발달에 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언어능력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 차이는 $F=90.630$,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F=37.571$,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지적도구활용능력의 차이가 각각 독립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F=12279$,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시기에 따라 성별의 차이가 가산되어 언어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력에 있어서 성별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시기에 남자 청소년의 언어능력이 여자 청소년 보다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보다 더 필요하고, 반면 여자 청소년은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시기에는 높게 나타지만, 중기 청소년 1(중학교)시기

되면 현저하게 감소하는 변화 추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 또한 기울일 필요가 있다.

수학능력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 차이는 $F=192.766$,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F=101.751$,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과학능력의 차이가 각각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F=2.024$,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학능력은 청소년 시기에 따라 성별의 차이는 상호작용 효과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 시기 전체에 있어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수학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시기에는 높지만, 중기 청소년 시기(중고등학생)까지 감소하다 후기 청소년(대학생) 시기에 다시 상승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있어 남녀 차이는 줄어들지 않으며, 오히려 여자 청소년의 감소 변화의 폭이 더 크고 상승의 폭도 소폭으로 나타나는 만큼 여자 청소년에 대한 수학능력 발달에 보다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다.

과학능력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 차이는 $F=264.679$,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F=228.024$,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수학능력의 차이가 각각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F=1.326$,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학능력에 있어 청소년 시기에 따라 성별의 차이는 상호작용 효과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 시기 전체에 있어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과학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시기에는 높지만, 중기 청소년 시기(중고등학생)까지 감소하다 후기 청소년(대학생) 시기에 다시 상승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있어 남녀 차이는 줄어들지 않으며, 오히려 여자 청소년의 감소 변화의 폭이 더 크고 상승의 폭도 소폭으로 나타나는 만큼 여자 청소년에 대한 과학능력 발달에 보다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다.

정보통신활용능력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 차이는 $F=34.553,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F=23.022,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정보통신활용능력의 차이가 각각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F=6.445,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시기에 따라 성별의 차이가 가산되어 정보통신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자 청소년의 정보통신활용능력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변화 추이는 보이는 반면, 여자 청소년은 초기 청소년(초등학생)시기에서 중기 청소년 1(중학생) 시기에 급격하게 상승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후기 청소년(대학생) 시기에는 남자 청소년의 정보통신활용능력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초기에는 남자 청소년의 정보통신활용능력 향상에 관심을 두어야 하지만 청소년이 성장할수록 여자 청소년의 정보통신활용능력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④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 상호작용 분석 결과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라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변화수용,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상호작용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표 IV-57>에 제시하였다.

표 IV-57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학습적응성 상호작용 분석 결과

청소년 시기	성별	사례수	학습적응성							
			전체		변화수용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	
			M	SD	M	SD	M	SD	M	SD
초기 청소년 (초등학생)	남자	1512	2.98	0.52	2.79	0.63	3.32	0.60	2.88	0.66
	여자	1402	3.00	0.49	2.75	0.59	3.40	0.57	2.89	0.65
	전체	2914	2.99	0.50	2.77	0.61	3.36	0.59	2.89	0.66
중기 청소년 1 (중학생)	남자	1685	2.95	0.48	2.82	0.58	3.17	0.58	2.89	0.60
	여자	1719	2.91	0.45	2.77	0.54	3.18	0.56	2.83	0.57
	전체	3404	2.93	0.46	2.80	0.56	3.18	0.57	2.86	0.59
중기 청소년 2 (고등학생)	남자	2541	2.91	0.44	2.76	0.56	3.11	0.56	2.87	0.55
	여자	1425	2.85	0.40	2.66	0.52	3.09	0.54	2.81	0.50
	전체	3966	2.88	0.43	2.72	0.55	3.10	0.56	2.84	0.53
후기 청소년 (대학생)	남자	499	2.99	0.43	2.92	0.58	3.09	0.52	2.97	0.56
	여자	501	2.89	0.38	2.82	0.52	3.01	0.50	2.86	0.50
	전체	1000	2.94	0.41	2.87	0.55	3.05	0.51	2.92	0.54
전체	남자	6237	2.95	0.47	2.80	0.58	3.18	0.58	2.89	0.59
	여자	5047	2.91	0.44	2.74	0.55	3.19	0.57	2.84	0.57
	전체	11284	2.93	0.46	2.77	0.57	3.18	0.58	2.87	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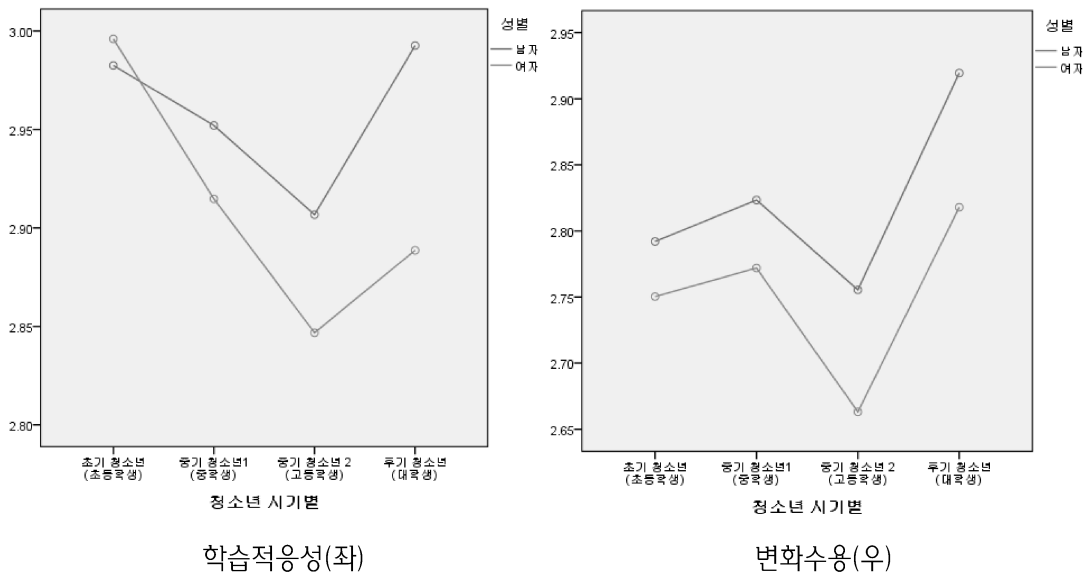
<표 IV-57>에 의하면, 학습적응성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로는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평균이 2.99(SD=.50)로 가장 높고,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 평균이 2.88(SD=.43)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시기에는 남자와 여자 청소년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중기 청소년 1(중학생) 이후 남녀 차이가 나타나고, 후기 청소년(대학생) 시기에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아져 그 차이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34】에서 학습적응성의 변화 추이를 보면, 성별에 따라 남녀 청소년이 초기에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중기 청소년(중고등학생) 까지 감소하는 추세 보이고, 후기 청소년이 되면 다시금 상승하는 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감소 추세는 여자 청소년의 변화가 남자 청소년 보다 큰 반면,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 이후 후기 청소년 시기(대학생)에 상승하는 변화는 남자 청소년이 매우 크게 나타나 그 차이가 현격하게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변화수용력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로는 후기 청소년(대학생) 평균이 2.87(SD=.55)로 가장 높고,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 평균이 2.72(SD=.5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청소년 전체 시기에 걸쳐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변화수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4】에서 변화수용의 변화 추이를 보면,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시기부터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변화수용이 높게 나타나고, 중기 청소년 1(중학교) 시기까지 상승 변화를 보이다가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 시기까지 감소 변화가 나타나고 후기 청소년(대학생) 시기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즉, 변화수용에 있어 남녀간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고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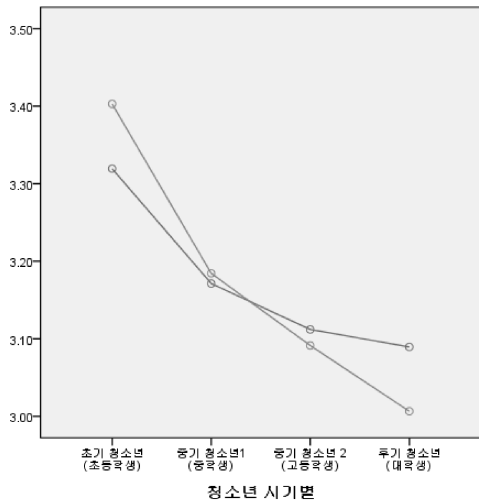
지적호기심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로는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평균이 3.36(SD=.59)로 가장 높고, 후기 청소년 2(대학생) 평균이 3.01(SD=.5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고, 후기 청소년(대학생) 시기에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35】에서 지적호기심의 변화 추이를 보면,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시기가 남녀 청소년의 지적호기심이 가장 높고 특히,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중기 청소년 1(중학교) 시기에 남녀 청소년 모두 지적호기심이 감소하는 변화 추이를 보이는데 여자 청소년의 감소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면서 남녀 청소년의 지적호기심이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러한 감소 변화는 지속적으로 나타났는데 여자 청소년의 감소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면서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 시기부터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게 나타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후기 청소년(대학생)이 되면 그 차이가 더 현격하게 벌어지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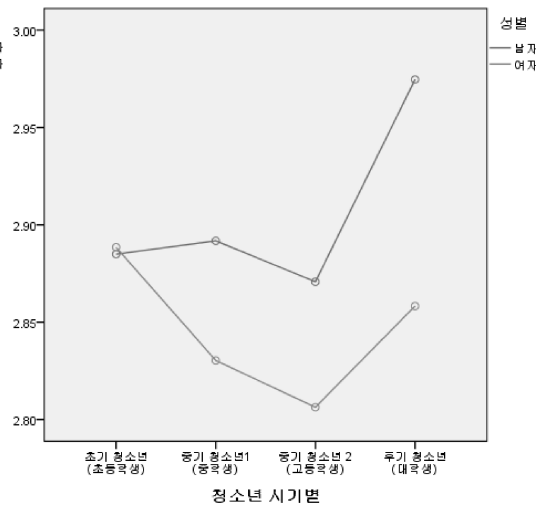
학습주도성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로는 후기 청소년(대학생) 평균이 2.92($SD=.54$)로 가장 높고,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 평균이 2.84($SD=.5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시기에는 남녀 청소년의 학습주도성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후기 청소년(대학생) 시기에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5】에서 학습주도성의 변화 추이를 보면,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시기에는 남녀 청소년이 비슷하지만, 중기 청소년 1(중학생)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의 학습주도성이 현격하게 감소하는 변화 추이를 보이고 남자 청소년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 시기에는 남녀 청소년 모두 감소하는 변화 추세는 보이지만 여자 청소년의 감소 변화는 더욱 심화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후기 청소년(대학생) 시기에는 남녀 모두 학습적응성이 상승하는 변화 추이를 가져오지만 남자 청소년의 상승 변화는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져 남녀 학습적응성에 대한 차이는 보다 현격하게 벌어지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그림 IV-34】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학습적응성의 상호작용



지적호기심(좌)



학습주도성(우)

【그림 IV-35】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학습적응성의 상호작용(계속)

이와 같이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학습적응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58>에 제시되었다.

표 IV-58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학습적응성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

구분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지승화	F
학습적응성	주효과	27.820	7	3.974	19.139**
	간섭	77053.474	1	77053.474	371063.473**
	청소년 시기	21.834	3	7.278	35.049**
	성별	4.926	1	4.926	23.724**
	청소년 시기*성별	3.617	3	1.206	5.806**
	잔차	2411.714	11614	.208	
	전체	102187.443	11622		
변화수용	주효과	39.998	7	5.714	17.743**
	간섭	69464.273	1	69464.273	215705.053**
	청소년 시기	28.191	3	9.397	29.180**
	성별	11.507	1	11.507	35.731**
	청소년 시기*성별	1.645	3	.548	1.703
	잔차	3740.098	11614	.322	
	전체	92902.250	11622		

구분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지적호기심	주효과	144.998	7	20.714	64.919**
	간섭	90007.566	1	90007.566	282090.396**
	청소년 시기	139.516	3	46.505	145.752**
	성별	.007	1	.007	.021
	청소년 시기*성별	7.285	3	2.428	7.611**
	잔차	3705.719	11614	.319	
	전체	121695.500	11622		
학습주도성	주효과	17.395	7	2.485	7.395**
	간섭	73970.994	1	73970.994	220114.001**
	청소년 시기	7.186	3	2.395	7.127**
	성별	7.962	1	7.962	23.693**
	청소년 시기*성별	3.623	3	1.208	3.593*
	잔차	3902.974	11614	.336	
	전체	99436.556	11622		

*.p<0.05, **.p<0.01

<표 IV-58>에 의하면, 학습적응성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 차이는 $F=39.049$,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차이도 $F=23.724$,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학습적응성의 차이가 각각 독립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를 보면, $F=5.806$,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시기에 따라 성별의 차이가 가산되어 학습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학습적응성은 청소년 시기별 차이에 있어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성별에 있어서는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시기에는 학습적응성이 남녀 청소년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중기 청소년 2(중학생) 이후에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학습적응성이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전체 청소년 시기에 있어 여자 청소년의 학습적응성에 대한 관심을 보다 더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변화수용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 차이는 $F=29.180$,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차이도 $F=35.731$,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변화수용의 차이가 각각 독립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를 보면, $F=1.703$,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시기에 따라 성별의 차이가 가산되어 변화수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변화수용은 청소년 시기별 차이에 있어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성별에 있어서는 청소년 시기별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학습적응성이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해서 가능하며, 변화수용에 있어 여자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보다 더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지적호기심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 차이는 $F=145.752$,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F=.024$,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시기별로 지적호기심에는 차이가 있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F=7.611$,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적호기심은 청소년 시기에 따라 성별의 차이가 상호작용 효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시기에는 남자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고,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 시기와 특히 후기 청소년(대학생)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의 지적호기심에 대한 관심이 보다 더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학습주도성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 차이는 $F=7.127$,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F=23.694$,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학습주도성의 차이가 각각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F=3.593$,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습주도성은 청소년 시기에 따라 성별의 차이가 상호작용 효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시기에는 남녀 청소년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중기 청소년(중고등학생) 이후 남녀 청소년의 학습주도성의 차이가 현격하게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중기 청소년(중고등학교) 이후에는 여자 청소년의 학습주도성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2)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분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발달에 있어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고, 이를 청소년 성장 시기별로 어떠한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본 절에서는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발달에 과연 어떠한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regression analysis)

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 역량군과 하위역량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였으며, 이때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하여 1단계 투입 독립변인을 청소년의 개인특성(성별 더미(남=1, 여=0), 학교급(청소년 시기)(초등학교(초기 청소년)=1, 중학교(중기 청소년)=2, 고등학교(중기 청소년)=3, 대학생(후기 청소년)=4), 학업성취도 수준(상=1, 중=2, 하=3))으로 하였으며, 2단계 투입 독립변인을 부모특성(부모의 학력(고졸이하=1, 전문대졸=2, 대졸이상=3)), 그리고 3단계 투입변인을 가구특성(가족구성 더미(양부모=1, 한부모/조손/기타가정=0), 경제적 수준(상=1, 중=2, 하=3), 거주지역 더미(도시크기)(대도시=1, 중소도시=0))으로 하였다

①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 분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59>에 제시되었다.

표 IV-59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

구분		생애학습역량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개인 특성	성별	.035	.050	4.248**	.035	.049	4.224*8	.034	.049	4.245**
	학교급(청소년 시기)	-.064	-.166	-14.145**	-.059	-.154	-13.181**	-.054	-.143	-12.213**
	학업성취도수준	.000	.003	.257	.000	.002	.211	.000	.001	.045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17	.116	7.636**	.014	.095	6.217**
	모의 학력				.010	.060	3.935**	.007	.045	2.971**
가구 특성	가족구성							.092	.073	7.718**
	경제적수준							-.059	-.121	-10.136**
	거주지역(도시크기)							.049	.063	5.469**
통계량	R ² (adj. R ²)	.030(.029)			.055(.055)			.073(.072)		
	R ² Change	.030			.025			.018		
	F	71.793**			82.080**			78.846**		

*,p<0.05, **,p<0.01

<표 IV-59>에 의하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model 3)은 $F=78.846$,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73$, adj. $R^2=.072$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을 살펴보면, 개인특성에서는 성별($B=.034$, $\beta=.039$, $t=4.245$, $p<.01$)이 정적영향을 미치고, 학교급(청소년 시기)($B=-.054$, $\beta=-.143$, $t=-12.213$,

$p<.01$)은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도 수준($B=.000$, $\beta=.001$, $t=.045$, $p>.05$)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생애학습역량이 높으며, 학교급(청소년 시기)에 따라서는 학교급(청소년 시기)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생애학습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특성에서는 부(아버지)의 학력($B=.014$, $\beta=.095$, $t=6.217$, $p<.01$)과 모(어머니)의 학력($B=.007$, $\beta=.045$, $t=2.971$, $p<.01$)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 가족구성($B=.092$, $\beta=.073$, $t=7.718$, $p<.01$)이 정적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수준($B=-.059$, $\beta=-.121$, $t=-10.136$, $p<.01$)은 부적영향을 미치며, 거주지역(도시/크기)($B=.049$, $\beta=.063$, $t=5.963$, $p<.01$)은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구성에서는 양부모일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생애학습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학교급(청소년 시기)($\beta=-.143$), 경제적 수준($\beta=-.121$), 부(아버지) 학력($\beta=.095$), 가족구성($\beta=.073$), 거주지역(도시/크기)($\beta=.063$), 성별($\beta=.049$), 모(어머니)학력($\beta=.045$)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사고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사고력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60>에 제시되었다.

표 IV-60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사고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사고력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001	-.001	-.100	.000	.000	-.023	-.001	-.001	-.064
	학교급	-.039	-.099	-8.318**	-.036	-.091	-7.620**	-.033	-.083	-6.985**
	학업성취도수준	.000	.003	.222	.000	.003	.240	.000	.001	.072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31	.080	5.230**	.026	.066	4.302**
	모의 학력				.017	.044	2.872*	.014	.034	2.255*
가구 특성	가족구성							.056	.042	4.432**
	경제적수준							-.041	-.080	-6.596**
	거주지역(도시/크기)							.044	.054	4.594**
통계량	R ² (adj. R ²)	.010(.009)			.022(.022)			.031(.030)		
	R ² Change	.010			.013			.009		
	F	23.172**			32.080**			32.453**		

*, $p<.05$, **, $p<.01$

<표 IV-60>에 의하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model 3)은 $F=32.453$,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31$, adj. $R^2=.030$ 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사고력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을 살펴보면, 개인특성에서는 성별($B=-.001$, $\beta=-.001$, $t=-.064$, $p>.05$)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학교급(청소년 시기)($B=-.033$, $\beta=-.083$, $t=-6.985$, $p<.01$)은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도 수준($B=.000$, $\beta=.001$, $t=.072$, $p>.05$)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급(청소년 시기)이 낮은 초등학교생(초기 청소년)일수록 사고력이 높고, 대학생(후기 청소년)일수록 사고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특성에서는 부(아버지)의 학력($B=.026$, $\beta=.066$, $t=4.302$, $p<.01$)과 모(어머니)의 학력($B=.014$, $\beta=.034$, $t=2.255$, $p<.05$)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사고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 가족구성($B=.056$, $\beta=.042$, $t=4.432$, $p<.01$)은 정적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수준($B=-.041$, $\beta=-.080$, $t=-6.596$, $p<.01$)은 부적영향을 미치며, 거주지역(도시크기)($B=.044$, $\beta=.054$, $t=4.594$, $p<.01$)은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구성에서는 양부모일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사고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의 사고력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학교급(청소년 시기)($\beta=-.080$), 경제적 수준($\beta=-.080$), 부(아버지) 학력($\beta=.066$), 거주지역(도시크기)($\beta=.054$), 가족구성($\beta=.042$), 모(어머니)학력($\beta=.034$)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비판적 사고력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61>에 제시되었다.

표 IV-61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비판적 사고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사고력-비판적 사고력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038	.044	3.683**	.037	.043	3.624**	.038	.043	3.700**
	학교급	-.035	-.074	-6.173**	-.029	-.062	-5.207**	-.025	-.053	-4.496**
	학업성취도수준	.000	.003	.232	.000	.003	.239	.000	.000	.035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39	.084	5.522**	.031	.067	4.444**
	모의 학력				.035	.075	4.950**	.030	.064	4.240**
가구 특성	가족구성							.098	.063	6.735**
	경제적수준							-.055	-.092	-7.646**
	거주지역(도시크기)							.062	.066	5.585**
통계량	R ² (adj. R ²)	.007(.007)			.028(.027)			.040(.039)		
	R ² Change	.007			.021			.012		
	F	16.933**			39.906**			41.807**		

*,p<0.05, **,p<0.01

<표 IV-61>에 의하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model 3)은 $F=41.807$,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40$, adj. $R^2=.039$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 비판적 사고력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을 살펴보면, 개인특성에서는 성별($B=.038$, $\beta=.043$, $t=3.700$, $p<.01$)이 정적영향을 미치고, 학교급(청소년 시기)($B=-.025$, $\beta=-.053$, $t=-4.496$, $p<.01$)은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도 수준($B=.000$, $\beta=.000$, $t=.035$, $p>.05$)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비판적 사고력이 높으며, 학교급(청소년 시기)에 따라서는 학교급(청소년 시기)은 대학생일수록 비판적 사고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특성에서는 부(아버지)의 학력($B=.031$, $\beta=.067$, $t=4.444$, $p<.01$)과 모(어머니)의 학력($B=.030$, $\beta=.064$, $t=4.240$, $p<.01$)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 가족구성($B=.098$, $\beta=.063$, $t=6.735$, $p<.01$)이 정적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수준($B=-.055$, $\beta=-.092$, $t=-7.646$, $p<.01$)은 부적영향을 미치며, 거주지역(도시크기)($B=.062$, $\beta=.066$, $t=5.585$, $p<.01$)은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구성에서는 양부모일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비판적 사고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력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경제적 수준($\beta=-.092$), 부(아버지) 학력($\beta=.067$), 거주지역(도시크기)($\beta=.066$), 모(어

머니)학력($\beta=.064$), 가족구성($\beta=.042$), 학교급(청소년 시기)($\beta=.080$)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감성적 사고력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62>에 제시되었다.

표 IV-62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감성적 사고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사고력-감성적 사고력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074	-.078	-6.558**	-.074	-.078	-6.563**	-.074	-.078	-6.565**
	학교급	-.049	-.095	-7.973**	-.050	-.097	-8.110**	-.049	-.095	-7.909**
	학업성취도수준	.000	.001	.109	.000	.002	.137	.000	.001	.117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16	.032	2.100*	.015	.029	1.917
	모의 학력				-.018	-.036	-2.339*	-.019	-.038	-2.453*
가구 특성	가족구성							-.029	-.017	-1.843
	경제적수준							-.011	-.017	-1.396
	거주지역(도시크기)							.006	.006	.515
통계량	R ² (adj. R ²)	.015(.015)			.016(.106)			.017(.016)		
	R ² Change	.015			.001			.000		
	F	36.476**			23.124**			16.836**		

<표 IV-62>에 의하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model 3)은 $F=16.836$,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17$, adj. $R^2=.016$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 감성적 사고력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을 살펴보면, 개인특성에서는 성별($B=-.074$, $\beta=-.078$, $t=-6.565$, $p<.01$)과 학교급(청소년 시기)($B=-.049$, $\beta=-.095$, $t=-7.909$, $p<.01$)은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도 수준($B=.000$, $\beta=.001$, $t=.117$, $p>.05$)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감성적 사고력이 높으며, 학교급(청소년 시기)에 따라서는 학교급(청소년 시기)이 대학생일수록 감성적 사고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특성에서는 부(아버지)의 학력($B=.015$, $\beta=.029$, $t=1.917$, $p>.05$)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모(어머니)의 학력($B=-.019$, $\beta=-.038$, $t=-2.453$, $p<.05$)이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 가족구성($B=-.029$, $\beta=-.017$, $t=-1.843$, $p>.05$), 경제적 수준($B=-.011$, $\beta=-.017$, $t=-1.396$, $p>.05$), 거주지역(도시크기)($B=.006$, $\beta=.006$, $t=.515$, $p>.05$)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특성은 감성적 사고력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의 감성적 사고력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학교급(청소년 시기)($\beta=-.095$), 성별($\beta=-.078$), 모(어머니)학력($\beta=-.038$)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63>에 제시되었다.

표 IV-63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지적도구활용능력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052	.059	5.015**	.050	.057	4.978**	.050	.057	5.034**
	학교급	-.093	-.195	-16.610**	-.086	-.180	-15.563**	-.079	-.166	-14.448**
	학업성취도수준	.000	.009	.747	.000	.009	.775	.000	.006	.558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54	.114	7.694**	.043	.091	6.185**
	모의 학력				.040	.085	5.748**	.033	.069	4.709**
가구 특성	가족구성							.140	.091	9.648**
	경제적수준							-.086	-.142	-12.147**
	거주지역(도시크기)							.066	.069	6.008**
통계량	R ² (adj. R ²)	.041(.041)			.073(.073)			.097(.096)		
	R ² Change	.041			.032			.024		
	F	99.703**			110.744**			107.642**		

*.p(0.05), **.p(0.01)

<표 IV-63>에 의하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model 3)은 $F=107.642$,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97$, adj. $R^2=.096$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지적도구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을 살펴보면, 개인특성에서는 성별($B=.050$, $\beta=.057$, $t=5.043$, $p<.01$)이 정적영향을 미치고, 학교급(청소년 시기)($B=-.079$, $\beta=-.166$, $t=-14.448$, $p<.01$)은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도 수준($B=.000$, $\beta=.006$, $t=.558$, $p>.05$)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지적도구활용능력이 높으며, 학교급(청소년 시기)에 따라서는 학교급(청소년 시기)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지적도구활용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특성에서는 부(아버지)의 학력($B=.043$, $\beta=.091$, $t=6.185$, $p<.01$)과 모(어머니)의 학력($B=.033$, $\beta=.069$, $t=4.790$, $p<.01$)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지적도구활용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 가족구성($B=.140, \beta=.091, t=9.648, p<.01$)이 정적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수준($B=-.086, \beta=-.092, t=-7.646, p<.01$)은 부적영향을 미치며, 거주지역(도시크기)($B=.062, \beta=.066, t=5.585, p<.01$)은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구성에서는 양부모일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지적도구활용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의 지적도구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학교급(청소년 시기)($\beta=-.166$), 경제적 수준($\beta=-.142$), 부(아버지) 학력($\beta=.091$)과 가족구성($\beta=.091$), 거주지역(도시크기)($\beta=.069$)과 모(어머니)학력($\beta=.069$), 성별($\beta=.057$)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64>에 제시되었다.

표 IV-64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지적도구활용능력-언어능력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069	-.063	-5.332**	-.070	-.064	-5.451**	-.070	-.064	-5.501**
	학교급	-.053	-.090	-7.569**	-.046	-.079	-6.621**	-.040	-.068	-5.696**
	학업성취도수준	.001	.010	.875	.001	.010	.869	.001	.008	.713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30	.051	3.355**	.019	.033	2.191*
	모의 학력				.050	.087	5.719**	.043	.075	4.917**
가구 특성	가족구성							.120	.064	6.757**
	경제적수준							-.083	-.111	-9.225**
	거주지역(도시크기)							.059	.050	4.250**
통계량	R ² (adj. R ²)	.013(.012)			.028(.028)			.042(.041)		
	R ² Change	.013			.015			.013		
	F	29.755**			40.638**			44.312**		

<표 IV-64>에 의하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model 3)은 $F=44.312,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42$, adj. $R^2=.041$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을 살펴보면, 개인특성에서는 성별($B=-.070, \beta=-.064, t=-5.501, p<.01$)이 부적영향을 미치고, 학교급(청소년 시기)($B=-.040, \beta=-.068, t=-5.696, p<.01$)은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도 수준($B=.001, \beta=.008, t=.713, p>.05$)

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언어능력이 높으며, 학교급(청소년 시기)에 따라서는 학교급(청소년 시기)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언어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특성에서는 부(아버지)의 학력($B=.019$, $\beta=.033$, $t=2.191$, $p<.05$)과 모(어머니)의 학력($B=.043$, $\beta=.075$, $t=4.917$, $p<.01$)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언어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 가족구성($B=.120$, $\beta=.064$, $t=6.757$, $p<.01$)이 정적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수준($B=-.083$, $\beta=-.111$, $t=-9.225$, $p<.01$)은 부적영향을 미치며, 거주지역(도시크기)($B=.059$, $\beta=.050$, $t=4.250$, $p<.01$)은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구성에서는 양부모일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언어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의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경제적 수준($\beta=-.111$), 모(어머니)학력($\beta=.075$), 학교급(청소년 시기)($\beta=.068$), 성별($\beta=-.064$)과 가족구성($\beta=.064$), 거주지역(도시크기)($\beta=.050$), 부(아버지)의 학력($\beta=.033$)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수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65>에 제시되었다.

표 IV-65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수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지적도구활용능력-수학능력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147	.112	9.642**	.146	.110	9.665**	.146	.110	9.765**
	학교급	-.156	-.219	-18.836**	-.147	-.206	-17.935**	-.138	-.194	-16.913**
	학업성취도수준	.000	-.002	-.193	.000	-.002	-.172	.000	-.004	-.386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82	.116	7.895**	.068	.095	6.506**
	모의 학력				.046	.065	4.394**	.035	.050	3.431**
가구 특성	가족구성							.234	.101	10.763**
	경제적수준							-.117	-.128	-11.013**
	거주지역(도시크기)							.092	.064	5.643**
통계량	R ² (adj. R ²)	.059(.059)			.086(.085)			.106(.105)		
	R ² Change	.059			.027			.020		
	F	146.482**			131.858**			118.305**		

<표 IV-65>에 의하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model 3)은 $F=118.305$,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106$, adj. $R^2=.105$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수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을 살펴보면, 개인특성에서는 성별($B=.146$, $\beta=.110$, $t=9.765$, $p<.01$)이 정적영향을 미치고, 학교급(청소년 시기)($B=-.138$, $\beta=-.194$, $t=-16.913$, $p<.01$)은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도 수준($B=.000$, $\beta=-.004$, $t=-.386$, $p>.05$)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수학능력이 높으며, 학교급(청소년 시기)에 따라서는 학교급(청소년 시기)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수학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특성에서는 부(아버지)의 학력($B=.068$, $\beta=.095$, $t=6.606$, $p<.01$)과 모(어머니)의 학력($B=.035$, $\beta=.050$, $t=3.431$, $p<.01$)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수학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 가족구성($B=.234$, $\beta=.101$, $t=10.763$, $p<.01$)이 정적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수준($B=-.117$, $\beta=-.128$, $t=-11.013$, $p<.01$)은 부적영향을 미치며, 거주지역(도시크기)($B=.092$, $\beta=.064$, $t=5.643$, $p<.01$)은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구성에서는 양부모일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수학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의 수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학교급(청소년 시기)($\beta=-.194$), 경제적 수준($\beta=-.128$), 성별($\beta=.110$), 가족구성($\beta=.101$), 부(아버지)의 학력($\beta=.095$), 거주지역(도시크기)($\beta=.064$), 모(어머니)학력($\beta=.050$)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과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66>에 제시되었다.

표 IV-66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과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지적도구활용능력-과학능력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214	.154	13.369**	.213	.153	13.398**	.211	.152	13.367**
	학교급	-.155	-.206	-17.827**	-.148	-.197	-17.061**	-.140	-.186	-16.100**
	학업성취도수준	.002	.022	1.882	.002	.022	1.921	.002	.021	1.865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71	.096	6.489**	.061	.082	5.533**
	모의 학력				.036	.048	3.244**	.028	.037	2.536*
가구 특성	가족구성							.157	.066	7.004**
	경제적수준							-.096	-.100	-8.523**
	거주지역(도시크기)							.026	.017	1.488
통계량	R ² (adj. R ²)	.066(.065)			.083(.082)			.092(.092)		
	R ² Change	.066			.017			.010		
	F	163.829**			126.244**			101.852**		

<표 IV-66>에 의하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model 3)은 $F=101.852$,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92$, adj. $R^2=.092$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과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을 살펴보면, 개인특성에서는 성별($B=.211$, $\beta=.152$, $t=13.367$, $p<.01$)이 정적영향을 미치고, 학교급(청소년 시기)($B=-.140$, $\beta=-.186$, $t=-16.100$, $p<.01$)은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도 수준($B=.002$, $\beta=.021$, $t=1.865$, $p>.05$)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과학능력이 높으며, 학교급(청소년 시기)에 따라서는 학교급(청소년 시기)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과학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특성에서는 부(아버지)의 학력($B=.061$, $\beta=.082$, $t=5.533$, $p<.01$)과 모(어머니)의 학력($B=.028$, $\beta=.037$, $t=2.536$, $p<.05$)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과학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 가족구성($B=.157$, $\beta=.066$, $t=7.004$, $p<.01$)이 정적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수준($B=-.096$, $\beta=-.100$, $t=-8.523$, $p<.01$)은 부적영향을 미치며, 거주지역(도시크기)($B=.026$, $\beta=.017$, $t=1.488$, $p>.05$)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구성에서는 양부모일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과학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의 과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학교급(청소년 시기)($\beta=-.186$), 성별($\beta=.152$), 경제적 수준($\beta=-.100$), 부(아버지)의 학력($\beta=.082$), 가족구성($\beta=.066$), 모(어머니)학력($\beta=.037$)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정보통신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67>에 제시되었다.

표 IV-67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정보통신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지적도구활용능력-정보통신활용능력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078	-.072	-6.052**	-.079	-.073	-6.132**	-.078	-.072	-6.065**
	학교급	-.008	-.014	-1.181	-.004	-.007	-.593	-.001	-.002	-.160
	학업성취도수준	.000	.001	.121	.000	.002	.127	.000	-.001	-.064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31	.054	3.516**	.024	.041	2.697*
	모의 학력				.025	.043	2.787*	.020	.035	2.269*
가구 특성	가족구성							.046	.023	2.470*
	경제적수준							-.047	-.063	-5.158**
	거주지역(도시크기)							.075	.063	5.300**
통계량	R ² (adj. R ²)	0.05(.005)			0.013(.012)			0.021(.020)		
	R ² Change	.005			.008			.008		
	F	12.813**			18.470**			21.194**		

<표 IV-67>에 의하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model 3)은 $F=21.194$,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21$, $\text{adj. } R^2=.020$ 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정보통신 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을 살펴보면, 개인특성에서는 성별($B=-.078$, $\beta=-.072$, $t=-6.065$, $p<.01$)이 부적영향을 미치고, 학교급(청소년 시기)($B=-.001$, $\beta=-.002$, $t=-.160$, $p>.05$)와 학업성취도 수준($B=.000$, $\beta=-.001$, $t=-.064$, $p>.05$)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라 여자 청소년이 여남 청소년 보다 정보통신활용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특성에서는 부(아버지)의 학력($B=.024$, $\beta=.041$, $t=2.697$, $p<.05$)과 모(어머니)의 학력($B=.020$, $\beta=.035$, $t=2.269$, $p<.05$)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정보통신활용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 가족구성($B=.046$, $\beta=.023$, $t=2.470$, $p<.05$)이 정적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수준($B=-.047$, $\beta=-.063$, $t=-5.158$, $p<.01$)은 부적영향을 미치며, 거주지역(도시크기)($B=.075$, $\beta=.063$, $t=5.300$, $p<.01$)은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구성에서는 양부모일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거주지역이 큰도시 청소년일수록 정보통신활용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의 정보통신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성별($\beta=-.072$), 경제적 수준($\beta=-.062$)과 거주지역(도시크기)($\beta=.062$), 부(아버지)의 학력($\beta=.041$), 모(어머니)학력($\beta=.035$), 가족구성($\beta=.025$)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68>에 제시되었다.

표 IV-6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학습적응성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053	.060	5.029**	.052	.059	4.987**	.052	.059	4.994**
	학교급	-.059	-.122	-10.279*	-.055	-.114	-9.613**	-.051	-.105	-8.858**
	학업성취도수준	.000	-.003	-.278	.000	-.003	-.274	.000	-.005	-.401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28	.059	3.863**	.021	.045	2.938**
	모의 학력				.023	.048	3.155**	.018	.038	2.509*
가구 특성	가족구성							.080	.051	5.363**
	경제적수준							-.054	-.088	-7.261**
	거주지역(도시크기)							.038	.039	3.319**
통계량	R ² (adj. R ²)	.018(.018)			.027(.027)			.036(.035)		
	R ² Change	.018			.009			.009		
	F	42.843**			39.228**			37.451**		

<표 IV-68>에 의하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model 3)은 $F=37.451$,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36$, adj. $R^2=.035$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학습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을 살펴보면, 개인특성에서는 성별($B=.052$, $\beta=.059$, $t=4.994$, $p<.01$)이 정적영향을 미치고, 학교급(청소년 시기)($B=-.051$, $\beta=-.105$, $t=-8.858$, $p<.01$)은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도 수준($B=.000$, $\beta=-.005$, $t=-.401$, $p>.05$)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학습적응성이 높으며, 학교급(청소년 시기)에 따라서는 학교급(청소년 시기)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학습적응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특성에서는 부(아버지)의 학력($B=.021$, $\beta=.045$, $t=2.938$, $p<.01$)과 모(어머니)의 학력($B=.018$, $\beta=.038$, $t=2.509$, $p<.05$)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습적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 가족구성($B=.080$, $\beta=.051$, $t=5.363$, $p<.01$)이 정적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수준($B=-.054$, $\beta=-.088$, $t=-7.261$, $p<.01$)은 부적영향을 미치며, 거주지역(도시크기)($B=.038$, $\beta=.039$, $t=3.319$, $p<.01$)은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구성에서는 양부모일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거주지역이 큰도시일수록 청소년의 학습적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의 학습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학교급(청소년 시기)($\beta=-.105$), 경제적 수준($\beta=-.088$), 성별($\beta=.059$), 가족구성($\beta=.051$), 부(아버지)의 학력($\beta=.045$), 거주지역(도시크기)($\beta=.039$), 모(어머니)학력($\beta=.037$)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변화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69>에 제시되었다.

표 IV-69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변화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학습적응성-변화수용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077	.068	5.745**	.077	.068	5.715**	.076	.067	5.688**
	학교급	-.021	-.034	-2.867*	-.018	-.030	-2.504*	-.013	-.021	-1.742
	학업성취도수준	-.001	-.013	-1.126	-.001	-.013	-1.121	-.001	-.014	-1.214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23	.037	2.448*	.015	.024	1.589
	모의 학력				.014	.023	1.509	.008	.014	.887
가구 특성	가족구성							.084	.043	4.533**
	경제적수준							-.069	-.088	-7.201**
	거주지역(도시크기)							.033	.027	2.254*
통계량	R ² (adj. R ²)	.006(0.005)			.009(.008)			.018(.017)		
	R ² Change	.006			.003			.008		
	F	13.858**			12.607**			17.261**		

<표 IV-69>에 의하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model 3)은 $F=17.261$,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18$, adj. $R^2=.017$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변화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을 살펴보면, 개인특성에서는 성별($B=.076$, $\beta=.067$, $t=5.688$, $p<.01$)이 정적영향을 미치고, 학교급(청소년 시기)($B=-.013$, $\beta=-.021$, $t=-1.742$, $p>.05$)와 학업성취도 수준($B=-.001$, $\beta=-.014$, $t=-1.214$, $p>.05$)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변화수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특성에서는 부(아버지)의 학력($B=.015$, $\beta=.025$, $t=1.589$, $p>.05$)과 모(어머니)의 학력($B=.008$, $\beta=.014$, $t=.887$, $p>.05$)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 가족구성($B=.084$, $\beta=.043$, $t=4.533$, $p<.01$)이 정적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수준($B=-.069$, $\beta=-.088$, $t=-7.201$, $p<.01$)은 부적영향을 미치며, 거주지역(도시크기)($B=.033$, $\beta=.027$, $t=2.254$, $p<.05$)은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구성에서는 양부모일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거주지역이 큰 도시일수록 청소년의 변화수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의 변화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경제적 수준($\beta=-.088$), 성별($\beta=.067$), 가족구성($\beta=.043$), 거주지역(도시크기)($\beta=.027$)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지적호기심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70>에 제시되었다.

표 IV-70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지적호기심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학습적응성-지적호기심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018	.016	1.363	.017	.015	1.329	.017	.015	1.295
	학교급	-.131	-.214	-18.279**	-.128	-.210	-17.874**	-.125	-.204	-17.284**
	학업성취도수준	.001	.018	1.573	.001	.018	1.583	.001	.018	1.533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23	.037	2.471*	.018	.029	1.918
	모의 학력				.012	.020	1.312	.008	.014	.912
가구 특성	가족구성							.079	.039	4.184**
	경제적수준							-.043	-.056	-4.642**
	거주지역(도시크기)							.018	.015	1.275
통계량	R ² (adj. R ²)	.046(.046)			.049(.048)			.052(.051)		
	R ² Change	.046			.003			.003		
	F	113.455**			72.178**			55.042**		

<표 IV-70>에 의하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model 3)은 $F=55.042$,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52$, adj. $R^2=.051$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지적호기심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을 살펴보면, 개인특성에서는 성별($B=.017$, $\beta=.015$, $t=1.295$, $p>.05$)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학교급(청소년 시기)($B=-.125$, $\beta=-.204$, $t=-17.284$, $p<.01$)은 부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도 수준($B=.001$, $\beta=.018$, $t=1.533$, $p>.05$)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급(청소년 시기)에 따라서 학교급(청소년 시기)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지적호기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특성에서는 부(아버지)의 학력($B=.018$, $\beta=.029$, $t=1.918$, $p>.05$)과 모(어머니)의 학력($B=.008$, $\beta=.014$, $t=.912$, $p>.05$)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 가족구성($B=.079$, $\beta=.039$, $t=4.184$, $p<.01$)이 정적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수준($B=-.043$, $\beta=-.056$, $t=-4.642$, $p<.01$)은 부정적영향을 미치며, 거주지역(도시크기)($B=.018$, $\beta=.015$, $t=1.275$, $p>.05$)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구성에서는 양부모일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지적호기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의 지적호기심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학교급(청소년 시기)($\beta=-.204$), 경제적 수준($\beta=-.056$), 가족구성($\beta=.039$)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주도성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71>에 제시되었다.

표 IV-71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주도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학습적응성-학습주도성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060	.053	4.464**	.059	.052	4.419**	.060	.053	4.461**
	학교급	-.036	-.059	-4.942**	-.031	-.050	-4.192**	-.027	-.044	-3.669**
	학업성취도수준	-.001	-.008	-.686	-.001	-.008	-.689	-.001	-.010	-.828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35	.058	3.802**	.028	.046	3.037**
	모의 학력				.036	.060	3.888**	.031	.052	3.378**
가구 특성	가족구성							.078	.039	4.133**
	경제적수준							-.052	-.066	-5.412**
	거주지역(도시크기)							.055	.044	3.725**
통계량	R ² (adj. R ²)	.006(.006)			.017(.017)			.023(.022)		
	R ² Change	.006			.011			.006		
	F	14.527**			24.726**			23.996**		

<표 IV-71>에 의하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model 3)은 $F=23.996$,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23$, adj. $R^2=.022$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학습주도성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을 살펴보면, 개인특성에서는 성별($B=.060$, $\beta=.053$, $t=4.461$, $p<.01$)이 정적영향을 미치고, 학교급(청소년 시기)($B=-.027$, $\beta=-.044$, $t=-3.669$, $p<.01$)은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도 수준($B=-.001$, $\beta=-.010$, $t=-.828$, $p>.05$)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학습주도성이 높으며, 학교급(청소년 시기)에 따라서는 학교급(청소년 시기)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학습주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특성에서는 부(아버지)의 학력($B=.028$, $\beta=.046$, $t=3.037$, $p<.01$)과 모(어머니)의 학력($B=.031$, $\beta=.052$, $t=3.378$, $p<.01$)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습주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 가족구성($B=.078$, $\beta=.039$, $t=4.133$, $p<.01$)이 정적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수준($B=-.052$, $\beta=-.066$, $t=-5.412$, $p<.01$)은 부적영향을 미치며, 거주지역(도시크기)($B=.055$, $\beta=.044$, $t=3.725$, $p<.01$)은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구성에서는 양부모일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거주지역이 큰도시일수록 청소년의 학습주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의 학습주도성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경제적 수준($\beta=-.066$), 성별($\beta=.053$), 모(어머니)학력($\beta=.052$), 부(아버지)의 학력($\beta=.046$), 학교급(청소년 시기)($\beta=-.044$)과 거주지역(도시크기)($\beta=.044$), 가족구성($\beta=.039$)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 측정 결과 심층 분석

(1)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에 있어 청소년시기와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과의 상호작용 차이 분석

①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생활관리역량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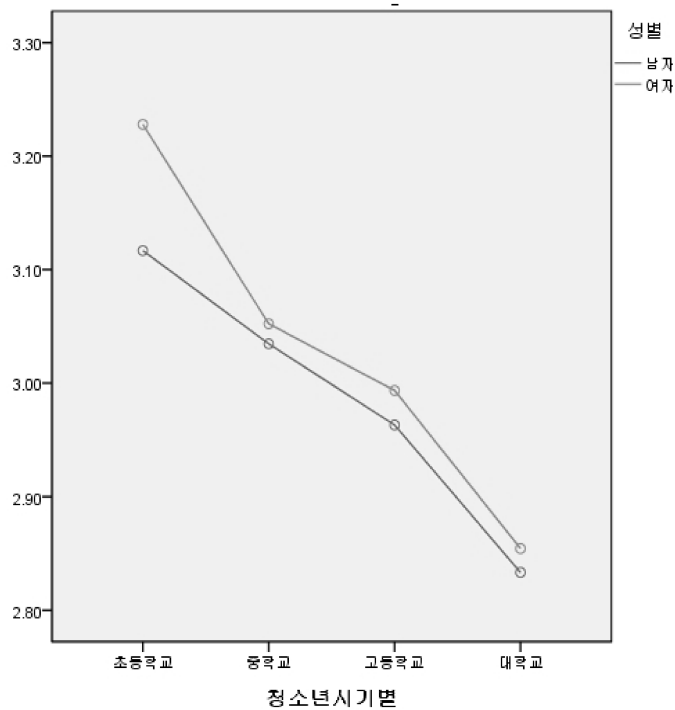
청소년 시기의 흐름에 따른 생활관리역량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호작용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기술분석 결과는 <표 IV-72>와 같다.

표 IV-72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기초통계분석 결과

학교급	성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초기청소년 (초등학교)	남자	1512	3.12	0.40
	여자	1402	3.23	0.37
	전체	2914	3.17	0.39
중기청소년 1 (중학교)	남자	1685	3.03	0.38
	여자	1719	3.05	0.37
	전체	3404	3.04	0.37
중기청소년 2 (고등학교)	남자	2541	2.96	0.36
	여자	1425	2.99	0.32
	전체	3966	2.97	0.35
후기청소년 (대학교)	남자	499	2.83	0.33
	여자	501	2.85	0.32
	전체	1000	2.84	0.32
전체	남자	6237	3.01	0.38
	여자	5047	3.06	0.37
	전체	11284	3.03	0.38

분석결과에 따르면, 생활관리역량은 초기청소년(초등학생) 3.17(SD=.39), 중기청소년 1(중학생) 3.04(SD=.37), 중기청소년 2(고등학생) 2.97(SD=.35), 후기청소년(대학생) 2.84(SD=.32)로 분석되었다. 즉, 생활관리역량은 초기 청소년집단이 가장 높았고 후기청소년으로 갈수록 그 수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시기적 역량 수준을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남자 청소년 보다는 여자청소년의 역량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두 집단 간 보이는

차이는 【그림 IV-3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초기청소년에서 후기청소년으로 갈수록 감소해 나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 시기별 역량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73>과 같다.



【그림 IV-36】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상호작용

표 IV-73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주효과	115,114a	7	16,445	124,540**
간섭	75820,269	1	75820,269	574201,153**
청소년 시기	103,392	3	34,464	261,002**
성별	4,259	1	4,259	32,257**
청소년 시기*성별	4,152	3	1,384	10,483**
잔차	1488,937	11276	.132	
전체	105487,011	11284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먼저 청소년시기에 따른 생활역량의 차이는 $F=261.002(p<.0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생활역량의 차이 역시 $F=32.257$ 로 $p<.0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어 청소년 시기 구분과 성별 모두 생활관리역량에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에 따른 생활관리역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F=10.483(p<.001)$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기에 따른 차이와 성별에 따른 차이가 함께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발달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청소년 발달단계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생각해야 하며, 특히 여자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 남자 청소년의 역량에 관심가질 필요성이 요구된다.

①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건강관리역량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

청소년의 시기와 성별에 따라 건강관리역량(위생관리, 신체관리,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에 차이가 있는지 상호작용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기술통계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74>와 같다.

표 IV-74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건강관리 상호작용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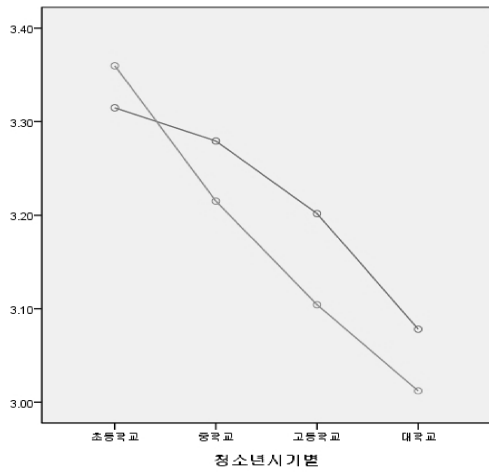
청소년 시기	성별	사례수	건강관리							
			전체		위생관리		신체관리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초기 청소년 (초등학생)	남자	1512	3.31	0.50	3.38	0.54	3.29	0.68	3.29	0.56
	여자	1402	3.36	0.45	3.49	0.50	3.14	0.70	3.37	0.50
	전체	2914	3.34	0.48	3.43	0.53	3.22	0.69	3.33	0.53
중기 청소년 1 (중학생)	남자	1685	3.28	0.49	3.33	0.54	3.17	0.71	3.29	0.53
	여자	1719	3.22	0.44	3.41	0.49	2.83	0.73	3.25	0.50
	전체	3404	3.25	0.46	3.37	0.52	3.00	0.74	3.27	0.51
중기 청소년 2 (고등학생)	남자	2541	3.20	0.47	3.29	0.54	3.04	0.74	3.21	0.52
	여자	1425	3.10	0.40	3.39	0.49	2.60	0.74	3.13	0.46
	전체	3966	3.17	0.45	3.33	0.52	2.88	0.77	3.18	0.50
후기 청소년 (대학생)	남자	499	3.08	0.40	3.21	0.51	2.95	0.68	3.05	0.45
	여자	501	3.01	0.38	3.28	0.52	2.67	0.67	2.99	0.43
	전체	1000	3.05	0.39	3.25	0.51	2.81	0.69	3.02	0.44
전체	남자	6237	3.24	0.48	3.32	0.54	3.13	0.73	3.24	0.53
	여자	5047	3.20	0.44	3.42	0.50	2.84	0.75	3.22	0.50
	전체	11284	3.22	0.46	3.36	0.52	3.00	0.75	3.23	0.52

<표 IV-74>에 따르면, 청소년 건강관리역량 전체의 수준은 초기청소년 3.34($SD=.48$), 중기청소년 1은 3.25($SD=.46$), 중기청소년 2는 3.17($SD=.45$), 후기청소년은 3.05($SD=.39$)로 분석되어 초기청소년이 가장 높고 후기청소년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건강관리역량의 시기별 차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그림 IV-37】에서 보듯이, 초기청소년의 경우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이후 중기청소년에서 후기연령으로 갈수록 남자청소년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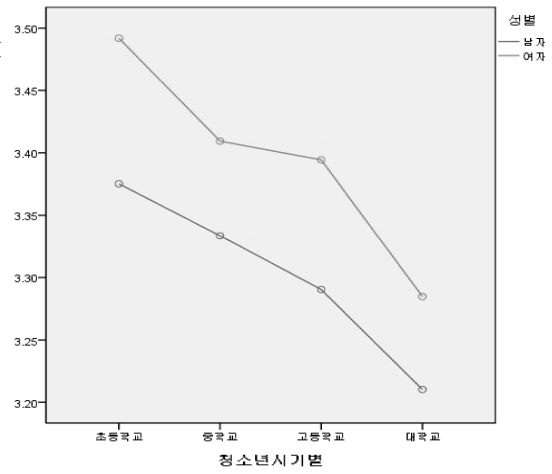
건강관리 구성요인인 위생관리역량의 경우, 시기별로 보면 초기 청소년은 평균 3.43($SD=.53$), 중기청소년 1이 3.37($SD=.52$), 중기청소년 2가 3.33($SD=.52$), 후기청소년이 3.25($SD=.51$)의 값을 보여 초기청소년에서 후기청소년으로 갈수록 위생관리 수준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모든 시기에 걸쳐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높은 위생관리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체관리역량은, 시기별로 보았을 때 초기청소년이 평균 3.22($SD=.69$), 중기청소년 1은 평균 3.00($SD=.74$), 중기청소년 2는 평균 2.88($SD=.77$), 후기청소년은 평균 2.67($SD=.67$)로 초기청소년의 신체관리역량 수준이 가장 높고 중기청소년에서 후기청소년으로 갈수록 역량 수준이 낮아졌다. 이러한 시기에 따른 차이를 성별을 통해 살펴보면, 【그림 IV-37】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신체관리 역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자 청소년의 경우, 중기청소년 2(고등학생)시기까지는 계속해서 낮아지며 남자 청소년과의 격차를 넓혀 가다 후기청소년이 되면서 그 수준이 높아지면서 남자 청소년과의 격차를 좁혀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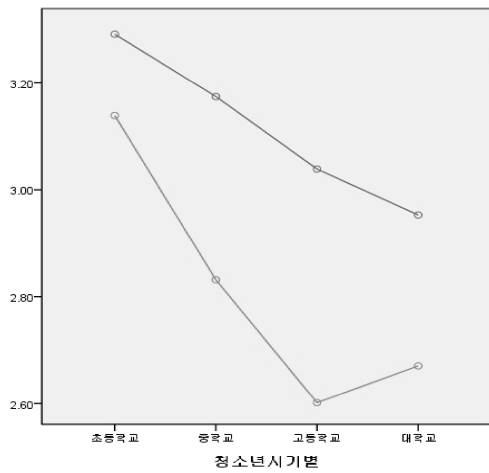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역량의 경우, 시기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초기청소년 3.33($SD=.53$), 중기청소년1 3.27($SD=.51$), 중기청소년2 3.18($SD=.50$), 후기청소년 3.02($SD=.44$)로 다른 구성요인과 같이 초기청소년시기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후기로 갈수록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성별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그림 IV-37】에서 보듯이, 초기 청소년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높은 역량수준을 보였지만, 이는 중기청소년시기에 들어가며 역전되어 후기청소년에 이르기 까지는 남자청소년의 역량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건강관리역량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75>에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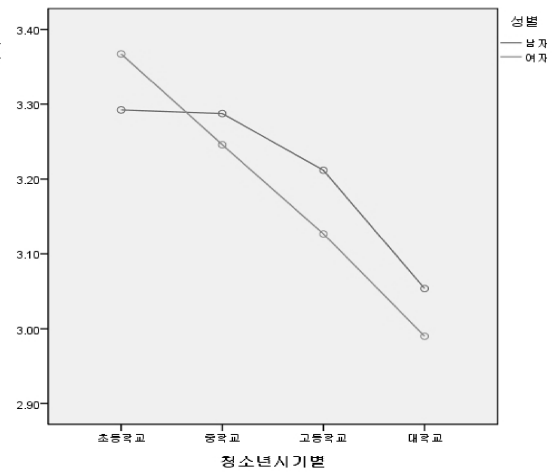
건강관리전체(좌)



위생관리(우)



신체관리(좌)



안전 및 스트레스관리(우)

【그림 IV-37】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건강관리의 상호작용

표 IV-75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건강관리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

구분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건강관리 전체	주효과	98.300a	7	14.043	67.884**
	간섭	85491.706	1	85491.706	413271.036**
	청소년 시기	89.400	3	29.800	144.054**
	성별	4.348	1	4.348	21.019**
	청소년 시기*성별	8.845	3	2.948	14.253**
	잔차	2332.620	11276	.207	
위생관리	전체	119717.251	11284		
	주효과	58.113a	7	8.302	30.794**
	간섭	93876.568	1	93876.568	348218.659**
	청소년 시기	29.434	3	9.811	36.393**
	성별	17.991	1	17.991	66.734**
	청소년 시기*성별	.834	3	.278	1.031
신체관리	잔차	3039.907	11276	.270	
	전체	130543.139	11284		
	주효과	540.171a	7	77.167	150.223**
	간섭	73463.576	1	73463.576	143012.916**
	청소년 시기	283.767	3	94.589	184.138**
	성별	192.838	1	192.838	375.402**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청소년 시기*성별	33.749	3	11.250	21.900**
	잔차	5791.797	11275	.514	
	전체	107765.000	11283		
	주효과	98.644a	7	14.092	54.845**
	간섭	85555.153	1	85555.153	332970.745**
	청소년 시기	90.289	3	30.096	117.132**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성별	1.735	1	1.735	6.751**
	청소년 시기*성별	11.162	3	3.721	14.480**
	잔차	2897.311	11276	.257	
	전체	120779.140	11284		

건강관리에 있어서 시기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청소년 시기에 따른 차이는 $F=114.054(p<.0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성별에 따른 차이 역시 $F=21.019(p<.0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시기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F=14.253(p<.0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건강관리역량의 발달에 있어서 시기적 발달과 더불어서 성별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특히, 여자 청소년의 건강관리역량에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위생관리의 경우, 시기에 따른 차이는 $F=36.393(p<.001)$ 로 유의미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 역시 $F=66.734(P<.001)$ 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그러나 시기와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F=1.031(p>.05)$ 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위생관리역량의 발달은 시기와 성별의 독립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체관리는 시기에 따른 차이가 $F=184.138(p<.0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 역시 $F=375.402(p<.0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시기와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F=21.900(p<.001)$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청소년 신체관리역량은 시기에 따라,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두 변인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를 살펴보면, 시기와 성별, 두 요인의 상호작용효과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시기에 따른 차이는 $F=117.132(p<.001)$ 로 유의미하였으며 성별은 $F=6.751(p<.01)$ 수준에서 유의미하여 두 요인에 따른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역량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요인이 상호작용 효과에 따른 차이는 $F=14.480(p<.001)$ 으로 분석되어 청소년의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역량은 시기와 성별 그리고 두 요인의 상호작용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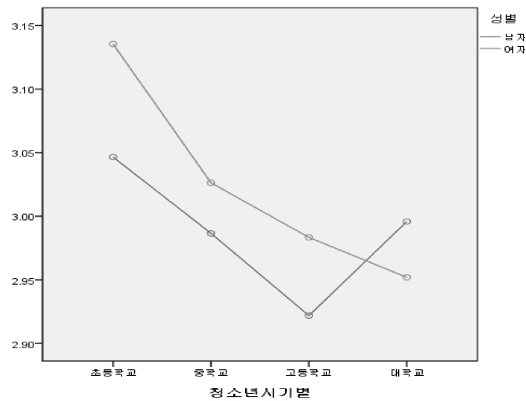
표 IV-76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과제관리의 기초통계분석 결과

청소년 시기	성별	사례수	과제관리					
			전체		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	
			<i>M</i>	<i>SD</i>	<i>M</i>	<i>SD</i>	<i>M</i>	<i>SD</i>
초기 청소년 (초등학생)	남자	1512	3.05	0.61	3.06	0.63	3.02	0.68
	여자	1402	3.14	0.56	3.17	0.58	3.07	0.64
	전체	2914	3.09	0.59	3.11	0.61	3.04	0.66
중기 청소년 1 (중학생)	남자	1685	2.99	0.57	3.00	0.58	2.96	0.62
	여자	1719	3.03	0.54	3.05	0.55	2.97	0.60
	전체	3404	3.01	0.55	3.03	0.57	2.97	0.61
중기 청소년 2 (고등학생)	남자	2541	2.92	0.51	2.94	0.53	2.88	0.57
	여자	1425	2.98	0.46	3.01	0.46	2.92	0.54
	전체	3966	2.94	0.49	2.97	0.51	2.90	0.56
후기 청소년 (대학생)	남자	499	3.00	0.37	3.02	0.38	2.95	0.46
	여자	501	2.95	0.38	2.97	0.39	2.92	0.46
	전체	1000	2.97	0.38	2.99	0.39	2.93	0.46
전체	남자	6237	2.98	0.54	2.99	0.56	2.94	0.61
	여자	5047	3.04	0.51	3.07	0.53	2.98	0.59
	전체	11284	3.00	0.53	3.02	0.55	2.96	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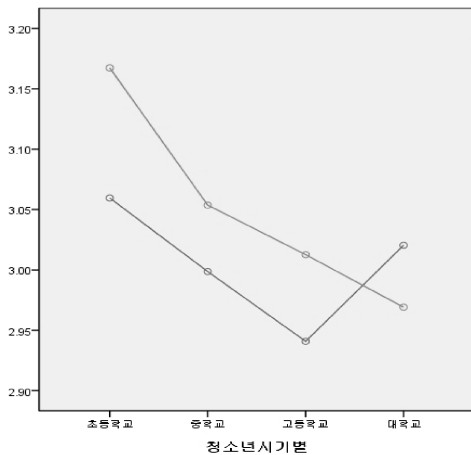
<표 IV-76>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과제관리 전체 평균의 경우 초기청소년은 3.09($SD=.59$), 중기청소년 1이 3.01($SD=.55$), 중기청소년 2가 2.94($SD=.49$), 후기청소년은 2.97($SD=.38$) 분석되어 초기 청소년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였던 역량수치는 후기청소년에 가서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그림 IV-38】에서 볼 수 있듯이, 여자청소년의 역량수준이 초기에는 남자청소년보다 높았지만 후기청소년에는 역전되어 남자청소년의 역량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목표 및 계획수립의 경우는 초기청소년 평균 3.11($SD=.61$), 중기청소년 1 평균 3.03($SD=.57$), 중기청소년 2 평균 2.97($SD=.51$), 후기청소년 평균 2.99($SD=.39$)로 과제관리평균과 같이 초기청소년 이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다 후기청소년에 가서 약간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도 과제관리와 같은 형태의 경향을 보이는데, 초기에 남자청소년보다 높았던 여자청소년의 역량수치는 후기에 가서 남자청소년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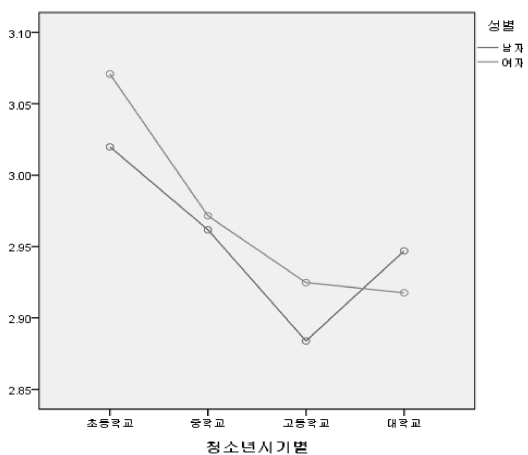
수행 및 평가 역시 같은 추세를 보이는데, 초기 청소년 평균 3.04($SD=.66$), 중기청소년 1 평균 2.97($SD=.61$), 중기청소년 2 평균 2.90($SD=.56$), 후기청소년 평균 2.93($SD=.46$)으로 분석되었고, 성별에 따른 수치는 초기 높았던 여자청소년의 역량은 후기에 남자청소년보다 낮은 역량을 보인다.



과제관리(위)



목표 및 계획수립(좌)



수행 및 평가(우)

【그림 IV-38】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과제관리의 상호작용

표 IV-77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과제관리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

구분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과제관리	주효과	47.426a	7	6.775	24.340**
	간섭	75642.374	1	75642.374	271744.587**
	청소년 시기	32,396	3	10.799	38.794**
	성별	2,798	1	2.798	10.051**
	청소년 시기*성별	3,495	3	1.165	4.185**
	잔차	3138.769	11276	.278	
목표 및 계획수립	전체	104948.192	11284		
	주효과	52.589a	7	7.513	25.530**
	간섭	76744.788	1	76744.788	260798.233**
	청소년 시기	31.918	3	10.639	36.155**
	성별	4.397	1	4.397	14.940**
	청소년 시기*성별	4.841	3	1.614	5.484**
수행 및 평가	잔차	3318.175	11276	.294	
	전체	106597.760	11284		
	주효과	40.327a	7	5.761	16.128**
	간섭	73439.755	1	73439.755	205597.390**
	청소년 시기	33.278	3	11.093	31.054**
	성별	.684	1	.684	1.916
	청소년 시기*성별	1.636	3	.545	1.527
	잔차	4026.736	11273	.357	
	전체	102889.347	11281		

과제관리에 대한 시기와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결과로 <표 IV-77>을 보면, 과제관리 전체에 있어서 시기에 따른 차이는 $F=38.794(p<.001)$ 로 유의미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 역시 $F=10.051(p<.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다음으로 시기와 성별의 상호작용에 따른 차이는 $F=4.185(p<.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과제관리역량의 발달에 있어서 시기와 성별에 따른 독립적인 영향과 더불어서 두 변인이 상호작용에 따른 영향 역시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목표 및 계획수립의 경우, 시기에 따른 차이는 $F=36.155(p<.001)$ 으로 유의미하였고 성별은 $F=14.940(p<.001)$ 의 수준에 유의미하였다. 시기와 성별의 상호작용에 따른 차이 역시 $F=5.484(p<.01)$ 로 유의미하여 과제관리와 같이 목표 및 계획수립 역량의 발달을 위해 시기와 성별, 그리고 두 요인이 상호작용에 따른 차이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수행 및 평가에 있어서 시기에 따른 차이는 $F=31.054(p<.001)$ 로 유의미하였지만, 성별과 두 요인의 상호작용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수행 및 평가 역량의 발달에 있어서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표 IV-78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상황대처능력의 기초통계 분석 결과

청소년 시기	성별	사례수	상황대처									
			전체		중독인식		중독행동		폭력행동		폭력회피	
			M	SD	M	SD	M	SD	M	SD	M	SD
초기 청소년 (초등학생)	남자	1512	3.19	0.61	3.03	0.88	3.19	0.75	3.30	0.65	3.25	0.66
	여자	1402	3.38	0.56	3.27	0.81	3.38	0.71	3.54	0.55	3.33	0.65
	전체	2914	3.28	0.59	3.15	0.85	3.28	0.74	3.42	0.61	3.29	0.66
중기 청소년 1 (중학생)	남자	1685	3.03	0.61	2.76	0.88	3.03	0.76	3.20	0.67	3.12	0.68
	여자	1719	3.09	0.60	2.84	0.86	2.95	0.81	3.53	0.56	3.22	0.67
	전체	3404	3.06	0.61	2.80	0.87	2.99	0.79	3.37	0.64	3.17	0.68
중기 청소년 2 (고등학생)	남자	2541	2.91	0.59	2.53	0.83	2.88	0.76	3.18	0.66	3.10	0.66
	여자	1425	3.04	0.55	2.73	0.79	2.90	0.73	3.52	0.55	3.20	0.65
	전체	3966	2.96	0.58	2.60	0.82	2.89	0.75	3.30	0.64	3.14	0.66
후기 청소년 (대학생)	남자	499	2.58	0.54	2.15	0.73	2.52	0.69	2.91	0.72	2.81	0.69
	여자	501	2.71	0.55	2.31	0.74	2.62	0.69	3.13	0.73	2.89	0.69
	전체	1000	2.64	0.55	2.23	0.74	2.57	0.69	3.02	0.73	2.85	0.69
전체	남자	6237	2.98	0.62	2.68	0.88	2.97	0.77	3.20	0.67	3.12	0.68
	여자	5047	3.12	0.60	2.88	0.86	3.02	0.78	3.49	0.58	3.21	0.67
	전체	11284	3.04	0.62	2.77	0.88	2.99	0.78	3.33	0.65	3.16	0.68

상황대처능력의 시기와 성별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황대처 전체의 경우 초기청소년 평균은 3.28(SD=.59)이며 중기청소년 1의 평균은 3.06(SD=.61), 중기청소년 2의 평균은 2.96(SD=.58) 그리고 후기청소년의 평균은 2.64(SD=.55)로 분석되어 초기청소년의 상황대처역량은 후기로 갈수록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그림 IV-39】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청소년부터 후기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여자청소년의 상황대처역량 수준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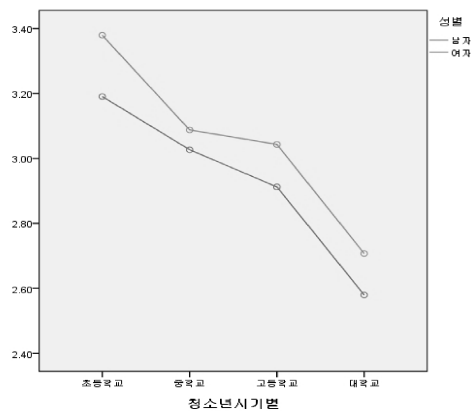
중독인식의 경우, 초기청소년 평균 3.15(SD=.85)였으며 중기청소년 1 평균 2.80(SD=.87), 중기청소년 2 평균 2.60(SD=.82), 후기청소년 평균 2.23(SD=.74)으로 초기청소년 이후 역량수준에 계속해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성별에 따라 확인한 결과, 【그림 IV-39】에서 볼 수 있듯이, 여자청소년의 역량이 남자청소년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 상태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독행동의 경우, 초기청소년은 평균 3.28(SD=.74)이며, 중기청소년 1 평균 2.99(SD=.79), 중기청소년 2 평균 2.89(SD=.75), 후기청소년 평균 2.57(SD=.69)로 역시 초기청소년 이후로 계속해서 역량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초기 여자청소년의 역량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높았다가 중기청소년 1시기에 큰 폭으로 하락해 남자청소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다. 하지만 중기청소년 2 시기 이후 완만한 감소를 보여 후기청소년까지는 다시 남자청소년에 비해 높은 수준의 역량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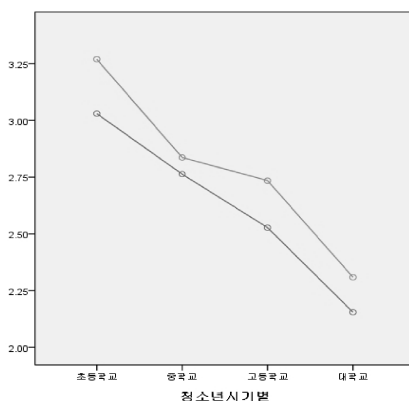
폭력행동은 초기 청소년의 평균이 3.42(SD=.61), 중기청소년 1 평균 3.37(SD=.64), 중기청소년

2 평균 3.30(SD=.64), 후기청소년 평균 3.02(SD=.73)으로 초기청소년에서 중기청소년 2까지 완만히 감소하다 후기청소년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성별에 따른 결과를 보면, 【그림 IV-39】에서 보듯이, 남자와 여자청소년 모두 같은 경향을 보이지만 두 집단 간의 격차가 다른 역량에 비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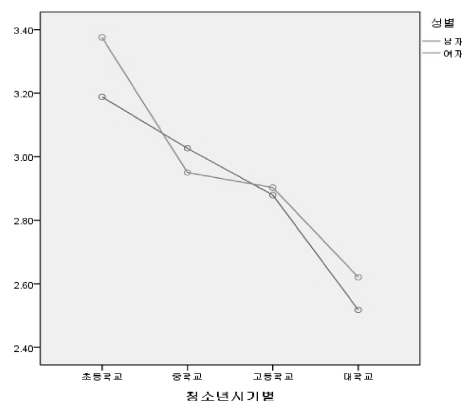
폭력회피의 경우는 초기청소년 평균 3.29(SD=.66), 중기청소년 1 평균 3.17(SD=.68), 중기청소년 2 평균 3.14(SD=.66), 후기청소년 평균 2.85(SD=.69)로 역시 후기청소년에 급격히 감소하는 역량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초기부터 후기까지 계속해서 여자청소년의 역량수준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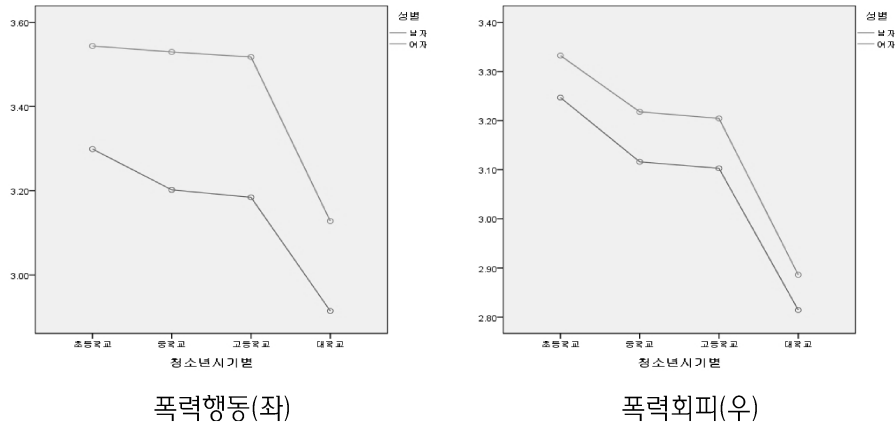
상황대처(위)



중독인식(좌)



중독행동(우)



【그림 IV-39】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상황대처의 상호작용

표 IV-79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상황대처능력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

구분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상황대처능력	주효과	402,297a	7	57.471	167.399**
	간섭	74884.899	1	74884.899	218120.746**
	청소년 시기	344.982	3	114.994	334.948**
	성별	33.746	1	33.746	98.295**
	청소년 시기*성별	6.488	3	2.163	6.299**
	잔차	3871.260	11276	.343	
	전체	108844.616	11284		
중독인식	주효과	907,299a	7	129.614	187.067**
	간섭	61170.051	1	61170.051	88284.487**
	청소년 시기	781.100	3	260.367	375.778**
	성별	59.557	1	59.557	85.956**
	청소년 시기*성별	12.855	3	4.285	6.184**
	잔차	7812.850	11276	.693	
	전체	95258.611	11284		
중독행동	주효과	494,739a	7	70.677	125.499**
	간섭	72001.487	1	72001.487	127851.107**
	청소년 시기	460.741	3	153.580	272.708**
	성별	7.393	1	7.393	13.127**
	청소년 시기*성별	28.526	3	9.509	16.884**
	잔차	6350.268	11276	.563	
	전체	107775.401	11284		
폭력행동	주효과	371,827a	7	53.118	136.426**
	간섭	90545.896	1	90545.896	232553.353**
	청소년 시기	123.266	3	41.089	105.530**
	성별	163.571	1	163.571	420.108**
	청소년 시기*성별	5.711	3	1.904	4.889**
	잔차	4389.203	11273	.389	
	전체	129650.333	11281		

구분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폭력회피	주효과	170,248a	7	24,321	55,043**
	간섭	81177.082	1	81177.082	183717.257**
	청소년 시기	144,588	3	48,196	109,076**
	성별	16,995	1	16,995	38,462**
	청소년 시기*성별	.279	3	.093	.211
	잔차	4981.074	11273	.442	
	전체	117834.944	11281		

위에서 나타난 결과를 시기별, 성별, 상호작용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황대처역량 전체에서 청소년 시기에 따른 차이는 $F=334.948(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 역시 $F=99.295(p<.001)$ 로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시기와 성별의 상호작용효과에 따른 차이 역시 $F=6.299(p<.001)$ 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상황대처역량의 발달에 있어 청소년 시기와 성별 그리고 두 요인의 상호작용효과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중독인식에 있어서 시기에 따른 차이는 $F=375.778(p<.0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F=85.956(p<.001)$ 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두 요인의 상호작용효과 역시 $F=6.184(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중독인식에 대한 역량 발달에 시기와 성별에 따른 독립적 영향과 두 요인의 상호작용에 따른 효과가 함께 인지되어야 한다.

중독행동의 경우 시기별, 성별, 상호작용효과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기에 따른 중독행동의 차이는 $F=272.708(p<.001)$, 성별에 따른 차이는 $F=13.127(p<.001)$, 그리고 두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는 $F=16.884(p<.001)$ 로 분석되어 중독행동에 대한 시기, 성별,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중요성이 검증되었다.

폭력행동의 경우, 시기에 따른 차이가 $F=105.530(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F=420.108(p<.001)$ 로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두 요인의 상호작용효과는 $F=4.889(p<.01)$ 로 유의미하여 폭력행동에 대한 대처능력의 향상에 있어 시기, 성별, 상호작용효과가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함이 검증되었다.

폭력회피의 경우 시기에 따른 차이는 $F=109.076(p<.001)$ 로 유의미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 역시 $F=38.462(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지만, 두 요인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은 분석되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폭력회피에 대한 역량의 발달에 있어 각 시기와 성별의 독립적인 영향은 고려되어야 하지만 두 요인의 상호작용효과는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표 IV-80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정서조절능력 기초통계 분석 결과

청소년 시기	성별	사례수	정서조절능력									
			전체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		감정인식	
			M	SD	M	SD	M	SD	M	SD	M	SD
초기 청소년 (초등학생)	남자	1512	2.83	0.44	3.11	0.73	2.62	0.84	2.65	0.86	2.90	0.60
	여자	1402	2.92	0.46	3.26	0.71	2.70	0.80	2.59	0.86	3.05	0.59
	전체	2914	2.87	0.45	3.18	0.73	2.66	0.82	2.62	0.86	2.97	0.60
중기 청소년 1 (중학생)	남자	1685	2.81	0.43	2.96	0.73	2.70	0.77	2.60	0.82	2.92	0.56
	여자	1719	2.82	0.45	3.01	0.75	2.74	0.68	2.40	0.81	3.04	0.52
	전체	3404	2.82	0.44	2.99	0.74	2.72	0.73	2.50	0.82	2.98	0.54
중기 청소년 2 (고등학생)	남자	2541	2.81	0.45	2.92	0.72	2.76	0.71	2.50	0.80	2.99	0.53
	여자	1425	2.78	0.42	2.97	0.72	2.65	0.61	2.35	0.76	3.03	0.48
	전체	3966	2.80	0.44	2.94	0.72	2.72	0.68	2.44	0.79	3.00	0.51
후기 청소년 (대학생)	남자	498	2.74	0.39	2.83	0.76	2.77	0.64	2.57	0.72	2.79	0.45
	여자	501	2.72	0.32	2.97	0.72	2.57	0.64	2.48	0.70	2.80	0.42
	전체	999	2.73	0.35	2.90	0.74	2.67	0.65	2.52	0.71	2.80	0.43
전체	남자	6236	2.81	0.44	2.97	0.73	2.71	0.76	2.57	0.82	2.93	0.55
	여자	5047	2.83	0.44	3.06	0.74	2.69	0.70	2.45	0.81	3.02	0.53
	전체	11283	2.82	0.44	3.01	0.74	2.70	0.73	2.51	0.81	2.97	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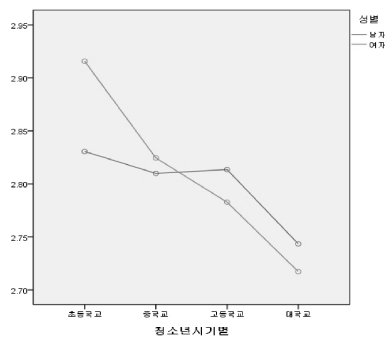
정서조절능력의 성별과 시기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80>과 같다. 먼저, 정서조절능력 전체의 경우 초기청소년 평균은 2.87(SD=.45), 중기청소년 1의 평균은 2.82(SD=.44), 중기청소년 2의 평균은 2.80(SD=.44), 후기청소년 평균은 2.73(SD=.35)로 나타나 초기청소년 평균 2.87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후 후기청소년으로 갈수록 수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그림 IV-40】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중기청소년 1까지는 여자청소년의 역량수준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이후부터 후기까지 남자청소년의 역량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행동의 경우, 초기청소년 평균 3.18(SD=.73), 중기청소년 1 평균 2.99(SD=.74), 중기청소년 2 평균 2.94(SD=.72), 후기청소년 평균 2.90(SD=.74)으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에 따른 변화를 보면, 여자청소년 집단이 남자청소년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후기청소년의 경우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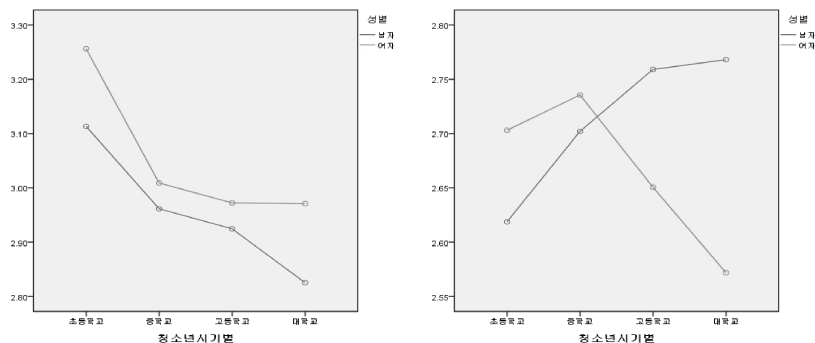
감정절제는 초기청소년이 평균 2.66(SD=.82)의 수치를 보였으며 중기청소년 1은 2.72(SD=.73), 중기청소년 2는 2.72(SD=.68), 후기청소년 2.67(SD=.65)로 나타나 초기청소년 이후 중기청소년 2 시기까지 소폭 상승하다가 후기청소년에서는 감소하지만 초기청소년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를 유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초기청소년 이후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여자청소년의 경우 초기청소년 1 시기 이후 후기청소년까지 감소하여 남자청소년과 상반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그림 IV-4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절실패의 경우 초기청소년은 평균 2.62($SD=.86$), 중기청소년 1은 평균 2.50($SD=.82$), 중기청소년 2 평균 2.44($SD=.79$), 후기청소년 평균 2.52($SD=.71$)로 분석되어 초기청소년 이후 감소하던 역량수준이 후기청소년에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모두 중기청소년 2시기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남자청소년 집단이 여자청소년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감정인식의 경우는 초기청소년 평균 2.97($SD=.60$), 중기 청소년 1 평균 2.98($SD=.54$), 중기청소년 2 평균 3.00($SD=.51$), 후기청소년 평균 2.80($SD=.43$)으로 초기청소년 이후 중기청소년 2시기까지 증가하던 감정인식역량은 후기청소년에 가서 급격히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자청소년의 경우 초기청소년에서 중기청소년 2시기까지 완만히 감소하다 후기청소년에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남자청소년의 경우는 중기청소년 2시기까지 상승하다 후기청소년 시기에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남자청소년의 역량수준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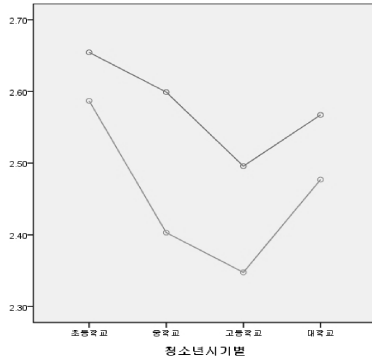


정서조절(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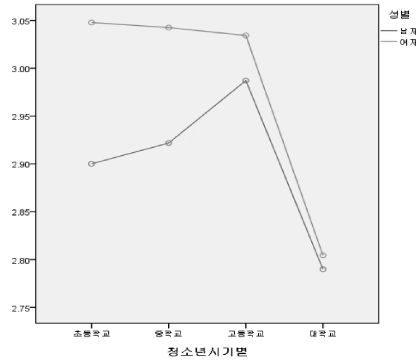


분노행동(좌)

감정절제(우)



조절실패(좌)



감정인식(우)

【그림 IV-40】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정서조절의 상호작용

표 IV-81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정서조절능력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

구분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정서조절	주효과	23.509a	7	3.358	17.811**
	간섭	65818.621	1	65818.621	349065.438**
	청소년 시기	17.986	3	5.995	31.795**
	성별	.240	1	.240	1.275
	청소년 시기*성별	5.922	3	1.974	10.470**
	잔차	2125.977	11275	.189	
분노행동	전체	91775.637	11283		
	주효과	143.460a	7	20.494	38.457**
	간섭	75512.866	1	75512.866	141698.821**
	청소년 시기	116.738	3	38.913	73.019**
	성별	19.276	1	19.276	36.171**
	청소년 시기*성별	5.806	3	1.935	3.632*
감정절제	잔차	6008.572	11275	.533	
	전체	108595.000	11283		
	주효과	35.100a	7	5.014	9.455**
	간섭	60478.224	1	60478.224	114040.034**
	청소년 시기	6.293	3	2.098	3.955**
	성별	4.569	1	4.569	8.616**
조절실패	청소년 시기*성별	25.278	3	8.426	15.888**
	잔차	5978.878	11274	.530	
	전체	88236.000	11282		
	주효과	112.976a	7	16.139	24.732**
	간섭	52981.095	1	52981.095	81186.253**
	청소년 시기	64.496	3	21.499	32.944**
감정인식	성별	32.924	1	32.924	50.452**
	청소년 시기*성별	7.129	3	2.376	3.641*
	잔차	7357.266	11274	.653	
	전체	78737.250	11282		
	주효과	65.393a	7	9.342	32.309**
	간섭	72354.499	1	72354.499	250237.789**
조절실패	청소년 시기	36.413	3	12.138	41.978**
	성별	14.254	1	14.254	49.299**
	청소년 시기*성별	6.287	3	2.096	7.248**
	잔차	3258.641	11270	.289	
	전체	102866.583	11278		

위 결과를 청소년 시기와 성별, 상호작용효과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IV-81>과 같다. 정서조절 전체의 경우, 시기에 따른 차이는 $F=31.795(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F=1.275$ 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요인의 상호작용효과는 $F=10.470(p<.001)$ 으로 유의미하여 청소년 정서조절역량의 발달에 있어서 시기의 독립적인 영향과 시기와 성별의 상호작용효과의 영향력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분노행동의 경우 청소년 시기에 따른 차이는 $F=73.019(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F=36.717(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두 변인 간 상호작용효과는 $F=3.632(p<.05)$ 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분노행동 역량의 발달에 있어서 시기와 성별의 독립적인 영향력과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감정절제역량의 경우는 시기에 따른 차이가 $F=3.955(p<.01)$ 로 유의미하였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F=8.616(p<.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또한 두 변인의 상호작용효과는 $F=15.888(p<.0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하여 감정절제에 있어 시기와 성별, 상호작용효과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조절실패에 있어서도 시기, 성별, 상호작용효과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시기에 따른 차이는 $F=32.944(p<.001)$, 성별에 따른 차이는 $F=50.452(p<.001)$, 상호작용효과는 $F=3.641(p<.05)$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인식의 경우, 시기에 따른 차이가 $F=14.978(p<.001)$ 로 유의미하였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F=49.299(p<.001)$ 로 유의미하여 두 변인의 독립적인 영향이 검증되었다. 또한 시기와 성별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F=7.248(p<.001)$ 로 나타나 청소년의 감정인식 발달에 있어 시기와 성별,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2)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변인이 청소년의 생활관리역량에 미치는 효과분석

본 절에서는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에 있어서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을 종속변인으로,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입력방식은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하여 1단계 투입 독립변인을 청소년의 개인특성(성별(남=1, 여=0), 학교급(청소년 시기)(초등학교(초기청소년)=1, 중학교(중기청소년)=2, 고등학교(중기청소년)=3, 대학생(후기 청소년)=4), 학업성취도 수준(상=1, 중=2, 하=3))으로 하였다. 그리고 2단계 투입 독립변인은

부모특성(부의 학력과 모의 학력(고졸이하=1, 전문대졸=2, 대졸이상=3)), 3단계 투입변인은 가구특성(가족구성(양부모=1, 한부모/조손/기타가정=0), 경제적 수준(상=1, 중=2, 하=3), 거주 지역(도시크기)(대도시=1, 중소도시=2)으로 하였다.

①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에 미치는 효과

표 IV-82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이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에 미치는 효과

구분		생활관리역량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023	-.030	-2.589**	-.023	-.030	-2.637**	-.023	-.031	-2.704**
	학교급	-.093	-.222	-18.150**	-.093	-.222	-18.113**	-.091	-.217	-17.753**
	학업성취도수준	-.103	-.176	-14.328**	-.098	-.167	-13.388**	-.088	-.150	-11.936**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10	.024	1.631	.005	.012	.820
	모의 학력				.011	.028	1.922	.009	.021	1.434
가구 특성	가족구성							.086	.066	6.977**
	경제적수준							-.046	-.088	-7.398**
	거주지역(도시크기)							.022	.028	2.444*
통계량	R ² (adj. R ²)	.111(.110)			.113(.112)			.121(.120)		
	R ² Change	.111			.002			.008		
	F	281.696**			172.703**			133.129**		

<표 IV-82>를 통해 청소년 생활역량에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영향을 살펴보면, 회귀모형 model3의 적합도는 F=133.129(p<.001)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R²=.121, adj. R²=.120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에 따른 영향력을 살펴보면, 먼저 개인적 특성에서는 성별(B=-.023, β =-.031, t=-2.704, p<.01), 학교급(B=-.091, β =-.217, t=-17.753, p<.001), 학업성취도(B=-.088, β =-.150, t=-11.936, p<.001)모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생활관리역량의 수준이 높으며, 학교급(청소년시기)이 낮을수록 생활관리역량이 높고, 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관리역량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모특성에서는 부와 모의 학력 모두 자녀의 생활관리역량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특성에 있어서는 가족구성(B=.086, β =.066, t=6.977, p<.001), 경제적수준(B=-.046, β =-.088, t=-7.398, p<.001), 거주지역(B=.022, β =.028, t=2.444, p<.05)이 모두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가족구성과 거주지역의 경우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족구성이

양부모일수록, 거주지가 중소도시일수록 역량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경제수준은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역량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학교급($\beta=-.217$), 학업성취도 수준($\beta=-.150$), 경제수준($\beta=-.088$), 가족구성($\beta=.066$), 성별($\beta=-.031$), 거주지역($\beta=.028$) 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②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에 미치는 효과

표 IV-83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이 청소년 건강관리에 미치는 효과

구분		건강관리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077	.084	7.146**	.076	.083	7.109**	.076	.083	7.099**
	학교급	-.107	-.212	-16.946**	-.107	-.212	-16.949**	-.105	-.207	-16.617**
	학업성취도수준	-.078	-.110	-8.784**	-.072	-.101	-7.991**	-.060	-.084	-6.557**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16	.032	2.132*	.009	.019	1.286
	모의 학력				.008	.017	1.104	.004	.009	.608
가구 특성	가족구성							.086	.053	5.624**
	경제적수준							-.056	-.089	-7.368**
	거주지역(도시/크기)							.036	.037	3.185**
통계량	R ² (adj. R ²)	.075(.075)			.077(.077)			.086(.085)		
	R ² Change	.075			.002			.009		
	F	184.307**			113.596**			91.130**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이 건강관리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IV-83>과 같다. 먼저 모형의 적합도는 $F=91.130(p<.001)$ 이며 설명력은 $R^2=.086$, adj. $R^2=.085$ 로 분석되었다.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 건강관리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성별($B=.076$, $\beta=.083$, $t=7.099$, $p<.001$), 학교급($B=-.105$, $\beta=-.207$, $t=-16.617$, $p<.001$), 학업성취도($B=-.060$, $\beta=-.084$, $t=-6.557$, $p<.001$) 모두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즉, 정적으로 유의미한 성별의 경우 남자 청소년일수록 건강관리역량이 높으며, 부적으로 유의미한 학교급과 학업성취도는 학교급이 낮고 성취도가 높을수록 건강관리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모특성은 청소년의 건강관리역량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특성은 가족구성($B=.086$, $\beta=.053$, $t=5.624$, $p<.001$)과 거주지역($B=.036$, $\beta=.037$, $t=3.185$,

$p<.01$)이 정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경제수준($B=-.056$, $\beta=-.089$, $t=-7.368$, $p<.001$)은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부모와 함께 살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거주지가 중소도시일수록 청소년의 건강관리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변인들의 영향력에 대한 우선순위는 학교급($\beta=-.027$), 경제수준($\beta=-.089$), 학업성취도 수준($\beta=-.084$), 성별($\beta=-.083$), 가족구성($\beta=.053$), 거주지역($\beta=.03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84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이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에 미치는 효과

구분		건강관리-위생관리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076	-.073	-6.118**	-.076	-.074	-6.153**	-.077	-.074	-6.230**
	학교급	-.062	-.108	-8.486**	-.062	-.109	-8.559**	-.060	-.105	-8.220**
	학업성취도수준	-.081	-.101	-7.903**	-.076	-.095	-7.336**	-.066	-.082	-6.259**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22	.040	2.611**	.017	.031	2.007*
	모의 학력				-.004	-.007	-.424	-.007	-.012	-.803
가구 특성	가족구성							.087	.047	5.027**
	경제적수준							-.051	-.073	-5.851**
	거주지역(도시크기)							.014	.013	1.056
통계량	R ² (adj. R ²)	.038(.037)			.039(.038)			.044(.043)		
	R ² Change	.038			.001			.005		
	F	88.557**			55.016**			44.550**		

건강관리 하위영역인 위생관리에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에 관해 분석한 결과는 <표 IV-84>와 같다. 먼저 모형의 적합도는 $F=44.550$ ($p<.001$)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R^2=.044$, adj. $R^2=.043$ 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중 성별($B=-.077$, $\beta=-.074$, $t=-6.230$, $p<.001$), 학교급($B=-.060$, $\beta=-.105$, $t=-8.220$, $p<.001$), 학업성취도($B=-.066$, $\beta=-.082$, $t=-6.259$, $p<.001$) 모두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청소년일수록,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위생관리역량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모특성에 있어서는 부의 학력($B=.017$, $\beta=.031$, $t=2.007$, $p<.05$)만이 자녀의 위생관리역량에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위생관리역량이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가구특성에서는 가족구성($B=.087$, $\beta=.047$, $t=5.027$, $p<.001$)이 부적으로, 경제적수준($B=-.051$, $\beta=-.073$, $t=-5.851$, $p<.001$)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양부모와 거주할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위생관리역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변인에 따른 영향력의 우선순위는 성별($\beta=-.105$), 학업성취도 수준($\beta=-.082$), 성별($\beta=-.074$), 경제적 수준($\beta=-.073$), 가족구성($\beta=.047$), 부의 학력($\beta=.031$) 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85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이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에 미치는 효과

구분		건강관리-신체관리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360	.239	20.615**	.360	.239	20.592**	.359	.239	20.639**
	학교급	-.168	-.201	-16.312**	-.167	-.201	-16.282**	-.165	-.198	-16.052**
	학업성취도수준	-.073	-.062	-5.046**	-.066	-.056	-4.491**	-.050	-.043	-3.367**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14	.018	1.197	.006	.008	.512
	모의 학력				.014	.017	1.135	.009	.011	.752
가구 특성	가족구성							.109	.042	4.429**
	경제적수준							-.068	-.066	-5.478**
	거주지역(도시/크기)							.064	.040	3.458**
통계량	R ² (adj. R ²)	.099(.099)			.100(.099)			.106(.105)		
	R ² Change	.099			.001			.006		
	F	248.454**			150.614**			114.245**		

신체관리역량에 있어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는 <표 IV-85>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모형의 적합도는 $F=114.245(p<.001)$ 로 유의미하였으며 설명력은 $R^2=.106$, adj. $R^2=.105$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 신체관리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에서는 성별($B=.359$, $\beta=.239$, $t=20.639$, $p<.001$)이 정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학교급($B=-.165$, $\beta=-.198$, $t=-16.052$, $p<.001$)과 학업성취도($B=-.050$, $\beta=-.043$, $t=-3.367$, $p<.01$)은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청소년보다 남자청소년이,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관리역량이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부모특성은 부의 학력과 모의 학력 모두 자녀의 신체관리역량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 가족구성($B=.109$, $\beta=.042$, $t=4.429$, $p<.001$)과 거주지역($B=.064$, $\beta=.040$, $t=3.458$, $p<.01$)이 정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경제적수준($B=-.068$, $\beta=-.066$, $t=-5.478$, $p<.001$)은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즉, 양부모일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중소도시에 거주할수록 청년의 신체관리역량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신체관리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하면, 성별($\beta=.239$), 학교급($\beta=-.198$), 경제적 수준($\beta=-.066$), 학업성취도($\beta=-.043$), 가족구성($\beta=.042$), 거주지역($\beta=.040$)의 순이다.

표 IV-86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이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에 미치는 효과

구분		건강관리-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059	.058	4.904**	.058	.058	4.868**	.058	.057	4.853**
	학교급	-.109	-.196	-15.584**	-.109	-.196	-15.559**	-.107	-.192	-15.262**
	학업성취도수준	-.078	-.100	-7.934**	-.072	-.092	-7.187**	-.060	-.076	-5.914**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13	.024	1.595	.007	.013	.845
	모의 학력				.012	.022	1.469	.008	.016	1.034
가구 특성	가족구성							.077	.043	4.563**
	경제적수준							-.054	-.079	-6.427**
	거주지역(도시크기)							.038	.035	2.999**
통계량	R ² (adj. R ²)	.062(.062)			.064(.063)			.071(.070)		
	R ² Change	.062			.002			.007		
	F	150.545**			92.933**			74.072**		

청소년의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86>과 같다. 모형의 적합도는 $F=74.072(p<.001)$ 로 유의미하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R^2=.071$, adj. $R^2=.070$ 으로 분석되었다.

개인적 특성에서는 성별($B=.058$, $\beta=.057$, $t=4.853$, $p<.001$)이 정적으로, 학교급($B=-.107$, $\beta=-.192$, $t=-15.262$, $p<.001$)과 학업성취도 수준($B=-.060$, $\beta=-.076$, $t=-5.914$, $p<.001$)은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여자보다 남자 청소년이,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역량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특성에서 부와 모의 학력은 자녀의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특성에 있어서는 가족구성($B=.077$, $\beta=.043$, $t=4.563$, $p<.001$)과 거주지역($B=.038$, $\beta=.035$, $t=2.999$, $p<.01$)이 정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경제적 수준($B=-.054$, $\beta=-.079$, $t=-6.427$, $p<.001$)은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양부모와 거주하는 청소년일수록, 경제적으로 높은 수준일수록, 거주지역이 중소도시일수록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변인들의 영향력에 대한 우선순위는 학교급($\beta=-.192$), 경제적 수준($\beta=-.079$), 학업성취도 수준($\beta=-.076$), 성별($\beta=.057$), 가족구성($\beta=.043$), 거주지역($\beta=.035$)의 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③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과제관리에 미치는 효과

표 IV-87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이 청소년 과제관리에 미치는 효과

구분		과제관리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033	-.032	-2.714**	-.034	-.033	-2.795**	-.035	-.034	-2.857**
	학교급	-.039	-.068	-5.371**	-.039	-.068	-5.430**	-.036	-.063	-5.052**
	학업성취도수준	-.167	-.208	-16.487**	-.156	-.194	-15.165**	-.142	-.176	-13.650**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34	.061	4.013**	.027	.048	3.165**
	모의 학력				.012	.021	1.403	.008	.014	.900
가구 특성	가족구성							.110	.060	6.323**
	경제적수준							-.065	-.092	-7.562**
	거주지역(도시크기)							.037	.033	2.845**
통계량	R ² (adj. R ²)	.060(.060)			.066(.065)			.075(.074)		
	R ² Change	.060			.006			.009		
	F	145.091**			95.680**			78.340**		

과제관리에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검증결과는 <표 IV-87>과 같다. 모형의 설명력은 $F=78.340(p<.001)$ 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R^2=.075$, adj. $R^2=.074$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소년 개인적 특성 중에서는 성별($B=-.035$, $\beta=-.034$, $t=-2.857$, $p<.01$), 학교급($B=-.036$, $\beta=-.063$, $t=-5.052$, $p<.001$), 학업성취도($B=-.142$, $\beta=-.176$, $t=-13.650$, $p<.001$) 모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남자 보다 여자 청소년이,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과제관리역량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특성에서는 부의 학력($B=.027$, $\beta=.048$, $t=3.165$, $p<.01$)이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부의 학력이 높은 수준일수록 자녀의 과제관리역량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가구특성에서는 가족구성($B=.110$, $\beta=.060$, $t=6.323$, $p<.001$), 거주지역($B=.037$, $\beta=.033$, $t=2.845$, $p<.01$)이 정적으로, 경제적수준($B=-.065$, $\beta=-.092$, $t=-7.562$, $p<.001$)은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양부모와 함께 사는 청소년일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과제관리역량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검증된 과제관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 크기를 정리하면, 학업성취도($\beta=-.176$), 경제적 수준($\beta=-.092$), 학교급($\beta=-.063$), 가족구성($\beta=.060$), 부의 학력($\beta=.048$), 성별($\beta=-.034$), 거주지역($\beta=.033$)과 같다.

표 IV-88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이 청소년 과제관리에 미치는 효과

구분		과제관리-목표 및 계획수립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047	-.044	-3.714**	-.048	-.045	-3.792**	-.048	-.045	-3.838**
	학교급	-.039	-.066	-5.215**	-.039	-.067	-5.291**	-.037	-.063	-4.975**
	학업성취도수준	-.164	-.199	-15.766**	-.154	-.186	-14.530**	-.141	-.170	-13.170**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35	.062	4.074**	.029	.050	3.317**
	모의 학력				.008	.014	.941	.004	.008	.501
가구 특성	가족구성							.110	.058	6.144**
	경제적수준							-.058	-.080	-6.513**
	거주지역(도시크기)							.038	.034	2.891**
통계량	R ² (adj. R ²)	.057(.057)			.062(.062)			.069(.068)		
	R ² Change	.057			.005			.007		
	F	137.296**			90.007**			72.039**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목표 및 계획수립 역량이 미치는 영향력 분석에 대한 결과는 <표 IV-88>에 제시된 바와 같다. 모형의 적합도는 $F=72.039(p<.001)$ 로 유의미하였으며 설명력은 $R^2=.069$, adj. $R^2=.068$ 로 분석되었다.

청소년 개인적 특성에서는 성별($B=-.048$, $\beta=-.045$, $t=-3.838$, $p<.001$), 학교급($B=-.037$, $\beta=-.063$, $t=-4.975$, $p<.001$), 학업성취도($B=-.141$, $\beta=-.170$, $t=-13.170$, $p<.001$) 모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보다 여자청소년이,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목표 및 계획수립에 대한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특성에서는 부의 학력($B=.029$, $\beta=.050$, $t=3.317$, $p<.01$)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목표 및 계획수립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가구특성에 속한 변인들 중에서는 가족구성($B=.110$, $\beta=.058$, $t=6.144$, $p<.001$)과 거주지역($B=.038$, $\beta=.034$, $t=2.891$, $p<.01$)은 정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경제적 수준($B=-.058$, $\beta=-.080$, $t=-6.513$, $p<.001$)은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양부모와 거주하는 청소년이,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대도시 보다는 중소도시에 사는 청소년이 목표 및 계획수립 역량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유의미한 변인들의 영향력 크기에 대한 우선순위는 학업성취도($\beta=-.170$), 경제적 수준($\beta=-.080$), 학교급($\beta=-.063$), 가족구성($\beta=.058$), 부의 학력($\beta=.050$), 성별($\beta=-.045$), 거주지역($\beta=.034$)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9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이 청소년 과제관리에 미치는 효과

구분		과제관리-수행 및 평가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007	-.006	-.466	-.008	-.006	-.537	-.008	-.007	-.608
	학교급	-.039	-.059	-4.672**	-.039	-.059	-4.685**	-.035	-.054	-4.257**
	학업성취도수준	-.173	-.189	-14.932**	-.161	-.176	-13.669**	-.144	-.157	-12.123**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31	.049	3.222**	.023	.036	2.354*
	모의 학력				.019	.030	1.987*	.014	.022	1.458
가구 특성	가족구성							.110	.053	5.587**
	경제적수준							-.080	-.100	-8.104**
	거주지역(도시크기)							.033	.027	2.267*
통계량	R ² (adj. R ²)	.048(.047)			.053(.052)			.062(.061)		
	R ² Change	.048			.005			.010		
	F	112.930**			75.321**			64.492**		

수행 및 평가 역량에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미치는 효과는 <표 IV-89>와 같다. 모형의 적합도는 $F=64.492(p<.001)$ 로 유의미하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R^2=.062$, adj. $R^2=.061$ 로 분석되었다.

청소년 개인특성에 있어서는 성별을 제외한 학교급($B=-.035$, $\beta=-.054$, $t=-4.257$, $p<.001$)과 학업성취도($B=-.144$, $\beta=-.157$, $t=-12.123$, $p<.001$)가 모두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학교급이 낮고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수행 및 평가 역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특성에서는 부의 학력($B=.023$, $\beta=.036$, $t=2.354$, $p<.05$)이 정적으로 유의미했으며 이는 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수행 및 평가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가구특성은 가족구성($B=.110$, $\beta=.053$, $t=5.587$, $p<.001$), 경제적수준($B=-.080$, $\beta=-.100$, $t=-8.104$, $p<.001$), 거주지역($B=.033$, $\beta=.027$, $t=2.267$, $p<.05$)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 수준만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양부모와 거주하는 청소년이, 경제적수준이 높을수록,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수행 및 평가 역량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높음을 의미한다.

④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상황대처능력에 미치는 효과

표 IV-90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이 청소년 상황대처능력에 미치는 효과

구분		상황대처능력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094	-.076	-6.526**	-.094	-.076	-6.530**	-.095	-.077	-6.570**
	학교급	-.165	-.241	-19.458**	-.164	-.240	-19.330**	-.163	-.238	-19.107**
	학업성취도수준	-.074	-.077	-6.222**	-.073	-.076	-6.002**	-.067	-.069	-5.424**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12	-.019	-1.257	-.015	-.023	-1.545
	모의 학력				.018	.028	1.844	.016	.025	1.649
가구 특성	가족구성							.080	.037	3.949**
	경제적수준							-.031	-.037	-3.019**
	거주지역(도시/크기)							.004	.003	.275
통계량	R ² (adj. R ²)	.088(.087)			.088(.087)			.089(.088)		
	R ² Change	.088			.000			.001		
	F	216.949**			130.881**			94.900**		

청소년 상황대처역량에 인구학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IV-90>과 같다. 모형의 적합도는 $F=94.900(p<.001)$ 로 유의미하였고 설명력은 $R^2=.089$, adj. $R^2=.088$ 로 분석되었다.

청소년 개인특성을 살펴보면, 성별($B=-.095$, $\beta=-.077$, $t=-6.570$, $p<.001$), 학교급($B=-.163$, $\beta=-.238$, $t=-19.107$, $p<.001$), 학업성취도($B=-.067$, $\beta=-.069$, $t=-5.424$, $p<.001$) 모두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 보다는 여자 청소년이,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상황대처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모특성에서는 자녀의 상황대처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특성 중에서는 가족구성($B=.080$, $\beta=.037$, $t=3.949$, $p<.001$)이 정적으로 유의미했으며, 경제적수준($B=-.031$, $\beta=-.037$, $t=-3.019$, $p<.01$)이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양부모와 거주하는 청소년일수록, 경제수준이 높은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상황대처역량이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각 변인들이 가지는 영향력의 크기를 정리하면, 학교급($\beta=-.238$), 성별($\beta=-.077$), 학업성취도($\beta=-.069$), 가족구성($\beta=.037$), 경제적수준($\beta=-.037$)이다.

표 IV-91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이 청소년 상황대처능력에 미치는 효과

구분		상황대처능력-중독인식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149	-.085	-7.256**	-.149	-.085	-7.253**	-.150	-.086	-7.342**
	학교급	-.254	-.261	-21.041**	-.253	-.260	-20.920**	-.249	-.256	-20.612**
	학업성취도수준	-.065	-.048	-3.842**	-.065	-.047	-3.763**	-.056	-.041	-3.231**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20	-.021	-1.389	-.023	-.025	-1.643
	모의 학력				.021	.022	1.471	.018	.019	1.262
가구 특성	가족구성							.122	.040	4.230**
	경제적수준							-.052	-.043	-3.578**
	거주지역(도시크기)							-.031	-.017	-1.448
통계량	R ² (adj. R ²)	.091(.090)			.091(.090)			.093(.092)		
	R ² Change	.091			.000			.002		
	F	225.629**			135.895**			99.372**		

청소년의 중독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9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모형의 적합도는 $F=99.372(p<.001)$ 로 유의미하였으며 모형 설명력은 $R^2=.093$, adj. $R^2=.092$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소년의 개인특성에 있어서는 성별($B=-.150$, $\beta=-.086$, $t=-7.342$, $p<.001$), 학교급($B=-.249$, $\beta=-.256$, $t=-20.612$, $p<.001$), 학업성취도($B=-.056$, $\beta=-.041$, $t=-3.231$, $p<.01$) 모든 변인이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청소년이,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중독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모특성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 가족구성($B=.122$, $\beta=.040$, $t=4.230$, $p<.001$)과 경제적수준($B=-.052$, $\beta=-.043$, $t=-3.578$, $p<.001$)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는데, 가족구성의 경우 정적, 경제적 수준의 경우 부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구성이 양부모인 청소년이,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중독인식에 대한 역량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중독인식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변인들의 크기를 정리하면, 학교급($\beta=-.256$), 성별($\beta=-.086$), 경제적 수준($\beta=-.043$), 학업성취도($\beta=-.041$), 가족구성($\beta=.040$) 순으로 분석되었다.

표 IV-92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이 청소년 상황대처능력에 미치는 효과

구분		상황대처능력-중독행동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001	-.001	-.058	-.001	-.001	-.055	-.002	-.001	-.100
	학교급	-.185	-.213	-16.93**7	-.184	-.212	-16.815**	-.182	-.210	-16.610**
	학업성취도수준	-.099	-.081	-6.456**	-.099	-.081	-6.341**	-.093	-.076	-5.892**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19	-.023	-1.532	-.022	-.026	-1.729
	모의 학력				.020	.024	1.581	.018	.022	1.431
가구 특성	가족구성							.067	.025	2.624**
	경제적수준							-.032	-.030	-2.425*
	거주지역(도시크기)							-.008	-.005	-.400
통계량	R ² (adj. R ²)	.064(.064)			.065(.064)			.065(.064)		
	R ² Change	.064			.000			.001		
	F	154.838**			93.516**			67.698**		

청소년의 중독행동역량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는 <표 IV-92>와 같다. 모형의 적합도는 $F=67.698(p<.0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R^2=.065$, adj. $R^2=.064$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중, 학교급($B=-.182$, $\beta=-.210$, $t=-16.610$, $p<.001$)과 학업성취도($B=-.093$, $\beta=-.076$, $t=-5.892$, $p<.001$)가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중독행동역량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모특성에서 유의미한 변인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족특성에서는 가족구성($B=.067$, $\beta=.025$, $t=2.624$, $p<.01$)이 정적으로, 경제적수준($B=-.032$, $\beta=-.030$, $t=-2.425$, $p<.05$)이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구성이 양부모인 청소년이, 경제적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중독행동역량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중독행동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크기는 학교급($\beta=-.210$), 학업성취도($\beta=-.076$), 경제적수준($\beta=-.030$), 가족구성($\beta=.025$)의 순으로 정리된다.

표 IV-93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이 청소년 상황대처능력에 미치는 효과

구분		상황대처능력-폭력행동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279	-.213	-18.150**	-.280	-.214	-18.189**	-.279	-.213	-18.130**
	학교급	-.086	-.118	-9.473**	-.085	-.118	-9.404**	-.086	-.119	-9.476**
	학업성취도수준	-.058	-.057	-4.539**	-.051	-.050	-3.951**	-.049	-.048	-3.757**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06	.008	.531	.004	.006	.407
	모의 학력				.021	.030	2.003*	.021	.030	1.976*
가구 특성	가족구성							.084	.037	3.917**
	경제적수준							.001	.001	.117
	거주지역(도시/크기)							.043	.031	2.645**
통계량	R ² (adj. R ²)	.074(.074)			.076(.075)			.076(.076)		
	R ² Change	.074			.001			.001		
	F	181.349**			110.744**			80.163**		

폭력행동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93>와 같다. 모형의 적합도는 $F=80.163(p<.001)$ 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R^2=.076$, adj. $R^2=.076$ 으로 분석되었다.

청소년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B=-.279$, $\beta=-.213$, $t=-18.130$, $p<.001$), 학교급($B=-.086$, $\beta=-.119$, $t=-9.476$, $p<.001$), 학업성취도($B=-.049$, $\beta=-.048$, $t=-3.757$, $p<.001$) 모두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남자보다는 여자청소년이,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폭력행동에 대한 역량이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부모특성에서는 모의 학력($B=.021$, $\beta=.030$, $t=1.976$, $p<.05$)이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모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폭력행동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가구특성에서는 가족구성($B=.084$, $\beta=.037$, $t=3.917$, $p<.001$)과 거주지역($B=.043$, $\beta=.031$, $t=2.645$, $p<.01$)이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가족구성이 양부모인 청소년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폭력행동역량의 수준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폭력행동에 유의미한 변인들의 영향력 크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리하면, 성별($\beta=-.213$), 학교급($\beta=-.119$), 학업성취도($\beta=-.048$), 가족구성($\beta=.037$), 거주지역($\beta=.031$), 모의 학력($\beta=.030$)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4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이 청소년 상황대처능력에 미치는 효과

구분		상황대처능력-폭력회피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072	-.053	-4.409**	-.072	-.053	-4.408**	-.072	-.053	-4.426**
	학교급	-.111	-.147	-11.526**	-.110	-.147	-11.462**	-.109	-.145	-11.276**
	학업성취도수준	-.042	-.040	-3.121**	-.042	-.040	-3.039**	-.033	-.031	-2.352*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07	-.010	-.639	-.012	-.016	-1.040
	모의 학력				.009	.012	.795	.006	.009	.558
가구 특성	가족구성							.064	.027	2.858**
	경제적수준							-.040	-.043	-3.460**
	거주지역(도시크기)							.028	.020	1.647
통계량	R ² (adj. R ²)	.032(.032)			.032(.031)			.034(.033)		
	R ² Change	.032			.000			.002		
	F	74.793**			45.000**			34.310**		

청소년의 폭력회피 역량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IV-94>와 같다. 모형의 적합도는 $F=34.310(p<.001)$ 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R^2=.034$, adj. $R^2=.033$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소년 개인적 특성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성별($B=-.072$, $\beta=-.053$, $t=-4.426$, $p<.001$), 학교급($B=-.109$, $\beta=-.145$, $t=-11.276$, $p<.001$), 학업성취도($B=-.033$, $\beta=-.031$, $t=-2.352$, $p<.05$) 모두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이는 여자청소년이,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업성취는 높을수록 폭력회피역량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모특성에서는 유의미한 변인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구특성에서는 가족구성($B=.064$, $\beta=.027$, $t=2.858$, $p<.01$)이 정적으로, 경제적 수준($B=-.040$, $\beta=-.043$, $t=-3.460$, $p<.01$)은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구성이 양부모인 청소년이,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폭력회피역량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앞서 검증된 유의미한 변인들의 영향력 크기를 정리하면, 학교급($\beta=-.145$), 성별($\beta=-.053$), 경제적수준($\beta=-.043$), 학업성취도($\beta=-.031$), 가족구성($\beta=.027$)과 같다.

⑤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효과

표 IV-95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이 청소년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효과

구분		정서조절능력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000	.000	.029	.000	.000	.000	.000	.000	-.027
	학교급	-.029	-.058	-4.535**	-.029	-.058	-4.540**	-.028	-.056	-4.339**
	학업성취도수준	-.090	-.130	-10.158**	-.086	-.125	-9.558**	-.080	-.116	-8.772**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11	.022	1.444	.008	.016	1.032
	모의 학력				.005	.011	.715	.003	.007	.469
가구 특성	가족구성							.066	.043	4.563**
	경제적수준							-.028	-.046	-3.686**
	거주지역(도시/크기)							.014	.015	1.251
통계량	R ² (adj. R ²)	.026(.025)			.027(.026)			.029(.028)		
	R ² Change	.026			.001			.002		
	F	59.610**			37.046**			28.685**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이 정서조절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IV-95>와 같다. 모형의 적합도는 $F=28.685(p<.001)$ 로 유의미하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R^2=.029$, adj. $R^2=.028$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중 학교급($B=-.028$, $\beta=-.056$, $t=-4.339$, $p<.001$)과 학업성취도($B=-.080$, $\beta=-.116$, $t=-8.772$, $p<.001$)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정서조절역량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모특성 중에는 정서조절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특성에 있어서는 가족구성($B=.066$, $\beta=.043$, $t=4.563$, $p<.001$)이 정적으로, 경제적 수준($B=-.028$, $\beta=-.046$, $t=-3.686$, $p<.001$)은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부모와 함께 사는 청소년이, 경제적으로 높은 수준일수록 정서조절역량의 수준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서조절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 크기를 비교하면, 학업성취도($\beta=-.116$), 학교급($\beta=-.056$), 경제적 수준($\beta=-.046$), 가족구성($\beta=.043$)과 같다.

표 IV-96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이 청소년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효과

구분		정서조절능력-분노행동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069	-.046	-3.855**	-.069	-.046	-3.865**	-.069	-.047	-3.889**
	학교급	-.067	-.082	-6.444**	-.067	-.082	-6.415**	-.066	-.080	-6.263**
	학업성취도수준	-.141	-.123	-9.596**	-.138	-.120	-9.256**	-.132	-.115	-8.697**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03	.003	.227	.000	-.001	-.035
	모의 학력				.008	.011	.684	.006	.008	.521
가구 특성	가족구성							.121	.047	4.973**
	경제적수준							-.031	-.031	-2.475*
	거주지역(도시크기)							.012	.007	.617
통계량	R ² (adj. R ²)	.033(.032)			.033(.032)			.034(.033)		
	R ² Change	.033			.000			.001		
	F	76.744**			46.272**			34.005**		

분노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IV-96>에 제시된 바와 같다. 모형의 적합도는 $F=34.005(p<.001)$ 로 유의미하였고, 모형의 설명력은 $R^2=.034$, adj. $R^2=.033$ 으로 분석되었다.

청소년의 개인 특성 중에서는 성별($B=-.069$, $\beta=-.047$, $t=-3.889$, $p<.001$), 학교급($B=-.066$, $\beta=-.080$, $t=-6.263$, $p<.001$), 학업성취도($B=-.132$, $\beta=-.115$, $t=-8.697$, $p<.001$) 모두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보다 여자청소년이,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업성취도가 우수할수록 높은 수준의 분노행동역량을 보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모특성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변인이 없었으며 가구특성에서는 가족구성($B=.121$, $\beta=.047$, $t=4.973$, $p<.001$)이 정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경제적 수준($B=-.031$, $\beta=-.031$, $t=-2.475$, $p<.001$)이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이는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이,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행동역량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유의미한 영향력들의 우선순위를 분석하면, 학업성취도($\beta=-.115$), 학교급 ($\beta=-.080$), 성별과 가족구성($\beta=-.047$, .047), 경제적 수준($\beta=-.031$)의 순과 같다.

표 IV-97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이 청소년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효과

구분		정서조절능력-감정절제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028	.019	1.583	.028	.019	1.562	.028	.019	1.553
	학교급	.012	.014	1.110	.012	.015	1.170	.013	.016	1.242
	학업성취도수준	-.058	-.051	-3.923**	-.052	-.046	-3.488**	-.048	-.042	-3.166**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01	.001	.077	-.001	-.001	-.093
	모의 학력				.021	.027	1.746	.020	.026	1.643
가구 특성	가족구성							.007	.003	.296
	경제적수준							-.019	-.019	-1.485
	거주지역(도시크기)							.012	.008	.628
통계량	R ² (adj. R ²)	.003(.002)			.003(.003)			.004(.003)		
	R ² Change	.003			.001			.000		
	F	5.716**			4.477**			3.571**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과 감정절제역량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97>과 같다. 모형의 적합도는 $F=3.571(p<.01)$ 이며 설명력은 $R^2=.004$, adj. $R^2=.003$ 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변인 중에서는 학업성취도($B=-.048$, $\beta=-.042$, $t=-3.166$, $p<.001$)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학업성취도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감정절제역량의 수준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외 부모특성과 가구특성에서는 청소년의 감정절제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98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이 청소년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효과

구분		정서조절능력-조절실패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151	.092	7.638**	.151	.092	7.621**	.149	.091	7.548**
	학교급	-.042	-.047	-3.649**	-.043	-.048	-3.707**	-.040	-.044	-3.403**
	학업성취도수준	-.109	-.086	-6.687**	-.106	-.083	-6.353**	-.095	-.075	-5.619**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23	.026	1.694	.018	.021	1.316
	모의 학력				-.008	-.009	-.576	-.011	-.013	-.841
가구 특성	가족구성							.095	.033	3.537**
	경제적수준							-.061	-.055	-4.364**
	거주지역(도시크기)							-.014	-.008	-.689
통계량	R ² (adj. R ²)	.019(.018)			.019(.018)			.022(.021)		
	R ² Change	.019			.000			.003		
	F	43.164**			26.550**			21.797**		

조절실패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분석은 다음 <표 IV-98>과 같다. 모형의 적합도는 $F=21.797(p<.001)$ 로 유의미하였으며 설명력은 $R^2=.022$, adj. $R^2=.021$ 로 나타났다.

먼저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B=.149$, $\beta=.091$, $t=7.548$, $p<.001$)은 정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그 외 학교급($B=-.040$, $\beta=-.044$, $t=-3.403$, $p<.001$)과 학업성취도($B=-.095$, $\beta=-.075$, $t=-5.619$, $p<.001$)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자청소년보다 남자청소년이,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조절실패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모특성에서는 조절실패역량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변인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특성에서는 가족구성($B=-.061$, $\beta=-.055$, $t=-3.537$, $p<.001$)과 경제적 수준($B=-.061$, $\beta=-.055$, $t=-4.364$, $p<.001$)이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가족구성이 양부모인 청소년이,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조절실패역량의 수준이 높다고 해석 가능하다.

조절실패역량에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된 요인들의 영향력 크기는 성별($\beta=.091$), 학업성취도($\beta=-.075$), 경제적 수준($\beta=-.055$), 학교급($\beta=-.044$), 가족구성($\beta=.033$) 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99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이 청소년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효과

구분		정서조절능력-감정인식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073	-.068	-5.621**	-.074	-.068	-5.647**	-.073	-.068	-5.605**
	학교급	-.020	-.034	-2.614**	-.020	-.034	-2.645**	-.020	-.034	-2.655**
	학업성취도수준	-.066	-.079	-6.088**	-.062	-.074	-5.618**	-.058	-.069	-5.205**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15	.025	1.626	.012	.022	1.379
	모의 학력				.002	.003	.205	.001	.002	.103
가구 특성	가족구성							.047	.025	2.613**
	경제적수준							-.010	-.014	-1.117
	거주지역(도시크기)							.037	.033	2.687**
통계량	R ² (adj. R ²)	.015(.015)			.016(.015)			.017(.016)		
	R ² Change	.015			.001			.001		
	F	34.970**			21.996**			16.941**		

감정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IV-99>와 같다. 모형의 적합도는 $F=16.941(p<.001)$ 로 유의미하였고 모형의 설명력은 $R^2=.017$, adj. $R^2=.016$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소년 개인적 특성은 모두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는데, 성별($B=-.073$, $\beta=-.068$, $t=-5.605$, $p<.001$), 학교급($B=-.020$, $\beta=-.034$, $t=-2.655$, $p<.001$), 학업성취도($B=-.058$, $\beta=-.069$, $t=-5.205$, $p<.001$) 모두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청소년 보다 여자청소년이,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감정인식역량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모특성에서는 유의미한 변인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구특성에서는 가족구성($B=.047, \beta=.025, t=2.613, p<.01$)과 거주지역($B=.037, \beta=.033, t=2.687, p<.01$)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구성이 양부모인 청소년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높은 수준의 감정인식역량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감정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은 학업성취도($\beta=-.069$), 성별($\beta=-.068$), 학교급($\beta=-.034$), 거주지역($\beta=.033$), 가족구성($\beta=.025$) 순으로 분석되었다.

3)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측정 결과 심층 분석

(1)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에 있어 청소년 시기와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과의 상호작용 차이 분석⁷⁾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은 특정 시기의 발달과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적으로 발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은 청소년을 둘러싼 내외적인 환경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하게 된다. 이에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의 발달에 있어 청소년 둘러싼 환경변인에 있어 어떠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이 상호작용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에 있어 청소년 시기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은 성별로 나타났으며, 본 절에서는 청소년 시기에 따른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①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진로개발역량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

청소년 시기에 따른 진로개발역량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상호작용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표 IV-100>에 제시하였다.

7) 청소년의 발달시기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변화를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에 따라 살펴보기 위하여 상호작용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의 발달시기에 있어 성별에 따른 변화만이 상호작용효과로서 그 변화추이가 나타났고, 다른 인구통계학적 변인, 즉 학업성취도 수준, 부모의 학력수준, 가족구성, 가정 경제적 수준, 그리고 거주지역 등의 변인에 있어서는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청소년의 발달시기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변화는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를 제시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효과의 변화가 청소년 역량발달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IV-100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기초통계분석 결과

청소년 시기	성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초기 청소년 (초등학생)	남자	1512	2.99	0.42
	여자	1402	3.02	0.41
	전체	2914	3.01	0.42
중기 청소년 1 (중학생)	남자	1684	2.94	0.39
	여자	1719	2.91	0.38
	전체	3403	2.93	0.39
중기 청소년 2 (고등학생)	남자	2541	2.91	0.37
	여자	1425	2.87	0.35
	전체	3966	2.90	0.36
후기 청소년 (대학생)	남자	499	2.88	0.29
	여자	501	2.78	0.26
	전체	1000	2.83	0.28
전체	남자	6236	2.94	0.39
	여자	5047	2.92	0.38
	전체	11283	2.93	0.38

<표 IV-100>에 의하면, 초기 청소년(초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평균은 3.01(SD=.42), 중기 청소년 1(중학생)의 평균은 2.93(SD=.39),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의 평균은 2.90(SD=.36), 후기 청소년(대학생)의 평균은 2.83(SD=.28)로 나타나, 초기 청소년(초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이 가장 높고, 후기 청소년 2(대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초기 청소년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높지만, 중기 청소년 1(중학생) 이후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그림 IV-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변화의 폭이 여자 청소년에게서 더 급격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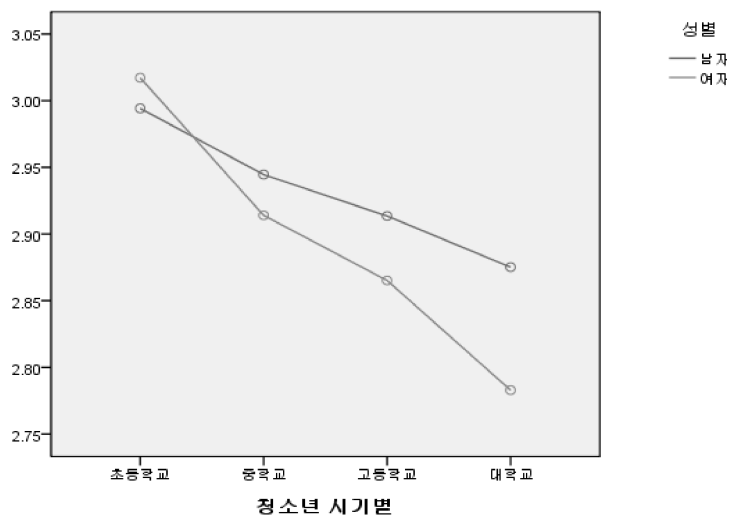
이와 같이 청소년 시기에 따라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성별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IV-101>와 같다.

표 IV-101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주효과	36.652a	7	5.236	36.766**
간접	71050.085	1	71050.085	498888.155**
청소년 시기	32.796	3	10.932	76.761**
성별	2.871	1	2.871	20.161**
청소년 시기*성별	3.299	3	1.100	7.722**
잔차	1605.750	11275	.142	
전체	98396.424	11283		

<표 IV-101>에 의하면, 청소년 시기별 진로개발역량의 차이는 $F=76.761$,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차이도 $F=20.161$,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진로개발역량의 차이가 각각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차이가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F=7.722$,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시기에 따라 성별의 차이가 가산되어 진로개발역량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 발달에 있어서는 성별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여자 청소년에 대한 생애학습역량 발달에 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림 IV-41】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상호작용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시기에 따른 진로개발역량을 구성하는 역량, 즉 진로설계, 여가활용, 그리고 개척정신에 대한 상호작용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②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진로설계 상호작용 분석 결과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라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자기탐색, 직업탐색, 직업가치관, 진로준비)에 차이가 있는지를 상호작용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표 IV-102>에 제시하였다.

표 IV-102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진로설계의 기초통계분석 결과

청소년 시기	성별	사례수	진로설계									
			전체		자기탐색		직업탐색		직업가치관		진로준비	
			M	SD	M	SD	M	SD	M	SD	M	SD
초기 청소년 (초등학생)	남자	1512	3.09	0.58	3.23	0.63	2.96	0.75	3.18	0.65	3.04	0.66
	여자	1402	3.18	0.53	3.32	0.61	3.01	0.70	3.29	0.58	3.13	0.62
	전체	2914	3.14	0.56	3.27	0.62	2.98	0.73	3.23	0.62	3.08	0.64
중기 청소년 1 (중학생)	남자	1685	3.02	0.54	3.16	0.59	2.88	0.70	3.11	0.61	2.96	0.65
	여자	1719	3.08	0.52	3.21	0.59	2.92	0.69	3.20	0.58	3.00	0.63
	전체	3404	3.05	0.53	3.19	0.59	2.90	0.70	3.16	0.60	2.98	0.64
중기 청소년 2 (고등학생)	남자	2541	3.00	0.51	3.14	0.57	2.87	0.66	3.07	0.61	2.94	0.62
	여자	1425	3.06	0.46	3.14	0.54	2.97	0.60	3.13	0.55	3.01	0.58
	전체	3966	3.02	0.49	3.14	0.56	2.91	0.64	3.09	0.59	2.97	0.61
후기 청소년 (대학생)	남자	499	3.01	0.39	3.05	0.47	2.97	0.51	3.01	0.52	3.00	0.49
	여자	501	2.99	0.36	3.02	0.43	2.94	0.50	3.03	0.47	2.97	0.47
	전체	1000	3.00	0.37	3.04	0.45	2.96	0.51	3.02	0.50	2.99	0.48
전체	남자	6237	3.03	0.53	3.16	0.59	2.91	0.68	3.10	0.62	2.97	0.63
	여자	5047	3.09	0.50	3.20	0.58	2.96	0.65	3.19	0.57	3.04	0.60
	전체	11284	3.06	0.52	3.18	0.58	2.93	0.67	3.14	0.60	3.00	0.62

<표 IV-102>에 의하면, 진로설계에 있어서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평균이 3.14(SD=.56)로 가장 높고, 후기 청소년(대학생) 평균이 3.00(SD=.3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중기 청소년 1(중학생),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 시기까지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높지만, 후기 청소년(대학생) 시기에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그림 IV-42】에서 진로설계의 변화 추이를 보면, 성별에 따라 남자 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모두 감소하는 변화 추세를 보이지만,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감소하는 추세의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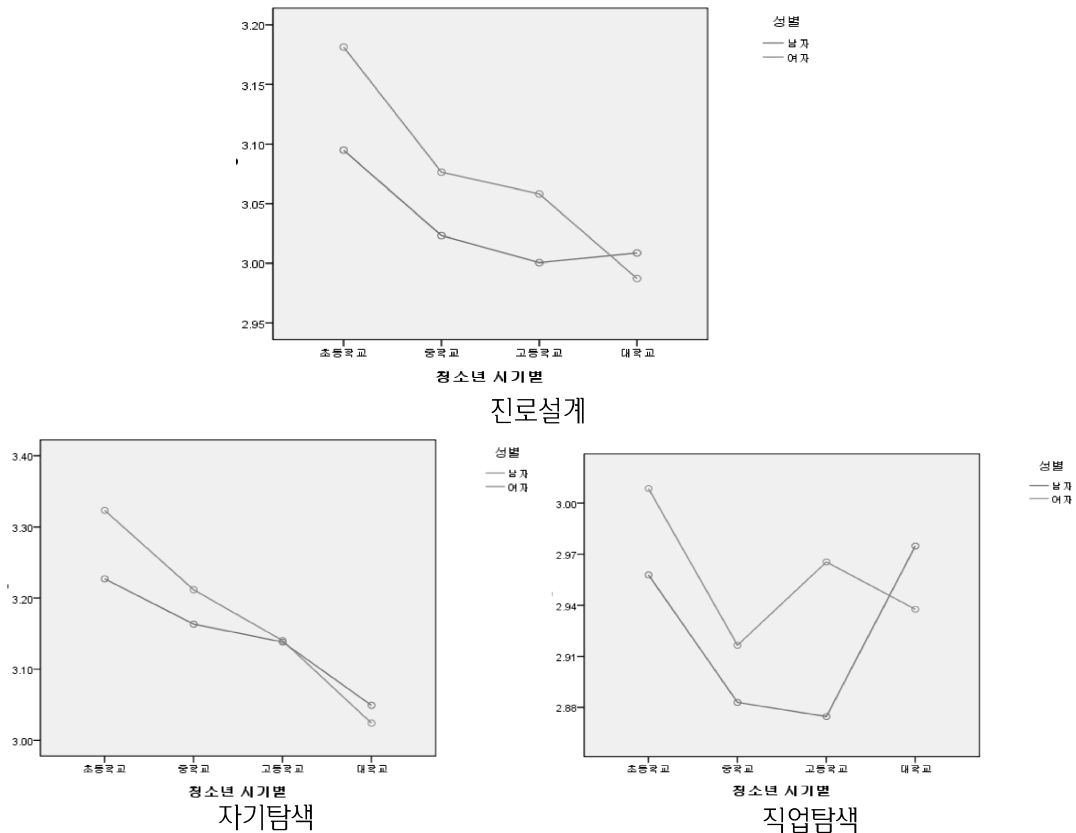
자기탐색에 있어서는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평균이 3.27(SD=.62)로 가장 높고, 대학생 평균이 3.04(SD=.4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초기 청소년(초등학생)과 중기 청소년 1(중학생)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높지만,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 시기에는 남녀 동일하고, 후기청소년(대학생) 시기에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42】에서 자기탐색의 변화 추이를 보면, 남자 청소년 보다 여자 청소년의 진로설계능력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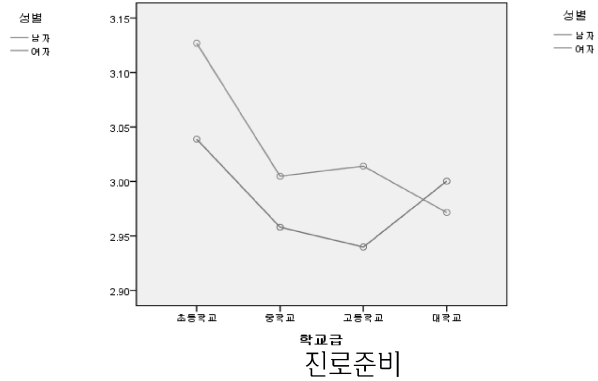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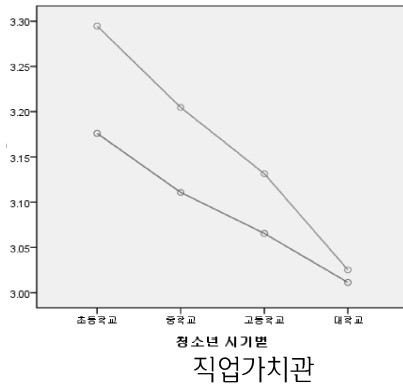
직업탐색에 있어서도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평균이 2.98(SD=.73)로 가장 높고, 중기 청소년(중학생) 평균이 2.90(SD=.7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청소년 시기에 따라 직업탐색능력은 감소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 시기까지 점차 감소했다가 대학생 시기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시기까지 감소했다가 고등학교 시기때 상승하

고 다시 대학생시기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직업가치관에 있어서도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평균이 3.23(SD=.62)로 가장 높고, 후기 청소년(대학생) 평균이 3.02(SD=.5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청소년 시기에 따라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 직업가치관 수준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진로준비에 있어서는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평균이 3.08(SD=.64)로 가장 높고, 고등학생 평균이 2.97(SD=.6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초기 청소년(초등학생)에서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 시기까지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높지만, 후기 청소년(대학생) 시기에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42】에서 진로준비의 변화 추이를 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고등학교 시기까지 점차 감소했다가 대학생 시기때 상승 추세를 보이는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시기때 급격히 감소하고 고등학교 시기때 조금 상승했다가 대학생 시기때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IV-42】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진로설계의 상호작용

이와 같이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진로설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103>에 제시되었다.

표 IV-103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진로설계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

구분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진로설계	주효과	38,172a	7	5.453	20.783**
	간섭	78068.460	1	78068.460	297530.793**
	청소년 시기	25,382	3	8.461	32.245**
	성별	4,052	1	4.052	15.443**
	청소년 시기*성별	2,181	3	.727	2.771*
	잔차	2958.685	11276	.262	
	전체	108491.737	11284		
자기탐색	주효과	61,737a	7	8.820	26.428**
	간섭	83570.337	1	83570.337	250418.686**
	청소년 시기	53,169	3	17.723	53.107**
	성별	1,937	1	1.937	5.806*
	청소년 시기*성별	4,725	3	1.575	4.719**
	잔차	3763.054	11276	.334	
	전체	117878.826	11284		
직업탐색	주효과	24,525a	7	3.504	7.840**
	간섭	72346.491	1	72346.491	161887.968**
	청소년 시기	12,257	3	4.086	9.143**
	성별	2,498	1	2.498	5.590*
	청소년 시기*성별	3,665	3	1.222	2.734*
	잔차	5039.158	11276	.447	
	전체	101848.576	11284		

구분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직업가치관	주효과	73.208a	7	10.458	29.896**
	간섭	81878.603	1	81878.603	234060.532**
	청소년 시기	48,255	3	16.085	45.981**
	성별	11.191	1	11.191	31.990**
	청소년 시기*성별	2,470	3	.823	2,354
	잔차	3944.549	11276	.350	
	전체	115333.611	11284		
진로준비	주효과	37.682a	7	5.383	14.220**
	간섭	75682.656	1	75682.656	199923.110**
	청소년 시기	22,712	3	7.571	19.999**
	성별	4.253	1	4.253	11.235**
	청소년 시기*성별	2.877	3	.959	2.533
	잔차	4268.251	11275	.379	
	전체	106018.000	11283		

<표 IV-103>에 의하면, 진로설계에 있어서는 청소년 시기별 차이는 $F=32.24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차이도 $F=15.443$,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F=2.771$,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시기에 따라 성별의 차이가 가산되어 진로설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진로설계 발달에 있어서 성별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여자 청소년에 대한 진로설계 발달에 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자기탐색에 있어서는 청소년 시기별 차이는 $F=53.107$,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F=5.806$,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F=4.719$,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청소년 시기에 따라 성별의 차이가 가산되어 자기탐색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별 자기탐색 발달에 있어서 성별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초기 청소년과 중기청소년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높지만, 후기 청소년에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시기에 따라 여자 청소년들의 자기탐색의 수준이 낮아지므로 더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직업탐색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 차이는 $F=9.143$,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차이도 $F=5.590$,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시기별과 성별에 따라 각각 독립적으로 직업탐색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를 보면, $F=2.734$,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시기에 따라 성별의 차이가 가산되어 직업탐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직업탐색 수준이 중기청소년 1(중학생)에서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에서 증가하지만,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여자 청소년의 경우,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에서 후기 청소년(대학생)으로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직업가치관에 있어서는 청소년 시기별 차이는 $F=45.981$,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F=31.990$,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F=2.354$,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청소년 시기에 따라 성별의 차이가 가산되어 직업가치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시기와 성별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 시기별 직업가치관이 초기 청소년(초등학생)에서 후기 청소년(대학생)으로 가면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낮으므로 남자 청소년의 직업가치관 발달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진로준비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 차이는 $F=19.999$,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차이도 $F=11.23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를 보면, $F=2.533$,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시기에 따라 성별의 차이가 가산되어 진로준비에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청소년 시기와 성별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직업탐색 수준이 중기청소년 1(중학생)에서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에서 증가하지만,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여자 청소년의 경우,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에서 후기 청소년(대학생)으로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증가 추세를 보인다.

③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여가활용능력 상호작용 분석 결과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라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용능력(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여가만족, 여가몰입)에 차이가 있는지를 상호작용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표 IV-104>에 제시하였다.

표 IV-104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여가활용능력 상호작용 분석 결과

청소년 시기	성별	사례수	여가활용능력									
			전체		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여가만족		여가몰입	
			M	SD	M	SD	M	SD	M	SD	M	SD
초기 청소년 (초등학생)	남자	1512	3.21	0.55	3.36	0.57	2.93	0.73	3.33	0.68	3.20	0.65
	여자	1402	3.18	0.52	3.41	0.53	2.80	0.69	3.35	0.65	3.12	0.64
	전체	2914	3.19	0.53	3.39	0.55	2.87	0.72	3.34	0.67	3.16	0.65
중기 청소년 1 (중학생)	남자	1685	3.19	0.52	3.36	0.54	2.85	0.72	3.25	0.64	3.22	0.59
	여자	1719	3.08	0.48	3.36	0.52	2.62	0.67	3.15	0.64	3.10	0.62
	전체	3404	3.13	0.50	3.36	0.53	2.73	0.71	3.20	0.64	3.16	0.61
중기 청소년 2 (고등학생)	남자	2541	3.13	0.49	3.34	0.51	2.75	0.71	3.15	0.63	3.19	0.57
	여자	1425	2.98	0.46	3.25	0.49	2.54	0.65	3.02	0.61	3.01	0.58
	전체	3966	3.08	0.48	3.31	0.51	2.67	0.69	3.10	0.63	3.13	0.58
후기 청소년 (대학생)	남자	499	3.03	0.40	3.17	0.47	2.84	0.54	3.06	0.56	3.01	0.49
	여자	501	2.87	0.39	3.07	0.47	2.59	0.56	2.87	0.53	2.85	0.50
	전체	1000	2.95	0.40	3.12	0.47	2.72	0.57	2.96	0.55	2.93	0.50
전체	남자	6237	3.16	0.51	3.34	0.53	2.83	0.71	3.21	0.65	3.19	0.59
	여자	5047	3.06	0.49	3.31	0.52	2.64	0.67	3.14	0.64	3.06	0.61
	전체	11284	3.11	0.50	3.33	0.53	2.74	0.70	3.18	0.64	3.13	0.60

<표 IV-104>에 의하면, 여가활용능력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로는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평균이 3.19(SD=.53)로 가장 높고, 후기 청소년(대학생) 평균이 2.95(SD=.4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여가활용능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3】에서 여가활용능력의 변화 추이를 보면, 성별에 따라 남녀 청소년 모두 초기-후기 청소년 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자 청소년의 감소 추세가 남자 청소년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태도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로는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평균이 3.39(SD=.55)로 가장 높고, 후기 청소년(대학생) 평균이 3.12(SD=.4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높지만, 중기 청소년 1(중학생) 이후부터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여가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43】에서 여가태도의 변화 추이를 보면,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여가태도가 높지만, 중기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녀 모두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에서 후기 청소년(대학생)으로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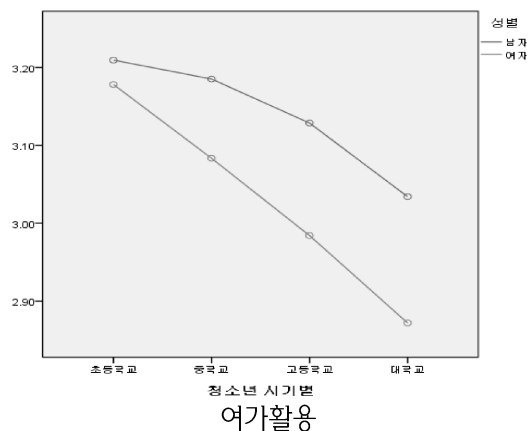
여가유능감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로는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평균이 2.87(SD=.72)로 가장 높고,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 평균이 2.67(SD=.6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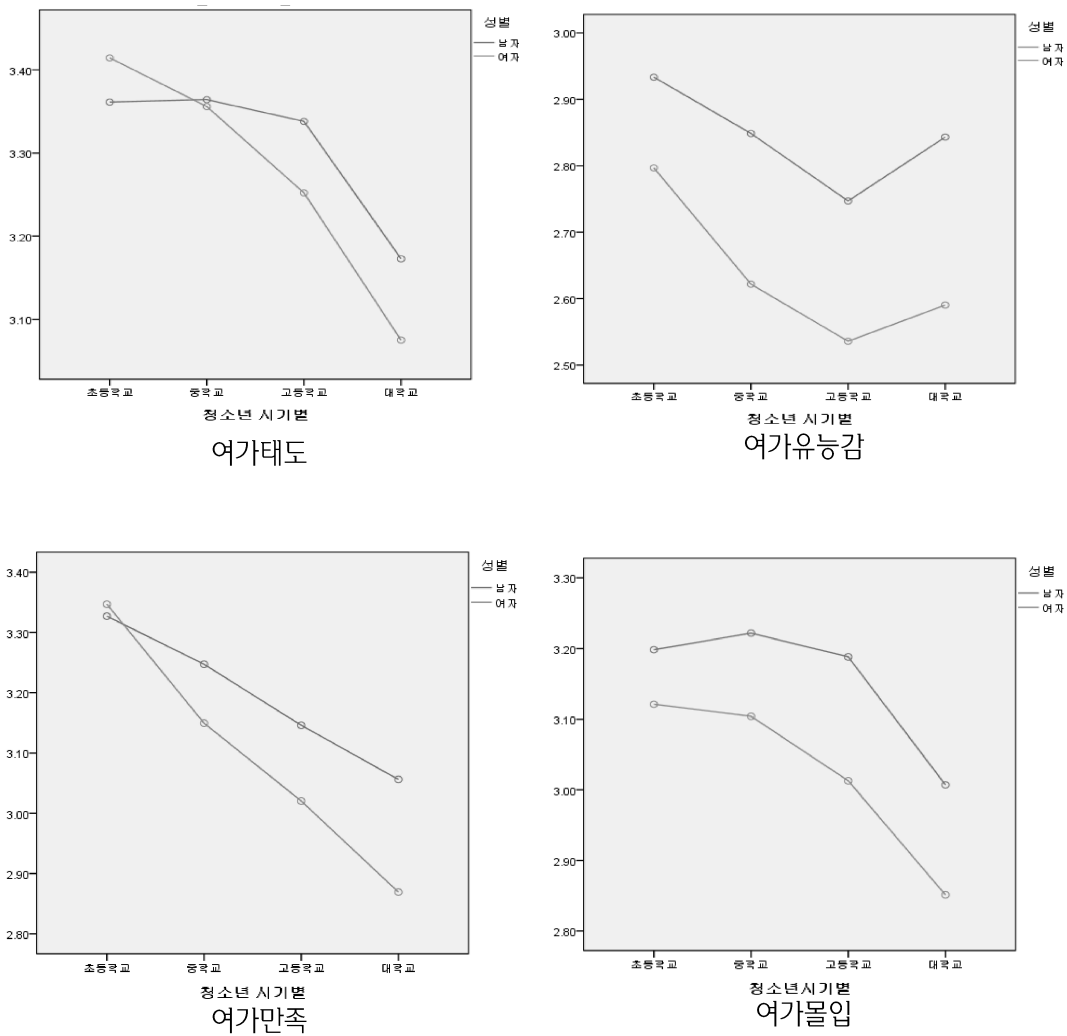
분석한 결과, 청소년 전체 시기에 걸쳐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3】에서 여가유능감의 변화 추이를 보면,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시기부터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여가유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 중기 청소년 시기까지 비슷한 변화의 폭으로 감소를 하지만 후기 청소년(대학생) 시기가 되면, 남녀 모두 상승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자 청소년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면서 남녀간의 여가유능감에 대한 차이는 보다 벌어지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여가만족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로는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평균이 3.34(SD=.67)로 가장 높고, 후기 청소년(대학생) 평균이 2.96(SD=.55)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여가태도와 비슷하게 초기 청소년(초등학생)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여가만족 수준이 근소한 차이로 높으나 중기 청소년 1(중학생) 시기로 넘어가면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3】에서 여가만족의 변화 추이를 보면,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여가만족에 있어 감소하는 변화의 폭이 커서 남녀간의 여가만족 수준에 대한 차이는 보다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여가몰입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로는 초기 청소년(초등학생)과 중기 청소년 1(중학생) 시기의 평균이 3.16(SD=.65, .61)로 가장 높고, 후기 청소년(대학생) 평균이 2.93(SD=.5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림 IV-43】에서 여가몰입능력의 변화 추이를 보면, 남녀 청소년 모두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시기에서 중기 청소년 1(중학생)로 넘어가면서 약간 상승했다가 그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에서 후기 청소년(대학생)으로 넘어가면서 감소하는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3】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여가활용능력의 상호작용

이와 같이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여가활용능력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105>에 제시되었다.

표 IV-105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여가활용능력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

구분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여가활용능력	주효과	86.790	7	12.399	50.872**
	간섭	79641.973	1	79641.973	326775.920**
	청소년 시기	57.502	3	19.167	78.645**
	성별	25.297	1	25.297	103.795**
	청소년 시기*성별	6.193	3	2.064	8.470**
	잔차	2748.192	11276	.244	
	전체	112213.542	11284		
여가태도	주효과	68.324	7	9.761	35.950**
	간섭	90706.814	1	90706.814	334094.189**
	청소년 시기	59.444	3	19.815	72.981**
	성별	2.525	1	2.525	9.300**
	청소년 시기*성별	9.415	3	3.138	11.559**
	잔차	3061.442	11276	.272	
	전체	128066.377	11284		
여가 유능감	주효과	180.827	7	25.832	54.902**
	간섭	62831.329	1	62831.329	133535.805**
	청소년 시기	81.589	3	27.196	57.801**
	성별	89.558	1	89.558	190.338**
	청소년 시기*성별	4.358	3	1.453	3.087*
	잔차	5305.589	11276	.471	
	전체	90505.708	11284		
여가만족	주효과	176.195	7	25.171	62.841**
	간섭	82810.820	1	82810.820	206744.387**
	청소년 시기	154.033	3	51.344	128.186**
	성별	19.928	1	19.928	49.752**
	청소년 시기*성별	12.230	3	4.077	10.177**
	잔차	4516.166	11275	.401	
	전체	118698.750	11283		
여기몰입	주효과	97.182	7	13.883	39.160**
	간섭	79822.408	1	79822.408	225154.225**
	청소년 시기	48.712	3	16.237	45.800**
	성별	36.205	1	36.205	102.124**
	청소년 시기*성별	4.199	3	1.400	3.948**
	잔차	3996.541	11273	.355	
	전체	114496.063	11281		

<표 IV-105>에 의하면, 여가활용능력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 차이는 $F=78.64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차이도 $F=103.79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여가활용능력의 차이가 각각 독립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를 보면, $F=8.470$,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시기에 따라 성별의 차이가 가산되어 여가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여가활용능력 발달에 있어서 성별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여자 청소년이 후기 청소년(대학생) 시기에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추이를 보았을 때 후기 청소년 시기의 여자 청소년에 대한 여가활용능력 발달에 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여가태도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 차이는 $F=72.981$,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F=9.300$,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여가태도의 차이가 각각 독립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F=11.559$,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시기에 따라 성별의 차이가 가산되어 여가태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여가태도에 있어서 성별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의 여가태도가 남자 청소년 보다 높았다가 중기 청소년으로 넘어가면서 남자 청소년의 여가 태도가 여자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기 이후 여자 청소년들의 여가 태도에 대한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여가유능감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 차이는 $F=57.801$,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F=190.338$,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여가유능감의 차이가 각각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F=3.087$,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가유능감은 청소년 시기에 따라 성별의 차이가 가산되어 여가유능감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 시기 전체에 있어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여가유능감이 높으나 청소년 시기가 지남에 따라 남녀 차이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자 청소년들의 여가유능감 발달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여가만족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 차이는 $F=128.186$,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F=49.752$,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여가만족의 차이가 각각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F=10.177$,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가만족에 있어 청소년 시기에 따라 성별의 차이가 가산되어 여가만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시기에는 근소한 차이로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의 여가만족이 높지만, 중기 청소년 시기 이후부터는 남자 청소년의 여가만족 수준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시기가 지남에 따라 남녀 여가만족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여자 청소년들의 여가만족 발달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여가몰입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 차이는 $F=45.800$,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F=102.124$,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여가몰입의 차이가 각각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F=3.948$,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시기에 따라 성별의 차이가 가산되어 여가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남자 청소년의 여가몰입수준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청소년 시기가 지남에 따라 여자 청소년들의 여가몰입 수준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청소년이 성장할수록 여자 청소년의 여가몰입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④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개척정신 상호작용 분석 결과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라 진로개발역량의 개척정신(차별화태도, 도전정신)에 차이가 있는지를 상호작용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표 IV-106>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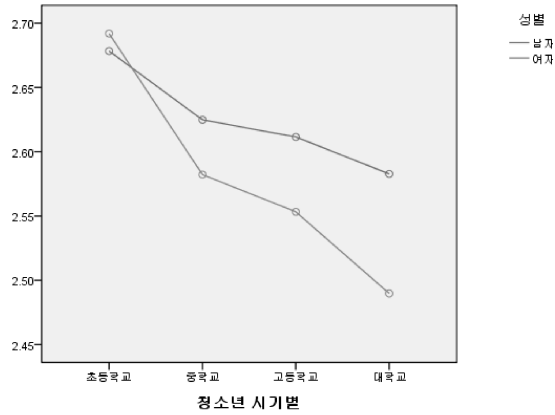
표 IV-106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개척정신 상호작용 분석 결과

청소년 시기	성별	사례수	개척정신					
			전체		차별화태도		도전정신	
			M	SD	M	SD	M	SD
초기 청소년 (초등학생)	남자	1512	2.68	0.41	2.75	0.56	2.55	0.75
	여자	1402	2.69	0.42	2.68	0.54	2.71	0.70
	전체	2914	2.68	0.42	2.72	0.55	2.63	0.73
중기 청소년 1 (중학생)	남자	1684	2.62	0.40	2.74	0.54	2.43	0.70
	여자	1719	2.58	0.41	2.65	0.50	2.47	0.67
	전체	3403	2.60	0.41	2.70	0.53	2.45	0.68
중기 청소년 2 (고등학생)	남자	2541	2.61	0.41	2.70	0.51	2.47	0.68
	여자	1425	2.55	0.41	2.61	0.46	2.45	0.64
	전체	3966	2.59	0.41	2.67	0.49	2.47	0.66
후기 청소년 (대학생)	남자	499	2.58	0.34	2.75	0.49	2.31	0.57
	여자	501	2.49	0.31	2.63	0.44	2.26	0.49
	전체	1000	2.54	0.33	2.69	0.47	2.29	0.53
전체	남자	6236	2.63	0.40	2.73	0.53	2.47	0.70
	여자	5047	2.60	0.41	2.65	0.50	2.51	0.67
	전체	11283	2.61	0.41	2.69	0.52	2.49	0.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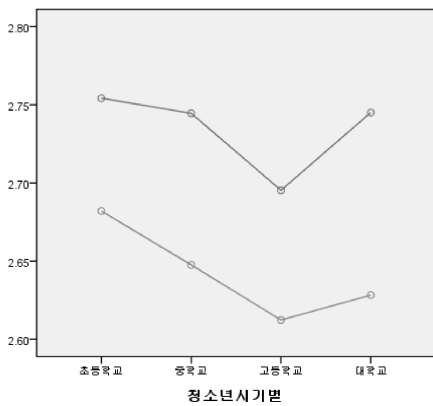
<표 IV-106>에 의하면, 개척정신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로는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평균이 2.68(SD=.42)로 가장 높고, 후기 청소년(대학생) 평균이 2.54(SD=.3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지만, 중기 청소년 1(중학생) 이후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아졌고 시기가 지남에 따라 그 차이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차별화태도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로는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평균이 2.72(SD=.55)로 가장 높고,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 평균이 2.67(SD=.4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청소년 전체 시기에 걸쳐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차별화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4】에서 차별화태도의 변화 추이를 보면, 남녀 청소년 모두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시기에서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까지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후기 청소년(대학생)시기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 차별화태도에 대한 남녀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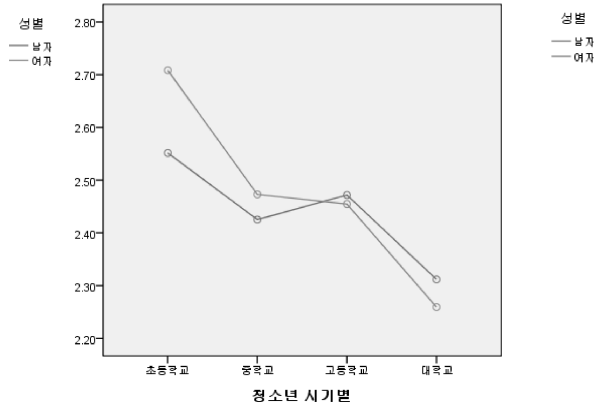
도전정신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로는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평균이 2.63(SD=.73)으로 가장 높고, 후기 청소년(대학생) 평균이 2.29(SD=.5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초기 청소년(초등학생)과 중기 청소년 1(중학생)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고,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 이후에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44】에서 도전정신의 변화 추이를 보면,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후에는 남녀 차이가 적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척정신



차별화 태도



도전정신

【그림 IV-44】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개척정신의 상호작용

이와 같이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개척정신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107>에 제시되었다.

표 IV-107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개척정신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

구분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개척정신	주효과	30.198a	7	4.314	26.458**
	간섭	56666.749	1	56666.749	347538.016**
	청소년 시기	24.744	3	8.248	50.585**
	성별	4.250	1	4.250	26.064**
	청소년 시기*성별	3.085	3	1.028	6.307**
	잔차	1838.411	11275	.163	
	전체	78962.103	11283		
차별화태도	주효과	26.539a	7	3.791	14.324**
	간섭	60513.563	1	60513.563	228637.111**
	청소년 시기	7.128	3	2.376	8.977**
	성별	17.816	1	17.816	67.312**
	청소년 시기*성별	.480	3	.160	.605
	잔차	2984.163	11275	.265	
	전체	84679.453	11283		
도전정신	주효과	125.029a	7	17.861	39.060**
	간섭	50524.512	1	50524.512	110490.167**
	청소년 시기	106.896	3	35.632	77.922**
	성별	2.382	1	2.382	5.209*
	청소년 시기*성별	14.988	3	4.996	10.925**
	잔차	5153.502	11270	.457	
	전체	75007.250	11278		

<표 IV-107>에 의하면, 개척정신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 차이는 $F=50.58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차이도 $F=26.064$,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개척정신의 차이가 각각 독립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를 보면, $F=6.307$,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시기에 따라 성별의 차이가 가산되어 개척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의 개척정신은 청소년 시기와 성별을 고려했을 때 초기 청소년 (초등학생)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높았다가 중기 청소년 1(중학생) 이후에는 남자 청소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감소 추세가 여자 청소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 청소년들의 개척정신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차별화 태도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 차이는 $F=8.977$,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차이도 $F=67.312$,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차별화태도의 차이가 각각 독립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를 보면, $F=.605$,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시기에 따라 성별의 차이가 가산되어 차별화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차별화태도는 청소년 시기와 성별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 시기 전반에 걸쳐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수준이 높고 변화 추이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전정신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 차이는 $F=77.922$,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F=5.209$,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도전정신의 차이가 각각 독립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F=10.92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전정신은 청소년 시기에 따라 성별의 차이가 상호작용 효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초기 청소년(초등학생)과 중기 청소년 1(중학생) 시기에는 남자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고,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 시기와 후기 청소년(대학생)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의 도전정신에 대한 관심이 보다 더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2)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분석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발달에 있어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고, 이를 청소년 성장 시기별로 어떠한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본 절에서는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발달에 과연 어떠한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였으며, 이때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하여 1단계 투입 독립변인을 청소년의 개인특성(성별(남=1, 여=1), 학교급(청소년 시기)(초등학교(초기청소년)=1, 중학교(중기청소년)=2, 고등학교(중기청소년)=3, 대학생(후기 청소년)=4), 학업성취도 수준(상=1, 중=2, 하=3))으로 하였으며, 2단계 투입 독립변인을 부모특성(부모의 학력(고졸이하=1, 전문대졸=2, 대졸이상=3)), 그리고 3단계 투입변인을 가구특성(가족구성(양부모=1, 한부모/조손/기타가정=0), 경제적 수준(상=1, 중=2, 하=3), 거주지역(도시크기)(대도시=1, 중소도시=2))으로 하였다.

①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 분석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08>에 제시되었다.

표 IV-10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

구분		진로개발역량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개인 특성	성별	-.046	-.061	-5.291**	-.046	-.062	-5.323**	-.046	-.062	-5.403**
	학교급(청소년 시기)	-.088	-.218	-18.782**	-.084	-.210	-18.049**	-.081	-.201	-17.296**
	학업성취도수준	.000	.002	.131	.000	.001	.124	.000	.004	.391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18	.044	2.984**	.013	.034	2.278*
	모의 학력				.027	.069	4.598**	.024	.060	4.021**
가구 특성	가족구성							-.070	-.053	-5.618**
	경제적수준							-.042	-.099	-8.447**
	거주지역(도시크기)							-.001	-.027	-2.373*
통계량	R ² (adj. R ²)	.050(.049)			.060(.059)			.070(.069)		
	R ² Change	.050			.010			.010		
	F	122.923**			90.250**			76.203**		

* : $p < .05$, ** : $p < .01$

<표 IV-108>에 의하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model 3)은 $F=76.203$, $p < .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70$, adj. $R^2=.069$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을 살펴보면, 개인특성에서는 성별($B=-.046$, $\beta=-.061$, $t=-5.291$, $p < .01$)과 학교급(청소년 시기)($B=-.088$, $\beta=-.218$, $t=-18.782$, $p < .01$)은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도 수준($B=.000$, $\beta=.002$, $t=.131$, $p > .05$)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진로개발역량이 높으며, 학교급(청소년 시기)에 따라서는 학교급(청소년 시기)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진로개발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특성에서는 부(아버지)의 학력($B=.018$, $\beta=.044$, $t=2.984$, $p < .01$)과 모(어머니)의 학력($B=.027$, $\beta=.069$, $t=4.598$, $p < .01$)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 가족구성($B=-.070$, $\beta=-.053$, $t=-5.618$, $p < .01$), 경제적 수준($B=-.042$, $\beta=-.099$, $t=-8.447$, $p < .01$), 거주지역(도시크기)($B=-.001$, $\beta=-.027$, $t=-2.373$, $p < .01$)은 모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구성에서는 양부모일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진로개발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학교급(청소년 시기)($\beta=-.201$), 경제적 수준($\beta=-.099$), 성별($\beta=-.062$), 모(어머니)학력($\beta=.060$), 가족구성($\beta=-.053$), 부(아버지) 학력($\beta=.034$), 거주지역(도시크기)($\beta=-.027$)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09>에 제시되었다.

표 IV-109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진로설계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045	.045	3.858**	.045	.045	3.875**	.045	.045	3.864**
	학교급	-.084	-.157	-13.358**	-.080	-.148	-12.617**	-.075	-.139	-11.852**
	학업성취도수준	.001	.018	1.540	.001	.018	1.543	.001	.021	1.827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27	.050	3.359**	.022	.040	2.697**
	모의 학력				.036	.068	4.541**	.032	.060	3.973**
가구 특성	가족구성							-.083	-.046	-4.872**
	경제적수준							-.056	-.099	-8.366**
	거주지역(도시크기)							-.001	-.018	-1.542
통계량	R ² (adj. R ²)	.028(.028)			.040(.039)			.050(.049)		
	R ² Change	.028			.012			.010		
	F	68.845**			58.750**			52.757**		

<표 IV-109>에 의하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model 3)은 $F=52.757$,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50$, adj. $R^2=.049$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진로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을 살펴보면, 개인특성에서는 성별($B=.045$, $\beta=.045$, $t=3.864$, $p<.01$)은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급(청소년 시기)($B=-.075$, $\beta=-.139$, $t=-11.852$, $p<.01$)은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도 수준($B=.001$, $\beta=.021$, $t=1.827$, $p>.05$)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진로설계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급(청소년 시기)이 낮은 초등학생(초기 청소년)일수록 진로설계능력이 높고, 대학생(후기 청소년)일수록 진로설계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특성에서는 부(아버지)의 학력($B=.027$, $\beta=.050$, $t=3.359$, $p<.01$)과 모(어머니)의 학력($B=.036$, $\beta=.068$, $t=4.541$, $p<.01$)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진로설계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 가족구성($B=-.083$, $\beta=-.046$, $t=-4.872$, $p<.01$)과 경제적 수준($B=-.056$, $\beta=-.099$, $t=-8.366$, $p<.01$)은 부적영향을 미치며, 거주지역(도시크기)($B=-.001$, $\beta=-.018$, $t=-1.542$, $p>.05$)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구성에서는 양부모일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진로설계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의 진로설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학교급(청소년 시기)($\beta=-.139$), 경제적 수준($\beta=-.099$), 모(어머니)학력($\beta=.060$), 성별($\beta=.045$), 부가족구성($\beta=-.046$), (아버지) 학력($\beta=.040$)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진로설계역량의 자기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10>에 제시되었다.

표 IV-110 청소년 진로설계역량의 자기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진로설계-자기탐색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029	.025	2.169*	.029	.025	2.174*	.028	.025	2.154*
	학교급	-.114	-.186	-15.893**	-.109	-.178	-15.194**	-.105	-.172	-14.665**
	학업성취도수준	.001	.011	.950	.001	.011	.949	.001	.013	1.124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27	.045	2.974**	.023	.038	2.535*
	모의 학력				.039	.064	4.266**	.035	.059	3.893**
가구 특성	가족구성							-.049	-.024	-2.576*
	경제적수준							-.041	-.063	-5.347**
	거주지역(도시크기)							-.001	-.014	-1.162
통계량	R ² (adj. R ²)	.036(.036)			.046(.045)			.050(.049)		
	R ² Change	.036			.010			.004		
	F	88.792**			68.075**			53.113**		

<표 IV-110>에 의하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model 3)은 $F=53.113$,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50$, adj. $R^2=.049$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 자기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을 살펴보면, 개인특성에서는 성별($B=.028$, $\beta=.025$, $t=2.154$, $p<.05$)이 정적영향을 미치고, 학교급(청소년 시기)($B=-.105$, $\beta=-.172$, $t=-14.665$, $p<.01$)은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도 수준($B=.001$, $\beta=.013$, $t=1.124$, $p>.05$)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자기탐색능력이

높으며, 학교급(청소년 시기)에 따라서는 대학생일수록 자기탐색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특성에서는 부(아버지)의 학력($B=.023$, $\beta=.038$, $t=2.535$, $p<.01$)과 모(어머니)의 학력($B=.035$, $\beta=.059$, $t=3.893$, $p<.01$)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기탐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 가족구성($B=-.049$, $\beta=-.024$, $t=-2.576$, $p<.05$)과 경제적 수준($B=-.041$, $\beta=-.063$, $t=-5.347$, $p<.01$)은 부적영향을 미치며, 거주지역(도시크기)($B=-.001$, $\beta=-.014$, $t=-1.162$, $p>.05$)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구성에서는 양부모일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탐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의 자기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학교급(청소년 시기)($\beta=-.172$), 경제적 수준($\beta=-.063$), 모(어머니)학력($\beta=.059$), 부(아버지) 학력($\beta=.038$), 성별($\beta=.025$), 가족구성($\beta=-.024$),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진로설계역량의 직업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11>에 제시되었다.

표 IV-111 청소년 진로설계역량의 직업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진로설계-직업탐색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036	.028	2.328*	.036	.028	2.334*	.036	.027	2.319*
	학교급	-.054	-.077	-6.490**	-.049	-.070	-5.897**	-.044	-.062	-5.219**
	학업성취도수준	.001	.017	1.419	.001	.017	1.423	.001	.020	1.671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34	.049	3.230**	.028	.040	2.652**
	모의 학력				.035	.050	3.274**	.029	.042	2.772**
가구 특성	가족구성							-.089	-.038	-4.032**
	경제적수준							-.065	-.087	-7.298**
	거주지역(도시크기)							-.001	-.015	-1.273
통계량	R ² (adj. R ²)	.007(.007)			.015(.015)			.023(.022)		
	R ² Change	.007			.008			.008		
	F	17.662**			22.114**			23.781**		

<표 IV-111>에 의하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model 3)은 $F=23.781$,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23$, adj. $R^2=.022$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 직업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을 살펴보면, 개인특성에서는 성별($B=.036$,

$\beta=.027, t=2.319, p<.01$)은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급(청소년 시기)($B=-.044, \beta=-.062, t=-5.219, p<.01$)은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도 수준($B=.001, \beta=.020, t=1.671, p>.05$)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직업탐색능력이 높으며, 학교급(청소년 시기)에 따라서는 대학생일수록 직업탐색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특성에서는 부(아버지)의 학력($B=.034, \beta=.049, t=3.230, p<.01$)과 모(어머니)의 학력($B=.035, \beta=.050, t=3.274, p<.01$)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직업탐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 가족구성($B=-.089, \beta=-.038, t=-4.032, p<.01$)과 경제적 수준($B=-.065, \beta=-.087, t=-7.298, p>.05$)은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거주지역(도시크기)($B=-.001, \beta=-.015, t=-1.273, p>.05$)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모두 있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직업탐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의 직업탐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경제적수준($\beta=-.087$), 학교급(청소년 시기)($\beta=-.062$), 모(어머니)학력($\beta=-.042$), 부(아버지)학력($\beta=-.040$), 가족구성($\beta=-.038$), 성별($\beta=.027$)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진로설계역량의 직업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12>에 제시되었다.

표 IV-112 청소년 진로설계역량의 직업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진로설계-직업가치관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065	.055	4.705**	.065	.055	4.708**	.064	.054	4.657**
	학교급	-.103	-.163	-13.863**	-.101	-.159	-13.480**	-.097	-.153	-12.942**
	학업성취도수준	.000	.007	.606	.000	.007	.604	.001	.009	.774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15	.023	1.556	.010	.016	1.030
	모의 학력				.018	.029	1.943	.015	.023	1.538
	가족구성							-.057	-.028	-2.926**
가구 특성	경제적수준							-.046	-.068	-5.762**
	거주지역(도시크기)							-.002	-.028	-2.423*
통계량	R ² (adj. R ²)	.031(.031)			.033(.033)			.039(.038)		
	R ² Change	.031			.002			.005		
	F	75.541**			48.736**			40.616**		

<표 IV-112>에 의하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model 3)은 $F=40.616$,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39$, $\text{adj. } R^2=.038$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 직업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을 살펴보면, 개인특성에서는 성별($B=.064$, $\beta=.054$, $t=4.657$, $p<.01$)은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급(청소년 시기)($B=-.097$, $\beta=-.153$, $t=-12.942$, $p<.01$)은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도 수준($B=.001$, $\beta=.009$, $t=.774$, $p>.05$)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직업가치관이 높으며, 학교급(청소년 시기)에 따라서는 학교급(청소년 시기)이 대학생일수록 직업가치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특성에서는 부(아버지)의 학력($B=.010$, $\beta=.016$, $t=1.030$, $p>.05$)과 모(어머니)의 학력($B=.015$, $\beta=.023$, $t=1.538$, $p>.05$)은 직업가치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 가족구성($B=-.057$, $\beta=-.028$, $t=-2.926$, $p<.01$), 경제적 수준($B=-.046$, $\beta=-.068$, $t=-5.762$, $p<.01$), 거주지역(도시크기)($B=-.002$, $\beta=-.028$, $t=-2.423$, $p<.05$) 모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일수록 직업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의 직업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학교급(청소년 시기)($\beta=-.153$), 경제적수준($\beta=-.068$), 성별($\beta=.054$), 가족구성($\beta=-.028$), 거주지역($\beta=-.028$)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진로설계역량의 진로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13>에 제시되었다.

표 IV-113 청소년 진로설계역량의 진로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진로설계-진로준비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056	.047	3.967**	.056	.047	3.984**	.056	.047	4.007**
	학교급	-.071	-.110	-9.298**	-.065	-.101	-8.511**	-.059	-.091	-7.704**
	학업성취도수준	.002	.023	1.943	.002	.023	1.944	.002	.026	2.259*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28	.044	2.928**	.022	.035	2.296*
	모의 학력				.049	.077	5.086**	.044	.068	4.504**
가구 특성	가족구성							-.128	-.060	-6.323**
	경제적수준							-.070	-.103	-8.661**
	거주지역(도시크기)							.000	-.006	-.512
통계량	R ² (adj. R ²)	.016(.015)			.028(.027)			.038(.037)		
	R ² Change	.016			.012			.010		
	F	37.953**			40.716**			40.152**		

<표 IV-113>에 의하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model 3)은 $F=40.152$,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38$, adj. $R^2=.037$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 진로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을 살펴보면, 개인특성에서는 성별($B=.056$, $\beta=.047$, $t=4.007$, $p<.01$)은 정적영향을 미치고, 학교급(청소년 시기)($B=-.059$, $\beta=-.091$, $t=-7.704$, $p<.01$)은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도 수준($B=.002$, $\beta=.026$, $t=2.259$, $p<.05$)도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진로준비능력이 높으며, 학교급(청소년 시기)에 따라서는 학교급(청소년 시기)이 대학생일수록 진로준비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특성에서는 부(아버지)의 학력($B=.022$, $\beta=.035$, $t=2.296$, $p<.05$)과 모(어머니)의 학력($B=.044$, $\beta=.068$, $t=4.504$, $p<.01$)이 모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진로준비능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 가족구성($B=-.128$, $\beta=-.060$, $t=-6.323$, $p<.01$)과 경제적 수준($B=-.070$, $\beta=-.103$, $t=-8.661$, $p<.01$)은 부적영향을 미치고, 거주지역(도시크기)($B=.000$, $\beta=.006$, $t=0.512$, $p>.05$)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의 진로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경제적수준($\beta=-.103$), 학교급(청소년 시기)($\beta=-.091$), 모(어머니)학력($\beta=.068$), 가족구성($\beta=-.060$), 성별($\beta=.047$), 학업성취도수준($\beta=.026$)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용능력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14>에 제시되었다.

표 IV-114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여가활용능력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133	-.136	-11.735**	-.133	-.136	-11.756**	-.134	-.137	-11.889**
	학교급	-.108	-.205	-17.671**	-.106	-.200	-17.216**	-.102	-.193	-16.628**
	학업성취도수준	-.001	-.018	-1.550	-.001	-.018	-1.555	-.001	-.016	-1.378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16	.030	2.050*	.011	.021	1.413
	모의 학력				.018	.034	2.261*	.014	.027	1.796
가구 특성	가족구성							-.077	-.044	-4.678**
	경제적수준							-.043	-.077	-6.612**
	거주지역(도시크기)							-.002	-.041	-3.526**
통계량	R ² (adj. R ²)	.056(.056)			.060(.059)			.067(.066)		
	R ² Change	.056			.003			.007		
	F	140.992**			89.900**			72.796**		

<표 IV-114>에 의하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model 3)은 $F=72.796$,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67$, adj. $R^2=.066$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여가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을 살펴보면, 개인특성에서는 성별($B=-.134$, $\beta=-.137$, $t=-11.889$, $p<.01$)과 학교급(청소년 시기)($B=-.102$, $\beta=-.193$, $t=-16.628$, $p<.01$)은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도 수준($B=.001$, $\beta=.016$, $t=1.378$, $p>.05$)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여가활용능력이 높으며, 학교급(청소년 시기)에 따라서는 학교급(청소년 시기)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여가활용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특성에서는 부(아버지)의 학력($B=.011$, $\beta=.021$, $t=1.413$, $p>.05$)과 모(어머니)의 학력($B=.014$, $\beta=.027$, $t=1.796$, $p>.01$)이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 가족구성($B=-.077$, $\beta=-.044$, $t=-4.678$, $p<.01$)과 경제적 수준($B=-.043$, $\beta=-.077$, $t=-6.612$, $p<.01$), 거주지역(도시크기)($B=-.002$, $\beta=-.041$, $t=-3.526$, $p<.01$)은 모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구성에서는 양부모일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여가활용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의 여가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학교급(청소년 시기)($\beta=-.193$), 성별($\beta=-.137$), 경제적 수준($\beta=-.077$), 가족구성($\beta=.044$), 거주지역(도시크기)($\beta=-.041$), 모(어머니)학력($\beta=.027$), 부(아버지) 학력($\beta=.021$)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여가활용역량의 여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15>에 제시되었다.

표 IV-115 청소년 여가활용역량의 여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여가활용능력-여가태도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065	-.063	-5.384**	-.065	-.063	-5.390**	-.066	-.064	-5.493**
	학교급	-.102	-.184	-15.723**	-.100	-.181	-15.384**	-.098	-.177	-15.015**
	학업성취도수준	-.001	-.020	-1.720	-.001	-.020	-1.718	-.001	-.019	-1.633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20	.036	2.430*	.016	.030	1.982*
	모의 학력				.010	.017	1.151	.007	.013	.864
가구 특성	가족구성							-.068	-.037	-3.941**
	경제적수준							-.027	-.047	-3.961**
	거주지역(도시크기)							-.002	-.040	-3.393**
통계량	R ² (adj. R ²)	.036(.036)			.039(.038)			.042(.041)		
	R ² Change	.036			.002			.004		
	F	88.875**			57.012**			44.791**		

<표 IV-115>에 의하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model 3)은 $F=44.791$,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42$, adj. $R^2=.041$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여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을 살펴보면, 개인특성에서는 성별($B=-.066$, $\beta=-.064$, $t=-5.493$, $p<.01$)과 학교급(청소년 시기)($B=-.098$, $\beta=-.177$, $t=-15.015$, $p<.01$)은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도 수준($B=-.001$, $\beta=-.019$, $t=1.633$, $p>.05$)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여가태도가 높으며, 학교급(청소년 시기)에 따라서는 학교급(청소년 시기)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여가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특성에서는 부(아버지)의 학력($B=.016$, $\beta=.030$, $t=1.982$, $p<.05$)은 여가태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어머니)의 학력($B=.007$, $\beta=.013$, $t=0.864$, $p>.05$)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여가태도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 가족구성($B=-.068$, $\beta=-.037$, $t=-3.941$, $p<.01$), 경제적 수준($B=-.027$, $\beta=-.047$, $t=-3.961$, $p<.01$), 거주지역(도시크기)($B=-.002$, $\beta=-.040$, $t=-3.393$, $p<.01$)은 부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구성에서는 양부모일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여가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의 여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학교급(청소년 시기)($\beta=-.177$), 성별($\beta=-.064$), 경제적 수준($\beta=-.047$), 거주지역(도시크기)($\beta=-.040$), 가족구성($\beta=-.037$), 부(아버지)의 학력($\beta=-.030$)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여가활용역량의 여가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16>에 제시되었다.

표 IV-116 청소년 여가활용역량의 여가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여가활용능력-여가유능감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214	-.153	-13.123**	-.214	-.153	-13.145**	-.215	-.154	-13.257**
	학교급	-.106	-.141	-12.068**	-.102	-.136	-11.596**	-.096	-.127	-10.871**
	학업성취도수준	-.001	-.009	-.740	-.001	-.009	-.754	.000	-.006	-.505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01	.001	.095	-.007	-.009	-.588
	모의 학력				.038	.051	3.367**	.031	.042	2.813**
가구 특성	가족구성							-.097	-.040	-4.236**
	경제적수준							-.075	-.095	-8.052**
	거주지역(도시크기)							-.002	-.027	-2.367*
통계량	R ² (adj. R ²)	.040(.040)			.043(.042)			.052(.051)		
	R ² Change	.040			.003			.009		
	F	98.829**			63.341**			55.979**		

<표 IV-116>에 의하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model 3)은 $F=55.797$,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52$, adj. $R^2=.051$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여가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을 살펴보면, 개인특성에서는 성별($B=-.215$, $\beta=-.154$, $t=-13.257$, $p<.01$)과 학교급(청소년 시기)($B=-.096$, $\beta=-.127$, $t=-10.871$, $p<.01$)은 부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도 수준($B=.000$, $\beta=-.006$, $t=-.505$, $p>.05$)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여가유능감이 높으며, 학교급(청소년 시기)에 따라서는 학교급(청소년 시기)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여가유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특성에서는 부(아버지)의 학력($B=-.007$, $\beta=-.009$, $t=-.588$, $p>.05$)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어머니)의 학력($B=.031$, $\beta=.042$, $t=2.813$, $p<.01$)은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여가유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 가족구성($B=-.097$, $\beta=-.040$, $t=-4.236$, $p<.01$), 경제적 수준($B=-.075$, $\beta=-.095$, $t=-8.052$, $p<.01$), 거주지역(도시크기)($B=-.002$, $\beta=-.027$, $t=-2.367$, $p<.01$)이 모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구성에서는 양부모일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여가유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의 여가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성별($\beta=-.154$), 학교급(청소년 시기)($\beta=-.127$), 경제적 수준($\beta=-.095$), 모(어머니)학력($\beta=.042$), 가족구성($\beta=-.040$), 거주지역(도시크기)($\beta=-.027$),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여가활용역량의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17>에 제시되었다.

표 IV-117 청소년 여가활용역량의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여가활용능력-여가만족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118	-.093	-8.083**	-.118	-.093	-8.093**	-.119	-.094	-8.179**
	학교급	-.156	-.229	-19.825**	-.153	-.226	-19.441**	-.149	-.220	-18.877**
	학업성취도수준	.000	.002	.214	.000	.002	.216	.000	.004	.390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22	.033	2.193*	.016	.024	1.643
	모의 학력				.015	.022	1.502	.011	.016	1.081
가구 특성	가족구성							-.101	-.045	-4.749**
	경제적수준							-.050	-.070	-5.987**
	거주지역(도시크기)							-.002	-.030	-2.588*
통계량	R ² (adj. R ²)	.058(.058)			.061(.060)			.066(.065)		
	R ² Change	.058			.002			.006		
	F	146.019**			91.539**			71.882**		

<표 IV-117>에 의하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model 3)은 $F=71.882$,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66$, adj. $R^2=.065$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을 살펴보면, 개인특성에서는 성별($B=-.119$, $\beta=-.094$, $t=-8.179$, $p<.01$)과 학교급(청소년 시기)($B=-.149$, $\beta=-.220$, $t=-18.877$, $p<.01$)은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도 수준($B=.000$, $\beta=.004$, $t=.390$, $p>.05$)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여가만족이 높으며, 학교급(청소년 시기)에 따라서는 학교급(청소년 시기)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여가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특성에서는 부(아버지)의 학력($B=.016$, $\beta=.024$, $t=1.643$, $p>.05$)과 모(어머니)의 학력($B=.011$, $\beta=.016$, $t=1.081$, $p>.05$) 모두 여가만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 가족구성($B=-.101$, $\beta=-.045$, $t=-4.749$, $p<.01$)과 경제적 수준($B=-.050$, $\beta=-.070$, $t=-5.987$, $p<.01$), 거주지역(도시크기)($B=-.002$, $\beta=-.030$, $t=-2.588$, $p<.05$) 모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구성에서는 양부모일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대도시에 사는 청소년일수록 여가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의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학교급(청소년 시기)($\beta=-.220$), 성별($\beta=-.094$), 경제적 수준($\beta=-.070$), 가족구성($\beta=-.045$), 거주지역($\beta=-.030$)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여가활용역량의 여가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18>에 제시되었다.

표 IV-118 청소년 여가활용역량의 여가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여가활용능력-여가몰입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161	-.137	-11.763**	-.161	-.137	-11.774**	-.163	-.138	-11.870**
	학교급	-.095	-.151	-12.886**	-.093	-.148	-12.572**	-.091	-.144	-12.212**
	학업성취도수준	-.002	-.024	-2.092*	-.002	-.024	-2.090*	-.002	-.023	-2.002*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22	.035	2.364*	.018	.029	1.942
	모의 학력				.010	.016	1.059	.007	.012	.782
가구 특성	가족구성							-.059	-.028	-2.960**
	경제적수준							-.030	-.046	-3.857**
	거주지역(도시크기)							-.002	-.035	-2.996**
통계량	R ² (adj. R ²)	0.039(.039)			0.041(.041)			0.044(.043)		
	R ² Change	.039			.002			.003		
	F	95.675**			60.796**			47.000**		

<표 IV-118>에 의하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model 3)은 $F=47.000$,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44$, adj. $R^2=.043$ 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여가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을 살펴보면, 개인특성에서는 성별($B=-.163$, $\beta=-.138$, $t=-11.870$, $p<.01$), 학교급(청소년 시기)($B=-.091$, $\beta=-.144$, $t=-12.212$, $p<.01$), 학업성취도 수준($B=-.002$, $\beta=-.023$, $t=-2.002$, $p<.05$)은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여자 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높고, 학교급이 대학생일수록 낮으며,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여가몰입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특성에서는 부(아버지)의 학력($B=.018$, $\beta=.029$, $t=1.942$, $p>.05$)과 모(어머니)의 학력($B=.007$, $\beta=.012$, $t=.782$, $p>.05$)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 가족구성($B=-.059$, $\beta=-.028$, $t=-2.960$, $p<.01$), 경제적 수준($B=-.030$, $\beta=-.046$, $t=-3.857$, $p<.01$), 거주지역(도시크기)($B=-.002$, $\beta=-.035$, $t=-2.996$, $p<.01$)은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구성에서는 양부모일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거주지역이 큰도시 청소년일수록 여가몰입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의 여가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학교급($\beta=-.144$), 성별($\beta=-.138$), 경제적 수준($\beta=-.046$), 거주지역(도시크기)($\beta=-.035$), 가족구성($\beta=.028$), 학업성취도수준($\beta=-.023$)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개척정신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개척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19>에 제시되었다.

표 IV-119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개척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개척정신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049	-.059	-5.047**	-.049	-.059	-5.068**	-.049	-.059	-5.072**
	학교급	-.070	-.158	-13.414**	-.067	-.151	-12.783**	-.065	-.145	-12.303**
	학업성취도수준	.000	.004	.306	.000	.003	.296	.000	.005	.461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10	.023	1.538	.008	.018	1.187
	모의 학력				.028	.063	4.157**	.026	.058	3.829**
가구 특성	가족구성							-.052	-.036	-3.856**
	경제적수준							-.026	-.056	-4.694**
	거주지역(도시크기)							.000	-.004	-.338
통계량	R ² (adj. R ²)	.027(.027)			.033(.033)			.036(.035)		
	R ² Change	.027			.006			.003		
	F	65.699**			48.851**			38.161**		

<표 IV-119>에 의하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model 3)은 $F=38.161$,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36$, adj. $R^2=.035$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개척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을 살펴보면, 개인특성에서는 성별($B=-.049$, $\beta=-.059$, $t=-5.072$, $p<.01$)과 학교급(청소년 시기)($B=-.065$, $\beta=-.145$, $t=-12.303$, $p<.01$)은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도 수준($B=.000$, $\beta=.005$, $t=.461$, $p>.05$)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개척정신이 높으며, 학교급(청소년 시기)에 따라서는 학교급(청소년 시기)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개척정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개척정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특성에서는 부(아버지)의 학력($B=.008$, $\beta=.018$, $t=1.187$, $p>.05$)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어머니)의 학력($B=.026$, $\beta=.058$, $t=3.829$, $p<.01$)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개척정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 가족구성($B=-.052$, $\beta=-.036$, $t=-3.856$, $p<.01$)과 경제적 수준($B=-.026$, $\beta=-.056$, $t=-4.694$, $p<.01$)은 부정적영향을 미치며, 거주지역(도시크기)($B=.000$, $\beta=-.004$, $t=-0.338$, $p>.05$)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구성에서는 양부모일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개척정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의 개척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학교급(청소년 시기)($\beta=-.145$), 성별($\beta=-.059$), 모(어머니)학력($\beta=.058$), 경제적 수준($\beta=-.056$), 가족구성($\beta=-.036$)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개척정신역량의 차별화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20>에 제시되었다.

표 IV-120 청소년 개척정신역량의 차별화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개척정신-차별화태도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088	-.086	-7.273**	-.089	-.086	-7.312**	-.089	-.086	-7.348**
	학교급	-.054	-.098	-8.292**	-.050	-.090	-7.585**	-.047	-.084	-7.117**
	학업성취도수준	.000	.003	.241	.000	.003	.234	.000	.005	.390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21	.038	2.541*	.018	.032	2.129*
	모의 학력				.038	.069	4.521**	.035	.063	4.177**
가구 특성	가족구성							-.061	-.034	-3.612**
	경제적수준							-.034	-.058	-4.896**
	거주지역(도시크기)							-.001	-.015	-1.260
통계량	R ² (adj. R ²)	.016(0.015)			.025(.025)			.029(.028)		
	R ² Change	.016			.009			.004		
	F	37.875**			36.661**			29.942**		

<표 IV-120>에 의하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model 3)은 $F=29.942$,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29$, adj. $R^2=.028$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차별화태도

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을 살펴보면, 개인특성에서는 성별($B=-.089$, $\beta=-.089$, $t=-7.348$, $p<.01$)과 학교급(청소년 시기)($B=-.047$, $\beta=-.084$, $t=-7.117$, $p<.01$)은 부적영향을 미치고 학업성취도 수준($B=.000$, $\beta=.005$, $t=.390$, $p>.05$)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차별화태도가 높으며 학교급이 대학생일수록 차별화태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특성에서는 부(아버지)의 학력($B=.018$, $\beta=.032$, $t=2.129$, $p<.05$)과 모(어머니)의 학력($B=.035$, $\beta=.063$, $t=4.177$, $p<.01$)은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차별화태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구특성에서는 가족구성($B=-.061$, $\beta=-.034$, $t=-3.612$, $p<.01$)과 경제적 수준($B=-.034$, $\beta=-.058$, $t=-4.896$, $p<.01$)은 부적영향을 미치며, 거주지역(도시크기)($B=-.001$, $\beta=-.015$, $t=-1.260$, $p>.05$)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가족구성에서는 양부모일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차별화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의 차별화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성별($\beta=-.086$), 학교급($\beta=-.084$), 모의학력($\beta=-.063$), 경제적 수준($\beta=-.058$), 가족구성($\beta=-.034$), 부의학력($\beta=.032$)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개척정신역량의 도전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21>에 제시되었다.

표 IV-121 청소년 개척정신역량의 도전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개척정신-도전정신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016	.012	1.007	.016	.012	1.004	.017	.012	1.038
	학교급	-.097	-.131	-11.124**	-.096	-.130	-10.981**	-.095	-.129	-10.785**
	학업성취도수준	.000	.002	.209	.000	.002	.202	.000	.003	.270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08	-.011	-.715	-.009	-.012	-.761
	모의 학력				.011	.015	1.004	.010	.014	.911
가구 특성	가족구성							-.035	-.015	-1.570
	경제적수준							-.013	-.017	-1.390
	거주지역(도시크기)							.001	.012	1.016
통계량	R ² (adj. R ²)	.018(.017)			.018(0.017)			.018(.017)		
	R ² Change	.018			.000			.000		
	F	42.508**			25.705**			18.783**		

<표 IV-121>에 의하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model 3)은 $F=18.783$,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18$, adj. $R^2=.017$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도전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을 살펴보면, 개인특성에서는 성별($B=.017$, $\beta=.012$, $t=1.038$, $p>.05$)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학교급(청소년 시기)($B=-.095$, $\beta=-.129$, $t=-10.785$, $p<.01$)은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도 수준($B=.000$, $\beta=.003$, $t=.290$, $p>.05$)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급(청소년 시기)에 따라서 학교급(청소년 시기)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도전정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특성에서는 부(아버지)의 학력($B=-.009$, $\beta=-.012$, $t=-0.761$, $p>.05$)과 모(어머니)의 학력($B=.010$, $\beta=.014$, $t=.911$, $p>.05$)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 가족구성($B=-.035$, $\beta=-.015$, $t=-1.570$, $p>.05$), 경제적 수준($B=-.013$, $\beta=-.017$, $t=-1.390$, $p<.01$), 거주지역(도시크기)($B=.001$, $\beta=.012$, $t=1.016$, $p>.05$)은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의 도전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은 학교급(청소년 시기)($\beta=-.129$) 등이다.

4)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측정 결과 심층 분석

(1)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에 있어 청소년 시기와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과의 상호작용 차이 분석⁸⁾

청소년의 대인관계역량은 다른 역량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을 둘러싼 내외적인 환경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하게 된다. 이에 청소년의 대인관계역량의 발달에 있어 청소년 둘러싼 환경 변인에 있어 어떠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이 상호작용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대인관계역량에 있어 청소년 시기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은 성별로 나타났으며, 본 절에서는 청소년 시기에 따른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8) 청소년의 발달시기에 따른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변화를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에 따라 살펴보기 위하여 상호작용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의 발달시기에 있어 성별에 따른 변화만이 상호작용효과로서 그 변화추이가 나타났고, 다른 인구통계학적 변인, 즉 학업성취도 수준, 부모의 학력수준, 가족구성, 가정 경제적 수준, 그리고 거주지역 등의 변인에 있어서는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청소년의 발달시기에 따른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변화는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를 제시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효과의 변화가 청소년 역량발달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①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역량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

청소년 시기에 따른 대인관계역량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상호작용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표 IV-122>에 제시하였다.

표 IV-122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기초통계분석 결과

학교급	성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초기 청소년 (초등학생)	남자	1,512	3.00	0.57
	여자	1,402	3.11	0.51
	전체	2,914	3.06	0.54
중기 청소년 1 (중학생)	남자	1,685	2.99	0.49
	여자	1,719	3.05	0.45
	전체	3,404	3.02	0.47
중기 청소년 2 (고등학생)	남자	2,541	2.96	0.44
	여자	1,425	2.99	0.39
	전체	3,966	2.97	0.42
후기 청소년 (대학생)	남자	499	2.98	0.33
	여자	501	2.94	0.31
	전체	1,000	2.96	0.32
전체	남자	6,237	2.98	0.48
	여자	5,047	3.04	0.44
	전체	11,284	3.01	0.47

<표 IV-122>에 의하면, 초기 청소년(초등학생)의 대인관계역량 평균은 3.06($SD=.54$), 중기 청소년 1(중학생)의 평균은 3.02($SD=.47$),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의 평균은 2.97($SD=.42$), 후기 청소년(대학생)의 평균은 2.96($SD=.32$)로 나타나, 초기 청소년(초등학생)의 대인관계역량이 가장 높고, 후기 청소년(대학생)의 대인관계역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초기 및 중기 청소년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높지만, 후기 청소년 시기에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그림 IV-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변화의 폭이 여자 청소년에게서 더 급격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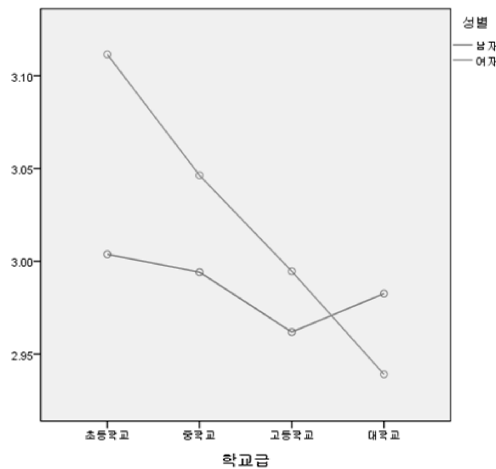
이와 같이 청소년 시기에 따른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성별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IV-123>과 같다.

표 IV-123 성별과 청소년 시기에 따른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주효과	26.251a	7	3.750	17.513**
간섭	75555.152	1	75555.152	352831.215**
학교급	2.909	1	2.909	13.586**
성별	13.048	3	4.349	20.311**
학교급*성별	4.876	3	1.625	7.591**
잔차	2414.639	11276	.214	
전체	104526.097	11284		

** $p<.001$

<표 IV-123>에 의하면, 청소년 시기별 대인관계역량의 차이는 $F=13.586$,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차이도 $F=20.311$,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역량의 차이가 각각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차이가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F=7.591$,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시기에 따라 성별의 차이가 가산되어 대인관계역량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대인관계역량 발달에 있어서는 성별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여자 청소년에 대한 대인관계역량 발달에 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림 IV-45】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상호작용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시기에 따른 대인관계역량을 구성하는 역량, 즉 관계형성, 리더십, 그리고 협동에 대한 상호작용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②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 상호작용 분석 결과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라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에 차이가 있는지를 상호작용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표 IV-124>에 제시하였다.

표 IV-124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리더십의 기초통계분석 결과

청소년 시기	성별	사례수	관계형성									
			전체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M	SD	M	SD	M	SD	M	SD	M	SD
초기 청소년 (초등학생)	남자	1,512	3.01	0.59	2.94	0.73	3.01	0.72	3.00	0.63	3.07	0.63
	여자	1,402	3.13	0.54	3.15	0.67	3.04	0.73	3.13	0.58	3.22	0.58
	전체	2,914	3.07	0.57	3.04	0.71	3.02	0.72	3.06	0.61	3.14	0.61
중기 청소년 1 (중학생)	남자	1,685	3.03	0.51	3.07	0.65	2.93	0.67	3.02	0.55	3.13	0.55
	여자	1,719	3.11	0.48	3.20	0.62	2.90	0.71	3.11	0.54	3.24	0.50
	전체	3,404	3.07	0.50	3.13	0.64	2.91	0.69	3.07	0.54	3.18	0.53
중기 청소년 2 (고등학생)	남자	2,541	3.00	0.48	3.07	0.64	2.83	0.67	2.98	0.52	3.12	0.52
	여자	1,425	3.04	0.43	3.11	0.59	2.83	0.65	3.04	0.48	3.17	0.48
	전체	3,966	3.01	0.46	3.08	0.62	2.83	0.66	3.00	0.51	3.14	0.51
후기 청소년 (대학생)	남자	499	2.98	0.36	3.04	0.51	2.90	0.52	2.97	0.41	3.01	0.44
	여자	501	2.95	0.35	2.99	0.49	2.82	0.50	2.96	0.41	3.02	0.44
	전체	1,000	2.96	0.36	3.02	0.50	2.86	0.51	2.96	0.41	3.02	0.44
전체	남자	6,237	3.01	0.51	3.04	0.66	2.91	0.68	3.00	0.55	3.10	0.55
	여자	5,047	3.08	0.47	3.14	0.62	2.91	0.69	3.08	0.52	3.19	0.52
	전체	11,284	3.04	0.50	3.08	0.64	2.91	0.68	3.03	0.54	3.14	0.54

<표 IV-124>에 의하면, 관계형성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로는 초기(초등학생) 및 중기 청소년 1(중학생) 평균이 3.07로 가장 높고, 후기 청소년(대학생) 평균이 2.96(SD=.36)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초기 및 중기 청소년기에는 여자가 남자 청소년에 비해 관계형성 점수가 높았으나, 후기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관계형성 점수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46】에서 관계형성의 변화 추이를 보면, 성별에 따라 여자 청소년의 경우 초기부터 후기 청소년기까지 관계형성 수준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남자 청소년의 경우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시기에서 중기 청소년 1(중학생)기로 접어들면서 관계형성 점수가 상승하고 그 이후 관계형성 점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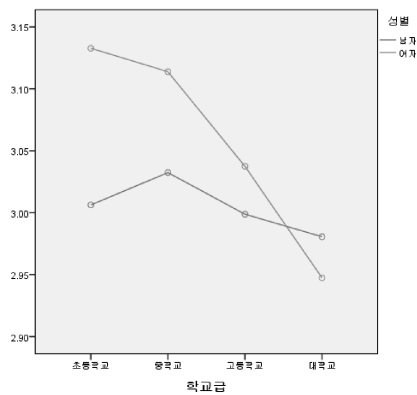
보였는데, 감소 폭을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그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방성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로는 중기 청소년 1(중학생) 평균이 3.13(SD=.64)으로 가장 높고, 후기 청소년(대학생) 평균이 3.02(SD=.5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초기 및 중기 청소년기에는 여자가 남자 청소년에 비해 자기개방성 점수가 높았으나, 후기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자기개방성 점수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46】에서 자기개방성의 변화 추이를 보면,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시기에서 중기 청소년 1(중학생)기로 접어들면서 자기개방성 점수가 대폭 상승하고 그 이후 자기개방성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그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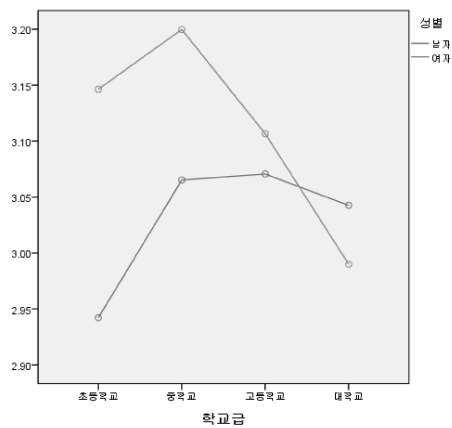
친화성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F=45.829$, $p<.001$)만 있을 뿐, 청소년 시기에 따른 차이($F=1.935$)와 성별과 청소년 시기의 상호작용 효과($F=1.932$)는 나타나지 않았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로는 중기 청소년 1(중학생) 평균이 3.07(SD=.54)으로 가장 높고, 후기 청소년(대학생) 평균이 2.96(SD=.4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초기 및 중기 청소년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의사소통 점수가 높았으나, 후기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의사소통 수준이 비슷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46】에서 의사소통의 변화 추이를 보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 초기부터 후기 청소년기까지 의사소통 수준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남자 청소년의 경우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시기에서 중기 청소년 1(중학생)기로 접어들면서 의사소통 점수가 소폭 상승하고 그 이후 의사소통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감소 폭을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그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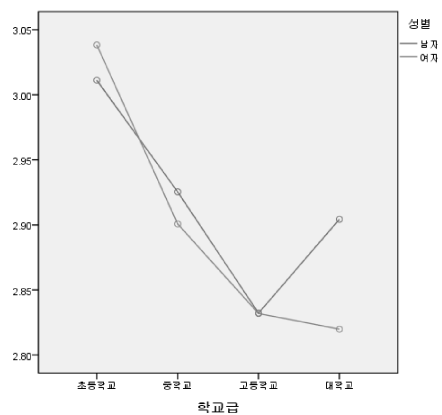
공감 및 배려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로는 중기 청소년 1(중학생) 평균이 3.18(SD=.53)으로 가장 높고, 후기 청소년(대학생) 평균이 3.02(SD=.4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다른 관계형성의 하위역량과 유사하게 초기 및 중기 청소년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공감 및 배려 점수가 높았으나, 후기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공감 및 배려 수준이 비슷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46】에서 공감 및 배려의 변화 추이를 보면, 남자 및 여자 청소년 모두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시기에서 중기 청소년 1(중학생)기로 접어들면서 공감 및 배려 점수가 상승하고 그 이후 후기 청소년기까지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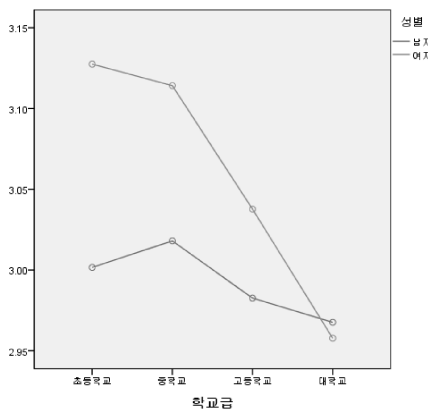
관계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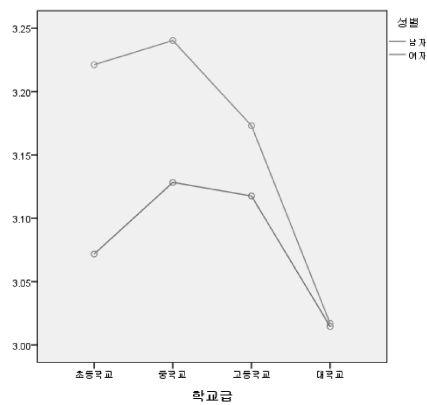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그림 IV-46】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관계형성의 상호작용

표 IV-125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관계형성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

구분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관계형성	주효과	33.621 ^a	7	4.803	19,814**
	간섭	76917.650	1	76917.650	317312.776**
	청소년 시기	5.954	1	5.954	24,561**
	성별	13.630	3	4.543	18,743**
	학교급*성별	5.985	3	1.995	8,230**
	잔차	2733.339	11276	.242	
	전체	107104.282	11284		
자기개방성	주효과	65.938 ^a	7	9.420	23,105**
	간섭	78921.194	1	78921.194	193579.664**
	청소년 시기	13.589	1	13.589	33,332**
	성별	17.272	3	5.757	14,122**
	청소년 시기*성별	18.455	3	6.152	15,089**
	잔차	4597.153	11276	.408	
	전체	111807.424	11284		
친화성	주효과	67.287 ^a	7	9.612	21,026**
	간섭	70792.517	1	70792.517	154852.427**
	청소년 시기	.885	1	.885	1,935
	성별	62.854	3	20.951	45,829**
	청소년 시기*성별	2.650	3	.883	1,932
	잔차	5154.949	11276	.457	
	전체	100696.618	11284		
의사소통	주효과	37.169 ^a	7	5.310	18,440**
	간섭	76646.736	1	76646.736	266174.274**
	청소년 시기	9.344	1	9.344	32,448**
	성별	13.249	3	4.416	15,336**
	청소년 시기*성별	4.336	3	1.445	5,020**
	잔차	3247.003	11276	.288	
	전체	107132.969	11284		
공감 및 배려	주효과	52.029 ^a	7	7.433	25,980**
	간섭	81645.532	1	81645.532	285375.849**
	청소년 시기	13.347	1	13.347	46,651**
	성별	21.966	3	7.322	25,593**
	청소년 시기*성별	5.966	3	1.989	6,951**
	잔차	3226.044	11276	.286	
	전체	114719.597	11284		

** $p < .001$. ** $p < .01$.

③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리더십 상호작용 분석 결과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라 대인관계역량의 리더십(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상호작용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표 IV-126>에 제시하였다.

표 IV-126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리더십의 기초통계분석 결과

청소년 시기	성별	사례수	리더십							
			전체		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M	SD	M	SD	M	SD	M	SD
초기 청소년 (초등학생)	남자	1,512	2.94	0.65	3.03	0.69	2.85	0.73	2.95	0.67
	여자	1,402	3.02	0.61	3.13	0.65	2.93	0.70	2.99	0.64
	전체	2,914	2.98	0.63	3.08	0.67	2.89	0.72	2.97	0.66
중기 청소년 1 (중학생)	남자	1,685	2.92	0.58	3.03	0.61	2.83	0.65	2.90	0.62
	여자	1,719	2.94	0.53	3.09	0.57	2.84	0.63	2.91	0.56
	전체	3,404	2.93	0.55	3.06	0.59	2.84	0.64	2.90	0.59
중기 청소년 2 (고등학생)	남자	2,541	2.88	0.51	3.02	0.55	2.77	0.60	2.86	0.55
	여자	1,425	2.89	0.46	3.06	0.49	2.80	0.57	2.84	0.49
	전체	3,966	2.88	0.49	3.03	0.53	2.78	0.59	2.85	0.53
후기 청소년 (대학생)	남자	499	2.94	0.40	3.04	0.43	2.89	0.53	2.92	0.44
	여자	501	2.87	0.37	2.96	0.41	2.82	0.50	2.84	0.43
	전체	1,000	2.91	0.39	3.00	0.42	2.86	0.52	2.88	0.43
전체	남자	6,237	2.91	0.56	3.02	0.60	2.82	0.65	2.90	0.59
	여자	5,047	2.94	0.52	3.08	0.56	2.85	0.63	2.90	0.56
	전체	11,284	2.92	0.54	3.05	0.58	2.83	0.64	2.90	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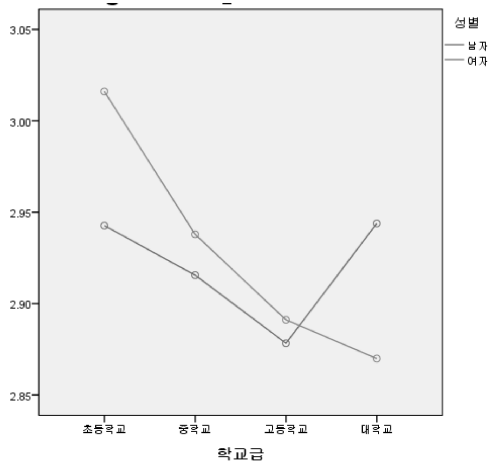
<표 IV-126>에 의하면, 리더십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로는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평균이 2.98(SD=.63)로 가장 높고, 중기 청소년2(고등학생) 평균이 2.88(SD=.4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초기 청소년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에 비해 높았는데 중기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그 격차가 감소했으며, 후기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을 추월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IV- 47】에서 관계형성의 변화 추이를 보면, 성별에 따라 여자 청소년의 경우 초기부터 후기 청소년기까지 리더십 수준이 계속적으로 감소했고, 남자 청소년의 경우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시기에서 중기 청소년 2기(고등학생)까지 계속 감소하다 후기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리더십 역량이 크게 향상되었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로는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평균이 3.08($SD=.67$)로 가장 높고, 후기 청소년(대학생) 평균이 3.00($SD=.4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초기 및 중기 청소년기에는 여자가 남자 청소년에 비해 의사결정 점수가 높았으나, 후기 청소년기에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의사결정 점수가 높았다. 【그림 IV-47】에서 의사결정의 변화 추이를 보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 의사결정 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특히 중기 청소년2기(고등학교)에서 후기 청소년기로 넘어가면서 그 감소폭이 큰 반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의사결정 점수의 큰 변화가 없고, 중기 청소년2기(고등학교)에서 후기 청소년기로 넘어가면서 의사결정 점수가 소폭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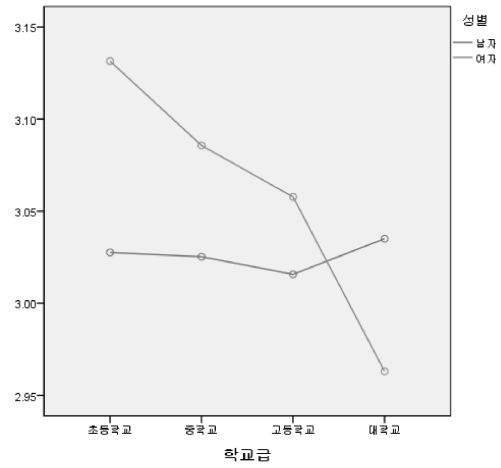
집단활동관리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로는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평균이 2.89($SD=.72$)로 가장 높고, 중기 청소년2(고등학생) 평균이 2.78($SD=.5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초기 청소년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집단활동관리 점수가 높았으나, 후기 청소년기에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집단활동관리 점수가 높았다.

【그림 IV-47】에서 집단활동관리의 변화 추이를 보면, 남녀 청소년 모두 초기부터 중기 청소년기 까지 집단활동관리 점수가 낮아졌고, 후기 청소년기에는 집단활동관리 점수가 높아졌는데, 증가폭이 여자에 비해 남자 청소년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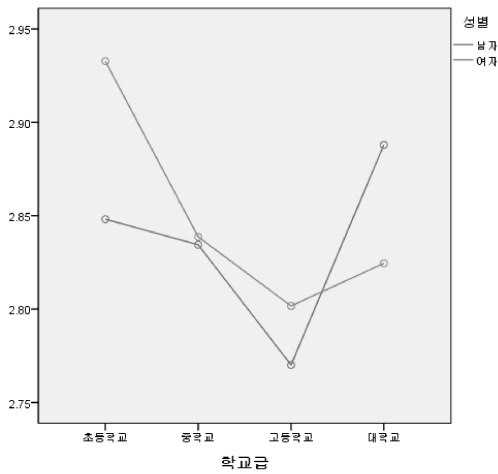
추진력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로는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평균이 2.97($SD=.66$)로 가장 높고, 중기 청소년2(고등학생) 평균이 2.85($SD=.5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초기 청소년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추진력 점수가 높았으나, 후기 청소년기에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추진력 점수가 높았다. 【그림 IV-47】에서 추진력 점수의 변화추이를 보면, 남자 및 여자 청소년 모두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시기에서 중기 청소년 2기(고등학생)까지 추진력 점수가 감소하다가 남자 청소년의 경우 후기 청소년시기에 추진력 점수가 향상되었다. 그러나 여자 청소년의 경우 중기 청소년 2기와 후기 청소년 시기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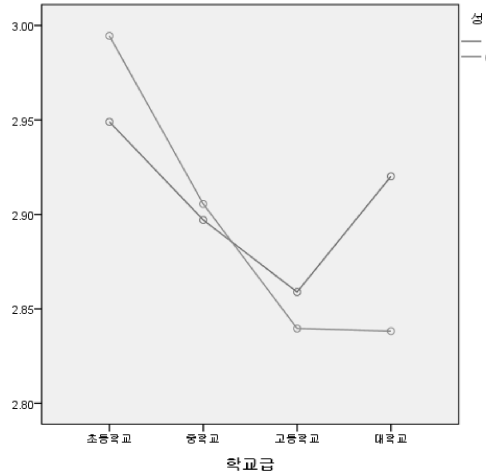
리더십



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그림 IV-47】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리더십의 상호작용

표 IV-127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리더십 상호작용 분석 결과

구분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리더십	주효과	21,363a	7	3,052	10.457**
	간섭	71594.358	1	71594.358	245308.702**
	청소년 시기	.157	1	.157	.537
	성별	14,874	3	4,958	16.987**
	학교급*성별	4,291	3	1,430	4.901**
	잔차	3290.947	11276	.292	
	전체	99711.990	11284		
의사결정	주효과	20,186a	7	2,884	8.617**
	간섭	77493.279	1	77493.279	231562.307**
	청소년 시기	2,360	1	2,360	7.053**
	성별	5,874	3	1,958	5.851**
	청소년 시기*성별	5,943	3	1,981	5.919**
	잔차	3772.556	11273	.335	
	전체	108569.813	11281		
집단활동관리	주효과	27,350a	7	3,907	9.677**
	간섭	67628.295	1	67628.295	167487.999**
	청소년 시기	.425	1	.425	1.053
	성별	18,209	3	6,070	15.032**
	청소년 시기*성별	4,913	3	1,638	4.056**
	잔차	4553.023	11276	.404	
	전체	95108.688	11284		
추진력	주효과	27,843a	7	3,978	12.018**
	간섭	70420.296	1	70420.296	212771.141**
	청소년 시기	.292	1	.292	.884
	성별	24,836	3	8,279	25.014**
	청소년 시기*성별	3,587	3	1,196	3.613*
	잔차	3731.988	11276	.331	
	전체	98656.047	11284		

** $p < .001$, ** $p < .01$, * $p < .05$.

④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협동 상호작용 분석 결과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라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비관적 관계형성, 감성적 관계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상호작용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표 IV-128>에 제시하였다.

표 IV-128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협동의 기초통계분석 결과

청소년 시기	성별	사례수	협동							
			전체		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	
			M	SD	M	SD	M	SD	M	SD
초기 청소년 (초등학생)	남자	1,512	3.06	0.59	3.05	0.64	3.15	0.66	3.03	0.65
	여자	1,402	3.19	0.54	3.16	0.59	3.29	0.58	3.15	0.57
	전체	2,914	3.12	0.57	3.10	0.62	3.22	0.63	3.09	0.62
중기 청소년 1 (중학생)	남자	1,685	3.03	0.54	3.00	0.59	3.11	0.59	3.02	0.57
	여자	1,719	3.09	0.49	3.03	0.54	3.20	0.57	3.09	0.52
	전체	3,404	3.06	0.52	3.02	0.57	3.16	0.58	3.06	0.55
중기 청소년 2 (고등학생)	남자	2,541	3.01	0.48	2.96	0.53	3.11	0.56	3.00	0.51
	여자	1,425	3.06	0.43	2.98	0.48	3.17	0.54	3.08	0.46
	전체	3,966	3.03	0.47	2.97	0.51	3.13	0.55	3.03	0.50
후기 청소년 (대학생)	남자	499	3.02	0.37	3.00	0.42	3.06	0.51	3.03	0.42
	여자	501	3.00	0.35	2.96	0.40	3.03	0.47	3.02	0.38
	전체	1,000	3.01	0.36	2.98	0.41	3.05	0.49	3.03	0.40
전체	남자	6,237	3.03	0.52	3.00	0.57	3.12	0.59	3.02	0.56
	여자	5,047	3.10	0.48	3.04	0.53	3.20	0.56	3.10	0.51
	전체	11,284	3.06	0.50	3.02	0.55	3.16	0.58	3.05	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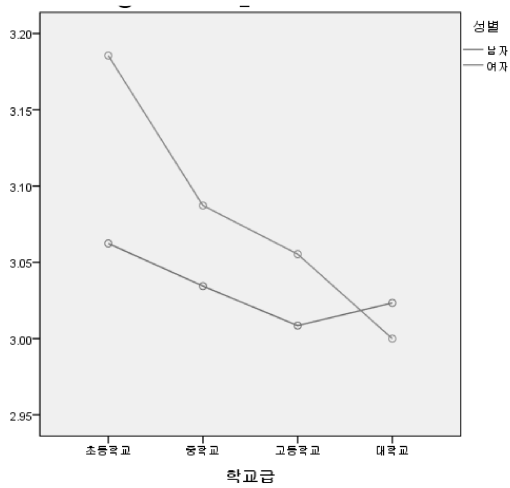
<표 IV-128>에 의하면, 협동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로는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평균이 3.12(SD=.57)로 가장 높고, 후기 청소년(대학생) 평균이 3.01(SD=.3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초기 및 중기 청소년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높았는데, 후기 청소년기에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을 추월했다. 【그림 IV-48】에서 협동의 변화 추이를 보면, 성별에 따라 여자 청소년의 경우 초기부터 후기 청소년기까지 협동 수준이 계속적으로 감소했고, 남자 청소년의 경우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시기에서 중기 청소년 2기(고등학생)까지 계속 감소하다 후기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협동 역량이 다소 향상되었다.

집단축진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로는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평균이 3.10($SD=.62$)로 가장 높고,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 평균이 2.97($SD=.5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초기 청소년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집단축진 점수가 높았고, 중기 청소년기에는 여자와 남자 청소년의 집단축진 점수가 비슷했고, 후기 청소년기에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집단축진 점수가 높았다. 【그림 IV-48】에서 집단축진의 변화 추이를 보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 초기부터 후기 청소년기까지 집단축진 수준이 계속적으로 감소했고, 남자 청소년의 경우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시기에서 중기 청소년 2기(고등학생)까지 계속 감소하다 후기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집단축진 역량이 다소 향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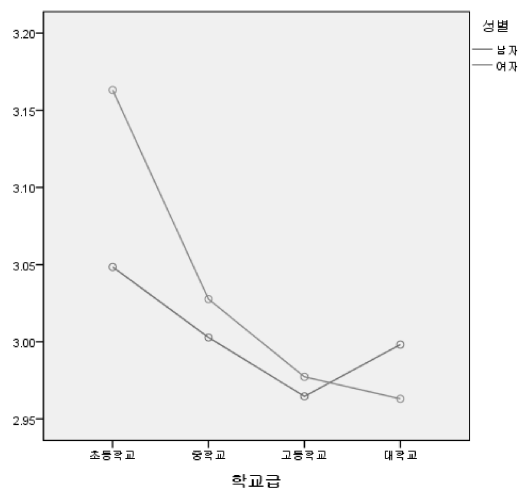
팔로워십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로는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평균이 3.22($SD=.63$)로 가장 높고, 후기 청소년(대학생) 평균이 3.05($SD=.4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초기 및 중기 청소년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팔로워십 점수가 높았는데, 후기 청소년기에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팔로워십 점수가 높았다.

【그림 IV-48】에서 팔로워십의 변화 추이를 보면, 남녀 청소년 모두 초기부터 후기 청소년기까지 팔로워십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자 청소년의 감소 폭이 더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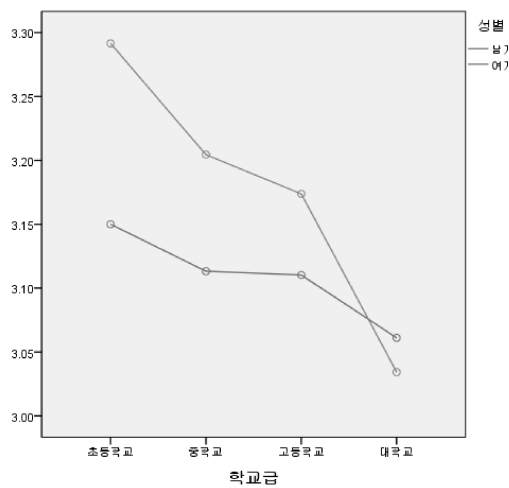
갈등문제해결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별로는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평균이 3.09($SD=.62$)로 가장 높고, 중기 청소년2(고등학생) 및 후기 청소년 평균이 3.03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초기 및 중기 청소년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갈등문제해결 점수가 높았으나, 후기 청소년기에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갈등문제해결 점수가 높았다. 【그림 IV-48】에서 갈등문제해결 점수의 변화추이를 보면, 남자 및 여자 청소년 모두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시기에서 중기 청소년 2기(고등학생)까지 갈등문제해결 점수가 감소하다가 남자 청소년의 경우 후기 청소년시기에 갈등문제해결 점수가 향상되었다. 그러나 여자 청소년의 경우 중기 청소년 2기와 후기 청소년 시기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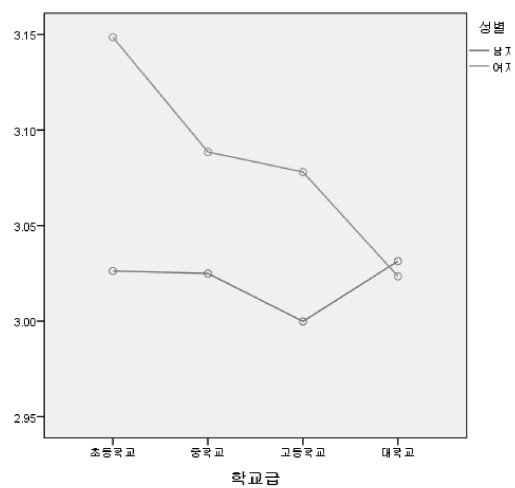
협동



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

【그림 IV-48】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협동의 상호작용

표 IV-129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협동 상호작용 분석 결과

구분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협동	주효과	33.748 ^a	7	4.821	19.214 **
	간섭	78236.224	1	78236.224	311796.481 **
	청소년 시기	5.203	1	5.203	20.736 **
	성별	16.996	3	5.665	22.578 **
	학교급*성별	4.835	3	1.612	6.422 **
	잔차	2829.383	11276	.251	
	전체	108505.949	11284		
집단축진	주효과	42.789 ^a	7	6.113	20.347 **
	간섭	76257.234	1	76257.234	253833.911 **
	청소년 시기	1.791	1	1.791	5.960*
	성별	31.819	3	10.606	35.305**
	청소년 시기*성별	6.344	3	2.115	7.039**
	잔차	3387.556	11276	.300	
	전체	106267.359	11284		
팔로워십	주효과	50.635 ^a	7	7.234	21.827**
	간섭	82661.371	1	82661.371	249428.308**
	청소년 시기	9.500	1	9.500	28.666**
	성별	24.556	3	8.185	24.699**
	청소년 시기*성별	5.910	3	1.970	5.945**
	잔차	3736.904	11276	.331	
	전체	116137.028	11284		
갈등문제해결	주효과	26.102 ^a	7	3.729	12.954**
	간섭	78007.532	1	78007.532	271003.885**
	청소년 시기	8.584	1	8.584	29.822**
	성별	4.751	3	1.584	5.502**
	청소년 시기*성별	3.454	3	1.151	3.999**
	잔차	3245.758	11276	.288	
	전체	108339.502	11284		

** $p < .001$. ** $p < .01$. * $p < .05$.

(2) 청소년의 대인관계역량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분석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발달에 있어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고, 이를 청소년 성장 시기별로 어떠한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본 절에서는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발달에 과연 어떠한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regression analysis)

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였으며, 이때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하여 1단계 투입 독립변인을 청소년의 개인특성(성별(남=1, 여=0), 학교급(청소년 시기)(초등학교(초기청소년)=1, 중학교(중기청소년)=2, 고등학교(중기청소년)=3, 대학생(후기 청소년)=4), 학업성취도 수준(상=1, 중=2, 하=3))으로 하였으며, 2단계 투입 독립변인을 부모특성(부모의 학력(전문대졸 이하·없음=0, 대졸 이상=1)), 그리고 3단계 투입변인을 가구특성(가족구성(양부모=1, 한부모/ 조손/ 기타가정=0), 경제적 수준(상=1, 중=2, 하=3), 거주지역(도시크기)(대도시=1, 중소도시=0))으로 하였다.

①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 분석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30>에 제시되었다.

표 IV-130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

구분		대인관계역량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0.04	-0.05	-4.954 **	-0.04	-0.05	-4.937 **	-0.05	-0.05	-5.175 **
	학교급	0.00	0.00	-.034	-0.01	-0.03	-2.439 *	-0.01	-0.02	-1.556
	학업성취도수준	-0.14	-0.19	-18.492 **	-0.12	-0.16	-15.857 **	-0.10	-0.14	-13.644 **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08	0.08	6.721 **	0.07	0.07	5.490 **
	모의 학력				0.05	0.05	4.224 **	0.05	0.05	3.767 **
가구 특성	가족구성							-0.01	0.00	-.371
	경제적수준							-0.06	-0.09	-9.603 **
	거주지역(도시크기)							0.04	0.04	4.501 **
통계량	R ² (adj. R ²)	.039(.039)			.053(.052)			.063(.062)		
	R ² Change	.039			.014			.010		
	F	145.419**			119.714**			90.125**		

** $p < .001$. * $p < .05$.

<표 IV-130>에 의하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model 3)은 $F=90.125$, $p < .0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63$, adj. $R^2=.062$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은 성별($B=-.05$, $\beta=-.05$, $t=-5.175$, $p < .001$)과

학업성취도 수준($B=-.10$, $\beta=-.14$, $t=-13.644$, $p<.001$)이었다. 즉,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대인관계역량이 높고, 학업성취도 수준이 낮을수록 대인관계역량이 낮았다.

부모특성에서는 부(아버지)의 학력($B=.07$, $\beta=.07$, $t=5.490$, $p<.001$)과 모(어머니)의 학력($B=.05$, $\beta=.05$, $t=3.767$, $p<.001$)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력이 대졸이상으로 높은 집단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 경제적 수준($B=-.06$, $\beta=-.09$, $t=-9.603$, $p<.001$), 거주지역(도시크기)($B=.04$, $\beta=.04$, $t=4.501$, $p<.001$)이 대인관계역량에 영향을 미쳤다. 즉,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대인관계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학업성취도수준($\beta=-.14$), 경제적 수준($\beta=-.09$), 부의 학력($\beta=.07$), 모의 학력($\beta=.05$), 성별($\beta=-.05$), 거주지역(도시크기)($\beta=.04$)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31>에 제시되었다.

표 IV-131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관계형성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06	-.06	-6.730**	-.06	-.06	-6.721**	-.07	-.07	-6.924**
	학교급	-.01	-.02	-1.804	-.02	-.04	-3.632**	-.02	-.03	-2.935**
	학업성취도수준	-.08	-.10	-9.991**	-.06	-.08	-7.997**	-.05	-.07	-6.302**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7	.07	5.389**	.06	.06	4.513**
	모의 학력				.04	.04	2.971**	.03	.03	2.587*
가구 특성	가족구성							.01	.01	.654
	경제적수준							-.05	-.08	-7.822**
	거주지역(도시크기)							.04	.04	3.802**
통계량	R ² (adj. R ²)	.018(.017)			.026(.026)			.033(.032)		
	R ² Change	.018			.008			.007		
	F	64.587**			57.424**			45.727**		

** $p<.001$. ** $p<.01$. * $p<.05$.

<표 IV-131>에 의하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model 3)은 $F=45.727$, $p<.0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33$, adj. $R^2=.022$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은 성별($B=-.07$, $\beta=-.07$, $t=-6.924$, $p<.001$), 학교급($B=-.02$, $\beta=-.03$, $t=-2.935$, $p<.01$), 학업성취도 수준($B=-.05$, $\beta=-.07$, $t=-6.302$, $p<.001$)이었다. 즉,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학교급(청소년 시기)이 낮은 집단일수록,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관계형성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특성에서는 부(아버지)의 학력($B=.06$, $\beta=.06$, $t=4.513$, $p<.001$)과 모(어머니)의 학력($B=.03$, $\beta=.03$, $t=2.587$, $p<.05$)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력이 대졸이상으로 높은 집단이 청소년의 관계형성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 경제적 수준($B=-.05$, $\beta=-.08$, $t=-7.822$, $p<.001$), 거주지역(도시크기)($B=.04$, $\beta=.04$, $t=3.802$, $p<.001$)이 관계형성 역량에 영향을 미쳤다. 즉,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관계형성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 관계형성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경제적 수준($\beta=-.08$), 성별($\beta=-.07$), 학업성취도수준($\beta=-.07$), 부의 학력($\beta=.06$), 거주지역(도시크기)($\beta=.04$), 모의 학력($\beta=.03$), 학교급($\beta=-.03$)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자기개방성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32>에 제시되었다.

표 IV-132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자기개방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관계형성-자기개방성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10	-.08	-8.114**	-.10	-.08	-8.106**	-.10	-.08	-8.283**
	학교급	.02	.02	2.311*	.01	.01	1.122	.01	.02	1.735
	학업성취도수준	-.04	-.04	-3.498**	-.02	-.02	-2.308*	-.01	-.01	-.888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6	.04	3.469**	.05	.03	2.688**
	모의 학력				.03	.02	1.640	.02	.02	1.303
가구 특성	가족구성							.01	.00	.364
	경제적수준							-.06	-.07	-6.864**
	거주지역(도시크기)							.04	.03	3.121**
통계량	R ² (adj. R ²)	.008(.007)			.011(.010)			.016(.015)		
	R ² Change	.008			.003			.005		
	F	27.327**			23.370**			21.901**		

** $p<.001$. ** $p<.01$. * $p<.05$.

<표 IV-132>에 의하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model 3)은 $F=21.901$, $p<.0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16$, adj. $R^2=.015$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자기개방성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은 성별($B=-.10$, $\beta=-.08$, $t=-8.283$, $p<.001$), 이었다. 즉,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자기개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특성에서는 부(아버지)의 학력($B=.05$, $\beta=.03$, $t=2.688$, $p<.01$)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의 학력이 대졸이상으로 높은 집단이 청소년의 자기개방성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 경제적 수준($B=-.06$, $\beta=-.07$, $t=-6.864$, $p<.001$), 거주지역(도시크기)($B=.04$, $\beta=.03$, $t=3.121$, $p<.01$)이 청소년의 자기개방성에 영향을 미쳤다. 즉,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자기개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 자기개방성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성별($\beta=-.08$), 경제적 수준($\beta=-.07$), 부의 학력($\beta=.03$), 거주지역(도시크기)($\beta=.03$)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친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33>에 제시되었다.

표 IV-133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친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관계형성-친화성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01	.01	.855	.01	.01	.887	.01	.01	.678
	학교급	-.05	-.07	-7.115**	-.07	-.09	-8.558**	-.06	-.08	-7.824**
	학업성취도수준	-.08	-.08	-7.491**	-.06	-.06	-5.822**	-.05	-.04	-4.163**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8	.06	4.598**	.07	.05	3.821**
	모의 학력				.04	.03	2.416*	.04	.02	2.021*
가구 특성	가족구성							.03	.01	1.455
	경제적수준							-.08	-.08	-8.273**
	거주지역(도시크기)							.04	.03	3.144**
통계량	R ² (adj. R ²)	.015(.015)			.021(.021)			.028(.028)		
	R ² Change	.015			.006			.007		
	F	55.311**			46.332**			39.104**		

** $p<.001$. ** $p<.01$. * $p<.05$.

<표 IV-133>에 의하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model 3)은 $F=39.104$, $p<.0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28$, $\text{adj. } R^2=.028$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친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은 학교급($B=-.06$, $\beta=-.05$, $t=-7.824$, $p<.001$), 학업성취도 수준($B=-.05$, $\beta=-.04$, $t=-4.163$, $p<.001$)이었다. 즉, 학교급(청소년 시기)이 낮은 집단일수록,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친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특성에서는 부(아버지)의 학력($B=.07$, $\beta=.05$, $t=3.821$, $p<.001$)과 모(어머니)의 학력($B=.04$, $\beta=.02$, $t=2.021$, $p<.05$)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력이 대졸이상으로 높은 집단이 청소년의 친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 경제적 수준($B=-.08$, $\beta=-.08$, $t=-8.273$, $p<.001$), 거주지역(도시크기)($B=.04$, $\beta=.03$, $t=3.144$, $p<.01$)이 친화성에 영향을 미쳤다. 즉,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친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 친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경제적 수준($\beta=-.08$), 학교급($\beta=-.08$), 부의 학력($\beta=.05$), 학업성취도수준($\beta=-.04$), 거주지역(도시크기)($\beta=.03$), 모의 학력($\beta=.02$)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34>에 제시되었다.

표 IV-134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관계형성-의사소통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08	-.07	-7.332**	-.08	-.07	-7.323**	-.08	-.07	-7.475**
	학교급	.00	-.01	-.771	-.02	-.03	-2.600**	-.01	-.02	-2.053*
	학업성취도수준	-.10	-.12	-12.122**	-.09	-.11	-10.100**	-.08	-.09	-8.663**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7	.06	5.205**	.06	.06	4.476**
	모의 학력				.05	.04	3.144**	.04	.03	2.830**
가구 특성	가족구성							.01	.00	.479
	경제적수준							-.05	-.06	-6.175**
	거주지역(도시크기)							.04	.03	3.556**
통계량	R ² (adj. R ²)	.023(.022)			.031(.030)			.036(.035)		
	R ² Change	.023			.008			.005		
	F	83.071**			68.457**			49.428**		

** $p<.001$. ** $p<.01$. * $p<.05$.

<표 IV-134>에 의하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model 3)은 $F=49.428$, $p<.0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36$, adj. $R^2=.035$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은 성별($B=-.08$, $\beta=-.07$, $t=-7.475$, $p<.001$), 학교급($B=-.01$, $\beta=-.02$, $t=-2.053$, $p<.05$), 학업성취도 수준($B=-.08$, $\beta=-.09$, $t=-8.663$, $p<.001$)이었다. 즉,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학교급(청소년 시기)이 낮은 집단일수록,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특성에서는 부(아버지)의 학력($B=.06$, $\beta=.06$, $t=4.476$, $p<.001$)과 모(어머니)의 학력($B=.04$, $\beta=.03$, $t=2.830$, $p<.01$)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력이 대졸이상으로 높은 집단이 청소년의 의사소통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 경제적 수준($B=-.05$, $\beta=-.06$, $t=-6.175$, $p<.001$), 거주지역(도시크기)($B=.04$, $\beta=.03$, $t=3.556$, $p<.001$)이 의사소통 역량에 영향을 미쳤다. 즉,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의사소통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 의사소통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학업성취도수준($\beta=-.09$), 성별($\beta=-.07$), 부의 학력($\beta=.06$), 경제적 수준($\beta=-.06$), 모의 학력($\beta=.03$), 거주지역(도시크기)($\beta=.03$), 학교급($\beta=-.02$)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공감 및 배려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35>에 제시되었다.

표 IV-135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공감 및 배려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관계형성-공감 및 배려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09	-.08	-8.200**	-.09	-.08	-8.191**	-.09	-.08	-8.285**
	학교급	.00	.00	-.029	-.01	-.02	-1.575	-.01	-.01	-1.177
	학업성취도수준	-.08	-.10	-9.503**	-.07	-.08	-7.808**	-.06	-.07	-6.734**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6	.05	4.435**	.05	.05	3.817**
	모의 학력				.04	.03	2.553*	.03	.03	2.329*
가구 특성	가족구성							-.01	.00	-.274
	경제적수준							-.03	-.04	-4.320**
	거주지역(도시크기)							.03	.03	2.631**
통계량	R^2 (adj. R^2)	.017(.017)			.023(.022)			.025(.025)		
	R^2 Change	.017			.006			.002		
	F	62.122**			50.271**			34.808**		

** $p<.001$. ** $p<.01$. * $p<.05$.

<표 IV-135>에 의하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model 3)은 $F=34.808$, $p<.0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25$, adj. $R^2=.025$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공감 및 배려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은 성별($B=.09$, $\beta=.08$, $t=8.285$, $p<.001$), 학업성취도수준($B=-.06$, $\beta=-.07$, $t=-6.734$, $p<.001$)이었다. 즉,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공감 및 배려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특성에서는 부(아버지)의 학력($B=.05$, $\beta=.05$, $t=3.817$, $p<.001$)과 모(어머니)의 학력($B=.03$, $\beta=.03$, $t=2.329$, $p<.05$)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력이 대졸이상으로 높은 집단이 청소년의 공감 및 배려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 경제적 수준($B=-.03$, $\beta=-.04$, $t=-4.320$, $p<.001$), 거주지역(도시크기)($B=.03$, $\beta=.03$, $t=2.631$, $p<.01$)이 공감 및 배려 역량에 영향을 미쳤다. 즉,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공감 및 배려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 공감 및 배려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성별($\beta=.08$), 학업성취도수준($\beta=-.07$), 부의 학력($\beta=.05$), 경제적 수준($\beta=-.04$), 모의 학력($\beta=.03$), 거주지역(도시크기)($\beta=.03$)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36>에 제시되었다.

표 IV-136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리더십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01	-.01	-1.364	-.01	-.01	-1.314	-.02	-.01	-1.550
	학교급	.01	.02	2.028*	.00	.00	-.475	.00	.01	.508
	학업성취도수준	-.18	-.22	-21.486**	-.16	-.19	-18.721**	-.14	-.17	-16.303**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9	.08	6.504**	.07	.06	5.087**
	모의 학력				.07	.06	4.947**	.06	.05	4.472**
가구 특성	가족구성							-.02	-.01	-1.204
	경제적수준							-.08	-.10	-10.361**
	거주지역(도시크기)							.05	.04	4.257**
통계량	R^2 (adj. R^2)	.045(.045)			.060(.060)			.072(.071)		
	R^2 Change	.045			.015			.011		
	F	169.229**			137.013**			103.260**		

** $p<.001$. * $p<.05$.

<표 IV-136>에 의하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model 3)은 $F=103.260$, $p<.0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72$, adj. $R^2=.071$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은 학업성취도수준($B=-.14$, $\beta=-.17$, $t=-16.303$, $p<.001$)이었다. 즉,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리더십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특성에서는 부(아버지)의 학력($B=.07$, $\beta=.06$, $t=5.087$, $p<.001$)과 모(어머니)의 학력($B=.06$, $\beta=.0$, $t=4.472$, $p<.001$)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력이 대졸이상으로 높은 집단이 청소년의 리더십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 경제적 수준($B=-.08$, $\beta=-.10$, $t=-10.361$, $p<.001$), 거주지역(도시크기)($B=.05$, $\beta=.04$, $t=4.257$, $p<.001$)이 리더십 역량에 영향을 미쳤다. 즉,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리더십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 리더십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학업성취도수준($\beta=-.17$), 경제적 수준($\beta=-.10$), 부의 학력($\beta=.06$), 모의 학력($\beta=.05$), 거주지역(도시크기)($\beta=.04$)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37>에 제시되었다.

표 IV-137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리더십-의사결정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04	-.03	-3.602**	-.04	-.03	-3.565**	-.04	-.04	-3.710**
	학교급	.02	.04	3.469**	.01	.01	1.185	.01	.02	1.804
	학업성취도수준	-.18	-.20	-19.402**	-.16	-.17	-16.863**	-.14	-.16	-15.059**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8	.07	5.608**	.07	.06	4.620**
	모의 학력				.07	.06	4.824**	.07	.05	4.461**
가구 특성	가족구성							-.01	.00	-.513
	경제적수준							-.05	-.07	-6.914**
	거주지역(도시크기)							.06	.05	4.961 **
통계량	R ² (adj. R ²)	.037(.037)			.050(.049)			.056(.056)		
	R ² Change	.037			.012			.007		
	F	138.575**			112.265**			80.046**		

** $p<.001$. ** $p<.01$.

<표 IV-137>에 의하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model 3)은 $F=80.046$, $p<.0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56$, adj. $R^2=.056$ 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은 성별($B=-.04$, $\beta=-.04$, $t=-3.710$, $p<.001$), 학업성취도수준($B=-.14$, $\beta=-.16$, $t=-15.059$, $p<.001$)이었다. 즉,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의사결정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특성에서는 부(아버지)의 학력($B=.07$, $\beta=.06$, $t=4.620$, $p<.001$)과 모(어머니)의 학력($B=.07$, $\beta=.05$, $t=4.461$, $p<.001$)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력이 대졸이상으로 높은 집단이 청소년의 의사결정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 경제적 수준($B=-.05$, $\beta=-.07$, $t=-6.914$, $p<.001$), 거주지역(도시크기)($B=.06$, $\beta=.05$, $t=4.961$, $p<.001$)이 의사결정 역량에 영향을 미쳤다. 즉,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의사결정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 의사결정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학업성취도수준($\beta=-.16$), 경제적 수준($\beta=-.07$), 부의 학력($\beta=.06$), 모의 학력($\beta=.05$), 거주지역(도시크기)($\beta=.05$), 성별($\beta=-.04$)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집단활동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38>에 제시되었다.

표 IV-13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집단활동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리더십-집단활동관리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02	-.02	-1.612	-.02	-.01	-1.572	-.02	-.02	-1.814
	학교급	.02	.03	2.784 **	.00	.00	.439	.01	.01	1.419
	학업성취도수준	-.20	-.20	-19.719 **	-.17	-.18	-17.152 **	-.15	-.15	-14.817 **
부모 특성	부의 학력				.10	.08	6.380 **	.08	.06	5.014 **
	모의 학력				.07	.05	4.147 **	.06	.04	3.685 **
가구 특성	가족구성							-.02	-.01	-1.098
	경제적수준							-.09	-.10	-10.235 **
	거주지역(도시크기)							.04	.03	3.433 **
통계량	R ² (adj. R ²)	.038(.037)			.050(.050)			.061(.060)		
	R ² Change	.038			.013			.011		
	F	139.805**			113.817**			87.298**		

** $p<.001$. ** $p<.01$.

<표 IV-138>에 의하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model 3)은 $F=87.298$, $p<.0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56$, adj. $R^2=.056$ 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집단활동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은 학업성취도수준($B=-.15$, $\beta=-.15$, $t=-14.817$, $p<.001$)이었다. 즉,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집단활동관리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특성에서는 부(아버지)의 학력($B=.08$, $\beta=.06$, $t=5.014$, $p<.001$)과 모(어머니)의 학력($B=.06$, $\beta=.04$, $t=3.685$, $p<.001$)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력이 대졸이상으로 높은 집단이 청소년의 집단활동관리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 경제적 수준($B=-.09$, $\beta=-.10$, $t=-10.235$, $p<.001$), 거주지역(도시크기)($B=.04$, $\beta=.03$, $t=3.433$, $p<.01$)이 집단활동관리 역량에 영향을 미쳤다. 즉,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집단활동관리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 집단활동관리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학업성취도수준($\beta=-.15$), 경제적 수준($\beta=-.10$), 부의 학력($\beta=.06$), 모의 학력($\beta=.04$), 거주지역(도시크기)($\beta=.03$)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집단활동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39>에 제시되었다.

표 IV-139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추진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리더십-추진력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01	.01	.637	.01	.01	.696	.01	.00	.466
	학교급	.00	.00	.060	-.01	-.02	-2.147 *	-.01	-.01	-1.145
	학업성취도수준	-.18	-.20	-19.400 **	-.16	-.17	-16.898 **	-.14	-.15	-14.519 **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8	.07	5.692 **	.06	.05	4.260 **
	모의 학력				.07	.05	4.538 **	.06	.05	4.074 **
가구 특성	가족구성							-.03	-.01	-1.500
	경제적수준							-.08	-.10	-10.370 **
	거주지역(도시크기)							.04	.03	3.443 **
통계량	R^2 (adj. R^2)	.039(.038)			.051(.050)			.062(.061)		
	R^2 Change	.039			.012			.011		
	F	143.777**			114.346**			88.288**		

** $p<.001$. * $p<.01$.

<표 IV-139>에 의하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model 3)은 $F=87.298$, $p<.0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56$, adj. $R^2=.056$ 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추진력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은 학업성취도수준($B=-.14$, $\beta=-.15$, $t=-14.519$, $p<.001$)이었다. 즉,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추진력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특성에서는 부(아버지)의 학력($B=.06$, $\beta=.05$, $t=4.260$, $p<.001$)과 모(어머니)의 학력($B=.06$, $\beta=.05$, $t=4.074$, $p<.001$)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력이 대졸이상으로 높은 집단이 청소년의 추진력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 경제적 수준($B=-.08$, $\beta=-.10$, $t=-10.370$, $p<.001$), 거주지역(도시크기)($B=.04$, $\beta=.03$, $t=3.433$, $p<.01$)이 추진력 역량에 영향을 미쳤다. 즉,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추진력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 추진력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학업성취도수준($\beta=-.15$), 경제적 수준($\beta=-.10$), 부의 학력($\beta=.05$), 모의 학력($\beta=.05$), 거주지역(도시크기)($\beta=.03$)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협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집단활동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40>에 제시되었다.

표 IV-140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협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협동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05	-.05	-5.572 **	-.05	-.05	-5.561 **	-.05	-.05	-5.742 **
	학교급	.00	.00	-.480	-.01	-.03	-2.624 **	-.01	-.02	-1.920
	학업성취도수준	-.14	-.19	-18.223 **	-.13	-.16	-15.841 **	-.11	-.15	-13.975 **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8	.08	6.256 **	.07	.06	5.228 **
	모의 학력				.05	.04	3.425 **	.04	.04	3.046 **
가구 특성	가족구성							-.01	.00	-.388
	경제적수준							-.05	-.08	-7.654 **
	거주지역(도시크기)							.04	.04	4.094**
통계량	R ² (adj. R ²)	.039(.039)			.050(.050)			.057(.057)		
	R ² Change	.039			.011			.007		
	F	146.892**			113.744**			81.337**		

** $p<.001$. ** $p<.01$.

<표 IV-140>에 의하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model 3)은 $F=81.337$, $p<.0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57$, $\text{adj. } R^2=.057$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협동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은 성별($B=-.05$, $\beta=-.05$, $t=-5.742$, $p<.001$), 학업성취도수준($B=-.11$, $\beta=-.15$, $t=-13.975$, $p<.001$)이었다. 즉,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협동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특성에서는 부(아버지)의 학력($B=.07$, $\beta=.06$, $t=5.228$, $p<.001$)과 모(어머니)의 학력($B=.04$, $\beta=.04$, $t=3.046$, $p<.01$)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력이 대졸이상으로 높은 집단이 청소년의 협동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 경제적 수준($B=-.05$, $\beta=-.08$, $t=-7.654$, $p<.001$), 거주지역(도시크기)($B=.04$, $\beta=.04$, $t=4.094$, $p<.001$)이 협동 역량에 영향을 미쳤다. 즉,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협동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 협동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학업성취도수준($\beta=-.15$), 경제적 수준($\beta=-.08$), 부의 학력($\beta=.06$), 성별($\beta=-.05$), 모의 학력($\beta=.05$), 거주지역(도시크기)($\beta=.04$)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집단축진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41>에 제시되었다.

표 IV-141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집단축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협동-집단축진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03	-.03	-3.004 **	-.03	-.03	-2.983 **	-.03	-.03	-3.157 **
	학교급	-.02	-.03	-2.792 **	-.03	-.05	-4.648 **	-.02	-.04	-3.955 **
	학업성취도수준	-.13	-.16	-15.393 **	-.12	-.14	-13.294 **	-.10	-.12	-11.546 **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8	.07	5.715 **	.07	.06	4.748 **
	모의 학력				.04	.03	2.760 **	.04	.03	2.401 *
가구 특성	가족구성							-.01	.00	-.300
	경제적수준							-.06	-.07	-7.416 **
	거주지역(도시크기)							.04	.03	3.379 **
통계량	R ² (adj. R ²)	.030(.030)			.039(.039)			.045(.044)		
	R ² Change	.030			.009			.006		
	F	112.294**			86.984**			63.270**		

** $p<.001$. ** $p<.01$. * $p<.05$.

<표 IV-141>에 의하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model 3)은 $F=63.270$, $p<.0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57$, adj. $R^2=.057$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집단축진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은 성별($B=-.03$, $\beta=-.03$, $t=-3.157$, $p<.01$), 학교급($B=-.02$, $\beta=-.04$, $t=-3.955$, $p<.001$), 학업성취도 수준($B=-.10$, $\beta=-.12$, $t=-11.546$, $p<.001$)이었다. 즉,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학교급(청소년 시기)이 낮은 집단일수록,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집단축진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특성에서는 부(아버지)의 학력($B=.07$, $\beta=.06$, $t=4.748$, $p<.001$)과 모(어머니)의 학력($B=.04$, $\beta=.03$, $t=2.401$, $p<.05$)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력이 대졸이상으로 높은 집단이 청소년의 집단축진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 경제적 수준($B=-.06$, $\beta=-.07$, $t=-7.416$, $p<.001$), 거주지역(도시크기)($B=.04$, $\beta=.03$, $t=3.379$, $p<.01$)이 집단축진 역량에 영향을 미쳤다. 즉,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집단축진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 집단축진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학업성취도수준($\beta=-.12$), 경제적 수준($\beta=-.07$), 부의 학력($\beta=.06$), 학교급($\beta=-.04$), 성별($\beta=-.03$), 모의 학력($\beta=.03$), 거주지역(도시크기)($\beta=.03$)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팔로워십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42>에 제시되었다.

표 IV-142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팔로워십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협동-팔로워십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07	-.06	-6.414 **	-.07	-.06	-6.406 **	-.07	-.06	-6.533 **
	학교급	.00	.00	.050	-.01	-.02	-1.941	-.01	-.01	-1.416
	학업성취도수준	-.18	-.20	-19.728 **	-.16	-.18	-17.473 **	-.15	-.17	-15.906 **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9	.07	5.845 **	.07	.06	5.015 **
	모의 학력				.05	.04	3.093 **	.04	.03	2.787 **
가구 특성	가족구성							-.01	.00	-.322
	경제적수준							-.05	-.06	-5.812 **
	거주지역(도시크기)							.05	.04	4.024 **
통계량	R^2 (adj. R^2)	.046(.045)			.055(.054)			.059(.059)		
	R^2 Change	.046			.009			.005		
	F	170.796**			124.487**			84.623**		

** $p<.001$. ** $p<.01$.

<표 IV-142>에 의하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model 3)은 $F=84.623$, $p<.0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59$, adj. $R^2=.059$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팔로워십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은 성별($B=-.07$, $\beta=-.06$, $t=-6.533$, $p<.001$), 학업성취도 수준($B=-.15$, $\beta=-.17$, $t=-15.906$, $p<.001$)이었다. 즉,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팔로워십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특성에서는 부(아버지)의 학력($B=.07$, $\beta=.06$, $t=5.015$, $p<.001$)과 모(어머니)의 학력($B=.04$, $\beta=.03$, $t=2.787$, $p<.01$)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력이 대졸이상으로 높은 집단이 청소년의 팔로워십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 경제적 수준($B=-.05$, $\beta=-.06$, $t=-5.812$, $p<.001$), 거주지역(도시크기)($B=.05$, $\beta=.04$, $t=4.024$, $p<.001$)이 팔로워십 역량에 영향을 미쳤다. 즉,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팔로워십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 팔로워십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학업성취도수준($\beta=-.17$), 경제적 수준($\beta=-.06$), 부의 학력($\beta=.06$), 성별($\beta=-.06$), 거주지역(도시크기)($\beta=.04$), 모의 학력($\beta=.03$)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갈등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43>에 제시되었다.

표 IV-143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갈등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협동-갈등문제해결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청소년 특성	성별	-.07	-.06	-6.745**	-.07	-.06	-6.735**	-.07	-.07	-6.901**
	학교급	.01	.02	2.170*	.00	.00	.143	.00	.01	.789
	학업성취도수준	-.14	-.16	-15.973**	-.12	-.14	-13.743**	-.11	-.13	-12.014**
부모 특성	부의 학력				.08	.07	5.551**	.06	.06	4.584**
	모의 학력				.05	.04	3.535**	.05	.04	3.182**
가구 특성	가족구성							-.01	.00	-.447
	경제적수준							-.05	-.07	-7.066**
	거주지역(도시크기)							.04	.04	3.936 **
통계량	R ² (adj. R ²)	.030(.030)			.040(.039)			.046(.045)		
	R ² Change	.030			.010			.006		
	F	111.261**			88.906**			64.395**		

** $p<.05$.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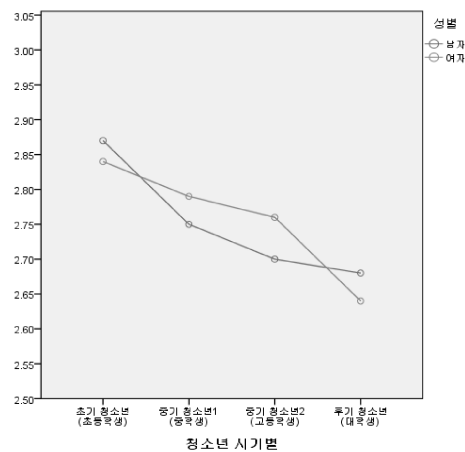
<표 IV-143>에 의하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model 3)은 $F=64.395$, $p<.0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046$, adj. $R^2=.045$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갈등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은 성별($B=-.07$, $\beta=-.07$, $t=-6.901$, $p<.001$), 학업성취도 수준($B=-.11$, $\beta=-.13$, $t=-12.014$, $p<.001$)이었다. 즉,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갈등문제해결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특성에서는 부(아버지)의 학력($B=.06$, $\beta=.06$, $t=4.584$, $p<.001$)과 모(어머니)의 학력($B=.05$, $\beta=.04$, $t=3.182$, $p<.01$)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력이 대졸이상으로 높은 집단이 청소년의 갈등문제해결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는 경제적 수준($B=-.05$, $\beta=-.07$, $t=-7.066$, $p<.001$), 거주지역(도시크기)($B=.04$, $\beta=.04$, $t=3.936$, $p<.001$)이 갈등문제해결 역량에 영향을 미쳤다. 즉,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갈등문제해결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 갈등문제해결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학업성취도수준($\beta=-.13$), 경제적 수준($\beta=-.07$), 성별($\beta=-.07$), 부의 학력($\beta=.06$), 거주지역(도시크기)($\beta=.04$), 모의 학력($\beta=.04$)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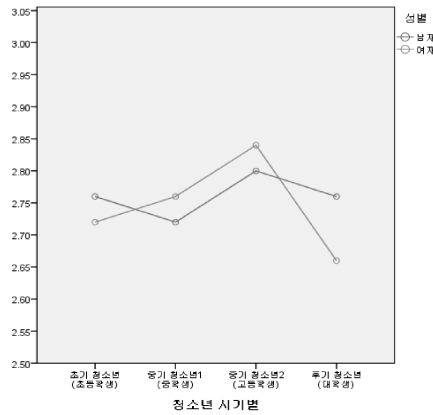
5)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측정 결과 심층 분석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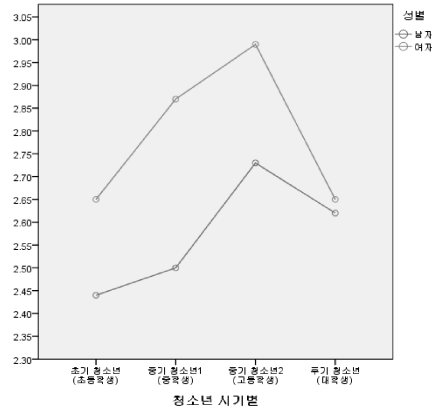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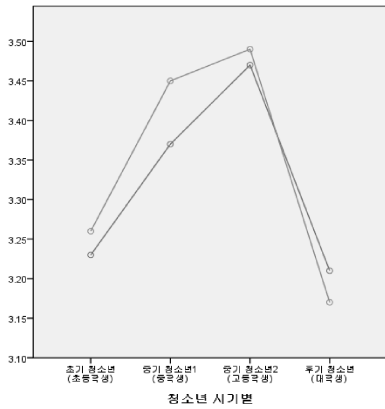
【그림 IV-49】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의 상호작용

9) 이 부분은 협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인 김태준 박사(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가 책임 집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협동 연구 보고서 김태준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개발 및 국제비교연구 II: ICCS 2016-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분석 보고서’를 참고바라며, 본 장은 김태준 (2015)의 보고서 내용 중 결과부분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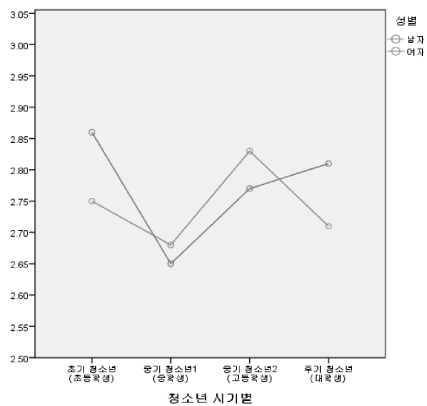
(1) 개인 시민성에 대한 심층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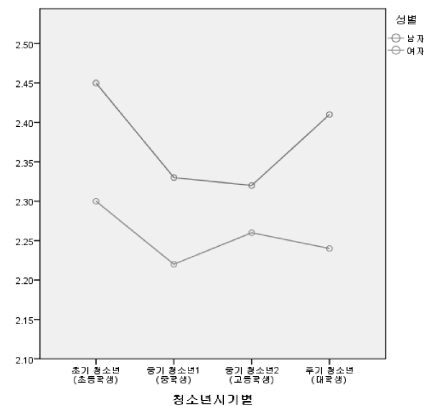
개인 시민성(상)



권리 · 책임의식(좌)



민주적 절차 및 의식(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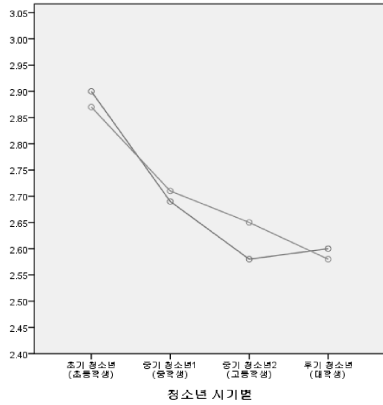


정치 · 사회적 관심(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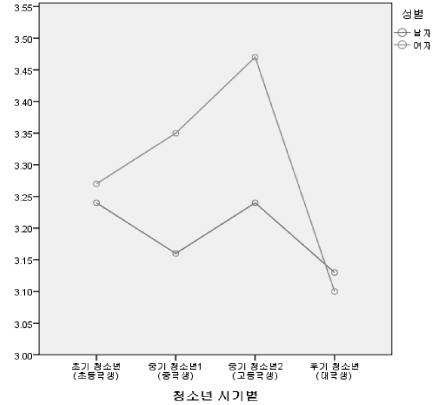
정치적 자아효능감(우)

【그림 IV-50】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개인 시민성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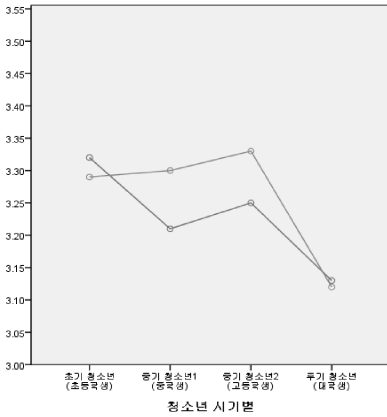
(2) 공동체 시민성에 대한 심층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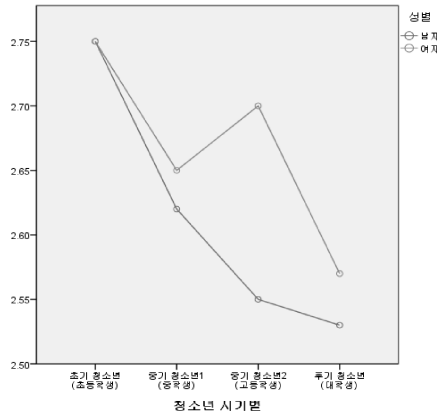
공동체 시민성(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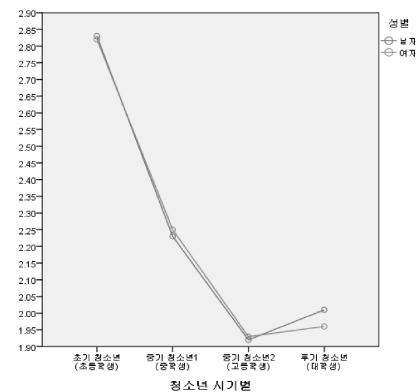
투표 참여(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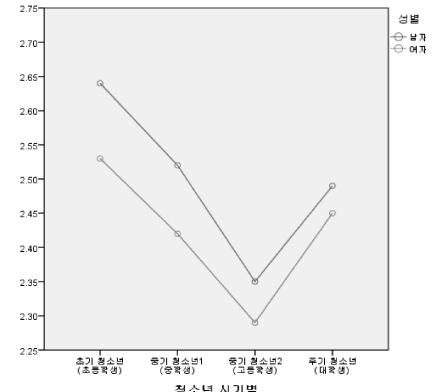
시민활동의 중요성(좌)



저항 의식(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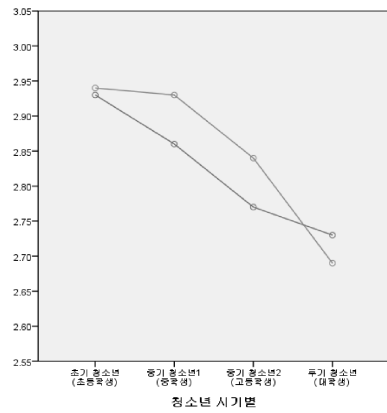
신뢰(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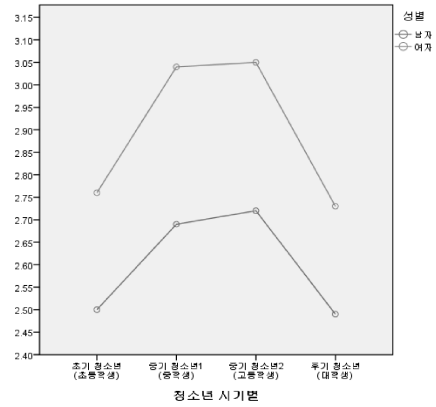
교실개방성(우)

【그림 IV-5】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공동체 시민성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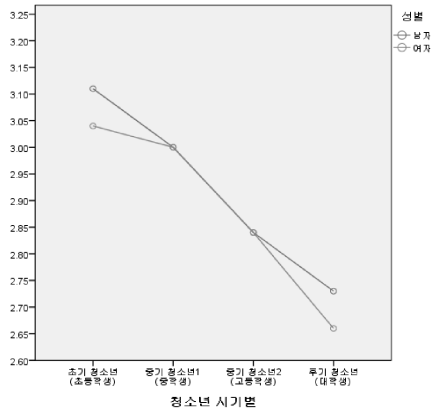
(3) 세계 시민성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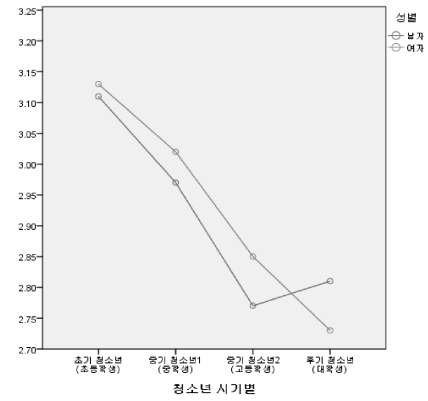
세계 시민성(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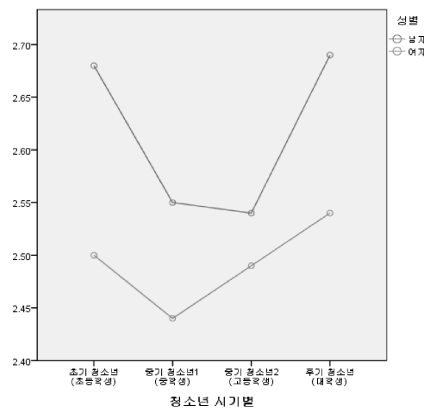
성 인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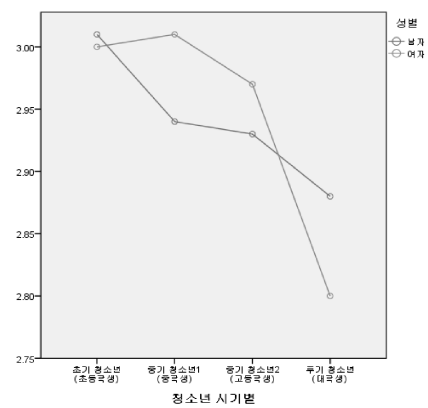
이민자에 대한 태도(좌)



국가 및 역사의식(우)



국제관계관심(좌)



글로벌 의사소통(우)

【그림 IV-52】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세계 시민성의 상호작용

5. ICCS 2016 예비조사 결과

연구계획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ICCS 2016 의 예비조사는 IEA에서 선정한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IEA의 표집계획은 전국의 시도별로 총 25개 학교를 표집하는 것을 목표로 학교명과 학교별 표집학급의 숫자를 명시하였다. 위 표집 계획에는, 처음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던 표집 학교가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대체할 학교까지 미리 선정되어 있었다. 단, 예비조사에서는 1차 대체학교까지만 선정되어 있으나 2016년 본조사에서는 2차 대체학교까지 선정되어 있다. 예비조사의 표집학교와 본조사의 표집학교(대체학교 포함)는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표집 계획을 구성하여 예비조사 실시가 본조사에 오염효과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였다.

2015년 10월부터 11월 까지 진행된 예비조사 결과 총 25개 표본학교 중에서 16개교(1차 대체 포함)가 조사에 참여해 64%의 응답율을 나타냈다. 예비조사는 본 보고서가 완료된 이후인 11월 30일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예비조사 응답현황을 개요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IV-144 ICCS 2016 예비조사 응답현황: 지역별

지역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총합계
조사학교수		1	-	3	1	2	-	2	-	-	3	2	-	2	-	16
조사 학급 수		2	-	3	1	3	-	3	-	-	4	2	-	2	-	20
참여 교사 수	남	2	-	9	6	9	-	11	-	-	15	20	-	2	-	74
	여	7	-	22	2	23	-	33	-	-	36	27	-	5	-	155
	합계	9	-	31	8	32	-	44	-	-	51	47	-	7	-	229
참여 학생 수	남	-	-	97	16	24	-	38	-	-	83	54	-	16	-	328
	여	57	-	0	13	67	-	69	-	-	53	14	-	51	-	324
	합계	57	-	97	29	91	-	107	-	-	136	68	-	67	-	652

표 IV-145 CCS 2016 예비조사 응답현황: 학교단위별

지역	표집 선정	학교명	조사 학급	학교 설문	교사 응답 : 남	교사 응답 : 여	교사 응답 : 합계	학생 응답 : 남	학생 응답 : 여	학생 응답 : 합계
서울	대체	잠신중학교	2	1	5	21	26	38	37	75
	표집	창문여자중학교	1	1	6	12	18	—	32	32
인천	표집	구월중학교	2	1	10	12	22	73	—	73
	표집	용현여자중학교	1	1	1	14	15	—	32	32
	표집	인천상정중학교	1	1	4	10	14	10	21	31
강원	대체	북평여자중학교	2	1	2	7	9	—	57	57
충남	표집	천안성정중학교	1	1	1	5	6	16	17	33
	표집	쌍백여자중학교	1	1	1	—	1	—	34	34
경북	표집	유강중학교	1	1	6	2	8	16	13	29
대구	표집	구암중학교	2	1	3	8	11	24	29	53
	표집	월암중학교	1	1	6	15	21	—	38	38
경남	표집	통영중학교	1	1	2	8	10	33	—	33
	표집	해운중학교	1	1	5	12	17	32	—	32
경남	대체	밀성중학교	1	1	2	2	4	32	—	32
전남	대체	순천매산중학교	1	1	9	12	21	19	14	33
	대체	목포홍일중학교	1	1	11	15	26	35	—	35
합계			20	16	74	155	229	328	324	652

예비조사 응답결과를 IEA의 표준방식으로 입력하고 검증하여 전송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조사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3차년도 보고서에 수록할 예정이다.

제 V 장

논의 및 정책제언

1. 논의
2. 정책제언

제 V 장 논의 및 정책제언*

1. 논의

본 연구는 미래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우리나라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여 행복한 성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제 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 의거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청소년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5개년(2014~2018)에 걸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 연구계획에 의거하여 2014년 1차년도 과제를 청소년의 역량을 국제수준에서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였고, 2015년 2차년도 과제, 즉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1차년도에 개발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역량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2016년 ICCS 조사를 위한 예비조사를 추진함으로써 ICCS 본 조사에서 발생하게 될 다양한 문제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 연구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과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 및 국제 비교 연구를 위한 ICCS 2016 예비조사를 총괄하였다. 이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5개의 청소년 역량지수 중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관련 측정조사에 대한 자료와 정책제언을 담당하고, 협동기관으로써 한국교육개발원은 사회참여역량을 담당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 이 장의 성은모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백혜정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진성희 교수(인하대학교)가 공동으로 집필하였으며, 사회참여역량 관련 내용의 부분은 협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 김태준 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이 집필한 보고서 ‘김태준 (201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개발 및 국제비교연구 I: 사회참여역량’의 일부를 요약정리하였음.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 전국 규모 청소년 모집단으로 선정된 후 전국 17개 시도를 중심으로 표본집단을 추출하여 청소년 역량에 대한 실제적인 조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아울러, 2016년도 ICCS 본 조사를 대비하여 본 조사의 절차를 그대로 시행해 봄으로써 그 절차를 숙지하고,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상황을 사전에 점검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청소년 10,516명(초등학생=2,700, 중학생=3,123명, 고등학생=3,684명, 대학생=1,000명)이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조사에 하였다. 아울러 ICCS 2016 조사를 위한 예비조사를 위해서는 전국 25개 표본학교 중학교 2학년 재학생(평균연령 13.5세) 약 1,000명과 해당학교 및 해당학년 담당교사(담임 및 교과교사) 약 200명, 그리고 해당학교 책임자(교장 혹은 교감) 25명이 예비조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연구결과를 요약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 전체 평균은 4점 만점에 2.92로 나타났으며, 이를 100% 기준으로 본다면 7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역량군별로 살펴보면, 생활관리역량과 대인관계역량 평균이 각각 3.01로 나타나 75%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고, 진로개발역량이 2.93점 73.25%, 생애학습역량이 2.92점 73%로 나타났으며, 사회참여역량이 2.75점 68.7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생활관리역량과 대인관계역량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참여 역량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발달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초등학생들의 청소년 역량지수가 3.02점 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 2.93점 73%, 고등학생 2.89점 72%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이 2.84 7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의 역량 수준이 가장 높고, 대학생의 역량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청소년 시기에서 성별에 따른 청소년 역량 발달 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생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학교 시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하다가, 고등학교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의 역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오히려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게 나타났다. 더욱 특이한 것은 대학교 시기까지 여자 청소년의 역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남자 청소년은 대학교 시기에 역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대학생 시기에는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역량이 급격하게 벌어지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역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역별 청소년 역량지수는 부산이 2.9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충남과 세종이 각각 2.96점, 서울, 인천, 대전이 2.95점 순으로 나타났고, 전북이 2.87점, 강원과 경북이 2.8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청소년의 역량 증진 및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 계획에 의거 수행되는 연속과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과제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4년 1차년도에 수행되었던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성을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은 생애학습역량 37문항, 생활관리역량 48문항, 진로개발역량 40문항, 대인관계역량 46문항, 사회참여역량 63문항 등과 같이 5개의 역량군을 중심으로 234문항이 구성되었으며, 청소년의 배경변인 8문항이 포함되어 총 24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차 년도에서도 개발된 문항의 신뢰도와 정규성 검토, 그리고 역량지수 구성체제의 적합도등을 확인한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2차 년도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한 번 반복적으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신뢰도와 정규성 검토, 그리고 역량지수 구성체제의 적합도 등을 분석한 결과, 1차 년도 기술통계치와 유사한 자료를 획득하였으며, 측정문항의 신뢰도와 정규성 검토, 그리고 역량지수 구성체제의 적합도에 있어 모두 유의미하게 신뢰롭고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2014년 1차 년도와 2015년 2차년도에서 개발되고 적용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매우 유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더욱이 해당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는 우리나라 청소년 전체를 모집단으로 선정한 후 표본집단을 추출하여 이루어진 연구결과이기 때문에 그 대표성과 일반성을 확보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전체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청소년 전체를 모집단으로 선정한 후 표본집단을 추출하여 이루어진 조사결과이기 때문에 청소년 역량지수 점수에 대한 대표성과 일반성을 확보하였다는 것이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평균 수준은 292(4점 만점)로 나타나 100%로 환산한다면 73%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역량군 별로는 생활관리역량과 대인관계역량이 3.01점(75%), 진로개발역량이 2.93점(73.25%), 생애학습역량이 2.92점(73%), 그리고 사회참여역량이 2.75점(68.75%)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점수가 절대적인 준거가 될 수는 없지만, 다른 청소년들의 역량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상대적 준거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를 보다 표준화된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 역량지수의 세부적인 역량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은 제기된다.

셋째,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특성에 따른 현황과 실태를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 특히, 청소년의 발달시기에 따른 역량의 변화추이를 종단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기존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은 청소년 발달에 있어서 특정시기만을 기준으로 측정 및 분석되었는데, 이는 각 발달 시점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지만, 과연 청소년의 발달적 시점에서 어떠한 역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해석과 통찰을 제공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역량의 수준을 발달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역량을 보다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특성에 따른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역량은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시기별로는 세부 역량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양상은 초등학교 시기에는 높고, 성장할수록 역량의 수준이 낮아지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서는 학업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역량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학업수준이 낮은 청소년은 역량수준 또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학력, 경제적 수준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지역에 있어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역량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역량 관리, 증진 혹은 강화 프로그램이나 정책들이 맞춤형으로 지원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눈여겨 볼 연구결과는 성별에 따른 청소년 역량의 차이와 청소년 시기별 역량의 차이에 있다. 본 연구결과 초기청소년 시기 즉, 초등학교 시기에는 대부분의 역량에 있어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중학교 시기에는 비슷하게 감소하다가 고등학교 시기에는 남자 청소년 보다 더 낮게 감소한다는 것이다. 더욱 흥미있는 사실은 남자 청소년은 고등학교 시기에 감소하지만 대학교 시기가 되면 반등하여 상승 곡선을 그리는 반면, 대학교 시기의 여자 청소년들의 역량은 더욱 감소하여 그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애학습역량에 있어 비판적사고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그리고 학습주도성, 생활관리역량에 있어 신체관리와 감정절제, 진로개발역량에 있어 여가유능감, 여가만족, 여가몰입, 그리고 차별화태도, 대인관계역량에 있어 친화성, 리더십, 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그리고 추진력, 사회참여역량에 있어 정치적 자아효능감, 국제관계관심, 글로벌 의사소통 등의 역량에 있어서는 남자 청소년과 그 격차를 좁히지 못하거나 오히려 벌어지는 역량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자 청소년에 대한 성장 시기별 맞춤형 역량 관리, 지원

및 강화 정책이 제공될 필요성이 제시된다.

한편, 사회적으로 상대적인 취약집단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의 여성 청소년, 학업성취도 수준, 부모의 학력 수준, 경제적 수준, 가족구성의 취약, 거주지역 등의 차이에 따라 청소년 역량이 급격하게 벌어지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이를 종합하며보면, 후기 청소년에 있는 여성 청소년이고 양부모가 아닌 가족구성에 학업성취도·가정경제·부모학력이 수준이 낮고 지방에 거주하는 청소년일 경우에는 그 역량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예측가능하다. 청소년 정책이 주요목적인 행복한 성인으로의 이행으로 본다면, 청소년 역량 정책은 상대적 취약집단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보다 강도 높은 역량 증진 및 강화 정책이 제공될 필요성이 제시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생태계적 관점에서 가정-학교-지역-사회-국가가 보다 유기적으로 청소년 역량 강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 연구를 수행하면서,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청소년 정책관련 공무원들이 청소년 역량 증진 및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을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매뉴얼이 개발되어 배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 역량 전체 문항은 242문항인데, 이를 모두 활용하기에는 시간과 여건이 매우 불리하며, 이를 해석하고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연, 기존에 추진되었던 청소년 활동 혹은 청소년 체험활동과 청소년 역량의 차별성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청소년 개발은 청소년 활동 및 체험활동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청소년 활동 및 체험활동의 제한점은 청소년이 처한 상황과 관련된 정책적 관점에서 파생되었고 ‘청소년 기본법’상의 개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편적 개념보다는 특수한 개념으로 이해되어 수단적 활동으로써 체험활동이 경험으로 좁은 해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김현철, 임희진, 정효진, 진경석, 2013; 유성렬, 2012). 반면 청소년 역량의 개념은 체험활동 경험의 특수적 개념보다는 청소년 개인이 갖추어야할 능력(지식, 기술, 태도)(성은모 외, 2013; 성은모 외 2015)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편적 개념으로써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념정립이 요구된다 하겠다.

셋째, 청소년의 역량을 증진 및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역량기반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된다. 청소년 활동과 구분되는 청소년 역량 기반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개발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목표-실행-평가에 대한 개념이 보다 명확하게 자리잡아야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 역량은 특수적 개념보다는 보편적 개념으로써 청소년이 갖추어야 할 능력을 신장 혹은 강화시키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역량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역량을 증진 및 강화시킬 수 있는 청소년 역량기반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청소년 역량기반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에 표준화된 모형이나 매뉴얼을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고 확산할 필요성이 제시된다.

넷째, 이를 위한 전문인력(청소년 지도사, 관리자, 청소년 정책 공무원)의 전문성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 청소년 역량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를 이해하고 추진하여 실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전문인력은 청소년과 가장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청소년 지도사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감독하고 지도하는 관리자, 그리고 국가수준에서 청소년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청소년 정책 공무원에 대해 청소년 역량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 평가할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청소년 역량은 특정 시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변화하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 가변성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유연성이 크고 언제든지 폭풍성장 할 수 있는 잠재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역량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관리하여 청소년의 역량을 고루 성장시킬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청소년 역량을 측정하는 제도나 이를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역량강화를 진작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이 요구된다 하겠다.

2. 정책제언¹⁾

본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역량을 증진 및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의 방향은 선행문헌분석 내용,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 결과 분석 내용, 이에 대한 청소년 정책관련 전문가(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청소년 정책관련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청소년 역량 증진 및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는 크게 6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1) 청소년 역량정책 추진체계 강화, 2) 청소년 역량 증진 및 강화 기반 조성, 3) 청소년 맞춤형역량 지원체계 강화, 4) 청소년 역량 관련 기관 및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 5) 청소년 역량지수의 지속적 활용 방안 조성 등이 그것이다. 각 정책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추진과제의 내용은 <표 V-1>과 같다.



【그림 V-1】 청소년 역량 증진 및 강화를 위한 6대 정책제언의 구성체계

1) 이 절은 성은모 부연구위원, 최홍일 전문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진성희 교수(인하대학교), 김균희(인하대학교)가 공동으로 집필하였으며,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을 요약 및 정리하여 진술하고, 보다 자세한 정책제언에 대한 내용은 [부록 5]의 '2015 청소년 역량 관련 정책제언'에 자세히 제시되었음.

표 V-1 청소년 역량 증진 및 강화를 위한 6대 정책과제와 세부추진과제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1. 청소년 역량정책 추진체계 강화	1. 청소년역량의 개념과 청소년 활동과의 관계 정립 2. 청소년 역량 관련 법·제도의 개정 추진 3. 청소년 역량기반 중심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방안 (1)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 정책사업의 성과지표로 활용 (2) 역량기반 중심의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방향성 제안
2. 청소년 역량 증진 및 강화 기반 조성	1. 청소년 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 2. 청소년역량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 3. 청소년역량을 위한 인증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여가부 주관 역량기반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공모제 실시 5. 청소년 체험활동의 효과 및 사업평가를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 6. 청소년 역량증진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3. 청소년 맞춤형 역량 지원체계 강화	1. 청소년 역량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지원 체계 강화 2. 여성 청소년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청소년 역량 강화 지원 체계 마련 3. 후기 청소년(대학교 진학 및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역량 지원 체계 마련
4. 청소년 역량 관련 기관 및 전문인력 전문성 강화	1. 청소년 역량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예산 확대 2. 청소년역량 관련 기관 전문성 강화 3. 청소년 역량 중심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전환 4. 청소년 지도사 전문성 강화 5. 현장 실무자 경험 및 정보공유의 장 마련
5. 청소년 역량 관리 및 연계시스템 구축	1. 국립 청소년 역량 통합관리센터 설립 제안 2. 권역별 학교/기관/행정기관의 공동실무협의회 운영 3. 청소년 역량증진을 위한 청소년 시설과 학교와 긴밀한 관리 및 연계 시스템 구축 4. 초기청소년에서 후기청소년까지 청소년역량의 지속적인 관리
6. 청소년 역량지수의 지속적 활용 방안 조성	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자료에 대한 패널 data화 2. 청소년 역량지수의 주기적 조사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간소화와 활용 매뉴얼 개발 및 보급

1) 청소년 역량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정책 추진체계 강화는 ①청소년역량의 개념과 청소년 활동과의 관계 정립, ②청소년 역량 관련 법·제도의 개정 추진, ③청소년 역량기반 중심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첫째, 청소년역량의 개념과 청소년 활동과의 관계 정립이다. 청소년 역량의 증진 및 강화를 위해서는 청소년 활동이 중요한 수단적 역할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역량의 개념을 정리하여 법·제도적으로 명시화하고, 역량과 활동 간의 관계를 정립하며 이러한 결과들을 기반으로 제6차 청소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우리나라 청소년역량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둘째, 청소년 역량 관련 법·제도의 개정 추진이다.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이 두 법을 통해 청소년역량의 개발과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기구, 인력, 역할, 그에 따른 예산 등이 법으로 보장되어 한국 청소년의 역량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개정안을 활동중심에 역량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 하고자 한다.

표 V-2 청소년 역량에 대한 법적 재해석

구분	현행	개정안
청소년 기본법 제3조(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2006)	3.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 역량" 이라 함은 청소년이 현재와 미래(성인기)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핵심행동특성으로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에서 경험하고 충족시켜야 할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의미한다. 3.1. 청소년 역량(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 역량, 사회참여역량)을 계발하기 위한 활동을 "청소년 활동" 이라하고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구분	현행	개정안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2조(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2006)	3.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교류활동"(이하 "교류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지역간·남북간·국가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문화활동"(이하 "문화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예술활동·스포츠 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3. "생애학습역량"이라 함은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4. "생활관리역량"이라 함은 자신이 삶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여 자신과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5. "진로개발역량"이라 함은 일생에 걸쳐 한 개인의 생애 역할, 경험, 관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독특성을 개발하고 인생의 경험의 폭을 넓히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능력을 의미한다. 6. "대인관계역량"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타인들과 개방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주도적으로 협력하여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7. "사회참여역량"이라 함은 청소년이 민주 시민으로서 사회적 선을 위하여 타인과 협력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8. 청소년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청소년 활동"으로써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은 다음과 같다. 8.1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8.2 "청소년교류활동"(이하 "교류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지역간·남북간·국가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8.3 "청소년문화활동"(이하 "문화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예술활동·스포츠 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셋째, 청소년 역량기반 중심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방안이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청소년 정책사업을 청소년 역량지수 체계별로 재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생활관리역량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사회참여, 진로개발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역량과 관련된 사업내용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 2015년 중앙행정기관의 사업과제 및 예산 (단위: 백만 원)(여성가족부, 2015)

영역	중점과제	세부 과제	사업 개수	연속 사업 개수	신규사 업개수	예산
1.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1.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7	38	37	1	249,424
	2.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5	18	18		11,354
	3.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4	13	13		30,943
2.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4.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4	6	6		1,493
	5.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4	18	17	1	149,404
	6.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5	14	14		7,388
3.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	7.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7	20	20		5,147,073
	8.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8	17	17		384,953
	9.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 지원	7	24	22	2	518,897
4.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10.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4	11	11		31,420
	11.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8	41	41		186,069
	12.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인식제고	3	15	15		28,907
5.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 강화	13.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3	3	3	-	
	14.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3	5	5		10,013
	15.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3	3	3		380
		75	246	242	4	6,757,718

이에 반해, 예산은 생애학습 관련 예산이 가장 많고, 진로개발, 생활관리, 청소년전체 역량, 사회참여, 대인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표 V-4 청소년역량지수 체계별 사업과제 수 및 예산 (단위: 백만 원)

	사업 수		예산	
	빈도	비율	금액	비율
전체	246	100.0	6,805,963	100.0
청소년 전체 역량	20	8.1	398,958	5.9
생애학습	16	6.5	4,673,850	68.7
생활관리	101	41.1	687,340	10.1
진로개발	48	19.5	940,814	13.8
대인관계	9	3.7	20,838	0.3
사회참여	52	21.1	84,163	1.2

표 V-5 청소년역량지수 체계별 내용구분 및 정책지원 대상

구분		구분												전체	
		역량전체		생애학습		생활관리		진로개발		대인관계		사회참여			
전체		20	100.0	16	100.0	101	100.0	48	100.0	9	100.0	52	100.0	246	100.0
내용 구분	프로그램	1	5.0	9	56.3	38	37.6	26	54.2	8	88.9	42	80.8	124	50.4
	인프라 구축	11	55.0	2	12.5	28	27.7	9	18.8	0	0.0	5	9.6	55	22.4
	인력 지원	4	20.0	0	0.0	8	7.9	0	0.0	0	0.0	0	0.0	12	4.9
	제도 정비	4	20.0	4	25.0	23	22.8	13	27.1	1	11.1	4	7.7	49	19.9
	기타	0	0.0	1	6.3	4	4.0	0	0.0	0	0.0	1	1.9	6	2.4
대상	취약 및 특정	3	15.0	9	56.3	31	30.7	16	33.3	1	11.1	5	9.6	65	26.4
	청소년전체	17	85.0	7	43.8	70	69.3	32	66.7	8	88.9	47	90.4	181	73.6

종합컨대, 5차 청소년기본계획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사업은 청소년의 전반적인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내용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 절에서는 2015년 초기부터 후기 청소년의 청소년역량지수를 진단한 결과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 청소년들의 역량 증진을 위한 단기적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표 V-6 청소년 역량을 증진을 위한 단기적 과제 방향성 제안

역량구분	청소년역량 진단 결과	단기적 과제 방향성
생애학습역량	○ 사고력, 학습적응성보다 지적도구활용능력을 청소년들은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음.	○ 전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학, 읽기, 과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생활관리역량	○ 청소년들의 건강관리 역량에 비해 상황대처 및 정서조절 역량이 낮음.	○ 중독 및 폭력행동 등과 관련한 대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청소년들이 감정을 절제 및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 필요
진로개발역량	○ 청소년들의 개척정신 점수가 진로설계 및 여가활용 역량에 비해 낮음.	○ 진로개발을 위한 사업을 비교적 많이 진행하고 있음. 청소년들의 여가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수립이 필요함. 청소년들의 개척정신 함양은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여가시간을 다양하게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통해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대인관계역량	○ 리더십 점수가 관계형성 및 협동 점수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리더십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필요
사회참여역량	○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은 다른 역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하위영역별로는 세계시민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개인시민성, 공동체시민성 순으로 나타남.	○ 공동체 의식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필요. 특히 환경보호의식과 관련된 프로그램, 정치 및 사회적 이슈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 필요

2) 청소년 역량 증진 및 강화 기반 조성

청소년 역량 증진 및 강화 기반 조성은 ①청소년 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 ②청소년역량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 ③청소년역량을 위한 인증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④여가부 주관 역량기반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공모제 실시, ⑤청소년 체험활동의 효과 및 사업평가를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 ⑥청소년 역량증진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등을 제안하였다.

첫째, 청소년 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제도·정책적 차원에서 청소년역량을 국가적 과제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인력, 예산 등의 투입과 홍보의 활성화를 통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역량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개발 및 강화의 노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이다. 청소년역량의 중요성과 역량증진을 위한 양육방법 등 기본적인 자녀양육에서부터 자녀의 역량을 위한 방법까지 전달되어야 하는 시스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청소년역량을 위한 인증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다. 청소년 단체 및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체험활동들이 상당수준 체계를 갖추고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특정역량과 관련된 체험활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체험활동들이 청소년 역량중심으로 재개편되고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역량과 관련하여 전국의 국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5개 수련원 및 센터를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체험활동이 특정 역량에 편중되어 있었다.

표 V-7 청소년 역량별 체험활동 기관 및 참여 청소년 현황

역량		기관 구분						일반/취약 구분		총	청소년 구분			총
역량 균	하위역량	세부역량	국립중앙 청소년 수련원	국립김제 농업생명 청소년체 험센터	국립평창 청소년 수련원	국립영덕 청소년 해양환경 체험센터	국립고흥 청소년 우주체험 센터	일반	취약 계층		초기 청소년 (9~13세)	중기 청소년 (14~19세)	후기 청소년 (20~24세)	
생애 학습 역량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0	0	0	0	0	0	0	0	0	0	0	0
		감성적 사고력	0	0	0	0	0	0	0	0	0	0	0	0
	지적도 구활용	언어능력	1	0	0	0	0	0	1	1	1	0	0	1
		수학능력	0	0	0	0	0	0	0	0	0	0	0	0
		과학능력	4	8	0	7	11	28	2	30	19	23	2	44
		정보통신활용능력	0	0	0	0	0	0	0	0	0	0	0	0
	학습 적응성	변화수용력	0	0	0	0	0	0	0	0	0	0	0	0
		지적호기심	0	0	0	0	0	0	0	0	0	0	0	0
		학습주도성	0		3	0	0	3	0	3	1	3	0	4

역량			기관 구분					일반/취약 구분		총	청소년 구분			총
역량 균	하위역량	세부역량	국립중앙 청소년 수련원	국립김제 농업생명 청소년체 험센터	국립평창 청소년 수련원	국립영덕 청소년 해양환경 체험센터	국립고흥 청소년 우주체험 센터	일반	취약 계층		초기 청소년 (9~13세)	중기 청소년 (14~19세)	후기 청소년 (20~24세)	
생활 관리 역량	건강 관리	안전및스트레스관리 신체관리 위생관리	2	0	0	2	0	4	0	4	2	4	0	6
	과제 관리	목표및계획수립 수행및평가	0	0	0	0	0	0	0	0	0	0	0	0
	상황 대처	중독행동 폭력행동 중독인식 폭력회피	1	0	0	0	0	1	0	1	1	1	0	2
	정서 조절	감정인식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	0	0	0	0	0	0	0	0	0	0	0	0
진로 개발 역량	진로 설계	자기탐색 직업탐색 진로준비 직업가치관	3	0	1	0	1	5	0	5	2	3	1	6
	여가 활용	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여가몰입 여가만족 경험	4	0	1	1	0	6	0	6	4	6	0	10
	개척 정신	차별화태도 도전정신	1	0	1	0	0	2	0	2	1	1	0	2
대인 관계 역량	관계 형성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및배려	4	0	0	0	0	2	2	4	4	3	0	7
	리더십	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2	0	1	1	0	4	0	4	2	4	0	6
	협동	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	1	0	0	0	0	1	0	1	1	1	0	2
사회 참여 역량	개인시 민성	권리,책임의식 민주적절차및의식 정치관심및정치적자 아효능감	0	0	0	0	0	0	0	0	0	0	0	0
	공동체 시민성	공적실천 사회적신회 적극적인개진 교실개방성	2	0	1	0	0	2	1	3	1	2	0	3
	세계 시민성	성인지 이민자에대한태도 국가및역사의식 국제관계이해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5	1	2	1	1	10	0	10	6	9	0	15
총			30	9	10	12	13	68	8	74	45	60	3	108

* 청소년 구분의 경우, 수혜 대상자가 초기, 중기, 후기로 중복될 경우 중복 체크함.(예를 들어 대상이 초등학생~고등학생일 경우, 초기와 중기에 각각 체크함)

이를 보완하여 전인적인 청소년으로써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역량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청소년 체험활동이 설계되고 운영되고 이에 대한 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시된다.

넷째, 여가부 주관 역량기반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공모제 실시이다. 공모제를 통해 초기 프로그램 개발의 재원을 확보하고 우수 프로그램들을 전국에 확산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 사료된다.

다섯째, 청소년 체험활동의 효과 및 사업평가를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이다. 청소년 역량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진단, 계획, 운영, 평가함으로써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고 재설계를 위한 경험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역량증진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이다. 전국적 연수 개최를 통해 우수사례의 일방적 전파와 별개로 각 기관의 어려움과 잘된 점 등을 나누고, 조언을 구하는 기회를 형성한다면 우수사례의 전파와 기관 간 유대 형성 두 가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청소년 맞춤형 역량 지원체계 강화

청소년 맞춤형 역량지원체계 강화는 ①청소년 역량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지원 체계 강화, ②여성 청소년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청소년 역량 강화 지원 체계 마련, ③후기 청소년(대학교 진학 및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역량 지원 체계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첫째, 청소년 역량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지원 체계 강화이다. 청소년역량 증진을 위해 구조적 결핍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와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며, 상대적 취약집단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모니터링하여 맞춤형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근거마련을 위한 후속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여성 청소년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청소년 역량 강화 지원 체계 마련이다. 초기 여자 청소년들의 역량이 왜 성장함에 따라 급속하게 낮아지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에 기반하여 여자 청소년들의 역량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를 줄일 수 있는 제도와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후기 청소년(대학교 진학 및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역량 지원 체계 마련이다. 후기 청소년 중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대학이라는 조직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청소년 역량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프로그램

램이 거의 없는 현실이다. 청소년기본법 상 정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소외계층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극복할 제도 및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 청소년 역량 관련 기관 및 전문인력 전문성 강화

청소년 역량 관련 기관 및 전문인력 전문성 강화는 ①청소년 역량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예산 확대, ②청소년역량 관련 기관 전문성 강화, ③청소년 역량 중심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전환, ④청소년 지도사 전문성 강화, ⑤현장 실무자 경험 및 정보공유의 장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첫째, 청소년 역량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예산 확대이다. 청소년역량강화를 위한 인력과 예산의 확대 없이는 역량의 개발과 강화가 이루어지기 힘든 현실이기에 범·제도적 차원에서 청소년역량 증진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인력, 예산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미 법으로 명시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의 인력과 예산 지원이 보장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역량기반 개정을 통해 새로운 체계의 수립 없이도 예산과 인력의 지원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역량 관련 기관 전문성 강화이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정보와 프로그램을 공유하여 내용의 질적인 측면을 높여야 하며, 지역사회 협의체라든지, 국립 관리통합센터 등을 통해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정보공유와 프로그램 공유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청소년 역량 중심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전환이다. 9개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영역을 청소년 역량과 비교해 보면 다음 <표 V-8>과 같다. 청소년 역량과 분석해 본 결과,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영역별로도 활동현황이 특정 영역에 편중되어 있고, 청소년 역량과 매칭이 안 되는 인증영역들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8 청소년 역량별 수련활동 인증영역 분석

역량		청소년인증 활동 영역 (청소년활동진흥원)
역량군	하위역량	
생애학습역량	사고력	-
	지적도구활용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존
	학습적응성	-
생활관리역량	건강관리	건강활동
	과제관리	-
	상황대처	-
	정서조절	-
진로개발 역량	진로설계	자기계발활동, 직업체험활동
	여가활용	문화예술활동
	개척정신	모험개척활동
대인관계역량	관계형성	교류활동 1
	리더십	전체해당
	협동	전체해당
사회참여역량	개인시민성	-
	공동체 시민성	교류활동 2, 봉사활동
	세계 시민성	교류활동 3

청소년역량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청소년역량 중심의 청소년정책 수립을 대비하여 청소년수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수련활동을 역량중심으로 개편하고 이를 담보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체제 또한 역량적 요소를 포괄하도록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할 수 있다.

넷째, 청소년 지도사 전문성 강화이다. 청소년활동현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신뢰형성, 지도사의 보상체계와 직무여건의 개선, 대학의 인적자원 양성과정 개선이 요구된다. 지도사 자격검정제도와 전문성 개발의 연계,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평가체제 수립이 요구되며, 청소년지도사의 개인 및 경력, 조직개발 지원과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법령 및 제도적 근거의 보완과 지원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현장 실무자 경험 및 정보공유의 장 마련이다. 청소년역량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현장실무자의 전문성은 예산지원, 보수교육, 적절한 근무환경 등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지만 직접 대상자들과 만나며 얻게 되는 경험 역시 실무자의 전문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경험한 다양한 실무자들이 만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5) 청소년 역량 관리 및 연계시스템 구축

청소년 역량 관리 및 연계시스템 구축은 ①국립 청소년 역량 통합관리센터 설립 제안, ② 권역별 학교/기관/행정기관의 공동실무협의회 운영, ③청소년 역량증진을 위한 청소년 시설과 학교와 긴밀한 관리 및 연계시스템 구축, ④초기청소년에서 후기청소년까지 청소년역량의 지속적인 관리 등을 제안하였다.

첫째, 국립 청소년 역량 통합관리센터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중앙센터의 설립을 통해 역량 기반 정책의 수립과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부처의 지원, 청소년 기관의 역량중심화, 역량중심의 교과과정 개편 등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역량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합하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역량 발전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권역별 학교/기관/행정기관의 공동실무협의회 운영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역별, 기관별 청소년 역량의 차이 극복을 위하여 지역 관련 기관, 지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권역별 공동실무협의회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 역량증진을 위한 청소년 시설과 학교와 긴밀한 관리 및 연계시스템 구축이다. 청소년들이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학교임을 감안할 때, 학교에서는 청소년역량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역량지도교사 배치를 통해 다양한 역량증진 프로그램이나 상담, 컨설팅 등을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및 다른 청소년기관과의 유대 형성 및 연계, 지역사회 내 자원 탐색, 학부모 교육 및 상담 등을 제공을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초기청소년에서 후기청소년까지 청소년역량의 지속적인 관리시스템 마련이다. 청소년역량에 대한 시각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정책수립에 있어서도 한시적이고 단발적인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소년역량지수측정도구를 사용하여 한국아동·청소년역량 패널을 구축한다면, 초기청소년(초등학생)시기부터 후기청소년(대학생)시기까지의 역량 발달궤적에 대한 관찰과 그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파악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6) 청소년 역량지수의 지속적 활용 방안 조성

청소년 역량지수의 지속적 활용 방안 조성은 ①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자료에 대한 패널 data화, ②청소년 역량지수의 주기적 조사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③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간소화와 활용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등을 제안하였다.

첫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자료에 대한 패널 data화이다. 앞선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역량을 개발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반이 갖춰지고 나서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역량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일과, 향후 어떠한 변화를 보일 것인지를 파악하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24세까지 약 13년으로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때 패널의 대상은 학교 안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모두를 포괄하여야 하여야 하며, 고등학교 졸업 이후 청소년에 있어서도 대학 진학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이 모두 패널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 역량지수의 주기적 조사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다. 현재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발달적 수준과 역량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발달적 수준과 역량을 평가한 기초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에 청소년역량지수 조사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표 V-9 청소년역량지수 조사 관련 조항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안
청소년 기본법	(신설)	제16조(청소년역량지수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청소년의 생활환경,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 등 청소년 역량의 전반적 수준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역량지수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구분	현행	개정안
청소년 기본법 시행 규칙	(신설)	제1조의 3(청소년역량지수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전국 단위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역량지수조사를 실시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역량조사를 청소년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청소년역량지수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득·재산 등 경제 상태 및 가구 구성 등 청소년의 가구 환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생활환경,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 등 전반적 역량 수준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양육 환경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책수요 등을 반영하여 특정 영역 또는 계층에 대한 영역별 청소년역량지수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역량지수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역량지수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간소화와 활용 매뉴얼 개발 및 보급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을 보다 간소화하여 청소년 현장에서 보다 쉽게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에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를 현장 전문가가 측정 및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이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참고 문헌]

- 강다겸, 장재홍 (2013). 여중생의 시샘, 질투 및 분노가 또래관계에서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9(3), 449-470.
- 강민수 (2001). 어머니와 자녀의 정서지능 관계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영배 (2013). 일본의 청소년 진로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고찰. *일본문화연구*, 46, 5-31.
- 강태훈, 조혜영, 오민아 (2013). 교육 연구에서의 탐색적 요인분석 사용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방법연구*, 25(3), 521-541.
- 강현철 (2013). 구성타당도 평가에 있어서 요인분석의 활용. *대한간호학회지*, 43(5), 587-594.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main.html> 에서 2015년 11월 11일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5). 홈페이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2257&efYd=20150923#0000> 에서 2015년 11월 12일 인출.
- 권일남, 김태균 (2009).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청소년활동영역구성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3), 67-89.
- 권일남, 정효진 (1998). 청소년 자연권 수련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5(3), 261-286.
- 권일남 (2011).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권일남, 최창욱 (2011).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곽삼근, 김기연, 김민정 (2008). 한국 청소년의 리더십에 대한 인식 및 교육경험 분석. *교과교육학연구*, 12(2), 515-536.

- 관계부처합동 (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1a). 과학과 교육과정(고시 제 2011-361호 [별책9]).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1a). 수학과 교육과정(고시 제 2011-361호 [별책8]).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1b). 과학과 교육과정(고시 제 2011-361호 [별책9]).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1b). 수학과 교육과정(고시 제 2011-361호 [별책8]).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2). 국어과 교육과정(고시 제 2012-14호 [별책5]).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제10차(2014)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서울: 교육부
- 교육부 (2015). 학교건강정보센터 블로그.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체력·인성 함양을 위해 학교 체육활성화 적극 추진.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health2010&logNo=80195063591> 에서 2015년 11월 11일 인출.
- 김경식, 이현철(2012). 한국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학교진로교육의 효과—한국교육고용패널과 한국청소년패널 분석을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60(4). 1079-1103.
- 김경훈 (2012).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창의적 문제해결력 기반의 정보교육 정책 방향 탐색(연구보고 RRC 2012-7).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경훈, 김진구, 박영수, 박덕수 (2012). 문제해결능력을 반영한 직업탐구 영역의 시험의 성격, 평가목표, 행동영역 개선연구. *직업교육연구*. 31(3). 43-65.
- 김교현, 김원식 (2001). 한국판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BAS/BIS) 척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2), 19-37
- 김기현 (2008). 청소년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연구보고 08-R15).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김지연, 장근영 (2008).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자율적 행동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김지연, 장근영, 소경희, 김진화, 강영배(2009).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맹영임, 장근영, 구정화, 강영배 (2009).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맹영임, 장근영, 구정화, 강영배, 조문흠 (2009).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총괄보고서(연구보고 10-R17).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장근영, 조광수, 박현주 (2010).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2011).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동일, 김이내, 홍경화, 전호정, 이주영, 이기정 (2010). 청소년 GTI(Global Talent Indicator) 타당화 연구Ⅱ. *아시아교육연구*, 11(4), 27-44.
- 김명숙 (2006).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의 양호도 검증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9(1), 88-116.
- 김문주 (2010). 팀 다양성과 팀 공유감이 팀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팀 학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숙, 조춘범 (2014). 시설아동의 대인관계형성을 위한 나눔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한국아동복지학*, 45, 39-67.
- 김민 (2004).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전문성 개발을 위한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2(1), 43-63.
- 김민선(2015). 학교규칙 제·개정과정에 청소년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 · 정철영 · 김병석 (2006).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서현, 정은숙, 명소연, Batzoolboo, 정익중 (2013). 청소년의 직업경험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주도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5(3), 217-246.
- 김선미. (2012). 대기업 구성원이 인식한 조직학습과 변화수용도의 관계에서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연, 유호정 (2013). 지방 대학생 직업기초역량 진단도구 개발 및 타당화. *HRD연구*, 15(4), 71-100.
- 김성수 (2009). 여가만족과 여가몰입이 심리적 안녕감 및 자아실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성숙 (2009). 유아 리더십 유형 검사 도구 개발 및 타당화.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희, 장운옥 (2007).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수업에서 청소년들의 비판적 사고력 수준에 따른 의사결정능력의 차이. **한국가정과교육과학회지**, 19(1), 133-148.
- 김소영, 라종민 (2015). 중학생들이 인식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효과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연구**, 31(1), 101-116.
- 김신아 (2004). 세계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 (2014). 미래 교육의 핵심역량: 자기주도성. **교육심리연구**, 28(4), 593-617.
- 김양분, 김위정 (2013) 대학진학에 대한 가정배경의 누적적 매개효과 분석. **한국사회학**, 47(4), 263-302.
- 김언주, 심재영(2005).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의 모델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논총**, 2(2), 129-154.
- 김윤나 (2012). 청소년 참여유형에 따른 정책활동 및 생활역량의 차이와 영향변인. **청소년시설환경**, 10(4), 41-51
- 김은주 (2013). 노인의 성공적 노화 측정도구에 대한 요인 구성타당도 평가. **대한간호학회지**, 43(4), 568-578.
- 김정대 (2001). 청소년참여를 통한 리더십 생활기술 프로그램 개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종순 (1998). 초등학교 아동의 사고력 개발에 관한 실험연구. 36(3), 301-320.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주희 (2012). 한국 서비스업 직장인의 긍정심리자본과 도전정신이 창업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경, 이광호 (2014). 정책대상으로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개념 및 관점에 관한 소고. **청소년학연구**, 21(3), 285-306.
- 김진호 (2004). **청소년개발지표 개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진호 (2013).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활동경험이 청소년의 자기주도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 10(1), 1-18.
- 김창환, 엄문영, 김기현, 김종민, 박종효, 박현정, 이광현, 이상돈 (2013). **한국의 교육지표 · 지수 개발 연구(II): 학생역량지수 개발 연구**(연구보고 RR2013-23).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태준, 김안나 (2003). 사회적 자본 형성의 관점에서 본 시민의식 측정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태준 (2009a).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태준, 최상덕, 장근영, 이기홍, 전주혜 (2009b). 한국의 사회적 자본 실태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태준, 이영민 (2010).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태준, 전인식, 변종임, 장혜승, 반재천, 외 4 (2010). 한국 청소년의 시민역량 국제비교 연구: 국제시민교육연구(ICCS) 참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태준, 윤혜경 (2008).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Ⅰ: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태준 (2014). 청소년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Ⅰ. IEA ICCS 2016-사회참여역량측정도구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태준 (2015). 비인지적 역량 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의 국제동향.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향숙, 조인희 (2014). 협동학습을 통한 중·고등학교 토론수업의 영향: 즐거운 수업분위기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38-43.
- 김현철, 임희진, 정효진, 민경석, 안지선, 김신경 (2013). 국가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나승일, 장석민, 정철영, 서우석, 김진모 (2003). 기초직업능력 영역 설정 및 표준 개발. 서울: 한국산업인력공단.
- 남상인, 김영빈, 황매향, 정성경 (2013). 영재 중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중등교육연구, 61(4), 1087-1109.
- 노운신, 리상섭 (2013). 대학생 역량진단 도구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D여자대학교를 중심으로. HRD연구, 15(3), 273-305.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0).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문용린. (1996). 한국에서의 정서지능 측정연구. 서울: 세종문화사.

- 박동렬 (2006).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유형 진단 도구 개발과 타당화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8(2), 225-245.
- 박선영 (2011). 영국의 청소년 진로지도 정책 분석. *글로벌청소년학연구*, 1(2), 29-45.
- 박성미 (2011). 직업능력의 요소로서 핵심역량 분석. *직업교육연구*, 30(3), 327-351.
- 박옥식 (2009). 한국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학술대회*.
- 박효수, 남길우, 엄나래 (2013). 2013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서울: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 방미란 (2009).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수준에 따른 Jigsaw II와 GI 협동학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병렬 (2005). 구조방정식모델: 이해와 활용. 서울: 청람.
- 백순근, 김동일, 김미량, 김혜숙, 유예림, 박소 외 2 (2009). 중·고등학생용 ICT 리터러시 검사도구 개발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0(1), 175-198.
- 백평구 (2013). 대학생 핵심역량 수준과 대학생 개인 변인의 관계 및 특성. *교양교육연구*, 7(3), 349-387.
- 서동균 (2007). 대학생의 여가스포츠에 대한 의사결정균형과 여가기능, 여가몰입, 여가유능감 관계의 구조모형분석.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 (2009). 보건교사를 위한 보건 교육과정 운영 길라잡이. 서울: 서울시
-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4).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연구(연구보고 11-R5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5).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6(2), 117-144.
- 성은모, 김균희 (2013).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과 환경특성 간의 관계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4(4), 177-202.
- 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201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 IEA ICCS 2016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성은모, 오현석, 김윤영 (2013). 대학교육에서 산업형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융합프로젝트 교수학습모형 탐구. *교육방법연구*, 25(3), 543-580.

- 진성희, 성은모 최창욱, (2015).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타당화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6(3), 195-220.
- 성희자, 권현수 (2010). 사회복지사의 직무긴장 척도의 타당성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13(3), 147-171.
- 손태원 (1995). 학습조직과 시스템 사고의 이론적 배경. 경제연구, 16(2), 109-131.
- 송미영, 임해미, 최혁준, 박혜영, 손수경 (2013).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PISA 2012 결과 보고서(연구보고 RRE-2013-6-1).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신명철 (2012). 청소년수련관 설립,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학술대회.
- 안도희, 김유리 (2015). 협동학습과 자기주도적학습이 대학생의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7), 1-30.
- 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201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명희, 김은진 (2010). 정서조절이 학습전략에 미치는 영향: 정서를 매개로 하는 관계 검증. 교육심리연구, 24(2), 449-467.
- 양병화 (2006). 다변량 데이터분석법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양한주 (1997). 중학생의 직업가치관과 직업 선호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완용 (2007). 청소년 리더십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2013.7.3. 보도자료). 2013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전수진단 결과 및 사후조치계획 발표.
- 여성가족부 (2010).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1).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3).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4).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4).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5) 2014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4). 2014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policy02_02a.jsp?func=view¤tPage=0&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694620 에서 2014년 11월 2일 인출.
- 여성가족부 (2015). 제 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 2015년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 오종석 (2014). 초등과학영재아동과 일반아동 부모의 학습관여와 지적호기심 및 과학창의성의 관계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찬호 (2010). 후기청소년 세대들이 "민주주의 이슈"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 기억과 전망, 22, 214-253.
- 오현석, 성은모 (2013). 융합재역량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4(4), 201-228.
- 오혜영, 전연진, 강석영, 이대형, 한지현, 채중민, 김수희 (2009). 학부모개입 지침서: 학교폭력.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우옥영, 김대유, 김미경, 김향자, 유남숙 외 (2012). 초등학교 보건교육과정 연구. 서울: 교육부.
-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 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출판사.
- 유성렬 (2012). 청소년 역량과 청소년 활동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고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년 청소년 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세미나 자료집, 21-46.
- 유진희 (2010). 중·고등학생의 사고양식과 비판적 사고성향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현숙·김태준·이석재·송선영 (2004). 국가 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연구(III)(RR 2004-1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윤명희, 김진화 (2007). 청소년의 생활역량 진단척도 개발과 프로그램 사례를 통한 효과분석. 서울: 한국학술진흥재단.
- 윤명희, 장아름 (2007). 부산지역 위기(가능)청소년의 생활역량 조사연구. 부산교육학연구. 20(1). 55-79.
- 윤명희, 장아름 (2008).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생활역량 비교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5(4). 49-66.

- 윤정현 (1999). 호텔기업 종업원의 팀웍이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현석 (1997). 감성지능과 창의성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광호(2005) 새로운 통합적 청소년정책의 전망과 추진과제. 청소년행동연구. (10). 1-22.
- 이미선, 강영택, 김현진, 안수경, 유재연, 이영숙, 이준석 (2010).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성과 실태조사 도구 개발 연구. 충남: 국립특수교육원.
- 이민희(2009)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진로탐색에 관한 연구: 직업역량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지. 7(4). 57-67.
- 이석재, 장유경, 이현남, 박광엽. (2003). 생애능력 측정도구 개발 연구: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중심으로(연구보고 RR 2003-15-3).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애화, 최명숙 (2014). 국내 대학생 핵심역량과 그 진단도구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교육공학 연구. 30(4). 561-588.
- 이영주 (2012)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에 대한 욕구 및 정책제안. 한국디지털정책 학회. 10(8). 335-340.
- 이은희 (2003) 소아암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장익, 김주후 (2012) 대학생의 핵심역량과 학업성취도 관계성에 대한 분석연구. 직업교육 연구. 31(2). 227-246.
- 이정미, 이지연, 장진이 (2012). 초등학생의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능력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5), 93-113.
- 이정순 (2006). 청소년 리더십 기술관련 변인 탐색. 교육연구, 20, 151-174.
- 이종범 (2005). 초등학생 진로발달 검사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종범 (2008). 직업기초능력 수준별 성취기준 개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채식 (2005). 청소년 리더십기술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채식, 최영창 (2007). 청소년리더십기술 결정요인분석. 청소년행동연구, 12, 1-14.

- 이해정, 연은경, 김혜원 (2014). 낙관성향 상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기표현능력, 대인관계능력,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6(1), 379-400.
- 이효녕, 권혁수, 박경숙, 이현동 (2013). 고등학생들의 시스템 사고 측정을 위한 측정 도구 개발과 타당화.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3(5), 995-1006.
- 임언, 황규희, 오석영, 최수정, 박현정, 이수영, 정혜령, 강은진, 김세미(2011). 2011년 국제성인역량조사 프로젝트(PIAAC) 사업.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과학기술부.
- 임영구. (2013). 시스템 사고력 향상을 위한 글쓰기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지연, 김정주 (2008).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청소년직업체험활동의 현황과 과제. *청소년학연구*. 15(1), 143-170.
- 장근영, 이해연, 배상률, 성은모, 이용교, 홍승애, 김균희 (201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근영, 박수익, 장지영 (201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석진, 연문희 (2009). 애착이론에 근거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 및 능력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10(4), 2031-2054.
- 장인희 (2004). 청소년이 지각한 양육행동과 역량지각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석사학위논문.
- 전경구, 김동연, 이준석 (2000).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XI-K) 개발 연구: IV. *미술치료학회*, 7(1), 33-50.
- 전명순 (2012).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명순, 권일남 (2012). 청소년의 대인관계역량 프로그램 개발 연구. *청소년학연구*, 19(6), 149-177.
- 전영숙 (2007). 노인 여가교육 프로그램이 노인의 여가인식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종수, 권미수, 양희인 (2012). 2012년 정보문화실태조사. 서울: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 정덕훈, 서진주 (2005). 공기업의 지식경영수준 진단평가를 통한 지식경영성공도와 변화수용도의 상관관계분석. *e-비즈니스연구*, 6(3), 421-437.
- 정민이. (2001). 비판적 사고를 강조한 과학 글쓰기 REDFREC 모형의 개발과 적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용래 (2007). 정서조절곤란의 평가: 한국판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4), 1015-1038.
- 조지민, 동효관, 옥현진, 임해미, 정혜경, 손수경, 외. (2012). OECD 국제학업성취도비교 연구: PISA 2012 본검사시행보고서(연구보고RRE 2012-3-1).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조한익 (2013). 정서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과 학습전략의 매개효과 검증. *아동교육*, 22(1), 313-324.
- 조혜영, 최창욱 (2011) 청소년 도덕성 발달 검사도구 활용방안 및 과제. *한국윤리교육학회 학술대회*.
- 주 범, 유진이 (2009) 청소년시설의 현실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지*. 7(2), 73-82.
- 진미석, 손유미 (2000).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지도체제 구축 방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진미석, 이수영, 채창균, 유한구, 박천수, 이성, 최동선, 옥준필 (2007).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선정 및 문항 개발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진미석, 이수영, 임언, 유한구, 성양경 (2009).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진단평가 체제 구축*.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진미석, 손유미, 주휘정 (2011).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체제 구축 방안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9(4), 461-486.
- 천정웅 (2011). 한국청소년정책의 발전특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18(12), 513-534.
- 최동선, 김나라, 김성남 (2009). *청소년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연구보고 09-R19-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동선, 최수정, 이건남 (2010). *청소년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I :지적도구 활용 영역*(연구보고 10-R17-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유선, 손은령 (2015). 청소년이 지각한 대인관계 양상, 학업성취, 삶의 만족도의 관계: 성별, 학교급별 비교. *상담학연구*, 16(2), 233-247.
- 최윤진 (2012). 청소년 시민참여와 비형식교육. *시민청소년학연구*, 2(1), 31-59.
- 최은희, 공인숙 (2001)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과 역량지각. *대한가정학회지*, 39(11), 63-72.
- 최인재, 모상현, 강지현 (2011).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수미(2009).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진로태도 성숙 발달에 관한 4년 종단연구. *상담학연구*, 10(4), 2257-2271.
- 최창욱 (2001). *청소년의 리더십 생활기술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창욱, 김정주, 송병국 (2005). 청소년 동아리활동이 리더십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2(2), 57-76.
- 최창욱, 신윤희 (2012). 중등학생 청소년의 리더십생활기술과 청소년활동 경험과의 관계 분석. *실과교육연구*, 18(3), 171-194.
- 통계청 (2014). *사회조사*.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대전: 통계청
- 하창순, 김지현, 최희철, 유현실 (2006).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학교수업 참여도, 개인 학습시간과 학업성적 간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7(1), 181-200.
- 한국교육개발원 (2006). *영재의 리더십 육성을 위한 기초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Ⅱ): 리더십 검사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3.12.3 보도자료). OECD 국가 중 수학 1위, 읽기 1~2위.
- 한국일보(2013.6.26.). 청소년 고민 1위, 대인관계서 스트레스로. <http://www.hankookilbo.com/v/974c70973711415b92f22a3c7848aec3> 에서 2014년 11월 2일 인출.
-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2013 국가정보화백서*.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6). *청소년육성제도론*.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내부분서*.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한상철(2013) 청소년정책의 성격과 국가행정 부처 변경을 위한 제언. *청소년행동연구*, 18, 5-27.

- 한상철, 김혜원, 설인자, 임영식, 조아미 (2014). *청소년 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 황혜리, 김지윤 (2013). 놀이중심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저소득 청소년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정서지능 및 진로발달에 미치는 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6(4), 379-419.
- ACER(2010). Initial findings from the IEA ICCS. IEA.
- Amadeo, J. A., Torney-Purta, J., Lehmann, R., Husfeldt, V., & Nikolova, R. (2002). *Civic knowledge and engagement*: An IEA study of upper secondary students in sixteen countries. Amsterdam: IEA.
- Anderson, J. C., & Kim, E. Y. (2009). Youth leadership development: Perceptions and preferences of urban students enrolled in a comprehensive agriculture program.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50(1), 8-20.
- Assaraf, O. B. Z., & Orion, N. (2005). Development of system thinking skills in the context of earth system education.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42(5), 518-560.
- Avolio, B. J., & Bass, B. M. (1995). Multifactor leadership questionnaire. <https://www.google.co.kr/#newwindow=1&q=bass%20avolio%20multifactor%20leadership%20questionnaire>에서 2014년 4월 28일 인출.
- Bagozzi, R. P., & Yi, Y. (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1), 74-94.
- Beard, J. & Ragheb, M. (1980).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1), 20-30.
- Bentler, P.M. & Bonett, D.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 588-606.
- Beyer, B. K. (1985). Critical thinking: What is it?. *Social Education*, April, 270-276.
- Belsley, D. A., Kuh, E., & Welsch, R. E. *Regression diagnostics*: Identifying influential data and sources of collinearity. New York: Wiley, 1980.
- Bronfenbrenner, U. (2004). *Making human beings human*. Thousand Oaks, CA: Sage.

- Buhrmester, Furman, Wittenberg, & Reis(1988).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991-1008.
- Chemers, M. M., Hu, L. T., & Garcia, B. F. (2001). Academic self-efficacy and first-year college student performance and adjust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3(1), 55-64.
- Covin, J. G., & Slevin, D. P. (1986). The development and testing of an organizational-level entrepreneurship scale.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1(1986), 626-639.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Facionc, PA., & Facione, N.. (1992). *The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Inventory* (CC7D1). Millbrae, CA.: The California Academic Press.
- Facione, P. A. (1990). *The Delphi report. Critical thinking: A statement of expert consensus for purposes of educational assessment and instruction*. Millbrae, Calif: Californica Academia Press. ERIC Doc. No. 315 423.
- Gibbons, M.(2002). *The self-directed learning handbook*.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Goleman, D. P. (1995). *Emotional intelligence: Why it can matter more than IQ for character, health and lifelong achievement*. New York: Bantam Books
- Greenhill, V. (2009). P21 Framework Definitions. Retrieved June 10, 2014. from http://www.p21.org/storage/documents/P21_Framework
- Hirayama, R., & Kusumi, T. (2004). Effe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interpretation of controversial issues: evaluating evidences and drawing conclusions. *Japanes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2(2), 186-198.
- IEA(2015). *IEA Cived* <http://www.iea.nl/cived.html>, IEA ICCS 2016 <http://iccs.iea.nl/>

- IEA(2015). IEA brochure: IEA About us, http://www.iea.nl/fileadmin/user_upload/IEA_Documents/IEA_Brochure.pdf
- Kaiser, H. F. (1974). An index of factorial simplicity. *Psychometrika*, 39(1), 31–36.
- Delamare–Le Deist, F., & Winterton, J. (2005). What is competence?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 8(1), 27–46.
- Lichtnberg, J.W., Bebeau, M.J., Smith, I.L., Portnoy, S.M., Leigh, I.W., Rubin, N.J., & Kaslow, N.J. (2007). Challenges to the assessment of competence and competencie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8(5), 474–478.
- Lombardo, M. M., & Eichinger, R. W. (2000). High potentials as high learners. *Human Resource Management*, 39, 321–329.
- Maw, W. H. & Maw, E. W. (1964). *An Exploratory Invertigation into the Measurement of Curiosition Elementary Children*. Cooperative Research Project No, 801. University of Dalaware.
- McClelland, D.(1993). *Introduction*. In L. Spencer & S. Spencer(Eds.),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pp. 3–8). New York: John Wiley & Sons.
- Merrifield, J.(2000). *Equipped for the Future, Research Report*. Washington DC: NIFL.
- Mitchinson, A., & Morris, R (2012). *Learning about learning agility*. Academy of Management Proceedings, 2012(1), 1–18.
- OECD (2002). *DeSeCo Symposium: Discussion Paper*. OECD.
- OECD (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 OECD (2011). Teenage suicide (15–19 years old).
<http://www.oecd.org/els/family/48968307.pdf> 에서 2015년 11월 11일 인출.
- OECD DeSeCo Project. (2006).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Electronic version]. Retrieved June 10, 2014, from <http://www.oecd.org/dataoecd/47/61/35070367.pdf>.

-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 (2009). P21 Framework Definitions. Retrieved June 10, 2014, from http://www.p21.org/storage/documents/P21_Framework_Definitions.pdf.
-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Free Press Lexington Books.
- Rychen, D. S. & Salganik, L. H. (2003). *Highlights from the OECD Project Definition and Selection Competencies: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s* (DeSeCo).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in Chicago.
- Schulz, W., & Sibberns, H.(2004). *IEA civic education study technical report*. Amsterdam,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 Schulz, W., Ainley, J., & Frailon, J. (2011). *ICCS 2009 Technical Report*. Amsterdam,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 Schulz, W., Ainley, J., Fraillon, J., Losito, B., and Agrusti, G. (2015). IEA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2016: Assessment Framework Draft. IEA (p61)
- Seevers, B. S., & Dormody, T. J. (1995). Leadership life skills development: Perceptions of senior 4-h youth. *Journal of Extension*, 33(4). <http://www.joe.org/joe/1995august/rb1.php>에서 2014년 6월 13일 인출.
- Swisher, V. V., Hallenbeck, G. S., Orr, J. E., Eochinger, R. W, Lombardo, M. M. & Capretta, C. C.(2013). *FYI for learning agility* (2nd ed.). Lominger International: A Korn/Ferry Company.
- Spencer, L., & Spencer, S.(1993).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John Wiley & Sons.
- Sung, E., & Mayer, R. E. (2012). Five facets of social presence in online distance educa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8(5), 1738–1747.

- Tangney, J. P., Baumeister, R. F., & Boone, A. L. (2004). High self-control predicts good adjustment, better grades, and interpersonal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72(2), 271-324.
- Torney, J. V., Oppenheim, A. N., and Farnen, R. F. (1975). *Civic education in ten countries: An empirical study*.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Voogt, J., & Roblin, N. P. (2010). *21st century skills. Discussienota*. Zoetermeer: The Netherlands: Kennisnet.
- Wanberg, C. R., & Banas, J. T. (2000). Predictors and outcomes of openness to changes in a reorganizing workpla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5(1), 132.
- Witt, P. A., & Ellis, G. D. (1982). *The leisure diagnostic battery remendiation guide*. North texas State University, Leisure Diagnostic Battery Project
- Yeh, Y. (2004). The Interactive Influences of Three Ecological Systems on R & D Employees' Technological Creativity. *Creativity Research Journal*, 16(1), 11-25.

부 록

1. 2015 청소년 역량 관련 선행연구
분석
2. 초·중·고등학생 표본설계
3. 대학생 표본설계
4. 2015 청소년 역량 측정 조사
설문지
5. 2015 청소년 역량 관련 정책제언

부 록

[부록 1] 2015 청소년 역량 관련 선행문헌 분석²⁾

1. 청소년의 역량 개념 및 정의

청소년은 행복한 성인으로 성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개인적, 사회적 자산으로써 잠재력을 소유하고 있는 개발 가능한 사회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5; 진성희, 성은모 최창욱, 2015). 청소년이 행복한 성인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 시기 즉, 청소년초기, 중기, 후기의 발달 단계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자아개념, 동기, 내면적 특질 등이 있는데, 이를 역량(competency)으로 이해될 수 있다(성은모 외, 2015). 일반적으로 역량(competency)은 직업 교육 또는 기업 교육 분야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숙달하고자 하는 직무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는 개인의 직무 기술 및 지식 뿐 아니라 자질, 태도, 동기, 내면적 특징 등으로 이해된다(McClelland, 1993; Spencer & Spencer, 1993).

이러한 역량의 관점에서 청소년 역량을 개념화해 보면, 청소년 시기의 전반적인 삶의 현장에서 성공적인 수행을 이끌게 하는 개인의 내재적 특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성은모와 동료들(2013, pp.51-53; 2014; 2015, pp.125-126.)은 청소년 역량을 개념화하는데 있어 세 가지 기본방향과 관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역량지수는 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적 특성(Intrapersonal competency)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라 정의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 이는 청소년이 특정 시기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과 성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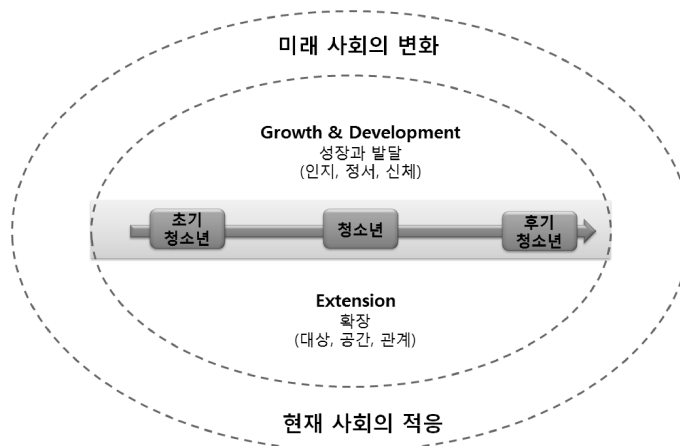
2) 선행문헌 분석은 성은모 부연구위원, 최홍일 전문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진성희 교수(인하대학교), 김균희(인하대학교)가 공동으로 집필하였으며, 청소년 역량지수의 개념 및 특성,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요인 및 측정문항의 구성을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에 진술하고, 청소년 역량관련 선행문헌 분석 내용(청소년 역량 수준에 대한 선행문헌 분석, 청소년 역량 정책에 대한 선행문헌 분석,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를 위한 ICCS의 개요)은 [부록]에 정리되어 자세히 제시되었음.

되어가는 전과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특성은 아동이 성인이 되어 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아동과 성인의 두 영역이 교차되며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갖추어야 할 역량 또한 성장 및 발달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시기별로 핵심적으로 신장시켜야 할 역량의 요소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를 아우를 수 있는 청소년 역량지수가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 역량지수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의 확장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지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청소년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초기 청소년 시기에는 개인과 가정에서의 사회적 관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기 청소년 시기에는 또래, 학교(또래, 교사)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게 되고, 후기 청소년 시기에는 조직, 사회, 국가, 세계수준으로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어 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의 확장에 따라 요구되는 청소년 역량지수가 개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은 아동시기에서 부터 성인으로 이행하는 전체적인 발달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사회, 즉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필요한 역량을 포함시켜야 한다. 청소년의 역량은 현재의 발달시기에 요구되는 역량과 미래사회와 성인기에 요구되는 역량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의 청소년이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에 적응하여 성인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예측하여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청소년 역량 개념에 대한 기본관점을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그림 [부록 1]-1]와 같다.



【그림 [부록 1]-1】 청소년 역량 개념 이해를 위한 기본관점 모형(성은모 외, 2015, p.126)

앞서 제시한 청소년 역량을 개념화하기 위한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적 특성을 포괄하여야 하고, 둘째,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확장에 따라 요구되는 특성을 포함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아동기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전체적인 생애발달과정을 포함하여 현재와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특성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성은모와 동료들(2013, p.53; 2015, p.121)은 청소년 역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청소년 역량이란 청소년이 현재와 미래(성인기)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핵심행동특성으로서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서 경험하고 충족시켜야 할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의미한다.(성은모 외, 2013, p.53; 성은모 외, 2015, p. 126.)”

2.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제 및 측정문항의 특징

1)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제의 특징³⁾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제는 성은모와 동료들(2013; 2104; 2015)이 수행되었던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연구(성은모 외 2013)’, 2014년 1차년도 연구과제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 ICCS 2016(성은모 외, 2014)’,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학술논문지로 게재한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성은모 외, 2015)’에서 도출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이들의 연구를 종합하여보면,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제는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그리고 사회참여역량으로 대분류되며, 생애학습역량은 사고력, 지적도구활용, 학습적응성 등으로, 생활관리역량은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등으로, 진로개발역량은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 등으로, 대인관계역량은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등으로, 사회참여역량⁴⁾은 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세계 시민성 등으로 중분류되어 도출되었으며, 하분류로 16개의 세부역량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도표화하여 제시하면 <표 [부록 1]-1>와 같다.

3) 이 부분은 성은모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제는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3, pp.55-61, pp.101), 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2014, pp.201-206),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5, p.135)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내용체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연구수행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종합정리하였음.

4) 사회참여역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동연구과제 보고서 김태준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I: IEA ICCS 2015-청소년 사회참여역량 분석 보고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음.

표 [부록1]-1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제(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2014, pp.198-199 재인용)

대분류	중분류	하분류
생애학습역량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지적도구활용	언어능력
		수학 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학습 적응성	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
생활관리역량	건강관리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신체관리
		위생관리
	과제관리	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
	상황대처	중독행동
		폭력행동
		중독인식
		폭력회피
	정서조절	감정인식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
진로개발역량	진로설계	자기탐색
		직업탐색
		직로준비
		진업가치관
	여가활용	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여가몰입
		여가만족
		(경험)
	개척정신	차별화태도
		도전정신

대분류	중분류	하분류
대인관계역량	관계형성	자기 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리더십	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협동	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 해결
사회참여역량	개인 시민성	권리 · 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정치 관심 및 정치적 자아 효능감
	공동체 시민성	공적실천
		사회적 신뢰
		적극적 의견개진
		교실 개방성
	세계 시민성	성 인지
		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가 및 역사인식
		국제관계이해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의 특징(성은모 외 2013; 2104; 2015)을 자세히 정리하며 다음과 같다.

생애학습역량(Life-long learning competency)은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① 사고력(Thinking)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현상을 객관적 또는 감성적으로 판단하여 의사결정 및 추론하는 능력

- 비판적 사고력: 사물과 현상을 바라볼 때 그것과 다른 부분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면서 사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타당성, 정확성, 신뢰성, 가치성을 평가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추론하는 사고 능력
- 감성적 사고력: 실리를 취하기보다는 가치있는 일을 선택하기 위해 감성에 기반하여 사고하는 능력

② 지적도구활용(Intellectual tools)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상호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개인이 세상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개인의 목적에 맞게 변화를 유도하고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로서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

- 언어능력(읽기, 쓰기, 말하기): 글과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 수학능력: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 수를 사용하여 정량적인 사고를 하는 능력
- 과학능력: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여 과학적 사고를 하는 능력
- 정보통신활용능력: 정보를 수집, 분석, 처리, 표현하기 위해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는 능력

③ 학습적응성(Learning agility)

지적호기심을 바탕으로 새롭게 접하는 상황이나 경험을 통해 신속하게 학습하는 능력

- 변화수용력: 외부의 자극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활용하는 능력
- 지적호기심: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
- 학습주도성: 자신의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계획, 실행, 성찰하는 능력

생활관리역량(Life management competency)은 자신이 삶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여 자신과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① 건강관리(Health)

자신의 건강 및 신체에 대한 기능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신체를 단련하고 관리하는 능력

-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능력: 안전수칙이나 규칙을 숙지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상황에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각종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
- 신체관리능력: 운동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단련하고 음식 및 생활습관을 조절함으로써 자신의 신체를 관리하는 능력
- 위생관리: 개인위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식사후 양치질이나 비누로 손씻기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능력

② 과제관리(Task management)

삶을 위해 행하여야 하는 모든 삶의 과제(학업, 일, 운동, 시간, 경제, 신체 등)에 대한 목표 설정, 실행계획, 실행 및 자기점검, 그리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 목표 및 계획 수립: 삶의 과제 단위별(학업, 일, 운동, 시간, 경제, 신체 등)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 수행 및 평가: 목표달성을 위해 과제 수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자기점검하고 평가하는 능력

③ 상황대처(Situation handle & management)

개인 또는 사회적 문제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 중독인식: 휴대폰, 인터넷 또는 컴퓨터 매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중독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제어하는 능력
- 중독행동: 휴대폰, 인터넷 또는 컴퓨터 매체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하여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함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동
- 폭력행동: 힘자랑이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남을 괴롭히며, 재미나 스트레스 해소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동
- 폭력회피: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 및 정신적 위협에 대해 대처방법을 모르고 이를 두려워하여 회피하려는 행동

④ 정서조절(Affective control and management)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외부의 반응에 대해 자신의 감정 에너지를 유용하고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조절하는 능력

- 감정인식: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상태에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상태를 인식하는 능력
- 분노행동: 기분이 상하거나 화가나면 욕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물건등을 집어던지는 등 화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표현하는 행동
- 감정절제: 슬프거나 힘들일을 당해도 잘이겨내며, 화나거나 기분이 상해도 지나친 표현이나 행동을 자제하는 능력
- 조절실패: 주변의 상황에 따라 쉽게 기분이 변하며, 자신의 변화된 기분에 따라 언어나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

진로개발역량(Career development competency)⁵⁾은 일생에 걸쳐 한 개인의 생애 역할, 경험, 관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독특성을 개발하고 인생의 경험의 폭을 넓혀가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역량을 의미한다.

① 진로설계(Career design)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미래 비전에 따른 흥미와 적성에 부합하는 진로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

- 자기탐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소질, 적성을 파악하고 자신이 처한 사회적 환경적 특징을 이해하는 능력
- 직업 탐색: 직업 정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대한 특징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능력
- 진로준비: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준비하는 능력
- 직업가치관: 직업의 보수나 물질적인 중요도 보다 자신이 하고싶은 일을 위해 도전함으로써 얻는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

② 여가활용(Leisure use)

진정한 의미의 여가를 즐기고 여가경험을 통해 최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

- 여가태도: 자신의 요구와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여가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
- 여가유능감: 여가활동에 있어 능숙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 여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는 능력
- 여가 몰입: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흥미를 느끼고 몰입하는 능력
- 여가 만족: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활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활동을 통해 만족을 느끼는 능력

5) 진로개발역량지수의 구성체제는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3, pp.55-61, pp.101), 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2014, pp.201-206),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5, p.135)의 연구뿐만 아니라 진성희, 성은모, 최창욱 (2015)에서 제시되었던 내용체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연구수행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종합정리하였음.

③ 개척정신(Pioneer spirit)

예측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인식하여 새로운 가능성으로 인지하며, 이를 관리, 조직, 개발시키려는 태도와 능력(김경훈 외, 2012)

- 차별화 태도: 사물이나 현상을 다르게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독창적이고 차별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려는 사고방식
- 도전정신: 불확실성을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에 도전하는 실천적 능력

대인관계역량(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y)은 개인 또는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타인들과 개방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주도적으로 협력하여 의사소통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① 관계형성(Relationship building)

타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로 협동하며, 가족, 교우, 사회를 신뢰하여 개방적인 태도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량

- 자기개방성: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에게 자신의 비밀문제를 이야기하며 상의하는 성향
- 친화성: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정당하게 대우해준다고 생각하는 성향
- 의사소통: 타인의 감정이나 의도를 정확하게 경청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역량
- 공감 및 배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포함한 세계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의 관점과 역할을 수용하는 능력

② 리더십(Leadership)

개인인 삶에 대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의 맥락적 상황을 파악하여, 효과적, 효율적으로 일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가치로운 의사결정을 하여 추진하는 역량

- 의사결정: 근본적인 가치 및 그와 관련된 요소들을 이해함으로써 집단에서 적절한 의사결정 내리는 역량
- 집단활동 관리: 집단 관련 업무 전반을 파악하여 구성원들간 협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량
- 추진력: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역량

③ 협동(team work)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집단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집단 구성원이 원활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단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 집단 촉진: 구성원을 격려하고 권한을 부여해주며 자신감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량
- 팔로워십: 리더와 함께 집단의 비전과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으로서 집단 내에서 실질적인 역할 수행하고 리더와 집단의 성공을 좌우하는 리더의 파트너이자 집단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
- 갈등 문제 해결: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집단 협동 진행에 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여 집단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사회참여역량(Social participation competency)⁶⁾은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적 선을 위하여 타인과 협력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① 개인 시민성(Personal citizenship)

시민의 일원으로서 사회참여의 기초가 되는 민주적 가치, 신념을 갖추기 위한 역량

- 권리·책임 의식: 권리 및 책임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범주를 설정하고 사회적 규범과 도덕적 책임을 지키려는 능력
-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사회적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을 하려는 능력
- 정치적 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 또는 설명할 수 있는 능력

6) 사회참여역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동연구과제 보고서 김태준 (201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 IEA ICCS 2015-청소년 사회참여역량 분석 보고서’ 와 김태준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I: IEA ICCS 2015-청소년 사회참여역량 분석 보고서’ 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해당 연구의 기본개념적 틀은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3, pp.55-61, pp.101)와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5, p.135)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을 근간으로 정리 되었음

② 공동체 시민성(Community citizenship)

사회통합을 지향하며 민주적 원리를 존중하며 가정, 학교,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봉사하는데 갖춰야 할 역량

- 공적실천: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하여 인권보호 및 증진, 환경보호 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공동체발전을 실천하려는 태도
- 사회적 신뢰: 지역사회를 구성하고는 있는 공적기관(정부, 국회, 정당, 법원, 경찰, 군대, 학교, 미디어) 등에 대한 신뢰의 정도
- 적극적 정치참여: 현재 또는 성인이 된 후에 사회적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표 등 정치 참여 행동을 통해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 또는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는 태도
- 교실 개방성: 수업시간에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선생님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와 능력

③ 세계 시민성(Global citizenship)

인류 번영을 위해 세계시민으로서 협력하고 국제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갖춰야할 역량

- 이민자에 대한 태도: 우리 민족이 아닌 외국인(빈곤국가)이나 소수민족(고려인, 조선족 등)이 우리나라로 이민해 오는 것에 대한 허용 태도와 국내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투표권 등에 사회참여에 대한 허용 태도
- 국가 및 역사의식: 국가의 역사와 정치, 경제 등의 사회제도에 대해 일체감을 가지고 집단 가치에 대해 받아 드릴 수 있는 의식 및 태도
- 국제관계 이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자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협력하는 능력
- 성인지: 국제사회에 있어 남녀의 특성을 인지하고 성역할을 구분하는 능력

2) 청소년 역량지수의 측정문항⁷⁾

청소년 역량지수의 측정문항은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의 개념적 특성을 반영하여 생애학습 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 등 5개 역량군을 중심으로 하위역량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 그리고 이러한 구조체제에 대한 적합도등을 체계적인 통계검증 절차를 통해 개발되었다(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2014).

생애학습역량의 하위구성요소로는 사고력, 지적도구활용, 학습적응성이 포함되었으며, 사고력(9문항)은 비판적 사고력(6문항)과 감성적 사고력(3문항)의 두 가지 요인으로, 지적도구활용(21문항)은 언어능력(5문항), 수학능력(5문항), 과학능력(7문항), 정보통신활용능력(4문항)의 네 가지 요인으로, 학습적응성(7문항)은 변화수용력(2문항), 지적호기심(2문항), 학습주도성(3문항)의 세 가지 요인으로 총 3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생활관리역량의 하위구성요소로는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이 포함되었으며, 건강관리(11문항)는 위생관리(3문항), 신체관리(2문항), 안전 및 스트레스관리(6문항)의 세 가지 요인으로, 과제관리(12문항)는 목표 및 계획수립(9문항)과 수행 및 평가(4문항)의 두 가지 요인으로, 상황대처(16문항)는 중독인식(3문항), 중독행동(7문항), 폭력행동(3문항), 폭력회피(3문항)의 네 가지 요인으로, 마지막으로 정서조절(9문항)은 분노행동(2문항), 감정절제(2문항), 조절실패(3문항), 감정인식(2문항)의 네 가지 요인으로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진로개발역량의 하위구성요소로는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이 포함되었으며, 진로설계(15문항)는 자기탐색(4문항), 직업탐색(4문항), 직업가치관(3문항), 진로준비(4문항)의 네 가지 요인으로, 여가활용(17문항)은 여가태도(6문항), 여가유능감(4문항), 여가만족(3문항), 여가몰입(4문항)의 네 가지 요인으로, 개척정신(8문항)은 차별화태도(5문항)와 도전정신(3문항)의 두 가지 요인으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대인관계역량의 하위구성요소로는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이 포함되었으며, 관계형성(18문항)은 자기개방성(4문항), 친화성(4문항), 의사소통(6문항), 공감 및 배려(4문항)의 네 가지 요인으로, 리더십(14문항)은 의사결정(4문항), 집단활동관리(4문항), 추진력(6문항)의 세 가지 요인으로, 협동(14문항)은 집단촉진(6문항), 팔로워십(3문항), 갈등문제해결(5문항)의 세 가지 요인으로

7) 이 부분은 성은모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청소년 역량지수의 측정문항은 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2014, pp.197-199)가 수행하였던 1차년도 과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 ICCS 2016’의 보고서에 수록되었던 측정문항을 그대로 활용되어 기술되었음.

총 4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참여역량의 하위구성요소로는 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세계 시민성이 포함되었으며, 개인 시민성(14문항)은 권리·책임의식(4문항), 민주적 절차 및 의식(2문항), 정치적 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8문항)의 세 가지 요인으로, 공동체 시민성(33문항)은 공적실천(14문항), 사회적 신뢰(9문항), 적극적 의견개진(5문항), 교실개방성(5문항)의 네 가지 요인으로, 세계 시민성(16문항)은 성 인지(3문항), 이민자에 대한 태도(5문항), 국가 및 역사 의식(4문항), 국제 관계 이해(4문항)의 네 가지 요인으로 총 6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통계 특성에 다른 배경정보 내용은 생년, 지역, 가족구성, 부모(보호자) 학력, 취업여부, 생활만족도, 학업성취도 수준, 경제적수준 등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설문문항은 최종 24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영역별 문항수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부록 1]-2>와 같으며, 각 세부 설문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부록 1]-2>에 제시되었다.

표 [부록1]-2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에 따른 측정문항 구성

역량군	하위역량	조사영역	문항수
생애학습역량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6
		감성적 사고력	3
	지적도구활용	언어능력	5
		수학 능력	5
		과학능력	7
		정보통신활용능력	4
	학습 적응성	변화수용력	2
		지적호기심	2
		학습주도성	3
합계			37
생활관리역량	건강관리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6
		신체관리	2
		위생관리	3
	과제관리	목표 및 계획수립	8
		수행 및 평가	4
	상황대처	중독행동	7
		폭력행동	3
		중독인식	3
		폭력회피	3
	정서조절	감정인식	2
		분노행동	2
		감정절제	2
		조절실패	3
합계			48

역량군	하위역량	조사영역	문항수
진로개발역량	진로설계	자기탐색	4
		직업탐색	4
		직로준비	4
		진업가치관	3
	여가활용	여가태도	6
		여가유능감	4
		여가몰입	4
		여가만족	2
		(경험)	1
	개척정신	차별화태도	5
도전정신		3	
합계			40
대인관계역량	관계형성	자기 개방성	4
		친화성	4
		의사소통	6
		공감 및 배려	4
	리더십	의사결정	4
		집단활동관리	4
		추진력	6
	협동	집단촉진	6
		팔로워십	3
		갈등문제 해결	5
합계			46
사회참여역량	개인 시민성	권리 · 책임의식	4
		민주적 절차 및 의식	2
		정치 관심 및 정치적 자아 효능감	8
	공동체 시민성	공적실천	14
		사회적 신뢰	9
		적극적 의견개진	5
		교실 개방성	5
	세계 시민성	성 인지	3
		이민자에 대한 태도	5
		국가 및 역사의식	4
국제관계이해		4	
합계			63
합계			234

3. 청소년 역량 측정수준에 대한 선행문헌 분석

1) 초기·중기 청소년의 역량지수 측정 수준관련 선행문헌 분석

청소년의 초기·중기의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으로 개념화하여 청소년의 역량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거나 각 개념을 통칭하여 사용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연구들이 각 하위지표를 중심으로 세밀하게 이루어졌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2014년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에서 청소년역량 지수를 개발하기 위해 조사한 문항들의 기초통계분석 보고서를 근거로, 청소년 초기 및 중기 청소년의 역량 수준을 제시하고, 각 역량의 하위지표와 관련된 연구들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1)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 수준관련 선행문헌 분석

초기·중기 청소년의 사고력과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사고력은 고차원적인 능력으로 향후 의사결정을 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므로 사고력을 증진을 시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았다(김성희, 장윤옥, 2007). 또한 김기현 외(2010)의 연구에서도 “사고력은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하며 다른 역량들에 기본이 되는 역량”이라고 밝혀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청소년기의 사고력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청소년 발달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김기현 외(2010)의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력 문항을 개발하고,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력 수준을 조사하였으며, 비판적 사고력을 진실추구성, 개방성, 탐구성, 객관성, 체계성, 자기신뢰성 총 6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와의 차이점은 감성적 사고력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연구의 한계가 있다.

김기현 외(2010)가 비판적 사고력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판적 사고력은 성별과 학교급, 부모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학업성취도, 학교생활만족도, 학교적응력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자 청소년의 경우, 여자 청소년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력인 체계성이 높았으며,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보다 ‘어떤 문제에 대해 다양하게 생각해보거나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능력’인 개방성과 ‘어떠한 내용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받아들이려는 성향’인 객관성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라 일반계 고등학생, 중학생, 전문계 고등학생 순으로 사고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교의 경우 계열에 따라서도 사고력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력에 한해 한정된 결과만 살펴보았지만, 중기 청소년의 사고력 수준이 성별, 학교급, 부모의 학력에 따라 달라지면, 학업성취도, 학교생활만족도, 학교적응력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지적도구활용 능력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지적도구활용 능력은 타국가 청소년들에 비해 우수하다는 것은 국제 학업 성취 비교 조사를 통해 여러 차례 증명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만 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이하 PISA)를 3년 단위로 실시하고 하고 있는데, PISA 2012년 조사에는 OECD 65개국, 비회원국 31개국이 참여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156개교에서 5,201명이 참여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12.3 보도자료). 그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수학, 읽기, 과학 영역에서 최상위 수준을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OECD 34개국 중에서는 수학 1위, 읽기 1~2위, 과학 2~4위를 차지했고, OECD 회원국을 포함한 전체 65개국 중에서는 수학 3~5위, 읽기 3~5위, 과학 5~8위를 차지하여 수학, 읽기, 과학능력에서 최상위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12.3 보도자료). 한편,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Computer Based Assessment in Mathematics; CBAM)와 디지털 읽기 평가(Digital Reading Assessment; DRA)에서도 최상위 수준을 보였는데, 우리나라는 전체 32개 참여국 중에서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는 3위, 디지털 읽기는 2위를 차지했으며,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각 영역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였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12.3 보도자료). 한편 우리나라 중기 청소년이 수학 및 읽기 활용 능력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능력도 상당함으로 시사한다.

표 [부록1]-3 PISA 2000-2012 결과

구분		PISA 2000 (41개국)	PISA 2003 (40개국)	PISA 2006 (57개국)	PISA 2009 (75개국)	PISA 2012 (65개국)
수학	평균	547	542	547	546	554
	순위	OECD	2	1-2	1-2	1
		전체	3	1-4	3-6	3-5
읽기	평균	525	534	556	539	536
	순위	OECD	2	1	1-2	1-2
		전체	7	1	2-4	3-5
과학	평균	552	538	522	538	538
	순위	OECD	1	5-9	2-4	2-4
		전체	1	7-13	4-7	5-8

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3.12.3 보도자료). OECD 국가 중 수학 1위, 읽기 1~2위, 과학 2~4위에서 발췌함.

한편, ‘지적호기심을 바탕으로 새롭게 접하는 상황이나 경험을 통해 신속하게 학습하는 능력’인 학습적응성 역량은 기본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과 학업에 대한 흥미를 전제로 한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미래교육의 핵심역량으로도 평가되는데, “교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유능한 학습자가 되어 자신의 학업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김아영, 2014). 우리나라의 청소년이 지적활용능력이 뛰어나지만, 과연 자기주도적 학습의 역량을 갖추고 있을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다. 청소년의 자기주도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부족하지만, 자기도적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업에 대한 흥미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PISA 결과에서 학업에 대한 흥미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PISA 2012의 결과에 따르면, 수학에 대하여 학생의 흥미도는 조사에 참여한 42개국 중 33위로 낮은 수준이었다. 수학에 관련된 것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9%(OECD 평균 31%), 수학 수업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응답한 비율은 22%(OECD 평균 31%), 나는 수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대라고 응답한 비율은 31%(OECD 평균 38%), 수학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하여 흥미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4%(OECD 평균 53%)로 나타났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12.3 보도자료). 비록 수학에 한정한 결과이기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학업에 대한 흥미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이다.

성은모 외(2014)의 결과에서는 우리나라 초기 및 중기 청소년들이 생애학습역량 중 사고력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적도구활용 역량, 학습적응성 역량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와 앞선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건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실제 지적도구 역량은 뛰어나지만, 과도한 경쟁 및 학업에 대한 높은 스트레스, 주입식 교육환경으로 인해 실제로 학업적응성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2) 청소년의 생활관리역량지수 측정 수준관련 선행문헌 분석

생활관리역량은 ‘자신이 삶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여 자신과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되는데, 특히 생활관리역량은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 및 지역사회 환경 등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요인으로 평가된다(성은모 외, 2014).

본 연구에서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는 주로 신체적 건강관리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적 활동 수준은 어떠한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하루 6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⁸⁾은 남학생은 15~19% 정도, 여학생은 5~8% 수준으로 나타나, 남학생 10명 중 8명, 여학생 10명 중 9명이 신체 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증가할수록 신체활동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4). 교육부에서는 학교 체육활성화를 위해 체육전담 교사를 두고 체육수업을 늘리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청소년의 신체활동률을 증가시키기에는 역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교육부 학교건강정보센터 블로그).

또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식습관 행태가 상대적으로 건강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4). 예컨대, 주 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 학생 비율은 2014년 28.5%로 10명 중 3명은 아침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3회 이상 채소를 섭취하는 비율과 1일 2회 이상 우유를 섭취하는 비율은 15.6%, 11.0%로 낮았다. 탄산음료 및 패스트푸드를 섭취하는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학생들의 2-3명을 일주일에 3회 이상 여전히 탄산음료 및 패스트푸드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을 볼 때, 청소년들의 건강관리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표 [부록]-4 2009~2014년 중고등학생 하루 6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		10.9	10.0	10.8	12.0	12.6	13.8
남학생	전체	15.7	14.5	15.8	17.3	17.8	19.2
	중1	17.8	16.8	19.2	19.8	21.2	22.2
	중2	18.2	16.8	17.8	21.3	22.0	22.9
	중3	17.9	16.9	17.7	20.0	22.5	21.7
	고1	14.9	13.6	14.7	15.8	14.0	15.5
	고2	14.6	12.6	13.8	14.2	14.6	18.0
	고3	10.4	10.2	11.6	13.2	13.0	15.2
여학생	전체	5.4	4.9	5.2	6.1	6.9	8.0
	중1	6.4	5.4	6.4	7.8	8.1	10.3
	중2	6.6	5.3	5.6	7.2	8.2	8.7
	중3	6.4	5.7	5.3	6.6	8.6	10.0
	고1	4.3	4.7	4.8	4.5	5.0	5.8
	고2	4.9	4.1	4.3	5.8	6.1	7.4
	고3	4.0	3.9	5.0	4.8	5.4	6.0

출처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제10차(2014)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8) 하루60분 주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최근 7일 동안 운동종류 상관없이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을 하루에 총합이 60분 이상 한 날이 5일 이상인 사람의 분율을 의미함.

표 [부록]-5 식습관행태 추이(2005~2014)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주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	전체	27.1	26.7	27.2	25.8	27.1	25.6	24.4	24.8	26.4	28.5
	남학생	26.4	25.8	26.2	25.1	28.2	25.5	25.3	24.9	26.7	28.2
	여학생	28.0	27.7	28.3	26.7	25.9	25.6	23.4	24.6	26.2	28.9
1일 3회 이상 채소 섭취율		16.9	16.5	16.5	19.8	17.9	17.9	17.9	17.1	16.6	15.6
1일 2회 이상 우유 섭취율		13.4	15.2	14.8	15.5	14.1	13.7	12.5	13.0	12.8	11.0
주3회 이상 탄산음료 섭취율		52.9	52.2	49.4	42.9	24.0	24.3	23.2	24.3	25.5	26.0
주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		30.5	30.0	29.3	21.6	12.1	12.0	11.6	11.5	13.1	15.6

※ 조사대상자: '05년 중1~고2, '06년 이후 중1~고3

※ 주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 최근 7일 동안 아침식사를 5일 이상 먹지 않은 사람의 비율

※ 1일 3회 이상 채소 섭취율: 최근 7일 동안 1일 3회 이상 채소(반찬·김치 제외)를 먹은 사람의 비율

※ 1일 2회 이상 우유 섭취율: 최근 7일 동안 1일 2회 이상 우유(흰우유, 색깔우유 모두 포함)를 마신 사람의 비율

※ 주3회 이상 탄산음료 섭취율: 최근 7일 동안 3회 이상 탄산음료를 마신 사람의 비율

※ 주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 최근 7일 동안 3회 이상 피자, 햄버거, 치킨 같은 패스트푸드를 먹은 사람의 비율

출처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제10차(2014)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한편,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다보니, 청소년들의 유해매체 이용 형태도 변화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및 인터넷 중독 위험 정도도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에서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유해매체 이용 경험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2014년 청소년들의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유해매체는 '휴대폰성인물'이 52.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케이블 TV의 성인용 프로그램(42.7%)', '성인용 간행물(34.1%)', (52.6%)', '케이블TV의 성인용 프로그램(42.7%)', '성인용 간행물(34.1%)', '성인용 게임(33.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대폰 성인물 및 케이블 TV의 성인용 프로그램에 대한 노출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이 자유로워진 것과 케이블 TV 채널이 증가하고 다양화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학령전환기에 있는 초4, 중1, 고1 청소년 170만 여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전수진단을 실시하였는데, 2013년 인터넷 중독 위험군 10만 5천여 명 중 위험사용군은 11,240명, 주의사용군은 93,91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 중 6.2% 정도에 달하는 비율이다. 2012년과 비교했을 때 위험사용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의 사용군은 증가하였고 학년별로는 초등학교보다 중·고등학교의 인터넷 중독 위험 비율이 높았다.

표 [부록]-6 청소년(중·고등학생) 유해매체 이용 경험률(복수응답)

구 분	성인 용간 행물	성인용영상물				컴퓨터 성인물 ²⁾	휴대폰 성인물 ³⁾	온라인 사행성 게임	성인 용 게임	이성 만남 전화 번호
		비디오 · DVD · CD	지상파TV 성인용 프로그램	케이블T V성인용 프로그램	영화관 ¹⁾					
2010	38.3	27.8	29.4	14.8	—	38.3	7.5	46.1	49.5	1.4
2011	41.1	32.0	25.3	14.8	—	37.3	12.3	41.2	47.4	1.5
2012	40.0	27.5	23.5	26.9	—	45.5	20.5	21.5	32.3	1.8
2014	34.1	3.4	22.8	42.7	5.2	26.0	52.6	13.0	33.1	1.8
중 학 생	26.4	3.3	22.7	41.8	5.0	24.6	50.1	8.7	29.9	1.3
고등학생	40.2	3.4	22.8	43.3	5.3	27.1	54.5	16.3	35.5	2.1

* 출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각년도

* 주 : 1) 2014년 신규 조사항목

: 2) 컴퓨터를 통해 성인용 간행물이나 영상물을 본 경우를 합산하여 산출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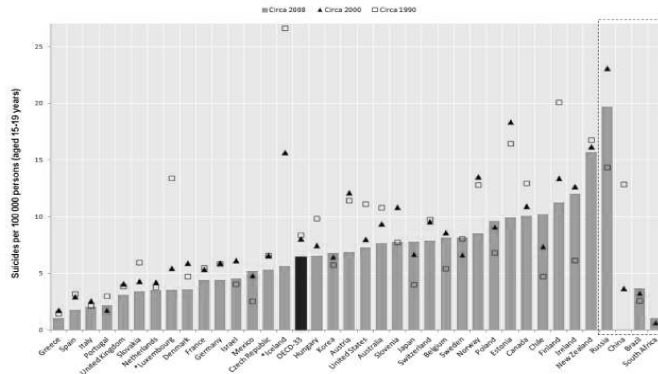
: 3) 휴대폰을 통해 성인용 간행물이나 영상물을 본 경우를 합산하여 산출한 값임

표 [부록]-7 인터넷 이용습관 전수진단 결과(2012~2013)

구분	초등 4년			중등 1년			고등 1년			총 계		
	위험 사용군	주의 사용군	소계	위험 사용군	주의 사용군	소계	위험 사용군	주의 사용군	소계	위험 사용군	주의 사용군	소계
2012	6,441	12,733	19,174	5,996	18,783	24,779	4,277	19,814	24,091	16,714	51,330	68,044
2013	2,588	16,017	18,605	5,130	38,216	43,346	3,522	39,679	43,201	11,240	93,912	105,152

출처 : 여성가족부(2013.7.3. 보도자료), 2013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전수진단 결과 및 사후조치계획 발표

우리나라 15~19세 청소년의 자살율은 OECD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OECD, 2011). 기존에 알려진 바대로 청소년의 자살율이 세계 최고 수준은 아니나, OECD 평균보다 높다는 것만으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14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3~19세 초기 및 중기 청소년들 중 58.7%가 전반적인 생활에 스트레스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가정생활, 학교생활에 스트레스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35.0%, 51.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생활이 길고, 학업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학교생활로부터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결과에 따르면, 우울감을 느끼는 청소년들의 비율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전체의 26.7% 정도는 우울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중기 청소년들 중 23명 정도는 우울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부록]-2] OECD국가 15~19세 청소년 자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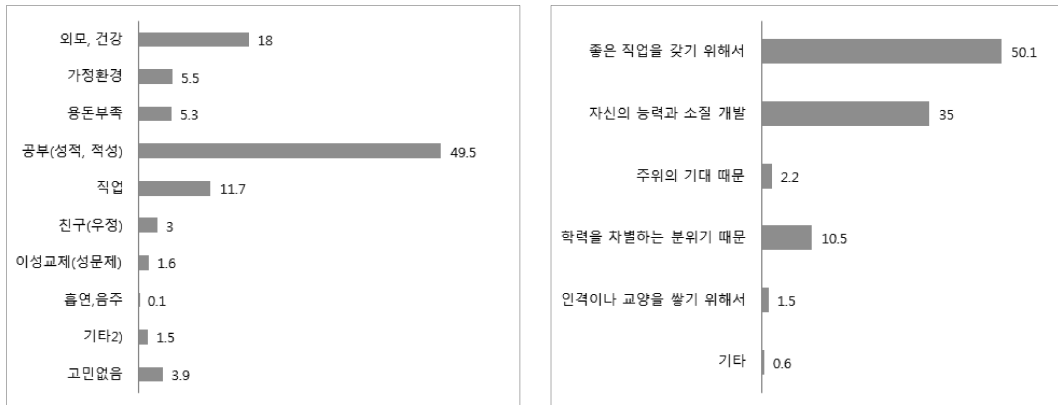
출처 : OECD(2011). Teenage suicide (15-19 years old).

<http://www.oecd.org/els/family/48968307.pdf>에서 2015년 11월 11일 인출.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대처 능력 등으로 여러 조사결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종합해보건대,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및 건강관리 수준이 낮고,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더 심각한 것은 유해상황으로부터의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성은모 외(2014)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는데, 청소년들은 건강관리 보다 상황대처, 정서조절 역량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독 및 폭력행동 등과 관련한 대처 역량이 낮다고 인식했으며, 감정을 절제 및 통제하는 역량이 낮다고 인식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가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증가시켜야 하며, 청소년들의 정서조절 역량 또한 함께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지수 측정 수준관련 선행문헌 분석

2014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3세~19세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문제로 가장 많이 지정한 것은 공부(성적, 적성)(49.5%)였으며, 그 다음으로 외모·건강(18.0%), 직업(11.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의 기대하는 교육 목적에 대한 응답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가 50.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자신의 능력과 소질 개발(35.0%)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4).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학업에 대한 고민이 많고, 학업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이 많은데, 이것이 단순히 향후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한 목적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부록I]-3】 만 13~19세 청소년의 고민 및 학생의 기대하는 교육 목적

출처 : 통계청(2014). 사회조사.

그렇다면 한국 청소년들의 진로태도 성숙도는 어떻게 발달할까? 각 연구기관들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 자료가 수집되면서, 청소년들의 진로태도 성숙도의 발달 궤적과 이러한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최수미(2009)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자료를 이용하여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시기까지의 진로 태도 성숙도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4년 동안 청소년들의 진로태도 성숙도가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학년이 증가할수록 적절히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역량이 증가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최수미(2009)는 진로태도 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지적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이 진로태도 성숙도의 초기치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김정식과 이현철(2012)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과 한국청소년패널(KYPS)의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두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인 것으로 밝혀졌다. 요컨대,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를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은 청소년들의 자기존중감과 진로교육의 참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근영 외(2013)의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약 60~70% 정도가 ‘우리 학교에서는 전문적인 직업교육과정을 제공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여러 기관 및 학교를 통해 교육받는 진로 교육이 도움이 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 정도로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아(여성가족부, 2014) 진로 교육의 질적 수준 자체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통계청 생활시간조사(2014)의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은 초등학생이 4시간 38분, 중학생이 4시간 8분, 고등학생이 3시간 40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전체의 평균 여가시간이 4시간 13분인 것에 비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즉, 여가활용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부족한데 이는 청소년의 여가활용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실제 여가활동과 선호하는 여가활동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청소년들의 대부분(78.1%)이 여가시간에 취미, 오락, 휴식 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비율은 10.3%, 스포츠 활동을 하는 비율은 9.8%인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0). 그러나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에 하고 싶어하는 활동으로는 관광활동이 36.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취미, 오락, 휴식 등의 활동(28.7%), 문화예술활동(20.5%), 스포츠 활동(14.3%)인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0). 요컨대, 청소년들의 여가활용을 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 부족으로 인하여 실제로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활동과 실제 활동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은모 외(2014)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진로개발역량 중 개척정신이 가장 낮고, 진로설계 및 여가활용 능력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진로개발을 할 수 있는 실제적 여건조성이 부족한 데에 비해 청소년들은 진로설계 역량이나 여가활용 역량은 다소 높게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에 비해 스스로의 개척정신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서 도전해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표 [부록]-8 청소년의 생활시간(2014)

구분	전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개인유지	11:15	12:05	11:19	10:35
일	5:17	0:49	1:14	4:59
학습	6:49	5:50	7:12	8:26
가정관리	0:50	0:36	0:39	0:44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0:56	0:46	0:41	0:36
참여 및 봉사활동	2:35	1:08	2:10	2:08
교제 및 여가활동	4:13	4:38	4:08	3:40
이동	1:43	1:24	1:21	1:33
기타	0:21	0:19	0:20	0:21

출처 : 통계청(2014). 생활시간조사.

(4) 청소년의 대인관계역량지수 측정 수준관련 선행문헌 분석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역량은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를 결정할 수 있는 주요한 역량으로, 특히 주위 사람들 즉 부모와 또래와의 관계가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로 나타났다(최유선, 손은령, 2015).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관계형성역량은 타국가 청소년의 비해 다소 부족해 보인다. 김태준과 이영민(2010)은 관계형성 영역 중 ‘주변사람들과의 접촉과 양’에 대해 한국 청소년과 타국가 청소년들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 청소년들은 주변사람들과의 접촉과 양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김태준과 이영민(2010)은 인간관계보다 학업을 중요시하는 풍토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청소년들이 주변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에 따라 이들의 삶의 만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관계형성 역량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부록]-9 한국 청소년과 타국가 청소년의 관계형성역량 비교

구분	평균
한국	45.9
유럽	48.6
라틴 아메리카	53.1
아시아	50.5

출처 : 김태준, 이영민(2010).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Ⅲ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편, 성은모 외(2014)의 연구에 따르면, 초기 및 중기 청소년의 대인관계역량 중 리더십역량이 관계형성과 협동역량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삼근, 김기연, 김민정(2008)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리더십 역량은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준비하기 위한 주요한 요소이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과중한 학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리더십을 배양할 수 있는 경험의 기회가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리더십 교육의 필요성은 동의했으나 학교교육이 자신의 리더십 역량을 증가시키기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박삼근 외, 2008).

청소년들의 리더십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참가함으로써 함양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창욱과 신윤희(201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 관련 시설 이용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 경제 및 직업체험활동, 봉사활동, 자치·참여활동, 동아리활동, 교류활동 등의 활동경험이 많은 청소년들이 리더십 역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최창욱의 참여하는 동아리 수가 많고,

적극적으로 동아리에 참여하는 청소년 집단이 리더십 역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창욱, 김정주, 송병국, 2005). 요컨대, 청소년들의 부족한 리더십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협동 역량과 관련된 연구는 다른 역량에 비해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 최근 청소년의 협동과 관련된 몇몇 연구들에 따르면, 학습적인 측면에서 청소년의 협동 역량이 강조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협동학습이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향숙, 조인희, 2014; 안도희, 김유리, 2015). 김향숙과 조인희(2014)는 협동학습을 “소집단의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하면서 주어진 학습과제나 학습목표에 도달하는 수업의 한 방법”이라고 정의하며, “협동학습을 통한 토론수업은 포대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중·고등학생의 심리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방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도희와 김유리(2015)의 연구에서는 협동학습이 삶의 만족감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컨대, 과중한 학업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역량은 타국가 청소년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역량은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등 대인관계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 속에서 주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기회와 협력할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성이 있다.

(5)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지수 측정 수준관련 선행문헌 분석

사회참여역량 즉,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적 선을 위하여 타인과 협력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역량(성은모 외, 2014)’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타국가 청소년들에 비해 사회참여역량이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컨대, 김태준과 이영민(2010)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과 타국가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역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시민에 대한 권리 의식, 합법적 항의에 참여, 종교의 영향에 대한 태도, 학교에서 시민활동 참여, 이민자 권리에 대한 태도 영역에서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지역의 청소년들 평균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표 [부록]-10 한국 청소년과 타국가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비교

구분	한국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시민에 대한 권리	43.1	49.3	48.6	51.3
학교 밖 정치사회이슈에 대한 관심	50.2	49.4	50.4	52.3
합법적 항의에 참여	45.1	48.0	52.6	48.6
종교의 영향에 대한 태도	42.3	47.7	52.5	51.4
학교에서 시민활동 참여	45.4	49.0	51.3	49.1
이민자권리에 대한 태도	49.2	49.3	53.2	50.3

출처 : 김태준, 이영민(2010).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Ⅲ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규칙 제·개정과정에서의 청소년참여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 김민선(2015)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욕구가 실제 참여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들의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로는 기성세대의 인식과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족, 청소년의 인권과 참여에 대한 교육 부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선, 2015). 또한, 최윤진(201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신이 속한 공동체적 삶에서 적절한 역할과 지위를 행사하며, 비판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적극적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학습자 중심의 개방적이고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비형식적 교육이 비중이 증가할 필요성과 형식적 교육과 비형식적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요약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시민참여역량 수준은 타국가 청소년들의 비해 상당히 낮으며, 이는 청소년들이 민주시민, 공동체적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이 다소 부족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욕구는 높으나 실제로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사회참여역량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적절한 교육방식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성세대의 인식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 청소년들의 시민참여역량 수준을 증대시키기 위해 부모, 교사, 청소년관련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시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는 노력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 청소년관련시설 등 각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후기 청소년의 역량지수 관련 선행문헌 분석

후기 청소년에 대한 관심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 연령의 젊은이들이 갖는 교육, 취업, 결혼 등과 관련한 성인기 이행에 따른 모습들이 과거의 일반적인 양상이나 방식과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80%를 넘는 대학진학률, 고학력화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의 지체, 청년실업의 장기화, 평균혼인 연령이 남녀모두 30세를 전후한 결혼과 출산의 지연 등의 현상이 국가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안선영 외, 2011).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는 취업 위주의 대학교육, 스펙쌓기 열풍, 글로벌 시대, 정보화시대의 무한경쟁 분위기, 등록금과 거주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한 아르바이트의 일반화와 휴학율의 증대 등의 현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조혜영 외, 2011). 또 다른 관심 배경에는 청소년들의 권리주장, 신자유주의적 지배구조 속에서 교육제도의 억압을 경험하는 10대들의 봉기, 다른 세대와 구별되는 새로운 청소년세대로서의 의미 등으로 구별하면서 참여지향적, 탈물질적 가치관 등을 우선시하는 세대론과 참여론의 논의와 관련된다(오찬호 2010).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역량개발(competence development)들이 강조되고 있다(천정웅 2011).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에서 후기청소년의 80%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는 특성상 후기 청소년의 핵심역량에 대한 주요 이슈는 대학맥락에서 많은 연구와 정책이 이루어져 오고 있는 듯 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과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지원사업(ACE 사업)과 같은 교육정책은 대학생의 핵심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이애화, 최명숙, 2014).

대학생의 핵심역량은 복합성(hybrid), 복잡성(fussiness)과 중의성(ambiguity) 등의 특성을 갖는 개념으로써 학자들마다 상이한 관점과 접근을 보이고 있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대학생의 핵심역량을 '탁월한 학습이나 개인 성공과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특성이나 능력'으로 개념화 하고 있다(Delamare-Le Deist & Winterton, 2005; Lichtenberg et al, 2007).

표 [부록]-11 국내·외 연구자별 대학생 핵심역량의 개념적 특성

연구자명	설명
김영희, 최보영(2013)	학습자가 보유하고 있는 차별화되고 독특한 능력이라기보다 교육 또는 훈련을 통해 누구나 길러야 할 기본적인 보편적이며, 공통적인 능력이다.
김혜영, 이수정(2013)	대학생활 및 조직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능력이다.
진미석(2013)	대학교육을 통해 길러지는 지식, 태도, 기술 등을 통괄하는 역량이다.
정영근(2013)	구직이나 직무를 서술할 때 예상되는 능력이나 기량과 연결할 수 있다.
이숙정, 박소연, 유지현(2013)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자기주도성 등 대학생활에서 요구되는 역량과 동시에 국제감각, 전문지식, 직무 및 직업소양 등 예비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역량이 강조되고 있다.
Adams(2013)	문제해결력, 책임감, 리더십, 창의력 등의 비인지적 스킬로 구성되는 소프트 접근과 관련 영역의 기본 및 전공 지식과 경험과 기술 등을 포함한 하드 접근이 있다.
백유미, 가신현(2012)	대학생들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인간의 다양한 내적 기저를 종합하여 설명하는 틀로 사용될 수 있다.
진미석, 손유미, 주휘정(2011)	어떤 유형의 학습자에게 특정한 과제의 수행을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의 최적의 조합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떤 역량을 추출하고 진단할 것인가가 주요 사안이 된다.
허영주(2011)	일반적으로 학습과제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행관련 능력이다.
주인중 외(2010)	일을 수행하는 곳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개인의 특성적 능력이라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조직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높이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지식, 스킬, 자기개념 등의 조합'이라고 정의한다.
Shavelson(2010)	신체적 또는 지적 능력과 스킬, 알고 행하는 수행능력, 표준화된 조건하에 수행되어지는 것, 수행 표준에 의해 판단되는 것, 개선·개발가능성, 심층적인 복잡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 실제생활에서 관찰될 수 있는 것 등을 포괄한다.
Ananiadou & Claro(2009)	지식과 스킬 이상이며 복잡한 요구들을 충족하는 능력과 관련되며, 구체적인 맥락에서 적절하게 학습결과들을 응용하는 능력이다.
Boyatzis (2008, 2009)	어떤 개인이 어떤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특성으로서 인지적, 감성적, 사회적 양상들이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역량은 하이브리드(hybrid) 특성을 지닌 개념이다.
Koeppen et al (2008)	맥락-구체적, 훈련가능하며,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복잡한 능력이다.
Kaslow et al(2007)	지식, 스킬, 성향, 동기, 신념, 태도 등에 있어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 총체적, 발달적 능력이다.
Le Deist & Winterton(2005)	다양한 속성과 관점들이 내재된 복잡한(fuzzy) 개념이다.
Markus, Cooper-Thomas, & Allpress(2005)	교육적, 행동적(심리적), 비즈니스 수준에서 접근되고 있다.
OECD(2001)	사회와 개인을 위해 가치 있는 성과물이 산출되도록 기여하는 역량, 다양한 맥락 속의 중요한 요구에 개인이 부합하도록 돕는 역량, 전문가뿐만 아니라 모든 개개인을 위해 중요한 역량 등에 부합해야 한다.

* 출처: 이애화·최명숙(2014). p.566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도구는 핵심역량에 대한 개념과 특성에 관한 학자들의 관점과 접근에 따라 그 구성요소와 활용은 달라진다. 이처럼 개별 대학들도 각 기관의 맥락과 학생 특성에 부합되는 핵심역량을 달리 규정하고 대학별 진단도구를 자체 제작 활용하고 있다. 이애화와 최명숙(2014)은 최근 대학생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들에서 나타난 진단도구 구성요소를 정리하였는데(<표[부록 1]-12>, <표 [부록 1]-13> 참조), 연구자들은 대학생 핵심역량을 최대 10개에서 최소 5개, 평균적으로 6개 정도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부록]-12 연구자별 대학생 핵심역량 구성요인(이애화, 최명숙, 2014)

연구자	진단도구	역량수	핵심역량 구성요인
김선연, 유호정(2013)	직업기초역량 진단도구	5	학습, 관계, 전문, 글로벌, 창의
김영희, 최보영(2013)	K-CESA	6	자기관리, 대인관계, 자원정보기술, 글로벌, 의사소통, 종합적 사고력
김혜영, 이수정(2013)	건양대 핵심역량 진단도구	8	자기관리, 대인관계, 자원활용, 글로벌,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 스트레스관리
노윤신, 이상섭(2013)	—	5	사회적 공감력, 통찰적 사고력, 주도적 리더십, 전인적 품성, 예술적 감성
백평구(2013)	K-CESA	6	자기관리, 대인관계, 자원정보기술, 글로벌, 의사소통, 종합적 사고력
진미석(2013)	K-CESA	6	자기관리, 대인관계, 자원정보기술, 글로벌, 의사소통, 종합적 사고력
백유미, 가신현(2012)	—	5	대인관계, 책임감, 리더십, 도덕성, 학교만족도
이명희(2012)	—	9	자기관리, 협력관계형성, 정보기술활용, 글로벌, 의사소통, 논리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리더십, 가치관 및 태도
이숙정, 이수정(2012)	SM-CLA	10	전략기획, 친화력, 자기전문, 글로벌파워, 조직이해, 영향력, 위기관리, 도전성취, 시민윤리, 변화주도
이장익, 김주후(2012)	K-CESA	6	자기관리, 대인관계, 자원정보기술, 글로벌, 의사소통, 종합적 사고력
박성미(2011)	—	6	자긍심/자기주도학습, 인성 및 사회적응력, 지식창출능력, 글로벌 문화/개방성, 열정과 도전정신, 조직 및 혁신능력
진미석, 손유미, 주희정(2011)	K-CESA	6	자기관리, 대인관계, 자원정보기술, 글로벌, 의사소통, 종합적 사고력

대학명	인재상	역량수	핵심역량 구성요인
가톨릭대학교	인성 자성 영성을 갖춘 윤리적 리더	5	윤리성, 봉사성, 창의성, 전문성, 국제성
건양대학교	휴먼-실용 인재	6	자기주도적 학습, 글로벌능력, 의사소통능력, 건장한 육체와 정신함양, 창의적 문제해결력, 봉사리더십
경희대학교	바른 인성, 융합형 창조 인재	3	융합적 전문성, 세계시민적 인성, 미래창조역량
계명대학교	창조적인 세계시민	8	도전정신, 환경적응역량, 감성역량, 윤리적가치관, 외국어구사능력, 문화적 포용력, 종합적 전문지식, 문제해결능력
광운대학교	종합적 판단력, 창의적, 실천적, 세계적인 지성인	5	사회관계역량, 미래지향적 사고력, 글로벌, 융합적 사고력, 도전정신
금오공과대학교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봉사할 실천적인 인재	4	전문지식과 실천능력, 글로벌 마인드와 리더십, 참된 인성과 봉사정신, 도전정신과 창조적 사고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창의적 공동체 인재	3	관계역량(공동체성), 기본역량(인성), 수행역량(창의성)
대전대학교	3S특성을 갖춘 교양있는 창의적 전문인	3	자기주도, 문제해결능력, 전문역량
동국대학교	바른 가치관과 완벽한 직무 능력 겸비한 사회주도형 인재	4	글로벌역량, 인성가치관, 창의적 문제해결력, 사회진출 역량
동명대학교	봉사, 성실, 책임감 있는 인재	5	평생학습인, 창조적인 전문인, 국제인, 지성인, 봉사인
목원대학교	기독교 가치관을 갖춘 인재	5	교양인, 전문인, 세계인, 기독교 신앙인, 봉사자
목포대학교	지도자적 인격과 자질 겸비한 인재	4	전공실력, 국제화역량, 바른인성, 창조적 문제해결력
서강대학교	공동체 발전에 헌신하는 참 인재	4	세계평화를 위한 소통, 창의적 융합, 변화를 위한 창의성 실험적 도전
서울여자대학교	공동체 가치 실현 PLUS형 인재	3	실천인, 전문인, 기독교 정신 함양
성균관대학교	국가사회 발전기여 하는 전문적인인재	6	글로벌, 소통, 학문, 인문, 창의, 리더
아주대학교	인간존중, 실사구시, 세계일가 추구형 인재	4	글로벌, 의사소통, 융복합 사고, 실천적 창의
안동대학교	진리 탐구, 성실, 창조적인 인재	4	실무, 글로벌, 공동체, 창의
영남대학교	Y형 인재	4	인성, 창의성, 전문성, 진취성
우송대학교	바른 인성 융합역량 창의적 전문 인재	4	전문적 인재, 글로벌 인재, 통섭적 인재, 창의적 인재
전북대학교	전문지식과 글로벌 역량 겸비한 인재	6	실천적 직무역량, 글로벌 파트너십, 논리적 사고와 의사소통, 민주공공윤리, 창의적 전문지식, 커뮤니티 리더십
조선대학교	함께형 문화인재	3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중앙대학교	펜타곤형 인재,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	5	개방적 문화인, 실용적 전문인, 자율적 교양인, 실험적 창조인, 실천적 봉사인
충남대학교	S.T.R.O.N.G 창의인재	6	자기관리, 대인관계, 글로벌, 의사소통, 인성, 창의융합
충북대학교	지역, 국가, 세계 발전기여하는 인재	6	공동체역의식, 전문성, 글로벌의식, 적극성, 품격, 창의성
한림대학교	더불어 성장하는 창의 인재	3	상생, 소통, 융합
한밭대학교	인류사회를 선도할 인재	2	자기주도적 인재, 글로벌 창의 인재
한양대학교	국가경쟁력을 갖춘 인재	5	전문인, 세계인, 실용인, 교양인, 봉사인

이와 같은 분석으로 보았을 때, 연구자와 대학에서 대학생 역량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별로 빈도가 높은 역량은 대인관계, 글로벌, 자원정보기술, 자기관리 순이었으나, 대학별로는 창의혁신역량, 글로벌, 자원정보기술, 학습, 윤리가치관 순이었다. 연구자나 대학에서 글로벌 역량과 자원정보기술 역량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학이 강조하는 것은 창의혁신역량(연구자 44%, 대학 16.0%)이었고, 연구자가 강조하는 경우는 대인관계역량(연구자 15.6%, 대학 6.1%)이었으며, 대학은 강조하는데 연구자는 그렇지 못한 역량은 봉사정신 역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다 구체적인 후기 청소년 즉, 대학생 핵심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선행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후기 청소년으로서 대학생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발한 K-CESA(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를 활용하였으며 몇몇 선행연구들은 대학생의 핵심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개발 및 활용하였다.

대학교육의 성과를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2010년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체제를 개발하고 그 활용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진미석 외, 2011). K-CESA는 의사소통역량, 글로벌역량, 자원정보기술활용역량, 종합적 사고력, 대인관계역량, 자기관리역량 등 여섯 가지 역량으로 구성되었다.

역량별 의미를 살펴보면, 의사소통역량은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의사소통 행동 지식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능력”(진미석 외, 2009)으로 하위 요소로는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토론, 조정 등이 있다. 자원 및 정보기술의 활용능력은 시간, 자본, 재료 및 시설, 인적자원 등의 필요량을 예측하여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으로(박동렬, 2006; 나승일 외, 2003) 정보이해, 수집과 선택, 분석, 종합, 정보제시와 표현,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 등이 있다. 종합적 사고력은 모호하거나 다면적인 문제 상황을 명료화하여 문제를 인식하는 일련의 고등정신 과정을 의미하고(진미석 외, 2011, 재인용) 하위요소로는 평가적 사고, 대안적 사고, 추론적 사고, 분석적 사고 등이 있다. 글로벌 역량의 하위요소로는 외국어 능력, 글로벌환경에 대한 노출, 다문화 이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인 관계 및 협력은 조직 내에서 타인과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위요소로는 정서적 유대, 협력, 중재, 리더십, 조직에 대한 이해 등이 있다. 자기관리역량은 자기평가를 바탕으로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스스로를 조절하는 것으로 자신을 관리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하위요소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목표지향적 계획수립능력, 직업의식, 정서적 자기조절 등이 있다(진미석 외, 2009). 개발한 역량체계를 가지고 2010년 36개 대학 2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학년별, 지역별, 계열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역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에 있는 대학생이 비수도권 대학생보다 역량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공계열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인문계열의 학생들이 전 진단 영역에서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예체능계열과 의약학 계열 학생들의 핵심역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은 의사소통역량, 종합적 사고역량, 글로벌 역량에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공학계열 학생들은 타 영역에 비하여 자원정보기술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부록]-14 학년별 대학생 핵심역량 수준 (진미석 외, 2011)

T	의사 소통	자원 정보기술	글로 lobal	자기 관리	대인 관계	종합적 사고력	Total
1학년 (16,159)	48.17	48.36	48.55	47.01	47.64	47.51	48.62
2학년 (4,049)	49.67	49.57	49.67	49.37	49.49	49.87	50.61
3학년 (4,116)	50.57	50.70	50.29	51.40	50.92	50.76	52.12
4학년 (3,965)	51.60	51.36	51.49	52.22	51.92	51.86	53.51
합계 (28,289)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1.21***

주: ()은 진단 인원, ***, $p < .000$

학년별, 지역별 500명씩 총 4,000명으로 가중치 부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발한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도구(K-CESA)를 활용하여 이장익, 김주후 (2012), 백평구(2013)는 대학생들의 핵심역량을 측정하였다. 이장익, 김주후 (2012)의 연구에서는 4년제 종합대학교 재학생 361명을 대상으로 핵심역량 수준과 학점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종합적 사고력이 가장 높고 글로벌 역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년별로는 대인관계역량과 글로벌역량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자는 핵심역량 수준과 학점과의 유의미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핵심역량 수준이 학점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학업성취도 지수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표 [부록]-15 학년별 핵심역량점수 차이검증 결과 (이장인, 김주후, 2012)

핵심역량 영역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F
자기관리역량	2.17 (.88)	2.09 (.94)	2.29 (.92)	2.50 (.96)	2.59
대인관계역량	1.92 (.84)	1.87 (.82)	2.19 (.95)	2.23 (.93)	3.73*
자원정보기술 활용역량	2.30 (1.15)	2.57 (1.09)	2.80 (1.01)	2.44 (1.07)	3.12*
글로벌역량	1.62 (.72)	1.84 (.84)	1.97 (.81)	2.01 (.71)	2.98*
의사소통역량	2.27 (.96)	2.65 (1.01)	2.43 (.89)	2.44 (.84)	1.68
종합적사고역량	2.69 (1.01)	2.79 (1.01)	2.85 (1.07)	2.85 (.91)	.27
평량평균(4.0만점)	3.46 (.53)	3.54 (.59)	3.65 (.54)	3.55 (.57)	1.80

* p < .05

백평구(2013)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개인 특성에 따른 핵심역량 수준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북소재 K 대학 12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대인관계역량이 가장 높았고, 자기관리, 종합적 사고, 글로벌 역량, 의사소통역량, 자원정보기술활용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의사소통능력과 자원정보기술활용능력에 대해서는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인관계역량에 한해서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종합적 사고력과 자원정보기술활용능력에 대해서는 공학계열이 인문사회계열보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생들의 핵심역량 수준이 연구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참여학생수와 지역차이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부록]-16 학년별 핵심역량 수준 차이 분석 (백평구, 2013)

구분	분산의 동질성		평균값			F값	사후검증
	Levene 통계량	유의 확률	1학년	2학년	3학년 이상		
의사소통역량	3.262	.044	1.62	1.87	2.48	8.495**	1<3, 2<3
종합적 사고력	.136	.873	1.81	2.10	2.35	2.588	
자원정보기술활용	.269	.764	1.49	2.03	2.22	9.759**	1<2, 1<3
글로벌역량	1.599	.207	1.79	2.32	2.06	3.234*	1<2
자기관리역량	3.118	.048	2.00	2.29	2.21	1.136	
대인관계역량	.617	.541	2.41	2.59	2.43	.383	
학점(4.5만점)	19.794	.000	3.53	3.75	3.96	6.936**	1<3, 2<3

*p < .05 **p < .01

이외, 대학생들의 핵심역량을 진단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한 연구들이 있다. 노윤신, 리상섭(2013)의 연구에서는 D여자대학교의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 하였으며 박성미(2011)의 연구에서는 직업능력의 요소로서 핵심역량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김선연과 유호정(2013)의 연구에서는 지방대학생을 고려한 직업기초역량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핵심역량 진단도구를 활용하여 핵심역량 수준을 측정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4.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에 대한 선행문헌 분석

청소년 정책은 1987년 청소년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수준에서의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1991년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 되면서, 본격적인 정책이 시행되어오고 있으며, 1998년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청소년 정책은 비약적인 확대와 발전되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청소년의 역량 증진 및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여 온 청소년 정책의 흐름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제시될 청소년 역량 진단 결과의 정책적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의 범주가 '9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이라 청소년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은 주로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20세 이상에서 24세에 이르는 연령층은 그 주요 관심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음이 사실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청소년 역량의 범주가 24세 이하의 청년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 범주에 있는 20~24세 이하에 속하는 청년층을 '후기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들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는 핵심역량에 대해 살펴보고,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청소년 역량 진단 결과의 정책적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동시에 도출해 보고자 한다.

1)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의 동향과 쟁점

(1) 청소년 역량 정책의 동향

국내에서 청소년 역량의 개념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한 시점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청소년 역량 연구가 시작되기 시작한 시기는 2000년대 후반인 것으로 파악되며 2000년대 초반에는 몇 편의 연구를 찾아볼 수 있지만 소아암 아동의 사회적 역량만을 대상으로

하거나(이은희, 2003), 국제활동 참여 및 세계시민성(김신아, 2004), 그리고 학업능력, 사회적 수용도, 운동능력, 신체, 자아가치감 등을 하위변인으로 하는 청소년역량지각척도를 이용하는 연구(최은희·공인숙, 2001; 장인희, 2004)가 있다. 그 이후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제정되고 청소년활동이 역량개발의 관점에서 인식되기 시작한 2005년을 기점으로 청소년역량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한다. 이광호(2005)는 그의 연구에서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이 ‘육성과 보호’에서 ‘성장과 참여’로 전환되고 있음을 밝히면서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향후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의 안전이 보장된 상황에서 다양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함을 거론하며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확대, 지원인력의 전문화, 청소년활동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등을 제시한다. 하지만 청소년역량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된 이 시점에서 현재까지 청소년역량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떠한 하위요소들로 구성되며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에 대한 연구는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청소년 역량의 개념과 특성이 무엇인지 이를 정의하기 위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는데, 윤명희·김진화(2007)는 다양한 연령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청소년의 생활역량 진단척도 개발 연구를 통해 청소년 생활역량의 개념과 특성을 정의하였다(윤명희, 장아름, 2007). 그리고 이 척도를 이용해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 간의 생활역량 비교(윤명희, 장아름, 2008), 청소년참여유형에 따른 정책활동 및 생활역량의 차이에 관한 연구(김윤나, 2012)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2008년 청소년역량이 청소년정책목표의 하나로 제시되었던 제 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시작 이후 더욱 본격적인 청소년역량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한다. 권일남과 김태균(2009)은 청소년 활동을 통한 역량개발을 위해 이를 위한 역량척도의 개발하였는데, 델파이 조사결과 자아역량, 갈등조절역량, 문제해결역량, 성취동기역량, 시민성 역량 등 총 8개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된 청소년역량지표를 개발하였다. 또한 이민희(2009)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전국 위탁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대안학교 학생들의 직업역량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청소년역량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개인연구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를 통해서도 역량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경우(김기현·김지연·장근영, 2008) OECD의 DeSeCo프로젝트에서 개발한 생애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한국 청소년 생애핵심역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자율적 행동 측정도구를 개발한다. 뿐만 아니라 2009년에는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김기현 외, 2009)를 진행하고 2012년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해서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보처리능력, 대인관계능

력 등 10가지 영역을 바탕으로 하는 직업기초능력이 조사분석 되었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13년에 신체역량, 정신역량, 지적역량, 진로역량, 대인관계역량, 시민역량으로 구성된 학생역량을 개발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청소년 관련 정부부처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노동부는 2006년에 기초직업능력표준을 개발하여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기개발, 자원관리, 대인관계 등의 영역을 통해 청소년 핵심역량을 구성하였으며, 교육부의 경우 2013년 인성역량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의 역량을 도덕성, 사회성, 감성(정서성)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성은모 외, 2014).

한편, 가장 최근에 연구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성은모 외, 2014)를 보면 청소년역량에 대한 개념정리와 함께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일반 청소년들의 역량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하위요인을 통해 청소년 역량지수를 도출하였다. 다섯 가지 하위요인은 생애학습역량(사고력, 지적도구활용, 학습 적응성), 생활관리역량(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진로개발역량(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 대인관계역량(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사회참여역량(개인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세계 시민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청소년 역량 정책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① 청소년역량 정책에 대한 낮은 인식

초기 우리나라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책은 일부 문제를 가진 청소년의 교화를 목적으로 설정되거나 일반청소년으로 대상 확대 후에도 여가활동 중심의 수혜적 서비스 형태로 진행되다가 2005년 ‘새로운 통합적 청소년 정책’을 기점으로 청소년활동 정책의 기초는 청소년역량개발의 관점으로 인식전환을 하게 된다(권일남, 2011). 그러나 청소년역량의 개념에 대한 합의가 부족한 실정이며 그로인해 역량의 측정, 강화방안, 책임영역 등 다양한 논의가 부재한 상태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핵심역량, 생애역량, 시민역량 등 청소년역량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개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저마다 다른 특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어떠한 개념을 차용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양하면서 상이한 연구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또한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국가부처가 체육부, 문화관광부, 청소년보호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오늘에 이르기까지 해방이후 13회에 걸쳐 변경된 이유도 있으며(한상철, 2013) 정책이 보호와 육성으로 이분화 된 채로 시작된 것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로인해 여전히 청소년정책이 확고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현장과 지역사회가 청소년역

량개발에 있어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이영주(2012)는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이 주말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운동, 잠자기, 게임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에서 진행되는 주말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 참석율은 20.2%로 낮게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청소년활동 증진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필요성은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역량증진에 대한 책임과 역할에 대한 부분은 이후 자세히 다루겠지만 지금까지 거론한 문제들은 전체적으로 청소년역량 자체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과 합의의 부재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청소년지도사의 낮은 근무여건에 따른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청소년 정책의 대상이 문제를 가진 청소년에서 일반청소년으로 옮겨가고 청소년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커져가면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집, 유스호스텔 등 다양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증가가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청소년지도사의 수 역시 증가해 오고 있다. 1993년 청소년기본법 시행 이후 2012년까지 청소년지도사의 수는 약 3여 명에 달하며(여성가족부, 2013) 배출된 청소년지도사는 저마다의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역량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장에서 청소년지도사가 직접적으로 청소년들을 만나며 청소년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청소년활동의 경우, 면대면 서비스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지도사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직접적이기 쉽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사의 능력이 청소년들의 역량 증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청소년지도사들이 근무하는 환경은 그들의 전문성과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충족시켜 주기에 충분하지 않다. 2008년 민간청소년수련시설 제도개선 워크숍 자료집을 보면, 자연권 수련시설의 종합평가결과 청소년수련원은 63.54점, 유스호스텔 58.23점, 야영장 65.3점 등 총 100점 만점인 것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서 영역별 평가결과를 보았을 때,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부분은 20점 만점에 수련원은 11.43점, 유스호스텔 6.87점, 야영장 5.78점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이유를 기간계약, 도급계약 등 지위불안정에서 오는 전문성의 취약화와 전문연수, 보수교육 등 교육시스템의 미비함에서 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주범·유진아, 2009). 김민(2004)은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진행한 연구에서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을 위해 자격검정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당시 청소년지도사들이 받는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저급한 수준으로 보수체계 및 직무여건 등의 개선이 함께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사들의 근무여건과 전문성은 매우 밀접한 관계 안에 놓여 있다. 여건과 처우가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이는 청소년역량개발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행이 제 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청소년지도사의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이 추진체계 강화의 세부 목표로 설정되어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연수, 보수교육 지원 및 포상 강화, 상담복지센터와 수련시설 종사가 직무표준화 및 표준임금기준 마련 등을 통한 처우개선, 배치기준 강화 및 국비지원 확대 추진, 청소년지도자 자격검정 개선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7년까지 어느 정도 목표량을 달성될지 알 수 없으나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의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

③ 청소년 역량 증진 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필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증진시킬 수 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사의 역할이 앞서 거론했듯이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도사가 아무리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지도사의 자질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따라서 청소년수련관들이 저마다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다양하고 목적에 부합하며 수준이 높은지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있다. 권일남·정효진(1998)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진행되는 수련활동의 교육효과가 낮으며, 청소년지도사, 수련시설, 청소년단체, 프로그램 등이 전문화 및 특성화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수련활동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미비(25.3%)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시설에 대한 여건(19.4%), 청소년지도사들에 대한 자질확보(13.4%) 등으로 나타났다(권일남·정효진, 1998). 10년 뒤 이루어진 주범·유진이(2009)의 연구에서도 여전히 수련시설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청소년 수련시설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프로그램은 실설의 다양성을 따라가지 못함을 지적한다. 즉, 시설들이 대부분 비슷한 모방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시설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보급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청소년지도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의 자발성과 적극적 참여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같은 해에 진행된 박옥식(2009)의 연구 역시 수련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해 비슷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시설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대체로 미흡하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여전히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추가적으로 지자체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사업성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박옥식, 2009).

다양한 연구들이 제시 해주듯이 기관에서 저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존립목적과 청소년역량개발과 증진에 있어서 본인들의 역할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을 때 그에 부합하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신명철(2012)은 그의 연구를 통해 청소년수련시설이 주5일 수업제,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학교폭력, 인터넷중독 등 시대적 변화와 사회환경, 청소년의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야 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④ 청소년 역량 수련 인프라의 열악과 턱없이 부족한 예산

현실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지도사의 전문성, 수준 높고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효과성 담보 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수련시설을 위한 인프라가 정책적으로 확대되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2008년 “아동·청소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제 2차 종합토론회” 자료를 보면, 수련시설 1곳 당 청소년 수를 비교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1,720명, 영국 3,252명, 미국 4,892명인데 반해 한국의 경우 13,15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범·유진이(200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기는 했지만 전국 시군구의 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아직 부족하다는 점과 도심지 수련시설의 경우 부지확보의 어려움,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런 경우 운영비 조달의 어려움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박옥식(2009)의 경우 시설임대 운영으로 인한 문제, 콘도 또는 리조트와 같은 휴양시설, 위탁시설에서 수련활동이 실시되는 경우의 청소년의 유해업소 노출과 수련시설 부족 등의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청소년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급속하게 청소년수련시설의 양적확대정책을 진행해 왔다면 이제는 질적 확대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이다.

⑤ 청소년 역량지수 및 측정도구 활용에 대한 인식부족

제 5차 청소년기본계획에서 청소년역량의 중요성을 중요 과제로 선정하고 개념정의 및 지표개발을 그 하위과제로 선정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역량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일은 청소년역량을 개발하고 증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청소년역량이 실질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제 4차 청소년기본계획 당시부터 다양한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역량지표가 개발되었고 본 연구 역시 하나의 중요한 정책과제를 배경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약 10여 년간 청소년역량지표 개발에 대한 연구가 일정부분 성숙되었다면 향후 남겨진 연구과제는 과연 이렇게 심도 있고 다양하게 개발된 지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될 것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04년 연구한 “청소년개발지표 개발 연구”를 살펴보면 개발된 본 척도의 활용방안을 세 가지 차원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김진호, 김정화, 한상철, 임성택, 2004).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역량지표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첫째로 “선택과 집중”을 강조한다. 즉, 지표를 통해 측정된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정책적 투자우선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수립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청소년역량체계의 실태와 취약분야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청소년역량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청소년의 발달 특성과 역량수준의 변화양상을 이해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네 번째, 청소년역량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첫째로 지자체에 속한 청소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둘째로 지역 청소년역량개발정책의 방향과 정책적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로 지자체 청소년역량개발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관련 시설 및 단체에서는 첫째, 청소년역량개발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요구를 분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운영하고자 하는 청소년역량개발 프로그램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하자면, 동일한 척도를 통한 국제비교를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되어야 할 영역에 대한 확인 및 보완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⑥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와 학교 교육과정과의 긴밀한 연계 부족

청소년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의 생활 전반에 다양하게 걸쳐 있기 때문에 학교 또는 지역사회 둘 중 어느 한 곳에서만 모든 역량개발이 균형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포괄적이고 균형잡인 역량개발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수업일수가 5일로 바뀌고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 학교 안에서는 넘쳐나는 청소년활동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반면에 지역사회 내 청소년활동을 위한 기관 및 수련시설의 청소년 참가율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박옥식(2009)은 청소년 수련시설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활동을 위해서는 학교 등의 유관기관과 상호 연계가 필수불가결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 간 상호연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너지효과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미국, 유럽 등과 같이 청소년시설에서의 활동이 학교 교과과정에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박옥식, 2009)

김소영·라종민(2015)은 창의적 체험활동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 진행될 때 교사는 그들이 담당해야 하는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학교급별에 따른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가능성을 높이는 등 학교 내외적으로 다양한 장점을 가져오기 때문에 창의활동에 관련된 많은 활동을 학교 내에서만 운영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주5일제 수업 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에 대한 욕구 및 정책제안을 연구한 이영주(2012)는 주 5일제 수업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즉,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현장체험은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의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는 이에 대비해 다양한 문화 및 활동시설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한다(이영주, 2012).

청소년 역량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대한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되어 오다가 제 5차 청소년기본계획에서 중점과제인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세부 목표에 학교-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로 설정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사회에서 지자체, 청소년시설, 학교가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고(여성가족부),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지도사를 시범적으로 학교 배치하며(여성가족부, 교과부), 초·중·고교 학생의 주말 및 방학기간 등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여성가족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활성화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설정되는데, 지역사회 내 인증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고, 인증 수련활동에 대한 경력은 대학 입학 전형(입학사정관) 및 공공기관(기업) 취업에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견고히 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와 지역사회 각자 주어진 환경과 여건 안에서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영역별 보완점을 찾아 서로간의 연계를 통해 채워나가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부록 2] 초·중·고등학생 표본설계⁹⁾

I. 모집단 분석

(1) 모집단

본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2) 모집단 분석

먼저 16개 광역 시도별, 학교급별, 학년별 학생수를 <표 1>과 <표 2>에 정리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학생수는 4,911,004명이며 각 학교급별 학생수는 초등학교 1,378,934명(28.1%), 중학교 1,705,146명(34.7%), 고등학교 1,826,924명(37.2%)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유형과 학제를 기준으로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일반고 1,295,108명(26.4%), 자율고 143,783명(2.9%), 특성화고 336,239명(6.8%), 특수목적고 51,794명(1.1%)이다. 고등학교의 유형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일반고: 일반고 중 일반, 종합고등학교
- 자율고: 자율고 중 일반고등학교
- 특성화고: 가사, 공업, 농림업, 상업, 실업, 해양고등학교 등
- 특수목적고: 과학, 국제, 예술, 외국어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수 및 학생수 분포는 <표 [부록2]-1>~<표 [부록2]-8>에 정리되어 있다.

9) 표본설계는 2015년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의 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작성하였으며, 통합조사에 참여한 과제에서 공통으로 수록하였음.

표 [부록2]-1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생수, 학교수

구분	학생수						학교수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76,480	78,984	77,406	86,604	99,910	98,528	598	598	598	383	383	381
경기	121,311	124,487	120,637	135,545	152,525	148,525	1,200	1,202	1,203	603	602	602
인천	25,505	26,907	25,956	29,581	33,146	33,004	238	240	243	132	133	134
강원	13,279	13,722	14,161	15,985	17,822	17,779	328	335	340	162	162	162
충북	14,342	14,656	14,795	17,018	18,798	18,651	259	259	264	128	128	128
충남	20,176	20,407	20,131	23,145	25,552	24,933	419	420	420	201	201	200
대전	15,218	15,759	15,398	17,410	19,636	19,229	144	146	146	88	88	87
경북	21,204	22,267	22,188	25,716	29,391	29,327	403	410	425	286	287	287
경남	30,668	31,606	31,321	36,103	40,842	40,468	468	472	474	273	273	272
부산	25,743	27,376	26,914	31,646	35,826	35,934	304	304	305	170	169	170
대구	21,790	23,591	22,936	26,925	30,647	31,168	219	219	219	124	123	123
울산	10,708	11,334	10,898	13,055	14,871	14,909	120	119	120	62	61	61
전북	16,811	17,580	17,947	20,732	23,258	22,799	383	385	388	209	208	209
전남	15,699	16,406	16,771	19,437	22,115	22,094	412	408	422	253	253	254
광주	15,419	16,603	16,280	18,764	21,453	21,091	151	151	151	88	88	87
제주	6,179	6,555	6,423	7,340	8,110	7,799	112	110	110	44	44	43
합계	450,532	468,240	460,162	525,006	593,902	586,238	5,758	5,778	5,828	3,206	3,203	3,200

표 [부록2]-2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수

구분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67,833	72,214	73,359	13,752	14,051	13,848	17,616	16,745	16,646	4,079	4,303	4,227
경기	121,161	121,388	119,903	4,262	4,197	3,955	20,391	21,363	20,705	3,888	3,969	4,018
인천	22,494	23,667	23,976	1,782	1,859	1,823	7,626	7,537	6,914	1,060	1,053	1,022
강원	14,600	14,714	14,601	157	149	149	3,587	3,439	3,180	370	373	304
충북	11,554	11,901	11,960	1,616	1,556	1,533	5,504	5,398	5,250	432	415	345
충남	17,425	17,508	17,314	2,245	1,913	1,868	6,074	5,977	5,999	663	635	470
대전	12,831	12,831	12,946	3,039	2,807	2,929	3,565	3,597	3,611	753	872	785
경북	19,897	20,881	20,904	2,669	2,675	2,699	6,779	6,827	6,667	594	593	481
경남	31,087	31,479	31,871	2,854	2,880	2,836	5,813	6,033	6,223	734	699	537
부산	22,687	24,152	24,920	3,619	3,737	3,905	8,461	8,241	8,694	2,148	2,179	2,074
대구	18,703	19,946	20,133	5,815	5,996	6,125	6,336	6,355	6,414	846	843	809
울산	10,774	11,562	12,202	957	997	686	3,269	3,219	2,870	419	345	291
전북	17,036	17,081	17,304	1,351	1,327	1,338	5,392	5,345	5,294	581	559	443
전남	13,963	13,968	14,087	2,295	2,331	2,365	6,344	6,604	6,458	468	450	339
광주	15,520	15,825	15,492	1,440	1,349	1,360	4,273	4,631	4,437	359	322	256
제주	5,779	5,910	5,765	225	225	237	1,474	1,543	1,519	141	142	106
합계	423,344	435,027	436,737	48,078	48,049	47,656	112,504	112,854	110,881	17,535	17,752	16,507

표 [부록2]-3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수

구분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182	182	180	44	44	44	74	74	74	18	18	18
경기	341	336	325	13	13	12	79	79	79	18	18	18
인천	79	79	77	7	7	7	29	29	29	7	7	7
강원	86	86	86	1	1	1	25	25	25	4	4	4
충북	46	45	46	6	6	6	27	27	27	4	4	4
충남	72	70	70	10	9	9	36	36	36	6	6	5
대전	37	37	36	8	8	8	12	12	12	5	5	5
경북	119	119	118	11	11	11	55	55	55	6	6	6
경남	136	136	135	10	10	10	38	38	38	6	6	6
부산	80	80	80	14	14	14	38	39	38	11	11	11
대구	50	50	50	17	17	17	20	20	20	5	5	5
울산	35	35	35	4	4	3	11	11	11	4	3	3
전북	89	89	89	5	5	5	34	34	34	4	4	4
전남	82	84	84	8	8	8	51	51	51	5	5	5
광주	45	45	45	5	5	5	14	14	14	3	3	3
제주	20	20	20	1	1	1	7	7	7	2	2	2
합계	1,499	1,493	1,476	164	163	161	550	551	550	108	107	106

표 [부록2]-4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성별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남학생수			여학생수			남학생수			여학생수		
	4학년	5학년	6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9,390	40,825	40,025	37,090	38,159	37,381	45,084	52,251	51,523	41,520	47,659	47,005
경기	62,467	64,322	62,579	58,844	60,165	58,058	70,375	79,349	76,846	65,170	73,176	71,679
인천	13,132	13,777	13,413	12,373	13,130	12,543	15,250	17,134	17,190	14,331	16,012	15,814
강원	6,923	7,087	7,392	6,356	6,635	6,769	8,375	9,418	9,246	7,610	8,404	8,533
충북	7,501	7,615	7,737	6,841	7,041	7,058	8,830	9,824	9,715	8,188	8,974	8,936
충남	10,384	10,544	10,558	9,792	9,863	9,573	11,868	13,282	13,007	11,277	12,270	11,926
대전	7,828	8,126	8,063	7,390	7,633	7,335	9,135	10,161	10,054	8,275	9,475	9,175
경북	11,217	11,684	11,775	9,987	10,583	10,413	13,562	15,645	15,564	12,154	13,746	13,763
경남	16,192	16,723	16,499	14,476	14,883	14,822	19,063	21,756	21,175	17,040	19,086	19,293
부산	13,234	14,300	14,040	12,509	13,076	12,874	16,525	18,868	19,029	15,121	16,958	16,905
대구	11,412	12,386	12,308	10,378	11,205	10,628	14,179	16,280	16,463	12,746	14,367	14,705
울산	5,657	6,049	5,731	5,051	5,285	5,167	6,950	7,862	7,842	6,105	7,009	7,067
전북	8,655	9,016	9,491	8,156	8,564	8,456	10,604	12,031	11,767	10,128	11,227	11,032
전남	8,174	8,498	8,712	7,525	7,908	8,059	10,159	11,598	11,537	9,278	10,517	10,557
광주	7,992	8,726	8,481	7,427	7,877	7,799	9,681	11,214	10,942	9,083	10,239	10,149
제주	3,261	3,432	3,464	2,918	3,123	2,959	3,879	4,168	4,077	3,461	3,942	3,722
합계	233,419	243,110	240,268	217,113	225,130	219,894	273,519	310,841	305,977	251,487	283,061	280,261

표 [부록2]-5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남학생수

구분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4,170	36,152	36,817	9,450	9,684	9,476	8,497	7,850	7,871	1,197	1,343	1,258
경기	62,855	62,743	62,482	2,092	2,105	2,016	11,279	11,433	11,410	1,204	1,247	1,386
인천	11,751	12,111	12,386	1,073	1,120	1,146	3,940	3,892	3,565	444	468	425
강원	7,253	7,168	7,217	85	88	82	2,373	2,261	2,103	173	179	127
충북	5,789	5,900	6,044	936	914	946	3,097	2,900	2,839	186	181	131
충남	8,852	8,818	8,882	1,268	1,102	1,101	3,551	3,435	3,525	232	212	147
대전	6,152	6,133	6,208	1,951	1,842	1,925	2,148	2,112	2,163	310	347	292
경북	9,766	10,265	10,333	1,743	1,743	1,732	4,254	4,151	4,203	261	243	163
경남	15,006	15,253	15,943	2,311	2,268	2,219	3,618	3,653	3,816	316	308	216
부산	11,505	12,238	12,834	2,051	2,118	2,259	5,420	5,004	5,367	841	794	718
대구	9,384	9,797	10,035	3,258	3,348	3,454	4,083	4,016	3,996	366	336	304
울산	5,596	5,900	6,496	495	529	346	2,015	1,931	1,691	168	125	82
전북	8,138	8,279	8,264	1,222	1,201	1,211	3,178	3,057	3,006	222	227	149
전남	6,395	6,378	6,497	1,698	1,717	1,769	3,717	3,771	3,728	191	192	112
광주	7,806	7,828	7,719	869	858	856	2,265	2,518	2,422	177	155	92
제주	3,137	3,275	3,204	0	0	0	746	771	723	63	59	42
합계	213,555	218,238	221,361	30,502	30,637	30,538	64,181	62,755	62,428	6,351	6,416	5,644

표 [부록2]-6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여학생수

구분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3,663	36,062	36,542	4,302	4,367	4,372	9,119	8,895	8,775	2,882	2,960	2,969
경기	58,306	58,645	57,421	2,170	2,092	1,939	9,112	9,930	9,295	2,684	2,722	2,632
인천	10,743	11,556	11,590	709	739	677	3,686	3,645	3,349	616	585	597
강원	7,347	7,546	7,384	72	61	67	1,214	1,178	1,077	197	194	177
충북	5,765	6,001	5,916	680	642	587	2,407	2,498	2,411	246	234	214
충남	8,573	8,690	8,432	977	811	767	2,523	2,542	2,474	431	423	323
대전	6,679	6,698	6,738	1,088	965	1,004	1,417	1,485	1,448	443	525	493
경북	10,131	10,616	10,571	926	932	967	2,525	2,676	2,464	333	350	318
경남	16,081	16,226	15,928	543	612	617	2,195	2,380	2,407	418	391	321
부산	11,182	11,914	12,086	1,568	1,619	1,646	3,041	3,237	3,327	1,307	1,385	1,356
대구	9,319	10,149	10,098	2,557	2,648	2,671	2,253	2,339	2,418	480	507	505
울산	5,178	5,662	5,706	462	468	340	1,254	1,288	1,179	251	220	209
전북	8,898	8,802	9,040	129	126	127	2,214	2,288	2,288	359	332	294
전남	7,568	7,590	7,590	597	614	596	2,627	2,833	2,730	277	258	227
광주	7,714	7,997	7,773	571	491	504	2,008	2,113	2,015	182	167	164
제주	2,642	2,635	2,561	225	225	237	728	772	796	78	83	64
합계	209,789	216,789	215,376	17,576	17,412	17,118	48,323	50,099	48,453	11,184	11,336	10,863

표 [부록2]-7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24.4	24.3	24.0	29.1	31.2	31.3
경기	23.6	23.5	23.3	31.7	32.0	31.9
인천	22.9	22.7	22.2	29.2	32.0	32.2
강원	14.5	14.3	14.2	20.9	23.6	23.4
충북	16.5	16.6	16.5	24.1	25.7	25.7
충남	16.4	16.6	16.4	25.0	26.4	25.9
대전	22.5	22.2	22.2	30.3	32.1	32.0
경북	17.5	17.2	16.9	20.8	21.7	21.9
경남	17.9	17.8	18.0	25.2	26.9	26.9
부산	21.4	21.7	21.4	28.5	30.8	31.0
대구	21.9	22.3	21.7	28.8	31.5	32.7
울산	21.5	21.8	21.2	27.9	30.9	30.8
전북	15.3	15.0	15.1	22.4	23.2	23.3
전남	14.8	15.2	15.1	22.1	22.6	23.1
광주	22.5	22.5	22.5	30.8	32.8	33.6
제주	17.9	18.1	18.3	27.9	29.1	29.0
합계	19.8	19.8	19.6	26.6	28.1	28.2

표 [부록2]-8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구분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1학년	1학년	1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2.3	33.6	34.0	30.7	30.4	29.8	26.3	24.8	24.7	29.9	30.3	31.0
경기	32.7	33.5	34.0	31.5	30.9	31.1	28.8	29.3	28.1	29.0	29.4	28.3
인천	28.8	30.5	30.7	30.3	31.0	29.7	28.6	28.3	25.9	26.5	26.3	23.7
강원	28.0	28.1	27.6	14.3	13.5	13.5	23.8	22.3	20.6	26.2	29.6	23.3
충북	33.2	33.6	33.2	30.6	29.4	29.8	29.1	28.5	27.6	24.3	23.8	20.0
충남	31.5	31.9	31.7	29.7	29.0	28.7	25.8	25.6	24.9	26.8	26.1	23.2
대전	34.5	34.8	35.3	35.8	32.8	33.1	28.6	28.3	28.5	26.8	28.6	25.7
경북	27.6	28.3	28.3	30.8	31.1	31.3	25.1	25.0	23.9	29.2	29.0	22.1
경남	30.7	30.7	30.6	31.4	31.1	30.9	24.0	24.1	24.1	24.9	24.6	18.6
부산	30.2	31.6	32.2	29.7	30.3	29.8	25.1	23.7	24.5	26.6	26.8	26.4
대구	32.5	34.6	34.9	33.3	33.6	34.2	28.1	27.5	27.3	27.5	26.5	24.7
울산	32.4	34.9	36.4	29.8	31.1	31.0	31.1	29.9	27.8	23.0	22.8	19.7
전북	28.0	27.7	28.5	30.9	30.4	30.8	25.7	24.9	24.5	27.0	25.5	20.0
전남	27.7	27.8	27.5	32.4	33.0	34.0	22.2	22.5	21.3	25.2	23.1	19.0
광주	35.9	36.7	37.5	36.0	34.5	35.7	30.9	31.4	30.2	27.5	26.7	22.1
제주	34.6	35.0	34.1	32.1	32.1	33.9	28.6	29.7	29.8	22.5	22.9	17.0
합계	31.0	31.8	32.0	31.3	31.1	31.0	26.4	26.0	25.2	27.3	27.4	24.9

II. 표본설계

(1) 표본크기

표본크기는 표본추출방법과 모집단의 특성 및 층화방법 등의 영향을 받지만, 단순임의추출의 상황 하에서 통계분석 단위별로 평균 추정치의 목표오차 d 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s)^2}{Nd^2 + (zs)^2}$$

여기서 N 은 모집단의 크기이고, s 는 관심변수의 표준편차이며, z 은 신뢰계수이다(신뢰수준 95% 하에서 $z = 1.96$ 이다).

조사내용이 비율인 경우에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본크기는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2pq}{Nd^2 + z^2pq}$$

여기서 p 는 비율의 값이며 $q = 1 - p$ 이다.

본 연구에서는 1차 표본추출 단위가 학교이고 추출된 학교에서 표본학급을 선정하여 해당 학급의 모든 학생을 조사하는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방법을 사용할 것이므로, 목표오차를 실제로 d 이하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산출한 값보다 표본크기를 더 크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조사에 따른 소요비용과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전체 목표 표본크기는 조사의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9,500으로 결정되었다. 이 때 모비율의 추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95% 신뢰수준 하에서 약 $\pm 1.0\%$ 이다. 층화집락추출의 상황 하에서의 실제 표본오차는 이보다 조금 더 크게 되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충분히 허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2) 층화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모집단을 2014년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현황을 기초로 지역구분과 학교구분을 층화변수로 고려한다. 즉, 층화변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구분 : 광역 시도 (16개), 세종시는 충남에 포함
- 학교구분 :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목고 (6개)
- 학년 (3개)

단, 고등학교 중 자율고와 특성화고는 광역시도별로 층화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묶어서 층화한다. 또한 특수목적고는 지역별 층화를 수행하지 않는다.

표 [부록2]-9 학교급×학년별 모집단크기, 목표 표본크기

학교급		학년	모집단크기		단순비례배분 목표 표본크기		변형비례배분 예상 표본크기	
초등학교	초등학교	4	450,532	1,378,934 (28.1%)	2,667 (28.1%)	2,700 (28.4%)		
		5	468,240					
		6	460,162					
중학교	중학교	1	525,006	1,705,146 (34.7%)	3,298 (34.7%)	3,132 (32.9%)		
		2	593,902					
		3	586,238					
고등학교	일반고	1	423,344	1,295,108 (26.4%)	2,505 (26.4%)	2,400 (25.2%)	3,684 (38.7%)	
		2	435,027					
		3	436,737					
	자율고	1	48,078	143,783 (2.9%)	278 (2.9%)	480 (5.0%)		
		2	48,049					
		3	47,656					
	특성화고	1	112,504	336,239 (6.8%)	650 (6.8%)	648 (6.8%)		
		2	112,854					
		3	110,881					
	특수 목적고	1	17,535	51,794 (1.1%)	100 (1.1%)	156 (1.6%)		
		2	17,752					
		3	16,507					
합계				4,911,004 (100.0%)	9,500 (100.0%)	9,516 (100.0%)		

표 [부록2]-10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455	555	412	42	179	95
경기	716	850	699	69	77	
인천	153	186	135			
강원	80	100	85	45	86	
충북	86	106	68			
충남	119	143	101			
대전	91	110	74			
경북	128	164	119	75	208	
경남	183	228	182			
부산	156	201	138			
대구	134	173	113			
울산	64	83	67	44	68	
전북	102	130	99			
전남	96	124	81			
광주	94	119	90			
제주	37	45	34			
합계	2,696	3,318	2,498	275	617	95

* 총계: 9,500명

표 [부록2]-11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교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22.8	19.1	12.9	1.3	6.6	3.7
경기	35.8	29.3	21.8	2.2	2.8	
인천	7.7	6.4	4.2			
강원	4.0	3.5	2.6	1.4	3.2	
충북	4.3	3.7	2.1			
충남	5.9	4.9	3.1			
대전	4.5	3.8	2.3			
경북	6.4	5.7	3.7	2.4	7.7	
경남	9.1	7.9	5.7			
부산	7.8	6.9	4.3			
대구	6.7	6.0	3.5			
울산	3.2	2.9	2.1	1.4	2.5	
전북	5.1	4.5	3.1			
전남	4.8	4.3	2.5			
광주	4.7	4.1	2.8			
제주	1.9	1.6	1.1			
합계	134.8	114.4	78.1	8.6	22.9	3.7

* 총계: 362.4개

표 [부록2]-12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교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21(7)	18(6)	12(4)	3(1)	6(2)	6(2)
경기	33(11)	27(9)	18(6)	3(1)	3(1)	
인천	9(3)	6(2)	3(1)			
강원	3(1)	3(1)	3(1)	3(1)	3(1)	
충북	3(1)	3(1)	3(1)			
충남	6(2)	6(2)	3(1)			
대전	6(2)	3(1)	3(1)			
경북	6(2)	6(2)	3(1)			
경남	9(3)	9(3)	6(2)			
부산	9(3)	6(2)	3(1)			
대구	6(2)	6(2)	3(1)			
울산	3(1)	3(1)	3(1)			
전북	6(2)	3(1)	3(1)	3(1)	3(1)	
전남	6(2)	3(1)	3(1)			
광주	6(2)	3(1)	3(1)			
제주	3(1)	3(1)	3(1)			
합계	135(45)	108(36)	75(25)			15(5)

* () 안의 수치는 학년별 학교수임. 총계: 363(121)개

표 [부록2]-13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420	522	384	96	162	156
경기	660	783	576	96	81	
인천	180	174	96			
강원	60	87	96			
충북	60	87	96	96	81	
충남	120	174	96			
대전	120	87	96			
경북	120	174	96			
경남	180	261	192	96	243	
부산	180	174	96			
대구	120	174	96			
울산	60	87	96			
전북	120	87	96	96	81	
전남	120	87	96			
광주	120	87	96			
제주	60	87	96			
합계	2,700	3,132	2,400	480	648	156

* 총계: 9,516명

(3) 표본배분

학생수에 단순비례하도록 지역구분×학교급=43개 각 층에 표본크기를 할당하면 <표 [부록 2]-9>과 같다.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서 한 학년, 한 학급을 선정하여 조사하되 선정된 학급에 속한 학생들을 모두 조사할 것이므로, 각 층에 할당된 표본크기를 각 층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로 나누면 <표 [부록 2]-10>과 같이 조사될 학교수가 할당된다. 결론적으로 총 362개 정도의 학교가 조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각 층에 단순비례배분으로 표본을 할당할 경우 특정한 층에 너무 작은 표본크기가 배당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전라 지역의 자유평고 고등학교에 44명(학년당 약 15명)의 표본이 배당되는데, 이 경우 한 학교를 방문하여 이렇게 소수의 표본만 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한 학급 전체를 조사할 계획이므로 실제로는 학년당 약 30명의 학생이 조사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표본크기가 목표한 것보다 커지게 된다. 아니면 전라 지역의 자유평고에 대해서는 한 학급에서 15명만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즉, 목표보다 표본크기가 커지는 것을 허용하든가 아니면, 다른 층에서 일부 표본크기를 줄여서 변형비례배분 형태의 표본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표 [부록 2]-11>에서 볼 수 있듯이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하여도 단순비례배분에 비하여 각 층의 표본크기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 하에 학교수 및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43개 각 층에 최소 한 개 이상의 학교를 할당되도록 한다.
- 각 학년별로 층별 모집단크기에 비례하도록 학교수를 할당하되 전체 학교수가 약 360개 정도이고 조사될 목표 학생수가 9,500을 넘도록 한다.

전국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대략 초등학교 20명, 중학교 29명, 일반고 32명, 자율고 32명, 특성화고 27명, 특수목적고 26명이다. 따라서 지역구분×학교급별 모집단크기에 비례하도록 표본크기를 배분하되, 위의 원칙과 상황을 고려하여 보완함으로써 각 층별 조사될 학교수를 결정하고 예상되는 조사 학생수를 계산하면 <표 [부록 2]-12>, <표 [부록 2]-13>과 같다.

(4) 표본추출

각 학교구분과 지역구분별로 할당된 표본학교의 추출은 <표 [부록2]-12>에 주어진 표본배분 결과를 이용하여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한다. 즉,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43개 층내에서 조사대상 학생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표본학교를 선정하되, 초등학교의 경우 각 학년별 학급수가 2개 이상, 중·고등학교의 경우 각 학년별 학급수가 3개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조정한다. 또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0명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한다. 그리고 선정된 표본학교 내에서 각 학년별 1개의 표본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그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조사한다.

추출된 학교 층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층 내의 학교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대체한다. 또한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하며, 지역별 성별 구성비율도 고려하여 최종 조사될 학교 및 학급을 선정한다.

(5) 성별 사후층화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및 학급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사 시에는 성별 비율을 맞추기가 어렵다. 즉, 성별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지만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시 성별을 고려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성별 분포가 모집단 분포와 다르게 조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후층화 가중치를 통해 표본에서의 성별 분포의 편향을 조정하고자 한다.

Ⅲ. 가중치와 모수추정

(1) 가중치

본 조사의 표본추출은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법이라 할 수 있으며 학교구분과 지역구분을 층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각 층에서 일차추출단위인 학교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하고 추출된 표본학교에서는 학급을 랜덤하게 선정한 후에 학생을 조사하므로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학생을 랜덤하게 선정하여 조사하는 이단집락추출법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표본추출률을 아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f_{hij} = n_h \frac{B_{hi}}{\sum_{i=1}^{N_h} B_{hi}} \cdot \frac{n_{hi}}{B_{hi}} = n_h \frac{n_{hi}}{\sum_{i=1}^{N_h} B_{hi}}$$

여기서 N_h 는 h 층에 속한 전체 학교의 수이고, n_h 는 h 층의 표본 학교수이며, B_{hi} 는 h 층에서 i 번째 학교의 학생수를 나타내고, n_{hi} 는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조사한 학생수를 나타낸다.
표본추출률에 대한 가중치는 추출률의 역수이므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W_{hij}^a = \frac{\sum_{i=1}^{N_h} B_{hi}}{n_h \cdot n_{hi}}$$

또한 각 세부 층의 성별($k=1,2$) 모집단 크기를 반영하여 사후층화 가중치를 산출한다. 즉, 사후층화 가중치는

$$W_{h(k)j}^b = \frac{N_{h(k)}}{\sum_{l=1}^{n_{h(k)}} W_{h(k)j}^a}$$

여기서 $N_{h(1)}$ 과 $N_{h(2)}$ 는 각 세부 층에 속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모집단 크기이고, $\sum W_{h(k)j}^a$ 는 각 세부 층의 성별 기본 가중치의 합계이다.

최종 가중치는 기본 가중치와 사후층화 가중치를 곱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W_{h(k)ij}^f = W_{hij}^a \times W_{h(k)j}^b$$

한편,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가설검정 등을 위해 표준화 가중치(standardized weight)를 사용하였다. 표준화 가중치는 가중치의 합계가 표본크기와 같도록(가중치의 평균이 1이 되도록) 원 가중치를 변환한 것으로, 원 가중치와 표준화 가중치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text{표준화 가중치} = \text{원 가중치} \times \frac{n(\text{표본 크기})}{N(\text{모집단 크기})}$$

(2) 모수추정

① 용어 정의

- Y_{hij} : 관측치 (각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
- h : 층의 번호 ($h = 1, 2, \dots, H$). 학교구분×지역구분에 따른 번호.

- i : 각 층 내에서의 집락(학교)의 번호 ($i = 1, 2, \dots, n_h$).

- j : 각 집락 내의 학생의 번호 ($j = 1, 2, \dots, m_{hi}$).

m_{hi} : h 번째 층의 i 번째 집락으로부터 추출된 학생수.

• w_{hij} : 표본 가중치

- h 번째 층, i 번째 집락, j 번째 학생에 대한 표본 가중치

• $n = \sum_{h=1}^H \sum_{i=1}^{n_h} m_{hi}$: 전체 표본크기.

② 모평균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수치형(numerical) 변수인 경우,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Ratio estimator)으로 계산됨.

• $\bar{Y} = \left(\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right) / w...$: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

- $w...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표본 가중치의 합계

③ 모비율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범주형(categorical) 변수인 경우, 각 범주 c_k 에 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이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를 생성함.

• $Y_{hij}^{(c_k)} = I(Y_{hij} = c_k) = \begin{cases} 1, & \text{if } Y_{hij} = c_k \\ 0, & \text{otherwise} \end{cases}$

- c_k : Y_{hij} 가 가질 수 있는 범주의 값 ($k = 1, \dots, l$)

• 이러한 지시변수 $Y_{hij}^{(c_k)}$ 로부터 모평균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중평균을 계산하여 범주 c_k 의 모비율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함

④ 분산의 추정

• $\hat{V}(\bar{Y}) = \sum_{h=1}^H \hat{V}_h(\bar{Y})$: 분산의 추정치

- N_h : 층 h 의 총 집락의 수

- f_h : h 번째 층의 표본추출율, n_h/N_h .

- $n_n > 1$ 일 때,

$$\widehat{V}_h(\bar{Y}) =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cdot} - \bar{e}_{h..})^2$$

$$e_{hi\cdot}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_{h..}$$

$$\bar{e}_{h..} = \left(\sum_{i=1}^{n_h} e_{hi\cdot} \right) / n_h$$

- $n_n = 1$ 일 때,

$$\widehat{V}_h(\bar{Y}) = \begin{cases} \text{missing, if } n_{h'} = 1 \text{ for } h' = 1, 2, \dots, H \\ 0, & \text{if } n_{h'} > 0 \text{ for some } 1 \leq h' \leq H \end{cases}$$

⑤ 표준오차,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

- $\text{StdErr}(\bar{Y}) = \sqrt{\widehat{V}(\bar{Y})}$: 표준오차의 추정치
 - $z_{\alpha/2} \times \text{StdErr}(\bar{Y})$: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치,
- 95% 신뢰수준의 경우($\alpha=0.05$) $z_{\alpha/2}=1.96$ 임.

[부록 3] 대학생 표본설계¹⁰⁾

I. 모집단 분석

(1) 모집단

본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 전국 대학교 및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2) 모집단 분석

먼저 권역별, 계열별, 학제별 학생수를 <표 [부록3]-1>과 <표 [부록3]-2>에 정리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학생수는 2,947,495명이며 각 학제별 학생수는 대학교 2,206,694명(74.9%), 전문대학 740,801명(25.1%)이다. 계열별로는 인문 294,684명(10.0%), 사회 808,463명(27.4%), 교육 134,943명(4.6%), 공학 809,222명(27.5%), 자연 317,561명(10.8%), 의학 230,661명(7.8%), 예체능 351,961명(11.9%)이다.

표 [부록3]-1 권역×계열별 학생수

권역별	계	계열별 재적 학생수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학	예체능
계	2,947,495	294,684	808,463	134,943	809,222	317,561	230,661	351,961
서울	575,724	91,186	169,984	22,135	146,273	64,053	16,738	65,355
부산/울산/경남	437,827	41,904	116,906	18,521	137,836	47,705	34,504	40,451
대구/경북	352,186	27,099	93,343	17,482	97,374	39,172	40,960	36,756
대전/세종/충청	525,824	49,599	147,347	26,042	137,371	56,457	42,463	66,545
광주/호남	331,434	25,826	82,418	21,207	81,833	36,494	47,606	36,050
경기/인천	555,757	45,075	147,823	20,873	173,494	49,052	27,359	92,081
강원	138,504	11,006	41,208	6,748	30,765	19,758	17,365	11,654
제주	30,239	2,989	9,434	1,935	4,276	4,870	3,666	3,069

10) 표본설계는 2015년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의 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작성하였으며, 통합조사에 참여한 과제에서 공통으로 수록하였음.

표 [부록3]-2 권역×학제별 학생수, 학교수

권역별	계	학제별 재적 학생수		학제별 학교수	
		대학	전문대학	대학	전문대학
계	2,947,495	2,206,694	740,801	201	139
서울	575,724	514,706	61,018	39	9
부산/울산/경남	437,827	330,891	106,936	26	21
대구/경북	352,186	243,777	108,409	22	23
대전/세종/충청	525,824	436,350	89,474	38	16
광주/호남	331,434	248,281	83,153	32	24
경기/인천	555,757	301,476	254,281	33	35
강원	138,504	113,533	24,971	9	9
제주	30,239	17,680	12,559	2	2

II. 표본설계

(1) 표본크기

표본크기는 표본추출방법과 모집단의 특성 및 층화방법 등의 영향을 받지만, 단순임의추출의 상황 하에서 통계분석 단위별로 평균 추정치의 목표오차 d 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s)^2}{Nd^2 + (zs)^2}$$

여기서 N 은 모집단의 크기이고, s 는 관심변수의 표준편차이며, z 은 신뢰계수이다(신뢰수준 95% 하에서 $z = 1.96$ 이다).

조사내용이 비율인 경우에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본크기는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2pq}{Nd^2 + z^2pq}$$

여기서 p 는 비율의 값이며 $q = 1 - p$ 이다.

조사에 따른 소요비용과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도 하는데, 본 연구의 전체 목표 표본크기는 조사의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1,000으로 결정되었다. 이 때 모비율의 추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95% 신뢰수준 하에서 약 $\pm 3.1\%$ 이다. 층화추출의 상황 하에서의 실제 표본오차는 이보다 조금 더 작게 될 것이므로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충분히 허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2) 층화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모집단을 2014년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대학생 현황을 기초로 권역 및 계열, 권역 및 계열 구분을 층화변수로 고려한다. 즉, 층화변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권역구분 : 서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호남, 경기/인천, 강원,
제주(8개)
- 학제구분 : 대학, 전문대학 (2개)
- 계열 :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학, 예체능 (7개)

권역 및 계열을 1,000표본 기준으로 단순비례배분을 할 경우, 특정 층에 너무 작은 표본크기가 할당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곱근비례배분으로 표본크기를 할당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하였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실제 조사된 표본크기는 <표 [부록3]-3>, <표 [부록3]-4>과 같다.

표 [부록3]-3 계열별 모집단크기, 목표 표본크기

학교급		모집단크기	변형비례배분 예상 표본크기
계열	인문	294,684 (10.0%)	123 (12.3%)
	사회	808,463 (27.4%)	207 (20.7%)
	교육	134,943 (4.6%)	87 (8.7%)
	공학	809,222 (27.5%)	206 (20.6%)
	자연	317,561 (10.8%)	132 (13.2%)
	의학	230,661 (7.8%)	111 (11.1%)
	예체능	351,961 (11.9%)	134 (13.4%)
합계		2,947,495 (100.0%)	1,000 (100.0%)

표 [부록3]-4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권역×계열 학생수

권역별	계	계열별 재적 학생수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학	예체능
계	1,000	123	207	87	206	132	111	134
서울	163	26	36	13	33	22	11	22
부산/울산/경남	143	18	29	12	32	19	16	17
대구/경북	129	14	26	11	27	17	17	17
대전/세종/충청	158	19	33	14	32	20	18	22
광주/호남	129	14	25	13	25	17	19	16
경기/인천	158	18	33	12	36	19	14	26
강원	80	9	17	7	15	12	11	9
제주	40	5	8	5	6	6	5	5

* 총계: 1,000명

권역별 학제별의 경우, 권역별 계열별 변형비례배분 시 할당된 권역별 학생수에 대한 학제별 단순비례배분으로 표본크기를 할당하였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실제 조사된 표본크기는 <표 [부록3]-5>, <표 [부록3]-6>과 같다.

표 [부록3]-5 계열별 모집단크기, 목표 표본크기

학교급		모집단크기	단순비례배분 예상 표본크기
계열	대학	2,206,694 (74.9%)	746 (74.6%)
	전문대학	740,801 (25.1%)	254 (25.4%)
합계		2,947,495 (100.0%)	1,000 (100.0%)

표 [부록3]-6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권역×계열 학생수

권역별	계	학제별 재적 학생수	
		대학	전문대학
계	1,000	746	254
서울	163	146	17
부산/울산/경남	143	108	35
대구/경북	129	89	40
대전/세종/충청	158	131	27
광주/호남	129	97	32
경기/인천	158	86	72
강원	80	66	14
제주	40	23	17

* 총계: 1,000명

Ⅲ. 가중치와 모수추정

(1) 가중치 설계

가중치 산정을 위해 다음 변수로 구분된 표집단위별로 모집단과 표본의 사례수 분석

① 권역 : 서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호남, 경기/인천, 강원, 제주

② 계열 :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학, 예체능

※ 권역×계열 표본설계 시 특정 층이 너무 작은 크기로 할당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곱근비례배분을, 권역×학제에는 단순비례배분을 했기에, 가중치 산정에 사용되는 변수에는 학제를 제외하고 권역과 계열만 반영하였다.

(2) 가중치 산정

기본 가중치: 변형비례배분한 권역, 계열을 층화변수로 고려하여 각 표집단위별로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함($j = 1, \dots, n; n = \text{전체 표본크기}$).

$$W_{j(ab)} = \frac{N_{ab}}{n_{ab}}$$

여기서 N_{ab} 와 n_{ab} 는 각 권역, 계열의 조합에 따른 표집단위별 모집단크기와 표본크기를 나타냄.

$$\text{표준화 가중치} = \text{원 가중치} \times \frac{n(\text{표본 크기})}{N(\text{모집단 크기})}$$

(3) 모수추정

① 용어 정의

- Y_{ij} : 관측치 (각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
 - i : 층의 번호 ($i = 1, 2, \dots, I$). 권역×계열에 따른 번호.
 - j : 각 층의 학생의 번호 ($j = 1, 2, \dots, m_{ij}$).
 - m_{ij} : i 번째 층에서 추출된 학생수.
- w_{ij} : 표본 가중치
 - i 번째 층, j 번째 학생에 대한 표본 가중치
- $n = \sum_{j=1}^I \sum_{i=1}^I m_{ij}$: 전체 표본크기.

② 모평균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ij} 가 수치형(numerical) 변수인 경우,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Ratio estimator)으로 계산됨.
- $\bar{Y} = \left(\sum_{i=1}^I \sum_{j=1}^{m_{ij}} w_{ij} Y_{ij} \right) / w...$: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
 - $w... = \sum_{i=1}^I \sum_{j=1}^{m_{ij}} w_{ij}$: 표본 가중치의 합계

③ 모비율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ij} 가 범주형(categorical) 변수인 경우, 각 범주 c_k 에 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이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를 생성함.
- $Y_{ij}^{(c_k)} = I(Y_{ij} = c_k) = \begin{cases} 1, & \text{if } Y_{ij} = c_k \\ 0, & \text{otherwise} \end{cases}$
 - c_k : Y_{ij} 가 가질 수 있는 범주의 값 ($k = 1, \dots, l$)
- 이러한 지시변수 $Y_{ij}^{(c_k)}$ 로부터 모평균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중평균을 계산하여 범주 c_k 의 모비율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함.

[부록 4] 2015 청소년 역량 측정 조사 설문지

DPID ID

과제	교과

 -

학교	

 -

학년

 -

설문지연번	

2015 청소년 역량 측정 조사 [초등학생용]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83조)에 규정되어 있습
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청소년의 인성 함양과 잠재력 계발, 디지털·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연구원에서는 '청소년 역량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의 일환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조사내용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아울러 본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본 조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응답에 대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조사추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실시실행기관:	미디어리서치
담당연구원:	최홍일 전문연구원 (044) 415-2187	조 사 문 의 처:	문희정 부장 (02) 3488-2728
	성은모 부연구위원 (044) 415-2128		



국무총리산하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http://www.nypi.re.kr>

학교 및 학년	학교	학교소재지	시(도)	구(군)
	학년		동(읍/면)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면접일자	2015년 ____월 ____일		

응답 시간	시작시간 : ____시 ____분 / 끝난시간 : ____시 ____분		
응답자 성별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면접원 ID/성명		S/V확인		검증원 확인		코딩원 확인	
-----------	--	-------	--	--------	--	--------	--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④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매우 그렇다’면 ④에, ‘그렇다’면 ③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a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거나 걷는다.	④	③	②	①

☞ 나는 매우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거나 걷기 때문에 ‘④’에 표시했습니다.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2>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a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거나 걷는다.	④	③	②	①

♣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할 때

(예시)다음 답변 문항에 ‘매우 불친절’(-3)하다고 생각하거나 ‘매우 친절’(+3)하다고 생각하면 해당 칸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3	-2	-1	0	+1	+2	+3	
	매우 불친절하다	불친절하다	약간 불친절하다	보통이다	약간 친절하다	친절하다	매우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	친절하다

☞ 나는 매우 친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에 ○표시했습니다.

[사교력]

문1.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어떤 행동이 가져올 전체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2]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의 부분적인 사항들과 최종 목표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3]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논리적인지 또는 믿워지 맞는지를 따져본다	④	③	②	①
[4] 복잡한 글을 읽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④	③	②	①
[5] 나는 어떤 사태에 대해 객관적이고 할만한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평가한다	④	③	②	①
[6] 나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 판단할 때 다양한 방향(관점)에서 생각해 본다	④	③	②	①
[7] 같은 물건이라면, 나는 브랜드와 상관없이 지적장애인들이 만든 상품으로 사겠다	④	③	②	①
[8] 나는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만으로도 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잘 알아차린다	④	③	②	①
[9]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논리적인 판단보다는 감정과 느낌에 따라 판단한다	④	③	②	①

[지적도구활용능력] 언어능력

문2. 언어능력에 관한 각 문항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공식사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말을 정리하여 듣고,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한다	④	③	②	①
[2] 나는 글의 중심내용을 찾아 글본미의 의도나 숨겨진 추제를 파악하며 읽는다	④	③	②	①
[3] 나의 의견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나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④	③	②	①
[4] 나는 국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국어 수업시간이 기다려진다	④	③	②	①
[5] 나는 국어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해 흥미가 있다	④	③	②	①

[지적도구활용능력] 수학능력

문3. 수학능력에 관한 각 문항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활용하여 다양한 계산을 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2] 나는 신문, 잡지, 또는 인터넷 등 우리 주위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표나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3] 나는 신문, 잡지, 또는 인터넷 등 우리 주위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표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4] 나는 수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학 수업 시간이 기다려진다	④	③	②	①
[5] 나는 수학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해 흥미가 있다	④	③	②	①

[지적도구활용능력] 과학능력

문4. 과학능력에 관한 각 문항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자연이나 과학적 현상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관찰, 실험, 조사 등 다양한 탐구활동을 한다	④	③	②	①
[2] 나는 일상생활에서 적용되고 있는 과학적 원리를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3] 나는 자연현상에 대해 과학지식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4] 나는 과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과학 수업시간이 기다려진다	④	③	②	①
[5] 나는 과학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해 흥미가 있다	④	③	②	①
[6] 나는 과학 과목을 배울 때, 그 개념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7] 나는 과학 과목을 금방 배운다	④	③	②	①

[지적도구활용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문5.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에 관한 각 문항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④	③	②	①
[2] 나는 컴퓨터나 인터넷상의 다양한 학습자료(인터넷 강의, 유튜브-TED 동영상, 웹문서 등)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3] 나는 한글,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포토샵, 그림만 등을 이용해 문서, 그림, 동영상 등을 작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4]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SNS(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해 공유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학습적응성]

문6.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학습할 때 내 주변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④	③	②	①
[2] 새로 출시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는 사용한다	④	③	②	①
[3] 나는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④	③	②	①
[4] 나는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한다	④	③	②	①
[5]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이후에도 그 성공요인을 찾아낸다	④	③	②	①
[6]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실패했다면, 그 실패 원인을 분석한다	④	③	②	①
[7]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는다	④	③	②	①

[진로설계]

문7.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생각한다	④	③	②	①
[2] 나는 나에게 대하여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	④	③	②	①
[3] 나의 성격에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안다	④	③	②	①
[4] 내가 관심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④	③	②	①
[5]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성공한 삶을 소개한 책을 읽어본다	④	③	②	①
[6] 관심 있는 직업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에서 여러 정보를 검색한다	④	③	②	①
[7] 나의 창래희망과 관련된 직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 본다	④	③	②	①
[8]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 본다	④	③	②	①
[9] 돈과 관계없이 일을 하는 것 자체에서 행복을 느낀다	④	③	②	①
[10]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았다	④	③	②	①
[11] 현실이 어렵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도전하는 삶이 가치 있다	④	③	②	①
[12] 나는 부모님이 내 창래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는지 안다	④	③	②	①
[13] 내가 원하는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 관련된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④	③	②	①
[14] 내가 원하는 직업(전공)을 갖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④	③	②	①
[15] 나는 나의 할 일을 스스로 해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④	③	②	①

문8. 여러분들은 자신의 적성이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 검사에 참여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①	①	②	③

[여가활동]

문9.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여기(취미)활동은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④	③	②	①
[2] 여기(취미)활동은 중요하다	④	③	②	①
[3] 여기(취미)활동은 내게 즐거운 경험들을 제공해준다	④	③	②	①
[4] 여기(취미)활동은 상쾌함을 느끼게 한다	④	③	②	①
[5] 바쁘더라도 여기(취미)활동에 참여한다	④	③	②	①
[6] 나의 여기(취미)활동을 배우고 준비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싶다	④	③	②	①
[7] 여가시간에 친구들끼리 모여 스포츠활동을 할 때, 나는 내가 그 무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④	③	②	①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8] 내가 특별히 여가시간에 즐겨 할 만한 운동기술이 있다	④	③	②	①
[9] 나는 내가 하는 거의 모든 여가활동에 능숙하다	④	③	②	①
[10] 친구들과끼리 스포츠경기를 하게 되면 나는 보통 이기는 편이다	④	③	②	①
[11] 내가 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매우 흥미롭다	④	③	②	①
[12] 여가활동은 나에게 무엇인가 이루어냈다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④	③	②	①
[13] 나는 여가활동을 하는 동안 내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을 느낀다	④	③	②	①
[14] 나는 여가활동을 할 때 정신집중이 잘 된다	④	③	②	①
[15] 나는 여가활동을 하는 동안 상당히 몰입하게 된다	④	③	②	①
[16] 나는 여가활동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가끔 시간 감각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④	③	②	①

문10. 여러분들은 취미활동(여가활동)을 일주일에 몇 시간정도 합니까?

없음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①	①	②	③	④

[개척정신]

문11.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내가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면 다른 사람들이 독특하다는 소릴 자주한다	④	③	②	①
[2] 같은 사물, 현상을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바라볼 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많다	④	③	②	①
[3]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쉽게 따라하지 않는다	④	③	②	①
[4] 나는 늘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 맞서 대들거나 반대하는 편이다	④	③	②	①
[5] 나는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6] 나는 전혀 경험이 없는 새로운 과제와 임무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④	③	②	①
[7] 나는 계속적으로 변화거나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④	③	②	①
[8] 나는 변화가 별로 없는 안정적인 환경을 좋아한다	④	③	②	①

[관계형성]

문12.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나의 고민에 대해 의논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2]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3]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내 행동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행동한다	④	③	②	①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4] 나는 새로운 친구에게 나에게 대해 그대로를 말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5] 나는 모르는 사람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다	④	③	②	①
[6] 나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직접 소개한다	④	③	②	①
[7] 나는 관심 있는 새로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함께 하かと 제한하기도 한다	④	③	②	①
[8] 나는 새로운 사람을 알아 가는 것이 재미있다	④	③	②	①
[9] 나는 상대방의 눈을 보며 대화한다	④	③	②	①
[10] 나는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말기 위해 질문을 한다	④	③	②	①
[11] 나는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정을 살피며 듣는다	④	③	②	①
[12] 나는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확인한다	④	③	②	①
[13]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이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 한다	④	③	②	①
[14] 나는 상대방과 의견차이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눌 수 있다	④	③	②	①
[15] 나는 다른 사람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④	③	②	①
[16] 나는 상대방이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	④	③	②	①
[17] 나는 바쁜 일이 있어도, 화가 난 친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다	④	③	②	①
[18]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한다	④	③	②	①

[리더십]

문13.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의사결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본다	④	③	②	①
[2]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의사결정을 위한 여러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기준을 정한다	④	③	②	①
[3] 나는 내가 속한 그룹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우선순위를 생각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④	③	②	①
[4]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방법이 더 좋은 지 비교해 본다	④	③	②	①
[5] 나는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모임 또는 활동을 할 때, 주로 이끌어 나간다	④	③	②	①
[6]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각 구성원들의 역할을 골고루 잘 나눈다	④	③	②	①
[7] 나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화롭게 조정한다	④	③	②	①
[8]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활동목표를 제시하고 친구들을 이끌 수 있다	④	③	②	①
[9]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목표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정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10]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계획을 실행할 때 발생할 어려움에 철저히 대비한다	④	③	②	①
[11]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계획을 실행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간다	④	③	②	①
[12]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명확하게 정하고 일을 추진한다	④	③	②	①
[13]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들의 능력과 의지를 생각하며 일을 추진한다	④	③	②	①
[14]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본다	④	③	②	①

[협동]

문14.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의 장점이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말려 준다	④	③	②	①
(2)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어려워하면 기꺼이 돕는다	④	③	②	①
(3)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④	③	②	①
(4)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④	③	②	①
(5) 나는 그룹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의미있는 일이라는 것을 친구에게 이야기 한다	④	③	②	①
(6)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④	③	②	①
(7) 나는 그룹 활동을 할 때,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④	③	②	①
(8) 나는 그룹의 리더가 아니더라도 많은 일보다 많은 일을 하여 그룹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④	③	②	①
(9) 나는 내가 속한 그룹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④	③	②	①
(10)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한다	④	③	②	①
(11) 나는 그룹의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④	③	②	①
(12)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를 친구들과 자주 이야기한다	④	③	②	①
(13)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친구들과 함께 해결한다	④	③	②	①
(14)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④	③	②	①

[건강관리]

문15. 자신의 건강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태도와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식사 전이나 외출 후, 화장실에 다녀온 후 비누로 손을 씻는다	④	③	②	①
(2) 속옷을 1~2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갈아입는다	④	③	②	①
(3) 식사 후에는 대부분 양치질을 한다	④	③	②	①
(4) 건강을 위해 음식이나 운동, 생활 습관 등을 조절한다	④	③	②	①
(5)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거나 걷는다	④	③	②	①
(6) 몸에 난 상처에 대한 응급치료 방법을 알고 있다	④	③	②	①
(7) 병 유형에 따라 기약할 병원의 종류(예: 외과, 내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를 알고 있다	④	③	②	①
(8)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수칙이나 규칙을 잘 지킨다	④	③	②	①
(9)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④	③	②	①
(10)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일이나 공부를 하는 중간 중간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④	③	②	①
(11)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적절한 여가 생활을 가지고 있다	④	③	②	①

[과제관리]

문16.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행동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루어야 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운다	④	③	②	①
(2) 목표를 세울 때 주변의 어른이나 친구들의 의견을 참고한다	④	③	②	①
(3) 목표를 세우기 위해 주변의 다양한 정보를 참고한다	④	③	②	①
(4) 이루어야 할 목표가 여러 가지일 때 먼저 이루어야 하는 목표들의 순서를 정한다	④	③	②	①
(5)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세운다	④	③	②	①
(6)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다	④	③	②	①
(7)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거나 밀요가 있다면 그에 따라 계획을 수정한다	④	③	②	①
(8)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운다	④	③	②	①
(9) 나는 일을 하는 중간 중간 목표에 맞게 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점검해 본다	④	③	②	①
(10) 어떤 일을 마치고 난 후 내가 세웠던 목표를 이루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본다	④	③	②	①
(11) 어떤 일을 마치고 난 후 내가 세운 계획에 맞게 일을 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본다	④	③	②	①
(12) 어떤 일을 마치고 난 후 그 일의 결과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음 할 일에 반영한다	④	③	②	①

[상황대처]

문17. 술, 담배, 금지된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사용에 있어 한 가지 이상 대해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에 중독성이 있다	④	③	②	①
(2)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④	③	②	①
(3)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은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도움이 된다	④	③	②	①
(4)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들을 지나치게 자주 또는 오래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④	③	②	①
(5)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하지 않을 때는 자꾸 생각이 난다	④	③	②	①
(6)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그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중에도 어쩔 수 없이 계속 하게 된다	④	③	②	①
(7)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한 번 시작하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	④	③	②	①
(8)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으로 인해 내 생활(일, 공부, 수면 등)이 방해를 받을 때가 있다	④	③	②	①
(9)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몰래한다	④	③	②	①
(10)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게 된다	④	③	②	①

문18. 인터넷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내 힘을 자랑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이 있다	④	③	②	①
[2] 별다른 이유 없이 단지 재미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이 있다(인터넷에 악플을 달거나 욕을 한 적이 있다).	④	③	②	①
[3] 폭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에게 맞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④	③	②	①
[4] 내가 피해를 볼까봐 친구가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것을 모른 척 한다	④	③	②	①
[5] 누군가 나(또는 다른 친구)를 괴롭힐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 참는다	④	③	②	①
[6]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	④	③	②	①

[정서조절]

문19.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면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른다	④	③	②	①
[2]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면 물건을 집어던진다	④	③	②	①
[3]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지나친 표현이나 행동은 자제한다	④	③	②	①
[4] 나는 갑자기 슬프거나 힘든 일을 당해도 침착하게 잘 이겨낸다	④	③	②	①
[5] 작은 일에도 나의 기분은 쉽게 변한다	④	③	②	①
[6] 기분에 따라 행동이 크게 변한다	④	③	②	①
[7] 내 기분에 휩싸여 내 말이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렵다	④	③	②	①
[8]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을 분명히 알고 있다	④	③	②	①
[9]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 상태에 주의를 기울인다	④	③	②	①

[개인시민성]

문20.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법이 불공정하다면 사람들은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③	②	①
[2] 사람들은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④	③	②	①
[3]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④	③	②	①
[4] 모든 사람들은 정치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④	③	②	①
[5]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한 두 사람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④	③	②	①
[6] 어떻게 해서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면 되었지 민주주의를 꼭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④	③	②	①

문21. 여러분은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문항	매우 관심있음	관심있음	관심없음	전혀 관심없음
[1]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내용	④	③	②	①
[2]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내용	④	③	②	①
[3] 환경에 대한 내용	④	③	②	①

문22.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포래 친구들에 비해 정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④	③	②	①
[2] 정치 내용이나 정치 문제를 토론할 때, 나는 항상 토론에 참여 한다	④	③	②	①
[3] 나는 남들이 귀기울일만한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	④	③	②	①
[4] 어른이 되면, 나는 정치에 참여할 것이다	④	③	②	①
[5] 나는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 문제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	④	③	②	①

[공동체 시민성]

문23. 아래의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최근에 철수는 감옥에서 석방되었다. 그는 남의 집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3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 석방된 후 철수는 영희라는 사람의 옆집으로 이사를 했다. 영희는 "철수가 우리집 물건을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옆집으로 이사와서는 안된다."라고 말한다.

문23-1. 철수가 영희의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해야만 하는 가장 알맞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철수는 자신의 죄 값을 치렀으므로 미움이 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 ② 철수가 옆집 물건을 훔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 ③ 만약 주변 사람들이 철수를 잘 대우해 준다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철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영희에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문23-2. 철수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영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②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③ 영희는 자신과 철수의 권리가 다른 사람들의 권리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④ 영희는 자신과 철수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24. 아래의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어느 날 한 노인이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고 길을 건너고 있었다. 교통경찰이 이를 발견하고 노인에게로 갔다. 그런데 그 노인은 그 경찰의 친한 친구 부모님이었다. 그 경찰은 다음의 두 가지 선택에 대해 갈등하고 있다.

- (1) 친구 부모님의 교통위반을 적발하여 벌금을 매기는 것
- (2) 친구 부모님의 교통위반을 모른척하는 것

[예시] 예를 들어, 다음 답변 문항에 '매우 불친절'(-3)하다고 생각하거나 '매우 친절'(+3)하다고 생각하면 해당 칸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3	-2	-1	0	+1	+2	+3	
	매우 불친절하다	불친절하다	약간 불친절하다	보통이다	약간 친절하다	친절하다	매우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	친절하다

문24-1. '교통경찰이 친구 부모님의 교통위반을 적발해서 벌금을 매긴다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3	-2	-1	0	+1	+2	+3	
개인적이다								공적이다
나쁘다								좋다
비인간적이다								인간적이다
비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인정이 없다								인정있다
불공정하다								공정하다
너그럽지 않다								너그럽다
무원칙적이다								원칙적이다

문24-2. '교통경찰이 친구 부모님의 교통위반을 모른척 눈감아 준다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3	-2	-1	0	+1	+2	+3	
개인적이다								공적이다
나쁘다								좋다
비인간적이다								인간적이다
비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인정이 없다								인정있다
불공정하다								공정하다
너그럽지 않다								너그럽다
무원칙적이다								원칙적이다

문25. 여러분이 어른이 되면, 아래에 제시된 정치적 활동에 얼마나 참여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문항	확실히 참여함	아마도 참여함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확실히 참여하지 않음
[1] 투표참여	④	③	②	①
[2] 투표하기 전 후보자에 대한 정보 수집	④	③	②	①
[3]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나 정당을 돕기	④	③	②	①
[4] 정치단체 가입	④	③	②	①
[5] 노동조합 가입	④	③	②	①
[6] 지역 및 시 선출직 후보 출마	④	③	②	①

문26. 여러분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다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매우 중요함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불공정한 법에 대한 평화적 항의	④	③	②	①
[2] 지역공동체에 유익한 활동	④	③	②	①
[3] 인권증진운동	④	③	②	①
[4] 환경보호운동	④	③	②	①

문27. 시민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정치적 반대 의견 항목에 대해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 앞으로 참여하실지 말씀해 주세요.

문항	확실히 참여함	아마도 참여함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확실히 참여하지 않음
[1]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리본이나 배지 달기	④	③	②	①
[2] 비폭력 집회 참여	④	③	②	①
[3] 신청서에 서명하기	④	③	②	①
[4] 상품 불매 운동하기	④	③	②	①
[5] 벽에 항의 포스터/스프레이/페인팅하기	④	③	②	①

문28. 여러분이 학교 봉사, 학급봉사 및 자원봉사 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는지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전혀 참여한 적이 없다	1년에 1-2회	2달에 한 번 정도	1달에 한 번 정도
①	②	③	④

문29.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재탈용품 분리수거를 꼭 지킨다	④	③	②	①
[2] 나에게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입양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3] 나는 자녀가 있어도 입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④	③	②	①

문30.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지역사회, 동호회 등)에서 하는 활동이 당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지는 않지만, 당신의 이웃이나 동료에게는 이익을 준다면 그 활동에 시간이나 돈을 투자할 의사가 있습니까?

문항	있다	없다
[1] 내 시간을 투자 할 생각이 있다	①	②
[2] 내 돈을 투자 할 생각이 있다	①	②

문31. 여러분은 다음에 제시되는 집단이나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문항	매우 신뢰함	신뢰함	신뢰하지 않음	전혀 신뢰하지 않음
[1] 가족	④	③	②	①
[2] 친구	④	③	②	①
[3] 이웃	④	③	②	①
[4] 낯선 사람(한국인)	④	③	②	①
[5] 낯선 사람(외국인)	④	③	②	①

문32. 여러분은 다음의 기관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문항	매우 신뢰함	신뢰함	신뢰하지 않음	전혀 신뢰하지 않음
[1] 정부	④	③	②	①
[2] 법원	④	③	②	①
[3] 경찰	④	③	②	①
[4] 정당	④	③	②	①
[5] 국회	④	③	②	①
[6] 미디어(TV, 언론사, 라디오)	④	③	②	①
[7] 군대	④	③	②	①
[8] 학교	④	③	②	①

문33. 수업시간에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토론할 때, 다음에 제시된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문항	종종 일어남	때때로 일어남	일부 일어남	전혀 일어나지 않음
[1] 학생들은 공개적으로 선생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③	②	①
[2] 학생들은 현재의 정치적 사건을 학급차원에서 토론한다	④	③	②	①
[3] 다른 학생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학급에서 자기의견을 표명한다	④	③	②	①
[4]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이슈를 토론하도록 권장한다	④	③	②	①
[5] 선생님들이 학급에서 이슈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준다	④	③	②	①

[세계 시민성]

문34.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가족의 생계문제는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	④	③	②	①
[2] 여성의 우선적 책무는 아이를 보육하는데 있다	④	③	②	①
[3] 남녀가 함께 일하는 직장 부서의 책임자는 남자가 맡는 것이 좋다	④	③	②	①
[4] 이민자들의 자녀도 그 나라의 아이들과 동일한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	④	③	②	①
[5] 수년 동안 살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④	③	②	①

문35. 여러분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것을 얼마나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가능한 많이	어느 정도	아주 약간만	절대로 안된다
[1] 외국에 있는 우리 민족 후손들[예: 고려인, 조선족 등]	④	③	②	①
[2] 우리 민족이 아닌 외국인이나 소수민족	④	③	②	①
[3] 빈곤국가[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④	③	②	①

문36. 만일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외국에 있다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돌아와서 전쟁을 돕는다	외국에서 일을 정리한 후 귀국여부를 결정한다	외국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개인 사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④	③	②	①

문37. 애국가가 들릴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결정된 마음이 든다	우리나라 국기, 애국가라는 생각 외에 별 감동이 없다	어색한 생각이 든다	별 생각에 들지 않는다
④	③	②	①

문38.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하여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욱 있다고 본다	비슷한 것 같다	덜한 것 같다	매우 덜하다
④	③	②	①

문39.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는 되도록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을 사야한다	④	③	②	①
[2] 안전 요원은 국가 안전을 위협할 용의자[예: 간첩 등]라고 여겨지는 사람의 편지나 전화, 이메일을 체크할 수 있다	④	③	②	①
[3] 국가 안전에 엄청난 위협을 느낄 때, 정부는 언론 출판을 통제할 권력을 가져야 한다	④	③	②	①
[4] 우리나라는 우리가 성취한 것들에 대해 다른 나라의 존경을 받을만하다	④	③	②	①

문40. 여러분은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문항	매우 관심 많음	관심 많음	관심 없음	전혀 관심 없음
[1] 다른 나라들의 정치·사회적 문제	④	③	②	①
[2] 국가 간 갈등에 대한 신문기사 등	④	③	②	①

41.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외국인과 잘 지내는데 큰 문제가 없다	④	③	②	①
[2] 나는 외국을 방문할 때 그 나라에 적합한 매너와 문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학습한다	④	③	②	①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 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경문항 1. 응답자(학생)가 태어난 년도는 언제입니까? _____년도

배경문항 2. 응답자(학생)의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_____시/도 ② _____시/군/구 ③ _____동/읍/면

☞ 살고 있는 곳이 대도시인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라면 서울 ○/도 서초 시/군/구 ○ 우면 ○/읍/면으로 표기

☞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인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이라면 충청남도 ○ 아산 ○/군/구 배방 동/읍/면으로 표기

배경문항 3.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 ① [외]할아버지 ② [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새아버지 ⑥ 새어머니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친척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⑩ 없음

배경문항 4. 부모님(보호자)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보호자)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 보호자는 부모님 이외 현재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는 분을 말합니다.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②)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보호자) 학 계	학교 안다름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보호자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배경문항 5.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에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가족들(부모님, 형제자매)과 책을 읽고 대화한 경험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④	③	②	①
[2] 아버지는 내게 지적자극을 많이 주신다	④	③	②	①
[3] 어머니는 내게 지적자극을 많이 주신다	④	③	②	①
[4] 아버지의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는다	④	③	②	①
[5] 어머니의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는다	④	③	②	①
[6] 부모님은 학원선정이나 학습 계획을 세심하게 관리해 주신다	④	③	②	①
[7] 아버지는 나의 공부 및 삶의 태도에 모범이 되신다	④	③	②	①
[8] 어머니는 나의 공부 및 삶의 태도에 모범이 되신다	④	③	②	①

배경문항 6. 여러분은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걱정거리가 없이 즐겁다	④	③	②	①
[2]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④	③	②	①
[3] 나는 사는 게 즐겁다	④	③	②	①
[4] 나는 학업성적에 대해 만족한다	④	③	②	①

배경문항 7. 여러분의 2015년 1학기 중간고사 평균 점수는 다음의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60점 이하	61~65점	66~70점	71~75점	76~80점	81~85점	86~90점	91~95점	96~100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배경문항 8.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높은 수준			보통 수준			낮은 수준 →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DPID 

|  |  |  |  |  |
|--|--|--|--|--|
|  |  |  |  |  |
|--|--|--|--|--|

 ID 

| 과제 | 교과 |
|----|----|
|    |    |

 - 

| 학교 |  |
|----|--|
|    |  |

 - 

| 학년 |
|----|
|    |

 - 

| 설문지연번 |  |
|-------|--|
|       |  |

**2015 청소년 역량 측정 조사**  
[중·고등학생용]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전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청소년의 인성 함양과 잠재력 제발, 디지털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연구원에서는 ‘청소년 역량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의 일환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조사내용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아울러 본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본 조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응답에 대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         |                                                      |         |                       |
|---------|------------------------------------------------------|---------|-----------------------|
| 조사추진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실사진행기관: | 미디어리서치                |
| 담당연구자:  | 최홍일 전문연구원 (044) 415-2187<br>성은모 부연구위원 (044) 415-2128 | 조사문의처:  | 문희정 부장 (02) 3488-2728 |



국무총리산하국책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http://www.nypi.re.kr>

|         |                      |       |                                       |
|---------|----------------------|-------|---------------------------------------|
| 학교 및 학년 | _____ 학교<br>_____ 학년 | 학교소재지 | _____ 시(도) _____ 구(군)<br>_____ 동(읍/면) |
|---------|----------------------|-------|---------------------------------------|

|        |                   |         |  |
|--------|-------------------|---------|--|
| 응답자 성명 |                   | 응답자 연락처 |  |
| 면접날짜   | 2015년 ____월 ____일 |         |  |

|        |                                         |      |      |
|--------|-----------------------------------------|------|------|
| 응답 시간  | 시작시간 : ____시 ____분 / 끝난시간 : ____시 ____분 |      |      |
| 응답자 성별 |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 ② 여자 |

|              |       |        |        |
|--------------|-------|--------|--------|
| 면접원<br>ID/성명 | S/V확인 | 검증원 확인 | 코딩원 확인 |
|--------------|-------|--------|--------|



##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④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매우 그렇다’면 ④에, ‘그렇다’면 ③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동그라미(○)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보기1>

|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br>않다 | 전혀<br>그렇지<br>않다 |
|--------------------------|-----------|-----|-----------|-----------------|
| a.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거나 걷는다. | ④         | ③   | ②         | ①               |

☞ 나는 매우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거나 걸기 때문에 ‘④’에 표시했습니다.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O)로 표시해 주십시오.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 7|2>

|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br>않다 | 전혀<br>그렇지<br>않다 |
|--------------------------|--------------|-----|-----------|-----------------|
| a.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거나 걷는다. | <del>①</del> | ③   | ②         | ①               |

## ♣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할 때

(예시)다음 답변 문항에 ‘매우 불친절’(-3)하다고 생각하거나 ‘매우 친절’(+3)하다고 생각하면 해당 칸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3          | -2    | -1          | 0    | +1         | +2   | +3         |      |
|       | 매우<br>불친절하다 | 불친절하다 | 약간<br>불친절하다 | 보통이다 | 약간<br>친절하다 | 친절하다 | 매우<br>친절하다 |      |
| 불친절하다 |             |       |             |      |            |      | 0          | 친절하다 |

☞ 나는 매우 친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에 ○표시했습니다.

**[사교력]**

문1.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br>않다 | 전혀<br>그렇지<br>않다 |
|----------------------------------------------------------|-----------|-----|-----------|-----------------|
| (1) 나는 어떤 행동이 가져올 전체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2)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의 부분적인 사항들과 최종 목표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3)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논리적인지 또는 앞뒤가 맞는지를 따져본다        | ④         | ③   | ②         | ①               |
| (4) 복잡한 글을 읽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④         | ③   | ②         | ①               |
| (5) 나는 어떤 사태에 대해 객관적이고 알맞은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평가한다            | ④         | ③   | ②         | ①               |
| (6) 나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 판단할 때 다양한 방향(관점)에서 생각해 본다              | ④         | ③   | ②         | ①               |
| (7) 같은 물건이라면, 나는 브랜드와 상관없이 지적장애인들이 만든 상품으로 사겠다           | ④         | ③   | ②         | ①               |
| (8) 나는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만으로도 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잘 알아차린다         | ④         | ③   | ②         | ①               |
| (9)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논리적인 판단보다는 감정과 느낌에 따라 판단한다          | ④         | ③   | ②         | ①               |

**[지적도구활용능력] 언어능력**

문2. 언어능력에 관한 각 문항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br>않다 | 전혀<br>그렇지<br>않다 |
|--------------------------------------------------------------------|-----------|-----|-----------|-----------------|
| (1) 나는 공적사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말을 정리하여 듣고,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한다               | ④         | ③   | ②         | ①               |
| (2) 나는 글의 중심내용을 찾아 글쓴이의 의도나 숨겨진 주제를 파악하며 읽는다                       | ④         | ③   | ②         | ①               |
| (3) 나의 의견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나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4) 나는 국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국어 수업시간이 기다려진다                                 | ④         | ③   | ②         | ①               |
| (5) 나는 국어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해 흥미가 있다                                      | ④         | ③   | ②         | ①               |

**[지적도구활용능력] 수학능력**

문3. 수학능력에 관한 각 문항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br>않다 | 전혀<br>그렇지<br>않다 |
|------------------------------------------------------------------|-----------|-----|-----------|-----------------|
| (1) 나는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활용하여 다양한 계산을 할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2) 나는 신문, 잡지, 또는 인터넷 등 우리 주위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표나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3) 나는 신문, 잡지, 또는 인터넷 등 우리 주위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표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4) 나는 수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학 수업 시간이 기다려진다                              | ④         | ③   | ②         | ①               |
| (5) 나는 수학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해 흥미가 있다                                    | ④         | ③   | ②         | ①               |

**[지적도구활용능력] 과학능력**

문4. 과학능력에 관한 각 문항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1] 나는 자연이나 과학적 현상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관찰, 실험, 조사 등 다양한 탐구활동을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2] 나는 일상생활에서 적용되고 있는 과학적 원리를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3] 나는 자연현상에 대해 과학지식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4] 나는 과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과학 수업시간이 기다려진다                           | ④         | ③   | ②      | ①            |
| [5] 나는 과학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해 흥미가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6] 나는 과학 과목을 배울 때, 그 개념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7] 나는 과학 과목을 금방 배운다                                         | ④         | ③   | ②      | ①            |

**[지적도구활용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문5.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에 관한 각 문항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1] 나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2] 나는 컴퓨터나 인터넷상의 다양한 학습자료(인터넷 강의, 유튜브-TED 동영상, 웹문서 등)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3] 나는 한글,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포토샵, 그림만 등을 이용해 문서, 그림, 동영상 등을 작성 하거나 편집할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4] 내기 가지고 있는 정보를 SNS(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해 공유할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학습적응성]**

문6.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1] 나는 학습할 때 내 주변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 ④         | ③   | ②      | ①            |
| [2] 새로 출시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는 사용한다 | ④         | ③   | ②      | ①            |
| [3] 나는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 ④         | ③   | ②      | ①            |
| [4] 나는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한다              | ④         | ③   | ②      | ①            |
| [5]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이후에도 그 성공요인을 찾아낸다                  | ④         | ③   | ②      | ①            |
| [6]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실 패했다면, 그 실패 원인을 분석한다                | ④         | ③   | ②      | ①            |
| [7] 나는 내기 한 일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는다                       | ④         | ③   | ②      | ①            |

## [진로설계]

문7.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1]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생각한다           | ④         | ③   | ②      | ①            |
| [2] 나는 나에게 대하여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            | ④         | ③   | ②      | ①            |
| [3] 나의 성격에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만다                   | ④         | ③   | ②      | ①            |
| [4] 내가 관심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만다                     | ④         | ③   | ②      | ①            |
| [5]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성공한 삶을 소개한 책을 읽어본다  | ④         | ③   | ②      | ①            |
| [6] 관심 있는 직업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에서 여러 정보를 검색한다 | ④         | ③   | ②      | ①            |
| [7] 나의 창래희망과 관련된 직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 본다        | ④         | ③   | ②      | ①            |
| [8]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 본다      | ④         | ③   | ②      | ①            |
| [9] 돈과 관계없이 일을 하는 것 자체에서 행복을 느낀다            | ④         | ③   | ②      | ①            |
| [10]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았다         | ④         | ③   | ②      | ①            |
| [11] 현실이 어렵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도전하는 삶이 가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12] 나는 부모님이 내 창래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는지 만다          | ④         | ③   | ②      | ①            |
| [13] 내가 원하는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 관련된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14] 내가 원하는 직업(전공)을 갖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15] 나는 나의 할 일을 스스로 해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 ④         | ③   | ②      | ①            |

문8. 여러분들은 자신의 적성이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 검사에 참여해본 적이 있습니까?

| 없음 | 1회 | 2회 | 3회 이상 |
|----|----|----|-------|
| ①  | ①  | ②  | ③     |

## [여가활동]

문9.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1] 어기(취미)활동은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 ④         | ③   | ②      | ①            |
| [2] 어기(취미)활동은 중요하다                                             | ④         | ③   | ②      | ①            |
| [3] 어기(취미)활동은 내게 즐거운 경험들을 제공해준다                                | ④         | ③   | ②      | ①            |
| [4] 어기(취미)활동은 상쾌함을 느끼게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5] 바쁘더라도 어기(취미)활동에 참여한다                                       | ④         | ③   | ②      | ①            |
| [6] 나의 어기(취미)활동을 배우고 준비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싶다                          | ④         | ③   | ②      | ①            |
| [7] 여가시간에 친구들끼리 모여 스포츠활동을 할 때, 나는 내가 그 무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④         | ③   | ②      | ①            |
| [8] 내가 특별히 여가시간에 즐겨 할 만한 운동기술이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9] 나는 내가 하는 거의 모든 여가활동에 능숙하다                  | ④         | ③   | ②      | ①            |
| [10] 친구들과끼리 스포츠경기를 하게 되면 나는 보통 이기는 편이다         | ④         | ③   | ②      | ①            |
| [11] 내가 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매우 흥미롭다                    | ④         | ③   | ②      | ①            |
| [12] 여가활동은 나에게 무엇인가 이루어냈다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3] 나는 여가활동을 하는 동안 내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을 느낀다      | ④         | ③   | ②      | ①            |
| [14] 나는 여가활동을 할 때 정신집중이 잘 된다                   | ④         | ③   | ②      | ①            |
| [15] 나는 여가활동을 하는 동안 상당히 몰입하게 된다                | ④         | ③   | ②      | ①            |
| [16] 나는 여가활동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가끔 시간 감각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 ④         | ③   | ②      | ①            |

문10. 여러분들은 취미활동(여가활동)을 일주일에 몇 시간정도 합니까?

| 없음 | 1시간 미만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3시간 이상 |
|----|--------|---------------|---------------|--------|
| ①  | ①      | ②             | ③             | ④      |

#### [개척정신]

문11.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1] 내가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면 다른 사람들이 독특하다는 소릴 자주한다               | ④         | ③   | ②      | ①            |
| [2] 같은 사물, 현상을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바라볼 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많다 | ④         | ③   | ②      | ①            |
| [3]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쉽게 따라하지 않는다                       | ④         | ③   | ②      | ①            |
| [4] 나는 늘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 맞서 대들거나 반대하는 편이다                        | ④         | ③   | ②      | ①            |
| [5] 나는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6] 나는 전혀 경험이 없는 새로운 과제와 임무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 ④         | ③   | ②      | ①            |
| [7] 나는 계속적으로 변화거나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 ④         | ③   | ②      | ①            |
| [8] 나는 변화가 별로 없는 안정적인 환경을 좋아한다                               | ④         | ③   | ②      | ①            |

#### [관계형성]

문12.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1]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나의 고민에 대해 의논할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2]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3]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내 행동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행동한다 | ④         | ③   | ②      | ①            |
| [4] 나는 새로운 친구에게 나에게 대해 그대로를 말할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5] 나는 모르는 사람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6] 나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직접 소개한다                 | ④         | ③   | ②      | ①            |
| [7] 나는 관심 있는 새로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함께 하라고 제안하기도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8] 나는 새로운 사람을 알아 가는 것이 재미있다                       | ④         | ③   | ②      | ①            |
| [9] 나는 상대방의 눈을 보며 대화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0] 나는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을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1] 나는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정을 살피며 듣는다                      | ④         | ③   | ②      | ①            |
| [12] 나는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확인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3]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이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4] 나는 상대방과 의견차이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눌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15] 나는 다른 사람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6] 나는 상대방이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7] 나는 바쁜 일이 있어도, 화가 난 친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다         | ④         | ③   | ②      | ①            |
| [18]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한다         | ④         | ③   | ②      | ①            |

### [리더십]

문13.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1]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의사결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본다              | ④         | ③   | ②      | ①            |
| [2]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의사결정을 위한 여러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기준을 정한다 | ④         | ③   | ②      | ①            |
| [3] 나는 내가 속한 그룹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우선순위를 생각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4]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방법이 더 좋은 지 비교해 본다      | ④         | ③   | ②      | ①            |
| [5] 나는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모임 또는 활동을 할 때, 주로 이끌어 나간다          | ④         | ③   | ②      | ①            |
| [6]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각 구성원들의 역할을 골고루 잘 나눈다               | ④         | ③   | ②      | ①            |
| [7] 나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화롭게 조정한다                  | ④         | ③   | ②      | ①            |
| [8]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활동목표를 제시하고 친구들을 이끌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9]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목표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정할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10]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계획을 실행할 때 발생할 어려움에 철저히 대비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1]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계획을 실행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간다     | ④         | ③   | ②      | ①            |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12]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명확하게 정하고 일을 추진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3]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들의 능력과 의지를 생각하며 일을 추진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4]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본다 | ④         | ③   | ②      | ①            |

**[협동]**

문14.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1]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의 장점이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알려 준다             | ④         | ③   | ②      | ①            |
| [2]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어려워하면 기꺼이 돕는다                    | ④         | ③   | ②      | ①            |
| [3]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④         | ③   | ②      | ①            |
| [4]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 ④         | ③   | ②      | ①            |
| [5] 나는 그룹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의미있는 일이라는 것을 친구에게 이야기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6]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④         | ③   | ②      | ①            |
| [7] 나는 그룹 활동을 할 때,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 ④         | ③   | ②      | ①            |
| [8] 나는 그룹의 리더가 아니더라도 많은 일보다 많은 일을 하여 그룹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9] 나는 내가 속한 그룹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0]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1] 나는 그룹의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2]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를 친구들과 자주 이야기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3]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친구들과 함께 해결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4]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 ④         | ③   | ②      | ①            |

**[건강관리]**

문15. 자신의 건강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태도와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1] 식사 전이나 외출 후, 화장실에 다녀온 후 비누로 손을 씻는다 | ④         | ③   | ②      | ①            |
| [2] 속옷을 1~2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갈아입는다         | ④         | ③   | ②      | ①            |
| [3] 식사 후에는 대부분 양치질을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4] 건강을 위해 음식이나 운동, 생활 습관 등을 조절한다      | ④         | ③   | ②      | ①            |

|                                                         |   |   |   |   |
|---------------------------------------------------------|---|---|---|---|
| [5]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거나 걷는다                                | ④ | ③ | ② | ① |
| [6] 몸에 난 상처에 대한 응급치료 방법을 알고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7] 병 유형에 따라 가야할 병원의 종류(예: 외과, 내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를 알고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8]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수칙이나 규칙을 잘 지킨다                         | ④ | ③ | ② | ① |
| [9]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10]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일이나 공부를 하는 중간 중간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1]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적절한 여가 생활을 가지고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과제관리]

문16.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행동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1]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루어야 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운다         | ④         | ③   | ②      | ①            |
| [2] 목표를 세울 때 주변의 어른이나 친구들의 의견을 참고한다               | ④         | ③   | ②      | ①            |
| [3] 목표를 세우기 위해 주변의 다양한 정보를 참고한다                   | ④         | ③   | ②      | ①            |
| [4] 이루어야 할 목표가 여러 가지일 때 먼저 이루어야 하는 목표들의 순서를 정한다   | ④         | ③   | ②      | ①            |
| [5]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세운다            | ④         | ③   | ②      | ①            |
| [6]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다          | ④         | ③   | ②      | ①            |
| [7]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거나 밀요가 있다면 그에 따라 계획을 수정한다       | ④         | ③   | ②      | ①            |
| [8]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운다                  | ④         | ③   | ②      | ①            |
| [9] 나는 일을 하는 중간 중간 목표에 맞게 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점검해 본다     | ④         | ③   | ②      | ①            |
| [10] 어떤 일을 마치고 난 후 내가 세웠던 목표를 이루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본다    | ④         | ③   | ②      | ①            |
| [11] 어떤 일을 마치고 난 후 내가 세운 계획에 맞게 일을 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본다 | ④         | ③   | ②      | ①            |
| [12] 어떤 일을 마치고 난 후 그 일의 결과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음 할 일에 반영한다 | ④         | ③   | ②      | ①            |

#### [상황대처]

문17. 술, 담배, 금지된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사용에 있어 한 가지 이상 대해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1]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에 중독성이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2]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 ④         | ③   | ②      | ①            |
| [3]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은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도움이 된다 | ④         | ③   | ②      | ①            |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4)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지나치게 자주 또는 오래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5)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하지 않을 때는 자꾸 생각이 난다                        | ④         | ③   | ②      | ①            |
| (6)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그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중에도 어쩔 수 없이 계속 하게 된다      | ④         | ③   | ②      | ①            |
| (7)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한 번 시작하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                       | ④         | ③   | ②      | ①            |
| (8)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으로 인해 내 생활(일, 공부, 수면 등)이 방해를 받을 때가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9)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몰래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0)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게 된다                       | ④         | ③   | ②      | ①            |

문18. 인터넷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1) 내 힘을 자랑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이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2) 별다른 이유 없이 단지 재미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이 있다(인터넷에 악플을 달거나 욕을 한 적이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3) 폭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에게 맞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 ④         | ③   | ②      | ①            |
| (4) 내가 피해를 볼까봐 친구가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것을 모른 척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5) 누군가 나(또는 다른 친구)를 괴롭힐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 참는다                      | ④         | ③   | ②      | ①            |
| (6)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                                          | ④         | ③   | ②      | ①            |

#### [정서조절]

문19.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1)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면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른다       | ④         | ③   | ②      | ①            |
| (2)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면 물건을 집어던진다            | ④         | ③   | ②      | ①            |
| (3)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지나친 표현이나 행동은 자제한다 | ④         | ③   | ②      | ①            |
| (4) 나는 갑자기 슬프거나 힘든 일을 당해도 침착하게 잘 이겨낸다   | ④         | ③   | ②      | ①            |
| (5) 작은 일에도 나의 기분은 쉽게 변한다                | ④         | ③   | ②      | ①            |
| (6) 기분에 따라 행동이 크게 변한다                   | ④         | ③   | ②      | ①            |
| (7) 내 기분에 휩싸여 내 말이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렵다        | ④         | ③   | ②      | ①            |
| (8)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을 분명히 알고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9)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 상태에 주의를 기울인다           | ④         | ③   | ②      | ①            |

## [개인사민성]

문20.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1) 법이 불공정하다면 사람들은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2) 사람들은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3)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4) 모든 사람들은 정치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5)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한 두 사람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 ④         | ③   | ②      | ①            |
| (6) 어떻게 해서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면 되었지 민주주의를 꼭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 ④         | ③   | ②      | ①            |

문21. 여러분은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 문항                 | 매우<br>관심있음 | 관심있음 | 관심없음 | 전혀<br>관심없음 |
|--------------------|------------|------|------|------------|
| (1) 우리나라에서의 정치적 이슈 | ④          | ③    | ②    | ①          |
| (2)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이슈 | ④          | ③    | ②    | ①          |
| (3) 환경 관련 이슈       | ④          | ③    | ②    | ①          |

문22.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1) 나는 오래 친구들에 비해 정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2) 정치적 이슈 및 문제를 토론할 때, 나는 항상 토론에 참여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3) 나는 남들이 귀기울일만한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4) 성인이 되면, 나는 정치에 참여할 것이다              | ④         | ③   | ②      | ①            |
| (5) 나는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이슈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   | ④         | ③   | ②      | ①            |

[공동체 시민성]

문23. 아래의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여 주십시오.

최근에 철수는 감옥에서 석방되었다. 그는 남의 집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3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 석방된 후 철수는 영희라는 사람의 옆집으로 이사를 했다. 영희는 "철수가 우리집 물건을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옆집으로 이사와서는 안된다."라고 말한다.

문23-1. 철수가 영희의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해야만 하는 가장 알맞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철수는 자신의 죄 값을 치렀으므로 이웃이 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 ② 철수가 옆집 물건을 훔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 ③ 만약 주변 사람들이 철수를 잘 대우해 준다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철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영희에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문23-2. 철수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영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②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③ 영희는 자신과 철수의 권리가 다른 사람들의 권리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④ 영희는 자신과 철수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24. 아래의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여 주십시오.

어느 날 한 노인이 교통번호를 지키지 않고 길을 건너고 있었다. 교통경찰이 이를 발견하고 노인에게로 갔다. 그런데 그 노인은 그 경찰의 친한 친구 부모님이었다. 그 경찰은 다음의 두 가지 선택에 대해 갈등하고 있다.

- (1) 친구 부모님의 교통위반을 적발하여 벌금을 매기는 것
- (2) 친구 부모님의 교통위반을 모른척하는 것

[예시] 예를 들어, 다음 답변 문항에 '매우 불친절'(-3)하다고 생각하거나 '매우 친절'(+3)하다고 생각하면 해당 칸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       | -3          | -2    | -1          | 0    | +1         | +2   | +3         |      |
|-------|-------------|-------|-------------|------|------------|------|------------|------|
|       | 매우<br>불친절하다 | 불친절하다 | 약간<br>불친절하다 | 보통이다 | 약간<br>친절하다 | 친절하다 | 매우<br>친절하다 |      |
| 불친절하다 |             |       |             |      |            |      | ○          | 친절하다 |

문24-1. '교통경찰이 친구 부모님의 교통위반을 적발해서 벌금을 매긴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 -3 | -2 | -1 | 0 | +1 | +2 | +3 |       |
|---------|----|----|----|---|----|----|----|-------|
| 사건이다    |    |    |    |   |    |    |    | 공정이다  |
| 나쁘다     |    |    |    |   |    |    |    | 좋다    |
| 비인간적이다  |    |    |    |   |    |    |    | 인간적이다 |
| 비합리적이다  |    |    |    |   |    |    |    | 합리적이다 |
| 민정이 없다  |    |    |    |   |    |    |    | 민정있다  |
| 불공정하다   |    |    |    |   |    |    |    | 공정하다  |
| 너그럽지 않다 |    |    |    |   |    |    |    | 너그럽다  |
| 무원칙적이다  |    |    |    |   |    |    |    | 원칙적이다 |

문 24-2. '고등경찰이 친구 부모님의 고등위반을 모른척 눈감아 준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로 하여 주십시오.

문25. 여러분이 성인이 되면, 아래에 제시된 정치적 활동에 얼마나 참여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26. 여러분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다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27. 시민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정치적 반대 의견 항목에 대해 여러분이 정답이 되었을 때 앞으로 참여하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28. 여러분이 학교 봉사, 학급 봉사 및 자원 봉사 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는지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전혀 참여한 적이 없다 | 1년에 1-2회 | 2달에 한 번 정도 | 1달에 한 번 정도 |
|--------------|----------|------------|------------|
| ①            | ②        | ③          | ④          |

문29.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 [1] 나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꼭 지킨다        | ④      | ③   | ②      | ①         |
| [2] 나에게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입양할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3] 나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④      | ③   | ②      | ①         |

문30.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지역사회, 동호회 등)에서 하는 활동이 당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지는 않지만, 당신의 이웃이나 동료에게는 이익을 준다면 그 활동에 시간이나 돈을 투자할 의사가 있습니까?

| 문항                    | 있다 | 없다 |
|-----------------------|----|----|
| [1] 내 시간을 투자 할 생각이 있다 | ①  | ②  |
| [2] 내 돈을 투자 할 생각이 있다  | ①  | ②  |

문31. 여러분은 다음에 제시되는 집단이나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 문항             | 매우 신뢰함 | 신뢰함 | 신뢰하지 않음 | 전혀 신뢰하지 않음 |
|----------------|--------|-----|---------|------------|
| [1] 가족         | ④      | ③   | ②       | ①          |
| [2] 친구         | ④      | ③   | ②       | ①          |
| [3] 이웃         | ④      | ③   | ②       | ①          |
| [4] 낯선 사람(한국인) | ④      | ③   | ②       | ①          |
| [5] 낯선 사람(외국인) | ④      | ③   | ②       | ①          |

문32. 여러분은 다음의 기관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 문항                    | 매우 신뢰함 | 신뢰함 | 신뢰하지 않음 | 전혀 신뢰하지 않음 |
|-----------------------|--------|-----|---------|------------|
| [1] 정부                | ④      | ③   | ②       | ①          |
| [2] 법원                | ④      | ③   | ②       | ①          |
| [3] 경찰                | ④      | ③   | ②       | ①          |
| [4] 정당                | ④      | ③   | ②       | ①          |
| [5] 국회                | ④      | ③   | ②       | ①          |
| [6] 미디어(TV, 언론사, 라디오) | ④      | ③   | ②       | ①          |
| [7] 군대                | ④      | ③   | ②       | ①          |
| [8] 학교                | ④      | ③   | ②       | ①          |

문33. 수업시간에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토론할 때, 다음에 제시된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 문항                                              | 종종<br>일어남 | 때때로<br>일어남 | 일부<br>일어남 | 전혀<br>일어나지<br>않음 |
|-------------------------------------------------|-----------|------------|-----------|------------------|
| [1] 학생들은 공개적으로 선생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2] 학생들은 현재의 정치적 사건을 학급차원에서 토론한다                | ④         | ③          | ②         | ①                |
| [3] 다른 학생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학급에서 자기의견을 표명한다           | ④         | ③          | ②         | ①                |
| [4]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미슈를 토론하도록 권장한다 | ④         | ③          | ②         | ①                |
| [5] 선생님들이 학급에서 미슈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준다          | ④         | ③          | ②         | ①                |

[세계 시민성]

문34.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br>않다 | 전혀<br>그렇지<br>않다 |
|-------------------------------------------------|-----------|-----|-----------|-----------------|
| [1] 가족의 생계문제는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2] 여성의 우선적 책무는 아이를 보육하는데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3] 남녀가 함께 일하는 직장 부서의 책임자는 남자가 맡는 것이 좋다         | ④         | ③   | ②         | ①               |
| [4] 이민자들의 자녀도 그 나라의 아이들과 동일한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5] 수년 동안 살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④         | ③   | ②         | ①               |

문35. 여러분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것을 얼마나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항                                  | 가능한<br>많이 | 어느<br>정도 | 어주<br>약간만 | 결대로<br>안된다 |
|-------------------------------------|-----------|----------|-----------|------------|
| [1] 외국에 있는 우리 민족 후손들(예: 고려인, 조선족 등) | ④         | ③        | ②         | ①          |
| [2] 우리 민족이 아닌 외국인이나 소수민족            | ④         | ③        | ②         | ①          |
| [3] 빈곤국가(기난한 나라)의 사람들               | ④         | ③        | ②         | ①          |

문36. 만일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외국에 있다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 돌아와서 전쟁을 돕는다 | 외국에서 일을 정리한 후<br>귀국여부를 결정한다 | 외국에서 도울 수<br>있는 방법을 찾는다 | 개인 사정을<br>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
| ④            | ③                           | ②                       | ①                    |

문37. 애국가가 들릴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br>경건한 마음이 든다 | 우리나라 국기, 애국가라는<br>생각 외에 별 감동이 없다 | 어색한 생각이 든다 | 별 생각이 들지 않는다 |
|----------------------------|----------------------------------|------------|--------------|
| ④                          | ③                                | ②          | ①            |

문38.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하여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더욱 있다고 본다 | 비슷한 것 같다 | 덜한 것 같다 | 매우 덜하다 |
|-----------|----------|---------|--------|
| ④         | ③        | ②       | ①      |

문39.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1] 우리는 되도록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을 사야한다                                   | ④         | ③   | ②      | ①            |
| [2] 안전 요원은 국가 안전을 위협할 용의자(예: 간첩 등)라고 여겨지는 사람의 편지나 전화, 이메일을 체크할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3] 국가 안전에 엄청난 위협을 느낄 때, 정부는 언론 출만을 통제할 권력을 가져야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4] 우리나라는 우리가 성취한 것들에 대해 다른 나라의 존경을 받을만하다                           | ④         | ③   | ②      | ①            |

문40. 여러분은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 문항                     | 매우<br>관심 많음 | 관심<br>많음 | 관심<br>없음 | 전혀<br>관심 없음 |
|------------------------|-------------|----------|----------|-------------|
| [1] 다른 나라들의 정치·사회적 문제  | ④           | ③        | ②        | ①           |
| [2] 국가 간 갈등에 대한 신문기사 등 | ④           | ③        | ②        | ①           |

문41.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1] 나는 외국인과 잘 지내는데 큰 문제가 없다                      | ④         | ③   | ②      | ①            |
| [2] 나는 외국을 방문할 때 그 나라에 적합한 매너와 문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학습한다 | ④         | ③   | ②      | ①            |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배경문항 1. 응답자(학생)가 태어난 년도는 언제입니까? \_\_\_\_\_년도

배경문항 2. 응답자(학생)의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_\_\_\_\_시/도      ② \_\_\_\_\_시/군/구      ③ \_\_\_\_\_동/읍/면

예) 살고 있는 곳이 대도시인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라면 서울 ①/도 서초 시/군/구 ② 우면 ③/읍/면으로 표기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인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이라면 충청남도 ①/도 아산 ②/군/구 배방 동/읍/면으로 표기

배경문항 3.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① [외]할아버지      ② [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새아버지      ⑥ 새어머니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친척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⑩ 없음

배경문항 4. 부모님(보호자)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부모님(보호자)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십시오.

☞ 보호자는 부모님 이외 현재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는 분을 말합니다.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2)에 표시합니다.

|         | 부모님<br>(보호자)<br>안 계신 | 학교<br>안 다니 | 초등학교<br>졸업 | 중학교<br>졸업 | 고등학교<br>졸업 | 2-3년제<br>대학 졸업 | 4년제<br>대학 졸업 | 대학원 졸업<br>(석사·박사) | 잘<br>모르겠음 |
|---------|----------------------|------------|------------|-----------|------------|----------------|--------------|-------------------|-----------|
| (1) 아버지 | ①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 (2) 어머니 | ①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 (3) 보호자 | ①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배경문항 5.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에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br>않다 | 전혀<br>그렇지<br>않다 |
|----------------------------------------------------|-----------|-----|-----------|-----------------|
| (1) 가족들(부모님, 형제자매)과 책을 읽고 대화한 경험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 ④         | ③   | ②         | ①               |
| (2) 아버지는 내게 지적자극을 많이 주신다                           | ④         | ③   | ②         | ①               |
| (3) 어머니는 내게 지적자극을 많이 주신다                           | ④         | ③   | ②         | ①               |
| (4) 아버지의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는다                            | ④         | ③   | ②         | ①               |
| (5) 어머니의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는다                            | ④         | ③   | ②         | ①               |
| (6) 부모님은 학원선정이나 학습 계획을 세심하게 관리해 주신다                | ④         | ③   | ②         | ①               |
| (7) 아버지는 나의 공부 및 삶의 태도에 모범이 되신다                    | ④         | ③   | ②         | ①               |
| (8) 어머니는 나의 공부 및 삶의 태도에 모범이 되신다                    | ④         | ③   | ②         | ①               |

배경문항 6. 여러분은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br>않다 | 전혀<br>그렇지<br>않다 |
|------------------------|-----------|-----|-----------|-----------------|
| (1) 나는 걱정거리가 없이 즐겁다    | ④         | ③   | ②         | ①               |
| (2)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 ④         | ③   | ②         | ①               |
| (3) 나는 사는 게 즐겁다        | ④         | ③   | ②         | ①               |
| (4) 나는 학업성적에 대해 만족한다   | ④         | ③   | ②         | ①               |

배경문항 7. 여러분의 2015년 1학기 중간고사 평균 점수는 다음의 어디에 해당하니까?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 60점 이하 | 61~65점 | 66~70점 | 71~75점 | 76~80점 | 81~85점 | 86~90점 | 91~95점 | 96~100점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배경문항 8.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높은 수준 |   |   | 보통 수준 |   |   | 낮은 수준 |  |
|-------|---|---|-------|---|---|-------|--|
| 7     | 6 | 5 | 4     | 3 | 2 | 1     |  |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DPID | <input type="text"/> | ID | <input type="text"/> | - | <input type="text"/> | - | <input type="text"/> | - | <input type="text"/> | -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

## 2015 청소년 역량 측정 조사 [대학생용]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83조)에 규정되어 있습  
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청소년의 인성 함양과 잠재력 계발, 디지털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연구원에서는 '청소년 역량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의 일환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조사내용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아울러 본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본 조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응답에 대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         |                                                      |            |                          |
|---------|------------------------------------------------------|------------|--------------------------|
| 조사추관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실사실행기관:    | 미디어리서치                   |
| 담당연구자:  | 최용일 전문연구원 (044) 415-2187<br>성은모 부연구위원 (044) 415-2128 | 조 사 문 의 처: | 문 회 정 부 장 (02) 3488-2728 |



국무총리산하정책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http://www.nypi.re.kr>

|         |    |       |        |      |
|---------|----|-------|--------|------|
| 학교 및 학년 | 학교 | 학교소재지 | 시(도)   | 구(군) |
|         | 학년 |       | 동(읍/면) |      |

|        |                   |         |  |
|--------|-------------------|---------|--|
| 응답자 성명 |                   | 응답자 연락처 |  |
| 면접일자   | 2015년 ____월 ____일 |         |  |

|        |                                         |
|--------|-----------------------------------------|
| 응답 시간  | 시작시간 : ____시 ____분 / 끝난시간 : ____시 ____분 |
| 응답자 성별 |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

|           |  |       |  |        |  |        |  |
|-----------|--|-------|--|--------|--|--------|--|
| 면접원 ID/성명 |  | S/V확인 |  | 검증원 확인 |  | 코딩원 확인 |  |
|-----------|--|-------|--|--------|--|--------|--|

## 설문지 작성 요령

철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④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매우 그렇다’면 ④에, ‘그렇다’면 ③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7|1>

|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br>않다 | 전혀<br>그렇지<br>않다 |
|--------------------------|-----------|-----|-----------|-----------------|
| a.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거나 걷는다. | ④         | ③   | ②         | ①               |

☞ 나는 매우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거나 걷기 때문에 ‘④’에 표시했습니다.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바꾸고 싶은 번호에 동그라미(O)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langle \text{보} 7 | 2 \rangle$ 

|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br>않다 | 전혀<br>그렇지<br>않다 |
|--------------------------|--------------|-----|-----------|-----------------|
| a.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거나 걷는다. | <del>①</del> | ③   | ②         | ①               |

♣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할 때

(예시) 다음 답변 문항에 ‘매우 불친절’(-3)하다고 생각하거나 ‘매우 친절’(+3)하다고 생각하면 해당 칸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       |             |       |             |      |            |      |            |      |
|-------|-------------|-------|-------------|------|------------|------|------------|------|
|       | -3          | -2    | -1          | 0    | +1         | +2   | +3         |      |
|       | 매우<br>불친절하다 | 불친절하다 | 약간<br>불친절하다 | 보통이다 | 약간<br>친절하다 | 친절하다 | 매우<br>친절하다 |      |
| 불친절하다 |             |       |             |      |            |      | 0          | 친절하다 |

☞ 나는 매우 친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에 ○표시했습니다.

**[사교력]**

문1.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1) 나는 어떤 행동이 가져올 전체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2)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의 부분적인 사항들과 최종 목표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3)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논리적인지 또는 맞뒤가 맞는지를 따져본다        | ④         | ③   | ②      | ①            |
| (4) 복잡한 글을 읽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④         | ③   | ②      | ①            |
| (5) 나는 어떤 사태에 대해 객관적이고 알맞은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평가한다            | ④         | ③   | ②      | ①            |
| (6) 나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 판단할 때 다양한 방향(관점)에서 생각해 본다              | ④         | ③   | ②      | ①            |
| (7) 같은 물건이라면, 나는 브랜드와 상관없이 지적장애인들이 만든 상품으로 사겠다           | ④         | ③   | ②      | ①            |
| (8) 나는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만으로도 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잘 알아차린다         | ④         | ③   | ②      | ①            |
| (9)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논리적인 판단보다는 감정과 느낌에 따라 판단한다          | ④         | ③   | ②      | ①            |

**[지적도구활용능력] 언어능력**

문2. 언어능력에 관한 각 문항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1) 나는 공식사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말을 정리하여 듣고,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한다               | ④         | ③   | ②      | ①            |
| (2) 나는 글의 중심내용을 찾아 글본미의 의도나 숨겨진 주제를 파악하며 읽는다                       | ④         | ③   | ②      | ①            |
| (3) 나의 의견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나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4) 나는 언어관련 학습(한국어 및 외국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을 좋아하기 때문에 언어관련 학습을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5) 나는 다양한 언어(한국어 및 외국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를 배우는 것에 흥미가 있다           | ④         | ③   | ②      | ①            |

**[지적도구활용능력] 수학능력**

문3. 수학능력에 관한 각 문항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1) 나는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활용하여 다양한 계산을 할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2) 나는 신문, 잡지, 또는 인터넷 등 우리 주위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표나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3) 나는 신문, 잡지, 또는 인터넷 등 우리 주위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표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4) 나는 수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학 관련 학습을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5) 나는 수학을 배우는 것에 대해 흥미가 있다                                      | ④         | ③   | ②      | ①            |

**[지적도구활용능력] 과학능력**

문4. 과학능력에 관한 각 문항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br>않다 | 전혀<br>그렇지<br>않다 |
|--------------------------------------------------------------|-----------|-----|-----------|-----------------|
| [1] 나는 자연이나 과학적 현상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관찰, 실험, 조사 등 다양한 탐구활동을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2] 나는 일상생활에서 적용되고 있는 과학적 원리를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3] 나는 자연현상에 대해 과학지식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4] 나는 과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과학 관련 학습을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5] 나는 과학 관련 지식을 배우는 것에 흥미가 있다                               | ④         | ③   | ②         | ①               |

**[지적도구활용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문5.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에 관한 각 문항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br>않다 | 전혀<br>그렇지<br>않다 |
|-------------------------------------------------------------------------|-----------|-----|-----------|-----------------|
| [1] 나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2] 나는 컴퓨터나 인터넷상의 다양한 학습자료(인터넷 강의, 유튜브·TED 동영상, 웹문서 등)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3] 나는 한글,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포토샵, 그림판 등을 이용해 문서, 그림, 동영상 등을 작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4]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SNS(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해 공유할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학습적응성]**

문6.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br>않다 | 전혀<br>그렇지<br>않다 |
|--------------------------------------------------------|-----------|-----|-----------|-----------------|
| [1] 나는 학습할 때 내 주변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 ④         | ③   | ②         | ①               |
| [2] 새로 출시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는 사용한다 | ④         | ③   | ②         | ①               |
| [3] 나는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 ④         | ③   | ②         | ①               |
| [4] 나는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한다              | ④         | ③   | ②         | ①               |
| [5] 나는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이후에도 그 성공요인을 찾아낸다               | ④         | ③   | ②         | ①               |
| [6] 나는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실패했다면, 그 실패 원인을 분석한다              | ④         | ③   | ②         | ①               |
| [7]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한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는다                      | ④         | ③   | ②         | ①               |

**[진로설계]**

문7.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1]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도 관심을 갖고 생각한다          | ④         | ③   | ②      | ①            |
| [2] 나는 나에게 대하여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            | ④         | ③   | ②      | ①            |
| [3] 나의 성격에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안다                   | ④         | ③   | ②      | ①            |
| [4] 내가 관심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 ④         | ③   | ②      | ①            |
| [5]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성공한 삶을 소개한 책을 읽어본다  | ④         | ③   | ②      | ①            |
| [6] 관심 있는 직업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에서 여러 정보를 검색한다 | ④         | ③   | ②      | ①            |
| [7] 나의 창래희망과 관련된 직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 본다        | ④         | ③   | ②      | ①            |
| [8]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 본다      | ④         | ③   | ②      | ①            |
| [9] 돈과 관계없이 일을 하는 것 자체에서 행복을 느낀다            | ④         | ③   | ②      | ①            |
| [10]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았다         | ④         | ③   | ②      | ①            |
| [11] 현실이 어렵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도전하는 삶이 가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12] 나는 부모님이 내 창래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는지 안다          | ④         | ③   | ②      | ①            |
| [13] 내가 원하는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 관련된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14] 내가 원하는 직업(전공)을 갖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15] 나는 나의 할 일을 스스로 해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 ④         | ③   | ②      | ①            |

문8. 여러분들은 자신의 적성이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 검사에 참여해본 적이 있습니까?

| 없음 | 1회 | 2회 | 3회 이상 |
|----|----|----|-------|
| ①  | ①  | ②  | ③     |

**[여가활동]**

문9.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1] 여가(취미)활동은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 ④         | ③   | ②      | ①            |
| [2] 여가(취미)활동은 중요하다                                              | ④         | ③   | ②      | ①            |
| [3] 여가(취미)활동은 내게 즐거운 경험들을 제공해준다                                 | ④         | ③   | ②      | ①            |
| [4] 여가(취미)활동은 상쾌함을 느끼게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5] 바쁘더라도 여가(취미)활동에 참여한다                                        | ④         | ③   | ②      | ①            |
| [6] 나의 여가(취미)활동을 배우고 준비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싶다                           | ④         | ③   | ②      | ①            |
| [7] 여가시간에 친구들과끼리 모여 스포츠활동을 할 때, 나는 내가 그 무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④         | ③   | ②      | ①            |
| [8] 내가 특별히 여가시간에 즐겨 할 만한 운동기술이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9] 나는 내가 하는 거의 모든 여가활동에 능숙하다                  | ④         | ③   | ②      | ①            |
| [10] 친구들과끼리 스포츠경기를 하게 되면 나는 보통 이기는 편이다         | ④         | ③   | ②      | ①            |
| [11] 내가 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매우 흥미롭다                    | ④         | ③   | ②      | ①            |
| [12] 여가활동은 나에게 무엇인가 이루어냈다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3] 나는 여가활동을 하는 동안 내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을 느낀다      | ④         | ③   | ②      | ①            |
| [14] 나는 여가활동을 할 때 정신집중이 잘 된다                   | ④         | ③   | ②      | ①            |
| [15] 나는 여가활동을 하는 동안 상당히 몰입하게 된다                | ④         | ③   | ②      | ①            |
| [16] 나는 여가활동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가끔 시간 감각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 ④         | ③   | ②      | ①            |

문10. 여러분들은 취미활동(여가활동)을 일주일에 몇 시간정도 할니까?

| 없음 | 1시간 미만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3시간 이상 |
|----|--------|---------------|---------------|--------|
| ①  | ①      | ②             | ③             | ④      |

#### [개척정신]

문11.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1] 내가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면 다른 사람들이 독특하다는 소릴 자주한다               | ④         | ③   | ②      | ①            |
| [2] 같은 사물, 현상을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바라볼 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많다 | ④         | ③   | ②      | ①            |
| [3]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쉽게 따라하지 않는다                       | ④         | ③   | ②      | ①            |
| [4] 나는 늘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 맞서 대들거나 반대하는 편이다                        | ④         | ③   | ②      | ①            |
| [5] 나는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6] 나는 전혀 경험이 없는 새로운 과제와 임무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 ④         | ③   | ②      | ①            |
| [7] 나는 계속적으로 변화거나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 ④         | ③   | ②      | ①            |
| [8] 나는 변화가 별로 없는 안정적인 환경을 좋아한다                               | ④         | ③   | ②      | ①            |

#### [관계형성]

문12.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1]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나의 고민에 대해 의논할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2]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3]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내 행동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행동한다 | ④         | ③   | ②      | ①            |
| [4] 나는 새로운 친구에게 나에게 대해 그대로를 말할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5] 나는 모르는 사람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6] 나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직접 소개한다                 | ④         | ③   | ②      | ①            |
| [7] 나는 관심 있는 새로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함께 하라고 제안하기도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8] 나는 새로운 사람을 알아 가는 것이 재미있다                       | ④         | ③   | ②      | ①            |
| [9] 나는 상대방의 눈을 보며 대화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0] 나는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을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1] 나는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정을 살피며 듣는다                      | ④         | ③   | ②      | ①            |
| [12] 나는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확인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3]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이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4] 나는 상대방과 의견차이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눌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15] 나는 다른 사람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6] 나는 상대방이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7] 나는 바쁜 일이 있어도, 화가 난 친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다         | ④         | ③   | ②      | ①            |
| [18]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한다         | ④         | ③   | ②      | ①            |

**[리더십]**

문13.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1] 나는 내기 속한 그룹의 의사결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본다              | ④         | ③   | ②      | ①            |
| [2] 나는 내기 속한 그룹의 의사결정을 위한 여러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기준을 정한다 | ④         | ③   | ②      | ①            |
| [3] 나는 내기 속한 그룹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우선순위를 생각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4] 나는 내기 속한 그룹의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방법이 더 좋은 지 비교해 본다      | ④         | ③   | ②      | ①            |
| [5] 나는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모임 또는 활동을 할 때, 주로 이끌며 나간다          | ④         | ③   | ②      | ①            |
| [6]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각 구성원들의 역할을 골고루 잘 나눈다               | ④         | ③   | ②      | ①            |
| [7] 나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화롭게 조정한다                  | ④         | ③   | ②      | ①            |
| [8]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활동목표를 제시하고 친구들을 이끌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9] 나는 내기 속한 그룹의 목표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정할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10] 나는 내기 속한 그룹의 계획을 실행할 때 발생할 어려움에 철저히 대비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1] 나는 내기 속한 그룹의 계획을 실행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간다     | ④         | ③   | ②      | ①            |
| [12]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명확하게 정하고 일을 추진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3]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들의 능력과 의지를 생각하며 일을 추진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4]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본다   | ④         | ③   | ②      | ①            |

**[협동]**

문14.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1)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의 장점이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밀려 준다             | ④         | ③   | ②      | ①            |
| (2)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어려워하면 기꺼이 돕는다                    | ④         | ③   | ②      | ①            |
| (3)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④         | ③   | ②      | ①            |
| (4)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 ④         | ③   | ②      | ①            |
| (5) 나는 그룹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의미있는 일이라는 것을 친구에게 이야기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6)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④         | ③   | ②      | ①            |
| (7) 나는 그룹 활동을 할 때,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 ④         | ③   | ②      | ①            |
| (8) 나는 그룹의 리더가 아니더라도 많은 일보다 많은 일을 하여 그룹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9) 나는 내가 속한 그룹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0)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1) 나는 그룹의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2)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를 친구들과 자주 이야기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3)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친구들과 함께 해결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4)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 ④         | ③   | ②      | ①            |

**[건강관리]**

문15. 자신의 건강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태도와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1) 식사 전이나 외출 후, 화장실에 다녀온 후 비누로 손을 씻는다                  | ④         | ③   | ②      | ①            |
| (2) 속옷을 1~2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갈아입는다                          | ④         | ③   | ②      | ①            |
| (3) 식사 후에는 대부분 양치질을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4) 건강을 위해 음식이나 운동, 생활 습관 등을 조절한다                       | ④         | ③   | ②      | ①            |
| (5)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거나 걷는다                                | ④         | ③   | ②      | ①            |
| (6) 몸에 난 상처에 대한 응급치료 방법을 알고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7) 병 유형에 따라 가야할 병원의 종류(예: 외과, 내과, 미부과, 이비인후과 등)를 알고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8)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수칙이나 규칙을 잘 지킨다                         | ④         | ③   | ②      | ①            |
| (9)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10)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일이나 공부를 하는 중간 중간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1)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적절한 여가 생활을 가지고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과제관리]

문16.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행동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1)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루어야 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운다         | ④         | ③   | ②      | ①            |
| (2) 목표를 세울 때 주변의 어른이나 친구들의 의견을 참고한다               | ④         | ③   | ②      | ①            |
| (3) 목표를 세우기 위해 주변의 다양한 정보를 참고한다                   | ④         | ③   | ②      | ①            |
| (4) 이루어야 할 목표가 어려 가지일 때 먼저 이루어야 하는 목표들의 순서를 정한다   | ④         | ③   | ②      | ①            |
| (5)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세운다            | ④         | ③   | ②      | ①            |
| (6)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다          | ④         | ③   | ②      | ①            |
| (7)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거나 필요가 있다면 그에 따라 계획을 수정한다       | ④         | ③   | ②      | ①            |
| (8)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운다                  | ④         | ③   | ②      | ①            |
| (9) 나는 일을 하는 중간 중간 목표에 맞게 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점검해 본다     | ④         | ③   | ②      | ①            |
| (10) 어떤 일을 마치고 난 후 내가 세웠던 목표를 이루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본다    | ④         | ③   | ②      | ①            |
| (11) 어떤 일을 마치고 난 후 내가 세운 계획에 맞게 일을 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본다 | ④         | ③   | ②      | ①            |
| (12) 어떤 일을 마치고 난 후 그 일의 결과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음 할 일에 반영한다 | ④         | ③   | ②      | ①            |

## [상황대처]

문17. 술, 담배, 금지된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사용에 있어 한 가지 이상 대해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1)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에 중독성이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2)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 ④         | ③   | ②      | ①            |
| (3)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은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도움이 된다                         | ④         | ③   | ②      | ①            |
| (4)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지나치게 자주 또는 오래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5)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하지 않을 때는 자꾸 생각이 난다                        | ④         | ③   | ②      | ①            |
| (6)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그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중에도 어쩔 수 없이 계속 하게 된다      | ④         | ③   | ②      | ①            |
| (7)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한 번 시작하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                       | ④         | ③   | ②      | ①            |
| (8)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으로 인해 내 생활(일, 공부, 수면 등)이 방해를 받을 때가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9)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몰래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0)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게 된다                       | ④         | ③   | ②      | ①            |

문18. 인터넷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1] 내 힘을 자랑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이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2] 별다른 이유 없이 단지 재미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이 있다(인터넷에 악물을 달거나 욕을 한 적이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3] 폭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에게 맞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 ④         | ③   | ②      | ①            |
| [4] 내가 피해를 볼까봐 친구가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것을 모른 척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5] 누군가 나(또는 다른 친구)를 괴롭힐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 참는다                      | ④         | ③   | ②      | ①            |
| [6]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                                          | ④         | ③   | ②      | ①            |

#### [정서조절]

문19.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1]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면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른다       | ④         | ③   | ②      | ①            |
| [2]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면 물건을 집어 던진다           | ④         | ③   | ②      | ①            |
| [3]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지나친 표현이나 행동은 자제한다 | ④         | ③   | ②      | ①            |
| [4] 나는 갑자기 슬프거나 힘든 일을 당해도 침착하게 잘 이겨낸다   | ④         | ③   | ②      | ①            |
| [5] 작은 일에도 나의 기분은 쉽게 변한다                | ④         | ③   | ②      | ①            |
| [6] 기분에 따라 행동이 크게 변한다                   | ④         | ③   | ②      | ①            |
| [7] 내 기분에 휩싸여 내 말이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렵다        | ④         | ③   | ②      | ①            |
| [8]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을 분명히 알고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9]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 상태에 주의를 기울인다           | ④         | ③   | ②      | ①            |

#### [개인시민성]

문20.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1] 법이 불공정하다면 사람들은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2] 사람들은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3]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4] 모든 사람들은 정치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5]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한 두 사람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 ④         | ③   | ②      | ①            |
| [6] 어떻게 해서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면 되었지 민주주의를 꼭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 ④         | ③   | ②      | ①            |

문21. 여러분은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 문항                 | 매우<br>관심있음 | 관심있음 | 관심없음 | 전혀<br>관심없음 |
|--------------------|------------|------|------|------------|
| [1] 우리나라에서의 정치적 이슈 | ④          | ③    | ②    | ①          |
| [2]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이슈 | ④          | ③    | ②    | ①          |
| [3] 환경 관련 이슈       | ④          | ③    | ②    | ①          |

문22.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1] 나는 오래 친구들에 비해 정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2] 정치적 이슈 및 문제를 토론할 때, 나는 항상 토론에 참여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3] 나는 남들이 귀기울일만한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4] 나는 정치에 참여할 것이다                      | ④         | ③   | ②      | ①            |
| [5] 나는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이슈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공동체 시민성]

문23. 아래의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여 주십시오.

최근에 철수는 감옥에서 석방되었다. 그는 남의 집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3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 석방된 후 철수는 영희라는 사람의 옆집으로 이사를 했다. 영희는 "철수가 우리집 물건을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옆집으로 이사와 사는 만된다"라고 말한다.

문23-1. 철수가 영희의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해야만 하는 가장 알맞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철수는 자신의 죄 값을 치렀으므로 이웃이 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 ② 철수가 옆집 물건을 훔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 ③ 만약 주변 사람들이 철수를 잘 대우해 준다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철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영희에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문23-2. 철수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영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② 철수의 권리가 영희 자신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③ 영희는 자신과 철수의 권리가 다른 사람들의 권리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④ 영희는 자신과 철수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24. 아래의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여 주십시오.

어느 날 한 노인이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고 길을 건너고 있었다. 교통경찰이 이를 발견하고 노인에게로 갔다. 그런데 그 노인은 그 경찰의 친한 친구 부모님이었다. 그 경찰은 다음의 두 가지 선택에 대해 갈등하고 있다.

(1) 친구 부모님의 교통위반을 적발하여 벌금을 매기는 것  
(2) 친구 부모님의 교통위반을 모른척하는 것

[예시] 예를 들어, 다음 답변 문항에 '매우 불친절'(-3)하다고 생각하거나 '매우 친절'( +3)하다고 생각하면 해당 칸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       | -3       | -2    | -1       | 0    | +1      | +2   | +3      |      |
|-------|----------|-------|----------|------|---------|------|---------|------|
|       | 매우 불친절하다 | 불친절하다 | 약간 불친절하다 | 보통이다 | 약간 친절하다 | 친절하다 | 매우 친절하다 |      |
| 불친절하다 |          |       |          |      |         |      | ○       | 친절하다 |

문24-1. '교통경찰이 친구 부모님의 교통위반을 적발해서 벌금을 매긴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 -3 | -2 | -1 | 0 | +1 | +2 | +3 |       |
|---------|----|----|----|---|----|----|----|-------|
| 사적이다    |    |    |    |   |    |    |    | 공적이다  |
| 나쁘다     |    |    |    |   |    |    |    | 좋다    |
| 비인간적이다  |    |    |    |   |    |    |    | 인간적이다 |
| 비합리적이다  |    |    |    |   |    |    |    | 합리적이다 |
| 인정이 없다  |    |    |    |   |    |    |    | 인정있다  |
| 불공정하다   |    |    |    |   |    |    |    | 공정하다  |
| 너그럽지 않다 |    |    |    |   |    |    |    | 너그럽다  |
| 무원칙적이다  |    |    |    |   |    |    |    | 원칙적이다 |

문24-2. '교통경찰이 친구 부모님의 교통위반을 모른척 눈감아 준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 -3 | -2 | -1 | 0 | +1 | +2 | +3 |       |
|---------|----|----|----|---|----|----|----|-------|
| 사적이다    |    |    |    |   |    |    |    | 공적이다  |
| 나쁘다     |    |    |    |   |    |    |    | 좋다    |
| 비인간적이다  |    |    |    |   |    |    |    | 인간적이다 |
| 비합리적이다  |    |    |    |   |    |    |    | 합리적이다 |
| 인정이 없다  |    |    |    |   |    |    |    | 인정있다  |
| 불공정하다   |    |    |    |   |    |    |    | 공정하다  |
| 너그럽지 않다 |    |    |    |   |    |    |    | 너그럽다  |
| 무원칙적이다  |    |    |    |   |    |    |    | 원칙적이다 |

[illegible]

문25. 여러분은 아래에 제시된 정치적 활동에 얼마나 참여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 문항                       | 확실히<br>참여함 | 아마도<br>참여함 | 아마도<br>참여하지<br>않음 | 확실히<br>참여하지<br>않음 |
|--------------------------|------------|------------|-------------------|-------------------|
| [1] 투표참여                 | ④          | ③          | ②                 | ①                 |
| [2] 투표하기 전 후보자에 대한 정보 수집 | ④          | ③          | ②                 | ①                 |
| [3]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나 정당을 돕기 | ④          | ③          | ②                 | ①                 |
| [4] 정치단체 가입              | ④          | ③          | ②                 | ①                 |
| [5] 노동조합 가입              | ④          | ③          | ②                 | ①                 |
| [6] 지역 및 시 선출직 후보 출마     | ④          | ③          | ②                 | ①                 |

문26. 여러분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다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항                     | 매우<br>중요함 | 중요함 | 중요하지<br>않음 | 전혀<br>중요하지<br>않음 |
|------------------------|-----------|-----|------------|------------------|
| [1] 불공정한 법에 대한한 평화적 항의 | ④         | ③   | ②          | ①                |
| [2] 지역공동체에 유익한 활동      | ④         | ③   | ②          | ①                |
| [3] 민권증진운동             | ④         | ③   | ②          | ①                |
| [4] 환경보호운동             | ④         | ③   | ②          | ①                |

문27. 시민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정치적 반대 의견 항목에 대해 여러분은 참여하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 문항                            | 확실히<br>참여함 | 아마도<br>참여함 | 아마도<br>참여하지<br>않음 | 확실히<br>참여하지<br>않음 |
|-------------------------------|------------|------------|-------------------|-------------------|
| [1]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리본이나 배지 달기 | ④          | ③          | ②                 | ①                 |
| [2] 비폭력 집회 참여                 | ④          | ③          | ②                 | ①                 |
| [3] 청정서에 서명하기                 | ④          | ③          | ②                 | ①                 |
| [4] 상품 불매 운동하기                | ④          | ③          | ②                 | ①                 |
| [5] 벽에 항의 포스터/스프레이/페인팅하기      | ④          | ③          | ②                 | ①                 |

문28. 여러분이 학교 봉사, 학과 봉사 및 자원 봉사 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는지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전혀 참여한 적이 없다 | 1년에 1-2회 | 2달에 한 번 정도 | 1달에 한 번 정도 |
|--------------|----------|------------|------------|
| ①            | ②        | ③          | ④          |

문29.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1] 나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꼭 지킨다       | ④         | ③   | ②      | ①            |
| [2] 나에게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입양할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3] 나는 자녀가 있어도 입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④         | ③   | ②      | ①            |

문30.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지역사회, 동호회 등)에서 하는 활동이 당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지는 않지만, 당신의 이웃이나 동료에게는 이익을 준다면 그 활동에 시간이나 돈을 투자할 의사가 있습니까?

| 문항                    | 있다 | 없다 |
|-----------------------|----|----|
| [1] 내 시간을 투자 할 생각이 있다 | ①  | ②  |
| [2] 내 돈을 투자 할 생각이 있다  | ①  | ②  |

문31. 여러분은 다음에 제시되는 집단이나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 문항             | 매우<br>신뢰함 | 신뢰함 | 신뢰하지<br>않음 | 전혀<br>신뢰하지<br>않음 |
|----------------|-----------|-----|------------|------------------|
| [1] 가족         | ④         | ③   | ②          | ①                |
| [2] 친구         | ④         | ③   | ②          | ①                |
| [3] 이웃         | ④         | ③   | ②          | ①                |
| [4] 낯선 사람(한국인) | ④         | ③   | ②          | ①                |
| [5] 낯선 사람(외국인) | ④         | ③   | ②          | ①                |

문32. 여러분은 다음의 기관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 문항                    | 매우<br>신뢰함 | 신뢰함 | 신뢰하지<br>않음 | 전혀<br>신뢰하지<br>않음 |
|-----------------------|-----------|-----|------------|------------------|
| [1] 정부                | ④         | ③   | ②          | ①                |
| [2] 법원                | ④         | ③   | ②          | ①                |
| [3] 경찰                | ④         | ③   | ②          | ①                |
| [4] 정당                | ④         | ③   | ②          | ①                |
| [5] 국회                | ④         | ③   | ②          | ①                |
| [6] 미디어(TV, 언론사, 라디오) | ④         | ③   | ②          | ①                |
| [7] 군대                | ④         | ③   | ②          | ①                |
| [8] 학교                | ④         | ③   | ②          | ①                |

문33. 수업시간에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토론할 때, 다음에 제시된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 문항                                              | 종종<br>일어남 | 때때로<br>일어남 | 일부<br>일어남 | 전혀<br>일어나지<br>않음 |
|-------------------------------------------------|-----------|------------|-----------|------------------|
| [1] 학생들은 공개적으로 선생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2] 학생들은 현재의 정치적 사건을 학급차원에서 토론한다                | ④         | ③          | ②         | ①                |
| [3] 다른 학생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학급에서 자기의견을 표명한다           | ④         | ③          | ②         | ①                |
| [4]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미슈를 토론하도록 권장한다 | ④         | ③          | ②         | ①                |
| [5] 선생님들이 학급에서 미슈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준다          | ④         | ③          | ②         | ①                |

## [세계 시민성]

문34.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1] 가족의 생계문제는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2] 여성의 우선적 책무는 아이를 보육하는데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3] 남녀가 함께 일하는 직장 부서의 책임자는 남자가 맡는 것이 좋다         | ④         | ③   | ②      | ①            |
| [4] 이민자들의 자녀도 그 나라의 아이들과 동일한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5] 수년 동안 살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④         | ③   | ②      | ①            |

문35. 여러분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것을 얼마나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항                                  | 가능한<br>많이 | 어느<br>정도 | 아주<br>약간만 | 절대로<br>안된다 |
|-------------------------------------|-----------|----------|-----------|------------|
| [1] 외국에 있는 우리 민족 후손들(예: 고려인, 조선족 등) | ④         | ③        | ②         | ①          |
| [2] 우리 민족이 아닌 외국인이나 소수민족            | ④         | ③        | ②         | ①          |
| [3] 빈곤국가(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 ④         | ③        | ②         | ①          |

문36. 만일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외국에 있다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 돌아와서 전쟁을 돕는다 | 외국에서 일을 정리한 후<br>귀국여부를 결정한다 | 외국에서 도울 수<br>있는 방법을 찾는다 | 개인 사정을<br>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
| ④            | ③                           | ②                       | ①                    |

문37. 애국가가 들릴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경건한<br>마음이 든다 | 우리나라 국기, 애국가라는<br>생각 외에 별 감동이 없다 | 어색한 생각이 든다 | 별 생각에 들지 않는다 |
|----------------------------|----------------------------------|------------|--------------|
| ④                          | ③                                | ②          | ①            |

문38.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하여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더욱 있다고 본다 | 비슷한 것 같다 | 덜한 것 같다 | 매우 덜하다 |
|-----------|----------|---------|--------|
| ④         | ③        | ②       | ①      |

문39.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br>않다 | 전혀<br>그렇지<br>않다 |
|---------------------------------------------------------------------|-----------|-----|-----------|-----------------|
| (1) 우리는 되도록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을 사야한다                                   | ④         | ③   | ②         | ①               |
| (2) 안전 요원은 국가 안전을 위협할 용의자(예: 간첩 등)라고 여겨지는 사람의 편지나 전화, 이메일을 체크할 수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3) 국가 안전에 엄청난 위협을 느낄 때, 정부는 언론 출판을 통제할 권력을 가져야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4) 우리나라는 우리가 성취한 것들에 대해 다른 나라의 존경을 받을만하다                           | ④         | ③   | ②         | ①               |

문40. 여러분은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 문항                     | 매우<br>관심많음 | 관심<br>많음 | 관심<br>없음 | 전혀<br>관심없음 |
|------------------------|------------|----------|----------|------------|
| (1) 다른 나라들의 정치·사회적 문제  | ④          | ③        | ②        | ①          |
| (2) 국가 간 갈등에 대한 신문기사 등 | ④          | ③        | ②        | ①          |

문41.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br>않다 | 전혀<br>그렇지<br>않다 |
|--------------------------------------------------|-----------|-----|-----------|-----------------|
| (1) 나는 외국인과 잘 지내는데 큰 문제가 없다                      | ④         | ③   | ②         | ①               |
| (2) 나는 외국을 방문할 때 그 나라에 적합한 매너와 문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학습한다 | ④         | ③   | ②         | ①               |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 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배경문항 1. 응답자(학생)가 태어난 년도는 언제입니까? \_\_\_\_\_년도

배경문항 2. 응답자(학생)의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_\_\_\_\_시/도                      ② \_\_\_\_\_시/군/구                      ③ \_\_\_\_\_동/읍/면

☞ 살고 있는 곳이 대도시인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라면 서울 ①/도 서초 시/군/구 ② 우면 ③/읍/면으로 표기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인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이라면 충청남 ④/도 아산 ⑤/군/구 배방 동/읍/면으로 표기

배경문항 3. 응답자(학생)가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전문대학(2년제)                      ② 대학교(3년제)                      ③ 대학교(4년제)

배경문항 4. 응답자(학생)는 몇 학년입니까?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배경문항 5. 응답자(학생)는 언제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 입학(신·편입학)하셨습니다? \_\_\_\_\_년도



배경문항 6. 응답자(학생)가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입학유형은 어떻게 됩니까?

① 신입학

② 편입학

배경문항 7. 응답자(학생)의 전공계열은 무엇입니까?

① 인문계열

② 사회계열

③ 교육(사범)계열

④ 공학계열

⑤ 자연계열

⑥ 의학계열

⑦ 예체능계열

배경문항 8.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① [외]할아버지

② [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새아버지

⑥ 새어머니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친척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⑩ 없음

배경문항 9. 부모님(보호자)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부모님(보호자)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십시오.

※ 보호자는 부모님 이외 현재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는 분을 말합니다.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2)에 표시합니다.

|         | 부모님<br>(보호자)<br>안 계심 | 학교<br>안 다님 | 초등학교<br>졸업 | 중학교<br>졸업 | 고등학교<br>졸업 | 2-3년제<br>대리 졸업 | 4년제<br>대리 졸업 | 대학원 졸업<br>(석사·학사) | 잘<br>모르겠음 |
|---------|----------------------|------------|------------|-----------|------------|----------------|--------------|-------------------|-----------|
| [1] 아버지 | ⑩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 [2] 어머니 | ⑩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 [3] 보호자 | ⑩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배경문항 10. 여러분의 어릴적 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에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br>않다 | 전혀<br>그렇지<br>않다 |
|--------------------------------------------|-----------|-----|-----------|-----------------|
| [1] 어릴적 가족과 책을 읽고 대화한 경험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 ④         | ③   | ②         | ①               |
| [2] 아버지는 내게 지적자극을 많이 주셨다                   | ④         | ③   | ②         | ①               |
| [3] 어머니는 내게 지적자극을 많이 주셨다                   | ④         | ③   | ②         | ①               |
| [4] 아버지의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았다                    | ④         | ③   | ②         | ①               |
| [5] 어머니의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았다                    | ④         | ③   | ②         | ①               |
| [6] 부모님은 학원선정이나 학습 계획을 세심하게 관리해 주셨다        | ④         | ③   | ②         | ①               |
| [7] 아버지는 나의 공부 및 삶의 태도에 모범이 되셨다            | ④         | ③   | ②         | ①               |
| [8] 어머니는 나의 공부 및 삶의 태도에 모범이 되셨다            | ④         | ③   | ②         | ①               |

배경문항 11. 여러분은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항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br>않다 | 전혀<br>그렇지<br>않다 |
|-----------------------|-----------|-----|-----------|-----------------|
| 1) 나는 걱정거리가 없이 즐겁다    | ④         | ③   | ②         | ①               |
| 2)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 ④         | ③   | ②         | ①               |
| 3) 나는 사는 게 즐겁다        | ④         | ③   | ②         | ①               |
| 4) 나는 학업성적에 대해 만족한다   | ④         | ③   | ②         | ①               |

배경문항 12. 여러분의 평균 학점(1학년부터 현재까지 취득평점/만점)은 어느 정도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예) 3.85(취득평점)/4.5(만점). 또는 3.85(취득평점)/4.3(만점)  
 \_\_\_\_\_(취득평점) / \_\_\_\_\_(만점)

배경문항 13.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높은 수준 |   | 보통 수준 |   |   | 낮은 수준 |   |
|-------|---|-------|---|---|-------|---|
| ⑦     | ⑥ | ⑤     | ④ | ③ | ②     | ①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5] 2015 청소년 역량 정책제언

### 1

### 청소년 역량정책 추진체계 강화

- 1.1 청소년역량의 개념과 청소년 활동과의 관계 정립
- 1.2 청소년 역량 관련 법·제도의 개정 추진
- 1.3 청소년 역량기반 중심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방안
  - (1)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 정책사업의 성과지표로 활용
  - (2) 역량기반 중심의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방향성 제언

#### 1.1 청소년역량의 개념과 청소년 활동과의 관계 정립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초기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선도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청소년을 자주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독립된 주체로서의 현재를 살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활동 및 수련 영역이 강조된다. 이러한 관점의 이동은 최근 들어 역량 관점으로 나타나는데, 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량 중심의 청소년정책 수립을 향해 나아가는 시점에서 정책적으로 청소년역량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서지 않았으며,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청소년활동이라는 용어를 통해 역량을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역량과 청소년활동은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 청소년기본법에 나타난 청소년활동의 정의를 보면 “청소년이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법·제도상 청소년역량에 대한 정의는 아직 명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역량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성은모·백혜정·진성희(2014)에 따르면 청소년역량은 “청소년이 현재와 미래(성인기)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핵심행동특성으로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에서 경험하고 충족시켜야 할 능력(지식, 기술, 태도)”로 정의되고 있으며, 김기현·김지연·장근영·소경희·김진화·강영배(2009)는 청소년 생애핵심역량을 “한 개인의 성공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생애발달단계에서 청소년기에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는 복합적, 종합적 능력으로 정규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나 가정에서도 학습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즉, 청소년역량을 청소년활동의 개념과 혼돈하여

사용하거나 대체하여 사용할 경우 청소년역량을 협의의 개념에서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청소년역량과 청소년활동은 유사한 의미를 내재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다른 개념이며 두 개념 간의 관계는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권일남과 김태균(2009)은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청소년활동영역구성에 관해 연구를 진행했는데,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통해 개인의 내적 역량이 강화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역량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하는 동시에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역량의 발달을 위한 수단이자 하위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권일남·최창욱(2011)의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에 역량의 개념을 투입하게 되면 청소년활동에 대한 목적과 의미가 주어짐과 동시에 활동의 당위성이 정립해짐을 보고하면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역량을 개발하고 발달시키기 위한 목표이자 수단임을 시사한다.

위 결과들을 정리하자면, 청소년정책의 흐름이 이제 수련, 활동에서 역량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활동이라는 용어가 여전히 역량을 대체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역량의 개념과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역량의 개념을 정리하여 법·제도적으로 명시화하고, 역량과 활동 간의 관계를 정립하며 이러한 결과들을 기반으로 제6차 청소년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우리나라 청소년역량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 1.2 청소년 역량 관련 법·제도의 개정 추진

미래사회의 불투명한 예측 안에서 청소년 개개인이 갖는 역량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현재도 많은 국가들이 청소년역량의 신장을 위해 국가과제로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으며 그에 대한 근거로 현재 청소년역량과 관련한 내용은 청소년기본법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청소년기본계획에 있어서도 2008년에 와서 제4차 청소년기본계획에 청소년역량을 하나의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에서 중점과제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전체 기본계획에서 청소년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으며 상황이 이러다보니 청소년역량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국가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관련 법·제도의 부재는 추진체계에 힘을 불어넣지 못하고 그러다보니 정부부처 및 청소년관련 기관에서도 청소년역량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역량의 개발과 강화를 위한 예산 및 인력의 부족으로 적절한 실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역량 개발과 발달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는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상에 청소년역량에 대한 전담기구와 인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무, 실행예산 등을 명시하여 갈수록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청소년역량의 개발과 발달 방안을 보장해야 한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법·제도의 신설보다는 청소년기본법 3조 3호에 명시된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의 즉,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이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를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역량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청소년역량의 개발과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것이다. 또는 권일남·최창욱(2011)의 연구에서 제안한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기에 지덕체의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핵심역량(자아역량, 신체역량, 갈등조절역량, 문제해결역량, 성취동기역량, 대인관계역량, 리더십역량, 시민성역량)을 계발하도록 체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와 같이 재정립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청소년활동의 개념에 대한 조항이 예시와 같이 수정되면, 이를 근거로 청소년역량에 기반한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그렇게 되면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이 두 법을 통해 청소년역량의 개발과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기구, 인력, 역할, 그에 따른 예산 등이 법으로 보장되어 한국 청소년의 역량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아울러 앞서 제시한 청소년 활동정책과 청소년 역량 정책간의 개념정립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다.

표 [부록5]-1 청소년 역량에 대한 법적 재해석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청소년 기본법<br>제3조 | 3.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 3. "청소년 역량" 이라 함은 청소년이 현재와 미래(성인기)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핵심행동특성으로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에서 경험하고 충족시켜야 할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의미한다.<br>3.1. 청소년 역량(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을 계발하기 위한 활동을 "청소년 활동" 이라하고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청소년 활동진흥법<br>제2조 | <p>3.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p> <p>4. "청소년교류활동"(이하 "교류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지역간·남북간·국가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p> <p>5. "청소년문화활동"(이하 "문화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예술활동·스포츠 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p> | <p>3. "생애학습역량"이라 함은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의미한다.</p> <p>4. "생활관리역량"이라 함은 자신이 삶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여 자신과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p> <p>5. "진로개발역량"이라 함은 일생에 걸친 개인의 생애 역할, 경험, 관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독특성을 개발하고 인생의 경험의 폭을 넓히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능력을 의미한다.</p> <p>6. "대인관계역량"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타인들과 개방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주도적으로 협력하여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의미한다.</p> <p>7. "사회참여역량"이라 함은 청소년이 민주 시민으로서 사회적 선을 위하여 타인과 협력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능력을 의미한다.</p> <p>8. 청소년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청소년 활동"으로써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은 다음과 같다.</p> <p>8.1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p> <p>8.2 "청소년교류활동"(이하 "교류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지역간·남북간·국가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p> <p>8.3 "청소년문화활동"(이하 "문화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예술활동·스포츠 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p> |

### 1.3 청소년 역량기반 중심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방안

#### (1)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 정책사업내용 평가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역별 중점과제를 살펴보면(표 [부록5]-2 참고),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이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 청소년기본계획에서 청소년의 역량을 주요한 요소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점과제를 보면,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로 청소년의 역량별로 체계적으로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외의 다른 영역에서도 청소년의 역량 증진과 관련된 내용들(예. 청소년건강권 보호 등)이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 역량지수체계별로 분류하여 청소년정책사업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별 청소년시행계획을 발행하고 있다. 2015년도 여성가족부에서 발행한 「제 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 2015년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을 토대로 30개 중앙행정기관<sup>11)</sup>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정책사업과 그에 따른 예산을 청소년역량별로 재분류하여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2015년 3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개수는 246개(연속사업개수에 한함)로, 이에 따른 예산은 총 6,757,718백만 원이다.<sup>12)</sup>

11) 30개 중앙행정기관 :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대검찰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12) 「제 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 2015년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에서 보고한 2015년 예산은 6,693,218백만 원임.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 각 사업별 예산한 결과는 6,757,718백만 원임. 유사 사업 중 예산이 중복되어 기입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임.

표 [부록5]-2 2015년 중앙행정기관의 사업과제 및 예산 (단위: 백만 원)

| 영역                         | 중점과제                    | 세부<br>과제 | 사업<br>개수 | 연속<br>사업<br>개수 | 신규사<br>업개수 | 예산        |
|----------------------------|-------------------------|----------|----------|----------------|------------|-----------|
| 1.<br>청소년의<br>다양한 역량<br>강화 | 1.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 7        | 38       | 37             | 1          | 249,424   |
|                            | 2.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 5        | 18       | 18             |            | 11,354    |
|                            | 3.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 4        | 13       | 13             |            | 30,943    |
| 2.<br>청소년 참여 및<br>권리 증진    | 4.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 4        | 6        | 6              |            | 1,493     |
|                            | 5.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 4        | 18       | 17             | 1          | 149,404   |
|                            | 6.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 5        | 14       | 14             |            | 7,388     |
| 3.<br>청소년 복지 및<br>자립지원     | 7.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 7        | 20       | 20             |            | 5,147,073 |
|                            | 8.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 8        | 17       | 17             |            | 384,953   |
|                            | 9.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 지원 | 7        | 24       | 22             | 2          | 518,897   |
| 4.<br>청소년 친화적<br>환경 조성     | 10.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 4        | 11       | 11             |            | 31,420    |
|                            | 11.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8        | 41       | 41             |            | 186,069   |
|                            | 12.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인식제고  | 3        | 15       | 15             |            | 28,907    |
| 5.<br>청소년 정책<br>추진 체계 강화   | 13.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 3        | 3        | 3              | -          |           |
|                            | 14. 청소년 자원 인프라 보강       | 3        | 5        | 5              |            | 10,013    |
|                            | 15.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 3        | 3        | 3              |            | 380       |
|                            |                         | 75       | 246      | 242            | 4          | 6,757,718 |

한편,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정책사업을 청소년역량지수 체계별로 재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정책사업 중 생활관리역량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사회참여, 진로개발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역량과 관련된 사업내용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예산은 생애학습 관련 예산이 가장 많고, 진로개발, 생활관리, 청소년전체 역량, 사회참여, 대인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생애학습과 관련한 예산이 많은 것은 교육부에서 '정부와 대학의 분담 구조 하에 국가장학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예산(3,600,000백만 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생애학습과 관련된 예산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부록5]-3 청소년역량지수 체계별 사업과제 수 및 예산 (단위: 백만 원)

|           | 사업 수 |       | 예산        |       |
|-----------|------|-------|-----------|-------|
|           | 빈도   | 비율    | 금액        | 비율    |
| 전체        | 246  | 100.0 | 6,805,963 | 100.0 |
| 청소년 전체 역량 | 20   | 8.1   | 398,958   | 5.9   |
| 생애학습      | 16   | 6.5   | 4,673,850 | 68.7  |
| 생활관리      | 101  | 41.1  | 687,340   | 10.1  |
| 진로개발      | 48   | 19.5  | 940,814   | 13.8  |
| 대인관계      | 9    | 3.7   | 20,838    | 0.3   |
| 사회참여      | 52   | 21.1  | 84,163    | 1.2   |

청소년역량 전체와 관련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인프라 체계를 갖추는 내용이 많고, 그 다음으로는 인력 지원, 제도 정비와 관련된 사업이 많았다. 생애학습역량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제도정비 및 보강으로 나타남. 생활관리, 진로개발, 대인관계, 사회참여 역량과 관련된 사업내용을 보면 모든 역량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가장 많다. 특히, 대인관계, 사회참여역량과 관련해서는 80% 이상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업이며, 반면 인력 지원 부분에 있어서 사업내용이 부족한데, 생애학습, 진로개발, 대인관계, 사회참여 역량과 관련한 인력 지원 사업내용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내용의 대상에 따라서는 대인관계, 사회참여 역량은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많았던 반면, 생애학습 역량과 관련한 사업에서는 취약계층 및 특정대상을 한 사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부록5]-4 청소년역량지수 체계별 내용구분 및 정책지원 대상

| 구분       |         | 구분   |       |      |       |      |       |      |       |      |       |      |       | 전체  |       |
|----------|---------|------|-------|------|-------|------|-------|------|-------|------|-------|------|-------|-----|-------|
|          |         | 역량전체 |       | 생애학습 |       | 생활관리 |       | 진로개발 |       | 대인관계 |       | 사회참여 |       |     |       |
| 전체       |         | 20   | 100.0 | 16   | 100.0 | 101  | 100.0 | 48   | 100.0 | 9    | 100.0 | 52   | 100.0 | 246 | 100.0 |
| 내용<br>구분 | 프로그램    | 1    | 5.0   | 9    | 56.3  | 38   | 37.6  | 26   | 54.2  | 8    | 88.9  | 42   | 80.8  | 124 | 50.4  |
|          | 인프라 구축  | 11   | 55.0  | 2    | 12.5  | 28   | 27.7  | 9    | 18.8  | 0    | 0.0   | 5    | 9.6   | 55  | 22.4  |
|          | 인력 지원   | 4    | 20.0  | 0    | 0.0   | 8    | 7.9   | 0    | 0.0   | 0    | 0.0   | 0    | 0.0   | 12  | 4.9   |
|          | 제도 정비   | 4    | 20.0  | 4    | 25.0  | 23   | 22.8  | 13   | 27.1  | 1    | 11.1  | 4    | 7.7   | 49  | 19.9  |
|          | 기타      | 0    | 0.0   | 1    | 6.3   | 4    | 4.0   | 0    | 0.0   | 0    | 0.0   | 1    | 1.9   | 6   | 2.4   |
| 대상       | 취약 및 특정 | 3    | 15.0  | 9    | 56.3  | 31   | 30.7  | 16   | 33.3  | 1    | 11.1  | 5    | 9.6   | 65  | 26.4  |
|          | 청소년전체   | 17   | 85.0  | 7    | 43.8  | 70   | 69.3  | 32   | 66.7  | 8    | 88.9  | 47   | 90.4  | 181 | 73.6  |

종합컨대, 5차 청소년기본계획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사업은 청소년의 전반적인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내용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생애학습역량과 대인관계역량과 관련한 사업의 비중이 다른 역량의 사업보다 상당히 적었다. 다음으로 예산 분배도 적절히 이루어지고 않은데, 생애학습역량의 사업 수는 적은 데 반해 예산의 비중은 커, 청소년의 역량증진을 위해서는 적절한 사업 구성과 함께 예산 분배 또한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청소년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정책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인력들의 능력이 청소년들의 역량을 결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청소년 역량관련 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2) 역량기반 중심의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방향성 제안

다음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사업내용을 근거로 각 역량별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방안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애학습역량은 본 연구의 조사 결과, 다른 역량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애역량 중에서도 사고력, 학습적응성보다 지적도구활용능력을 청소년들은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생애역량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밝혔으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PISA 결과는 최고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지적도구활용능력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부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5차 청소년기본계획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사업을 보았을 때도,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을만한 여건 조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 다문화 아동에게 언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우수 청소년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과학교육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전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학, 읽기, 과학 교육 등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부록5]-5 각 부처별 생애학습역량 관련 정책사업내용

| 소관부처    | 사업내용                                                                                                                                                                                                                                                                                                                                                                                                                                                                |
|---------|---------------------------------------------------------------------------------------------------------------------------------------------------------------------------------------------------------------------------------------------------------------------------------------------------------------------------------------------------------------------------------------------------------------------------------------------------------------------|
| 교육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와 대학의 부담 구조 하에 국가장학금 지원</li> <li>○ 기초수급자, 차상위 복지급여대상자, 기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비 지원</li> <li>○ 특수학교(급) 과밀학급 및 장애학생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급) 산증설</li> <li>○ 장애학생 취업 기회 확대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전공과* 학급 산증설</li> <li>* 전공과 :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장애학생의 직업재활훈련 및 자립생활훈련을 위해 특수학교 또는 일반 학교에 설치한 수업연한 1년 이상의 과정</li> <li>○ 장애대학생 교내 생활 및 학습 지원을 위한 도우미의 연차적 증원</li> <li>○ 다문화학생이 정규학교 배치 전에 한국어·한국문화를 집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학교* 확대운영</li> </ul> |
| 농림축산식품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범위 내 전액 무이자 용자 지원</li> </ul>                                                                                                                                                                                                                                                                                                                                   |
| 문화재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문화유산과 연관된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li> <li>○ 학습·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해양문화유산의 전반적인 이해 증진</li> </ul>                                                                                                                                                                                                                                                                                                                                   |
| 문화재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취학 아동(6 ~ 7세) 및 초등학교(1~6학년)를 대상으로 자연유산(동물·식물·화석 등)에 대한 흥미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li> <li>○ 동식물 식물 표본 및 자연유산 연구관련 자료 사진 등을 활용하여 생생한 자연유산 체험기회 제공</li> </ul>                                                                                                                                                                                                                                                                         |
| 문화체육관광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의 우리말 사랑 동아리 활동 지원</li> <li>-언어 환경 개선 및 국어인식 개선 운동 전개</li> <li>-전용 누리집 운영 및 누리소통망(SNS)에 활동 소개 등</li> </ul>                                                                                                                                                                                                                                                                                                    |
| 문화체육관광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li> <li>○ '희망계중' 대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li> <li>○ '가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li> </ul>                                                                                                                                                                                                                                                                                                                               |
| 산업통상자원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봇문화 확산 및 복지실현을 위한 로봇을 활용한 창의교육으로 로봇창의인재양성 지원</li> <li>-사회적 배려계층(복지시설) 초등학생 대상으로 교육용 로봇을 활용한 1인 1대 방문교육 및 창의대회 실시</li> <li>-사군지역(농어촌 중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용 로봇을 활용한 체험창의교육 실시</li> </ul>                                                                                                                                                                                                                                       |
| 여성가족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li> <li>○ 다문화가족 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부모교육, 부모-자녀 활동 프로그램 운영</li> <li>○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자녀(만 3세 ~ 만10세 미만)에게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li> </ul>                                                                                                                                                                                      |
| 통일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북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교육 확대</li> <li>-연령 및 학력을 고려한 수준별 교육 실시</li> <li>-탈북청소년 사회 적응 및 진로·진학 지도</li> <li>○ 멘토링 등을 통해 우수 탈북청소년을 통일미래 인재로 양성</li> <li>○ 특성화학교, 대안교육시설, 방과후공부방, 그룹홈 등 탈북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 지원</li> </ul>                                                                                                                                                                                                                      |
| 특허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명교육 저변확대를 위한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운영, 발명영재교육 강화 및 특성화고 발명특허 교육 확산, 우수 발명인재 발굴을 위한 발명창의력 대회 운영, 발명교육센터 운영 등 추진</li> </ul>                                                                                                                                                                                                                                                                                                            |

출처 : 여성가족부(2015). 제 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 2015년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생활관리역량에 있어서는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관리 역량에 비해 상황대처 및 정서조절 역량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학교급이 증가할수록 생활관리역량이 낮아졌다. 즉, 청소년들의 생활관리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즉, 중독 및 폭력행동 등과 관련한 대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청소년들이 감정을 절제 및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사업들을 살펴보면,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 청소년을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생활관리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이 될 필요가 있는데, 학교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차원에서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자신의 감정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발 및 보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부록5]-6 각 부처별 생활관리역량 관련 정책사업내용

| 소관부처    | 사업내용                                                                                                                                                                                                                                                |
|---------|-----------------------------------------------------------------------------------------------------------------------------------------------------------------------------------------------------------------------------------------------------|
| 경찰청     | ○ 국립정신병원에 학교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입원 학생들에 교과학습의 기회와 특별활동 및 관련 치료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br>-해당지역 교육청과 협력하여 병원학교 출석 시 원격학교 출석 인정<br>※ 참다울학교(서울병원, 2006), 느티나무학교(나주병원, 2011), 도담교실(부곡병원, 2005), 어울림학교(공주병원, 2012) 운영 중                                          |
| 교육부     | ○ 학교 내외 CCTV 설치 확대 및 고화소 CCTV 확충<br>○ 초등학교 CCTV와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연계<br>○ 유치원 운영자 및 취업자(예정자)*에 대한 성범죄경력조회 실시 및 점검, 실태조사<br>○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 교육부     | ○ 교육지원청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개최                                                                                                                                                                                                                              |
| 교육부     | ○ 초1,4학년, 중,고 1학년 대상 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및 추후관리                                                                                                                                                                                                            |
| 농림축산식품부 | ○ 이주배경청소년 지역자원 발굴 및 관련 서비스 연계<br>○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정서, 학습 지원 등을 위한 1 : 1 멘토링 서비스 제공<br>○ 이주배경청소년에게 기초생활 한국어 및 학과 지도,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레인보우스쿨' 을 통해 한국사회 초기적응 지원<br>○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지원 프로그램(무지개Job아라) 제공을 통한 사회적 지원<br>○ 청소년 관련기관 실무자 교육 등 이주배경청소년 전문가 양성 |
| 문화체육관광부 | ○ 사업내용 : 체육지도자, 운동선수, 학보모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및 각종 (성)폭력 등에 대한 신고 접수사항에 상담                                                                                                                                                                   |
| 문화체육관광부 | ○ 종목별 프로그램 교실 운영을 통한 청소년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br>○ 여학생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여자어린이 축구교실 운영 등으로 여학생 스포츠 참여율 제고<br>○ 뉴스포츠 및 동계스포츠 보급으로 다양한 스포츠 체험기회 부여<br>○ 청소년체육활동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
| 문화체육관광부 | ○ CYS-Net을 연도별 확대 및 지원 강화를 통한 서비스 수혜 청소년 확대 및 위기 수준 감소                                                                                                                                                                                              |
| 문화체육관광부 | ○ CCTV 관제기능 통합, 기반조성 등 자치단체 CCTV 이용환경을 개선하여 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예방기능 강화 및 CCTV 운영효율성 확보                                                                                                                                                                |
| 문화체육관광부 | ○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토요 스포츠강사 지원<br>○ 지역 체육시설과 연계한 학교 밖 프로그램 운영                                                                                                                                                                                           |
| 문화체육관광부 | ○ 청소년 영상물 이용의 건전성 확보등급분류의 올바른 이해연령에 맞는 영상물 이용을 위해 교육 홍보의 일환으로 『청소년의 영상물 건전이용 프로그램』 운영                                                                                                                                                               |
| 방송통신위원회 | ○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정비 및 감시활동 강화<br>※ 2014년 12월 말 현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37개소,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19개소<br>○ 관련시설물 설치 및 관리<br>※ 안내판 설치 : 49개소, 도로표시 22개소, 초소설치 16개소<br>○ 신도시 개발·실시계획지구 및 택지개발 계획 격리구획화 도입 협의                                                               |
| 법무부     | ○ (개요) 가출 청소년의 비행탈선 예방 및 가정사회로의 안전한 복귀를 위해 청소년 쉼터 설치운영지원                                                                                                                                                                                            |

| 소관부처     | 사업내용                                                                                                                                                                                                                                                                                                                                                          |
|----------|---------------------------------------------------------------------------------------------------------------------------------------------------------------------------------------------------------------------------------------------------------------------------------------------------------------------------------------------------------------|
| 보건복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건강 위기에 따른 개입 프로그램 개발</li> <li>-청소년의 정신건강 위기에 따라 차별화된 적절 프로그램 개발</li> <li>○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체계의 연결망 구축</li> <li>-지역사회 내 만-관 정신건강 서비스 자원에 대한 파악 및 분석 실시</li> <li>-정신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사설상담센터, 사회복지관 등 전문가관과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정신과 의사 및 임상심리사들로 구성된 지역사회 전문가 집단을 연계한 청소년정신건강증진 사업 추진</li> </ul> |
| 보건복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술담배, 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로 학생들이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li> <li>○ 민-警-官 합동으로 방학 기간, 수능전후 등 청소년 활동 주기에 맞춰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보호활동 지속 전개</li> </ul>                                                                                                                                                                     |
| 식품의약품안전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쉼터와 지역 내 학교 간 연계에 통한 가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상담센터 등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위기상담 실시</li> </ul>                                                                                                                                                                                                                                      |
| 식품의약품안전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조기적응프로그램* 제공 강화</li> </ul>                                                                                                                                                                                                                                                                               |
| 식품의약품안전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 대상 식품안전영양교육 참여 학교 확대 실시</li> <li>○ 아동-청소년의 당류 적정섭취 유도를 위한 교육홍보</li> <li>○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나트륨 과잉섭취 예방 프로그램 운영</li> </ul>                                                                                                                                                                                         |
| 여성가족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심층, 적극 개입이 필요한 고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층상담 및 맞춤형 사례지원</li> <li>○ (청소년 상담서비스 제공)</li> </ul>                                                                                                                                                                                                             |
| 여성가족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의 효율적효과적 운영 및 전국 확대</li> <li>-청소년 치료재활 전문기관으로서 중장기 운영 방안 마련</li> <li>-지역사회의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한 신청창구 마련으로 대상자의 접근성 마련</li> <li>○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의 전문성 확보</li> <li>-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서 제공되는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실시</li> <li>-전문가 자문 및 평가 등을 통해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치료재활 프로그램 개선</li> </ul>                              |
| 여성가족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 지원, 보호하기 위해 CYS-Net 연계망의 필수 구성 기관인 '필수연계' 기관 운영 활성화</li> </ul>                                                                                                                                                                                                                                    |
| 여성가족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살위험, 우울증 등 고위기 청소년 대상 청소년 동반자 파견을 통한 찾아가는 심층 상담 및 지역자원 연계 서비스 제공</li> <li>※ 2-2-4 과제내용 포함</li> </ul>                                                                                                                                                                                                                |
| 여성가족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유해매체(인터넷, 음반 등)에 대한 청소년의 유해정보 접근 차단 및 방지를 위한 사업자 대상 컨설팅 및 청소년보호교육 실시</li> <li>○ 미디어컨텐츠 소비자로서의 청소년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매체물 심의 관계부처 및 심의 기구간 협력강화</li> </ul>                                                                                                                                                                |
| 여성가족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 지역 청소년성교육전문기관 등과 협의, 전국 소년보호기관 교육생 성폭력 예방교육, 소속직원 대상 성비행예방 전문지도자 양성과정(기본과정 및 심화과정) 개설, 소년원생 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교육 등을 실시</li> </ul>                                                                                                                                                                                    |
| 여성가족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방식 개선 및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li> </ul>                                                                                                                                                                                                                                                                   |
| 여성가족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생활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li> <li>○ 식생활교육 범국민 활성화를 위한 체험관운영 및 캠페인 등 홍보</li> <li>○ 식생활 개선을 위한 지자체 및 학교 단위 식생활교육 확대</li> </ul>                                                                                                                                                                                 |
| 여성가족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공식품 및 외식의 영양표시 지속 확대</li> <li>○ 청소년의 올바른 식품선택을 위한 영양표시 교육홍보 실시</li> </ul>                                                                                                                                                                                                                                           |
| 여성가족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스포츠강사 배치</li> </ul>                                                                                                                                                                                                                                                                                  |
| 행정자치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지속관리가 필요한 취약학교 중심의 집중지원을 위한 교육청 기반의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운영</li> </ul>                                                                                                                                                                                                                                          |

출처 : 여성가족부(2015). 제 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 2015년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진로개발역량에 있어서는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의 개척정신 점수가 진로설계 및 여가활용 역량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로개발역량 역시 전반적으로 학교급이 증가할수록 역량수준이 낮아졌다.

각 부처별 진로개발역량 관련 정책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진로설계와 관련된 사업내용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청소년들의 여가 활용을 위한 사업내용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실제로 하고 싶은 여가 활동 내용 1위가 ‘관광’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는데(문화체육관광부, 2010),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소년들의 개척정신 함양은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여가시간을 다양하게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다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함양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청소년들의 여가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수립이 필요하다.

표 [부록5]-7 각 부처별 진로개발역량 관련 정책사업내용

| 소관부처    | 사업내용                                                                                                                                                                                                                                                                                                                                                                 |
|---------|----------------------------------------------------------------------------------------------------------------------------------------------------------------------------------------------------------------------------------------------------------------------------------------------------------------------------------------------------------------------|
| 고용노동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통해 근로조건 보호</li> <li>○ ‘청소년 리더’,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활동을 통해 청소년 근로권익 홍보</li> <li>○ 알바신고센터, 앱, 신고 대표전화 등을 통해 신고체계 운영</li> <li>○ 프랜차이즈 업체, 교육청, 공인노무사회 등과 연계하여 교육, 홍보 실시</li> </ul>                                                                                                                            |
| 고용노동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관련 자료정보의 전시 및 제공, 직업체험프로그램 개설 운영, 직업상담 및 직업 심리검사 서비스 제공,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등</li> </ul>                                                                                                                                                                                                                                       |
| 고용노동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1개 대학에 취업지원관(159명) 채용을 지원하고, 52개 대학에 청년고용센터(민간컨설턴트 132명)를 설치하여 생들에게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개인에 맞는 진로설계 및 취업으로 연결</li> </ul>                                                                                                                                                                                                     |
| 고용노동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민간기업, 공공·교육기관, 사회단체에서 3개월 이내 직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li> </ul>                                                                                                                                                                                                                                                    |
| 고용노동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일배움카드제) 취업 희망 고교 졸업예정자 대상 직업훈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세 이상인 청소년으로서 현재 학업(중·고·대)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자</li> </ul> </li> <li>○ (취업사관학교) 15세 이상 24세 미만의 학교 밖 위기 청소년*에 맞춤형 무료 직업훈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지원, 훈련생에 훈련장려금 지원</li> </ul> </li> </ul>                             |
| 교육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고교 단계 각 1회 이상 진로체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직업체험, 진로캠프, 직업실무체험, 현장견학, 학교체험</li> </ul> </li> <li>○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li> </ul>                                                                                                                                                                  |
| 교육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상담, 진로 탐색, 체험 활동 등 맞춤형 숙려제 프로그램 제공</li> <li>○ Wee 프로젝트 인프라 확대를 통한 학업중단 등 위기학생에 대한 맞춤형 상담 지원</li> </ul>                                                                                                                                                                                    |
| 교육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선도 특성화고 선정지원으로 학교단위의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li> <li>○ 중소기업 인식제고, 고졸인재 인식개선 등을 위한 체험 및 홍보</li> </ul>                                                                                                                                                                                                                              |
| 교육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등 단계에서 연 2회 이상 진로심리검사 실시</li> <li>○ 교원의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역량 제고</li> </ul>                                                                                                                                                                                                                                                       |
| 문화체육관광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부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장 중장기 대책 수립추진</li> <li>○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 지원</li> </ul>                                                                                                                                                                                                                                                  |
| 문화체육관광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외계층 대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외취약지역 소재 초등학교 대상 ‘예술꽃 씨앗학교’ 운영(2015년 47개 학교 지원)</li> </ul> </li> <li>○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문화예술기관 ‘토요문화학교’ 운영(2015년 800여개소 지원)</li> <li>○ 초·중·고교 문화예술교육 강사 파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중·고교 예술강사 지원(2015년 8,216개교 예술강사 4,916명 파견)</li> </ul> </li> </ul> |
| 문화체육관광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계절 이용 가능한 캐빈, 코테지, 방갈로, 야영장 등의 숙박시설과 취사장, 세면장, 운동놀이시설 등의 공공편의시설 등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지원</li> <li>○ 자연체험형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으로 관광객의 만족도와 선호도가 매우 높은 가족단위 여가시설로 정착되어 본격적인 주5일제를 맞아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li> </ul>                                                                                                                                   |

| 소관부처    | 사업내용                                                                                                                                                                                                                                                                                                              |
|---------|-------------------------------------------------------------------------------------------------------------------------------------------------------------------------------------------------------------------------------------------------------------------------------------------------------------------|
| 법무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노동부와 연계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통해 맞춤형 취업 지원</li> <li>○ 집단 및 개인상담을 거쳐 직업훈련, 단기 일자리 제공,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다양한 취업지원 활동 전개</li> </ul>                                                                                                                                       |
| 법무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직업 훈련, 취업알선 등 지원</li> <li>○ 범죄예방위원, 기업, 사회복지재단 등을 통한 장학금 지원 및 경제구호</li> <li>○ 각 시도 교육청, 학교와 연계한 복학추진</li> <li>○ (주)에듀윌 등과의 협약을 통한 고입대입 검정고시 지원으로 학력취득 강화</li> </ul>                                                            |
| 법무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과 연계, 기관별로 지역 내 산업체 등에서 통근취업, 현장 훈련 등 직업체험 실시</li> </ul>                                                                                                                                                                                                   |
| 법무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운영 : 출원 예정 1 ~ 3개월 미만 학생을 대상으로 단계적통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서울부산대구광주전주안양춘천제주소년원 등 8개 기관)</li> <li>○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 제과제빵 교육과정 중 '바리스타 과정' 지속 운영</li> <li>○ 사랑의 리퀘스트 후원금 지원, 장학금 지급 등 경제적 자립 지원(전국 10개 소년원)</li> </ul>                                  |
| 법무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원 출원생 취업 및 자립지원</li> <li>○ 소년원 담임교사가 중심이 되어 출원생 사회정착 지원을 실시하는 "희망도우미 프로젝트" 운영</li> <li>○ 소년원생과 자원봉사자의 1 : 1 멘토링 시스템 구축</li> <li>○ 무의탁 출원생 지원을 위한 전국 8개 자립생활관 및 사회정착지원센터(YES센터, Youth EducationServiceCenter)운영</li> </ul>                                              |
| 보건복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멘토링을 통한 취약계층 휴먼네트워크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멘토 발굴, 멘토-멘티 연계 및 멘토링 교육연구사업 등</li> </ul>                                                                                                                                                                                               |
| 보건복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세 이상 보호아동의 자립역량 강화(교육, 자립체험, 포럼 등)</li> <li>○ 보호종결아동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미련 지원, 취업을 위한 훈련교육 및 취업정보제공, 상담, 보호종결아동 모니터링, 학업지원을 위한 후원금 모금 등</li> </ul> </li> <li>○ 보호종결아동 실태조사 등</li> </ul>                                                   |
| 산업통상자원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의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공모전</li> </ul>                                                                                                                                                                                                                                |
| 여성가족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 제공</li> </ul>                                                                                                                                                                                                 |
| 여성가족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다양한 청소년 문화를 Net Working하여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상설 청소년 문화·예술·놀이체험의 장 운영</li> <li>○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시설 및 지역문화기반 시설과 연계한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서비스를 지원하여 정서함양 및 잠재역량 개발</li> </ul>                                                                                              |
| 여성가족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자체(센터) 및 대학(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여대생 커리어 개발에 필요한 비용(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li> </ul>                                                                                                                                                                                         |
| 여성가족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름.겨울방학기간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실시</li> </ul> </li> </ul>                                                                                                                                 |
| 여성가족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할인제 및 청소년증을 통합한 「청소년희망카드(가칭)」 도입</li> </ul>                                                                                                                                                                                                                           |
| 여성가족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대상 구직상담, 구인업체 발굴, 취업 알선,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관리 등 찾아가는 취업서비스 지원</li> </ul>                                                                                                                                                                    |
| 여성가족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지원) 초기상담 및 욕구파악, 심라진로.가족관계 등 문제상담</li> <li>○ (교육지원) 검정고시 지원, 상급학교 진학 지원, 비진학 청소년 진학 지원, 재취학, 재입학 등 복고, 대안학교 진학 지원, 학업중단 예방 지원 등</li> <li>○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직업체험이나 진로교육활동 또는 직접적인 경제활동 참여나 취업을 지원하는 활동 등</li> <li>○ (자립지원)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경제법률교육 등</li> </ul> |
| 여성가족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동반자 운영)비행, 일탈, 범죄경험 등 심층,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맞춤형 사례지원</li> <li>○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소년원 출원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프로그램 제공</li> </ul>                                                                                                               |
| 여성가족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우호기업 위촉을 통한 청소년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li> <li>○ 청소년 문화, 직업 체험 확대를 위한 민간 기관 MOU 체결</li> </ul>                                                                                                                                                                                  |
| 여성가족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 위기 청소년 중 사회진출 필요 청소년 대상 기본과정(자립동기 강화), 심화과정(자립기술 습득 과정 및 사회진출 도약 과정) 프로그램 제공</li> <li>○ 청소년 우호기업 위촉을 통한 청소년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li> <li>○ 청소년 문화, 직업 체험 확대를 위한 민간 기관 MOU 체결</li> </ul>                                                                                       |
| 여성가족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직업체험 분야로 특화된 청소년수련시설 신규 건립지원 추진</li> <li>○ 청소년수련시설의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지원</li> </ul>                                                                                                                                                                                    |

| 소관부처  | 사업내용                                                                                                                                                                                           |
|-------|------------------------------------------------------------------------------------------------------------------------------------------------------------------------------------------------|
| 여성가족부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프로그램 제공                                                                                                                               |
| 외교부   | ○ 평일 프로그램<br>- 내용 : 외교부 및 외교사료관 소개, 외교퀴즈, 임용장 수여 및 부임자 선서, 외교사전사실(외교사료관 견학프로그램)<br>○ 토요 프로그램<br>- 내용 :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외교업무와 외교사를 배우고 체험하는 기회 제공(어린이/청소년 외교관학교, 외교관과의 대화, 특별강연, 도슨트에게 배우는 한국외교사 등) |
| 중소기업청 | ○ 중소기업 특성화고 학생 대상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우수기능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취업 지원                                                                                                                                          |
| 중소기업청 | ○ (비즈쿨 운영) 기업가정신 이론 및 특강, 창업경제교육, 현장탐방, 창업동아리 활동 등을 위한 비즈쿨 지정운영<br>○ (비즈쿨 캠프) 체험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창업실무지식 습득 등을 위한 캠프 개최<br>○ (인프라 구축) 비즈쿨 성과 공유 등을 위한 페스티벌, 교재콘텐츠 개발, 담당교사 직무연수 등                 |

출처 : 여성가족부(2015), 제 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 2015년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대인관계역량에 있어서는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의 리더십 점수가 관계형성 및 협동 점수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이 증가할수록 낮아졌다. 한편, 여자 청소년의 경우 남자 청소년에 비해 중기 청소년기까지는 대인관계역량이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후기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대인관계역량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집단주의적 문화가 반영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집단 내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기 보다는 집단의 문화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성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을 수립하는 차원에서는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발달을 위해 주도적으로 그룹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타인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능력을 배양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대인관계역량과 관련된 각 부처의 정책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관계형성 역량과 협동역량을 배양하는 데 프로그램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리더십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부록5]-8 각 부처별 대인관계역량 관련 정책사업내용**

| 소관부처  | 사업내용                                                                                                                                                                                                                       |
|-------|----------------------------------------------------------------------------------------------------------------------------------------------------------------------------------------------------------------------------|
| 교육부   | ○ 공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자기존중감 등 기본 인성 함양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개발운영<br>○ 직장, 농산어촌 등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일과 후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직장인 학부모 등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                                                                                                |
| 교육부   | ○ 또래조정, 또래상담 등의 또래활동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이 교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 함양                                                                                                                                             |
| 농촌진흥청 | ○ 과제활동 및 문화체험 등을 통해 4-H활성화 기반 구축<br>-회의생활, 과제활동 및 문화체험 등을 통한 4-H회원 지도력 배양<br>-리더십 교육 등을 통해 4-H 핵심인재 양성 및 대내외적 4-H활동 인식 제고<br>-4-H활동 홍보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강화를 통해 사회적 신뢰 구축<br>○ 각급 단위 4-H후원단체 지원 및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교육훈련 체계 구축 |



| 소관부처    | 사업내용                                                                                                                                                                                       |
|---------|--------------------------------------------------------------------------------------------------------------------------------------------------------------------------------------------|
| 문화체육관광부 | ○ 청소년 소통 개선 3분 영화 공모전<br>-청소년이 갈등을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소통상의 문제 상황을 담은 3분 정도의 영상 공모, 우수 영상 시상 및 운용 방안, 자료 공유<br>○ 청소년 언어 인식 관련 프로그램 개발<br>-학교, 청소년 유관 기관에서 교사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도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
| 미래창조과학부 | ○ 정보윤리학교(150개교) 내 '아름누리지킴이' 동아리 구성운영<br>-학교 단위의 청소년 동아리를 기반으로 정보윤리 실천 운동 등 자율적 실천활동 지원                                                                                                     |
| 여성가족부   | ○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인성함양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통한 인성함양 지원 강화<br>-청소년 체험학습과 연계한 건전한 사회성 함양 및 사회적응력 제고 등                                                                                                     |
| 여성가족부   | ○ 또래상담 운영학교에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보급                                                                                                                                                               |
| 여성가족부   | ○ 농산어촌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활동 지원 및 선발 우대<br>○ 도농국제 청소년 간 소통 및 교류 활성화 지원                                                                                                      |

출처 : 여성가족부(2015). 제 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 2015년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은 다른 역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세계시민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개인시민성, 공동체시민성 순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통합을 지향하며 민주적 원리를 존중하며 가정, 학교,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봉사하는데 갖추어야 할 역량(성은모 외, 2013)'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의 공동체시민성 함양을 위해서는 인권보호 증진, 환경보호의 중요성 인식 등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적 기관 등에 대한 신뢰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며, 수업시간에 자유롭게 정치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현재 각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참여역량 관련 정책사업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다문화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국제교류프로그램 등 일회성 행사에서 끝나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며,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소 부족해 보인다. 특히, 환경보호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다. 한편, 청소년들의 참여권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공동체시민성이 낮다는 결과를 볼 때, 일부 청소년들에게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일반 청소년들이 사회 및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토론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 및 보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부록5]-9 각 부처별 사회참여역량 관련 정책사업내용

| 소관부처  | 사업내용                                                                                                                                                                                                                                                                                                                                                                                                                                                                          |
|-------|-------------------------------------------------------------------------------------------------------------------------------------------------------------------------------------------------------------------------------------------------------------------------------------------------------------------------------------------------------------------------------------------------------------------------------------------------------------------------------|
| 교육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주도 봉사활동 길잡이 ‘프로젝트 봉사활동’ 을 바탕으로 봉사활동의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수업지 도안 개발 및 모델 적용</li> <li>○ 교육기부자와 수요자가 한 자리에 모이는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개최</li> </ul>                                                                                                                                                                                                                                                                                              |
| 교육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래활동) 학생회 등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권리를 행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 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래조정, 또래상담 등의 또래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교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 함양</li> </ul> </li> <li>○ (학생모니터링) 학생모니터단 활동을 통해 교육정책을 학생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정책 개선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 는 교육주체로서의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 토론능력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신장</li> </ul> </li> </ul> |
| 교육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과 밀접한 교육정책에 대하여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학생들이 정책에 대한 대안 등 의견을 자율적으로 개진</li> </ul>                                                                                                                                                                                                                                                                                                                                                 |
| 교육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선 학교현장의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보편적 인권에 관한 교육 및 지속적인 연수 실시</li> <li>○ 교원 양성 및 연수 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아동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기 위한 자료 개발 및 연 수 실시</li> </ul>                                                                                                                                                                                                                                                                                 |
| 교육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이해도 및 다문화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 확대</li> <li>○ 다문화 학생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우수한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브릿지 사업운영 확대</li> </ul>                                                                                                                                                                                                                                                                                                                    |
| 문화재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궁궐 및 궁궐 문화유산의 전반적 이해를 위한 현장학습, 체험 프로그램 운영</li> </ul>                                                                                                                                                                                                                                                                                                                                                                                 |
| 문화재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급단체를 대상으로 경복궁 등 궁능과 연계한 왕실문화 현장체험 확대 및 인문학 특강 개설</li> <li>○ 주말, 방학기간에 고품질의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어린이, 가족대상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li> </ul>                                                                                                                                                                                                                                                                                                   |
| 문화재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교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 문화유산교육(이론, 현장답사 등) 실시</li> <li>○ 학교 교육과정에 문화유산교육을 접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li> </ul>                                                                                                                                                                                                                                                                                                                                  |
| 법제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법제관) 법안만들기, 법령 백일장, 지역별 토론타당, 법 관련기관 탐방, 법 관련 퀴즈대회 등의 입법체험활 동 및 온라인 법치교육, 주제별 토론타당, 법령개선건의 제출 등 온라인 활동 진행</li> <li>○ (청소년법제관) 기본적인 법 상식 및 입법기본교육, 학교규칙 재개정 위원회를 통해 학교규칙 재개정 작업에 참여, 법 관련 기관 탐방, 법령해설 논술대회, 준법 우수사례 발표회 등 입법체험활동 실시</li> </ul>                                                                                                                                                                                    |
| 보건복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아동총회 지역대회 및 본 대회 추진계획 수립 및 홍보, 지역별 참여 아동 선정, 지역별 대회와 본 대회 개최 등</li> </ul>                                                                                                                                                                                                                                                                                                                                                       |
| 보건복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통한 나눔교육 강사 양성</li> <li>○ 나눔 인재양성을 위한 나눔교육 강화, 재능나눔 활성화 등 전국적·지역적인 나눔문화 확산</li> <li>○ 아동·청소년 기부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한 나눔인재 양성과 기부문화 활성화</li> </ul>                                                                                                                                                                                                                                       |
| 보건복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 실태 점검,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홍보, 아동 인권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li> </ul>                                                                                                                                                                                                                                                                                                                                    |
| 여성가족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 청소년 및 이주배경 청소년을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친선대사, 통역요원 등으로 활용</li> </ul>                                                                                                                                                                                                                                                                                                                                                                       |
| 여성가족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식 개선 및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위한 성폭력 예방 자료 보급</li> <li>○ 성인권교육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 지속 유지</li> </ul>                                                                                                                                                                                                                                                                                                                                            |
| 여성가족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의 학생봉사활동 등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li> <li>○ 또래멘토와 취약청소년이 함께 하는 자원봉사, 가족단위 자원봉사 등 특화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확대 운영</li> <li>○ 정기·장기 프로그램 등록, 프로그램 검색기능 강화, 온라인 교육 등 수요자 욕구를 반영한 청소년자원봉사 포털 사이트 개선</li> </ul>                                                                                                                                                                                                                                          |
| 여성가족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li> </ul>                                                                                                                                                                                                                                                                                                                                                                                |
| 여성가족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청소년 대상 다문화 감수성 증진·다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li> <li>○ 학교, 수련시설 등에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설팅 및 사업평가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 선정·보급</li> </ul> </li> </ul>                                                                                                                                                                                                                                           |
| 여성가족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청소년 대상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운영</li> <li>○ 이주배경청소년 및 일반청소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캠프 운영</li> </ul>                                                                                                                                                                                                                                                                                                                                               |
| 여성가족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국제교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수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보편적 국제교류사업 추진</li> <li>- 연령별, 수준별, 국가별 특성에 맞는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운영</li> <li>- ‘청소년교류센터’ 조직 및 기능 확대로 국제교류의 종합적 기능 수행</li> <li>- 청소년 국제교류 사후관리 강화 및 성과활용 시스템 구축</li> </ul> </li> </ul>                                                                                                                                                                       |

| 소관부처  | 사업내용                                                                                                                                                                                                                                                                                                                                                                                                                                                                                                                                        |
|-------|---------------------------------------------------------------------------------------------------------------------------------------------------------------------------------------------------------------------------------------------------------------------------------------------------------------------------------------------------------------------------------------------------------------------------------------------------------------------------------------------------------------------------------------------|
| 여성가족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들의 다양한 국제교류 기회 확대를 위해 해외체험 프로그램 강화, 국제기구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li> <li>○ 해외 한인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아동·청소년 업무지원 협약, 해외 한인 아동·청소년과 한국 아동·청소년과의 교류 활성화</li> </ul>                                                                                                                                                                                                                                                                                                                                                   |
| 여성가족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자인 청소년들이 국가자치단체·청소년시설의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기구 운영</li> <li>○ 청소년특별회의 운영</li> <li>○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li> <li>○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li> </ul>                                                                                                                                                                                                                                                                                                                                                       |
| 여성가족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17개 사도의 청소년 대표 및 청소년전문가들이 토론회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정부에 건의</li> <li>-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제안한 정책과제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실효성 확보</li> </ul> </li> <li>○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들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청소년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증진 도모</li> </ul> </li> </ul>                                                                                                     |
| 여성가족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등 대상 권리교육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토대로 한 권리 교재 활용 및 협약 이행 적극적 홍보</li> <li>○ 청소년희망센터 운영을 통해 협약 홍보, 권리교육 협약 이행사항 모니터링 등 추진</li> </ul>                                                                                                                                                                                                                                                                                                                                                                 |
| 여성가족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예산의 일정부분을 청소년들이 제안한 실현가능한 의제를 채택해 배정(청소년 예산 참여제도) 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 부여</li> </ul>                                                                                                                                                                                                                                                                                                                                                                                                                   |
| 외교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고 요청에 따른 일회성 특강 지원 및 초·중고 개발 관련 동아리 20개 대상 6차시로 구성된 단계별 맞춤형 교육 실시</li> <li>○ KOICA 임직원, WFK 귀국봉사단원을 대상으로 적격강사 선발</li> <li>○ 특강 강사 대상 강사양성교육 실시</li> <li>○ 개발 NGO와의 공동교육을 통한 교육의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li> </ul>                                                                                                                                                                                                                                                                                         |
| 외교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1년 8월 제5차 한일각료회담 합의에 의거, 양국 외교부 차원에서 1972년부터 연례 상호초청 시행</li> </ul> </li> <li>○ 일본 대학생 대표단 방한초청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대학생 대상 연 1회 시행(초청규모 : 30명, 일정 : 9박 10일)</li> </ul> </li> <li>○ 한국 대학생 대표단 방일파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대학생 대상 연 1회 시행(파견규모 : 30명, 일정 : 9박 10일)</li> </ul> </li> <li>○ 사업내용 : 유관기관 및 인사 방문, 관련 강의 및 문화체험, 교류활동, 홈스테이, 문화탐방</li> </ul> |
| 외교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개발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 중 한 국가(또는 인접한 다수의 국가)를 선정하여 해당 국가의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다양한 모습과 더불어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소개</li> </ul> </li> <li>○ 전시 연계 체험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문화 체험교육,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위한 글로벌 시민 교육 프로그램 실시</li> </ul> </li> <li>○ 지구촌체험관 청소년 네트워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트워크(청소년 블로그단, 청소년 도슨트)를 통한 SNS·오프라인 홍보</li> </ul> </li> </ul>          |
| 외교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 일반 및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소개 강연 / 질의응답</li> <li>○ 외교관과의 대화(다과회) : 전체 참가자를 몇 개의 조로 나누어 조별 담당 외교관과의 대화 진행</li> <li>○ 외교부 브리핑 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기념패 등 청사 시찰</li> </ul>                                                                                                                                                                                                                                                                                                                                         |
| 외교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4년제 대학교 2~4학년생들을 대상으로 1주일간 전문가 초청 강의 및 실습 프로그램을 시행, 한국의 외교정책, 주요 지역 및 국제이슈에 대한 이해제고를 통해 대학생들의 국제화 역량 강화 도모</li> </ul>                                                                                                                                                                                                                                                                                                                                                                           |
| 외교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외동포청소년 초청연수</li> <li>○ 국내 청소년 해외연수</li> </ul>                                                                                                                                                                                                                                                                                                                                                                                                                                                     |
| 통일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청소년교류협의체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체 구성 : 통일부 및 남북청소년교류 관련 단체</li> </ul> </li> <li>○ 계기별 청소년교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합의를 통해 분단현장(판문점, DMZ 등) 및 북한지역(개성공단 등) 방문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 제고</li> <li>- 역사·체육·문화·예술·학술·방송 등 청소년의 관심사를 고려한 남북 교류 추진</li> </ul> </li> <li>○ 남북 청소년교류 기반 조성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통일 캠프 시범 추진(한반도통일미래센터) 등</li> </ul> </li> </ul>            |
| 환경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사회 환경교육 연계 및 청소년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li> <li>○ 지역 환경자원을 활용한 청소년 친환경체험 기회 제공</li> </ul>                                                                                                                                                                                                                                                                                                                                                                                                            |

출처 : 여성가족부(2015), 제 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 2015년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2015년 초기부터 후기 청소년의 청소년역량지수를 진단한 결과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 청소년들의 역량 증진을 위한 단기적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표 [부록5]-10 청소년 역량을 증진을 위한 단기적 과제 방향성 제안

| 역량구분   | 청소년역량 진단 결과                                                                                   | 단기적 과제 방향성                                                                                                                                         |
|--------|-----------------------------------------------------------------------------------------------|----------------------------------------------------------------------------------------------------------------------------------------------------|
| 생애학습역량 | ○ 사고력, 학습적응성보다 지적도구활용능력을 청소년들은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음.                                               | ○ 전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학, 읽기, 과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 생활관리역량 | ○ 청소년들의 건강관리 역량에 비해 상황대처 및 정서조절 역량이 낮음.                                                       | ○ 중독 및 폭력행동 등과 관련한 대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청소년들이 감정을 절제 및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 필요                                                     |
| 진로개발역량 | ○ 청소년들의 개척정신 점수가 진로설계 및 여가활용 역량에 비해 낮음.                                                       | ○ 진로개발을 위한 사업을 비교적 많이 진행되고 있음. 청소년들의 여가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수립이 필요함. 청소년들의 개척정신 함양은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여가시간을 다양하게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대인관계역량 | ○ 리더십 점수가 관계형성 및 협동 점수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리더십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필요                                                                                                      |
| 사회참여역량 | ○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은 다른 역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하위영역별로는 세계시민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개인시민성, 공동체시민성 순으로 나타남. | ○ 공동체 의식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필요. 특히 환경보호의식과 관련된 프로그램, 정치 및 사회적 이슈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 필요                                                                      |

## 2 청소년 역량 증진 및 강화 기반 조성

1. 청소년 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
2. 청소년역량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
3. 청소년역량을 위한 청소년 역량기반 인증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여가부 주관 역량기반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공모제 실시
5. 청소년 체험활동의 효과 및 사업평가를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
6. 청소년 역량증진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 2.1 청소년 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

법·제도 상 청소년역량의 개념 명시와 청소년역량 향상을 위한 보장이 부재하다는 것만 보더라도 청소년역량이 우리나라의 미래와 발전에 있어 비중 있는 과제라는 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등의 생태체계적 환경은 아동 및 청소년에게 많은, 다양한, 그리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임은 이미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다. 청소년역량 역시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개발되고 강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청소년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 국민 차원에서 인지되었을 때의 이야기이다. 청소년역량에 대한 개념도 불명확하며, 활동과 역량이 유사한 것으로 취급되는 상황에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두기 어려우며 결국 청소년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성화되기 힘들다.

따라서 법·제도·정책적 차원에서 청소년역량을 국가적 과제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인력, 예산 등의 투입과 홍보의 활성화를 통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역량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개발 및 강화의 노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 2.2 청소년역량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

아동·청소년기는 다른 시기에 비해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가정(부모)과 학교(교사 및 또래)의 영향력이 지대하다. 두 환경 안에서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경험에 따라서 각기 다른 결과를 보이는데, 부모와 긍정적인 경험이 많을수록 높은 자존감, 대인관계, 사회성 등 성장과 자기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유익한 결과를 보인다.

반면, 부정적인 경험이 많을수록 우울, 낮은 자존감, 공격성 등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보이는 것은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알려져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역량의 개발 및 증진 역시 다를 것이 없다. 가정과 학교에서 경험하는 장면들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역량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으며 그러한 의미는 부모가 자녀의 역량 증진을 위하여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으며 실행에 옮기는가가 중요한 의미로 떠오른다. 그러나 현재까지 자녀의 역량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부모의 양육 방식에 대한 모니터링, 부모상담 등 그 무엇도 진행된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지역사회, 학교 어디가 되었건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과 태도에 대한 교육은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나아가 자녀의 역량 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회이다. 교육을 통해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육방법, 자녀와의 대화법, 다양한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법, 청소년역량의 중요성과 역량증진을 위한 양육방법 등 기본적인 자녀양육에서부터 자녀의 역량을 위한 방법까지 전달되어야 한다. 방법에 있어서는 현장강의 형식이 가장 좋겠지만 많은 경우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주말 또는 야간을 이용한 강의, 찾아가는 강의 등이 좋을 것이며 상황과 여건이 힘들 경우,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강의도 가능하다. 방법을 떠나 중요한 것은 부모교육의 의무화가 제도화 되어야 하는 것이다. 청소년과 관련하여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을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정이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제도적 의무를 주어주지 않으면 대부분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육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부모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적용가능한 내용들 위주로 구성된 질 높은 교육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내용이 형식적인 선에서 마무리된다면 실생활에 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교육대상자들로 하여금 교육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하기 때문에 교육내용에 대한 충실성과 현실성은 꼭 수반되어야 할 요소이다.

### 2.3 청소년역량을 위한 인증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청소년 단체 및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체험활동들이 상당수준 체계를 갖추고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특정역량과 관련된 체험활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체험활동들이 청소년 역량중심으로 재개편되고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역량과 관련하여 전국의 국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5개 수련원 및 센터를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대표적인 5개 기관은 국립중앙청소년 수련원, 국립김제농업생명청소년체험센터,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이다. 이와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수혜대상을 초기청소년(초등학생), 중기청소년(중, 고등학생), 후기청소년(대학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반청소년과 취약계층청소년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분석대상인 5개의 청소년 기관 중 3개의 기관이 농업생명, 해양환경, 우주체험에 특화된 청소년기관이기 때문에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생애학습역량 중 지적도구활용에 해당되는 과학능력 신장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었다. 청소년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생애학습, 진로개발, 대인관계, 생활관리, 사회참여 순으로 관련 프로그램이 많았으며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하위역량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애학습역량의 경우 대부분 과학능력을 신장시키는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었고 일부 학습적응성과 언어능력신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청소년들의 사고력, 지적도구활용역량 중 수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학습적응성역량 중 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과 관련있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과학능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의 ‘푸른별 우주과학 캠프, 생생한 생태체험 캠프’,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의 ‘창의생명과학탐사캠프’등이 있었다. ‘푸른별 우주과학 캠프’는 다양한 과학 원리를 기초로 한 체험활동을 통해 과학적 기초소양과 과학적 창의력 함양을 목표로 2박 3일동안 운영되는 교육프로그램인데 주요 내용은 우주인과의 만남, 관측, 모형비행기 제작 등으로 이루어진다. 학습주도성신장 프로그램으로는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의 ‘자기도전 생태탐험단’을 들 수 있으며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활동 학생을 대상으로 1박 2일 간 새로운 환경에 대한 도전 정신 및 성취감 그리고 자연환경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여 생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공동체 활동을 통한 협동심 함양을 목표로 탐험활동이 주 내용이다.

생활관리역량으로는 건강관리 역량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의 ‘해양안전-질풍노도캠프, 청소년해상구조’가 있으며 2박 3일의 일정으로 RC요트 만들기 통한 요트 원리를 학습하고 조난 시 행동요령을 습득하며 스킨스쿠버 실습을 통한 해양안전 사고 대응방법을 익히는 활동을 한다. 이와같은 건강관리 역량 외에 생활관리역량에서 과제관리, 정서조절의 프로그램은 전무하다.

표 [부록5]-11

청소년 역량별 체험활동 기관 및 참여 청소년 현황

| 역량             |            |                                     | 기관 구분              |                             |                    |                             |                           |    | 일반/취약<br>구분 |                      | 총  | 청소년 구분                |                       |    | 총 |
|----------------|------------|-------------------------------------|--------------------|-----------------------------|--------------------|-----------------------------|---------------------------|----|-------------|----------------------|----|-----------------------|-----------------------|----|---|
| 역량<br>군        | 하위역량       | 세부역량                                | 국립중앙<br>청소년<br>수련원 | 국립김제<br>농업생명<br>청소년체<br>험센터 | 국립평창<br>청소년<br>수련원 | 국립영덕<br>청소년<br>해양환경<br>체험센터 | 국립고흥<br>청소년<br>우주체험<br>센터 | 일반 | 취약<br>계층    | 초기<br>청소년<br>(9~13세) |    | 중기<br>청소년<br>(14~19세) | 후기<br>청소년<br>(20~24세) |    |   |
| 생애<br>학습<br>역량 | 사고력        | 비판적 사고력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            | 감성적 사고력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 지적도<br>구활용 | 언어능력                                | 1                  | 0                           | 0                  | 0                           | 0                         | 0  | 0           | 1                    | 1  | 1                     | 0                     | 0  | 1 |
|                |            | 수학능력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 과학능력                                | 4                  | 8                           | 0                  | 7                           | 11                        | 28 | 2           | 30                   | 19 | 23                    | 2                     | 44 |   |
|                |            | 정보통신활용능력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학습<br>적응성  | 변화수용력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 지적호기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 학습주도성                               | 0                  |                             | 3                  | 0                           | 0                         | 3  | 0           | 3                    | 1  | 3                     | 0                     | 4  |   |
| 생활<br>관리<br>역량 | 건강관<br>리   | 안전및스트레스관<br>리<br>신체관리<br>위생관리       | 2                  | 0                           | 0                  | 2                           | 0                         | 4  | 0           | 4                    | 2  | 4                     | 0                     | 6  |   |
|                | 과제관<br>리   | 목표및계획수립<br>수행및평가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 상황대<br>처   | 중독행동<br>폭력행동<br>중독인식<br>폭력회피        | 1                  | 0                           | 0                  | 0                           | 0                         | 1  | 0           | 1                    | 1  | 1                     | 0                     | 2  |   |
|                | 정서조<br>절   | 감정인식<br>분노행동<br>감정절제<br>조절실패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진로<br>개발<br>역량 | 진로설<br>계   | 자기탐색<br>직업탐색<br>진로준비<br>직업가치관       | 3                  | 0                           | 1                  | 0                           | 1                         | 5  | 0           | 5                    | 2  | 3                     | 1                     | 6  |   |
|                | 여가활<br>용   | 여가태도<br>여가유능감<br>여가몰입<br>여가만족<br>경험 | 4                  | 0                           | 1                  | 1                           | 0                         | 6  | 0           | 6                    | 4  | 6                     | 0                     | 10 |   |
|                | 개척정<br>신   | 차별화태도<br>도전정신                       | 1                  | 0                           | 1                  | 0                           | 0                         | 2  | 0           | 2                    | 1  | 1                     | 0                     | 2  |   |
| 대인<br>관계<br>역량 | 관계형<br>성   | 자기개방성<br>친화성<br>의사소통<br>공감및배려       | 4                  | 0                           | 0                  | 0                           | 0                         | 2  | 2           | 4                    | 4  | 3                     | 0                     | 7  |   |
|                | 리더십        | 의사결정<br>집단활동관리<br>추진력               | 2                  | 0                           | 1                  | 1                           | 0                         | 4  | 0           | 4                    | 2  | 4                     | 0                     | 6  |   |
|                | 협동         | 집단촉진<br>팔로워십<br>갈등문제해결              | 1                  | 0                           | 0                  | 0                           | 0                         | 1  | 0           | 1                    | 1  | 1                     | 0                     | 2  |   |



| 역량             |            |                                           | 기관 구분              |                             |                    |                             |                           | 일반/취약<br>구분 |          | 총  | 청소년 구분               |                       |                       | 총   |
|----------------|------------|-------------------------------------------|--------------------|-----------------------------|--------------------|-----------------------------|---------------------------|-------------|----------|----|----------------------|-----------------------|-----------------------|-----|
| 역량<br>균        | 하위역량       | 세부역량                                      | 국립중앙<br>청소년<br>수련원 | 국립김제<br>농업생명<br>청소년체<br>험센터 | 국립평창<br>청소년<br>수련원 | 국립영덕<br>청소년<br>해양환경<br>체험센터 | 국립고흥<br>청소년<br>우주체험<br>센터 | 일반          | 취약<br>계층 |    | 초기<br>청소년<br>(9~13세) | 중기<br>청소년<br>(14~19세) | 후기<br>청소년<br>(20~24세) |     |
| 사회<br>참여<br>역량 | 개인시<br>민성  | 권리, 책임의식<br>민주적절차및의식<br>정치관심및정치적<br>자아효능감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공동체<br>시민성 | 공적실천<br>사회적신뢰<br>적극적인개진<br>교실개방성          | 2                  | 0                           | 1                  | 0                           | 0                         | 2           | 1        | 3  | 1                    | 2                     | 0                     | 3   |
|                | 세계<br>시민성  | 성인지<br>이민자에대한태도<br>국가및역사의의식<br>국제관계이해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기타             |            |                                           | 5                  | 1                           | 2                  | 1                           | 1                         | 10          | 0        | 10 | 6                    | 9                     | 0                     | 15  |
| 총              |            |                                           | 30                 | 9                           | 10                 | 12                          | 13                        | 68          | 8        | 74 | 45                   | 60                    | 3                     | 108 |

\* 청소년 구분의 경우, 수혜 대상자가 초기, 중기, 후기로 중복될 경우 중복 체크함.(예를 들어 대상이 초등학생~고등학생일 경우, 초기와 중기에 각각 체크함)

다음으로 진로개발역량의 경우 진로설계와 여가활용 프로그램이 다수였다. 진로설계 프로그램으로는 국립중앙청소년 수련원의 'Self-Up 어드벤처 캠프', '드림밸런스 진로캠프'가 운영되고 있는데 2박 3일 또는 3박 4일의 일정으로 인생 무지개 그리기 및 포트폴리오 제작을 통해 설정한 목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나'를 알아가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 탐색을 통한 긍정적 마인드 형성을 통한 사회적 건강의 균형된 성장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국립고흥청소년 우주체험센터에서는 과학분야 또는 청소년 분야 전공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지도자 실습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 지도자가 갖추어야할 전문지식, 지도능력 습득을 목표로 실습을 통해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실험체험 프로그램을 연구·기획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고, 여가활동 역량으로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의 '아웃도어 스쿨'이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5~7회에 걸쳐 야영법, 레포트 활동을 통하여 야영을 테마로 한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대인관계 역량은 관계형성, 리더십 역량에 집중되어있었다. 관계형성 역량 증진 프로그램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1~4시간으로 7개의 단위 프로그램(공동체 놀이, 야간협동 등)을 통해 대인 관계에 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청소년성장지원사업으로 1박 2일 또는 2박 3일에 걸쳐 수련활동을 통한 문화 차이 이해 및 이질감 극복 및 잠재력 역량 개발을 통한

동질성 회복을 위한 캠프인 ‘북한이탈 청소년캠프’와 취약청소년 대상 별로 학교 CA와 연계하여 영화 제작, 치어댄스 등의 활동인 ‘문화 콘텐츠 사업’이 있었다. 리더십 프로그램으로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2~3시간으로 이루어진 리더십 단위 프로그램(리더십 이야기, 컬러 리더십 등)과 3박 4일동안 자신의 숨어있는 리더십을 발견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리더십 표현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추적 놀이와 스포츠활동을 통한 협동심과 리더십을 기르는 ‘알콩달콩 리더십 성장캠프’를 운영하고,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는 중,고등학생 임원을 대상으로 개념강화활동, 팀 워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현명한 리더가 되려나, SMART 리더스클럽’이 운영되고 있다.

사회참여역량에는 개인시민성, 세계시민성 역량 증진 프로그램은 전무했으며, 공동체 시민성 역량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의 ‘특성화 캠프-역사 크래프트’가 3박 4일의 일정으로 역사학과 대학생 멘토와 함께 역사에 대해 직접 탐방하고 영상을 제작하여 참가 청소년이 직접 역사강의를 시연해보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국가보훈처와 연계하여 문화적 혜택이 적은 농산어촌 중학생 대상의 ‘지역 및 기관 연계사업-청소년 독립군체험 캠프’는 3박 4일의 형태로 7~8차수 운영하며 독립기념관의 역사체험 학습을 결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의 경우에는 2박 3일의 일정으로 ‘동반! 예의지(知)국’이라는 가상 공간 속에서 함께 생활하며 시민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공동체 생활의 즐거움을 체득하고 그 가치를 깨닫는 것을 목표로 ‘동반!예의지국’의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 외에 청소년 역량을 종합적으로 또는 다수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등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운영하는 학교단체 프로그램등이 있었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의 학교단위(350~450명) 프로그램은 시민성, 자아 함양 등을 목표로 세부 단위 프로그램(자연공작, 태양관측, 북 아트 등)을 1~10시간 단위로 운영하거나 2박 3일 일정으로 공동체활동, 진로추적놀이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아, 신체능력, 대인관계 역량 등 여러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분석의 대상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체험활동이 특정 역량에 편중되어 있는 현실이다. 이를 보완하여 전인적인 청소년으로써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역량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청소년 체험활동이 설계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청소년 기관 및 단체에서 제공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위해 활용될 수 있다. 청소년 기관 및 단체에서 제공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가부주

관의 평가시스템이 보다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이에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는 각 시설이나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며 그 결과로 운영지원금을 차별화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2.4 여가부 주관 역량기반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공모제 실시

역량기반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로 전환함에 따라 각 기관이나 시설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청소년 역량과 관련된 체험활동을 설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면서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여가부 중심의 청소년 역량 프로그램 공모제 실시를 제안한다. 이러한 공모제를 통해 초기 프로그램 개발의 재원을 확보하고 우수 프로그램들을 전국에 확산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

#### 2.5 청소년 체험활동의 효과 및 사업평가를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

청소년활동진흥원과 상담복지개발 등에서는 청소년 역량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진단, 계획, 운영, 평가함으로써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고 재설계를 위한 경험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각 시설이나 단체에 역량기반으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청소년 지도사 양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개별 센터나 기관에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청소년 지도사가 있을 경우에는, 체험활동을 역량기반으로 설계하고 평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질을 개선(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청소년 체험활동이 성과중심(Outcome based Program)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 체험활동을 추진하는 각 단체 및 센터의 특성화 사업을 기획하고 평가를 위한 준거로 활용할 수 있다. 청소년 시설이나 단체는 자연권 또는 생활권에 소속되어 있는냐의 여부와 단체 또는 시설의 규모, 지방여건 등에 따라 프로그램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 단체 및 센터의 특성화 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는데 청소년 핵심역량 측정도구가 활용될 수 있다. 즉,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역량수준을 측정하고 개별시설에서 중점을 두어 개발해야 하는 역량 중심으로 체험활동을 기획할 수 있다는 것이다.

## 2.6 청소년 역량증진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청소년역량의 개발과 증진을 목표로 하는 기관들을 위한 예산 및 인력 등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역량관련 사업이 활발하고 효과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 기관에 대한 모델링을 제공하는 것 역시 중요하며 모델링을 통해 모든 기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국가 주도의 중앙관리기구의 설립과 지방정부의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청소년역량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연계와 상호작용을 활성화 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우수기관, 우수 프로그램, 우수 사례, 우수 지도자 등을 선발하여 그에 따른 인센티브는 물론 그러한 사례들을 관리기구와 센터를 통해 전체 관련기관에 전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권역별, 전국적 연수 개최를 통해 우수사례의 일방적 전파와 별개로 각 기관의 어려움과 잘된 점 등을 나누고, 조언을 구하는 기회를 형성한다면 우수사례의 전파와 기관 간 유대 형성 두 가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 청소년 맞춤형 역량 지원체계 강화

1. 청소년 역량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지원 체계 강화
2. 여성 청소년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청소년 역량 강화 지원 체계 마련
3. 후기 청소년(대학교 진학 및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역량 지원 체계 마련

#### 3.1 청소년 역량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지원 체계 강화

본 연구의 기초분석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역량과 하위영역에 있어서 남자청소년에 비해 여자청소년의 역량수준이 전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기청소년(초등학생)시기에는 여자청소년들의 역량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았지만 후기청소년(대학생)으로 갈수록 수치가 역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경제적 수준에 따른 청소년역량 분석에서는 경제적 수준이 “상”인 청소년들이 “중” 또는 “하”인 청소년들에 비해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대도시 청소년들에 비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역량이 비교적 낮게 분석되었다. 가족구성에 따른 차이도 발견되었는데,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응답한 청소년 보다 그렇지 않은 가족구성을 가진 청소년들의 역량 수준이 더 낮게 측정되었다. 본 조사는 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학교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조사한다면 아마도 더 큰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역량에 있어서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때문에 청소년역량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그러한 집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후속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위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단지 성별이 틀리다는 이유로, 경제적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양부모와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량의 수준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위와 같은 차이와 역량의 차이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고리를 찾고, 그 지점을 역량증진을 위한 개입지점으로 정하여 적절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한다. 연구를 통해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경제적 수준, 지역적 차이, 가족구성의 차이 등은 역량증진을 위한 활동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역량이 높게 나타났는데 2014년 청소년백서(2014)에서 제시한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이 그러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중, 자연권에 비해 접근성이 높은 생활권 시설은 수련관과 문화의집을 살펴보면 총 416개의 시설이 있는데 17개 시·도 중 대도시인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지역에 195개 시설이 건립되어 있다. 이는 전체 수련관, 문화의 집의 약 47%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나머지 53%가 10개의 시·도에 설립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 간 청소년역량의 차이를 발생시키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춰 균형적인 청소년수련시설과 인력의 확충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가족구성의 경우, 아동·청소년기 가족의 구조적 결핍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충분히 제시되어 있다. 구조적 결핍에서 오는 모델링의 부재, 돌봄과 관심, 애정의 부재 등은 자녀의 정서조절, 대인관계와 사회성, 자기관리 등의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이런 경우 청소년역량 증진을 위해 구조적 결핍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와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상대적 취약집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근거마련을 위한 후속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3.2 여성 청소년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청소년 역량 강화 지원 체계 마련

해당 연구에서 실시한 청소년 역량수준 측정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초기 청소년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수준이 높았는데 성장하면서 급격하게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단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겠지만, 초기 여자 청소년들의 역량이 왜 성장함에 따라 급속하게 낮아지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 결과에 기반하여 여자 청소년들의 역량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를 줄일 수 있는 제도와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여성 공학자 지원 사업으로 그 효과를 인정받는 것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사업이 있다.<sup>13)</sup> 이 사업은 여성과학기술인이 해당 전공 및 직업분야에서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사회·문화·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이를 개선하는 동시에 여성과학기술인 개인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초점이 있다. 즉 여성과학기술인의 전 생애주기를 통하여 육성과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그 결과로 여학생들의 이공계 진학률이 높아졌으며 공대역학생의 역량이 함양됨으로써 전공분야로의 사회진출을 확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기와 후기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한 맞춤형 지원제도 및 프로그램을 신설할 필요가 있겠다.

### 3.3 후기 청소년(대학교 진학 및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역량 지원 체계 마련

후기 청소년은 고졸 이후에서 만 24세의 학생들을 의미하는데 대체로 대학생들의 역량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관련 연구들을 보면, 대학생들의 진로문제와 관련하여 진로교육 및 진로설계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김양분 외, 2013), 대학생의 학년별 전공별 집중해야 할 역량이 다르다는 점(김창완 외, 2014),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생들의 역량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김창완 외, 2014), 군복무로 인한 학업단절에 따른 문제 (김양분 외, 2013) 등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국가나 사회차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제공되는 지원책에는 극히 제한적이며 대체로 개별 대학들의 노력이 가중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지향하고 있다. 물론 현재 각 대학에서는 학부선도대학사업(ACE 사업)으로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체계화하고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청소년이 갖추어야

13) <http://www.wiset.re.kr/main.jsp>.

할 역량 전체를 포괄하기가 어렵고 특히 사회참여역량이나 생활관리역량은 대학에서 주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청소년 단체 및 시설 등에서 관심을 갖고 후기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후기 청소년 중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대학이라는 조직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청소년 역량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 청소년기본법 상 정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는데 (김지경, 이광호, 2014), 이들을 위한 특별한 정책이 아닌, 다른 청소년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부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취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실무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 고졸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생활영역에서 자유롭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역량을 함양시키는데 정부 및 사회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무직이나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역량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을 정책의 대상으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 4 청소년 역량 관련 기관 및 전문인력 전문성 강화

1. 청소년 역량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예산 확대
2. 청소년역량 관련 기관 전문성 강화
3. 청소년 역량 중심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전환
4. 청소년 지도사 전문성 강화
5. 현장 실무자 경험 및 정보공유의 장 마련

##### 4.1 청소년 역량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예산 확대

본 연구 진행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능한 많이 담기 위해 청소년활동진흥원, 문화의 집 등에서 근무하는 실무자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들은 통합관리체제의 부재, 프로그램 부족,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어려움 등 다양한 장애물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문제는 청소년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과 예산의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얘기하면 모든 게 막혀버리는데 사실 예산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예산 문제는 제쳐 놓고 하자니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청소년 쪽 예를 들면 수련원 쪽 예를 들면 수입을 창출하지 않으면 생존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리니 무게 중심이.. 기관장부터 시작해서 관심도가 낮아지죠.. 재정의 안정성이 훨씬 더 영향을 주다보니까 순위를 밀려나면 어떤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거예요.. 그 사업에서 돈이 남아 안남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사업을 해서 우리가 지출이 얼마고 세입이 얼마야?? 그래서 얼마 남는 건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나머지들이 올 스톱이 되는거예요.”

“문화집은 7명은 진로센터가 4명 11명의 재원하고 사업프로젝트로 2명이 더들어 왔어요 그래서 13명. 지방하고의 차이는 전공자들이 없어요. 전공자 들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현장에서 그럴 정도에 조직이 작다보니까 여유들이 없는 것 같아요. 조직이 많으면 이 사람을 교육시켜서 일정한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자 나요. 그러기에는 이미 들어온 사람부터 들어온 그달부터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데 기다려줄 여력이 없는 거죠.”

청소년역량강화를 위한 인력과 예산의 확대 없이는 역량의 개발과 강화가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제도적 차원에서 청소년역량 증진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인력, 예산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미 법으로 명시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의 인력과 예산 지원이 보장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역량기반 개정을 통해 새로운 체계의 수립 없이도 예산과 인력의 지원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4.2 청소년역량 관련 기관 전문성 강화

청소년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유스호스텔, 야영장 등에서 청소년지도사와 함께 역량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따라서 청소년관련 기관의 전문적 역량은 청소년과 활동 모두에게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관은 전문성 있는 청소년지도사, 질 높은 프로그램, 안정성 있고 활용성 있는 쾌적한 활동환경, 높은 수준의 접근성 등 다양한 활동여건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선 적절한 수의 인력과 적절한 수준의 예산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데, 현장실무자 인터뷰



한 결과에서는 그러한 부분에서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의집이 장기 근속자가 별로 없어요. 수련관은 적으면 20명 많게는 4~50명씩 근무하니까 당직을 돌아가도 두 달에 한번이나 올까 한데 여기는 1~2주에 한 번씩 오니까.. 대게 힘들죠..”

“지방하고의 차이는 전공자들이 없어요. 전공자 들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 아휴 우리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방은 지도사 2명 정도..군단위로 내려가면 그런 것 같고요 저희 정도 규모의 평균적인 근무자들은 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지방의 경우) 사이버로 따신 분도 계시고 기관에서 근무하니까 근무연차로 2년 인가 지나면 시험볼수 있는 자격증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따서 오신 분들 가장 쉽게는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은 몇 달하면 자격증 따고 면접만 보면 되니까.. 요즘 쉬워저가지고..”

이렇듯, 기관 전문성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으며 지방의 경우 대도시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관련기관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무래도 적절한 예산과 인력의 확보일 것이다. 자유학기제, 창의적체험활동 등 학교에서는 청소년역량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데 반해 쏟아져나오는 대상자들을 현재 설립되어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기관에서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상황이 그러다보니 예산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주어진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 야근은 필수적인 사항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상자 수에 근거하여 시설 확충, 인력 충원, 예산 증액 등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음으로 할 일은 뒷 부분에 세부적으로 다루겠지만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정보와 프로그램을 공유하여 내용의 질적인 측면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청소년활동에 대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겠지만 청소년역량이 중심이 된 활동으로 개편하려면 청소년역량에 대한 이해와 활동과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역량의 측정과 역량을 중심으로 하는 효과성 평가 등의 업무가 진행되려면 개별 기관 단독의 역량으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지역사회 협의체라든지, 국립 관리통합센터 등을 통해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정보공유와 프로그램 공유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 4.3 청소년 역량 중심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전환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역량을 개발하고 증진시키는 다양한 수련활동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에 명시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을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앞서 청소년역량의 법·제도화에 대해 거론하면서 다루었듯이 현재 청소년역량에 대한 법·제도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며 여전히 역량의 개념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련활동이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역량을 중심으로 청소년정책이 수립된다면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역량의 개발과 증진이 근거이자 목적으로서 계획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재와 같은 기반에서는 역량과 활동이 밀접한 개연성 없이 개별적으로 접근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각 수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수련활동이 대상자의 욕구가 높은 활동들 위주로 선택·집중되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비인기 활동이 배제되고 기관마다 비슷한 유형의 활동을 중복적으로 제공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청소년역량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결국 다양한 청소년역량의 영역들 중, 일부 영역만 비균형적으로 개발되고 증진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해야 할 청소년역량과 청소년활동 모두의 목적달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역량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청소년역량 중심의 청소년정책 수립을 대비하여 청소년수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수련활동을 역량중심으로 개편하고 이를 담보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체제 또한 역량적 요소를 포괄하도록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3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국가인증제도이다.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의 활동은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와 관련된 9개의 영역이다. 다음 <표 V-13>을 보면, 인증수련활동이 9개 영역에 고루 분포되어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활동영역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 또한, 국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련원 및 센터와도 비슷한 현상이다.

표 [부록5]-12 활동 영역별 인증수련활동 현황

| 영역     |             | 1,528 | 영역별 활동 예시                                                                   |
|--------|-------------|-------|-----------------------------------------------------------------------------|
| 자율활동   | 건강·보건활동     | 99    | 신체단련활동, 약물예방활동, 흡연·음주·약물·비만 예방 활동, 안전·응급 처치활동, 성교육활동                        |
|        | 자기(인성)계발 활동 | 478   | 표현능력개발 수련활동, 자기탐구활동, 자기존중감향상 프로그램, 자기표현활동, 심성수련활동 등                         |
|        | 교류 활동       | 18    | 청소년국제교류활동, 남북 청소년교류활동, 도농간 청소년교류활동, 국제이해활동, 다문화이해활동, 세계문화비교활동, 한민족청소년캠프 등   |
|        | 모험개척활동      | 101   | 탐사·등반활동, 야영활동, 해양활동, 오지탐사활동, 극기훈련활동, 호연지기활동, 수상훈련활동, 한국의 산수 탐사활동, 안전지킴이활동 등 |
|        | 기타활동        | 25    | -                                                                           |
| 동아리 활동 | 문화예술 활동     | 253   | 지역문화, 세계문화, 대중문화, 역사연극활동, 어울마당, 전통예술활동 등                                    |
|        | 과학정보 활동     | 95    | 모형 및 로봇활동, 인터넷활동, 우주천체활동, 정보캠프활동, 여상매체활동 등                                  |
| 봉사 활동  | 봉사 활동       | 185   | 일손돕기활동, 위문활동, 지도활동, 캠페인활동, 자선·구호활동, 지역사회개발 및 참여 활동 등                        |
|        | 환경보존 활동     | 144   | 생태활동, 환경탐사활동, 자연지도 만들기, 숲체험, 환경음식 만들기, 환경살리기 활동, 환경·시설보존활동 등                |
| 진로 활동  | 직업체험 활동     | 130   | 청소년모의창업, 경제캠프, 사회생활기술, 진로탐색 활동, 직업현장체험 등                                    |

\*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2)

9개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영역을 청소년 역량과 비교해 보면 다음 <표 [부록5]-13>과 같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영역별로도 활동현황이 편중되어 있었지만, 청소년 역량과 분석해 본 결과, 매칭이 안 되는 역량들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인증수련활동의 설명이 절차에 대한 안내밖에 없고 각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역량과 인증활동의 명칭을 동일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청소년인증활동 영역을 청소년역량과 일관성 있게 체계화한다면 청소년 체험활동의 내용과 범위가 확대되고 포괄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내용은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역량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는 제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계부처합동(2007) 보고서에서는 청소년들의 시민역량, 인성, 자기주도적 진로개척 등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할 것으로 제안했었고, 김기현(2011)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의 기초소양 및 지적역량 강화를 포함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참여, 권리 및 자율적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을 보고하였다.

표 [부록5]-13 청소년 역량별 수련활동 인증영역 분석

| 역량      |         | 청소년인증 활동 영역<br>(청소년활동진흥원) |
|---------|---------|---------------------------|
| 역량군     | 하위역량    |                           |
| 생애학습역량  | 사고력     | —                         |
|         | 지적도구활용  |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존              |
|         | 학습적응성   | —                         |
| 생활관리역량  | 건강관리    | 건강활동                      |
|         | 과제관리    | —                         |
|         | 상황대처    | —                         |
|         | 정서조절    | —                         |
| 진로개발 역량 | 진로설계    | 자기계발활동, 직업체험활동            |
|         | 여가활용    | 문화예술활동                    |
|         | 개척정신    | 모험개척활동                    |
| 대인관계역량  | 관계형성    | 교류활동 1                    |
|         | 리더십     | 전체해당                      |
|         | 협동      | 전체해당                      |
| 사회참여역량  | 개인시민성   | —                         |
|         | 공동체 시민성 | 교류활동 2, 봉사활동              |
|         | 세계 시민성  | 교류활동 3                    |

이와 더불어 청소년수련활동 인증기준을 보면, 공통기준(활동프로그램, 지도력, 활동환경)과 개별기준(활동유형 중 숙박형과 이동형)으로 크게 나뉘는데 공통기준에 있어서 활동프로그램 인증영역에 청소년역량 관련 요소를 포함시켜 기관에서 제공하는 수련프로그램의 역량증진 요소를 담보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인증은 추진배경과 필요성,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 프로그램 일정표, 단위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평가계획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추진배경,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 평가계획 등을 청소년역량 중심으로 계획하고 기술하도록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 4.4 청소년 지도사 전문성 강화

청소년역량은 역량관련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증진되기 때문에 질 높은 프로그램의 확보가 중요하지만, 아무리 질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제공하는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반감되기 쉽다. 또한, 청소년역량 활동은 대인 대상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는 직접적으로 대상자인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소년역량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청소년지도사의 역량에 대한 전문성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전문적 역량을 가진 청소년지도사를 확보하는 것은 청소년 개인의 역량발전에도 직결되지만, 나아가서 지도사 스스로의 전문성 향상, 기관의 역량 발전, 나아가서 국가 전반적인 청소년역량의 신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지도사의 경우, 청소년역량과 관련짓지 않더라도 청소년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기에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으며 법·제도적 지원을 통한 합당한 보장을 받지 못해 근무지 이탈 및 소진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성 확보를 거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김민(2004)은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연구를 통해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성 확보단계, 청소년활동잔면과의 전문성 연계 단계, 지속적인 지도인력의 전문성 개발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 단계에서는 청소년활동현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신뢰형성, 지도사의 보상체계와 직무여건의 개선, 대학의 인적자원 양성과정 개선이 요구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도사 자격검정제도와 전문성 개발의 연계,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평가체제 수립이 요구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청소년지도사의 개인 및 경력, 조직개발 지원과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법령 및 제도적 근거의 보완과 지원이 요구된다고 명시하였다(김민, 2004). 즉,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대학교에서부터 양성하여 현장 근무 이후에도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예비 청소년지도사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교육과정부터 이론과 현장실무 중심으로 교과과정의 질을 제고하고 자격과정과 현장 선발과정에서도 유능한 인력을 선발하도록 검증과정에 내실화를 다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입사 후에도 꾸준히 전문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직무여건을 강화하여 현장실무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통해 전문성에 대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역량, 청소년지도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러한 분위기에서 청소년지도사가 본인의 업무와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성이 있다.

#### 4.5 현장 실무자 경험 및 정보공유의 장 마련

청소년역량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현장실무자의 전문성은 예산지원, 보수교육, 적절한 근무환경 등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지만 직접 대상자들과 만나며 얻게 되는 경험 역시 실무자의

전문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한 지식은 본인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같은 업무에 임하고 있는 실무자들과의 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따라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한 다양한 실무자들이 만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현장 실무자가 근무에 임하며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 또는 도움 된 점 등을 기관 내 동료들과 나누는 것만으로 도움이 되지만, 개별 기관들이 가지는 지역적, 사회학적 특성들은 고루하게 경험하기 힘들다. 따라서 권역별 또는 전국적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본인들의 경험과 유익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기회는 분기별 또는 연 2회 정도가 적당하며 정보공유와 함께 친목을 도모하며 본인 스스로 격려와 위로받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 5 청소년 역량 관리 및 연계시스템 구축

1. 국립 청소년 역량 통합관리센터 설립 제안
2. 권역별 학교/기관/행정기관의 공동실무협의회 운영
3. 청소년 역량증진을 위한 청소년 시설과 학교와 긴밀한 관리 및 연계시스템 구축
4. 초기청소년에서 후기청소년까지 청소년역량의 지속적인 관리

### 5.1 국립 청소년 역량 통합관리센터 설립 제안

청소년역량에 대한 중요성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져가고 있지만,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기관의 역할 등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여전히 활동 위주의 청소년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대규모 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에 대한 측정은 이제 막 시작단계에 있고 조사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청소년역량증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가 등에 대한 해법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해외 여러 국가들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청소년역량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역량중심이 청소년정책 실현과 실질적인 청소년역량의 증진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청소년역량의 개발과 증진이 향후 국가의 미래와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는 국민적 합의가 성립된다면 국가에 의해 청소년역량에 관한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앙센터가 마땅히 설립될 필요성이 있다. 중앙센터의 설립을 통해 역량 기반 정책의 수립과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부처의 지원, 청소년 기관의 역량중심화, 역량중심의 교과과정 개편 등을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역량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합하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역량 발전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필요성이 있다.

중앙센터는 권역별로 설치될 학교-기관-행정기관이 공동실무협의회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중앙정부의 역량증진 정책을 신속히 전파해야 하며, 역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역량 중심의 수련기관 및 활동 인증, 청소년지도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교육연수 진행, 전국 지역 학교 교장 및 실무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관련 연수 진행 등 국가 차원에서 역량증진을 위해 할 수 있는 업무들을 수행한다. 중앙센터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또는 청소년활동진흥원과 같은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운영도 가능하지만 청소년과 관련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역량중심으로 개편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5.2 권역별 학교/기관/행정기관의 공동실무협의회 운영

본 연구의 기초분석 결과 한국 청소년들의 역량은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접근성 있는 수련관의 수와 같은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도시와 농어촌, 중심지역과 외곽지역 등에 따른 차이들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앙센터가 있다고 해도 이러한 지역적 차이에 다른 개별적인 접근을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역 관련 기관, 지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권역별 공동실무협의회가 필요하다.

그 지역에 관해 가장 잘 아는 것은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 사항들을 지역에 맞게 각색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활동과 자원을 공급해주며 지역 내 기관들이 제공하는 역량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권역별 학교-기관-행정의 공동실무협의회가 운영되어야 한다. 협의회는 첫째로, 지역 청소년들의 역량수준을 모니터링 하고 타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높은 역량 등을 확인하여 균형적인 역량의 발전을 도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지역 내 설립된 청소년기관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조율하여 다양한 역량에 관한 활동들이 고루하게 제공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 역량증진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과 강사

등을 지역사회 내에서 찾고, 만약 없다면 인근지역 협의회와의 연계를 통해 발굴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연계를 통해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역량활동들을 지역사회에서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협의회와 다양한 역할이 기대되지만 구체적인 역할과 구성에 대한 부분은 추후 연구를 통해 거론할 필요성이 있다.

### 5.3 청소년 역량증진을 위한 청소년 시설과 학교와 긴밀한 관리 및 연계시스템 구축

#### 1) 각 학교에 청소년 역량지도교사 또는 전문가 제도 신설 및 학교 배치

청소년들이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가정과 학교일 것이다. 그리고 그 두 곳에서 경험하는 장면들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가정에서 부모를 위한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자녀의 역량을 키워준다면 학교에서는 청소년역량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역량지도교사가 필요하다.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 현재도 과중한 업무로 인해 분야가 다양한 청소년역량에 대해 따로 개입하고 교육할 여력은 되지 않기 때문에 훈련된 역량지도교사가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Wee클래스와 같이 학생 정원에 따라 3인~5인으로 구성된 센터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역량 개발과 증진에 대한 욕구가 있을 때 필요한 활동을 어디서 제공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거나 본인의 역량과 관련된 정보공유 및 상담을 원할 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장소와 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역량클래스(가칭 Youth Competency Class: YC클래스) 신설을 제안한다. 청소년 역량클래스는 Wee클래스처럼 교내에 설치하는 기구로 3인~5인의 청소년역량 전문이력으로 구성된 센터이다. 센터의 주요 업무는 청소년역량 관련 상담 및 교육, 지역사회 청소년활동기관과의 유대형성 및 사례연계, 정기적인 역량증진 프로그램 실시, 청소년 역량 관련 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 하위수준의 역량집단 모니터링 및 관리, 지역사회 자원 확보 및 연계, 지역 협의회를 통한 교내 청소년역량 개발 및 증진을 위한 컨설팅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센터와 전문인력의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교내 청소년의 역량에 대한 관리를 전담시키도록 한다. 실무자는 청소년역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지도사, 교사, 학교사회복지사, 지역사회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 2) 지역사회 청소년 역량전담인력 확보 및 역량센터 설립

제도권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 학교를 통해 역량의 모니터링 및 관리가 가능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역량 시스템으로부터 배제되어 낮은 수준의 역량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지원센터가 지역사회 내에 설치될 필요성이 있다.

지역사회 내 청소년 담당기관체계를 통해 본 센터 구축이 가능하다고 본다.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청소년쉼터,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대안학교 등에 본 센터를 위탁하고 인력지원을 할 수 있다. 본 센터의 역할은 학교 밖 청소년의 탐색, 학교 밖 청소년의 역량 개발 및 증진, 학교 및 다른 청소년기관과의 유대 형성 및 연계, 지역사회 내 자원 탐색, 학부모 교육 및 상담 등 교내 배치되는 역량전문교사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다.

## 3) 청소년 역량 발달을 위한 학교대상 컨설팅 사업단 설립

청소년역량의 개발과 증진에 있어서 많은 수의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곳은 학교이다. 우리나라 청소년 95%이상이 학교를 다니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실제로 청소년역량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입시 위주의 교과과정 중심으로 움직이는 학교교육의 특성상 청소년역량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기 쉬우며 따라서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을 따로 개설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학교에서도 청소년역량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학습 등을 통해 학업과 역량의 병행을 시도하고 있다. 역량에 대한 학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학교 내에서 학교가 가진 체계를 이용해 역량개발과 증진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 막 청소년역량에 개입하기 시작한 학교의 입장하기에 학교 체계 안에서 청소년들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컨설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소년역량의 개발과 강화를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중앙기구를 개설하고 중앙기구의 업무에 각 지역별 학교의 체계를 이용해 청소년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 해주는 사업단 구축이 필요하다. 본 사업단의 역할은 각 학교별 역량증진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학교 내 체계를 이용한 역량증진활동 방안 및 프로세스 컨설팅,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시스템 마련, 학교에서 실행 가능한 역량 프로그램 소개,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등이다.

#### 4) 학생생활기록과 연계된 청소년 역량 개발 체험활동 항목 추가

정책적으로 청소년역량을 개발하고 증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며, 질 좋은 프로그램과 전문성 있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다고 하여도, 청소년 스스로 역량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러한 환경은 무용지물이다. 학교 안에서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통해 비자발적인 참여를 한다고 하여도 개인 자발적인 역량활동의 참여에 따른 효과성에 미치지 못한다. 즉,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역량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학생생활기록부에 청소년역량 활동 참여 기록과 역량 발달 사항에 대해 기재하여 동기부여 할 필요성이 있다. 역량관련 항목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청소년 스스로의 역량증진에 대한 동기부여와 인센티브 제공이다. 학년이 바뀔 때마다 한 해 동안 참여한 역량활동들이 기재되고, 그 해의 역량 수준이 기재되면서 전 년도에 비해 얼마나 증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대학입시 또는 취업활동에 있어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화 한다면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역량활동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유인제로 작용할 것이다. 두 번째는 학교 시스템을 이용한 청소년역량의 지속적인 관리이다. 역량패널이 구축된다면 그 결과를 통해서 현재 청소년들의 역량 수준과 추세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지만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 전체가 시스템에 소속되어 지속적으로 역량에 대해 모니터링 된다면 청소년의 95%에 이상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패널 데이터 속 익명의 자료가 아니라 본인의 자료를 통해 역량의 발달사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미시적, 거시적으로 중요한 자료이자 관리시스템으로 작용할 수 있다.

#### 5.4 초기청소년에서 후기청소년까지 청소년역량의 지속적인 관리

본 연구에서 기초분석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역량 수준이 초기청소년(초등학생)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뒤로 후기청소년(대학생)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지거나, 중기청소년2(고등학교)까지 낮아지다 후기청소년에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자의 경우, 후기청소년에 상승한다고 해도 초기청소년(초등학생) 시기의 역량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위의 결과들이 초기청소년에서 후기청소년시기까지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가 아니지만 현재는 청소년역량을 측정한 다년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시기별 역량 추세를 예측하는 방법뿐이다. 그렇다고 해도 시기에 따른 해석에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소년역량의 개발 및 증진을 위해 좀 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청소년역량지수측정도구를 사용하여 한국아동·청소년역량패널을 구축한다면, 초기청소년(초등학생)시기부터 후기청소년(대학생)시기까지의 역량 발달궤적에 대한 관찰과 그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파악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초기청소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청소년역량의 수준을 유지·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서 청소년역량에 대한 시각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정책수립에 있어서도 한시적이고 단발적인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 역량강화 관리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 기기의 활용을 제안할 수 있다. 연구를 통해 개발된 척도와 측정결과는 청소년역량 정책수립, 예산 및 인력 투입, 기관 목표설정, 프로그램 선정 등의 근거로서 거시적, 중시적 체계에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척도와 측정결과에 대한 미시적 접근의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다. 청소년 스스로 본인의 역량수준과 발달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본인이 공부한 만큼의 결과를 시험성적을 토해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본인의 전체 역량 수준과 영역별 수준의 높낮이, 역량증진의 결과 등을 파악해야 균형적인 역량발달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스마트 기기의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상용화된 현대사회에서 이미 만들어진 체계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스마트 기기 관련 어플 제작을 통해 역량측정과 모니터링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 국립통합관리센터에서 어플을 제작하고 배포한다면 해당어플을 통해 역량에 관한 많은 시도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패널자료와 간소화 척도를 이용해 본인 스스로의 역량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본인의 역량수준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역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영역별 발달상황을 확인하면서 본인에게 더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며, 그러한 역량이 어떠한 활동을 통해 얻어질 수 있으며 그 활동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 등 무수히 많은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플을 통해 본인 역량의 증진 정도를 확인하면서 청소년기 획득해야 할 중요 가치인 성취감을 획득할 수 있으며 성취감은 본인의 역량 증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 6 청소년 역량지수의 지속적 활용 방안 조성

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자료에 대한 패널 data화
2. 청소년 역량지수의 주기적 조사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간소화와 활용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6.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자료에 대한 패널 data화

청소년역량을 개발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반이 갖춰지고 나서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역량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일과, 향후 어떠한 변화를 보일 것인지를 파악하는 일이다. 현재 청소년역량의 수준을 파악하여 어떠한 영역이 발달되었고 어떠한 영역의 수준이 낮은지를 파악하여 발달한 영역은 유지 또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낮은 영역은 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매년 역량의 측정을 통하여 연도별 비교를 통해 역량의 수준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변화가 있다면 그 요인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역량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청소년역량이라는 지표를 통해 한국의 청소년 모집단을 대표할 만큼 많은 사례를 조사한 경우는 많지 않으며 같은 대상을 다년간 측정한 패널자료는 더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역량이 법제화되고 인력,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근거 없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과 같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연구되고 정의된 다른 유사한 청소년 역량의 개념들을 포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꼭 필요한 역량으로 구성된 청소년역량지표 측정도구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 작업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4년도에 진행한 “청소년역량지표 측정 및 국제비교 I” 과제를 통해 도출되었다. 그리고 올해 본 연구를 통해 현재 한국 청소년들의 역량수준을 파악하는 작업을 완료하였다. 이제 필요한 것은 측정도구를 이용해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한국 청소년들의 역량이 어떠한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역량패널”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패널은 초기청소년부터 후기청소년까지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24세가 되는 해까지 총 21년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여건 상 초등학교 4학년부터 24세까지 약 13년으로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패널의 대상은 학교 안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모두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고등학교 졸업 이후 청소년에 있어서도 대학 진학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이 모두 패널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 6.2 청소년 역량지수의 주기적 조사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발달적 수준과 역량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발달적 수준과 역량을 평가한 기초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청소년역량지수 조사」가 청소년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 이유는 첫째, 본 조사에서 개발된 척도는 9세부터 24세까지 모든 연령의 청소년기의 역량 수준을 측정하도록 도구를 개발하였다는 강점이 있어, 본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한다면 초기, 중기, 후기 청소년기 역량 비교가 가능하다. 둘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 등 전반적 역량을 측정하고 있어, 청소년이 중점적으로 강화 및 개발할 역량 등을 발견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청소년 역량지수는 국제 학력성취도 평가기구(IEA: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와 협력하여 청소년 역량을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자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성은모 외, 2013)” 타 국가의 청소년과 비교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본 조사를 청소년기본법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소년역량지수 조사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표 [부록5]-14 청소년역량지수 조사 관련 조항 개정안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청소년<br>기본법 | (신설) | 제16조(청소년역량지수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청소년의 생활환경,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 등 청소년 역량의 전반적 수준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조사를 할 수 있다.<br>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역량지수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청소년<br>기본법<br>시행<br>규칙 | (신설) | <p>제1조의 3(청소년역량지수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p> <p>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전국 단위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역량지수조사를 실시한다.</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역량조사를 청소년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③ 청소년역량지수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득·재산 등 경제 상태 및 가구 구성 등 청소년의 가구 환경에 관한 사항</li> <li>2. 청소년의 생활환경,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 등 전반적 역량 수준에 관한 사항</li> <li>3. 청소년 양육 환경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여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책수요 등을 반영하여 특정 영역 또는 계층에 대한 영역별 청소년역량지수조사를 할 수 있다.</p> <p>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역량지수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역량지수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p> |

아울러,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2014). 본 연구는 5개년 추진되는 연구로서 1차년도(2014년)에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2~3차년도(2015~2016)에는 IEA와 국제협력을 통해 ICCS 2016 국제비교연구를 실시하여 전국단위 청소년 역량에 대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제공할 역량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청소년 정책의 목적지향적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4~5차년도(2017~2018)에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시계열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한다. 또한 개발 및 보급된 청소년 역량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청소년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향후 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결과물을 제안하고자 한다.

### 6.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간소화와 활용 매뉴얼 개발 및 보급

한국청소년역량패널이 구축된다면 통해 한국 청소년 역량의 현 위치, 다 년간의 변화 등을 측정할 수 있겠지만 패널 측정 도구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거나 학교나 기관에서 개별 대상자의 역량을 스크리닝 하기에는 측정도구의 분량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학교나 기관에서 대상자들의 역량 수준을 파악하거나, 역량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선 역량지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도구가 현재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학교 또는 기관에서 역량담당 실무자의 채용과 역량증진 프로그램의 근거마련을 위해서라도 역량의 측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간소화된 청소년역량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간소화 되었지만 청소년에게 필요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요소들을 모두 측정 가능해야 할 것이다. 패널에서 사용될 측정도구에 비해서 측정의 정확도가 낮을 수도 있지만, 간소화 측정도구가 마련된다면 학교, 현장에서 대상자의 역량수준을 파악하거나 역량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사전사후 검사 등에 사용되어 활동의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 Abstract

### A Study on Measurement of Korean Youth Competency and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II: ICCS 2016

In the modern times the scientific technology of society has developed rapidly and the amount of information is increasing tremendously. Therefore, rather than having a large amount of information, selecting and appropriately utilizing high quality information has come to the fore. To keep pace with the changing society, there is increasing concern for the Competency of youth, who will be the key workers in the future society, and the education required to develop them. In this connection, interest level of youth competency improvement in Korea is increasing. The necessity for a systematic research to find out what youth abilities are and how to measure them has been brought up, at this time where there is a demand to strengthen youth competency for future individuals and society. Furthermore, for youth competency research, it is important to continuously carry out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so that not only find out Korean youth characteristics but also what abilities are required as citizens of a global village society. To address those goal,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has established a five year plan from 2014 to 2017, a policy research project called the 'Measuring Youth Competency Index and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 IEA ICCS 2016.'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measurement of the Korean youth competency for the 2nd year of the 'Measuring Youth Competency Index and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II: IEA ICCS 2016' research project based on the measuring tools of Korean youth competency that was developed 1st year(2014) research project. For the this project, 11,621 Korean youth who were elementary school (5/6 grade), middle school (1/2/3 grade), high school (1/2/3 grade), and university students in nationwide 17 cities and provinces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during June ~ July, 2015. A measuring tools,



which consisted of 242 items based on Korean youth competency index(37 life learning competency questions, 48 life management competency questions, 40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questions, 46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y questions, 63 social participation competency questions and 8 demographic questions,) were applied this survey. As a result, the total score of Korean youth competency was 2.92 points (73%) in 4 points(100%). Life Management Competency (3.01, 75%)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y (3.01, 75%) were highest score, but Social Participation Competency (2.75, 68.75%) was lowest score;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2.93, 73.25%), Life-long Learning Competency (2.92, 73%). In the changes in youth competency score, The Korean youth competency was decreasing from a stage of elementary school to a stage of university. In the school level,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highest score, but university students were lowest score. In gender, the score of male youth competency was more higher than female youth. In the local area, Pusan was highest score at 2.98 points(75%), but Jeollabuk-do was lowest score at 2.87(72%). Based on the results, some Korean youth policies were suggested to increase their competencies.

## 201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15-R01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 이경상·조용하
- 15-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 / 최창욱·문호영·김진호
- 15-R02-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 -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문호영
- 15-R03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 미디어 활용 연구 / 배상률
- 15-R04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임지연·김영석·김혁진
- 15-R05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재정립 및 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 김형주·김정주·김인규
- 15-R06 동북아시대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 김기현·황세영·이경자·강영배
- 15-R07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황여정·김정숙·이수정·변정현
- 15-R08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 김지경·정연순
- 15-R0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백혜정·송미경
- 15-R10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 김지연·좌동훈·박세경·한미경
- 15-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총괄보고서 / 김영지·김희진·이민희·박선영
- 15-R1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청소년 인권의식과 시민적 권리의 경험에 대한 관련 요인 분석 / 김진석
- 15-R11-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2015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김희진
- 15-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영한·오해섭·성윤숙·정윤미
- 15-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과 추진전략 개발 / 오해섭·김세광
- 15-R12-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성윤숙·홍성호
- 15-R12-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정책모니터단 운영 연구 / 김영한·정윤미
- 15-R13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현철·모상현·오성배
- 15-R13-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Ⅲ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현철·모상현
- 15-R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Ⅱ : 위기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이유진·박선영
- 15-R14-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Ⅱ :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모형 개발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강경균·이춘우
- 15-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Ⅰ / 김경준·김태기
- 15-R15-1 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비교 연구 / 이진영·장안리·김판준·임영언·정호원·성일광
- 15-R16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 사업보고서 / 이종원·서정아·정은주·강현철·한영근
- 15-R16-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 데이터분석보고서1 -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이 청소년 행복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 서정아
- 15-R16-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 데이터분석보고서2 -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 정은주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자원방안 연구Ⅲ / 윤철경·최인재·유성렬·김강호 (자체번호 15-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자원방안 연구Ⅲ / 전영실·김지영·박성훈 (자체번호 15-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자원방안 연구Ⅲ : 조사결과자료집 / 윤철경·최인재 (자체번호 15-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 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청소년의 사회참여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분석 연구 / 김태준·오민아·이영훈 (자체번호 15-R18-3)

## 연구개발직립금

- 15-R19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 / 김정숙·김기현·황세영
- 15-R20 대학비전학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사업 추진방안 연구 / 윤민중·김기현·한도희

## 수 시 과 제

- 15-R2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 기초연구 / 김영지·김희진
- 15-R22 '사회적 통증' 개념을 통한 청소년 정신건강 이해 : 증독과 자살생각 / 장근영·전우영
- 15-R2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 황세영·조성화
- 15-R23-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워크북 / 황세영·조성화·곽정난·김경전·현명주
- 15-R24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생애과정 연구를 중심으로 / 김현철
- 15-R25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 김정숙·김기현
- 15-R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안과 의제 / 김지연
- 15-R27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 좌동훈
- 15-R28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 김기현·좌동훈·강경균·김정숙·황세영·문호영·윤민중
- 15-R29 의료형 청소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김지연
- 15-R30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 김기현·김형주

- 15-R31 국가근로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운영체계의 개선 - 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 김지경·윤민중
- 15-R32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 최창욱·좌동훈
- 15-R33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 이경상·장원경
- 15-R34 청소년분야 ODA 사업추진 기본방향 마련 / 최창욱·한도희
- 15-R35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청소년·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 문호영·최창욱

## 수 락 과 제

- 15-R36 청소년활동 중장기 수요 및 공급기반 조성 연구 / 김영한·유성렬·임성택·주동범
- 15-R37 2014년도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적용 게임물 평가 / 배상률·유홍식·김동일
- 15-R38 201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이유진·김영한
- 15-R39 2015년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최홍일
- 15-R40 가출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쉼터 중장기 발전방안 / 백해정·좌동훈
- 15-R41 청소년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개선방안 연구 / 서정아·전명기
- 15-R42 청소년 디지털 매체 및 서비스 이용실태 연구 / 성윤숙·김경준·김희진
- 15-R42-1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 사례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 / 성윤숙·김경준·김희진
- 15-R43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최인재·이경상·김정숙·장근영
- 15-R44 청소년·가족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정아·조성은
- 15-R45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경·최인재
- 15-R46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위상 정립방안 모색 연구 / 김현철·최창욱
- 15-R47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 / 김지경·이상준
- 15-R48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 효과 분석 / 최창욱·성은모·정윤미
- 15-R49 2015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김기현
- 15-R50 2025 청년 전망 및 향후 정책 추진과제 연구 / 김기현·김형주·박성재·민주홍·김종성
- 15-R51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 김영지·모상현·이용교
- 15-R52 성남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방안 연구 / 김영지·모상현
- 15-R5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5 / 김희진·이종원·유성렬·김진석
- 15-R54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연구 / 최창욱
- 15-R55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형주·김정주·김혁진
- 15-R5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관리체계 개선 및 2015년 사업 효과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영지·정은주·김정주
- 15-R56-1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성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연구 / 정은주
- 15-R57 과학적 실험 중심 모형기반 생명과학 교수학습 디자인 실험연구 / 황세영
- 15-R58 2015년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 / 황세영·윤민중
- 15-R59 휴먼네트워크 협력기관 실태조사 / 성은모·강경균
- 15-R60 청소년의 'X-질문' 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 강경균
- 15-R61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중장기 계획 연구 / 김영한·임지연

- 15-R62 휴먼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 연구 / 성은모 · 서동인
- 15-R63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따른 연구 / 김영한 · 오해섭 · 정윤미
- 15-R64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 모상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5-S01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연구결과 공개 보고회 (1/19)
- 15-S02 온라인 도움행동의 원인 (2/9)
- 15-S03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1권역 (2/23~27)
- 15-S04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권역 (2/23~27)
- 15-S05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3권역 (2/23~27)
- 15-S06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권역 (2/23~27)
- 15-S07 2014년도 제1차 연구성과발표회 (3/12)
- 15-S08 2014년도 제2차 연구성과발표회 (3/13)
- 15-S09 일본진로교육의 현황과 과제 (3/31)
- 15-S10 2015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4/16)
- 15-S11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위원 워크숍 (4/28)
- 15-S12 학교 밖 청소년 자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교육 (4/29)
- 15-S13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1권역 (5/12~13)
- 15-S14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권역 (5/18~19)
- 15-S15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3권역 (5/26~27)
- 15-S16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권역 (5/28~29)
- 15-S17 교육 소외와 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청소년 정책 : 지역 방과 후 청소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18~19)
- 15-S18 2015년 꿈키움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5/21)
- 15-S19 2015 청소년 문화와 안전 국제포럼 (6/4)
- 15-S20 2015년 대안학교 진로직업교육 컨설팅위원 워크숍 (6/4)
- 15-S21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6/26)
- 15-S22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I 데이터 분석 세미나 (7/2)
- 15-S23 2015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7/8~10)
- 15-S24 학교 밖 청소년 자원사업 연계기관 관계자 워크숍 (7/9~10)
- 15-S25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1권역 (7/27~28)
- 15-S26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2권역 (7/28~29)
- 15-S27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3권역 (8/3~4)
- 15-S28 2015년 제2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7/30~31)
- 15-S29 청소년의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방안 및 추진전략 (7/22)
- 15-S30 학교 밖 청소년 자원정책 해외사례 (8/11)
- 15-S31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담당자 교육 워크숍 (8/21)

- 15-S32 제2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의 성인기로의 이행 (9/17)
- 15-S33 민족정체성 확립의 역량을 미치는 4가지 주요요소 : 1960년대 및 70년대 초와 80년대 및 90년대 초에 자라난 젊은세대의 비교 (9/14)
- 15-S34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5 (9/16)
- 15-S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과발표회 (9/18)
- 15-S36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10/19)
- 15-S37 제5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0/23)
- 15-S38 한·중 국제세미나 (10/27)
- 15-S39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워크숍 -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10/21~22)
- 15-S40 제4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 한·러 차세대 전무가 대화 : 동북아미래를 위한 한·러 청소년(차세대) 정책협력 (11/17)
- 15-S41 국회다정다감포럼 -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 (11/5)
- 15-S42 2015년 시·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업무 담당자 워크숍 (11/26~27)
- 15-S4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심화워크숍 (12/17~18)
- 15-S44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12/10)

##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1호(통권 제7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2호(통권 제77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3호(통권 제7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4호(통권 제79호)

## 기 타 발 간 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9호 :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0호 :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1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2호 : 기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3호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4호 :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9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0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1호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연구Ⅳ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2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3호 : 청소년의 휴대전화 보유 현황과 이용빈도, 휴대전화 의존도  
- KCYPs 초1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4호 : 청소년 체험·여행·문화활동과 삶의 만족도

– KCYPS 초4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5호 : 초등학생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분석 – KCYPS 초4 패널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호 : 지금, 이 시대 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에 주목해야하는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호 : 아동, 청소년 보호체계 쟁점 사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3호 :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체성, 재정립이 필요한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4호 :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5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안과 의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6호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7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의 필요성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8호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9호 : 그 나라는 어때? 세계의 청소년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0호 : 의료형 청소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1호 :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2호 : 청소년의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이용 현황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해외사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3호 : 지역사회의 청소년 인성교육 실태와 과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4호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여건 조성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5호 : 청소년 나눔활동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6호 :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 및 사업 현황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7호 : 국가 근로 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운영체계의 개선

–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8호 : 재외동포청소년의 주요 이슈와 지원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9호 :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0호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준 개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1호 :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청소년·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2호 : 청소년분야 ODA 사업 추진 기본방향 마련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3호 : 학령기에 학교를 나온 청소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4호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청소년현안 Blue Note 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여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가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겨울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1  
연구보고 15-R18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 IEA ICCS 2016**  
**-총괄보고서-**

---

인 쇄 2015년 12월 24일

발 행 2015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동명기획 전화 044)868-7542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088-5 94330

979-11-5654-066-3 (세트)